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8호 2025.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한중 사료의 비교와 발해상(像)

김진한 | 당이 본 '발해' 7
윤재운 | 금대(金代) 자료에 나타난 발해인(渤海人)의 이미지와 그 역사적 의미 51
박순우 | 발해 멸망 후 발해인 관련 기록의 비교 분석
– 요대 고모한과 금대 장호 가계 인물 기록을 중심으로 93
권은주 | 청대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의 계통과 강역 인식 131
임상선 | 한·중 발해 사료의 유통과 계보 177

논문

안정준 | 낙랑군 점제비(粘蟬碑)의 건립 배경 217
최정범 | 전환기 변경의 관점으로 본 7세기 후반의 요동 261
오병한 | 1910년대 평북 의주·용천 출신들의 중국 안동현 이주와 벼농사 305
김봉식 | 섭정 히로히토와 궁중 349
홍영미 | 문화대혁명과 중국의 고고학
– 고고(考古)의 군중화와 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381
손장훈 |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동향 –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413
김봉근 | 중국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성립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고고지층학과 유형학을 중심으로 451

서평

지관순 | 국가가 서술하는 역사 교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중국 시진핑시대 국가 편찬 대학교재의 역사교육』
(권은주 외, 동북아역사재단, 2025) 497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5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historical materials and Balhae statues

Kim Jinhan ▮ Tang's Recognition of Balhae 7

Yun Jaewoon ▮ Perceptions of Balhae Identity in Jin Dynasty Records and Their Historical Context 51

Park Soonwoo ▮ Comparative Analysis of Records Regarding the Balhae People, after Balhae's Fall: Focusing on the Records of Family Members of Go Mo-han(高模翰) of the Liao Dynasty and Zang Ho(張浩) of the Jin Dynasty 93

Gwon Eunjoo ▮ Lineages and the Territory Recognition of the Balhae(渤海) as Seen in *Researches on Manchu Origins*(『滿洲源流考』) in the Qing Dynasty 131

Lim Sangseon ▮ Distribution and Genealogy of Balhae Historical Materials in Korea and China 177

Articles

An Jeongjun ▮ 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JeomJe Stele(秥蟬碑) of Nakrang Commandery(樂浪郡) 217

Choi Jungbum ▮ The Liaodong of the Late 7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 Period 261

Oh Byounghan ▮ Migration and Rice Farming in Andong Prefecture, China from Ui-ju, Yong-cheon, Pyeongbuk in the 1910s 305

Kim Bongsik ▮ Regent Hirohito and the Court 349

Hong Youngmi ▮ The Cultural Revolution and Chinese Archaeology: A Critical Study of the Mass Mobil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Archaeology 381

Sohn Janghun ▮ Chinese Study of 'Resisting United States and Aiding Korea' Campaign: Focusing on State-Society Relationship 413

Kim Bonggeun ▮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Archae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Focusing on Archaeostratigraphy and Typology in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51

Book Review

Ji Kwansoon ▮ How Should We Read History Textbooks Narrated by the State? 49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한중 사료의 비교와 발해상(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1

당이 본 ‘발해’

김진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책봉호로 본 발해
III. 국호로 본 발해
IV. 사신으로 본 발해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발해는 698~926년까지 존속하였다. 발해인들이 남긴 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 측 자료는 발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당대(唐代) 자료에 담긴 발해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의 발해인식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는 가네코 슈이치(金子修一)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서에 보이는 책봉호와 국서 양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당대 국제질서의 양상을 밝혔으며, 발해 책봉호와 국호를 주변국과 비교함으로써 발해의 국제적 위상과 당의 인식에 대해 정치한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은 발해를 내속국으로 대우하였으며, 신라에 비해 한 단계 낮춰보았다고 했다.[1] 야마우치 신지(山內晉次)는 외교문서 형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8세기 당의 국제질서를 논하였다. 그 결과 발해와 신라의 위상은 토번·돌궐·돌기시 등 내륙아시아 국가보다 아래에, 일본과 서역의 소국들보다는 위에 자리하였다고 보았다.[2] 하마다 코사쿠(濱田耕策)는 발해의 대당외교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신라와는 소중화라는 가시적인 명분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고 보았다.[3] 송기호는 조공·책봉·기미제도를 통해 당나라 지방정권으로 바라보는 중국 학계의 대발해인식을 비판하면서 당이 발해를 외국으로 인식했음을 살펴보았다.[4] 이 밖에 쟁장사건이나 국서 기재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위상을 검토하는 등 활

---

* 투고: 2025년 4월 7일, 심사 완료: 2025년 5월 13일, 게재 확정: 2025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15). 유의미한 지적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1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史』, 名著刊行會.

2 山內晉次, 1986, 「唐よりみた八世紀の國際秩序と日本の地位の再檢討」, 『續日本記硏究』 245.

3 濱田耕策, 2003, 「渤海國の對唐外交」,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4 송기호, 2020,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한 연구가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되 비교적 소홀했던 당의 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배경을 염두에 두며 살펴보려 한다. 당의 대발해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검토 대상으로는 책봉호·국호·사신을 주목하였다. 책봉호를 통해서는 발해의 '독립성'을, 국호를 통해서는 '종족적 정체성'을, 사신을 통해서는 '국제적 위상'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Ⅱ. 책봉호로 본 발해

발해는 고왕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대건황(大虔晃)을 끝으로 책봉호가 보이지 않지만 당의 발해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먼저 책봉호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보겠다.

〈표 1〉 발해 국왕 책봉호 일람표[5]

官制 / 王/年度		品(文散官)	職事官	封爵
高王	713		左驍衛員外大將軍(정3품) 忽汗州都督	渤海郡王(종1품)
武王	719		左驍衛大將軍(정3품) 忽汗州都督	渤海郡王
文王	737		左驍衛大將軍 忽汗州都督	渤海郡王
	開元中[6]		左金吾大將軍(정3품)	
	天寶中	特進(정2품)	太子詹事賓客(정3품)	

5 〈표 1〉은 『舊唐書』·『新唐書』·『新五代史』·『唐會要』·『冊府元龜』 및 『발해 사학사 연구』(송기호, 2020, 위의 책, 407~414쪽)에 수록된 표 11-3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6 『唐會要』 卷96 渤海조에 따르면, "以開元二十六年 襲其父武藝忽汗州都督渤海郡王左金吾大將軍 …"이라고 나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文王	762		檢校太尉[7](정1품)	渤海國王(정1품)
	大曆中		司空太尉(정1품)	
康王 大嵩鄰	795.2.		忽汗州都督	渤海郡王[8]
	?		右驍衛大將軍[9](정3품)	
	798	銀靑光祿大夫(종3품)	檢校司空[10](정1품)	渤海國王
	805	金紫光祿大夫(정3품)	檢校司空 忽汗州都督	渤海國王
	805.5.		檢校司徒(정1품)	
	806.9.[11]		檢校太尉	
定王 大元瑜	809	銀靑光祿大夫	檢校祕書監(종3품) 忽汗州都督	渤海國王
僖王 大言義	813.1.[12]	銀靑光祿大夫	檢校祕書監 忽汗州都督	渤海國王
宣王 大仁秀	818.5.	銀靑光祿大夫	檢校秘書監 忽汗州都督	渤海國王
	820.1.	金紫光祿大夫	檢校司空	
大彝震	831.1.	銀靑光祿大夫	檢校秘書監 忽汗州都督	渤海國王
大虔晃	858.2.	銀靑光祿大夫	檢校秘書監 忽汗州都督	渤海國王
大瑋瑎	895			渤海王[13]
大諲譔	923~926			渤海王[14]

7 『新唐書』 卷219 渤海.

8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 貞元 11年(795)조에는 "冊拜嵩鄰爲忽汗州都督勃海王"으로 나온다.

9 『新唐書』 卷219 渤海. 『唐會要』 卷96 渤海에는 "至十四年(798)三月 加渤海郡王兼驍尉大將軍"으로 나온다.

10 『冊府元龜』 卷965 封冊3에는 798년 3월 "加渤海郡王兼左驍衛大將軍忽汗州都督大嵩璘 銀靑光祿大夫 簡較司空 冊爲渤海國王 依前忽汗州都督"으로 나온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384쪽에 의거함).

11 『舊唐書』 卷14, 憲宗 上. 『舊唐書』 卷199下 渤海靺鞨조에는 806년 10월에 檢校太尉를 준 것으로 나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13년 고왕이 발해군왕으로 책봉을 받았으며 문왕대 발해국왕으로 진봉(進封)되었다. 문왕 사후 강왕대 발해군왕으로 내려갔다가 이후 발해국왕으로 고정되었다.[15] 무측천이 살아 있을 당시 발해는 '토벌' 대상이었으나 중종이 즉위하면서 '외교' 대상으로 바뀌었다. 변화 배경에 대해 당의 내부문제나 동북방정책, 발해의 성장 등 의견은 분분[16] 하지만 발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진국왕(振國王), 즉 본국왕호를 인정하지 않고 발해군왕으로 임명한 점이 유의된다. 이와 관련해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한대(漢代) 이래 하북성 해안지대에 두었던 발해군의 명칭을 취해 발해군왕에 책봉한 것으로 고구려·백제·신라 각각 요동군왕·대방군왕·낙랑군왕에 책봉된 것같이 구명(舊名)으로 작호하여 중국의 국토임을 밝히려 한 것이라고 하였다.[17] 하마다도 당이 대조영에게 전한(前漢)의 발해군에서 유래한 군명을 왕호로 주어 외신의 지위에 둠으로써 전통적인 중국 판도에 편입시키고자 한 의미라고 보았다.[18]

가네코는 이민족에게 수여한 왕·국왕·군왕 성격을 분류하여 본국왕(本國王)이 외신층의 이민족에게 사용되고 있다면, 군왕은 내속하여 당의 판도에 편입된 제족(諸族)에 대해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발해가 당 영역 내로

---

12 『舊唐書』 卷15 憲宗 下에는 813년 1월 "冊大言義爲渤海國王 授秘書監忽汗州都督"으로 나온다.

13 『唐會要』 卷57 翰林院, "乾寧二年 十月 賜渤海王大瑋瑎勅書 翰林稱加官合是中書撰書意 諮報中書" 魏國忠·朱國忱·郝慶雲, 2006,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51쪽에서는 大瑋瑎가 당의 책봉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14 『新五代史』 卷67 吳越世家7, 錢鏐, "(同光)年間 遣使冊新羅渤海王."

15 김종복은 당이 발해국왕에 대해 책봉호의 강등과 승진을 되풀이함으로써 통제 내지 회유하려 했다고 보았다(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5~213쪽).

16 김진한, 2017, 「張行岌의 使行記事로 본 渤海의 對唐 및 突厥關係」, 『대동문화연구』 97, 153~162쪽.

17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136쪽.

18 濱田耕策, 2000, 『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 16~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발해군왕의 작위가 당의 내신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내속한 이민족과 동렬로 취급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이어 『속일본기』에 보이는 727년 발해사신이 왔을 때 표기한 발해군왕을 근거로 발해가 일찍부터 외교상 수장의 칭호로 적극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았다.[19]

후루하타 도루(古畑徹)는 발해군이 당 본토의 지명이고 발해군왕을 받은 사례가 당 고조의 조카인 이봉자(李奉慈)나 헌종조의 무인인 고숭문(高崇文)이라는 점을 볼 때, 내신의 작위가 분명하며 작호로 보는 한 대조영은 내신, 발해는 내속국으로 취급했다고 하였다.[20]

사카요리 마사시(酒寄雅志)는 발해군왕호는 본래 중국 왕조의 내신에 준 군왕호이고, 고구려가 있는 요동은 예전 중국 군현이었다는 강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대조영을 발해군왕이라는 당의 내신에 위치짓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현실적으로도 그에 따라 해의 견제와 안동의 경영을 기대했다고 보았다.[21]

웨이꿔종(魏國忠)은 당 현종이 대조영을 내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봉도 국내신료를 대우하는 봉수체제(封授體制)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22]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발해군왕'으로 책봉받은 발해를 내신 혹은 내속한 이민족으로 당이 바라보았다고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해군왕'호를 외교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이다. 가네코의 분석을 따르면 발해군왕호는 일반적인 외신보다는 중국 국내의 신하인 내신에 적합한 칭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에서 이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확인된다.

A. (개원) 13년(725) 11월 병술에 태산에 이르렀다. … 임진에 현종이 朝覲하는

19 金子修一, 2001, 앞의 책, 277~278쪽.
20 古畑徹, 2018, 『渤海國とは何か』, 吉川弘文館, 106~107쪽.
21 酒寄雅志, 2024, 『渤海と日本』, 吉川弘文館, 164쪽.
22 魏國忠 · 朱國忱 · 郝慶雲, 2006, 앞의 책, 2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帳殿에 행차하자, 크게 갖춰 늘어섰다. 문무백관, 二王의 후예, 孔子의 후손, 여러 지역의 朝集使, 岳牧擧賢良 및 儒生, 賦頌을 올린 文士, 戎狄夷蠻羌胡로 朝獻하는 나라인 突厥頡利發, 契丹·奚 등 王, 大食·謝颺·五天의 十姓, 崑崙·日本·新羅·靺鞨의 侍子 및 使, 內臣으로 番인 高麗朝鮮王, 百濟帶方王, 十姓摩阿史那興昔可汗, 三十姓左右賢王, 日南·西竺·鑿齒·雕題·牂柯·烏滸의 酋長이 모두 자리에 있었다.[23](밑줄은 필자 강조. 이하 동일)

위 사료는 725년 당 현종이 태산에서 봉선의례를 행할 때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을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조헌지국(朝獻之國)과 내신지번(內臣之番)이 구분되어 있으며, 조헌지국에 포함된 말갈은 발해로 보이며 발해를 외신으로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24] 거란이나 해 역시 외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차례는 참석한 나라와 파견된 자들의 위상(왕 및 시자·사신)을 반영하여 배치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로 볼 때, 당은 발해 무왕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여 명목상 내신으로 취급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외신이자 조공국으로 인식했다고는 보는 것이 적확하다. 이는 다음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B. 이제 천보 11재(752) 지리에서 唐土는 동으로 안동부에 이르고, 서로는 안서부에 이르며, 남으로는 일남군에, 북은 단우부에 이른다. 남북은 전한의 성함

23 『舊唐書』卷23 禮儀志3 封禪 高麗朝鮮王, "(開元)十三年 十一月丙戌, 至泰山 … 壬辰 玄宗御朝覲之帳殿 大備陳布 文武百僚 二王後 孔子後 諸方朝集使 岳牧擧賢良及儒生文士上賦頌者 戎狄夷蠻羌胡朝獻之國 突厥頡利發 契丹奚等王 大食謝颺五天十姓 崑崙日本新羅靺鞨之侍子及使 內臣之番 高麗朝鮮王 百濟帶方王 十姓摩阿史那興昔可汗 三十姓左右賢王 日南西竺鑿齒雕題牂柯烏滸之酋長 咸在位."

24 古畑徹은 '朝獻之國을 外臣에 해당하며 열거된 나라들은 당의 영역 밖에 있으면서 일정한 자립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다(古畑徹, 2021, 『渤海國と東アジア』, 汲古書院, 2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같으며, 동은 미치지 못하고, 서는 넘었다. (漢地는 동으로 낙랑현토에 이르는데 지금의 고려와 발해이다. 지금 요동에 있는데 당토가 아니다.)[25]

『구당서』 지리조에 따르면, 752년 당의 영토가 동쪽으로 안동부에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한나라 땅은 동쪽으로 낙랑현토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의 고려와 발해이다. 지금 요동에 있으니 당의 땅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요동은 당의 영토가 아니며 그곳에 있는 발해가 독립국임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발해군왕호를 외교적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자. 쟝쇼펑(姜守鵬)은 발해가 당조에 예속되었다는 근거로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며, 일본고대 문헌에서 보듯 발해왕들은 책봉을 중시하여 일본과 왕래하는 국서에서도 대무예는 발해군왕을, 대흠무는 발해군왕과 발해국왕을 자칭했다고 보았다.[26]

한편, 이성규는 727년 발해는 나름 안정·발전기로 들어섰고, 국서에서도 자부하는 등 발해와 일본 양국의 항례관계 기록을 보면 중국 관작을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리가 없다고 보았다.[27] 송기호는 이러한 사례가 유일한 것이고, 발해 자신의 국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해인 스스로의 선택은 아니며, 천황제 질서 의식에서 일본이 선택한 용어가 발해군왕이라고 하였다.[28]

727년으로 추정되는 일본 평성궁에서 나온 목간에 '발해사' 묵서명이 보

25 『舊唐書』 卷38 地理1, "今擧天寶十一載(752) 地理 唐土東至安東府 西至安西府 南至日南郡 北至單于府 南北如前漢之盛 東則不及 西則過之 [漢地東至樂浪玄菟 今高麗渤海是也 今在遼東 非唐土也]."

26 姜守鵬, 1982, 「渤海隸屬于唐朝」, 『學習與探索』1982-4; 孫進己·孫海 主編,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4, 哈爾濱出版社, 482쪽. 최근 박유정도 건국 초기 발해는 당의 책봉호를 이용하여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그 결과 일본 측에 관련 기록이 남았던 것으로 보았다(박유정, 2023, 「책봉호 및 압번사 명칭 변화를 통해 살펴본 8세기 渤海-唐 관계」, 『중앙사론』 60, 12쪽).

27 이성규, 1996, 「中國의 分裂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韓國古代史論叢』 8, 312~315쪽.

28 송기호, 2020, 앞의 책, 368~3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다. 여기서도 발해군이라는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29] 만일 발해가 책봉호를 외교적으로 활용했다면 '발해국왕'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발해가 당으로부터 '발해국왕'으로 책봉된 것은 762년이다. 그런데 753년 발해의 견일본사행에서 발해국왕호를 일본이 사용하고 있다.[30] 발해가 당으로부터 '국왕' 책봉호를 받기 이전이다. 앞선 의견대로라면 발해는 발해군왕호를 대일본외교에 활용해야 하며, 일본 역시 발해군왕이라고 써야 한다. 그럼에도 발해국왕이라고 썼다는 사실은 책봉 여부에 개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발해가 일본과 주고받았던 국서 속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728년 12월 고제덕 등이 국서를 올렸는데, 그 사(詞)에 '무예계'라고 하였다. 728년 4월 일본의 답서에는 '천황경문발해군왕'이라고 하였다. 739년 12월 문왕의 국서에는 '흠무계'이며, 753년 5월 '발해왕언' 753년 6월 답서에는 '천황경문발해국왕'이다. 이렇듯 발해에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 스스로 발해군왕이라고 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모두 일본의 국서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속일본기』 772년 2월 기묘조에 따르면, 발해왕에게 서를 내리며 이르기를, '천황경문고려국왕~발해군왕'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발해왕이라면서 문왕을 고려국왕으로 칭하고, 예전 무왕을 언급하며 발해군왕이라고 하고 있다. 당시 문왕은 발해국왕으로 진봉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고려국왕을 쓰고 있다. 발해군왕호 역시 일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문왕이 외교적으로 발해국왕을 쓰려 했다면 762년 진봉 이후 적극 활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발해국왕 칭호는 777년 4월 계묘에 사도몽이 발해국왕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다.

책봉호는 문왕대 '군왕'에서 '국왕'으로 진봉된다. 송기호는 종래의 발해군에서 발해국으로 승격되면서, 이에 따라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승격되

---

29 長屋王邸에서 발견된 목간에 '渤海'가 보인다. 이는 郡을 생략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발해라고 했고 상대방도 발해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30 『續日本紀』 卷19 寶字稱德孝謙皇帝 孝謙天皇, 天平勝寶 5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명목적이지만 이때 비로소 당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았다고 하였다.[31] 하마다는 762년 발해국왕 진봉시점을 발해사 시기구분의 획기로 주목하였다. 중국 왕조의 내지에 준한 군왕으로부터 벗어나 발해라는 이름을 관한 국왕으로 승작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32]

'발해국왕' 책봉을 계기로 발해가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목상 그렇다 할지라도 725년 태산 봉선에서 확인되듯, 이미 당은 발해를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구나 국왕으로 진봉되기 전부터 발해를 국으로 본 사례나 군왕이 아닌 국왕으로 부른 경우가 확인된다.

C. 이 해(738) 발해말갈왕 대무예가 죽었다. 그 아들 欽茂가 이어서 즉위하였다. 사신을 보내 조제하고 책립하였다.[33]

D. 발해국왕 무예는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34]

E. 공의 휘는 구령이다. 자는 자수이다. 일명 박물이다. 그 선조는 범양방성인이다. … 발해국왕 무예가 우리 임금의 명을 어겼다. …[35]

---

31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20쪽. 한편, 古畑徹은 적어도 9세기 중반까지 당은 공식적으로 발해를 말갈의 일종으로 보고 있었기에 발해국왕은 本國王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代宗 즉위에 따른 포상으로서 군왕에서 국왕으로 단순히 進爵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9세기 전반까지 당에 의한 내신 취급은 계속되었다고 보았다(古畑徹, 2018, 앞의 책, 110~112쪽).

32 濱田耕策, 2003, 앞의 글, 54쪽.

33 『舊唐書』 卷9 本紀9 玄宗下 開元 26年, "是歲 渤海靺鞨王大武藝死 其子欽茂嗣立 遣使弔祭冊立之."

34 『冊府元龜』 卷1000 外臣部 45 讐怨, "渤海國王武藝 本高麗之別種也."

35 『全唐文』 卷440, 徐浩, 唐尙書右丞相中書令張公神道碑, "公諱九齡 字子壽 一名博物 其先范陽 方城人 … 渤海國王武藝違我王命 思絶其詞 中書奉章 不愜上意 命公改作 援筆立成 上甚嘉焉 卽拜尙書工部侍郎兼知制誥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 당왕이 발해국왕에게 칙서 1권을 내렸다.[36]

사료 C에서는 '발해말갈왕 대무예가 죽었다'고 표현했다. 사료 D에서는 '발해국왕 무예'라고 하였다. 이 역시 발해를 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료 E는 당상서우승상중서령장공신도비문의 일부이다. 이를 작성한 사람은 당대 문장가인 서호(徐浩, 703~782)로 무왕을 '발해국왕 무예'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도비 작성의 정확한 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비문 가운데 장구령의 아내가 757년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보면 대략 757~782년 사이에 쓰였음이 분명하다. 사료 F는 견발해사였던 소야조신전수(小野朝臣田守)가 당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758년 당 숙종이 발해국왕에게 칙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한 부분이다. 칙서에서 문왕을 '발해국왕'이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안녹산의 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해에 보낸 국서로 '발해국왕'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책봉호와 별개로 무왕을 발해군왕이 아니라 발해국왕으로 보았다. 즉, '국왕' 책봉 이전에 발해를 독립된 나라로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762년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의 진봉은 이미 외신으로 인식되었던 발해에 걸맞은 '국왕'호를 뒤늦게 준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안사의 난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반란군에 가담치 말도록 발해를 포섭하려는 의도도 예상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흘한주도독'호이다. 당은 고왕을 흘한주도독으로 삼았다. 구리하라 마쓰오(栗原益男)는 '당의 주변민족에 대한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내지화·기미·책봉'을 들었다.[37] 이에 따르면, 발해는 기미주 가운데 하나로 내지화보다는 독립적이지만 책봉보다는 종속적인 상태이다.

---

36 『續日本紀』 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12月戊申, "其唐王賜渤海國王勅書一卷."

37 栗原益男, 1980, 「唐帝國の盛衰」, 『八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 平凡社, 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에 대해서는 여러 중국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다. 양유슈(楊雨舒)는 발해군왕(발해국왕)과 홀한주도독 가운데 실제 관직인 홀한주도독이 주의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38] 슌위량(孫玉良)은 표면상 발해를 국(國)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의 변주(邊州)로 홀한주도독부 또는 발해도독부로 삼아 영주도독에 속하게 했다고 한다.[39] 양쟈오촨(楊昭全)도 발해가 책봉을 받으면서 당의 지방행정구획이 되고 관할을 받게 되었다면서 처음에는 영주도독부, 706년 이후 유주도독부, 740년 이후 평로군절도사 관할로 바뀌었으며 안사의 난 뒤에는 치청평로절도사 아래 설치된 전문관원이 발해사무를 관리했다고 하였다.[40] 쟝얀(庄嚴)은 당이 책봉한 관직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류인 발해군왕호는 번속의 관직, 둘째 류는 무직(武職)과 문산관(文散官)으로 당의 번속이면서 중앙정부의 관직으로 일반적인 속국관계는 아니며 발해가 당 중앙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표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류는 홀한주도독으로 당의 지방관리직무로 당 통할 아래 있는 지방정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했다.[41] 쟝쇼펑은 발해왕을 책봉할 때 홀한주도독으로 임명했으므로 이는 당에 예속되었을 뿐아니라 당 왕조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다만 도독은 당이 임명했으나 중앙정부가 파견한 것은 아니고 발해왕이 세습했다고 하였다.[42]

그러나 기미부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발해에 설치한 도독부를 근거로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그 실상을 무시한 것이다. 당은 안사의 난을 계기로 국력이 쇠퇴하며 기미정책도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

---

38 楊雨舒, 2004,「渤海国与唐朝关系述略」,『東北史地』2004-8, 21쪽.

39 孫玉良, 1983,「唐朝對渤海的經營與管轄」,『黑龍江文物叢刊』1983-6; 孫進己·孫海 主編, 1997, 앞의 책, 462쪽.

40 楊昭全, 1982,「渤海是我國唐王朝轄屬的少數族地方政權」,『求是學刊』1982-2; 孫進己·孫海 主編, 1997, 위의 책, 470쪽.

41 庄嚴, 1982,「渤海是唐朝統轄下的地方民族政權」,『遼寧大學學報』1982-4; 孫進己·孫海 主編, 1997, 위의 책, 477쪽.

42 姜守鵬, 1982,「渤海隸屬于唐朝」,『學習與探索』1982-4; 孫進己·孫海 主編, 1997, 위의 책, 4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않고 기미제도의 이념 또는 전성시대의 모델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43]

고왕을 홀한주도독으로 삼은 이래 이 책봉호는 거의 변함없이 이어졌다. 다만, 무왕대에 일어난 발해·당 전쟁 당시 오갔던 외교문서를 보면 '칙홀한주자사발해군왕대무예'(1수), '칙발해군왕홀한주도독대무예'(2수), '칙홀한주자사발해군왕대무예'(3수), '칙발해군왕홀한주도독대무예'(4수)로 나온다. 홀한주자사와 홀한주도독이 교차로 언급되었다. 자사일 경우 군왕보다 먼저 언급되었으며, 도독일 경우 군왕 뒤에 언급된 차이도 보인다.

그런데 9세기 이후 당이 발해에게 내린 칙서를 보면 홀한주도독이나 홀한주자사와 같은 기미주 장관을 보여주는 직함이 탈락된다. 당 입장에서 기미주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당의 대외적 영향력 저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44]

그러면 발해도독부와 홀한주도독부의 관계는 무엇인가? 발해도독부는 『신당서』 권43 기미주 하북도에 보인다. 발해도독부 예하에 주(州)가 보이지 않는다. 말갈주에 3개 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흑수주도독부는 설치연도가 나와 있지만 발해도독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탁상에서 만든 허주(虛州)로 보인다.[45]

그러면 홀한주도독부에 당의 관리가 파견되었을까? 고구려 멸망 당시 당은

---

43 송기호, 2020, 앞의 책, 378~379쪽. 古畑徹은 기미주를 內地羈縻州와 外地羈縻州로 나누었다. 전자가 戶部가 관할하며 版籍을 보고하고 부정기적이지만 조세와 공헌물을 당에 납부하였으며 내지화가 진행되면 正州로 바뀔 수 있었다. 후자는 공헌물만 납부하는 遠夷로 취급되어 그 名數는 홍려시 전객서가 소관하였다. 이어 中央-地方州縣-羈縻州-遠夷라는 제국질서 속에서 당은 발해를 내지기미주와 외지기미주의 중간쯤으로 위치짓고 있다(古畑徹, 2018, 앞의 책, 108~109쪽)고 보았다.

44 古畑徹, 2018, 위의 책, 113쪽.

45 발해도독부를 홀한주도독부의 별칭으로 보거나(魏國忠·朱國忱·郝慶雲, 2006, 앞의 책, 590쪽) 대문예를 따라 망명한 발해인들을 위해 설치한 기미주일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김종복, 2011, 「발해와 당의 관계」,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47쪽)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도독부를 두면서 당의 관리를 참여시켰다. 영역화하려는 당의 조치였다. 하지만 홀한주도독부에 당이 관리를 파견한 기록은 없다. 다만, 당이 발해왕 대이진에게 보낸 칙서 가운데 장사(長史)[46]가 보인다.

G. 발해왕 대이진에게 칙한다. 왕자 대창휘 등이 표를 올려 축하하고 아울러 진봉함을 다 알고 있다. 경은 대를 이어 충정하며 자질은 인후하다. 예의를 좇아 봉부가 화락하며 법도를 지켜 발해를 편안히 한다. 멀리서 화풍을 사모하여 스스로 성절을 닦으니 배들이 만리에서 토산물을 바치러 온다. 아침저녁 한마음으로 조천의 예의를 능히 갖추었다. 조정에 반드시 모이니 제역이 어찌 멀다하리요! 나라를 생각하는데 어찌 잊고 깨어 탄식하리오. 교의에 두루 힘써 은총의 영화로움을 늘 받들라. 왕자 대창휘 등에게 돌아가도록 하매 경에게 관고 및 신물을 내리노니 마땅히 받으라. 비 및 부왕, 장사, 평장사 등에게 각기 물을 내리니 별록에 갖춘 것과 같다.[47]

중국 학계에서는 사료 G에 보이는 장사를 당이 지방세력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둔 관직으로 보았다.[48] 이 밖에 당에서 파견된 정치고문으로 보는 견해,[49] 발해 자체의 관직,[50] 고관계층으로 보는 견해[51]가 있다. 여기서 당이 지방

46 신라에서는 外官조에 속한 관직으로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 下.

47 『全唐文』 卷728 封敖, 與渤海王大彝震書, "勅渤海王大彝震 王子大昌輝等 自省表陳賀 幷進奉事 具悉 卿代襲忠貞 器資仁厚 遵禮義而封部和樂 持法度而渤海晏寧 遠慕華風 聿修誠節 梯船萬里 任土之貢獻俱來 夙夜一心 朝天之禮義克備 龍庭必會 鯷域何遙 言念嘉猷 豈忘寤嘆 勉宏敎義 常奉恩榮 令因王子大昌輝等廻國 賜卿官告及信物 至宜領之 妃及副王長史平章事等各有賜物 具如別錄"

48 魏國忠, 1982, 「渤海都督府長史小考」, 『北方論叢』 1982-2; 孫玉良, 1983, 「唐朝對渤海的經營與管轄」, 『黑龍江文物叢刊』 1983-6; 褚慶福, 1983, 「對唐王朝管轄渤海几介問題的探討」, 『博物館研究』 1983-1. 이상은 孫進己·孫海 主編, 1997, 앞의 책, 462, 492~493, 519쪽.

49 濱田耕策, 2000, 『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 15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력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둔 관직이라거나 당이 파견한 정치고문이라는 견해가 타당할까?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료가 있다.

H. 12세 이진에 이르러 참호하고 개원하였다. 궁궐을 본떠 세웠으며,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요동성국이 되었다.[52]

사료 H에 따르면, 발해왕 대이진이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였으며 그에 걸맞은 궁궐을 갖추는 등 황제체제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당이 발해를 통제하기 위한 감독관으로 '장사'라는 관직을 두거나 정치고문으로 파견했다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이는 '장사'는 당이 아니라 발해가 두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지방세력을 감독, 통제하는 임무를 띤 관직이란 점은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발해는 건국 이후 줄곧 말갈을 복속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선왕대 흑수말갈에 대한 복속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편제하고 지배해 나갈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이를 기미정책에 따라 파악하려 한'[53] 견해가 주목된다. 그럴 때 복속한 말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직책이 필요했을 것이며, '장사'는 이와 잘 어울린다. 따라서 발해가 말갈제부를 통제하기 위한 직

50 김종복, 2011, 앞의 글, 49쪽. 송기호는 吐谷渾이나 黠戛斯의 예를 들며 발해에서 마련한 직책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다만, 당나라 감독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은 시기로 보아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송기호, 2020, 앞의 책, 382~386쪽).

51 金毓黻은 王世子 다음으로 大內相 혹은 左右相을 겸한 발해의 관직으로 보았다(『渤海國志長編』卷15 職官考). 黃維翰은 도독부 長史로 平章事 위의 자리로 이해하였다(『渤海國記』 中篇 職官). 赤羽目匡由는 大內相과 左·右相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발해왕 다음의 高官계층을 가리킨다고 보았다(赤羽目匡由, 2011,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134~136쪽).

52 『遼史』 卷38 志8 地理志2 東京道 東京遼陽府, "十有二世至彝震 僭號改元 擬建宮闕 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爲遼東盛國."

53 礪波護·武田幸男, 1997, 『隋唐帝國と古代朝鮮』, 中央公論社, 4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으로 당의 관제를 모방하여 새롭게 만들어 낸 관직이 '장사'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Ⅲ. 국호로 본 발해

당은 발해를 여러 가지로 표기하였다. 먼저 중국 측 자료에서 발해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정리하고 이를 통해 당의 대발해인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2〉 중국 측 자료에 보이는 '발해' 국호표[54]

年度	國號	書名	卷名
719	渤海靺鞨	『舊唐書』(945)	卷8 本紀8 玄宗
767	渤海		卷11 本紀11 代宗
779	渤海		卷12 本紀12 德宗 上
806	渤海		卷14 本紀14 憲宗 上
824	渤海		卷17 本紀17 上, 敬宗
846	渤海		卷18 本紀18 上, 武宗
725	靺鞨		卷23 禮儀志3 封禪
	渤海靺鞨		卷121 列傳71 李懷光
	渤海靺鞨		卷199下 北狄 渤海靺鞨
732	渤海靺鞨		卷5 本紀5 玄宗
	渤海		卷43 地理7 下 羈縻州
	渤海國		卷58 志48 藝文2
	渤海		卷126 列傳51 張九齡

54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3, 앞의 책을 기초로 삼아 작성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渤海	『新唐書』(1060)	卷136 列傳61 烏承玭
	渤海		卷213 列傳138 李正己
	渤海		卷219 列傳144 黑水靺鞨
	渤海		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
	渤海靺鞨		卷220 列傳145 東夷 百濟
	渤海靺鞨, 靺鞨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
	渤海靺鞨		卷224 列傳149 上, 叛臣 上
924	渤海國	『舊五代史』(974)	卷31 唐書7 莊宗本紀5
926	渤海國		卷36 唐書12 明宗本紀2
	渤海靺鞨		卷138 外國列傳2 渤海靺鞨
907	渤海	『新五代史』(1053)	卷2 梁本紀 太祖
909	渤海國		卷2 梁本紀 太祖
924	渤海國		卷5 唐本紀5 莊宗
926	渤海國		卷6 唐本紀6 明宗
	渤海		卷72 四夷附錄1 契丹 上
	渤海, 靺鞨		卷74 四夷附錄3 渤海
	渤海	『宋史』(1345)	卷491 列傳250 外國 渤海國
918	渤海	『遼史』(1344)	卷1 本紀1 太祖 上
773	渤海		卷41 寬恕
906	渤海		卷65 發號令4
812	渤海		卷111 宴享3
	靺鞨渤海郡		卷170 來遠
	渤海靺鞨		卷956 種族
	振國, 高麗		卷959 土風1
	渤海國		卷962 官號
	靺鞨, 振國, 渤海靺鞨		卷964 封冊2
795	渤海		卷965 封冊3
	渤海靺鞨		卷967 繼襲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21	渤海郡靺鞨	『冊府元龜』(1013)	卷971 朝貢4
722	渤海		卷971 朝貢4
724	渤海靺鞨		卷971 朝貢4
730	靺鞨		卷971 朝貢4
718	靺鞨渤海郡		卷974 褒異1
721	渤海郡靺鞨		卷974 褒異1
722	渤海		卷975 褒異2
724	渤海靺鞨		卷975 褒異2
725	渤海		卷975 褒異2
727	渤海靺鞨		卷975 褒異2
791	渤海		卷976 褒異3
809	渤海		卷980 通好
818	渤海國		卷980 通好
720	靺鞨		卷986 征討5
732	渤海靺鞨		卷986 征討5
774	渤海		卷996 納質
	渤海		卷999 請求
836	渤海		卷999 互市
	渤海國		卷1000 怨讎
719	勃海	『資治通鑑』(1084)	卷212 唐紀28 玄宗
726	勃海靺鞨		卷213 唐紀29 玄宗
732	渤海靺鞨		卷213 唐紀29 玄宗
733	渤海王		卷213 唐紀29 玄宗
763	勃海靺鞨		卷223 唐紀39 代宗
794	勃海		卷235 唐紀51 德宗
	靺鞨	『通典』(801)	卷172 州郡2 序目 下
	渤海		卷180 州郡10 安東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38	渤海	『唐會要』(961)	卷36 蕃夷請經史
837	渤海國		卷36 附學讀書
	渤海靺鞨, 渤海		卷96 渤海
	渤海	『高麗圖經』(1126前)	卷1 建國
	渤海國	『五代會要』(961)	卷29 契丹
	渤海靺鞨		卷30 渤海
	渤海靺鞨, 渤海	『文苑英華』(986)	卷471 張九齡
	渤海		卷471 封敖
	渤海		卷647 露布 樊衡
	渤海國	『契丹國志』(남송)	卷26 諸蕃記 渤海國
	渤海	『文獻通考』(1307)	卷326 四裔3 渤海
	渤海	『玉海』(1271)	卷56 藝文
	渤海		卷64 詔令
	渤海, 粟末靺鞨		卷153 朝貢 外夷來朝
	渤海		卷160 宮室 殿
	渤海國	『武經總要』(1044)	前集 卷22
	渤海	『全唐詩』(1706)	卷245 第4函 第5冊 韓翃
	渤海		卷583 第9函 第5冊 溫庭筠
	渤海		卷709 第11函 第1冊 徐夤
	渤海		卷833 第12函 第3冊 貫休
	渤海	『全唐文』(1814)	卷93 哀帝
	渤海靺鞨		卷284 張九齡
	渤海		卷285 張九齡
	渤海國		卷440 徐浩
	渤海		卷658 白居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振國, 高麗, 渤海, 勃海, 靺鞨, 渤海靺鞨, 勃海靺鞨, 粟末靺鞨, 渤海郡靺鞨, 靺鞨渤海郡, 渤海國' 등이 보인다. 참고한 자료 19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渤海(15종), 渤海國(10종), 渤海靺鞨(9종), 靺鞨(5종) 순이다. 그 밖의 표현들은 모두 1종에서 나타난다(표 3 참조).

〈표 2〉에서 보듯, 8세기 중반까지 '渤海靺鞨·渤海郡靺鞨·靺鞨·渤海' 표현을 쓰다가 8세기 후반 이후 '渤海·渤海國'으로 바뀌었다. 발해에 대한 국호가 발해나 발해국으로 정리되고, 말갈이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우선 당은 발해를 '말갈'이나 말갈 가운데 '발해말갈'로 인식하였다.

히노 가이자부로(日野開三郎)는 '발해말갈'이란 표현이 발해가 불열·철리·월희·흑수 등 다수의 말갈세력과 병립하였을 때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말갈세력이 발해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고 보았다.[55] 발해를 말갈세력 중 하나로 인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767년과 772년[56] 발해와 말갈이 각각 당에

---

55 日野開三郎, 1984, 『小高句麗國の研究』, 三一書房, 200~202쪽. 小川裕人은 唐人이 처음 발해를 靺鞨로 불렀지만 뒤에 渤海郡靺鞨, 다시 靺鞨, 天寶 이후로는 대체로 渤海로 불렀다고 하면서 발해에 대한 명칭의 변화를 다른 靺鞨諸部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인은 다른 말갈제부와 발해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 渤海郡靺鞨로 기록하였으며 이어 간단히 발해 혹은 발해말갈로 불렀는데 발해 내 사정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발해국의 다른 말갈제부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면서 이들을 포함한 大渤海가 통일국가적 체제로 정리되면서 唐人은 말갈호를 버리고 발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小川裕人, 1939, 「所謂渤海靺鞨に就いて」, 『史林』 24-1, 189~195쪽). 김종복은 당이 대조영이 자칭한 진국을 인정치 않고 말갈로 부른 데는 진국이 고구려 멸망의 위업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 미개한 말갈지역으로 인식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발해말갈' 명칭이 무왕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이 말갈제부와 구별하고 이들에 대한 발해의 영향력을 인정치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김종복, 2011, 「8세기 渤海와 靺鞨諸部의 대당교섭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39, 51~52쪽). 한편, 김진광은 『冊府元龜』에서 발해를 지칭한 기록을 검토하여 당이 대조영을 책봉하여 '진국'을 승인하였지만 '발해군에 위치한 문화적으로 낙후한 집단'이란 의미의 '말갈, 말갈발해, 발해말갈, 발해' 등으로 인식하였으며 743년 이후 발해로 통일되었다고 보았다(김진광, 2018, 「대외관계기사를 통해 본 당대 발해 인식 검토」, 『전북사학』 53, 156쪽).

56 『舊唐書』卷11, 代宗, 大曆 2年, "八月 … 丙戌 渤海朝貢 … 九月 … 辛未 靺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자료별 '발해' 국호 분류표

	振國	高麗	渤海	勃海	靺鞨	渤海 靺鞨	勃海 靺鞨	粟末 靺鞨	渤海郡 靺鞨	靺鞨 渤海郡	渤海國
『舊唐書』			●		●	●					
『新唐書』			●		●	●					●
『舊五代史』						●					●
『新五代史』			●		●						●
『宋史』			●								●
『遼使』			●								
『冊府元龜』	●	●	●		●	●			●	●	●
『資治通鑑』			●	●		●	●				
『通典』			●		●						
『唐會要』			●			●					●
『高麗圖經』			●								
『五代會要』						●					●
『文苑英華』			●			●					
『契丹國志』											●
『文獻通考』			●								
『玉海』			●					●			
『武經總要』											●
『全唐詩』			●								
『全唐文』			●			●					●

使來朝"; 大曆 7年, "是秋稔 迴紇 吐蕃 大食 渤海 室韋 靺鞨 契丹 奚 牂柯 康國 石國並遣使朝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신라·발해에 대한 압번사 일람표

年度	人名	職責	出典
740	王斛斯	押兩番及渤海黑水等四府經略處置使	『唐會要』卷78 節度使[57]
741	安祿山	押兩番渤海黑水四府經略使	『舊唐書』卷9 玄宗 下
756	劉客奴	平盧節度支度營田陸運 押兩番渤海黑水四府經略及平盧軍使	『舊唐書』卷145 劉全諒
765	侯希逸[58]	淄青平盧節度增領押新羅渤海兩蕃使	『新唐書』卷65 方鎭2
775	李正己	平盧淄青節度觀察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	『舊唐書』卷11 代宗
782	李希烈	淄青克鄆登萊齊等州節度支度營田新羅渤海兩蕃使	『舊唐書』卷145 李希烈
792	李師古	鄆州大都督府長史平盧淄青等州節度觀察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	『舊唐書』卷13 德宗 下
806[59]	建王	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60]	『舊唐書』卷175 憲宗 二十子 建王 恪
806	李師道	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	『舊唐書』卷124 李正己
	薛平	押新羅渤海兩蕃使	『舊唐書』卷124 薛嵩
889	崔安潛	平盧軍節度觀察押新羅渤海兩蕃等使	『舊唐書』卷20上 昭宗
891	王師範	充平盧軍節度觀察押新羅渤海兩蕃等使	『舊唐書』卷20上 昭宗

입조한 것으로 나온다. 발해와 말갈이 구분되어 있다. 발해를 말갈에서 분리하여 본 것으로 당의 대발해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말갈'

57 『新唐書』卷65 表, 方鎭2, "(開元)二十八年 平盧軍節度使兼押兩蕃渤海黑水四府經略處置使."

58 『舊唐書』卷11 代宗, 永泰元年, "秋七月辛卯朔 淄青節度使侯希逸為副將李懷玉所逐 制以鄭王邈為平盧淄青節度大使 令懷玉權知留後事." 『舊唐書』에 따르면, 765년 7월 李懷玉이 侯希逸을 쫓아내었으며 대신 鄭王 李邈이 평로치청절도사가 되었다고 나온다.

59 『唐會要』卷78 親王遙領節度使조에는 807년으로 나온다.

60 이사고가 죽고 이사도가 멋대로 부절을 요구하자, 조정에서 심을 건왕으로 봉하고 곧 압신라발해양번사를 제수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칭호가 사라진 것은 여러 말갈세력이 발해에 흡수되어 소멸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가 사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은 번진에 압번사를 겸직시켜 주변국을 관할하려 하였다. 이 가운데 발해를 대상으로 한 번진 관할의 칭호 변화가 눈에 띈다. 〈표 4〉는 이를 정리해 본 것이다.

756년 무렵까지 발해는 흑수말갈 및 해·거란 등과 함께 4부로 묶였다. 그런데 765년 치청평로절도가 압신라발해양번사[61]를 더하였으며, 775년 이정기의 직책이 평노치청절도관찰해운압신라발해량번등사로 나온다. 765년 전후로 발해는 양번(거란·해) 및 흑수말갈과 분리되고 신라와 함께 묶였다. 아울러 '경략'이 사라진다.[62] 이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당은 신라와 발해를 하나로 엮어 생각한 것이다.

당이 발해를 신라와 같은 범주로 보기 시작한 시기는 안사의 난 이후인 평로치청절도사 때로 보인다.[63]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점은 732년 발해·당 전쟁 이후 신라에 대한 당의 정책이다. 당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발해 공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성덕왕에게 '개부의동삼사 영해군사'를 더해주었다. 육전뿐 아니라 해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대발해 견제를 위한 신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경덕왕은 충지절영해군사의 직을 승습해나갔다.

---

61 『新唐書』 교감기에 따르면, 원본에는 '北海'라고 나오지만 『舊唐書』, 『通鑑』, 『唐會要』에 의거하여 '渤海'로 고쳤다고 나온다.

62 정병준은 '압신라발해사에는 경략사가 빠져 있는데, 이는 군사가 아닌 외교나 교류 측면을 중시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정병준, 2011, 「8세기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당조의 대응체제」, 『8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50쪽). 박유정도 당이 더 이상 발해를 '경략'의 대상이 아니라 '외교·교역'의 존재로 바라보았다고 하였다(박유정, 2023, 앞의 글, 33~34쪽).

63 村上恭子, 1998, 「平盧淄青節度使と新羅·渤海」, 『朝鮮史研究會會報』 132; 河內春人, 2003, 「渤海と契丹·奚」,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33쪽 재인용. 정병준은 신라와 발해가 환발해 및 환황해 지역에서 민족적·문화적·정치적·교역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았음을 당이 인식하였기에 동시에 압령하였다고 보았다(정병준, 2011, 위의 글, 2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단 신라의 전략적 가치때문만은 아니다. 신라와 발해 사신이 함께 입조하는 경우가 잦았다. 발해는 당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며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갔다.

또한 안사의 난 이후에도 거란·해는 당에 대한 침입과 견사를 반복하였으며, 국경을 접한 발해에도 위협이 되었다.[64] 발해는 안사의 난 당시 당이나 반란군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발해의 이런 점은 거란이나 해와 대비되었다. 당의 발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흑수말갈 및 해·거란 등과 함께 묶였다가 뒤에 신라와 엮이게 된 배경 가운데는 발해의 종족 계통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理解)와 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당서』와 『신당서』는 발해를 북적조에 넣었다. 풍속에서도 거란과 대체로 같다[65]고 할 만큼 공통적인 속성도 있었다. 고우치 하루히토(河内春人)는 발해 건국 당시 당이 발해를 거란과 동류로 간주했으며 발해와 말갈을 북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다.[66] 신라에서도 발해를 북적으로 인식하였다.[67]

이와 달리 동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729년 정월 이광필이 입조하려 했을 때 당 현종은 돌궐의 침입을 우려해 입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요사이 동이가 자못 정성을 다하여온다"[68]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동이에 발해도 포함된 것으

---

64 古畑徹, 1984,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 113;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115~116쪽.

65 『新唐書』 卷219 渤海, "餘俗與高麗契丹略等."

66 河内春人, 2003, 앞의 글, 31~35쪽. 한편, 古畑徹은 7세기 말부터 730년대 사이에 당의 對靺鞨·渤海 인식이 '東夷'로부터 '北狄'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古畑徹, 2020, 「靺鞨·渤海はなぜ「北狄」なのか」, 『東方學』 140).

67 『三國遺事』 卷2, 孝成王, "開元二十一年 癸酉 唐人欲征北狄 請兵新羅." 김진한, 2023, 「8세기 신라의 대발해인식 변화와 그 배경 -北狄에서 北國으로-」, 『한국학』 171, 143쪽.

68 『冊府元龜』 卷 78, 帝王部, "李光弼爲太原尹兼太原及北軍州節度使 開元十七年 正月 光表請入朝 帝降書曰 朔州兵馬飛狐要害委卿經略 隨事防虞 比來東夷頗盡誠欵 如聞突厥常欲侵漁部落漸移向東 固亦須有備豫 凡秋防操練今正其時 卿若入朝誰當處置 宜識此意且未須來."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보인다.[69] 『신당서』 발해전에 '해동성국'이 등장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주지하듯, '해동은 삼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자 더 넓게는 우리나라를 통칭하는 표현'[70]이기 때문이다.

Ⅳ. 사신으로 본 발해

발해에 파견된 사신들은 어떤 인물일까? 현재까지 사료상으로 10여 명의 대발해사신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는 당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 파견한 인물도 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발해 초기에는 시어사나 낭장, 홍려소경 등 다양한 직에 있던 인물들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문왕대부터 내시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다. 이러한 사신 자격의 변화에 대해 '당·발해 분쟁 초기에 외교기밀이 발해에 누설되는 혼란을 겪은 뒤로 책봉사는 내시가 파견되었다'거나[71] '당 현종조 이후 천자가 군

69 古畑徹은 발해와 흑수말갈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했다(古畑徹, 1986, 「日渤交涉開始期の東アジア情勢」, 『朝鮮史硏究會論文集』 23, 88쪽). 김진한, 2021, 「武王代 渤海의 對日本外交 開始에 對한 再檢討」, 『한국고대사연구』 103, 243쪽.

70 김정배, 2018,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세창출판사, 40쪽. 酒寄雅志는 당이 발해를 '海東의 盛國'이라고 불렀던 것은 713년 책봉 이래 일관해서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酒寄雅志, 2024, 앞의 책, 23쪽). 赤羽目匡由는 발해가 '高麗國'으로 都管銀盒 속의 一國으로 선택된 것은 당과 발해의 상호 밀접한 교섭 결과 9세기 唐人에게 해동성국으로 불리는 것처럼 東夷의 大國으로 주목되기에 이르렀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赤羽目匡由, 2011, 앞의 책, 284~285쪽). 한편, 唐代 문인이었던 張籍의 시 '贈海東僧'(『全唐詩』 第6函 第6册 張籍, "別家行萬里 自說過扶餘 學得中州語 能爲外國書 與醫收海藻 持呪取龍魚 更問同來伴 天台幾處居.")에 보이는 '海東'은 발해를 가리킨다(王孝华, 2012, 「张籍《赠海东僧》考释-渤海史料钩沉之-」, 『内蒙古社會科學』 33-6).

71 濱田耕策, 2000, 앞의 책, 4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권을 강화할 때, 내시성의 환관들이 두드러질 만큼 자주 천자의 사절로 파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72] 또한 '당은 국제관계상 중요하게 여긴 상대국에 환관

〈표 5〉 당의 대발해 사신 일람표[73]

王 및 年度		人名	職責	任務	出典
고왕	707	張行岌	侍御史(종6품하)	招慰	『舊唐書』
	713	崔訢	郎將(정5품상) 攝 鴻臚卿(종3품)	冊封	『舊唐書』
무왕	719.6.	吳思謙	左監門率(정4품상) 上柱國(정3품) 攝 鴻臚卿	弔祭	『冊府元龜』
	720.9.	張越	左驍衛郎將(정5품하) 攝郎中(종5품하)	해·거란 토벌요청	『冊府元龜』
	731(?)	崔尋挹	內使	解明	『全唐文』
문왕	737	段守簡	內侍(종4품하)	冊封	『舊唐書』
	756	張元澗	果毅都尉行柳城縣兼四府經略判官(정6품)	군사 요청	『續日本紀』
	758	王進義	將軍	?	『續日本紀』
	763	韓朝彩	?	?	『續日本紀』
	773[74]	張光祚	滿城縣丞(종8품하)	渤海와 幽州 교류	「張光祚墓誌」
강왕	795.2.	殷志瞻	內常侍(정5품하)	冊封	『舊唐書』
	809.1.	元文政	中官	弔祭冊立使	『冊府元龜』
희왕	813.1.	李重旻	內侍(정4품상)	冊立宣慰使	『冊府元龜』
대이진	832	王宗禹	內養		『舊唐書』
	833	張建章	瀛州司馬(종5품하)	渤海와 幽州 교류	『張建章墓誌』

72 石曉軍, 2019, 앞의 책, 487~496쪽.

73 사신의 官品은 石曉軍, 2019, 『隋唐外務官僚の研究』, 東方書店, 부록4 唐代遣外使節一覽表를 참조하였다.

74 张中澍는 773년 幽州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张中澍, 1989, 「唐幽州入渤海使张光祚墓志释译(上)」, 『北方民族』 1989-1). 한편, 권덕영은 763년 張光祚가 한조채와 함께 발해에 사신으로 간 것으로 이해하였다(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사학연구』 97, 38~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신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중요한 정치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75]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신라에 온 당 사절의 관인계층이 대부분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예악과 문장에 뛰어난 학자적 관료들이었던 데 비해 발해에는 신라 사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환관을 위주로 한 무명의 관리들을 보냈다는 견해[76]도 있다. 당이 신라를 '군자국'으로 인식하며 문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데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당이 발해의 문화수준을 신라에 비해 낮게 인식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발해는 초기에 무직(武職)을 받다가 8세기 중반에는 문직(文職)으로 변경되었는데, 신라의 책봉이 8세기 전반에 무직에서 문직으로 바뀐 것과 동일하다.[77] 당 현종은 무왕에 대해 '화풍'을 익히고 있었다고 하였다.[78] 773년에는 발해의 질자가 곤룡복을 훔치다 잡혔는데 중화의 문물을 사모하여 그랬다는 일화[79]가 전해온다. 당에 간 신능지와 발해왕 조카인 대공칙 등에게 '대륙의 동쪽에 있으면서 의리를 아는 것이 화하와 같다거나[80] 발해왕 대이진에게 준 국서에 중화의 문화를 사모하는 나라로 묘사하였다.[81] 『전당시』에 실린 온정균의 시에는 '거서

75 고미야 히데타카, 2013, 「신라·발해에 온 당 환관사신의 확대와 그 배경」, 『역사와 현실』 89.

76 권덕영,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신라문화』 25, 24~26쪽.

77 송기호, 2020, 앞의 책, 369쪽.

78 『文苑英華』 卷471, 蕃書4, 張九齡, 勅渤海王大武藝書四首 1.

79 『冊府元龜』 卷41 寬恕, "代宗 大曆八年 閏十一月 渤海質子盜脩袞龍 擒之 詞云 慕中華文物 帝矜而捨之."

80 『全唐文』 卷647 元稹, 靑州道渤海愼能至王姪大公則等授金吾將軍放還蕃制, "勅 愼能至王姪大公則等 洲東之國 知義之道 與華夏同風者 爾輩是也 冒越深阻 和會於庭 予嘉乃誠 命以崇秩 用奮威衛 保爾恩榮 無怠無違 永作藩服."

81 『全唐文』 卷728 封敖, 與渤海王大彝震書, "勅渤海王大彝震 王子大昌輝等 自省表陳賀 幷進奉事 具悉 卿代襲忠貞 器資仁厚 遵禮義而封部和樂 持法度而渤海晏寧 遠慕華風 聿修誠節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일가'[82]라고 평가하였다. 9세기 발해의 문화적 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 빈공시에 급제한 발해인들의 수가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오소도가 수석을 하자, 최치원이 나라의 수치로 여기기까지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83]

일본에 파견된 발해 사신은 처음에 무관이 중심을 이루다가 8세기 중반 이후에는 문관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특히 9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문학에 소양 있는 인물들이 다수 파견되었다. 일본에서도 발해 문인을 대하는 데 신경을 썼다. 이는 9세기 발해에서 귀족들의 문학적 소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문화적 기반이 더욱 확대되었던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84]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본다면, 당은 발해의 문화수준을 낮춰보지 않았다.

한편, 당이 바라보는 발해의 위상도 낮지 않았다. 〈표 6〉은 698년부터 906년까지 당의 대외사신의 본관(本官) 관품을 비교해본 것이다.

당의 견발해사 관품은 정4품에서 종6품까지 분포하며 대체로 4~5품을 사신으로 보냈다. 견신라사의 경우도 정4품에서 종6품까지 골고루 분포한다. 이를 보면 발해와 신라에 보낸 사신들의 위상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견토번사는 정3품에서 정5품이 대부분이고, 3~4품 위주로 사신단을 꾸렸다. 견운남(남조)사는 3~5품 위주, 견회흘사는 3~4품 위주임이 확인된다.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겠지만 대체로 발해는 토번·운남·회흘(위구르)보다 좀 더 낮게 평가되었다.

82 『全唐詩』第9函 第5册 溫庭筠, "送渤海王子歸本國 疆理雖重海 車書本一家 盛勳歸舊國 佳句在中華 定界分秋漲 開帆到曙霞 九門風月好 回首是天涯."

83 『東文選』卷47, 狀,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84 송기호, 1995, 앞의 책, 135~1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6〉 당의 대외사신 본관 관품 비교표[85]

國名 \ 官品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渤海							2	2	3			1				
新羅							2	2	1	2		3				
吐蕃					11	14	4	12	7	1		1				1
突厥	1					4			1							
突騎施					1		1		1			1			1	
雲南		1				3	1	3	1	3						
廻紇(回鶻)		1			7	12	2	5				1				

당에 온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홍려시에서 관장하였다. 『당육전』에서는 홍려경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 홍려경의 임무는 빈객 및 흉의에 관한 일을 맡는다. … 무릇 사방 오랑캐의 군장이 조견할 때 그 등위를 나누어 빈객으로 대우한다[86]

홍려시 관리들은 외국의 임금들이 올 때, 그 등위를 매겨 대우하였다. '당과 통교했던 나라는 79개 정도에 이른다. 그 가운데 당이 견사한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토번(61회) · 회흘(39회) · 돌궐(26회) · 남조(23회) · 신라(19회) · 발해(14회)

85 이 표는 『隋唐外務官僚の研究』(石曉軍, 2019, 앞의 책)에 수록된 부록4 唐代遣外使節一覽表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각국의 해당 시기는 渤海(707~813), 新羅(737~906), 突厥(698~740), 突騎施(699~717), 雲南(南詔, 738~883), 위구르[廻紇 · 回鶻(756~856)]이다. 사신의 관품이 불분명한 것은 제외하였다.

86 『唐六典』 卷18, 大理寺鴻臚寺, "鴻臚卿之職 掌賓客及凶儀之事 … 凡四方夷狄君長期朝見者 辨其等位 以賓待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순이며, 이들 국가를 가장 중요한 외교상대국으로 생각하였다.'[87] 발해는 건국부터 멸망할 때까지 당과 교류를 이어간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이는 당의 답서 양식이나 사용한 용지 등을 통해서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당 헌종 원화 연간(806~820)에 성립한 이조(李肇)의 『한림지』에 따르면, 신분에 따른 용지 등에서 회흘·신라·발해가 같은 금화오색능지(金花五色綾紙)와 차백단향목슬슬전함(次白檀香木瑟瑟鈿函)을 쓰고 있다.[88] 아울러 904년 무렵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양거(楊鉅)의 『한림학사원구규』 가운데 「답번서병사지급보하등사례(答蕃書幷使紙及寶函等事例)」에서 답번서의 내용을 보면 "新羅渤海書頭云 敕某國 云王 著姓名 尾云 卿比平安好 遣書指不多及 使五色金花白背紙 次寶函封 使印…"이라고 나온다. 대체로 9세기 초에는 토번-회흘·신라·발해-남조 순이었으며, 9세기 말에는 회골·남조-신라·발해·힐알사-거란-장가-퇴혼·당항·토번 순이었다.[89] 신라와 발해는 똑같이 대우받고 있었다.

〈표 7〉은 8~9세기 당에 사신을 파견한 나라들의 기재 순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기재 순서에서도 편찬자들은 일정한 원칙을 두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당서』 돌궐전에는 '이적은 중국의 근심거리이다. 사가들이 말하길, 일찍이 중국과 맞선(亢衡)나라로 넷이 있는데, 돌궐·토번·회골(위구르)·운남이 그들이다'라고 하였다.[90] 이러한 편찬자의 견해를 토대로 이해해볼 때, 발해와 신라 간 위상이나 발해·신라와 토번·위구르·남조 등과의 위상 비교를 통해 일정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7 石曉軍, 2019, 앞의 책, 406~407쪽.

88 金子修一, 2001, 앞의 책, 329~330쪽.

89 金子修一, 2001, 위의 책, 250~254쪽.

90 『唐書』 卷215上, 列傳第140上, 突厥上, "夷狄為中國患 尚矣 在前世者 史家類能言之 唐興 蠻夷更盛衰 嘗與中國亢衡者有四 突厥吐蕃回鶻雲南是也 方其時羣臣獻議盈廷 或聽或置 班然可睹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7〉 8~9세기 대당견사국 일람표[91]

年月日	遣使國	『冊府元龜』
718.2. 戊午	契丹 新羅 米國 石國 靺鞨 鐵利 鞨涅蕃守	卷974 褒異1
732.1. 庚申	新羅 奚	卷975 褒異2
753.3.	牂牁 踈勒 日本等國 渤海	卷971 朝貢4
755.4.	新羅 突騎施	卷971 朝貢4
762.9.	波斯 新羅	卷972 朝貢5
767.7.	吐藩 渤海	卷972 朝貢5
767.8.	契丹 渤海	卷972 朝貢5
767.9.	靺鞨 渤海 室韋	卷972 朝貢5
767.11.	渤海 廻紇 吐蕃	卷972 朝貢5
767.12.	廻紇 渤海 契丹 室韋	卷972 朝貢5
768.5. 丙寅	新羅 回紇使	卷976 褒異3
769.12.	廻紇 吐蕃 契丹 奚 室韋 渤海 訶陵	卷972 朝貢5
772.12.	廻紇 吐蕃 大食 渤海靺鞨 室韋 契丹 奚	卷972 朝貢5
773.6.	渤海 新羅	卷972 朝貢5
773. 윤11	渤海 室韋	卷972 朝貢5
773.12.	渤海 室韋 牂牁 並遣使來朝 奚 契丹 渤海靺鞨	卷972 朝貢5
774.1.	室韋 渤海	卷972 朝貢5
774.12.	奚 契丹 渤海 室韋 靺鞨	卷972 朝貢5
775.1.	渤海 契丹 奚 室韋 靺鞨 新羅	卷972 朝貢5
775.6.	新羅 渤海	卷972 朝貢5
775.12.	渤海 奚 契丹 室韋 靺鞨	卷972 朝貢5
777.4.	牂牁 渤 奚 契丹 室韋 靺鞨	卷972 朝貢5
777.12.	新羅 渤海 靺鞨 室韋 奚 契丹	卷972 朝貢5

91 같은 달이나 날에 언급된 경우를 확인하여 작성. 무왕 이전 여러 말갈과 함께 언급된 경우는 제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82. 閏正月	新羅 牂牁 陁國	卷972 朝貢5
791.1.	廻鶻大首領史勃羨 渤海 黑衣 大食	卷972 朝貢5
792.12.	牂牁 靺鞨	卷972 朝貢5
804.11.	渤海 新羅	卷972 朝貢5
806.12.	廻鶻 契丹 渤海	卷972 朝貢5
807.12.	吐蕃 廻鶻 奚 契丹 渤海 牂牁 南詔	卷972 朝貢5
809.1. 戊戌	南詔 渤海	卷976 褒異3
812.1. 癸酉	南詔 渤海 牂牁	卷976 褒異3
813.12. 丙午	南詔 渤海 牂牁	卷976 褒異3
815.1. 丁酉	新羅及南詔蠻使	卷976 褒異3
815.11.	契丹 南詔蠻	卷972 朝貢5
816.2. 癸卯	廻鶻 渤海使	卷976 褒異3
816.11.	契丹 渤海	卷972 朝貢5
820.2. 庚寅	新羅 渤海朝貢使	卷976 褒異3
820.12. 壬辰	新羅 渤海 南詔 牂牁 昆明等使	卷976 褒異3
822.12.	廻鶻 吐蕃 新羅 契丹 奚 牂牁	卷972 朝貢5
824.2.	吐蕃 渤海	卷972 朝貢5
825.3.	吐蕃 渤海	卷972 朝貢5
826.1.	南詔 室韋 渤海 牂牁	卷972 朝貢5
827.1. 辛亥	吐藩 新羅使	卷976 褒異3
828.12. 己卯	渤海 新羅 室韋 契丹 南詔	卷976 褒異3
829.12.	渤海 新羅 室韋 契丹 南詔	卷972 朝貢5
830.12.	吐蕃 廻鶻 新羅 渤海 南詔蠻 牂牁 昆明 奚 契丹	卷972 朝貢5
831.11.	吐蕃 廻鶻 奚 契丹 新羅 渤海 南詔 牂牁	卷972 朝貢5
836.12.	吐蕃 廻鶻 新羅 渤海 奚 契丹 牂牁 南詔蠻 昆明	卷972 朝貢5
838.2. 辛卯	南詔 牂牁 契丹 奚 室韋 渤海	卷976 褒異3
839.12. 戊辰	渤海 契丹 奚 室韋	卷972 朝貢5
846.1.	南詔 契丹 室韋 渤海 牂牁 昆明	卷972 朝貢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선 같은 달에 입조한 경우 발해-거란(21회), 발해-실위(18회), 발해-해(14회), 발해-신라(11회)가 확인된다. 대체로 발해는 이들 여러 나라와 함께 입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발해와 신라가 같은 달 함께 입조하였을 때 누가 먼저 기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발해가 다섯 번, 신라가 여섯 번 앞설 정도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발해와 토번·위구르·남조를 비교해보자. 위구르는 767년 이후부터, 토번은 769년 이후부터 늘 발해보다 앞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남조와 발해는 807년 동월 입조가 확인되며 이때 발해가 우선이었지만 809~815년까지 남조가 우선, 820~836년까지 발해 우선, 838~846년까지 남조 우선으로 양국은 비교적 동등한 위상을 가졌다.

신라의 경우, 위구르와 768년 5월 병인 연회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신라사가 앞서 기재되었다. 그리고 822~836년 동안 위구르가 우선 기재되었다. 토번의 경우 822년 12월~836년까지 확인되며, 토번이 모두 우선 기재되었다. 남조의 경우, 815년 1월~836년까지 동월 입조가 확인되며 모두 신라가 우선 기재되었다.

〈표 7〉을 보면 신라나 발해보다 위구르나 토번이 우선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조(운남)의 경우, 발해와 동등하게 기재되었으며, 신라는 남조에 비해 우선 기재되는 등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비교해 토번과 위구르의 경우 767~772년까지 위구르가 우선 기재되고, 807년 토번이 우선 기재되었으며, 822년 위구르가 우선 기재되고, 830~836년까지는 토번이 우선 기재되었다. 807~836년까지 총 4차례 토번·위구르·남조가 같은 달 입조하였으며 이 순서대로 기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토번과 위구르가 남조에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표 7〉에 기재된 같은 달이나 같은 날 입조 기재 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대체로 8세기 중반 이후부터 9세기 중반까지 토번과 위구르가 가장 위상이 높았고, 남조는 발해나 신라와 동등하게 대우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에는 897년 발해와 신라 사이에 벌어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윗자리 다툼을 전한다.[92] 이에 따르면, '발해사신 대봉예가 발해를 신라의 위에 두기를 청하였으나 당은 칙지를 통해 국명의 선후는 강약으로 일컫지 않고 조제(朝制)의 등위를 어찌 성쇠로 고치겠는가. 마땅히 옛 관례에 준하여 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당의 발해와 신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당 조정에서 선후는 관례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 관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 현종 때 편찬된 국가규범인 『대당개원례』가 외교의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국가 법전인 『대당육전』이 모두 현종대에 편찬되었음을 감안하면, 관례란 현종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은 국력의 성쇠나 강약이 위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897년 당시 신라는 국가적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당은 발해와 신라의 국력을 '성'과 '쇠', '강'과 '약'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례대로 적용할 뿐이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책봉호·국호·사신이라는 지표를 통해 당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추이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책봉호를 통해서는 발해의 '독립성'을, 국호를 통해서는 '종족적 정체성'을, 사신을 통해서는 '국제적 위상'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당은 측천무후 재위 시 발해를 '토벌'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죽고

92 『東文選』 卷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臣某言 臣得當蕃宿衛院狀報 去乾寧四年七月內 渤海賀正王子大封裔 進狀請許渤海居新羅之上 伏奉勑旨 國名先後 比不因强弱而稱 朝制等威 今豈以盛衰而改 宜仍舊貫 准此宣示者 綸飛漢詔 繩擧周班 積薪之愁歎旣銷 集木之憂兢轉切 惟天照瞻。何地容身 中謝 臣聞禮貴不忘其本 是誠浮虛 書稱克愼厥猷 唯防僭越 苟不循其涯分 乃自掇其悔尤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종이 즉위하면서 '외교'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함께 발해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당은 먼저 사신을 보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 학계에서는 '군왕'이라는 책봉호를 주목하여 당이 발해를 내신 혹은 내속한 이민족으로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725년 태산 봉선의례에서 확인되듯이 당은 발해를 조헌지국, 즉 외신으로 대우하였다. 아울러 책봉호와 별개로 외신에 해당하는 '국왕'으로 무왕을 불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은 발해를 독립된 나라로 인식하였다.

당이 발해를 부른 국호는 다양하다. 8세기 중반까지 '발해말갈·발해군말갈·말갈·발해' 표현을 쓰다가 8세기 후반 이후 '발해·발해국'으로 바꾸었다. 이는 760년대 이후 발해와 말갈이 구분되고 다수의 말갈세력이 발해에 흡수되어 소멸된 결과 당의 대발해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당은 번진을 통해 발해를 관할하려고 하였다. 756년 무렵까지 발해는 흑수말갈 및 해·거란 등과 함께 묶였다. 그런데 765년을 전후로 발해는 양번(거란·해) 및 흑수말갈과 분리되고 신라와 함께 묶였다. 대체로 발해는 거란·해와 달리 당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동이로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은 처음 발해에 시어사나 낭장, 홍려소경 등의 직에 있던 인물을 사신으로 보냈다. 그런데 문왕대 이후 내시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다. 또한 발해는 당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에 당은 발해를 중화문화를 사모하는 나라이자 의리를 아는 것이 화하와 같다고 평가하였다.

당이 바라보는 발해의 위상도 낮지 않았다. 발해는 당이 사신을 보낸 주요국 중 하나였다. 또한 당이 파견한 대외사신들의 관품을 비교해보면 발해와 신라는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며 토번·운남·위구르보다는 위상이 좀 낮았다. 그리고 897년 당시 당은 발해와 신라의 국력을 '성'과 '쇠', '강'과 '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契丹國志』, 『高麗圖經』, 『舊唐書』, 『舊五代史』, 『唐六典』, 『唐會要』, 『東文選』, 『武經總要』, 『文苑英華』, 『文獻通考』,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紀』, 『宋史』, 『新唐書』, 『新五代史』, 『五代會要』, 『玉海』, 『遼史』, 『資治通鑑』, 『全唐文』, 『全唐詩』, 『冊府元龜』, 『通典』

단행본

김정배, 2018,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세창출판사.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_____, 2020,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古畑徹, 2018, 『渤海國とは何か』, 吉川弘文館.

_____, 2021, 『渤海國と東アジア』, 汲古書院.

魏國忠 · 朱國忱 · 郝慶雲, 2006,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史』, 名著刊行會.

濱田耕策, 2000, 『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石曉軍, 2019, 『隋唐外務官僚の研究』, 東方書店.

日野開三郎, 1984, 『小高句麗國の研究』, 三一書房.

赤羽目匡由, 2011,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_____, 2024, 『渤海と日本』, 吉川弘文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사학연구』 97.

_____,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신라문화』 25.

김종복, 2011, 「발해와 당의 관계」,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1, 「8세기 渤海와 靺鞨諸部의 대당교섭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문화연구』39.

김진광, 2018, 「대외관계기사를 통해 본 당대 발해 인식 검토」, 『전북사학』 53.

김진한, 2017, 「張行岌의 使行記事로 본 渤海의 對唐 및 突厥關係」, 『대동문화연구』 97.

_____, 2021, 「武王代 渤海의 對日本外交 開始에 對한 再檢討」, 『한국고대사연구』 103.

_____, 2023, 「8세기 신라의 대발해인식 변화와 그 배경」, 『한국학』 171.

박유정, 2023, 「책봉호 및 압번사 명칭 변화를 통해 살펴본 8세기 渤海-唐 관계」, 『중앙사론』 60.

이성규, 1996, 「中國의 分裂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韓國古代史論叢』 8.

정병준, 2011, 「8세기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당조의 대응체제」, 『8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姜守鵬, 1982, 「渤海隸屬于唐朝」, 『學習與探索』 1982-4.

孫玉良, 1983, 「唐朝對渤海的經營與管轄」, 『黑龍江文物叢刊』 1983-6.

楊昭全, 1982, 「渤海是我國唐王朝轄屬的少數族地方政權」, 『求是學刊』 1982-2.

楊雨舒, 2004, 「渤海国与唐朝关系述略」, 『東北史地』 2004-8.

王孝华, 2012, 「张籍《赠海东僧》考释-渤海史料钩沉之-」, 『内蒙古社會科學』 33-6.

魏國忠, 1982, 「渤海都督府長史小考」, 『北方論叢』 1982-2.

张中澍, 1989, 「唐幽州入渤海使张光祚墓志释译(上)」, 『北方民族』 1989-1.

庄嚴, 1982, 「渤海是唐朝統轄下的地方民族政權」, 『遼寧大學學報』 1982-4.

褚慶福, 1983, 「對唐王朝管轄渤海几介問題的探討」, 『博物館研究』 1983-1.

古畑徹, 1984,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 113.

_____, 1986, 「日渤交涉開始期の東アジア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20,「靺鞨·渤海はなぜ「北狄」なのか」,『東方學』140.
濱田耕策, 2003,「渤海國の對唐外交」,『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山內晉次, 1986,「唐よりみた八世紀の國際秩序と日本の地位の再檢討」,『續日本記研究』245.
小川裕人, 1939,「所謂渤海靺鞨に就いて」,『史林』24-1.
栗原益男, 1980,「唐帝國の盛衰」,『八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 平凡社.
村上恭子, 1998,「平盧淄青節度使と新羅·渤海」,『朝鮮史研究會會報』132.
河內春人, 2003,「渤海と契丹·奚」,『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당이 본 '발해'

김진한

이 글에서는 책봉호·국호·사신이라는 지표를 통해 당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추이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책봉호를 통해서는 발해의 '독립성'을, 국호를 통해서는 '종족적 정체성'을, 사신을 통해서는 '국제적 위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당은 측천무후 재위 시 발해를 '토벌'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죽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외교'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함께 발해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당은 먼저 사신을 보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 학계에서는 '군왕'이라는 책봉호를 주목하여 당이 발해를 내신 혹은 내속한 이민족으로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725년 태산 봉선의례에서 확인되듯이 당은 발해를 조헌지국, 즉 외신으로 대우하였다. 아울러 책봉호와 별개로 외신에 해당하는 '국왕'으로 무왕을 불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은 발해를 독립된 나라로 인식하였다.

당이 발해를 부른 국호는 다양하다. 8세기 중반까지 '발해말갈·발해군말갈·말갈·발해' 표현을 쓰다가 8세기 후반 이후 '발해·발해국'으로 바꾸었다. 이는 760년대 이후 발해와 말갈이 구분되고 다수의 말갈세력이 발해에 흡수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소멸된 결과 당의 대발해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당은 번진을 통해 발해를 관할하려고 하였다. 756년 무렵까지 발해는 흑수말갈 및 해·거란 등과 함께 묶였다. 그런데 765년을 전후로 발해는 양번(거란·해) 및 흑수말갈과 분리되고 신라와 함께 묶였다. 대체로 발해는 거란·해와 달리 당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동이로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은 처음 발해에 시어사나 낭장, 홍려소경 등의 직책을 맡은 인물을 사신으로 보냈다. 그런데 문왕대 이후 내시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다. 또한 발해는 당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에 당은 발해를 중화문화를 사모하는 나라이자 의리를 아는 것이 화하와 같다고 평가하였다.

당이 바라보는 발해의 위상도 낮지 않았다. 발해는 당이 사신을 보낸 주요국 중 하나였다. 또한 당이 파견한 대외사신들의 관품을 비교해보면 발해와 신라는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며 토번·운남·위구르보다는 위상이 좀 더 낮았다. 그리고 897년 당시 당은 발해와 신라의 국력을 '성'과 '쇠', '강'과 '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어: 책봉호, 국호, 사신, 발해, 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ang's Recognition of Balhae

Kim Jinhan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nd and the background of how Tang(당) perceived Balhae through 'Appointment titles(책봉호)' and 'The name of a country' and 'Envoys'. During the reign of Wu Zetian(측천무후), the Tang viewed Balhae as an object of subjugation. However, after Jungjong(중종) ascended the throne, Tang began to regard Balhae as an object of diplomacy. This is because the strategic value of Balhae had increased along with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Tang.

Tang sent an envoy to appoint Dae-Joyeong(대조영) as the king of Balhaegun(발해군왕). Academia, paying attention to the appointment titles, thought that Tang regarded Balhae as an inner liege(내신). However, as confirmed by the Taesan(태산) Bongseon Ritual(봉선의례) in 725, the Tang regarded Balhae as a foreign liege(외신).

Apart from the appointment titles,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King Mu was called 'King', which corresponds to the foreign lie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other words, the Tang recognized Balhae as an independent country.

The Tang called Balhae by various titles. Until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the expression Balhae Malgal(발해말갈), Balhaegun Malgal(발해군말갈), Malgal(말갈), Balhae was used, but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8th century, it was changed to Balhae and Balhaeguk(발해국). Since the 760s, Balhae and Malgal had been distinguished, and as a number of Malgal forces had been absorbed into Balhae and extinguished, indicating that the Tang's perception of Balhae had changed.

Until around 756, Balhae was tied up with Heuksu Malgal(흑수말갈)·Hae(해)·and Khitan(거란). However, around 765, Balhae was separated from Yangbeon (Khitan and Hae) and Heuksu Malgal and tied up with Silla(신라). In general, it seems that Balhae, unlike the Khitan and Hae, maintain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Tang, and was also recognized as the Eastern Barbarians(동이).

Tang, at first, sent figures of various positions as envoys to Balhae. However, after King Mun's reign, eunuchs were sent as envoys. Balhae actively adopted Tang institutions. Therefore Tang evaluated Balhae as a country that adored Chinese culture and knew loyalty as did the Chinese.

Balhae's international status as perceived by the Tang was also not low. Balhae was one of the main nations that the Tang sent envoys to. When comparing the official rank of foreign envoys dispatched by the Tang, Balhae and Silla were treated equally and but had a lower status than Tibet(토번), Yunnam(운남), and Uighur(위구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ywords: Appointment titles(책봉호), The name of a country(국호), Envoy(사신), Balhae(발해), Tang(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2

금대(金代) 자료에 나타난 발해인(渤海人)의 이미지와 그 역사적 의미

윤재운 |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II. 금의 출자와 발해와의 관련성
III. 금대 금석문의 발해인
IV. 금대 발해 유민의 존재양상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금대(金代)의 발해사 관련 문헌자료는 『금사(金史)』·『중주집(中州集)』과 금석문을 들 수 있다. 먼저 『금사』는 금대 129년간(1115~1234)의 역사를 서술한 정사이며, 본기(本紀) 19, 지(志) 39, 표(表) 4, 열전(列傳) 73, 총 135권이다. 『금사』는 동시에 편찬된 『송사(宋史)』나 『요사(遼史)』보다는 문장이 간결하고 체제나 서술에 비교적 짜임새가 있으며, 사료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발해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금사』 본기1 세기에서 발해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여진(女眞)과 발해가 '본동일가(本同一家)'라고 언급한 부분이 여진인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해 유민에 대한 내용이 풍부한데, 금 건국에 공헌한 발해인들이 대를 거듭하여 금 중기에 이르면 조정 내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정하여 정권 교체나 금 황실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던 내용 등이 담겨 있다.[1]

『중주집』은 금대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이 금대의 시를 작자별로 집대성한 총집(總集)이다. 시인 251명의 시 2,062수를 수록하고 작자별로 소전(小傳)을 붙이며 시평을 더하였다. 전체 10권으로 전후 7권과 3권으로 나뉜다. 금나라 시인 위도명(魏道明)이 편집하고 상형(商衡)이 필사한 『국조백가시략(國朝百家詩略)』과 원호문이 교유한 시인들의 시를 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후 체제가 서로 다르며, 편년체적 성격이 강하여 금대 시가를 연구하는데 문헌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하남성 일대는 중주(中州)로 불리며, 금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사람들은 중주의 인물이라는

---

* 투고: 2025년 4월 7일, 심사 완료: 2025년 5월 13일, 게재 확정: 2025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15).

1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연구소 편, 2023, 『발해사 자료총서-중국사료 편』권1, 동북아역사재단, 263~2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어, 여기서 이름을 취하여 이 책을 『한원영화중주집(翰苑英華中州集)』 또는 『중주고취한원영화집(中州鼓吹翰苑英華集)』이라 불렀다. 일반적으로는 『중주집』이라고 부른다. 원호문이 『중주집』을 편집하기 시작한 것은 금 말기인 천흥(天興) 2년(1233)으로, 몽골군이 변경(汴京)을 공격하여 금 애종(哀宗)이 남쪽으로 도망간 이듬해이다. 금나라가 멸망하자 원호문은 산동 요성(聊城)에 구금당하였고, 여기에서 『중주집』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란과 경비 문제 등으로 1250년에 처음으로 조판되었다. 발해 관련 기사로는 현달한 발해 유민과 관련한 글도 있다. 발해 유민인 왕준고(王遵古)와 고헌(高憲) 등이 남긴 문학작품이 그것이다.[2]

금대의 금석문으로는 「요양 승엄사 엄공선사탑명」, 「광록대부장행원묘지」, 「장여유묘지명」, 「통혜원명대사탑명」, 「보조사비」, 「유영암사제기」, 「보공선사탑명」 등이 있다. 금대 금석문은 『금사』에 보이지 않는 개인이나 가문의 생애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것으로 1차 자료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금대의 발해사 연구는 발해 유민 관련 연구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발해 유민 연구는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발해사 전공자가 아닌 고려사나 요·금사, 중국동북사 전공자가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금대 발해 유민에 대한 연구가 그렇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해 유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자가 나오고 있고, 요·금대 발해 유민 묘지명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어 '발해사' 또는 '발해 유민사'의 입장에서 살핀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이 글에서는 금대 문헌사료와 금석문을 금의 출자(出自) 의식과 금석문과 문헌에 보이는 발해 유민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연구소 편, 2023, 위의 책, 587~5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금의 출자와 발해와의 관련성

『금사』에는 본기와 고려전에 발해에 대한 기록이 있다.

2-1. 金의 선조는 靺鞨氏에서 나왔다. 말갈은 본래 勿吉이라고 불렸는데, 물길은 옛 肅愼 땅이다. 북위 때 물길에는 7부가 있었으니, 粟末部·伯咄部·安車骨部·拂涅部·號室部·黑水部·白山部가 그것이다. 수나라 때에는 말갈이라고 불렀으니, 7부 모두 말갈이라고 불렀다. 당나라 초기에 黑水靺鞨, 粟末靺鞨이 있었으나, 나머지 5부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다.

2-2. 속말말갈은 본래 고구려에 딸려 있었으니, 姓은 大氏이다. 李勣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속말말갈은 東牟山을 지켰다. 그 뒤 渤海를 세우고 왕이라고 일컬으며 10여 세를 이어갔다. 문자와 禮樂, 官府, 제도가 있었고,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

2-3. 흑수말갈은 숙신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은 바다, 남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었는데, 역시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 일찍이 15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도와 당나라 태종의 침공에 맞섰으며,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사를 패퇴시켰다. 開元 연간에 와서 조공을 바치자 당나라는 黑水府를 설치하고, 부의 우두머리를 都督·刺史로 삼았으며, 長史를 두어 감독하였다. 도독에게 李氏 성과 獻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黑水經略使를 제수하였다. 그 뒤로 발해가 강성해지자 흑수는 발해에 예속되었고 당에 대한 조공도 끊어졌다. 五代 시기에 거란이 발해의 땅을 모두 점령하자, 흑수말갈은 거란에 귀부하여 복속되었다. 그들 가운데 남쪽에 있던 자들은 거란의 民籍에 이름을 올렸으니 熟女直이라고 불렀고, 북쪽에 있던 자들은 거란의 민적에 편입하지 않았으니 生女直이라고 불렀다. 생여진의 땅에는 混同江과 長白山이 있는데, 혼동강은 또한 흑룡강이라고도 불렀다. 이른바 白山黑水라는 곳이 이곳이다.

2-4. 금나라의 시조 函普는 고려에서 왔는데 나이가 60여 세였다. … 태조가 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에서 요나라 병사들을 물리치고 耶律謝十을 사로잡고는 梁福과 斡答剌를 파견해 발해 사람들을 회유하여 말하기를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애초에 모두가 물길의 7부였기 때문이다.

(『金史』 卷1, 本紀1, 世紀)

2-5.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속말은 동모산을 차지하고 점차 강역이 커져 발해라고 일컫고 성은 대씨로 하였으며 문물과 예악이 있었다. 당나라 말엽에 이르러 점차 쇠락하여 이후로는 다시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정벌하자 발해가 귀부하였으니 대개 그 후예였다.

2-6. 흑수말갈은 예로부터 숙신의 땅에 살았고, 그곳에는 白山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이는 장백산으로 금나라가 일어난 곳이다. 여진은 비록 예전에 고려에 복속했으나, 서로 왕래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자, 고려는 예전에 요나라를 섬기던 옛 예법에 따라 금나라에 신하로서 예를 갖추었다.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금나라의 선조, 즉 출자에 대하여 2-1에서 "금의 선조는 말갈씨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이 말갈은 본래 물길이라 불렸는데 북위 때 물길 7부가 있었다고 한 것은 『북사(北史)』를 참조한 것이다. 수나라 때는 말갈이라 했으며, 당나라 초에는 흑수말갈과 속말말갈만 있고 나머지 5부는 소식이 없다는 부분은 『구당서』 말갈전과 『신당서』의 흑수말갈전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3] 2-5와 2-6, 즉 『금사』 고려전에서는 당나라 초에 말갈 중에 속말·흑수 두 부가 있고, 두 부는 모두 고려, 즉 고구려에 신속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상의 『금사』 본기와 고려전의 설명은 금인(金人)의 출자가 고려에 신속해 있던 말갈, 그 중에서도 속말말갈과 흑수말갈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속말말갈과 흑수말갈이 금나라 건국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금사』 본기와 고려전이 비슷한

3 임상선, 2023, 「중국 정사(正史)의 발해 기록 검토」, 『역사교육논집』 84, 275~27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술을 하고 있다.

속말말갈은 바로 발해를 가리킨다. 2-2에서 속말말갈이 처음 고려에 부속되어 있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동모산을 차지하고 발해라 불렸으며, 문물, 예악, 5경 15부 62주가 있다는 것은 『신당서』 발해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2-3에서는 흑수말갈이 고려에 부속되고, 뒤에는 강성해진 발해에 속하게 되었으며, 오대 때는 거란에 신속했다고 하였다. 또한 숙여진과 생여진 중에서 후자가 있는 곳이 혼동강(흑룡강, 흑수)과 장백산(백산)이라고 하였다. 2-5에서는 흑수말갈 거주지에 있는 백산, 즉 장백산이 바로 금나라가 일어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본기와 고려전은 금 건국의 직접적 집단이 흑수말갈 중에서도 바로 이 생여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2-4에서는 금의 시조인 함보가 처음에 '고려'로부터 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금 본기와 고려전의 금의 출자에 대한 설명은 금을 세운 집단과 건국자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금은 말갈에서 비롯되었고, 당대에는 속말말갈의 발해와 흑수말갈이 있었고, 오대에는 발해는 거란에 복속되고, 흑수말갈은 숙여직만 복속되었으며, 거란에 복속되지 않은 장백산 지역의 생여직이 금국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금의 시조 함보는 출신은 밝히지 않고, 고려에서 왔다는 것이다. 요컨대, 금의 건국 집단은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고, 건국자인 함보[4]는 고려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2-5와 2-6, 즉 『금사』 고려전 앞부분에서 속말말갈과 흑수말갈을 기술한 것은 이들이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 자신의 선조인 속말말갈과 흑수말갈의 행적이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서술함으로써 고려와 금이 역사적으로 친연성이

4 금의 시조 함보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함보 관련 기록이 가공되었다고 보아 함보의 실존을 부정하였다. 중국 학자들은 비교적 다양한 견해를 제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함보는 고려에서 온 여진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 학자들은 함보는 한반도에 기원을 둔 인물로 보는데 고려 출신이나 신라 출신으로 본다(김인희 편, 2021, 『전사들의 황금제국 금나라-금나라 통치전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5]

하지만 2-4에서 아골타가 발해인과 '본동일가'라고 표방했던 것은 종족적 일체감이 아니라 지역적 내지는 정치적 일체감을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아골타는 두 민족이 과거에 발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적 공동체였음을 강조했던 것이다.[6]

이러한 '본동일가'에 대해 여진의 국가 전략을 엿볼 수도 있다. 다카이 야스유키는, 동단국(東丹國)은 982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발해의 재지 기구로서의 역할과 요동에 이주된 발해인 통치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요 성종말까지 계속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옛 발해지역에 체류하는 발해인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무역 편의와 안전을 보상해줌으로써 교역을 축으로 하는 발해의 지역 질서, 즉 수령제가 유지되었다고 보아 이를 총괄하여 '발해적 질서'라고 명명하였다.[7]

거란은 발해 멸망 뒤에 그 땅에 있던 동단국을 요동으로 옮기고, 백성도 이주시켰다. 이주시킨 것은 주로 발해 중심부의 고구려·남부말갈계 사람들로, 그들의 이동 후에는 빈 땅이 되었다.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북부말갈계 사람들로, 그들과 이 지역에 남겨진 사람들이 일괄하여 여진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말갈 본래의 땅에 있던 사람들은 흑수·철려(鐵驪) 등이라 불려서 여진과는 구별된다. 금의 엘리트인 완옌부는 국가형성 시 발해와 같이 2개의 통합원리를 사용하여 나누었다. 하나는 숙신-말갈(물길)의 전통, 또 하나는 고구려의 전통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요동의 발해인을 포섭할 때 "여진·발해는 본래 같은 집이다"라고 태조 아골타(阿骨打)가 말했다는 에피소드로, 그 이유를 『금사』에서는 "아마도 예전에 모두가 물길의 7부였다"고 한다. 『금사』 고려전

5 임상선, 2023, 앞의 글, 277쪽.

6 나영남, 2017, 「金代 渤海人의 存在樣態 및 政治的 位相」, 『중국사연구』 107, 47쪽.

7 高井康典行, 2016, 「遼における渤海的秩序の繼承と變化」, 『渤海と藩鎭-遼代地方統治の研究』, 汲古書院, 57~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도 발해를 말갈 7부인 속말말갈로 놓아서 금은 발해를 고구려 전통의 계보가 아니라 숙신-말갈 전통의 계보에 위치지운다. 금의 동북아시아 북부제족에 대한 통합원리로서는, 숙신-말갈의 역사적 계보의식이 주된 것이어서 고구려계승의식은 일부에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고구려 계승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은, 한반도를 공격하여 영토화하는 지향성이 약화되었음을 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동북아시아 북부가 한반도와 명확히 단절되어, 숙신-말갈-발해의 전통을 계승하여 여진의 세계=만주세계로 자립한 것이다. 여기에 발해에서 시작한 동북아시아의 분할이 완성된다. 둘째, 확대의 방향성이 서쪽이라는 것이고, 그 결과 금은 북중국을 영유한다. 그 배후에는 다카이가 서술한 거란시대의 지향성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8]

Ⅲ. 금대 금석문의 발해인

1. 보조사비(普照寺碑, 1144년)

「보조사비」[9]는 일명 「집류비(集柳碑)」, 「동류비(東柳碑)」, 「낭야비(琅琊碑)」라고도 한다. 「집류비」는 당 명필가 유공권(柳公權)의 글자를 모아 새긴 것에서 유래되었고, 「동류비」는 서안에 소재한 유공권의 「현비탑비(玄秘塔碑)」와 비교해서 동쪽에 또 하나의 유공권 비석이 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낭야비」는 비문 본문 첫머리의 지역 명칭에서 따왔다. 1144년(황통 4) 10월 20일에 봉국상장군 고소화식과 묘제선사 각해가 비석을 세웠다. 원 비석의 크기는 1장(丈) 2척(尺), 너비는 4척이다. 비액은 전자이고 비문은 행서이다. 총 24행, 62자이다.

8 古畑撤, 2018, 『渤海國とは何か』, 吉川弘文館, 172~174쪽.

9 박현규, 2020b, 「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 『한국고대사탐구』 34, 557~55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여상(仲汝尙)이 비문을 찬하고, 중여희(仲汝羲)가 당 유공권의 글자를 모아 새겼다. 정위(程瑋)가 전자로 비액을 적었다. 그 번역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琅琊郡 치소에 소재한 불교 사찰은 무릇 6곳인데, 5곳은 율종이고, 1곳만 선종이다. 지금 普照寺가 이곳이다. … 그 땅은 대개 동진 右將軍 王羲之 逸少의 옛 저택이었다. 옛날 진나라의 국조가 도중에 끊기어 元帝가 도강하자 臨沂의 여러 왕씨가 난을 피해 남천하면서 저택을 기증하며 사찰로 삼았다. … 정사년(1137)에 妙濟禪師 覺海가 비로소 와서 주석하였다. 선원에 들어온 지 4년이 되는 해에 다시 세우기로 의결하였다. 무리들이 이루기가 어렵다고 두려워하여 잠시 누추한 채로 두고자 하였다. 착수할 초기에 다른 의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손을 모으고 방관하며 저절로 그만두기를 기다렸다. 선사가 먼저 뜻을 정한 것이 우뚝 솟은 산과 같아 끝내 흔들 수가 없었다.

이때 奉國上將軍 渤海 高召和式公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선사와 더불어 옛날 過去劫의 무량불이 있는 곳에서 숙연을 맺은 적이 있었고, 이에 이르러 기연으로 다시 만나니 의기투합하였다. 공이 먼저 치첩을 허물어 막힌 곳을 트고, 또 돌로 쌓아 다리를 만들어 望月湖를 건너 남쪽으로 넓은 도로까지 다다르게 하였다. 잠깐 사이에 질퍽한 곳을 메워 널따란 지경으로 만들었다. 다시 백공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완성된 법도를 나누어주었다. 성상이 남면하는 자리부터 다음으로 방장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어린 종이 지내는 곳까지 모두 구역을 정하여 구분하고 모두 새롭게 바꾸기를 기약하였다. 더욱이 자신의 물력을 내어 경비로 보내주었고, 또 고통을 참는 모습을 보여주며 게으름을 굴복시키고 삽질이나 도끼질하는 데에 솔선수범하였다. 그러자 군민들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먼 곳의 단월들도 또한 인색함을 깨뜨리고 나태함을 거두어 큰 인연을 베풀며 자주 오고 가니 길이 서로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재물이 더욱 풍부해졌고 편한 바를 내던지자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처음에 원하던 바를 모두 성취하였다.[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문에는 금나라 때 보조사가 중수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1137년(대덕 3)에 묘제선사 각해가 보조사에 주석하였고, 1141년(황통 1)에 사찰 중수에 나섰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중수 역사에 대해 공역이 많이 들어간다며 두려워했으나, 이때 일찍이 묘제선사 각해와 불교 숙연을 맺은 봉국상장군 고소화식이 나서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때 중수 역사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묘제선사 각해가 중수를 주창하고 많은 공력을 펼쳤지만, 실질적으로 중수 역사의 총책에 가까운 역할을 한 이는 고소화식이었다. 당시 고소화식은 보조사가 소재한 기주 지역을 총괄한 방어사 겸 안찰사였다.

보조사 대단월 고소화식은 고표(高彪)이다. 고소화식의 출신지인 진주는 오늘날 요녕 개주(蓋州)이다. 929년(천현 4)에 요나라가 발해국 사람들을 천사시켜 건안성(建安城)에 진주를 세웠다. 1119년(천경 9)에 금나라가 진주를 장악했고, 1129년(천회 7)에 자사주(刺史州)로 바꾸었다가, 1195년(명창 6)에 다시 개주로 바꾸었다. 고소화식의 조부 고안국(高安國)은 요나라 흥(興)·진(辰)·개삼진절도사(開三鎮節度使)를 역임했고, 부친 고육가(高六哥)는 좌승제(左承制) 자사(刺史)를 지냈다. 1116년(천경 6)에 알로(斡魯)의 금나라 군사가 대발해국 고영창(高永昌)이 지키던 요양을 공격할 때 고육가가 고향 사람을 이끌고 투항하여 유하주천호(楡河州千戶)가 되었다. 이후 고소화식은 부친의 직위를 이어받

10 『金石萃編』 卷354, 沂州府普照寺碑, "琅琊之佛祠在郡治者凡六区, 其五爲毗尼, 其一爲禪郤, 今普照是也. … 其地 盖東晋右將軍王羲之逸少故宅也. 昔晋祚中缺, 元帝渡江, 临沂诸王, 去乱南迁, 乃捨宅爲梵寺. … 歲在丁巳, 妙濟禪師覺海始來住持, 入院之四年, 乃議改作. 衆懼難成, 姑欲因陋. 經始之初, 異論蜂起, 拱手旁觀, 待其自敗. 師志先定, 屹如山立, 終不可搖.
時奉國上將軍渤海高公召和式, 適守是邦, 與師昔於過去劫在無量佛所曾植宿因, 至是機緣會遇, 針芥相投. 公命首墮雉堞, 以達蔽阻, 又架石爲梁, 跨望月湖, 南臨廣路, 於指顧間, 已盡闢湫隘爲空曠之境矣. 復召百工, 授以成矩, 自當陽聖位, 次及方丈, 下逮僮隸所偃息, 皆標立區所, 期盡新之. 益出己貨力, 往給經費, 且示苦忍, 降伏偷惰, 畚鍤斤斧所嚮, 輒以身先. 於是郡人感其誠, 莫不風靡. 遠方檀施, 亦破慳拾墮, 助作大緣, 憧憧往來, 相踵於路. 以故貲用饒益, 魔失其便, 寒暑未幾, 悉滿初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 전장에 출전하였다. 이후 중경(中京), 평주(平州), 하간(河間), 곽주(廓州) 등 여러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워 큰 전공을 세웠다. 『금사』「고표전」에는 고소화식이 기주방어사가 된 시점이 해릉왕 즉위년(1149) 이후로 나온다.[11] 그런데 「보조사비」에는 보조사비를 세운 연도, 즉 1144년(황통 4)에 고소화식의 관직이 봉국상장군(奉國上將軍)·행흔주방어사(行忻州防禦使事) 겸 관내안무사(管內按撫使)·통압기해로만호병마(統押沂海路萬戶兵馬)로 나온다.

2. 장행원묘지(張行願墓誌, 1150년)

장행원은 금 태조대로부터 세종대에까지 5대에 걸쳐 벼슬살이하면서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장호(張浩)의 아버지이다. 이들 가문은 요양(遼陽) 지방의 발해 유민으로서 가장 부귀영달을 누린 집안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사』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비문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들을 많이 보충해주고 있다.[1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特進參知政事 虞國公 張浩의 망부 光祿公은 휘 행원으로 遼陽 사람이다. 증조부 樂夫는 고 禮賓使이고, 증조모는 大氏이다. 조부 霸는 金吾衛上將軍이었고, 조모 李氏는 隴西郡夫人이다. 부친 祁는 南海軍節度使를 지냈다. 손자 호가 궁궐 정무에 오른 관계로 崇德大夫에 증직되었다. 모친 楊氏는 처음에 弘農范陽郡夫人이 되었다가 나중에 虞國太夫人에 증직되었다.
>
> 공은 처음 음서로 樞密院令史가 되었다가 右班殿直으로 옮겼다. 요 乾統 병술년(6년; 1106) 2월 25일에 졸하였다. 향년 36세이다.
>
> 공의 성품은 침착하고 중후하며 집안의 청백을 전해 받았다. 이른 나이에 □□하

11 『金史』 卷81, 列傳19, 高彪傳.

12 宋基豪, 1992, 「金代渤海遺民墓誌·墓碣」,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韓國古代社會硏究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 크게 가지고 있는 바를 펴지 못해 향인들이 안타까워하였다. 지금 아들이 귀해져서 여러 차례의 증직을 받아 광록대부가 되었다. 부인 廣陵 高氏는 虞國太夫人에 봉해졌다. 아들은 2명이다. 장자는 승려가 된 慧休로 圓通辨正大師라고 불렀으며 전 東京 管內都僧錄이다. 차자는 浩이며, 特進參知政事 虞國公이다. 딸 1명은 비구니가 된 卽圓으로 紫圓惠大德에 하사받았다. 손자는 4명이다. 장손 汝爲는 진사 급제하여 奉直大夫에 올랐으며 지금 冀州節度 副使가 되었다. 차손 汝翼 또한 詞科에 급제하여 承事郎 東京鶴野縣 主簿가 되었는데, 일찍 졸하였다. 차손 汝霖, 차손 汝能은 모두 학문에 뜻을 두었다. 증손은 남녀 각각 1명인데 아직 어리다.

虞國太夫人은 天德 2년(1150) 7월 9일에 졸하니 향년 78세이다. 特進參知가 그해 9월 초하루 갑술에 복택하여 11일 갑신에 天井山 光祿公의 무덤에 합장하고, 또한 공의 세차와 합장 기일을 적어놓았기에 그 말을 번잡하게 할 수 없어 오로지 사실에 입각해서 돌에 기록한다.[13]

---

13 "特進參知政事·虞國公張浩之先父光祿公, 讳行願, 遼陽人也. 曾祖樂夫, 故禮宾使, 曾祖母大氏. 祖霸, 故金吾衛上將軍. 祖母李氏, 隴西郡夫人; 父祁, 故任南海軍節度使, 以孫男浩入參大政, 贈崇德大夫. 母 楊氏, 始封弘農范陽郡夫人, 後贈虞國太夫人. 公初以世家充樞密院令史, 遷右班殿直, 乾統丙戌歲二月廿五日卒, 享年卅有六. 公賦性沉厚, 传家清白, □其早世, 弗克大耀所蘊, 爲鄉人之嗟惜. 今以子貴, 累贈光 祿大夫, 娶廣陵高氏, 封虞國太夫人. 生二男, 長爲僧, 曰慧休, 圓通辨正大師, 前東京管內都僧錄; 次曰浩, 特進參知政事、虞國公也. 一女爲尼, 曰即圓, 賜紫圓惠大德. 孫男四人, 長曰汝爲, 登進士第·奉直大夫, 今爲冀州節度副使. 次曰汝翼, 亦登詞科·承事郎·東京鶴野縣主簿, 早卒. 次曰汝霖, 次曰汝能, 皆志于學. 曾孫男女各一名尚幼. 虞國太夫人以天德二年七月九日卒, 享年七十有八. 特進參知以卜其年九月甲戌朔, 十有一日甲申合葬於天井山光祿公之塋, 且俾直叙公之世次與合祔之期, 故其言不敢繁, 惟□其實以誌於石. 孫男汝能书." [장행원의 묘지석은 外山軍治, 1960, 「金代遼陽の渤海人と佛教」, 『塚本博士送壽記念佛教史學論集』; 1964, 「金朝治下の渤海人」, 『金朝史研究』, 京都大學 東洋史研究室; 羅一福頤, 1982, 『滿洲金石志』 卷3, 石刻史料新編 제1집 제23책, 新文豊出版公司; 北京圖書館金石組, 1990,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제 46책, 中州古籍出版社; 宋基豪, 1992, 「金代渤海遺民墓誌·墓碣」,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方京一, 2006, 「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 『백산학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행원묘지」는 1923년 요양시 한가분촌(韓家墳村)에서 출토되었다. 묘지 안에서 묘지석과 자기관 2기가 나왔다. 묘지석의 크기는 가로 49㎝, 세로 49㎝이다. 행서이고, 19행 20자이다. 장여능(張汝能)이 비문을 적고 글씨를 썼다. 한가분촌 교사 진응양(陳鷹揚)이 구입하여 재임하고 있는 학교로 옮겨놓았다. 동년 가을에 진응양이 이임할 때 자기관을 잠상시험소(蠶桑試驗所)에 두었고, 묘지석을 교육공소(教育公所)에 옮겨놓았다. 그 후 묘지석이 유실되었다가, 1960년대 요양박물관이 시중에 나온 묘지석의 탁본을 구매하였다.[14]

「장행원의 묘지명」은 그 손자 장여능이 썼다. 이 묘지명에 장행원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우국공(虞國公) 장호의 부친으로 요양인(遼陽人)으로 나온다. 더불어 장행원의 증조 낙부(樂夫)와 증조모 대씨(大氏), 할아버지인 패(霸)와 할머니인 이씨(李氏), 아버지인 기(祁)와 어머니인 양씨(楊氏) 및 부인 광릉(廣陵) 고씨(高氏), 그리고 고씨와의 사이에 둔 자녀 장자 혜휴(慧休) 원통변정대사(圓通辨正大師), 차자 장호, 딸 즉원(卽圓) 사자원혜대덕(賜紫圓惠大德)이 나온다. 묘지명에서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에, 딸 즉원이 장호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장행원 묘지명」에는 손자인 장호의 아들 여위(汝爲), 여익(汝翼), 여림(汝霖), 여능을 적고, 마지막에 아직 어린아이(尙幼)인 증손과 증손녀가 각 한 명씩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장호의 아들 중 장여익은 장호의 열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장행원 묘지명」에서 처음 확인된다. 여익의 이름이 열전에 누락된 것은 그가 일찍 사망하여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인 증손은 첫째인 장여위의 자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째 여익은 일찍 사망하였고, 여림과 여능은 아직 지학(志學)이라고 한

76; 朴現圭, 2020a,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등에 소개된 바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한국고대금석문', 송기호, 「장행원 묘지」, 최종 검색 일자: 2024.10.27. 등을 참조].

14 朴現圭, 2020a, 위의 글, 174~1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으로 보아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미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5]

「장행원묘지」의 기록을 보면, 장행원의 아버지와 조부 모두 요 조정에서 상당한 고위직까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장행원의 증조-조-부 모두 요 조정에서 대대로 사환했기에 장행원은 부의 음(蔭)으로 사로에 나아갔고, 그 때문에 해당 가문이 '세가(世家)'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16]

3. 유영암사제기(游靈巖寺題記, 1156년)

영암사는 현 산동성 제남시(濟南市) 장청구(長淸區) 만덕가도(萬德街道)에 소재한다. 「유영암사제기」는 1156년(정륭 1) 5월 7일에 작성되었는데, 크기는 54cm이고 너비는 90cm이다. 장여위가 비문을 짓고 행서로 썼다. 영암사 법고(法高)가 비석을 세우고 동평(東平) 장성(張誠)이 각석하였다. 이 석각은 이산(李山)이 시를 짓고, 초희조(焦希祖)가 발문을 적었으며, 증오가(僧悟可)가 행서로 썼다.[17]

> 나는 평소에 숲과 샘의 맑은 승경을 좋아하였고, 오랫동안 영암 명산이 예로부터 祖師의 도량이라는 것을 들어왔다. 겸연쩍게도 속세의 인연이 넘쳐 흘러 유람하지 못하였다. 근자에 汶上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아 지척처럼 가까운 이웃에 봉해졌지만, 또한 한 번도 가지 못하였다. 격서를 받아 徐州·宿州·邳 州에 주둔한 병사들의 노고에 상을 주는 일을 행하였다가 돌아오면서 岱宗(태산)에 오르게 되었다. 멀리 돌아가는 행역의 수고를 꺼리지 않고, 흔쾌히 와서 上方의 뛰어난 경치를 두루 유람하였도다.

15 권은주, 2020,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531~532쪽.

16 박순우, 2021, 「요~금대 발해인 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과 통혼 사례 분석」, 『대동문화연구』 114, 261쪽.

17 박현규, 2020b, 앞의 글, 563~5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산봉우리가 가파르고 우뚝 서 있으며, 전각이 장대하고 고풍스러웠다. 하늘에 닿을 큰 나무들이 울창한 이곳에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빼어난 암석에 세운 절경의 정자에서 쉬니 맑은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오로지 새 지저귀는 소리만 들리고 그늑하고 맑은 기이함으로 속세의 시끄러움을 피할 수 있었으니 진실로 四絶 중의 하나였다. 세속의 염려를 돌연히 멈출 수 있었던 까닭으로 예전에 경모하는 뜻에 이르게 하여 돌아가는 것을 홀연히 잊게 하였다. 당나라 李涉의 시에서 "대나무 정원을 지나다가 승려 만나 얘기하니, 또 뜬구름 인생에 한 나절 쉼을 얻었네"라는 구절이 바로 이를 말함이다.

이때 가족과 함께 유람하였다.

정륭 병자년(1156) 중하(5월) 초7일에 同知東平總尹 遼陽 張汝爲 仲宣이 제하다.

시방 靈巖禪院 監寺 寺門 法高가 비석을 세우다.

東平 張誠이 새기다.[18]

이 비문에서는 『금사』에 누락된 장여위의 재직 기록과 행적이 확인된다. 즉, 그는 동서로의 동평부(東平府) 문상현(汶上縣)의 관리가 되었다. 그는 문상현의 관리가 된 이후 염원하던 명산인 영암산과 영암사(靈巖寺)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장여위가 동평부의 관리로 재직

18 "余素好林泉之淸勝, 久聞靈巖名山, 迺自昔祖師之道場也. 所慊塵緣衮衮, 未獲游覽. 比雖守官汶上, 隣封咫尺, 亦無由一到. 玆因被檄賞勞徐·宿·邳州屯守軍兵, 還登岱宗, 故不憚迂遠行役之勞, 惠然而來, 周覽上方勝槩.
峰巒峭拔, 殿閣壯古, 森天喬木, 是處流泉. 憩於秀岩絶景之亭, 淸風時至, 了不知暑, 惟聞啼鳥之聲, 幽邃淸奇, 迴□囂凡, 信四絶之一也. 頓息塵慮, 以適平昔景仰之意, 怳□忘歸. 憶唐李涉詩有云, 因過□竹 院逢僧話, 又得浮生半日閑. 正此之謂也.
時携家偕遊.
正隆丙子歲仲夏初七日, 同知東平總尹, 遼陽張汝爲仲宣題.
十方靈巖禪寺監寺門法告立石.
東平張誠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 서주(徐州)·숙주(宿州)·비주(邳州)에 주둔한 병사들의 노고를 포상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는다. 그는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영암사를 방문하고, 그간 그토록 염원한 곳에 왔다는 감동을 1156년 중하(5월) 초7일에 「유영암사제기」에 남겼다. 그런데 「유영암사제기」의 말미에 '동지동평총윤(同知東平總尹) 요양(遼陽)의 장여위가 제하다'라는 기록이 눈에 띈다. '동지동평총윤'이란 직관은 백관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156년의 시점에 장여위는 동평부의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완원은 『산좌금석지(山左金石志)』에서 동지동평총윤은 동평부의 부윤(府尹)과 총관(總管)을 겸직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는 동평부의 속현인 문상현의 관리로 재직한 바 있고, 후에 동평부의 장관으로 부임하여 재직했던 것을 알 수 있다.[19]

4. 통혜원명대사탑명(通慧圓明大師塔銘, 1161년)

금 세종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발해 유민 출신 가문이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상서령(尙書令) 이석(李石)이었다. 세종이 이석을 깊이 신뢰하였던 원인은 이석과 세종이 생구(甥舅)관계로서 그들 사이에 이홍원(李洪願)이란 여성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세종의 어머니이자 이석의 누나로 추시(追謚)된 정의황후(貞懿皇后)이다.[20] 그녀에 대한 기록이 『금사』에 있는데 그녀가 죽을 때 정공(鄭公) 완언옹(完顔雍)이 이언융(李彦隆)에게 부탁하여 쓴 탑명(塔銘)이 1981년 6월에 중국 심양 부근의 요양 수산공사(首山公社) 왕가장(王家莊) 밭에서 발견되었다. 이 비석은 지금 심양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대정(大定) 2년(1162) 세종이 그녀를 위해 장골탑(葬骨塔)을 세웠다. 이 탑이 바로 오늘날 요양시에서 유명한 백탑(白塔)이다.[21] 정의황후에 대한 탑명의 번역문은

19 박순우, 2021, 앞의 글, 263쪽.

20 『金史』 卷64, 列傳2 后妃傳, 睿宗貞懿皇后傳.

21 鄒寶庫, 1984, 「遼陽市發現金代 '通慧圓明大師塔銘'」, 『考古』 198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과 같다.

> 大師의 속명은 洪愿으로서 대대손손 遼陽의 豪族이며 觀察使 李侯의 딸이다. 太祖皇帝의 第三子인 許王의 正室이며 東京留守 鄭國公의 母親이다. 大師가 시집가기 전에 친정집에서 孝友聰明으로써 父母의 총애를 받았다. 시집간 이후 君子를 보좌하여 內助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아들을 낳은 후 자식을 義方으로 가르쳐 賢明한 여자로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許王(宗望)이 사망한 후 어느 날 父母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나는 瞿曇氏(佛法)에게 天地가 덮고 또 실은 것, 日月이 빛나는 것, 萬物의 生死 등이 모두 幻影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富와 貴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佛覺大禪師로부터 具戒를 받았는데, 황제가 이 사실을 들은 후, 그녀에게 通慧圓明이란 法號를 詔書하고, 紫衣를 下賜하여 大師를 獎勵하였다. 大師는 東京城 丹鳳門의 좌측에 大道場을 지었고, 황제(熙宗)는 그녀에게 大淸安禪寺란 額子를 詔하였다. 구체적인 기록은 건립할 때 寺碑에 실었다. 正隆六年 五月 戊子에 六十八歲로 생애를 마쳤다. 17년 동안 비구니 생활을 하였는데, 처음에 대사는 그의 병을 주변의 승려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骨塔을 동경城 북쪽 寺圃의 東에 매장하라고 명하였다. 참으로 明達한 분이었다. 六月 庚申 그녀의 아들 鄭公(世宗)이 그의 骨灰를 매장하였다. 아울러 그의 행적을 기록하여 그녀를 記念하였다. 이 일은 北平의 李彦隆이 담당하였다.[22]

---

22 鄒寶庫, 1984, 위의 글. "師名洪愿, 世爲遼陽大族, 觀察使李侯之女. 太祖皇帝第三子許王之室, 崇進東京留守鄭國公之母. 師在家, 以孝友聰明 爲父母所偏愛, 得所歸, 能輔佐君子, 內助之功爲多, 旣有子, 又能敎之以義方, 嗚呼可謂賢也已. 王旣捐館, 一日謂所親曰, 吾聞諸瞿曇氏 天地之覆載, 日月之照臨, 萬物之生死, 皆幻也. 富貴于我何有哉? 乃削發爲比丘尼, 依佛覺大禪師, 受具戒, 旣聞于上, 詔以通慧圓明爲號, 錫紫衣, 以褒之師. 師乃建大道場于都城丹鳳門之左, 詔以大 淸安禪寺爲額, 從所請也. 營建之詳載于寺碑, 正隆六年五月戊子, 感微疾而逝, 享世六十有八歲, 僧夏一十有七, 始師未病告諸禪侶曰吾將逝矣, 乃命立浮圖于都城之北寺圃之東以爲葬. 所甫來而化, 嗚呼可謂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문은 그녀의 일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였고, 명문(銘文)은 화려한 언어로 장식하였다.[23] 이 비문이 세워졌을 때 세종은 정공의 신분으로 요양에서 동경유수(東京留守)로 활동 중이었다. 이때 정의황후가 68세로 17년 동안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청안대선사(淸安大禪寺)에서 죽었다. 그녀가 1161년 5월에 죽고 6월 9일에 탑명을 전각(鐫刻)하였는데, 그해 9월에 세종이 요양세력을 중심으로 거사하여 10월에 칭제하였다.

그녀는 세종의 아들인 현종(顯宗)을 위해서 요양 망족(望族) 유씨(劉氏)의 딸을 선택해서 배필하였다. 이렇게 보면 세종과 발해 유민의 관계가 정의황후와 이석을 통하여 맺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장씨의 사위이고, 이씨와 장씨도 사돈이 되었다. 발해 유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발해 유민에 힘을 입은 해릉왕의 지배를 쉽게 전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이 발해 유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원인은 정의황후의 탑명에서 알 수 있다.[24] 그의 아버지 예종(睿宗)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세종은 어머니의 영향을 주로받았기 때문에 발해 유민과 자연스럽게 친족의식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

5. 보공선사탑명(寶公禪師塔銘, 1176년)

「제남장청현영암십방선사제11대보공선사탑명(濟南長淸县靈巖十方禪師第

也已. 六月庚申其子鄭公, 奉迎其骨歸其所而安厝之, 乃序其始 終行迹之著, 聞者示其屬 北平李彦隆曰 敢囑以銘.
銘曰 嗟唯李氏 世載淑美 有女嗣慶 宜歸帝子 爰初在室 孝于其親 旣配君子 輔之以仁 □□王家 至富至貴 師于是時 克自抑畏 王之下世 泰山其頹 師乃自悟 不爲利□ 遺世超俗 依于佛覺 篤志學問 久而彌確 其號維何 通慧圓明 納衣易紫 禪林之榮 始建淸安 擬請其額 天子□□ 以從其索 師勤佛事 載在寺碑 觀碑之文 可得而知 始末有□ 前□化 日命立浮圖 以爲葬室 師之遺行 有初有終 勒石刻 銘期□□ 窮正隆六年□□□ □□□九日崇進東京留 守鄭國公 男完顔雍建”

23 자세한 내용은 방경일, 2006, 앞의 글, 405~408쪽 참조.

24 鄒寶庫, 1984,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十一代寶公禪師塔銘)」은 비액이 '보공선사탑명'이다. 선암매헌거사(仙巖梅軒居士) 적병(翟炳)이 비문을 짓고 정서로 적었으며, 진정부작동감(眞定府酷同監) 염송(閻崧)이 전서로 비액을 적었다. 1176년(대정 14) 7월 초하루에 작성되었다.[2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님의 성은 武씨이고, 磁州 사람이다. … 훗날 스님의 나이 19세 때 본주 寂照庵에 들어가 祖榮長老를 받들고 머리를 깎았다. 스님의 법호는 法寶이다. … 영장노가 묻기를 "그는 장차 어디로 가는가?" 스님이 말하기를 "青州 希辯禪師가 조동종의 正法眼藏을 이어받고 燕都(북경) 萬壽禪寺에서 설법하니, 승려들이 구름같이 모여 백 가지 하천이 거대한 바다를 향하는 것과 같았다." … 스님이 연도(북경)에 도착하니 청주희변이 한 번 보자마자 기이하게 여겨서 □문의 용상으로 □□하였다. … 청주희변이 법의와 三頒을 맡기니, 스님이 이내 산동 泗水 靈光寺로 은거하였다. 영암사에 자리가 비니, 부윤 韓爲股 공, 轉運使 康淵保 공이 행성에 아뢰어 상소를 올려 초빙하였다. 스님은 사양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청을 받아들였다.
>
> 천덕 경오년(1150)에 청주희변이 仰山에서 입적하였다. 太師 尚書令 南陽郡王 張浩 공이 사람을 시켜 疏章을 보내어 스님에게 앙산 棲隱禪寺의 주지에 나서도록 명하였다. 부처의 불꽃을 이어받아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 후에 옛 맹서를 찾았도다. 정원 3년 을해년(1155)에 스님은 조영장로가 연로하자 남쪽 滏陽으로 돌아갔다. 郡의 사람들이 스님을 영접하는데 遠近에서 풍문을 듣고 서로 이어졌다. 무리들은 스님을 받들어 均慶西寺의 옛 터에 정갈한 여막을 지어 편안하게 머물며 조영장로를 모시도록 하였다.
>
> 대정 임오년(1162)에 남양군왕 태사 장호 공이 스님의 덕을 흠모함이 나날이 심해져서 마침내 자신의 봉급 3천만을 내어 大明寺額을 구입하고, 아울러 符文을 작성해서 磁州로 행하시켜 스님을 주지로 맞이하도록 하였다. 스님은 방장실, 전당,

25 박현규, 2020b, 앞의 글, 567~5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輪藏, 廊廡 등 모두를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새롭게 마련하여 세웠다. … 스님의 불교 인연이 완성되자 게송을 적고 물러나 紫山과 徠峪에 은거하며 광채를 감추었다. 두 해가 되지 않은 어느 날에 스님이 목욕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게송을 적고 가부좌하며 입적하니 대정 13년(1173) 7월 7일이다. 스님의 속세 나이는 60세이고, 승랍은 34년이다.[26]

보공선사는 대명법보이다. 속성은 무(武)씨이고, 자주(磁州) 부양[滏陽, 현 하북 자현(磁縣)] 사람이며, 1114년(천경 4)에 태어났다. 1121년(천보 5)에 출가하고, 1132년(천회 10)에 머리를 깎고 법보라는 법호를 받았다. 1143년(황통 3)에 연도(燕都) 만수선사(萬壽禪寺)에 가서 청주(靑州) 희변(希辯)을 스승으로 모셨다. 1149년(황통 9)에 청주 희변으로부터 법복을 이어받고 장청 영암사로 들어갔다. 1150년(천덕 2)에 장호의 초빙으로 청주 희변이 입적한 앙산(仰山) 서은사(棲隱寺)의 주지가 되었다. 1162년(대정 2)에 장호가 시주한 금전으로 지은 대명사(大明寺)에 주석하였는데, 대명 칭호가 여기에서 나왔다. 1173년(대정 13) 7월 7일에 입적하였다. 대명법보는 동산양개(洞山良价)가 일으킨 조동종의 법

26 "師姓武氏, 磁州里人. … 後師年十九歲, 投本州寂照庵, 禮祖榮长老剃髮. 師法號法寶, … 榮问云, 子將何之? 師云, 闻青州希辯禪師传洞下正法眼藏, 演唱燕都萬壽禪寺, 禪侶雲集, 若百川朝於巨海. … 師至燕, 辯一見而奇之, □□門之龍象也. … 辯以法衣三頌付之, 師迺遁跡山東泗水靈光. 會靈巖虛席, 府尹韓公爲股·轉運使康公淵保申行省, 具疏邀请. 師辭避不□獲, □受请焉.
天德庚午歲, 青州示寂仰山. 太師·尚書令·南陽郡王張公浩遣使齎疏, 命師住持仰山棲隱禪寺, 續焰傳芳, 靡所不備. 然後迺寻舊□盟. 貞元三年乙亥歲, 師以榮公垂老, 南還滏陽. 郡人迎師, 遠近趨風, 踵相接野. 眾捧師於均慶西寺 舊基, 還為精廬, 權以宴處, 侍養榮公.
時大定壬午歲, 南陽郡王張公太師素慕師德, 日甚一日, 遂將己俸三千萬持買大明寺額, 并給付符文, 行下相磁, 仰師住持. 師悉以丈室·殿堂·轮藏·廊廡, 不逾一纪, □備鼎新. … 師之缘法既成, 书颂状告退, 隐於紫山·徠峪两处 韜光. 未及二载, 師一日沐浴更衣, 书偈跏趺而寂, 大定十三年七月七日也. 師 俗壽六十, 僧臘三十四."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을 이어받았다. 「보공선사비명」에 청주 희변이 대명법보에게 조동종의 법의를 맡겼다고 하였다. 또 영암사에 주지 혜재(惠才)의 공덕을 담은 「재공선사탑명(才公禪師塔銘)」이 세워져 있다.[27]

발해 유민 장호 집안은 일찍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장호의 형 혜휴는 원통변정대사(圓通辨正大師)가 되어 동경관내도승록(東京管內都僧錄)을 지냈다. 또 여형제 즉원은 비구니가 되어 조정으로부터 자원혜대덕(紫圓惠大德)을 하사받았다. 장호 자신도 독실한 불교신도이다. 사후에 묻힌 장소가 동경(東京) 학야현(鶴野縣) 천정산(天井山)에 소재한 보림원(寶林院)이다. 「보공선사탑명」을 통해 장호와 불교와의 관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6. 장여유묘지(張汝猷墓誌, 1207년)

「장여유묘지명」은 1956년에 중국 북경 지역에서 그의 묘지명이 발견되었다. 1991년에는 후악(侯堮)에 의해 석문이 소개되었다.[28] 이후 해당 묘지가 중국에서 조금씩 알려지며 『금대석각문집교』, 『전금석각문집교』 등에 전문이 실리고 묘지명을 언급한 논저들이 나오고 있다.[29] 그러나 아직까지 실물을 확인한 연구자는 없으며 모두 후악의 글을 출처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학자들이 장씨 묘지석을 중심으로 석문을 소개하고 장씨 일족의 통혼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내놓았다.[30] 「장여유묘지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 박현규, 2020b, 앞의 글, 569~570쪽.

28 侯堮, 1991, 「金『張汝猷墓誌』考釋」 199-2, 『北京文物與考古』, 北京燕山出版社, 152~157쪽.

29 王新英, 2009, 『金代石刻輯校』, 吉林人民出版社; 2012, 『全金石刻文辑校』, 吉林文史出版社.

30 方京一, 2006, 앞의 글; 李智裕·苗霖霖, 2013, 「略論遼金時期東京渤海遺民張氏家族」, 『遼金歷史與考古』 2013-4; 李智裕, 2017, 「遼金時代遼東地區渤海遺民群體之 間通婚初探;以張氏家族爲主線」, 『遼金歷史與考古』 2017-8; 金恩國·權恩姝·金鎭光, 2019, 「7대에 걸친 장씨 가문 일대기」, 『해동성국, 고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휘사 장공 묘지명

□□□□□□□□동북로 전운부사사 기도위 팽성현 개국남 식읍삼백호 사자금어대 劉濤가 찬함

아들 登賢이 書丹함

秘書監 待詔 安常이 篆蓋함

공의 휘는 汝猷이고, 자는 仲謀이며, 성은 장씨이다. 요동 사람이다. 증조 祈는 南海軍節度使이고, 開府儀同三司에 증직되었다. 조부 行願은 贈開府儀同三司 鄭國公이다. 부친 浩는 太師·尙書令·南陽郡王이다. 태사가 맞이한 초실 高氏는 일찍 죽었으며 南陽郡王夫人에 추봉되었다. 계실 南陽郡王夫人 伊剌姓은 공과 少府監 汝方을 낳았다. 공은 처음에 일품의 문음으로 출사하였다. 대정 15년(1175)에 閤門祗侯에서 通事舍人이 되었다. 이후 동서 二閣의 소임을 두루 마치고 마침내 □鹿에 持節使로 나갔다. 承安 2년(1197) 9월에 太鹿에서 同知延安都總管事로 나갔는데, 대개 노고와 편안함에 고르게 맞추기 위함이었다. 延安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공이 수레에서 내리는 날에 눈과 비가 □□ 내렸다. □□ 사람들은 모두 공이 양춘의 뜻을 품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르는 곳마다 환한 기운이 따라왔다"고 하였다. 거처했던 관사의 누각이 한 곳, 당이 두 곳인데, 누각을 瞻天이라 부르고, 당호를 □舍과 六□月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군자가 □□을 잊지 않고 □□을 살펴 남긴 까닭이다. 공이 延安을 다스림에 대개 민력을 너그럽게 하고 관리들의 농간을 바로잡았기에 □□을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얼마 후 주상이 그를 생각하여 소환하였다. 공이 떠난 후에 延安 사람들은 공의 □□을 사모하였다.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돌을 세웠으며, 군자가 「瑞雪記」를 지어 공의 덕을 칭송하였다.

공이 京師에 이르러 少府監 겸 提點尙食局에 제수되었는데, 승안 3년(1198)

려를 품은 발해』, 東北亞歷史財團; 권은주, 2020, 앞의 글; 박현규, 2020a, 앞의 글; 박순우, 202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이다.

□□ 6년 □월에 나라에서 송나라에 가는 사신을 뽑을 때 공은 國信刺使로 선발되었다. 송나라 군주가 국서를 받는 예절에 □□하여 송나라가 이를 □□하고자 하니, 보는 자들이 이에 두려워하였지만 공은 굴하지 않으니 끝내 공을 따르게 하였다. 돌아온 후에 상이 이를 듣고 한참 동안 가상히 여기고 탄복하였다.

少府의 임기를 마치고, 泰和 원년(1201) 2월에 河北東路轉運使事로 □□하였다. 공의 형 汝爲가 正隆 연간(1156~1161)에 이곳에서 재임하였었다. 공이 처음 도착하여 관부를 보니 모두 형이 수리한 것이라 눈물을 바닥에 줄줄 흘렸다. 이때 북쪽 변경에 적들이 날뛰어 물자 조발이 무너졌는데, 공이 주고받는 것을 잘 알아 민력을 힘들이지 않고도 용도를 충족하게 하였다.

淸州倉監 馬天麟의 사건으로 상관에게 밉보여 중죄로 엮어 무고당하여 □□형에 처하게 되었다. 馬□□이 □하여 □□司가 이르자, 공이 잘못됨을 변론하여 즉시 감옥에서 나왔다. 전후 이틀 만에 죄를 벗어 돌아오니 관리가 놀라 심복하였다. 河北 일로에서 사사로이 술을 빚어 금령을 범한 자가 1년에 무려 수십, 수백 명이 되었는데, 공이 이 일을 살피어 10의 9를 감면시키니 백성들이 모두 명망을 듣고 □□에 교화하였다. 3년 8월에 右宣徽使에 제수되어 주상의 예우가 예전보다 더욱 두터웠다.

7년(1207) 4월 20일에 질병으로 中都 서쪽 開陽坊의 사저에서 졸하니 춘추 54세이다. 공이 비로소 9세에 태사공이 죽어 빈손으로 외롭게 일어나 20년 사이에 삼품에 올라 죽은 뒤에 명예를 남기니 가히 태사공에게 후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은 부드러움으로 다스리는데 □□하고 □□ 사람들을 □□처럼 하지 않았다. 일찍이 부귀로서 교만을 떨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도리가 아니면 간여하지 않았으며 담박하여 따지지 아니하였다. 남의 뒤를 천거하기를 좋아하니 선비들이 천하에서 나왔다. 강보에 있을 때 伊剌 □부인이 졸하여 계모 方夫人을 섬겼는데, 관례를 아직 올리기 전이어도 효도하고 삼가 조심하는 것이 성인처럼 같았다. 방부인도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돌봐주었다.

공의 형제 7명이다. 맏이 汝爲는 河北東路轉運使가 되었다. 차형 汝翼은 진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과에 급제하여 東京鶴野主簿가 되었다. 차형 汝霖은 平章政事로 莘國公에 봉해졌다. 汝能은 閤門祇侯 眞定都軍이 되었다. 汝方은 少府監이 되었다. 汝招는 8세에 죽었다. 7번째가 공이다.

공은 처음에 太尉 廣平郡王 李石의 딸이며 世宗 元妃의 여동생 이씨를 맞이하였으나, 공보다 먼저 죽어 范陽郡夫人에 추봉되었다. 계실은 興中府治中輔國 李剛中의 딸이며 지금 范陽郡夫人에 봉해졌다.

5남 5녀를 낳았다. 장남 緯의 아명은 登賢이며 궁궐에서 봉직하였다. 차남 績은 부친 음직으로 나섰다. 級은 元紳府令史가 되었다. 綏는 守御史臺令史가 되었다. 續은 이제 11세이다. 登賢은 緯의 아명으로 처음에 천자가 등현이라 불러 마침내 등현이 이름이 되었다. 장녀 玉秀는 保川節度使 大仲尹의 조카 南京草場 副獻에게 시집갔다. 차녀 麗秀는 右承伊剌 金剛奴의 아들 蘭州軍事判官 善才에게 시집갔다. 瑞秀은 지금 令人이 되었다. 倩秀와 靜秀는 시집가지 않았다.

처음에 태사공을 東京 鶴野縣 天井山 寶林院에 장사 지냈다. 등현은 공(부친 장여유)의 유언에 따라 宛平縣 西陳村에 이장하였다. 공이 河北轉運使에 있을 때 막료가 되어 공의 사람됨을 잘 알았다. 등현이 그 시말을 적어주기를 부탁하니 감히 글재주가 거칠고 비루하다며 사양하지 못하였다.

명에 이르기를

요동의 산천이 천하에서 甲乙이라.

그 빼어남이 사람에게 기인한 인재를 낳게 했네

공훈 명문으로는 張氏가 제일이요

태사가 덕을 쌓아 집안에 벼슬이 가득하구나

공손하고 훌륭함이 난형난제로다

공은 그 뒤를 이어 일찍부터 이름을 날렸고

벌열 가문으로 입관하니 공명 세우는데 스스로 기뻐하네

묘령에 우뚝 솟아 높은 직책에 올라

궁궐을 드나들며 임금의 지기가 되었도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엇으로 보답할까, 덕 있어도 수를 못 누리니
공이 운명하니 듣는 자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구나
묘지명을 들어 보내오니 영원히 전하소서

泰和 7년(1207) 6월 28일
永安宮 濟가 각석하다.

「장여유묘지명」은 1956년 9월에 북경 서쪽 백만장(百萬莊) 이리구[二里溝, 현 서성구(西城區)]에서 출토되었다. 개석의 재질은 청석이다. 크기는 가로 91㎝, 세로 91㎝, 두께 10㎝이다. 전자이고, 4행 4자이다. 묘지석은 「대금고선위장군우선휘사장공묘지명(大金故宣威將軍右宣徽使張公墓誌銘)」이다. 재질은 한백옥석(漢白玉石)이다. 크기는 가로 91㎝, 세로 89㎝, 두께 11㎝이다. 정서이고, 39행 38자이다. 유도(劉燾)가 짓고, 장등현(張登賢)이 쓰고, 안상(安常)이 전자를 적었다. 1207년(금 태화 7)에 새겼다.[31]

장여위는 장호의 장남이다. 「장행원묘지」가 제작된 1150년 9월을 기준으로 장여위는 진사에 등제하여 문관 종6품상 봉직대부(奉直大夫) 제수, 기주(冀州) 절도부사(節度副使, 종5품)에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여유묘지명」에서 그의 관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그것은 장여위의 하북동로전운사 역임 사실로, 그가 하북동로전운사를 역임하였을 때는 해릉왕 정륭연간(1156~1161)이고, 「장행원묘지」의 작성은 1150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관력이 기재될 수 없었다. 그가 역임한 도전운사사(都轉運司使)의 관품은 정3품이므로, 장여위 역시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2]

전술한 「장행원묘지명」과 「장여유묘지명」을 통하여 금대 발해 유민 장씨 집안의 통혼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장여유 집안이 7대에 걸쳐 명문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그에 걸맞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발

31 侯堮, 1991, 앞의 글, 152쪽.
32 박순우, 2021, 앞의 글, 262~2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 유민과의 통혼 관계는 발해 유민이라는 정체성과 지역 연고, 그리고 누대에 걸친 관료 경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지적과,[33] 요~금대 장씨 가계의 통혼이 일방적으로 또는 하나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지배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세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했기에 여러 다양한 가계와 혼인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34]가 있다. 두 견해 모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금대 발해 유민의 상호 통혼에 중요한 원인으로 발해인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사실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금대 발해 유민의 존재양상

금대 발해 유민 연구는 주로 황실 통혼과 후비 연구, 재상 및 주요 관료직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35] 시기적으로는 금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세종대 전후의 활약을 주목한 연구가 많다. 남아 있는 사료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 이들 연구는 금대 발해 유민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발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역사의 주체로서 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아래에서는 발해 유민을 정치, 군사, 문학·예술, 그리고 종교 분야로 나누어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33 권은주, 2020, 앞의 글.

34 박순우, 2021, 앞의 글.

35 방경일, 2006, 앞의 글; 김위현, 2009, 「금대 발해인의 향방(向方)」, 『한민족연구』7; 나영남, 2017,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신서원; 박순우, 2017, 「10-14세기 '渤海人'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임상선 편, 2019,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정치 분야

발해 유민의 정치활동을 요금교체기, 중·후기로 나누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36] 발해 유민 가운데 정무적 맥락의 업무를 보거나 해당 관직을 역임한 고경계, 고정, 장현소, 고수성과 대흥국, 대회정, 대회충, 대반과 대경산, 곽안국과 곽서손, 고회정, 장여림, 장여위, 장호, 이석, 장여필, 이영과 외교 분야에 종사한 사례로 이선경, 고경예, 왕정 및 대적오, 고수, 대영 등의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37] 이를 통해 금대 발해 유민의 정치적인 활약상의 대략은 규명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I장에서 언급한 금나라의 정책이 발해 유민의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군사 분야

금초(金初) 세습군직 수여자와 금대 중·후기 군직을 수행한 발해 유민의 검토를 통해 군사 면에서의 발해 유민의 활동을 다루기도 하였다.[38] 최근에는 곽약사(郭藥師)와 상승군(常勝軍)의 분석을 통해 발해 유민의 군사활동이 구체적으로 규명되기도 하였다.[39] 12세기 초에 중국은 요·송·금 등 세 나라가 잠시 정립했던 시기로 그들의 대립과 갈등은 서로 뒤얽혀 매우 복잡하였다. 곽약사는 철주 출신의 발해인으로 요의 장수였으나 송에 귀순했다가 다시 금에 투항한 인물로 『금사』에 "곽약사는 요의 餘孽(재앙)이고 송의 厲階(재앙의 빌미)이며 금의 功臣이다. 그런데 한 신하의 몸으로 세 나라의 禍福이 되었다"라고 찬하여 말하고

36 나영남, 2017, 위의 책.
37 박순우, 2017, 앞의 글.
38 박순우, 2017, 위의 글.
39 나영남, 2018, 「郭藥師와 常勝軍에 관한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당시 요-송-금의 삼각 구도 속에 전란을 겪던 발해인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해야만 하였다. 이들은 계요적(係遼籍) 주민이었으나 요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귀속되어야만 하였다. 그들 중에 곽약사와 상승군은 왕조교체기에 변절을 일삼는 기회주의자라기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강한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였다. 발해 유민의 군사 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 금대의 군사 상황이나 제도와의 관련을 통해 좀 더 천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문학·예술 분야

웅악왕씨(熊岳王氏)는 문학에 능하였다고 한다. 웅악왕씨의 대표적 인물인 왕정균(王庭筠, 1151~1202)은 금대 제일의 문학가로 꼽힐 정도였고, 그 집안은 문학에 독특한 재주를 보여서 '王氏以文學顯'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였다. 왕씨를 중심으로 그 활동 내용을 다룬 성과가 있다.[40] 다음으로 고표·고간·장여림과 형제들·왕준고·왕정균 집안·고헌·대회와 대간지의 활동을 검토하여 금대 발해 유민의 문학활동을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41] 현재 남아 있는 금대 발해 유민의 작품 내용이 문학적인 것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작품의 내용과 그 시대 상황도 좀 더 천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0 방경일, 2006, 앞의 글.
41 박순우, 2017,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금대 발해 유민의 문학작품

성명	작품명	작품 유형	출전
王遵古	太原을 지나며 高天益에게 드림	詩	中州集
王庭堅	들국화	詩	中州集
王庭筠	양비감의 『下槽馬圖』, 서재 벽에 쓰노라, 팔월 보름날 泥河를 건너다 기러기를 보면, 趙彦和에게 보임, 대안사 시원에서 한식을 맞이함, 옥중에서 망우초를 읊노라, 옥중에서 제비를 보내, 해락정, 野堂(2수), 한릉으로 가는 길에, 絶句, 손씨의 오구교 정자, 산동외대 판관으로 뽑힌 선비를 보내며, 장예부가 그린 계산의 진락도, 내향 절강 張浮와 休窪가 두 형을 존대하여 지은 시, 超化寺, 사리탑, 여름날, 추석, 책망받고 남쪽으로 중산에 돌아가서, 요양에 돌아가는 자정형을 보내며, 연을 따는 노래, 가을날의 교외, 국천을 그리노라, 여름날, 하음 가는 길에서(2수)	詩	中州集
	장강은 동쪽으로 흘러가네, 금문에서 아뢰다, 봉서오, 보살만 회문(3수), 청평악, 까마귀 밤에 울다, 충정을 하소연하다, 청평악(應製), 수조가두, 금문에서 만나다	詞	中州樂府
	오송정기	文	河南通志
	향림관기		沂州志
	이산의 풍설송삼도시의 발문		墨緣彙觀
	서경유수청의 제액 이름을 설명함		秋澗先生大全文集
	涿州重修蜀先生廟碑		涿州志
왕만경	이산의 풍설송삼도 발문	文	墨緣彙觀
	『쌍계소고』 발문		雙溪醉飮集
	협곡행성에게 주는 글		중주계찰
高衍	蘇 文忠公이 이태백 시권의 발문을 씀	文	中州集
高憲	대보름 저녁에 등이 없음, 이천영에게 부침, 신산사 벽에 제함, 향을 태우며(4수), 長城	詩	
	매화인, 가난해도 즐거움	詞	中州樂府
張汝爲	유영암사기	文	진산지
張汝能	장행원묘지명		渤海國志長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종교 분야

종교 분야 연구 성과로는 금대만은 아니지만 불교와 사원을 다룬 것이 있다.[42] 최근에 문헌 사료와 금석문을 활용하여 장호 가계의 인물을 검토하면서, 그 집안의 불교 관련 활동을 다루기도 하였다.[43] 산동지역 금석문을 통해 발해 유민과 불교의 관련성이 검토되기도 하였다.[44] 〈표 2〉에 나오듯이 향후 금석문 등의 새로운 자료와 금대의 불교 상황과의 검토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 금대 발해 유민 중 승려 및 신도[45]

이름	승속	출신	주요 활동	출전
趙崇德	신도/승려	상인(?)	60세에 승려로 출가	松漠紀聞
惠休圓通辨正	승려	요양 출신, 동명왕의 후손, 張浩의 형, 출가하여 大師가 됨	동경의 僧錄 관장	金史, 장행원묘지, 만주금석지
卽圓賜紫圓慧	승려	요양 출신, 동명왕의 후손, 장호의 누이 동생, 출가하여 비구니 大德이 됨		金史, 장행원묘지, 만주금석지
王庭筠	신도	문인, 상서령, 장호의 인척	황화사 은거	금사, 발해국지장편
해릉왕의 모 대씨	신도	요양인, 慈憲皇后로 존숭	佛號를 사용함	금사
貞懿王后李氏	승려	요양발해인, 이석의 누이, 예종 비, 세종의 모, 비구니로 출가하여 대사가 됨		금사, 통혜원명대사탑명, 동경 대청안선사 9대조 영공선사□□병서, 만주금석지
彦公	승려	동경 요양현의 발해인, 高氏	승엄사 수장, 흑산도원 주석	동경 승엄사 언공선사탑명, 요녕발현 금대탑명각석

42 황인규, 2019, 「발해 유민의 불교와 사원」,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43 박순우, 2021, 앞의 글.

44 박현규, 2020b, 앞의 글.

45 황인규, 2019, 앞의 글, 277쪽 〈표 1〉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금대의 발해 관련 문헌자료와 금석문은 단순한 역사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 자료는 금나라의 건국 집단이 스스로를 말갈, 그중에서도 속말말갈과 흑수말갈의 후예로 인식하였고, 발해를 이러한 계보 위에 위치시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금사』 본기와 고려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발해인'과의 동일계통성(本同一家) 강조는 단순한 민족적 일체감을 넘어서, 금이 발해 유민의 포섭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헌자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대 금석문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보조사비나 장행원묘지, 통혜원명대사탑명 등은 발해 유민의 실질적 활약상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발해 유민은 지방 행정과 군사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대 중기 이후에는 정치·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금대의 다민족 통합 전략 속에서 발해 유민이 전략적 파트너로 기능했음을 입증한다.

또한 금대 자료에 보이는 발해 유민의 존재는 발해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금석문은 특히 기존 정사 기록에서 누락된 구체적 생애, 가계 정보, 정치적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기능하며, 문헌자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금대 자료에 나타난 발해상(渤海像)은 여진족의 자기 정체성과 정치 통합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대 자료의 특수성과 그 사료적 가치를 바탕으로, 금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발해 유민이 갖는 실질적 의미와 역할을 더욱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록〉 금대 발해 유민 일람

연번	성명	유형	주요 행적	출전
1	高楨		遼陽 출신. 司空에 올랐고, 御史大夫를 대행함.	卷71, 列傳9
2	高六哥		高安國의 아들로 금에 항복하여 유하주의 천호가 됨. 아들은 高彪	卷81, 列傳19
3	高彪		본래 이름은 召和失로 樞密副使舒國公에 이름.	卷81, 列傳19
4	梁福		금 태조가 양복과 알답랄을 불러 거짓으로 도망하게 한 뒤,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게 함.	卷1, 本紀1, 世紀
5	斡答剌		금 태조가 양복과 알답랄을 불러 거짓으로 도망하게 한 뒤,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게 함.	卷1, 本紀1, 世紀
6	楊朴		고영창이 건국할 때 금에 항복하여 권지행영유수에 이름.	卷10, 天祚紀 上
7	乙塞補		금 태조가 영강주를 취하자 항복함. 얼마 안 되어 배반하고 가버렸는데 僕忽得이 그를 되돌아오게 함.	卷121, 列傳59, 忠義1
8	高慶裔(高慶緖)		발해인으로 요에서 관리를 지내다 금에 항복하여 상서좌승에 이름.	卷2 本紀2, 卷4 本紀4, 卷83 列傳21
9	李善慶		태조 천보 원년(1117)에 송의 사신 馬政의 교빙에 보답하는 사신으로 감.	『渤海國志長編』 卷13, 遺裔列傳5
10	高隨		태조 천보 4년(1120) 7월에 송으로 大迪烏와 함께 파견됨.	『渤海國志長編』 卷13, 遺裔列傳5
11	大迪烏		태조 천보 4년(1120) 7월에 송으로 高隨와 함께 파견됨.	『渤海國志長編』 卷13, 遺裔列傳5
12	張壽昌		窩里嗢의 아내였다가 와리올이 죽자 완안종필의 아내가 됨.	『渤海國志長編』 卷13, 遺裔列傳5
13	郭藥師		요나라 출신으로 송에 투항하고, 다시 금에 투항하여 연경유수에 이름.	卷82, 列傳20
14	郭安國		곽약사의 아들로, 여러 번 옮겨 奉國上將軍 南京副留守에 이름.	卷82, 列傳20
15	大良順		南京留守判官을 역임함.	卷82, 列傳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성명	유형	주요 행적	출전
16	大家奴		1114년 금 태조의 군대가 寧江州를 공격할 때 붙잡힘. 금나라 초기 匹里水路의 6謀克의 한 사람이었음.	卷2, 本紀2
17	大臭		본명은 撻不野로, 금에 포로가 된 이후 송나라를 공격하여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움. 河間尹과 元帥右都監, 尙書右丞相, 東京留守 등을 지내고 여러 번 太傅에 올라 三省의 일을 관장했으며, 漢國公에 봉해짐.	卷80, 列傳80
18	大磐		大臭의 아들로, 父蔭으로 벼슬에 나가 登州刺史에까지 오름.	卷80, 列傳80
19	六斤		해릉왕 때 完顔亨의 家奴	卷77, 列傳15
20	完顔亨의 아내 大氏		완안형의 둘째 왕비	『渤海國志長編』 卷13, 遺裔列傳5
21	大懷忠		해릉왕 때 點檢을 지냄.	卷63, 列傳1
22	完顔昂의 아내 大氏		해릉왕의 이모	卷84, 列傳22
23	高松		본명은 檀朶로, 여러 관직을 거쳐 咸平總管府判官에 이름. 세종이 즉위한 뒤 東京路渤海萬戶가 됨.	卷82, 列傳20
24	高壽星		희종 때 近侍	卷4, 本紀4
25	해릉왕 어머니 대씨		大昊天의 딸로, 太祖 아골타의 서장자인 完顔宗幹의 次妃. 아들 셋을 낳았는데 맏이가 곧 海陵王임. 1150년 정월에 완안종간의 正室인 徒單氏와 함께 황태후가 됨. 1153년 죽은 뒤에 慈憲皇后로 追封되었으나, 해릉왕이 폐위된 까닭에 뒤에 海陵太妃와 遼王 夫人으로 잇따라 강등됨.	卷63, 列傳1
26	해릉왕비 대씨		처음에는 第二娘으로 칭하다가 貴妃, 惠妃로 높여짐.	卷63, 列傳1
27	大穎		正隆 연간(1156~1161)에 翰林待制가 되었다가, 1162년 세종이 즉위한 뒤 秘書丞에 제수됨.	卷129, 列傳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성명	유형	주요 행적	출전
28	大興國		大邦基라 이름을 고침. 형은 大邦傑. 寢殿小底權近侍局直長으로 熙宗을 살해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卷132, 列傳70
29	大邦傑		대흥국의 형으로 京兆判官에 이름.	卷132, 列傳70
30	大慶山		해릉왕 때 近侍局使 역임	卷132, 列傳70
31	세종 원비 장씨		아버지는 張玄徵이고, 어머니 高氏는 세종의 어머니인 貞懿皇后의 먼 친척	卷64, 列傳 2
32	세조 유비 대씨		大磐의 여동생으로 궁중에서 寶林이 되었다가 柔妃로 지위가 오름.	卷64, 列傳 2
33	高德基		熙宗대에 進士가 되었고, 尙書省令史에 오름. 해릉왕이 즉위한 뒤에 燕京行臺省都事, 中都路都轉運副使, 戶部郎中 등을 역임함. 世宗대에 戶部尙書에까지 오름.	卷90, 列傳28
34	高錫		高德基의 아들로 北京遼東轉運副使同知南京路轉運使事 등을 역임하고 河北東路按察轉運使에 이름.	卷121, 列傳59
35	高衍		26세에 進士에 급제하고 2년 뒤 詔陰丞에 임명됨. 그 뒤 중앙으로 올려져 尙書省令史와 右司都事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함.	卷90, 列傳28
36	高憲	문인	高衍의 손자이자 高守信이 아버지임. 詩筆에 능하여 수천 首의 시를 남김.	『中州集』戊集 卷5
37	大奉國臣		永寧太后의 집안 사람으로 東京警巡院使를 역임함.	卷90, 列傳28
38	張浩		증조인 高霸가 요나라에서 벼슬할 때 장씨로 성을 바꿈. 금에 투항한 후 御前文字, 호부상서와 참지정사, 상서우승 등을 역임함. 이후 세종 때 태사와 상서령을 지냄.	卷91, 列傳21
39	張汝爲		張浩의 아들로 기주절도부사 하북동로전운사를 역임.	卷91, 列傳21
40	張汝翼		張汝霖의 아들로 사과에 급제하였으며 동경학야현주부를 역임함.	『中州集』壬集 卷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성명	유형	주요 행적	출전
41	張汝霖	문인	張浩의 둘째 아들로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함. 翰林待制·刑部侍郎 등을 역임하고 平章政事에 이름.	卷91, 列傳21
42	張汝能	문인	張浩의 아들로 일찍이 할아버지를 위해 묘지문을 지었는데 세상에 널리 전해짐.	卷91, 列傳21
43	張汝方	문인	장종이 명하여 王庭筠과 더불어 서법과 그림을 품평하고 등급을 정하도록 함. 관직이 선유사에 이름.	卷126, 列傳64
44	張汝猷	문인	張浩의 일곱째 아들로, 장여유의 묘지명이 발견됨.	卷9, 本紀9
45	張玄素	문인	張浩와 더불어 증조부가 같음. 할아버지는 張祐이고 아버지는 張匡인데, 요나라에서 벼슬했고 관직은 절도사에 이름.	卷83, 列傳21
46	張汝弼		아버지는 창신군절도사 張玄徵이며 張玄素의 형. 이부상서와 참지정사에 오름.	卷83, 列傳21
47	王政		본명은 南撒里인데, 일찍이 고려에 사신으로 가면서 이름을 정으로 바꿈. 아들 王遵仁·王遵義·王遵古가 있음. 左監門將軍·安州刺史 등을 역임하고 保靜軍節度使로 옮겼다가 은퇴함.	卷128, 列傳66
48	王遵古	문인	정융 5년(1160)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翰林直學士에까지 이름. 청렴하고 학식이 깊어 '遼東의 夫子'라고 불림. 張浩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王庭玉, 王庭堅, 王庭筠, 王庭掞 네 아들을 둠.	卷126, 列傳64
49	王庭玉		內鄕令을 역임했고, 同知遼州軍州事로 죽음.	『中州集』辛集 卷8
50	王庭筠	문인	章宗의 부름을 받고 서화국 도감, 이어 奉翰林文字가 되어 張汝方과 함께 서화의 품평·정리에 종사함. 문집으로는 『황화집』이 있으며, 書는 米芾을 사숙하고, 畵는 任詢에게 배워 금대 제일로 불림.	卷126, 列傳64
51	王庭掞		王遵古의 아들	『中州集』辛集 卷8
52	王萬慶	문인	王庭筠의 아들로 시와 서를 잘하였고 벼슬은 行省右司郎中에 이름.	卷126, 列傳6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성명	유형	주요 행적	출전
53	王明白	문인	왕정균의 조카로 시에 능함.	『渤海國志長編』卷13, 遺裔列傳5
54	大懷貞		閤門祗候를 거쳐 符寶郎·右宣徽使·武勝軍都總管 등을 역임하고 彰國安武軍節度使가 됨.	卷92, 列傳30
55	大簡紙	문인	그림으로 유명하며 소나무와 돌을 잘 그림.	『渤海國志長編』卷13, 遺裔列傳5
56	高竑		음서로 벼슬에 올라 貴德縣尉에 이름. 이후 奉聖州錄事 등을 역임하고 河北西路按察轉運使에 오름.	卷100, 列傳38
57	大晦		진사에 급제 후 동경 청안선사 주지인 英公선사가 죽자 심주의 낙교현주부 楊訥이 탑의 이름을 지었는데 대회가 글씨를 씀.	『渤海國志長編』卷13, 遺裔列傳5
58	大中		장종 때 관직이 심관원장서였음.	『渤海國志長編』卷13, 遺裔列傳5
59	李英		1194년에 진사에 급제했으며, 淳化縣主簿·登州軍事判官·封丘縣令을 역임하고 절도사에 오름.	卷101, 列傳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金史』, 『中州集』, 『渤海國志長編』, 『金石萃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연구소 편, 2023, 『발해사 자료총서-중국사료 편』 권1, 동북아역사재단.

韓國古代社會硏究所,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羅一福頤, 1982, 『滿洲金石志』 卷3, 石刻史料新編 제1집 제23책, 新文豊出版公司.

北京圖書館金石組, 1990,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 제46책, 中州古籍出版社.

단행본

구난희·이병건·나영남·정석배, 2020, 『요·금시대 발해인의 삶과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위현, 1985, 『요금사연구』, 예풍출판사.

金恩國·權恩姝·金鎭光, 2019, 『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 東北亞歷史財團.

김인희 편, 2021, 『전사들의 황금제국 금나라-금나라 통치전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나영남, 2017,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신서원.

이계지 지음, 나영남·조복현 옮김, 2014, 『정복 왕조의 출현 요·금의 역사』, 신서원.

임상선 편, 2019,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古畑撤, 2018, 『渤海國とは何か』, 吉川弘文館.

高井康典行, 2016, 『渤海と藩鎭-遼代地方統治の硏究』, 汲古書院.

外山軍治, 1964, 『金朝史硏究』, 京都大學 東洋史硏究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권은주, 2020,「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34.

_____, 2024,「문자자료를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검토 -위준, 효의황후, 순목황후, 진만 묘지명을 중심으로-」,『영남학』88.

김위현, 2009,「금대 발해인의 향방(向方)」,『한민족연구』7.

나영남, 2017,「金代 渤海人의 存在樣態 및 政治的 位相」,『중국사연구』107.

_____, 2018,「郭藥師와 常勝軍에 관한 考察」,『고구려발해연구』61.

박순우, 2017,「10-14세기 '渤海人'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요~금대 발해인 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과 통혼 사례 분석」,『대동문화연구』114.

박현규, 2020a,「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 -「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39-2.

_____, 2020b,「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한국고대사탐구』34.

방경일, 2006,「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백산학보』76.

이효형, 2015,「발해 유민사 관련 고고학 자료의 검토」,『고구려발해연구』52.

_____, 2020,「발해 유민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역사와 세계』57.

임상선, 2023,「중국 정사(正史)의 발해 기록 검토」,『역사교육논집』84.

李智裕, 2017,「遼金時代遼東地區渤海遺民群體之間通婚初探; 以張氏家族爲主線」,『遼金歷史與考古』2017-8.

李智裕·苗霖霖, 2013,「略論遼金時期東京渤海遺民張氏家族」,『遼金歷史與考古』2013-4.

鄒寶庫, 1984,「遼陽市發現金代 '通慧圓明大師塔銘'」,『考古』1984-2.

侯堮, 1991,「金『張汝猷墓誌』考釋」,『北京文物與考古』1991-2, 北京燕山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금대(金代) 자료에 나타난 발해인(渤海人)의 이미지와 그 역사적 의미

윤재운

이 글은 금대 문헌과 금석문에 나타난 발해인의 형상(渤海像)을 분석함으로써 금대 여진족의 역사 인식과 발해 유민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고찰한 것이다. 우선 『금사(金史)』와 『중주집(中州集)』 등의 문헌자료에서 금은 스스로를 말갈의 후예로 인식하며, 본동일가(本同一家)로 규정하는 출자(出自) 담론을 통해 발해 유민을 포섭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민족적 동일성 주장이라기보다는 여진과 발해 사이의 지역적·정치적 연속성을 강조한 전략적 표현이었다.

이어 금석문 분석을 통해 금대 발해 유민의 실질적 존재양상과 사회적 위상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발해 유민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 체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장씨 가문을 비롯한 주요 유민 집안은 세대를 거쳐 금 조정 내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보조사비, 장행원묘지명, 통혜원명대사탑명 등의 금석문은 문헌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 인물과 가계, 활동상을 보완해주는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금대 자료에 나타난 발해인의 형상을 통해, 발해사 연구의 지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여진사 및 금사 연구와 접목시키는 한편, 금의 국가형성과 통합 전략 속에서 발해 유민이 차지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주제어: 금나라, 발해 유민, 금석문, 출자인식, 여진·발해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Perceptions of Balhae Identity in Jin Dynasty Records and Their Historical Context

Yun Jaewoon

This study examines representations of the Balhae people in textual and epigraphic sources from the Jin dynasty (1115~1234),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Jurchen ruling elites perceived their ethnic origins and incorporated Balhae migrants into their political order. Jin historical records, such as the *Jinshi*(『金史』) and *Zhongzhouji*(中州集), describe the Balhae and the Jurchens as sharing a common ancestral origin, often referring to them as being "of the same family"(本同一家). This discourse functioned less as an ethnic identification and more as a strategic narrative to facilitate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Balhae descendants and legitimize Jin rule.

The study also analyzes several key epigraphic materials, including *the Stele of Bozhao Temple*(普照寺碑), *the Epitaph of Zhang Xingyuan*(張行願墓誌), and *the Pagoda Inscription for Master Tonghui Yuanming*(通慧圓明大師塔銘). These inscriptions provid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crete evidence of the Balhae migrants' active roles in local administration, religious institutions, and central politics during the Jin period. Prominent Balhae-descended families, such as the Zhang clan, rose to high positions and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the formation and governance of the Jin state.

By investigating how the Balhae people were portrayed and remembered in Jin sources, this study highlights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and sheds light on the Jin dynasty's strategies of multi-ethnic integra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medieval Northeast Asia.

Keywords: Jin Dynasty, Balhae Displaced People, Epigraphic Sources, Ethnic Identity and Origin Narrative, Jurchen–Balhae Relatio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3

발해 멸망 후 발해인 관련 기록의 비교 분석

—요대 고모한과 금대 장호 가계 인물 기록을 중심으로

박순우 | 국립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요대 발해인 고모한 관련 기록의 검토
III. 금대 발해인 장호 및 가계 인물 관련 기록 검토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지금까지 발해 멸망 후 발해인들의 향방에 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학계나 중국 학계 모두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연구하였다. 발해사 연구가 파편적으로 진행된 근본적 이유는 발해사가 한국사이면서 동아시아사적 역사성을 함께 지녔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발해사를 각국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다뤄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발해 관련 자료가 산재해 있고, 대부분 타인(국)의 시점에 쓰여 있어 각 사료의 차이와 기록의 편차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 학계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산재한 발해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1]

이를 통해 '발해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기회 삼아 필자 역시 정리해두었던 발해 멸망 후 발해인 관련 기록과 해당 총서에 실린 문헌 기록을 심층적으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여러 제약상 모든 시기와 모든 인물을 다룰 수 없으므로 요대와 금대, 두 시대를 대표할만 한 인물(가계)의 기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2]

---

* 투고: 2025년 4월 8일, 심사 완료: 2025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15).

1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2007, 『발해사 자료집』(상·하), 고구려연구재단. 해당 자료집은 발해 관련 사료가 어떤 자료에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 한곳에 모아놓은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이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 주도로 번역되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 2023, 『발해사 사료총서: 중국사료편』 1).

2 요대 고모한과 관련 연구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歸化人 硏究』, 국학자료원, 114~115쪽; 서병국, 2007, 『고구려인과 말갈족의 발해국』, 한국학술정보, 201~205쪽; 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대에 가장 현달한 발해인은 고모한이다. 그럼에도 고모한 관련 기록은 소략한 편이었는데, 근·현대에 그의 후손의 묘지가 확인되면서 새롭게 검토할 부분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고모한과 그 후손들에 관한 기록 검토를 통해 각 자료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Ⅱ장). Ⅲ장에서는 금대에 명문가로 거듭난 장호와 가계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가 요·금대 발해인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상층부 발해인들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해당 시기 발해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74~75, 110~118쪽; 권용철, 2020, 「발해인 高模翰과 그의 후예에 대한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66; 박순우, 2020, 「요대발해인 고모한(高模翰) 관련 기록의 검토와 후손들의 활동 연구」, 『동방학지』 191; 劉俊喜, 2001, 「遼代朔州高氏的兩方墓志」, 『遼金史論集』 6,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王善軍, 2008, 『世家大族與遼代社會』, 北京: 人民出版社, 86~88쪽; 王曄, 2010, 「由武功到文治-試論遼代渤海高模翰家族的轉變」,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31-12, 赤峰: 赤峰學院出版社; 苗霖霖, 2013, 「遼·金時期渤海遺民高氏家族考述」,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4-3, 吉林: 北華大学学報編輯部, 74~75쪽; 苗霖霖, 2015, 「遼代渤海高氏家族考辨」, 『遼金歷史與考古』 6,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201쪽 참조. 금대 장호 가계와 관련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外山軍治, 1979, 『金朝史研究』 京都: 同朋舍(초판 1964), 제2장 「金朝治下の渤海人」, 123~152쪽 참조; 이용범, 1974 「金初의 발해유민」, 『又軒丁仲煥博士 還曆紀念論文集』,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朴現圭, 2020,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 -「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권은주, 2020,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박순우, 2021, 「요~금대 발해인 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과 통혼 사례 분석」, 『大東文化研究』 1141; 仉惟嘉, 2014, 「淺議金代名臣張浩」, 『長春教育學院學報』 2014-22, 吉林: 长春教育学院, 26~27쪽; 李智裕, 2015, 「《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志》補釋」, 『北方文物』 2015-3, 哈尔滨: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96~1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요대 발해인 고모한 관련 기록의 검토

북방사 자료총서로 기획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발해사 자료집』(상·하)[3]은 발해사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편의를 제공해주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재단에서는 위 자료집에 대한 번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와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이다. 연구사적 측면에서 볼 때 발해사 연구가 심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4] 여전히 몇몇 사료는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몇몇 기사가 누락되어 『거란국지』와 『자치통감』, 『속자치통감장편』 등의 사례, 또는 『송사』의 내용이 『송회요집고』에 비슷하게 실려 있는 예도 있다.[5] 다음에서 하나씩 검토해보자.

1. 고모한에 대한 다양한 이름 표기 및 수식들

고모한은 요대의 발해인으로 요 조정에 사환하며, 요 초기 대송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요사(遼史)』뿐 아니라 송 측의 사서에도 자주 등장한다. 이는 고모한이 인식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 서술되고 소비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모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모한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고모한을 어떤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의 행적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선행되어

3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2007, 『발해사 자료집』(상·하), 고구려연구재단.

4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와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이라는 결과물이 『발해사 자료집』에 근간하고 있어 생긴 문제이다. 예를 들면, 『발해사 자료집』에 실리지 않았던 자료(기록)는 자연스레 이번 번역서에도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향후에 증보 계획이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부기하거나, 또는 별집 형태로 번역, 출간되기를 기대해본다.

5 해당 사서들이 모두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에 번역 대상 자료로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사서의 일부 기록이 누락된 기사들이 확인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 한다. 나아가 당대의 실상을 이해한 뒤 요대발해인 고모한의 역사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고모한의 한자 이름 표기 문제

고모한의 한자 이름은 매우 다양하다. 『요사』는 고모한을 일관되게 高模翰으로 정리했으나, 『거란국지』는 高謨翰과 高模翰을 혼용하고 있고, 『자치통감』은 高謨翰과 高牟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책부원귀』는 高牟瀚으로 기록하였고, 고모한의 5세손으로 기록된 『금사』 고정(高楨)의 열전에는 高牟翰으로 정리되어 있다. 고모한의 한자 표기는 다양한 자료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고모한 이름의 한자 표기 분류

No.	한자이름	전거
①	高模翰	『요사』·『송사』·『거란국지』·『속자치통감장편』·『송회요집고』·『책부원귀』·『발해고』·(고모한의 손자)「고위구묘지」
②	高謨翰	『거란국지』·『자치통감』
③	高牟翰	『자치통감』·『금사』
④	高牟瀚	『책부원귀』
⑤	高摸翰	(고모한의 증손)「고택묘지」
⑥	高翰模	『해동역사』: 高模翰의 단순 오기로 추정

* 밑줄은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1에서 다루지 않은 기록을 표시한 것

〈표 1〉에서 고모한의 다양한 한자 이름이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남송 말에서 원(元) 초기를 살았던 역사학자 호삼성(胡三省, 1230~1302)이 자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 그는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주(注)를 단 사학자로 유명한데, 당대 여러 자료에서 다양하게 기록된 고모한의 이름자를 모아 정리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6] 호삼성은 여러 자료에 다양한 한자로 기록된 고모한이 복수의 인물이 아니라 요대발해인 고모한 한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후대에 공식적으로 편찬된 사서 간의 차이도 적지 않지만, 고모한의 후손이 남긴 자료에서도 고모한의 한자 이름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고모한의 후손, 즉 손자 고위구의 묘지와 증손 고택의 묘지가 선대 고모한의 한자 이름을 달리 기록하고 있다. 高模翰으로 기록한 「고위구묘지」[7]와 高摸翰으로 기록한 「고택묘지」[8]가 그것이다. 〈표 1〉에 정리한 모든 자료가 발해인 '고모한'을 각기 다른 한자로 기록했지만, 실상은 고모한이 요-송 간 전투에서 활약하던 당시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 한치윤은 국내의 사서는 물론 중국, 일본의 사서 등 총 550여 종의 자료를 활용하여, '발해'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해동역사』에 정리하였다. 그는 발해 멸망 후 발해 후손들도 정리하였는데, 요대 큰 업적을 남겨 현달한 고모한도 수록하였다. 그런데 그는 고모한의 이름을 '고한모(高翰模)'로 기록하는 오기를 범하였다. 한치윤은 '한모(翰模)는 『요사』에 전이 있다'고 기록하였는데,[9] 『요사』는 고모한을 '高模翰'으로 일관되게 정리하였다.

『해동역사』에 앞서 정리된 유득공의 『발해고(渤海考)』는 『요사』와 같은 '高

---

6 『資治通鑑』 권280, 後晋紀1, 高祖 天福 원년(936), 윤11월 기사의 細註, "考異曰: 廢帝實錄作「高謨翰」, 范質陷蕃記作「高模翰」, 歐陽史作「高牟翰」. 蓋蕃名太相溫, 漢名高謨翰. 今從晋高祖實錄." 이는 현대의 『契丹國志』 권23, 兵马制度 조에 "渤海首领大舍利高模翰"기사에 주를 달아 교감하였는데, 교감기 4번에 『契丹國志』의 高模翰의 '翰'字가 원래 '漢'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宋史』 송기열전, 『宋會要輯稿』 蕃夷1, 『遼史』 고모한 열전, (고모한의 5세손으로 기록된) 『金史』 高楨 열전을 근거해 '翰'字로 바꿨다고 기록하였다. 아울러 '牟翰'은 곧 '模翰'이라고 정리하였다.

7 「故順義軍馬步軍都指揮使高公墓誌銘」은 일명 '高爲裘墓誌'로 向南 編, 1995, 『遼代石刻文編』, 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609~610쪽 참조.

8 「故禮賓副使男高公墓誌銘」은 일명 '高澤墓誌'로 向南 編, 1995, 위의 책, 611~612쪽 참조.

9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236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模翰'으로 기록하였다.[10] 다만 유득공은 고모한의 고려 내투, 고려 왕(태조)의 딸과의 결혼, 다시 죄를 지어 요나라로 도망한 사정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요사』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11] 유득공은 고모한의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한 뒤 『요사』에 고모한의 열전이 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글을 마무리하였다. 아무래도 발해 멸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점, 또한 전근대인들 역시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변하며, 입장도 자연스레 달라지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고모한의 한자 이름 표기가 다양한 것은 그의 출신(출자)지와 활동 국가가 달랐기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요사』의 기록에 따르면 발해 → 고려 → 거란(遼)에 정착 후 대송 전투에 수차례 참전해 전공을 세웠기에, 송 측의 인식까지 더해져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남아 전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한자 이름처럼 그를 수식하는 표현도 다양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 고모한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

이 절에서는 고모한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을 정리하였는데, 고모한의 한자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멸망한 발해 후손이면서 요나라의 관인으로, 또는 대송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거둔 무관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이러한 배경은 타자에게 다양한 인식을 남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그가 요-송 간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적군의 장수였기에 송 측의 다양한 표기가 더욱 눈에 띈다. 고모한에 대한 다양한 표기는 송 측의 중층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10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2, 동북아역사재단, 415쪽 참조.

11 고모한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박순우, 2020, 앞의 글, 118~122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모한은 발해국 멸망 10~20년 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12] 고모한의 생년을 좀 더 좁혀보면, 그가 959년에 죽었을 때 『요사』 찬자는 고모한을 평(評)하기를 '공명을 세우고 수명을 누리다 죽었다'고 하였다.[13] 여기에서 '수명을 누리다 죽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대의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수명을 누리고 죽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모한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고모한은 900년 즈음에 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모한이 요 태조 때부터 발탁되어 활동했다는 사실도 그가 900년 즈음에 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후 요 태조~태종 때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후 요 목종 응력(應曆) 1년(951)에 동경 중대성 우상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므로 '고향의 부로(父老)들이 나와 환영했다'는 점도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고모한이 동경 중대성 우상에 임명된 이후 고모한의 말년 기록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목종 응력 9년(959) 정월에 중대성 좌상(左相)에 옮겨진 뒤 사망한 기사가 확인된다.[14] 이로 볼 때 고모한은 요 관인으로 40여 년 이상 생활하였고, 요 태조부터 목종까지 4대조를 섬겼으며,[15] 말년에는 고향 동경에서 (동경) 중대성의 우상과 좌상을 8년여 역임하다가 숨을 거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모한이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16] 그의 활동 무대, 그의 다양한 한자 이름, 그리고 그를 수식하는 표현

12 박순우, 2017,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28~129쪽 참조.

13 『遼史』 권76, 列傳6, 논찬 참조.

14 『遼史』 권76, 列傳6, 高模翰 전, "應曆初, 召爲中臺省右相. 至東京, 父老歡迎曰: '公起戎行, 致身富貴, 爲鄉里榮, 相如·買臣輩不足過也.' 九年正月, 遷左相, 卒."

15 「高澤墓誌」, "歷事皇朝太祖大聖皇帝泊穆宗天順皇帝."

16 고모한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遼史』 고모한 열전에 전하는 "王妻以女"라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수용한다면 고려 태조 왕건이 자신의 딸을 고모한과 혼인시킨 것이 된다. 그런데 고모한이 고려에 머물렀다는 기록과 "王妻以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그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당대 관찬 사서에서 고모한을 수식하는 기록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거란 장수 고모한(『자치통감』·『거란국지』) 또는 요나라 장수 고모한(『거란국지』)으로 기록한 사례, ② 발해 수령(『책부원귀』) 또는 발해 장수(『자치통감』) 고모한(高牟瀚)으로 기록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발해 수령(首領) 대사리(大舍利) 고모한(『속자치통감장편』·『송사』·『송회요집고』·『거란국지』) 등으로 정리된다. 〈표 2〉는 고모한을 수식하는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고모한을 수식하는 표현 분류

No.	고모한 수식 기록	전거
①	거란 장수·요나라 장수	『자치통감』·『거란국지』
②	발해 수령·발해 장수	『자치통감』·『책부원귀』
③	발해 수령 대사리	『속자치통감장편』·『송사』·『송회요집고』·『거란국지』

* 밑줄은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에서 다루지 않은 기록을 표시한 것

이를 다시 정리하면 ①번의 경우처럼 고모한을 '거란·요'의 장수로 기록하거나 ②, ③번의 경우처럼 '발해 장수·발해 수령' 또는 '발해 수령 대사리'를 고모한의 이름 앞에 붙여 '발해'가 고모한을 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는 『자치통감』과 『거란국지』의 경우처럼 '거란 장수 고모한'과 '발해 (수령) 대사리 고모한'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을 중복해 기록한 사례도 확인된다.

고모한은 말년에 고향 요양으로 돌아와 보낸 8년의 세월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보냈다. 발해 유민으로 동시에 요나라의 관료로 최전선의

했다는 기록은 고모한 열전에서만 확인되므로 해당 기록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고려 태조가 자신의 딸을 고모한과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결혼이 가능할 정도로 장성한 인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900년 전후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모한 관련 기록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박순우, 2020, 앞의 글, 118~123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장을 누비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던 고모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각적이고 중층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출신과 이력만으로도 타자의 인식은 복잡다단하게 그려졌을 것이다. 더구나 고모한을 기록한 많은 자료가 요나라와 극심하게 전쟁과 대립을 지속한 송 측에서 편찬된 자료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역사적 인물 고모한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고모한을 역사적 인물 고모한으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관련된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해에서 태어나 고려를 거쳐 요나라 태조에 의해 발탁되어 생애의 2/3 이상을 요 조정에서 활동한 고모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다양한 이력과 행적을 파악한 뒤 고모한이 고민하고 직면했을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당시 발해인으로 요 조정의 관원으로서 살아간 이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료집에 누락된 기록이 많아질수록 발해 멸망 후 발해인의 행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17]

2.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누락된 기록 반영, 동명이인 판정사례들의 재해석

1) 기록상의 편차와 누락, 해석의 문제

이 절에서는 『송사』 송기(宋琪) 열전에 등장하는 '고모한'과 요대 발해인 중 가장 현달한 '고모한'이 동일인이지 동명이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해 멸망 후 발해 사료를 대대적으로 조사, 정리한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을 함께 참고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의 묘지명 자료를 통해 기록의 유무, 상이점 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육불은 『발해국지장편』에서 고모한이 후진 고조 천복 7년(942)에 '통사

17 이 자료집이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접근을 바란다면 각주에 좀 더 많은 공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通事)'로서 후진에 사신으로 간 사실을 정리한 『책부원귀』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책부원귀』에 보이는 또 다른 기록인 "발해 수령 고모한(高牟翰)"[18] 기록은 『발해국지장편』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비슷한 내용이기에 싣지 않을 수 있지만, 김육불이 세주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19]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기록은 『송사』 송기 열전에 등장하는 '발해 수령 대사리 고모한(高模翰)'을 요대발해인 고모한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처리한 것이다.[20] 그런데 근대 시기에 발해 사료를 대대적으로 정리한 김육불은 『발해국지장편』에서 고모한의 열전을 정리하면서 『송사』 송기 열전의 기록을 가져와 세주에 정리하였다. 그는 요대발해인 고모한과 송기 열전에 보이는 고모한을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였다.[21] 필자 역시 김육불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 『송사』 송기 열전의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자.

『송사』 송기 열전은 일반적인 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전근대 시기 관찬 사서에서 개인의 역사를 정리한 열전은 일반적으로 해당 인물의 출신(또는 출자)-선대 소개-해당 인물의 출생-어렸을 때 성장 과정, 특징적 사건 소개-과거 급제-급제 후 관력(또는 급제 후 관료로서 능력, 사건 등)을 서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송기 열전은 일반적인 서술 경향과 다른 점을 보여준다.

송기 열전은 총 4,600여 자가 조금 넘는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열전의 전반부는 대략 1,800자 정도이고, 후반부는 2,800여자 약간 초과한다. 열전의 전반부는 다른 인물의 열전과 동일하게 "宋琪字叔寶, 幽州薊

18 『冊府元龜』 권909, 總錄部159, 憂懼 조; 『冊府元龜』 校訂本 10c, 10572面 참조.

19 이러한 사례는 금대 발해인 관련 기록에서 더욱 자주 확인된다.

20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134쪽 각주 9번 참조.

21 김육불은 후의 저작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毓黻 著, 동북아역사재단 譯,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下)』, 동북아역사재단, 57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人.”로 시작한다. 송기 열전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가 연 지방 출신이고 요 초기 요나라의 과거에 급제 후 훗날 요 목종이 되는 태종의 장자, 곧 수안왕(壽安王)의 시독(侍讀)이 되었는데, 이때가 941년(요 태종 회동 4년·후진 고조 천복 6년)이라는 사실이다.[22] 다시 말해 송기와 고모한이 요 태종조에 요 조정의 관료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23]

그런데 송기 열전의 후반부는 ‘송기는 본래 연 지방 사람(“琪本燕人”)이라며 열전의 서술 내용이 다시 시작하는 듯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런 뒤 송기가 본래 연(燕)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번부의 병마와 산천의 형세를 깊이 연구하고 알았고’ 이에 ‘연주와 계주를 평정’하려는 국가(송나라)를 위해 계책 10가지를 정리하여 송 조정을 위해 제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4] 열전은 이어서 송기가 제출한 계책 10가지가 서술되어 있고, 거란에 관한 설명을 이어간다. 이어 요 태조 야율아보기의 발해 정벌과 정벌 이후 복귀하면서 요양에서 사망한[25]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다음 별족(別族)으로 해(奚)와 습(霫)의 군사 규모를 설명하고, 문제의 기사, 즉 “발해 수령 대사리 고모한(渤海首領大舍利高模翰)”이 이끄는 군사가 “보기 만 여명(步騎萬餘人)”이라 서술하고 있다.[26]

---

22 『遼史』 권4, 本紀4, 太宗, 會同 2년(939) 3월 丁巳, “封皇子述律爲壽安王,”; 『遼史』 권6, 本紀6, 穆宗, “穆宗孝安敬正皇帝, 諱璟, 小字述律. 太宗皇帝長子, 母曰靖安皇后蕭氏. 會同二年, 封壽安王.”; 『宋史』 권264, 列傳23, 宋琪傳, “琪擧進士中第, 署壽安王侍讀, 時天福六年也.”

23 그런데도 『遼史』에는 송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훗날 목종이 되는 수안왕의 시독(侍讀)까지 지낸 인물이 적국인 송나라에 귀부하였기에, 송기는 요 정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24 『宋史』 권264, 列傳23, 宋琪 傳, “琪本燕人, 以故究知蕃部兵馬山川形勢. 俄又上奏曰: 國家將平燕薊, 臣敢陳十策 ….”

25 야율아보기의 사망 장소는 『遼史』, 『契丹國志』 등의 기록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듯 扶餘府(黃龍府)로 추정된다. 다만 『宋史』 송기 열전은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된다.

26 『宋史』 권264, 列傳23, 宋琪 傳, “又有渤海首領大舍利高模翰步騎萬餘人” 송기가 燕·薊州 지역(연운 16주 지역) 공략을 위한 계책을 송 황제에게 바친 시점은 989년(단공 2)이다. 이 시점에서 보면 발해수령대사리 고모한은 사망한 지 한참 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의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사』 송기 열전에 보이는 고모한이 요 초기 대송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요대발해인 고모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고모한과 송기가 요 태종조에 관료로 복무했다는 사실이다. 요 태종이 조정 관료와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중 고모한을 극찬한 때가 938년이고,[27] 송기가 요 태종의 장자 수안왕의 시독이 된 해가 941년이라는 점에서 송기가 요대발해인 고모한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8] 더불어 송기가 연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송 귀부 후 번부의 병마와 산천의 형세를 잘 알아 연주와 계주를 평정하는 10가지 계책을 낼 수 있었다.[29]

둘째, 송 측에서 출간된 관찬 사서들은 하나같이 요대발해인 고모한을 '발해 수령'(『자치통감』·『책부원귀』), 또는 '발해 수령 대사리'(『속자치통감장편』·『송회요집고』·『거란국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송사』 송기 열전에 보이는 용어 '발해 수령 대사리'도 요대 발해인 고모한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송기는 10세기 초(916년)에 태어나 10세기 말(996년 9월)에 세상을 떠

났다. 그리하여 송기 열전에 등장하는 고모한이 동명이인이라는 주장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23, 앞의 책). 그러나 송기가 굳이 '발해수령대사리 고모한이 이끄는 부대'를 언급한 것은 이미 고모한은 죽고 없지만, 고모한이 이끌던 그때의 부대가 여전히 활약하고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27 『遼史』 권76, 列傳6, 高模翰 傳. 會同 원년(938), "冊禮告成, 宴百官及諸國使于二儀殿. 帝指模翰曰: '此國之勇將, 朕統一天下, 斯人之力也.' 群臣皆稱萬歲."

28 동시기에 활동한 송기는 고모한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송사』 편찬 당시 집필자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송사』 집필자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재단의 역주본은 송기 열전의 고모한이 요대 발해인 고모한과 다른 인물로 정리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관례에 따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9 연운 16주를 두고 거란(遼)과 송 측의 각축은 이미 알려진 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났다.[30] 고모한은 9세기 말~10세기 극 초반에 태어나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959년에 사망하였다. 두 사람은 최소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공존하였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태종조에 조정의 관료로도 함께 생활하였다. 만약 동명의 다른 인물이 있었다면 송 측의 많은 자료에서 언급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고모한은 한 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송기는 진사 급제 후 수안왕의 시독으로 생활하다가 송에 귀부한 시점에 대해서는 『송사』와 그의 열전에는 어떤 정보도 없다.[31] 다만 그가 요의 관리에서 송나라의 관리로 변신했다는 점이며, 요에서의 생활보다 송나라에서 더 많은 여생을 보내다 나이 80세에 죽기 직전까지 조정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새롭게 확인된 사항

지금까지 고모한의 후손으로는 금나라 때 활약한 고정(高楨, ?~1159)[32]이 유일하게 언급되어왔다. 그런데 고모한의 후손으로 기록된 (손자) 고위구와 (증손) 고택의 묘지 내용은 정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두 점의 묘지에 근거하면 고모한(1대)으로부터 7대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고정은 확인되지 않는다.[33] 이들 두 명의 묘지명은 자손들과 여손들의 결혼상대자와 그의 가문까지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택(4대)의 묘지는 증손(7대)까지 기록하고

30 『宋史』 권5, 本紀5, 太宗2, (至道二年) "九月戊寅, 右僕射宋琪薨."; 『宋史』 권264, 列傳23, 宋琪 전, "至道元年春, 大宴於含光殿, 上問琪年, 對曰'七十有九'上因慰撫久之. 二年春, 拜右僕射, 特令月給實奉一百千, 又以其衰老, 詔許五日一朝. 是年九月被病, 令其子貽序秉筆, 授辭作多幸老民敍, 大抵謂洪範五福, 人所難全, 而己兼有之, 實天幸也. 又口占遺表數百字而卒. 贈司空, 謚惠安."

31 『宋史』 열전에는 그가 요 목종의 황자 시절(수안왕)에 시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의 열전의 대부분은 980년대의 일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遼史』는 송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2 한치윤은 『海東繹史』에 고정(高楨)을 언급하며 『金史』에 열전이 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밝혔고, 유득공의 『渤海考』는 고정에 관한 기술이 없다.

33 『金史』 高楨 列傳에는 고정의 5世祖가 고모한이라 기록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34]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한 두 점의 묘지를 살펴보자.

동경도를 떠난 후손들의 이주 시점에 대해 검토해보자. 고모한은 동경 중대성 좌상으로 재임시 생을 마쳤는데(959년), 그의 후손들은 어느 시점에 서경도 삭주(朔州) 일대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요나라 초기에 대규모로 천사된 발해인 대부분은 상경도, 중경도, 동경도에 거주하면서 각종 잡역에 동원되었다.[35] 반면, 요 조정에 복무하며 현달한 이들의 자취는 보통의 발해인과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36] 다만 고모한의 후손이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인 동경도를 떠나 어떤 이유로 어느 시점에 서경도로 이주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묘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구위묘지(高爲裘墓誌)」는 고씨의 "선영(先塋)"이 (서경도) "삭주(朔州) 선양현(鄯陽縣) 사마리(司馬里)" 동쪽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37] 이 기록을 통해 선영을 조성할 정도로 선대가 많았다는 것과 아울러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사회, 경제적 재력이 상당

---

34 고모한 후손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권용철, 2020, 앞의 글, 212~216쪽 참조; 박순우, 2020, 앞의 글, 123~128쪽 참조.

35 발해 멸망 후 요 조정의 발해인 강제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이용범, 1973a, 「遼代 東京道의 발해유민」, 『史叢』 17·18; 이용범, 1973b, 「遼代 上京·中京道의 발해 유민」, 『白山學報』 15; 임상선, 2013b, 「遼代 발해인의 再遷徙 이유와 그 내용」, 『白山學報』 97; 임상선, 2013a, 「渤海人의 契丹 內地로의 강제 천사와 거주지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47; 나영남, 2013, 「契丹의 발해유민에 대한 이주정책」, 『東洋史學研究』 124; 王民信, 1974, 「契丹統治下的渤海人民」, 『民族與華僑論文集』 1; 楊保隆, 1990, 「遼代渤海人的逃亡與遷徙」 『民族研究』 1990-4, 93~103쪽; 孫煒冉, 2014, 「移民日本列島和中原地區的渤海人」, 『通化師範學院學報』 2014-9, 27~30쪽; 孫煒冉, 2015, 「遼對渤海人的移民及其安置」 『博物館研究』 2015-1, 45~53쪽;

36 대표적인 인물로 하행미(夏行美)가 거론된다. 그는 대연림의 회유에 불응하고, 도리어 대연림의 군사를 잡아 죽이고, 요 조정에 사태를 보고하였다. 그 공로로 하행미는 '등급을 뛰어넘어' (동경도의) 平章事에 제수되었고, 이듬해(1030년) 4월에는 서경도-울주-충순군절도사에 제수되었다. 하행미의 행적에 대해서는 박순우, 2017, 앞의 글, 131~132쪽 참조; 박순우, 2023, 「요대 발해인 대연림의 기병(起兵)에 대한 종합적 고찰」, 『高句麗渤海研究』 77집 참조.

37 「高爲裘墓誌」, "復奉靈柩歸葬於朔州鄯陽縣司馬里東先塋之次禮也."; 「高澤墓誌」 "復奉靈柩歸葬於鄯陽縣司馬里先塋之次禮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음을 추정케 한다.

마지막으로 고모한의 출자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고모한은 요대의 가장 현달한 관료임에도 자신의 열전에도 출자는 기록되지 않았다. 또 금대 활동한 고정(高楨)은 '고모한의 5세손'으로 기록되었음에도 선대 고모한의 출차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모한의 출자는 그의 손자로 등장하는 고위구의 묘지명에서 확인된다. 이 자료는 자신의 선대가 '발해국 부여부 어곡현 오철리 사람'("渤海國 扶餘府 魚谷縣 烏捺里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38] 발해가 멸망 후 200여 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 선조의 출신지를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고모한의 출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 역시 「고위구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위구의 장례는 손자이자 고택의 장남인 고영견(高永肩)이 치른 것으로 확인되며, 「고택묘지」 역시 고영견이 작성하였다. 바로 그 「고위구묘지」에 고영견은 고씨의 가록("高氏家錄")에 근거하여[39] 선대의 출신지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40] 요나라 말기에도 고씨 가계가 자신들의 선대의 행적을 기록한 사적("家錄")을 간직한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정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묘지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고모한에 관한 『요사』의 기록을 제외하면 그의 후손들에 관한 정사(正史)의 기록은 많은 한계가 있다.[41] 이러한 묘지, 금석문 자료들이 더욱더 발굴, 소개된다면 정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뿐 아니라 요 말기 이르러 발해인들이

---

38 「高爲裘墓誌」, "公諱爲裘, 其先渤海國扶餘府魚谷縣烏捺里人也." 「고위구묘지」에 보이는 선대의 출자 기록은 고택(高澤)의 묘지 기록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高澤墓誌」 "公諱澤, 其先渤海國扶餘府魚谷縣烏捺里人也. 曾諱摸翰.").

39 「高爲裘墓誌」, "謹案高氏家錄"

40 물론 이러한 출자의식이 발해 멸망 이후 "家錄"에 근거하여 대대로 계승된 것인지,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41 그런 점에서 요·금·원, 그리고 송대 발해인 관련 묘지, 금석문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향후 출간될 자료집에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화(同化)되었다는 중국 측 연구를 비판하고, 요-금대 발해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Ⅲ. 금대 발해인 장호 및 가계 인물 관련 기록 검토

금나라 시기 발해인 사회는 요 조정에 의해 강제 천사된 후 모든 것이 달라지고 열악해진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던 요대 발해인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요대 무분별한 착취의 상태에 놓인 발해인들은 요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과 의지를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고영창의 '대발해' 건국을 시작으로, 광주발해, 요주발해인들의 집단적 행동이 그를 잘 보여준다.[42] 요 말기 발해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발해인들은 여진 측에 합세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요 말기 발해인은 완안아골타가 이끄는 여진 세력에 합류하여 금 건국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선대의 연구로 많이 밝혀진 바 있다.[43]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힘입어 금 시기의 발해인들은 요나라 시기와 비교하여 현달한 발해인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44] 특히 금대 장호와 그의 가계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주목받으며,[45]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46] 이 장에서는 장호 가계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문헌 사료를 보완할

42 박순우, 2017, 앞의 글, 111~118쪽 참조.

43 요말금초 발해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이용범, 1974, 앞의 글; 김위현, 2007, 「금 건국과 발해유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 『고구려연구』 29; 김위현, 2009, 「금대 발해인의 향방」, 『한민족연구』 7.

44 이에 대해서는 박순우, 2017, 앞의 글, '금대 '발해인' 연구현황' 9~10쪽 참조.

45 外山軍治, 1979, 앞의 책, 제2장 「金朝治下の渤海人」 123~152쪽 참조; 이용범, 1974, 앞의 글; 侯謌, 1991, 「金〈張汝猷墓志〉考釋」, 『北京文物與考古』 2, 北京燕山出版社.

46 朴現圭, 2020, 앞의 글; 권은주, 2020, 앞의 글, 515~549쪽 참조; 박순우, 20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있는 묘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계 인물의 행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장씨 일가의 요대 행적: 「장행원묘지(張行願墓誌)」가 전하는 사실

장호는 금대 관료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발해 멸망 이후 발해인 전체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최상단에 위치할 것이다. 장호의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대에 관한 기록은 이상하리만치 『요사(遼史)』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금사(金史)』 장호 열전에는 장호의 증조 고패(高霸)가 요에서 사환한 사실과 그 시기에 고씨에서 장씨(張氏)로 개성(改姓)한[47] 내용만 전하고 있다. 장호의 열전에는 고패가 요 조정에서 사환한 사실을 전하지만, 요나라 시기의 정사인 『요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정리된 역사서의 역사적 공백을 실감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장호(張浩)의 아버지 「장행원(張行願) 묘지」를[48] 통해 요대 장씨들의 행적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장행원(張行願)은 장호의 아버지인데, 장호의 열전에 이들 부자를 "요양발해인(遼陽渤海人)"으로 기록하고 있다.[49] 이를 통해 장호의 선대는 요대 동경도의 수부인 요양을 지역적 기반으로 계대(繼代)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장행원묘지(張行願墓誌)」에 근거하여 요대 장씨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살펴 '공식' 기록에서 말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앞의 글 참조.

47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曾祖霸, 仕遼而爲張氏."

48 「張行願墓誌」는 「光祿大夫張行願墓誌銘」의 약칭이다. 「張行願墓誌」는 다음의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羅福頤, 1937, 『滿洲金石志』 卷3, 滿日文化協會, 2~3面 所收; 新文豐出版編輯部 編, 1982, 『石刻史料新編』 1집 23책,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7286面 所收;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516쪽.

49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張浩字浩然, 遼陽渤海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행원묘지」는 장행원이 요 천조제 건통(乾統) 병술년인 1106년에 사망했다고 기록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36살이었고, 고향 사람들이 탄식했다고 한다.[50] 이를 근거로 장행원의 나이를 역산하면 그는 1070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의 짧은 관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요대 최고 행정기구이며 권력기관인 남북추밀원의 영사에 임명된 사실이다.[51] 영사(令史)는 북추밀원과 남추밀원 조 어디에도 속관(屬官)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요사』 본기 도종(道宗) 대강(大康) 9년(1083) 11월에 '여러 영사(令史)와 역사(譯史)를 천직시키고, 서용하는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52] 중요한 것은 요 황제가 4계절 순수(巡守) 할 때 중서성의 영사가 1인인 데 반해 추밀원의 영사는 무려 10여 명이 순행 길을 따라나섰다.[53] 영사가 비록 초사직이고, 관계로 보면 말직이지만, 요대 추밀원의 영사는 황제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며 눈에 띄기 쉽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부분은 아니다.

「장행원묘지」는 장행원의 선대에 관한 약간의 내용도 전한다. 묘지에 따르면 장행원의 증조는 고낙부(高樂夫), 조부는 고패(高霸), 아버지는 장기(張祁)이다. 고낙부는 요 조정에서 예빈사(禮賓使)를 역임하였다. 안타깝게도 다른 관력은 확인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빈사는 외교 및 의례를 담당하였다. 고낙부가 장행원의 증조임을 고려할 때 그는 10세기 후반~11세기 초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낙부는 요나라와 송나라가 화의(和議)를 맺는 또는 화의에 이르

50 「張行願墓誌」, "乾統丙戌歲二月廿」五日卒, 享年卅有六. … 爲鄉人之嗟惜."

51 북추밀원은 병기(兵機)·무전(武銓)·군목(群牧) 같은 정사를 관장하고, 남추밀원은 문전(文銓)·부족(部族)·정부(丁賦)의 일을 관장하였다(『遼史』 권47, 志17, 百官, "契丹北樞密院. 掌兵機·武銓·群牧之政, 凡契丹軍馬皆屬焉. … 契丹南樞密院. 掌文銓·部族·丁賦之政, 凡契丹人民皆屬焉.")

52 『遼史』 권24, 本紀24, 道宗 大康 9년(1083) 11월 기미, "定諸令史·譯史遷敘等級."

53 『遼史』 권32, 志2, 營衛志, 每歲四時, 周而復始 條, "皇帝四時巡守, …. 漢人樞密院·中書省唯摘宰相一員, 樞密院都副承旨二員, 令史十人, 中書令史一人, 御史臺·大理寺選摘一人扈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기간에 활동했을 것이다. 그 기간에 고낙부의 직접적인 활약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최소한 그가 요 조정으로부터 외교와 의례 업무에 합당한 식견과 경험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고낙부의 아들 고패(高霸)는 장행원의 묘지 기록에 따르면 금오위(金吾衛) 상장군(上將軍)이라는 무산계를 제수받았다. 『요사』「백관지(百官志)」에서는 금오위 상장군이 찾아지지 않지만, 「본기」와 「열전」에는 몇몇 인물의 '금오위상장군' 제수 기록이 확인된다.[54] 그런데 『요사』에는 품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금사』에는 '금오위 상장군'을 정3품(中)으로 기록하고 있다.[55]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깝고, 『요사』와 『금사』가 동시기에 편찬된 사정을 고려하면 요대의 금오위 상장군도 금대와 비슷한 품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고패 역시 요 관료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기에 '금오위상장군'이라는 무산계를 수여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묘지는 장행원의 아버지 장기(張祁)가 남해군 절도사(南海軍節度使)를 역임한 것으로 전한다. 요대에 남해군 절도사는 동경도-해주(海州)에 설치된 남해군 절도사사(南海軍節度使司)의 속관이다.[56] 장기는 손자 장호가 금대에 크게 현달한 후 숭덕대부(崇德大夫)로 추증되었다고 한다.[57] 당시 절도사는 종3품이므로, 장기 역시 고위 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절도사' 이외의 다른 관력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장행원의 증조-조부-부 모두 고위직을

54 『遼史』 권4, 太宗 下·『遼史』 권29, 天祚皇帝3·『遼史』 권97 列傳27 孩里·『遼史』 권94 列傳24 蕭阿魯帶 전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遼史』에는 '좌금오위상장군'의 사례도 확인된다.

55 『金史』 권55, 志36, 百官, "武散官, … 正三品上曰龍虎衛上將軍, 中曰金吾衛上將軍, 下曰驃騎衛上將軍."

56 『遼史』 권38, 志8, 地理志, 東京道, 海州 條, "海州, 南海軍, 節度."; 『遼史』 권48, 志17, 百官志, "東京道, … 海州南海軍節度使司."

57 「張行願墓誌」, "父祁, 故任南海」軍節度使, 以孫男浩入參大政, 贈崇德大夫," 다만 『金史』 「百官志」 문산관 조에는 '숭덕대부'가 보이지 않고, 열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金史』 권83, 列傳21, 張汝霖 傳, "由崇德大夫躐遷金紫, 卿所自見也."; 『金史』 권82, 列傳20, 光英 傳, "故崇德大夫沈璋妻張氏嘗爲光英保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이 있었기에 장호가 아버지 장행원을 어렸을 때 여의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행원묘지」를 쓴 손자 장여능(張汝能)은 자신의 가문이 "世家"이고, 할아버지 장행원이 음직(蔭)으로 '추밀원의 영사(令史)'가 되었다고 기록하였다.[58] 장행원은 추밀원 영사로 입사(入仕) 이후 두 번째 관직으로 우반전직(右班殿職)을 제수받았다. 우반전직 역시 『요사』「백관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59] 하급 관위에 불과하지만,[60] 그가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다면, 그 역시 요 조정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을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장호의 선대의 개성(改姓: 高氏 → 張氏) 문제이다. 개성이 일반적 사례는 아니기에 의문이 남지만, 현재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요대 고모한의 후손 고영견이 「고위구묘지」를 지을 때 대대로 내려온 고씨의 가록("高氏家錄")에 근거하여 선대의 출신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후일에 장씨 가계를 기록한 가록(家錄)이 발견되길 기대해본다. 비록 「장행원묘지」 1점의 기록이지만 정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요대 장씨의 가세(家勢)가 요 말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1]

---

58 「張行願墓誌」, "公初以世家充樞密院令史, 遷右班殿直."

59 『遼史』 백관지에는 三班院의 속관으로 좌반도지, 우반도지, 기반도지, 삼반원지후가 기록되어 있다(『遼史』 권45, 志15, 百官志, "三班院. 掌左·右·寄班之事. 左班都知. 右班都知. 寄班都知. 三班院祗候.").

60 『遼史』에는 우반전직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같은 시기 북송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북송 전기에 우반전직이 설치되었고, 원풍(元豐) 연간(1078~1085)에 정9품으로 정해졌다. 이후 휘종(徽宗) 정화(政和) 2년(1112)에 보의랑(保義郎: 52階 중 49階)으로 고쳤던 점을 감안하면 하급 관계이다(『宋史』 권169, 志122, 百官 참조). 북송 시기 우반전직은 음직으로 제수된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61 장행원과 사촌으로 기록된 장광(張匡)의 후손들도 금대 현달한 인사가 적지 않다. 이들 가계 역시 범 장호 일가라 할 수 있으나 지면의 제약상 이 글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장광의 후손에 대해서는 박순우, 2017, 앞의 글, 126, 167~16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금대 장호(張浩)와 그의 후손들

발해국 멸망 후 요·금·원 시기의 발해인 관련 기록의 정리는 20세기 초 김육불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많은 제자와 함께 공력을 쏟아 마침내 1934년에 『발해국지장편』(전 20권)을 집대성하였는데, 발해 시기의 역사뿐 아니라 발해 멸망 후 발해인들의 동향까지도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하였다. 그중에서도 장호의 행적에 관한 기술은 요금 시기의 발해인 중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김육불은 발해사를 중국의 동북 지방사, 즉 중국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비판적 검토는 필수이다.

김육불은 『발해국지장편』을 집필하면서 참고한 원자료의 내용 전부를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역사 자료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과 그 외 자료에 수록된 여러 자료와의 비교·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록의 단순한 검토를 넘어 그 행간의 너머에 있는 의미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호 후손들의 묘지 자료를 함께 비교, 검토함으로써 관찬 기록과의 편차와 한계, 인식 등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장호: 『대금국지(大金國志)』가 전하는 것

장호의 열전은 그를 '요양발해인(遼陽渤海人)'으로[62] 기록하고 있어 그의 선대는 요대 발해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동경도 요양부에서 계대(繼代)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선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장호가 미래 관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장호가 요말에 금 태조 완안아골타에 의해 승응어전문자(承應御

183~184쪽 참조. 한편, 장광-장현소 부자와 장호-장여림 부자의 가계에 대해서는 박순우, 2017, 앞의 글, 364쪽 〈부록 圖1: 장씨[장호(張浩)] 가계도〉 참조.

62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張浩字浩然, 遼陽渤海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文字)로 발탁된 것이 그를 증명한다.[63] 장호는 요금교체기에 금 태조에 발탁된 이후 5朝를 섬겼다(태조-태종-희종-해릉-세종). 장호의 정치적 성취는 금대 장씨 가계가 요대를 이어 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64]

장호는 금대 관료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아도 가장 현달한 관료로 평가된다. 『금사』의 찬자가 그의 열전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이다. 그런데 장호 관련 기록은 『금사』 이외에도 중국 측 자료인 『대금국지(大金國志)』에도 6건의 기사가 실려 있다.

원호문의 『중주집(中州集)』에 실린 장호 관련 기사는 승지 이안(李承旨晏)의 열전에 실린 내용이다.[65] 그 외에도 장호 관련 기록은 『금사』 지리지(地理志)와 예지(禮志), 그리고 동시기 관료의 열전에서도 확인된다. 백덕특리보(伯德特离補)·장통고(張通古)·누완온돈사충의 아들 을질(耨碗溫敦思忠子乙迭)·흘석렬양필(紇石烈良弼)·소보형(蘇保衡)·독길의(獨吉義)·경사휘(敬嗣暉) 전 등이 그런 사례이다. 다만, 이들 기사는 해당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등장하는 경우이며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66]

그러나 『대금국지』에 수록된 장호 관련 기사는 여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좌상(左相) 장호(張浩)가 금나라의 수도(燕京·이후 中都) 건설을 지휘한 기록이다.[67] 물론 『금사』에도 실린 내용이므로 제

63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天輔中, 遼東平, 浩以策干太祖, 太祖以浩爲承應御前文字."

64 이후 장호의 관력과 금 조정에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박순우, 2017, 앞의 글, 177~179쪽 참조.

65 元好問, 『中州集』 제2권(中華書局上海編輯所編輯, 1959, 100쪽 참조), 李承旨晏 條, "… 致美皇統二年, 經義進士, 釋褐臨汾丞時, 張太師浩, 判平陽, 一見愛其才, 爲之延譽."

66 다만, 해당 기사의 각주에서라도 동일한 기사인지, 다른 기사인지, 어떤 인물의 열전에 서술되었는지를 부기하였다면 좀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7 『大金國志』 附錄(2), 金虜圖經, 京邑, 593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대금국지』를 남송의 인사가 금의 수도 건설 정황을 충실하게 기록한 점, 또한 『대금국지』가 금나라의 정사 『금사』에 앞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장호 관련 기사가 『대금국지』에 3건이 추가로 확인된다. 한 건은 좌승 장호가 중도 건설을 마친 후 이어서 변경(汴京·금대 남경·제2의 도시)을 수리하는 역을 지휘했다는 사실과(2회),[68] 다른 한 건은 금 세종 대정 원년(1161) 10월에 해릉이 남쪽(남송) 원정 중이던 틈을 타 세종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세종이 해릉왕을 사면한다는 조서를 좌승상 장호를 보내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1회).[69]

이것은 남송의 학자 우문무소(宇文懋昭)가 금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라 할 것이다. 물론 송 인사들의 기록은 전해 들은 것이 많아 『요사』, 『금사』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있지만,[70] 여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행간의 너머를 파악하려면 두루 살펴야 함은 당연하다. 송나라의 많은 사신이 요·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 조정에 행정록(行程錄)을 제출하거나, 개인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71] 남긴 이유는 상대(외교 상대이자 적국)를 자세하게 살펴 정책 입안에 도움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72] 그 때문에 기록과 말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덧붙여지거나 달라

68 『大金國志』 권14, 해릉양왕(中), 194, 196面.

69 『大金國志』 권16, 세종성명황제(上), 222面.

70 金毓黻 著·동북아역사재단 譯,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下), 동북아역사재단, 716쪽.

71 劉浦江, 2006, 「宋代使臣語錄考」, 『10-13世紀中國文化的碰撞與融合』(張希清 主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54~256쪽.

72 이와 관련해 노진(路振)의 『승초록(乘軺錄)』이 좋은 사례이다. 거란 측에서는 정보 누설을 염려하여 거란어로 명령을 내리고, 송 측에서는 거란어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역어전시(“譯語殿侍”)라는 관직을 지닌 관원을 사신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路振, 『乘軺錄』, “泊臣等持國信以至境上, 虜乃下令曰, 昨者, 徵兵燕·薊, 以備南, 敢有言於漢使者, 誅及其族.[虜下令事, 殿侍魯進聞之於契丹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살핀다면 심층적인 역사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역사 연구에서 정사(正史)뿐 아니라 개인의 문집, 일기류, 금석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사가 당대의 모든 역사상을 담아내지 못하기에 동시대의 여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기본이다. 장호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의 기록은 풍부하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장호의 아들 장여위(張汝爲)가 남긴 「유영암사제기(游靈巖寺題記)」와 「장여유(張汝猷) 묘지명」은 문헌 기록을 보완하는 좋은 자료이다. 다음에서 여타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2) 장호의 아들 장여림 기록의 검토

장여림(張汝霖)의 아버지 장호는 "요양발해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73] 장여림은 여러 자료에 "요양인(遼陽人)"으로 기록되어 있다.[74] 장호는 장여림이 어렸을 때 장차 그가 '우리 집안에 천리구(千里駒)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75] 장여림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여러 아들 중 가장 현달한 관료가 되었다. 장호의 가계가 '대대로 존귀하고 이름이 높았다'는 기록을 통해[76] 그의 선대로부터 이어진 가세는 장호대에 이르러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배경은 장호의 아들들이 학문을 익히기에 좋은 도태가 되었을 것이다.[77]

장여림 관련 기록은 『금사』 본기와 열전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

73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張浩字浩然, 遼陽渤海人."

74 『大金國志校證』 附錄4, 族帳部曲錄 條, "張汝霖字仲潭, 遼陽人, 太師浩之子."; 『中州集』 권9, 張左相汝霖 條, "汝霖字仲澤, 遼陽人. 家世貴顯. 父浩字浩然."; 『畫史會要』 권3, 36a面, "張汝霖字仲澤, 遼陽人."

75 『金史』 권83, 列傳21, 張汝霖 傳, "霖字仲澤, 少聰慧好學, 浩嘗稱之曰; 「吾家千里駒也.」"

76 『中州集』 권9, 張左相汝霖 條, "汝霖字仲澤, 遼陽人. 家世貴顯. 父浩字浩然."

77 장여위에 대한 논의는 박순우, 2017, 앞의 글, 181~182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아버지 장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금국지』에 실린 기사는 수록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장여림이 해릉왕 때 특사급제(特賜及第)를 한 사실과 얼마 뒤 정주명급제(正奏名及第)한 정보를 싣고 있다.[78] 『금사』에는 특사급제 사례가 자주 확인되지만,[79] 정주명급제는 확인되지 않는다.[80] 『금사』 장여림 열전에서 보이는 장여림보다 『대금국지』 속 장여림이 해릉왕 때 큰 총애를 받았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기록은 아니다.

또한 『대금국지』는 장여림이 갈왕(葛王, 후의 금나라의 제5대 황제 세종[81])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대금국지』에 실린 장호 관련 기사가 비록 소략하다고는 하나 정사인 『금사』에 없는 기사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버지 장호의 사례처럼 동시기 관료의 열전에 실린 장여림 관련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호(孟浩)[전곡(田谷) 附]·당회영(党懷英) 열전의 기사가 그런 예이다. 맹호 열전에는 1189년(대정 29)에 세종이 이전에 모함받은 이들의 관작을 회복하고 추증하는 문제를 장여림과 의논하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당회영 열전에 실린 내용은 장종 황제의 질문에 장여림이 대답하는 기사이다. 장여림은 현직 관료로서 세종 말년에 평장정사(종1품)를 역임하였고, 장종이 즉위하자 은청영록대부(정2품下)가 더해지고 일자(一字) 왕호인 신왕(莘王)에 진봉(進封)되었다.[82] 조정 내 최고위급 인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78 『大金國志校證』 附錄4, 族帳部曲錄 條, “張汝霖字仲潭, 遼陽人, 太師浩之子. 亮時特賜及第, 尋復正奏名及第. 亮時在翰林院, 葛王立, 遷吏部尙書.”

79 금나라 때 特賜及第에 관한 기록은 『金史』 곳곳에서 확인된다. 반면 정주명급제(正奏名及第)는 단 한 건의 기사도 확인되지 않는다.

80 다만 동시기 『宋史』 선거지에는 정주명급제에 관한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81 『金史』 권86, 列傳24, 李石子獻可 傳, “海陵指石曰: ‘此非葛王之舅乎?’ 葛王, 謂世宗也.”

82 『金史』 권55, 志36, 百官1, 文官九品 참조; 同書, 凡封王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장호의 아들 장여위 기록의 검토

장여위(張汝爲)는 아버지 장호의 열전에 장여림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어 장여림의 형으로 추정된다.[83] 장여위는 진사 등제 후 봉직대부(奉直大夫), 기주절도부사(冀州節度副使) 및 전운사(河北東路轉運使) 등을 역임하였다.[84] 이러한 사실은 장여위가 활동한 금나라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금사』가 아니라 조부 장해원의 묘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또 다른 기록은 아버지 장호의 열전에,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은 『중주집』에 하북동로전운사를 역임했다는[85] 간략한 내용만 전하고 있다.[86]

사실 장여위 관련 기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히 소략하다(대부분의 발해인 기록이 그러하다). 발해 멸망 후 발해인 관련 기록은 시기적으로 매우 넓고 자료 또한 산재해 있어 관련 기록을 하나씩 찾아 채우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여위가 그런 사례이다.

장여위 관련 기사는 『금사』와 『중주집』 이외에 동생 「장여유묘지」·「유영암사제기(游靈巖寺題記)」와 『대금국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장여유묘지」는 장여위가 하북동로전운사를 지낸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대금국지』는 장여위가 석거방급제(石琚榜及第)자였음을 전한다.[87] 석거(石琚)는 천권 2년(1139)에 진사에 장원급제하고, 조정에서 (관리를) '선발하고 천거하는 일을 오래도록 주관

83 조부 장행원의 묘지명에도 장여위가 장호의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다. 「光祿大夫張行願墓誌銘」, "孫男四人. 長曰汝爲, 登進士第, 奉直大夫, 今爲冀州節度副使."

84 「光祿大夫張行願墓誌銘」 참조; 『渤海國志長編』 권13, 遺裔列傳5. 汝爲字仲宣, 登進士第, 關冀州節度副使·河北東路轉運使.

85 『中州集』 권9, "汝爲字仲宣. 河北東路戰運使."

86 『中州集』에 실린 장여위 기사는 후대에 김육불에 의해 『渤海國志長編』에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87 『大金國志校證』 附錄4, 族帳部曲錄 條, "張汝爲字仲宣, 汝林之兄, 浩之長子, 石琚榜及第. 葛王立, 貶爲庶人. 次年復官, 除戶部侍郎." 반면 조부 장행원 묘지(「光祿大夫張行願墓誌銘」)는 진사 등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88] 석거가 과거를 주관할 때 급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사』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내세워 '○○○榜及第'로 기록한 사례는 단 한 건 확인된다.[89] 그런데 금나라의 과거를 어떤 인물이 주관했는지 송측에서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대금국지』는 장여위가 갈왕(후의 세종)을 세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인으로 폄출되었다가 이듬해 호부시랑에 복관된 일도 전하고 있다. 이 기사 역시 『금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발해 멸망 후 발해인들을 꼼꼼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발해국지장편』에도 없는 내용이다.

「유영암사제기(游靈巖寺題記)」는 장여위가 영암산(靈巖山) 영암사(靈巖寺) 석각군에 남긴 글이다. 영암사는 현재 산동 제남시(濟南市) 장청구(長淸區) 만덕가도(萬德街道)에 소재하는데, 천불전 뒤편에 조성된 석각군이 유명하다.[90] 「유영암사제기」는 장여위가 비문을 짓고 행서로 썼으며, 동평(東平) 장성(張誠)이 각석하였다. 「유영암사제기」는 장여위가 (산동서로-동평부) 문상현의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과 격서를 받아 서주(徐州)·숙주(宿州)·비주(邳州)에 주둔한 병사들의 노고를 포상하고 돌아가는 길에 영암사에 들러 글을 남긴 사실을 기록하였다.[91] 아울러 그가 글을 남긴 1156년(해릉 정륭 1) 5월 시점에 자신의 직함을 동지동평총윤(同知東平總尹)이라 기록하였다.[92] 당시 동평총윤은 부윤(府尹)과

88 『金史』 권88, 列傳26, 石琚 傳, "琚生七歲, 讀書過目卽成誦, 旣長博通經史, 工詞章. 天眷二年, 中進士第一, … 琚自員外郞至尙書, 未嘗去吏部, 且十年. 典選久."

89 『金史』 권105, 列傳43, 元措 傳, "四十八代端甫者, 明昌初, 學士党懷英薦其年德俱高, 讀書樂道, 該通古學. 召至京師, 特賜王澤榜及第."

90 영암사에 대한 내용과 「游靈巖寺題記」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원문은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박현규, 2020, 「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 『한국고대사탐구』 34, 563~567쪽 참조.

91 「游靈巖寺題記」, "玆因被檄賞勞徐·宿·邳州屯守軍兵, 還登岱宗, 故不憚迂遠行役之勞, 惠然而來, 周覽上方勝槩."

92 「游靈巖寺題記」, "正隆丙子歲仲夏初七日, 同知東平總尹, 遼陽張汝爲仲宣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총관(總管)을 겸칭한다는 연구가 있다.[93]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여위에 관한 정사의 기록은 대단히 소략하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장여위의 많은 행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장여유 관련 기록을 검토한다.

4) 장호의 아들 장여유 기록의 검토

장여유(張汝猷)는 장호의 막내 아들이다.[94] 장여위에 관한 정사의 기록은 2건, 그리고 『중주집』의 1건이 전부이다. 장여유는 1192년(장종 명창 3) 12월에 고려 생일사로 고려를 찾았다.[95] 이때 『금사』는 장여유의 관직을 동상합문사로 기록했으나, 『고려사』는 장여유를 예부시랑으로 기록하였다.[96] 또 다른 기사는 장여유가 소부감(少府監)으로 있을 때 장종 황제에게 조언하는 기사이다.[97]

그런데 후대에 장여유의 묘지명이 출토되면서 많은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98] 앞서 언급한 관력은 제외하고 묘지를 근거로 장여유의 관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음으로 입사 후, 1175년(대정 15) 합문지후에서 통사사인(通事舍人) → 1197년(승안 2) 9월에 태부감 동지연안도총관사로 임명 → 1199년(승안 4)

---

93 『山左金石志』 권19, 「張汝爲靈岩寺題記」: "… 汝爲歷官, 史書不載, 惟中州集稱爲河北東路轉運使, 未知其先曾官同知東平總尹矣. 武虛谷云: 地理志東平府以府尹兼總管, 此結銜稱總尹者, 殆幷二官名爲一與?"

94 장호 열전에 기록된 장여방과 장여유는 조부 장행원의 묘지명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장행원의 묘지명을 편집한 羅福頤는 장여방과 장여유가 장행원의 묘지가 찬술된(1150) 이후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羅福頤, 『滿洲金石志』 권3, 2~3쪽 참조).

95 『金史』 권9, 本紀9, 章宗, 明昌 3년, "十二月癸卯, 以東上閤門使張汝猷爲高麗生日使."

96 『高麗史』 권20, 明宗 23년(1193) 봄 정월, "乙酉, 金遣禮部侍郎張汝猷來, 賀生辰."

97 『金史』 권64, 列傳2, 章宗元妃李氏 傳 참조.

98 「張汝猷墓誌」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원문은 권은주, 2020,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515~549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송에 '국신부사(國信副使)'로 사신 감 → 1201년(태화 원년) 2월에 하북동로 전운사사(河北東路轉運使事)에 제수 → 1203년(태화 3) 우선휘사(右宣徽使)에 제수 → 1207년(태화 7) 중도 서쪽 개양방(開陽坊)의 사저(私第)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문음으로 입사 후 20여 년간 금의 관료로 생활하였고, 죽기 4년 전(1203)에 우선휘사에 제수되었는데, 이는 정3품의 고위 관계에 해당한다. 아울러 장여유의 묘지명은 아들들에 대한 정보도 적지 않게 기록하였는데, 정사에서는 모두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발해와 관련된 모든 기사는 한 줄이 아쉽다. 짧은 한 토막 기사라도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발해 멸망 후 발해인에 대한 문헌자료와 금석문 자료에서 확인되는 한 줄의 기사도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Ⅳ.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고모한과 그의 후손들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모한의 한자 이름 표기의 다양함과 고모한을 수식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1절). 고모한의 출신지(국가), 활동 국가, 역할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2절에서는 『송사』 송기(宋琪) 열전에 등장하는 '발해 수령 대사리 고모한'이 '요대발해인 고모한'임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고모한의 (손자) 고위구와 (증손) 고택의 묘지를 통해 이들 가계가 어느 시점엔가 서경도 삭주(朔州)로 세거지를 옮겼음이 드러났다. 한편, 서경도 삭주로 세거지를 옮겼음에도 가계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씨가록(高氏家錄)"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선대의 역사와 출자에 대한 의식을 일정 부분 보존하고 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요-금대 현달한 장씨(張氏) 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런데 요대 장호의 선대에 관한 기록은 요나라 정사인 『요사』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아버지 장행원의 묘지를 통해 요나라 시기 장씨의 행적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요대 장씨의 가계는 대대로 고위 관인을 역임하면서 요 말기까지 상당한 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생각된다(1절). 2절에서는 장호 후손의 묘지와 금석 자료와 비교하며 금대 장호와 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들의 행적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契丹國志』, 『金史』, 『大金國志』, 『渤海國志長篇』, 『山左金石志』, 『續資治通鑑長編』, 『宋史』, 『宋會要輯稿』, 『遼史』, 『資治通鑑』, 『中州集』, 『冊府元龜』.

「故順義軍馬步軍都指揮使高公墓誌銘」(고위구묘지), 「故禮賓副使男高公墓誌銘」(고택묘지)
「光祿大夫張行願墓誌銘」(장행원묘지), 「游靈巖寺題記」(장여위),
「大金故宣威將軍右宣徽使張公墓誌銘」(장여유)

단행본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2007, 『발해사 자료집』(上·下), 고구려연구재단.
金渭顯 外, 2012, 『國譯 遼史』(上·中·下), 檀國大學校出版部.
金毓黻 著, 동북아역사재단 譯,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歸化人 연구』, 국학자료원.
서병국, 2007, 『고구려인과 말갈족의 발해국』, 한국학술정보.
이성규 외, 2016, 『國譯 金史』(1~4), 檀國大學校出版部.
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羅福頤, 1937, 『滿洲金石志』, 東京: 滿日文化協會.
新文豐出版公司編集部 編, 1982, 『石刻史料新編』,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宇文懋昭 著·崔文印 校證, 1986, 『大金國志校證』, 北京: 中華書局.
元好问, 1959, 『中州集』, 上海: 中華書局 上海編輯所編輯.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向南 編, 1995, 『遼代石刻文編』, 石家莊市: 河北敎育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권용철, 2020, 「발해인 高模翰과 그의 후예에 대한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66.

권은주, 2020,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김위현, 2007, 「금 건국과 발해유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 『고구려연구』 29.

_____, 2009, 「금대 발해인의 향방」, 『한민족연구』 7.

나영남, 2013, 「契丹의 발해유민에 대한 이주정책」, 『東洋史學研究』 124.

박순우, 2017,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 「요대발해인 고모한(高模翰) 관련 기록의 검토와 후손들의 활동 연구」, 『東方學志』 191.

_____, 2021, 「요~금대 발해인 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과 통혼 사례 분석」, 『大東文化研究』 114.

_____, 2023, 「요대 발해인 대연림의 기병(起兵)에 대한 종합적 고찰」, 『高句麗渤海研究』 77집.

朴現圭, 2020,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이용범, 1973a, 「遼代 東京道의 발해유민」, 『史叢』 17·18.

_____, 1973b, 「遼代 上京·中京道의 발해 유민」, 『白山學報』 15.

_____, 1974, 「金初의 발해유민」,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又軒丁仲煥博士還曆 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임상선, 2013a, 「渤海人의 契丹 內地로의 강제 천사와 거주지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47.

_____, 2013b, 「遼代 발해인의 再遷徙 이유와 그 내용」, 『白山學報』 97.

苗霖霖, 2013, 「遼·金時期渤海遺民高氏家族考述」,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4-3, 吉林: 北華大学学報編輯部.

_____, 2015, 「遼代渤海高氏家族考辨」, 『遼金歷史與考古』 6,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孫煒冉, 2014, 「移民日本列島和中原地區的渤海人」, 『通化師範學院學報』 2014-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5,「遼對渤海人的移民及其安置」,『博物館研究』2015-1.
楊保隆, 1990,「遼代渤海人的逃亡與遷徙」,『民族研究』1990-4.
王民信, 1974,「契丹統治下的渤海人民」,『民族與華僑論文集』1.
王善軍, 2008,『世家大族與遼代社會』, 北京: 人民出版社.
王曄, 2010,「由武功到文治 -試論遼代渤海高模翰家族的轉變」,『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31-12, 赤峰: 赤峰學院出版社.
劉俊喜, 2001,「遼代朔州高氏的兩方墓志」,『遼金史論集』6,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劉浦江, 2006,「宋代使臣語錄考」,『10-13世紀中國文化的碰撞與融合』(張希清 主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李智裕, 2015,「《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志》補釋」,『北方文物』2015-3, 哈尔滨: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仉惟嘉, 2014,「淺議金代名臣張浩」,『長春教育學院學報』2014-22, 吉林: 长春教育学院
侯謂, 1991,「金〈張汝猷墓志〉考釋」,『北京文物與考古』2,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外山軍治, 1979,『金朝史研究』, 京都: 同朋舍(초판은 196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발해 멸망 후 발해인 관련 기록의 비교 분석

– 요대 고모한과 금대 장호 가계 인물 기록을 중심으로 –

박순우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와 중국사료편 1의 출판에 즈음하여 '발해 사료 활용 기획연구'를 통해 집필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발해 멸망 후 발해인 중 요·금대에 가장 현달한 두 명의 인물을 선정하고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Ⅱ장에서는 요대(遼代) 발해인 고모한(高謨翰)과 그의 후손들의 기록을 검토하여 그들의 행적을 재구성했으며, Ⅲ장에서는 금대(金代) 발해인 장호(張浩)의 선대와 그 후손들에 관한 행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 총서에 수록되지 않은 문헌 자료의 내용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록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연구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개인 묘지 자료나 석각 자료는 정사(正史)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앞으로의 발해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누락된 문헌 자료는 물론 금석문 자료를 종합하고 번역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발해인(渤海人), 요대발해인(遼代渤海人), 금대발해인(金代渤海人), 고모한(高謨翰), 장호(張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Records Regarding the Balhae People, after Balhae's Fall: Focusing on the Records of Family Members of Go Mo-han(高模翰) of the Liao Dynasty and Zang Ho(張浩) of the Jin Dynasty

Park Soonwoo

This article has been supported by the 'Organized study for the Balhae Records Utility project,' launched in correlation with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s publication: *The Balhae History Sources Collection-References from Korean Sources (vol.1&2), and References from Chinese Sources*(vol.1).

For the occasion, this author chose two of the most renowned Balhae figures, who led most productive and vibrant lives in the Khitan Liao and Jurchen Chin societies of China, after the fall of Balhae of course.

Examining all kinds of records and references for these figures led this autho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ll extant relevant dat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garding them (and other Balhae figures as well) were all listed without exception in previous publications.

Examined in Chapter 2 is a Liao-period(遼代) Balhae figure Goh Mo-han(高謨翰) and his descendants, while in Chapter 3 Jang Ho(張浩), a Chin-period(金代) Balhae figure, and his descendants are examined. Reconstructing all these historical figures' footsteps and life history indeed revealed that there were considerable amount of data left out, and not included in the previously published source collections.

Various records of a same event or the same individual tend to vary in terms of details, so all these references, if properly disclosed and mad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researchers, would undoubtedly contribute to Balhae historical studies overall.

Especially, personal tomb epitaphs and monumental inscriptions provide us with detailed information which usually do not appear in the official histories(正史). In the future, to revitalize researches in Balhae history, records of this sort should also be compiled and translated.

Keywords: Balhae figures(渤海人), Balhae descendants in the Khitan Liao society(遼代渤海人), Balhae descendants in the Jurchen Chin society(金代渤海人), Go Mo-han(高模翰), Jang ho(張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4

청대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의 계통과 강역 인식

권은주 | 동북아역사재단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II. 만주 원류의 기준과 편찬 의도
III. 발해의 계통 인식
IV. 발해의 강역 인식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발해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시대에 따라, 인식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가 어떤 연구 환경에서 어떤 자료에 무게를 두고 연구하는가에 따라, 발해사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 귀속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학계의 경우 발해사를 중화민족의 일부인 만주족의 선조이자 청사(淸史)의 전사(前史)로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발해사는 중화민족과 중국사의 일부가 된다. 한국 학계의 경우 발해사가 만주족의 역사와 연관성은 있지만, 중화민족의 역사, 즉 중국사의 일부로 보는 것은 부정하며, 한민족과 한국사의 일부로 이해한다.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의 차이는 전혀 다른 국가와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처음부터 어느 한쪽이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의 견해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발해사가 누구의 역사인가라는 질문에 한중은 이미 각자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대 이후 지속된 발해사의 역사 귀속에 대한 양자의 인식 차이는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이 더 이상 무의미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역사는 계속 재해석됨으로써 현재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의미와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특정 시기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분석은 좋은 지남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청대의 발해 인식을 통해 발해사의 역사 귀속에 대한 질문의 단서를 얻고자 한다. 그것은 한중 학계의 발해사 인식에서 공통적

* 투고: 2025년 4월 13일, 심사 완료: 2025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발해사가 만주족의 역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 학계의 경우 고구려가 다종족 국가이듯 발해 역시 다종족 국가이며, 발해 멸망 이후 요와 고려 등에 흩어져 일부는 우리 민족으로, 일부는 여진과 만주족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한편, 중국에서는 금대 여진족과 청대 만주족이 발해인을 그들의 동류 내지 선조로 이해했다고 본다. 최종 만주로 수렴되는 계통에 대해서는 숙신에서 시작하여 물길-말갈(발해)-여진(금)-만주(청)로 이어진다는 일원적 계통 인식을 보인다.[1]

그런데 금대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나 근거 사료 어디에도 당시 여진족이 발해인을 대등한 동족으로 여기거나 발해를 자신의 역사로 적극 인식한 사례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2] 그렇다면 청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대의 만주족

---

1 실제 청대 만주에는 한(漢), 몽골, 조선 등 이민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 경우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에 43개의 성씨가 확인된다고 한다(서정흠, 2005,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만주연구』 3, 83쪽; 윤영인, 2006,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 연구」, 『만주연구』 5, 14~15쪽; 김준영, 2021, 「清代 八旗의 東北 이주와 東北 滿洲人의 多元的 정체성」, 『만주연구』 32, 72쪽; 우경섭, 1997, 「17세기 전반 滿洲로 歸附한 조선인들 -『八旗滿洲氏族通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183~184쪽). 중국 학계의 전문 연구에서는 만주의 다양한 구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사, 지방지, 박물관, 미디어, 교육, 문화관광 등 공공 역사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원적 계통론을 견지한다. 발해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일반 상식은 숙신-읍루-물길-말갈로 이어지는 일원론적 시각이 주류이다(권은주, 2008, 「말갈 연구와 유적 현황」, 『중국 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8~30쪽; 孫倩, 2012, 「近年來國內學者關於渤海族問題研究綜述」, 『蘭台世界』 33, 52~53쪽). 발해 구성원의 다종족성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중화민족 내의 소수민족으로의 다종족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孫倩, 2011, 「論渤海族的形成-中華民族多元一體理論的個案解析」, 『長春師範學院學報』 30-5, 32~33쪽; 王禹浪·王俊錚·王天姿, 2021, 「滿族及其先民的發展曆程與"中華民族共同體意識"」, 『滿族研究』 142, 24~26쪽). 따라서 중국 측에서 발해사가 한국사나 한민족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2 여진이 거란을 공격하며 발해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동일가(本同一家)'를 내세운 것이 정치적 구호임은 잘 알려져 있다(임상선, 2014, 「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 -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0, 403쪽). 금대에 여진인들은 발해를 완전한 동류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대에 발해를 말갈 계통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통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으로 『만주원류고』가 꼽힌다.[3] 『만주원류고』는 제요(提要), 권수(卷首)와 본문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요는 초록에 해당한다. 네 부분으로 구성된 본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초고를 어디에 주안을 두어 교정했는지 밝히고 있다. 권수는 머리말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건륭제가 1777년 8월 『만주원류고』의 편찬을 지시하며 내린 유지(諭旨)가 먼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동년 9월에 아계(阿桂), 우민중(于敏中), 화신(和珅), 동고(董誥) 등 편찬 담당자들이 편찬 범례를 만들고 편찬 계획을 보고한 주접(奏摺)이, 그다음에는 7가지 범례가 나온다. 본문 권1~7에는 부족(部族) 1~7이 수록되어 있고, 각 원류를 시대별로 다루었다. 권8~13은 강역 1~6을 두어 공간적으로는 만주 원류와 관련된 강역을 설명하고 있다. 권14~15는 산천(山川) 1~2를, 권16~20까지는 국속(國俗) 1~5를 편재하였다.

『만주원류고』는 일반적으로 발해를 포함하여 숙신에서 만주로 이어지는 일원 계통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한민족의 선조로 구분되는 부여, 삼한, 신라, 백제를 포함하고 있어 특이성을 보인다. 한국 학계가 『만주원류고』에서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독특한 원류 인식 때문일 것이다.[4]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청대 사료를 살펴보면서 『만주원류고』의 원류 인

보는 인식이 있었지만, 발해는 속말말갈에서 금은 흑수말갈에서 이어진다고 분명히 구분하였다. 특히 금나라 초기 편찬된 『조종실록(祖宗實錄)』을 대본으로 편찬한 『금사(金史)』 세기(世紀)와 송나라의 홍호(洪皓)가 천회 2년(1124)부터 천권 3년(1140)까지 대금통문사(大金通問使)가 되어 금에서의 견문을 기록한 『송막기문(松漠紀聞)』 등에는 금대의 여진인이 흑수말갈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李東馥, 1984, 「遼末女眞社會의 構成(Ⅰ): 黑水와 黑水靺鞨」, 『淸州大學校 論文集』 17, 12쪽; 程妮娜 등, 2019, 『金史』,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3쪽). 그리고 발해 자체의 연원을 설명할 때는 말갈보다는 고구려와의 관계가 더 많이 언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孫文良, 1987, 「滿洲源流考辦析」, 『社會科學輯刊』 1987-3, 49쪽.

4 이러한 『만주원류고』의 독특한 원류의식에 대해, 근래 한국 학계에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유사성에 주목한 견해(후술)가 있는데, 이른 시기 연구에서는 일본의 식민사학인 만선사 연구에 활용된 측면을 비판한 연구(洪以燮, 1966, 「「滿洲源流考」論」, 『백산학보』 1)가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이 청대 보편적인 사고였는가에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청대에 발해를 숙신에서 만주로 이어지는 일원적 계통 인식에서 주류로 여겼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를 느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국 학계가 발해사를 만주족의 전사로 보는 근거 하나가 불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만주원류고』에서 말하는 만주 원류와 편찬 의도를 살펴보고, 『만주원류고』의 발해 계통과 지리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5]

Ⅱ. 만주 원류의 기준과 편찬 의도

1. 만주 원류의 기준

우선 이 장에서는 건륭제의 유지를 통해, 『만주원류고』에서 설정하고 있는 만주 원류가 무엇인지, 이 책의 편찬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건륭제의 유지는 『만주원류고』 권수(卷首)에 실려 있는데, 같은 내용이 『청실록(淸實錄)』 고종순황제실록(高宗純皇帝實錄) 권1039, 건륭(乾隆) 42년(1777) 8월 19일 기사[6]에도 실려 있다.

> A. 근래 읽은 『금사(金史)』 세기(世紀)에 이르길, ① 금나라의 세조(世祖)는 완안부(完顔部)에 살았다. 그 땅에는 백산(白山)과 흑수(黑水)가 있다. 백산은 즉 장백산(長白山)이고, 흑수는 즉 흑룡강(黑龍江)이다. 본조(本朝, 청나라)가 처음

5 아래 본문에서 필자가 번역하여 제시한 『만주원류고』 예문의 원문 출처는 티엔룽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중국변강사연구집성 동북사지(東北史志)』 제5부 권1(2004, 全國圖書館文獻 縮微復制中心)에 수록된 『흠정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이다.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https://sillok.history.go.kr/mc/id;jsessionid=nHGgOaGGU7 e4rZo8c2pMzOPesydd05QxjWEv_o7i.node10/qsilok_007_1039_0010_0010_0040_00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어난 동토(東土)는 산천이 뛰어나서 인재를 기르는 것(鍾毓)이 대금(大金)과 똑같았다. ② 역사에 또 이르길 금나라의 선조는 말갈부(靺鞨部)에서 나왔는데, 옛 숙신(肅愼)의 땅이다. ③ 우리 왕조가 처음 일어났을 때, 옛 호칭인 만주(滿珠)에 속한 것을 주신(珠申)이라 하였다. 뒤에 만주(滿珠)로 고쳐 불렀는데, 한자(漢字)가 서로 이어지다 잘못되어 만주(滿洲)가 되었다. 실제로는 바로 옛 숙신의 음이 변하여 주신이 된 것이니, 강역이 똑같다는 것이 다시 충분히 증명된다. ④ 또 『후한서(後漢書)』 삼한전(三韓傳)에 이르기를 진한인(辰韓人)은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납작하게 하려고 돌로 눌렀다고 하였다. 무릇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어찌 돌로 누른단 말인가. 그 설은 이치에도 크게 어긋난다. 국조(國朝)의 옛 풍속에 아이가 태어나 몇일이 되면 요람(臥具)에 두는 데, 아이를 그 안에 반듯이 눕혀 오래 두면 두개골이 자연히 평평해져 머리 모양이 편편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습속이라 자연스러우며 이상한 것이 없다. 진한 역시 이러한 부류일 것인데, 범울종(范蔚宗)이 그 까닭을 얻지 못해 곡해한 것이 매우 심하다. 그런데 삼한이라 이름을 붙이며 진한, 마한, 변한을 열거하였으나 그 의미는 상세하지 않다. 당시 삼국에는 반드시 세 명의 한(汗)이 있어 각기 그 하나를 통솔하였을 것이다. 사가들이 한이 군장(君長)의 칭호인지 모르고 마침내 음만 같은 것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그리고 변변찮고 속된 자들이 심지어 한(韓)을 족성(族姓)으로 바꾸었으니 일소의 가치도 없다. (내가) 일찍이 「삼한정류(三韓訂謬)」를 지었는데, 애석하게도 아직 사람들에게 모두 읽혀서 다 깨우치게 하지 못하였다. ⑤ 대략 당나라 때에 계림(雞林)이라 부른 것은 응당 지금의 길림(吉林)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신라, 백제 등 여러 나라도 역시 그 부근의 땅이다. 옛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고증하는 능력이 없었고, 명나라 말에 이르러 오만하고 허황된 무리가 자구(字句)를 찾아 따와 방자하게 비방하고 헐뜯었다. 이것은 걸왕(桀王)이 개처럼 짖는 것과 같아서, 용렬함이 비교할 데가 없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이 심한 것은 곧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⑥ 한편, 동이(東夷)라는 것은 땅으로 인해 얻은 이름이다. 예로 맹자(孟子)는 순(舜)임금은 동이 사람이고, 문왕(文王)은 서이(西夷) 사람이라 하였다. 이것은 숨길 수 없고, 또 숨길 필요도 없다. ⑦ 본조를 존숭하는 자들도 비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나라 또는 만주가) 대금(大金)과 함께 동방(東方)에 있으나 같은 부(部)는 아니라고 한다. 곧 소견이 매우 좁은 것이다. 우리 왕조가 얻은 성(姓)은 애신각라씨(愛辛覺羅氏)라고 하는데, 국어(國語)에 금(金)을 애신(愛辛)이라고 하니 가히 금원(金源)과 동파(同派)인 증거이다. ⑧-a 대체로 우리 왕조가 대금 시기에 완안씨(完顔氏)에 복속되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오히려 오늘날에는 완안씨가 모두 우리 왕조에 신복(臣僕)하였다. 온 하늘과 땅을 한 분의 지존이 거느리는 이치가 이와 같다. 비유하면 한당송명(漢唐宋明)이 서로 대를 이었는데, 어찌 모두 승리한 왕조의 신복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조종(祖宗) 때에, 일찍이 명나라의 용호장군(龍虎將軍)의 봉호(封號)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이상한 것이 없다. ⑧-b 우리 왕조가 처음 일어 날 때 명나라가 아직 약해지지 않았지만, 우리와 수호(修好)하고자 하였다. 이 결호(結好)로서 두 나라가 기쁘게 되는 것이니, 우리 왕조는 굳이 방해하지 않고 하늘의 계책을 즐겼다. 우리나라의 명성과 위엄은 나날이 떨쳤으나 명나라는 기강이 나날이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또 저들은 망언과 참언으로 몰래 모략하여 (우리를) 참혹하게 해치려고 하였다. 이에 우리 태조(太祖)가 크게 진노하셔서 칠대한(七大恨)을 하늘에 고하고, 군사를 일으켜 보복하셨다. … ⑧-c 또한 한(漢) 고조(高祖)는 바로 진(秦)의 정장(亭長)이었고, 당(唐) 고조는 바로 수(隋)의 열공(列公)이었으며, 송(宋)은 주(周)의 근신(近臣), 명(明)은 원(元)의 백성이었다. 혹은 빼앗거나 혹은 침략하며 더는 명의(名義)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왕조의 경우 곧 명이 틈적(闖賊, 반란군)에 의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명의 사직이 이미 옮겨진(찬탈) 뒤 오삼계(吳三桂)가 (청의) 왕사(王師, 천자의 군대)를 관(關)으로 들어오도록 맞이하여 그 원수를 갚고 적을 죽였다. 그런 뒤에 우리 세조(世祖) 장황제(章皇帝)가 연경(燕京)을 수도로 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셨으니, 천하를 얻는 데 정정당당함이 우리 본조와 같을 자가 있겠는가. 우리 국가가 하늘의 은혜를 받들어 이어 (시조가) 주과(朱果)로 발상(發祥)하셨으니, 역시 상(商)이 원조(元鳥)로 탄생하고 주(周)가 고매(高禖)로 흔적을 밟은 것과 같아서 천명을 받은 징조로서 기록한다. ⑨ 여하간 여전히 대금 부족과 관계가 있고, 또 천녀(天女)가 목욕한 포륵호리(布勒瑚里) 연못은 곧 장백산에 있다. 원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산과 흑수의 지경 밖에 있지 않다. ⑩ 또 『금사』 세기에 이르길 당나라 때 말갈에 발해왕이 있어 10여 세를 전하고, 문자와 예악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금의 선조로 문자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조의 국서(國書)는 바로 태조 때부터로 액이덕니(額爾德尼)와 파극십(巴克什) 등에게 명하여 글자를 만들어 통행하게 하였다. 혹 금초의 글자가 그 이후 쇠미해지고 흩어져 없어지고 마침내 이를 실전(失傳)하자, 우리 왕조에 이르러 다시 창조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 ⑪ 건주의 연혁과 만주의 시기(始基)를 무릇 고금의 지명이 같음과 다른 점을 아울러 마땅히 자세히 고찰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어 천하 만세에 볼 수 있도록 하라. 대학사(大學士) 아계(阿桂), 우민중(于敏中), 시랑(侍郎) 화곤(和珅), 동고(董誥) 등에게 맡기니, 마음을 다하여 검사하고 확인하여 조를 나누어 편집하여 순서대로 (내게) 올려 보게 하라. 짐이 친히 바로잡아 정리하여 전한 글(傳信)을 밝혀 사용하고 사람들의 의혹을 물리치리라. 아울러 이를 널리 깨우쳐 알게 하라.[7]

A의 건륭제의 유지를 보면, 만주 원류에 대한 기본 생각과 편찬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만주의 원류와 공간적 범주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금 완안부라는 것이다. 건륭제는 상기 유지에서 『금사』 세기를 읽어보니라며 운을 띄운다. 그리고 A-①에서 "금나라의 세조(世祖)는 완안부(完顔部)에 살았다. 그 땅에는 백산(白山)과 흑수(黑水)가 있다. 백산은 즉 장백산(長白山)이고, 흑수는 즉 흑룡강(黑龍江)이다. 본조(本朝, 청나라)가 처음 일어난 동토(東土)는 산천이 뛰어나서 인재를 기르는 것(鍾毓)이 대금(大金)과 똑같다"라고 하였다. A-⑨에서는 "여하간 여전히 대금 부족과 관계가 있고, 또 천녀(天女)가 목욕한 포륵호리(布勒瑚里) 연못은 곧 장백산에 있다. 원래 백산과 흑수의 지경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즉, 만주 원류의 공간인 '동토'는 금의 선조가 살던 완안부의 땅이며 장백산(백두산)과 흑룡강이 있고, 청의 발흥지와 공간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았다. 시조 신화와 관련한 천녀 하강지 역시 그 지경 안에

7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동토의 공간이 확정됨으로써, 만주 원류는 이 공간에서 살던 사람들로 제한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토'의 공간에 살던 만주 원류는 누구인가. A-⑦ "본조를 존숭하는 자들도 비록 (청나라 또는 만주가) 대금(大金)과 함께 동방(東方)에 있으나 같은 부(部)는 아니라고 한다. 곧 소견이 매우 좁은 것이다. 우리 왕조가 얻은 성(姓)은 애신각라씨(愛辛覺羅氏)라고 하는데, 국어(國語)에 금(金)을 애신(愛辛)이라고 하니 가히 금원(金源)과 동파(同派)인 증거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또다시 금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② "역사에 또 이르길 금나라의 선조는 말갈부(靺鞨部)에서 나왔는데, 옛 숙신(肅愼)의 땅이다"라고 하여, 청(만주) 이전을 금으로 연결하고 다시 말갈로 연결하며, 말갈은 다시 옛 숙신과 연결 짓고 있다. 그리고 이어 A-③에서 만주라는 칭호가 숙신이라는 발음이 주신(珠申)을 거쳐 '滿珠'와 '滿洲'로 전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발해와 관련한 설명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인다. 건륭제의 유지에서 발해를 언급한 부분은 A-⑩으로, "또 『금사』 세기에 이르길 당나라 때 말갈에 발해왕이 있어 10여 세를 전하고, 문자와 예악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금의 선조로 문자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조의 국서(國書)는 바로 태조 때부터로 액이덕니(額爾德尼)와 파극십(巴克什) 등에게 명하여 글자를 만들어 통행하게 하였다. 혹 금초의 글자가 그 이후 쇠미해지고 흩어져 없어지고 마침내 이를 실전(失傳)하자, 우리 왕조에 이르러 다시 창조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이다. 발해의 경우 숙신-말갈(발해)-여진(금)-만주(청)로 이어지는 계통상의 선조이기 때문에 중시한다기보다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발해의 문자[8]를 청

8 발해에 고유 문자가 있었는가는 논란이 있다. 발해 유적에서 발견되는 문자 기와에는 일부 독특한 글자가 있지만 대부분 한자의 간체, 약체, 이체이다. 발해가 만든 한자가 있을 수 있으나, 만주 문자와 같은 고유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권은주, 2019, 「발해의 문자와 문자생활」, 『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공저), 동북아역사재단, 171~174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문자 창제와 연결 짓는 데 방점이 있어 보인다.

『만주원류고』의 서술 대상인 만주 원류를 인식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 즉 땅이었다. 그리고 이 땅의 연고가 상고 시기 숙신에서 청대 만주로 이어진다는 설명에 중점을 둔다. 특이점은 만주 원류에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삼한과 계림(신라), 백제 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이다. 유지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문에는 부여, 옥저, 예도 포함되어 있다. 의도적 왜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삼한과 계림(신라), 백제 등을 만주 원류로 언급한 것은 『만주원류고』에서 이들이 만주의 원 공간인 동토(東土), 즉 백산과 흑수 사이에 있었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9] 이것은 만주와 만주의 원류가 단절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백산과 흑수로 상징되는 이 땅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사이에 들어갈 원류들을 의식적으로 소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편찬 의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설명들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 책의 편찬 의도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편찬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만주원류고』는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편찬됨에 따라 한족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 만주족의 시각에서 편집되었고, 주로 영토와 종족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10] 직접적인 편찬 배경에는 만주족의 한화(漢化) 및 구지(舊地)에 남아 있던 만주 팔기의 쇠락,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로 인한 동북방의 위기 등이 주로 거론된다. 건륭제가 청을 건국한 선조들의 역사를 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청조의 통치권에 정통성과 합법성의

9 『만주원류고』 部族 편과 疆域 편에 보이는 한국 고대사 관련 분석은 정호섭, 2018, 「滿洲源流考 部族편의 내용과 성격」, 『선사와 고대』 58; 조영광, 2018, 「滿洲源流考 疆域편에 보이는 한국 고대국가의 영역 고찰」, 『선사와 고대』 58 참조.

10 정호섭, 2018, 위의 글, 9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근거를 부여[11]하여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하였다는 것이다.[12]

---

11 Pamela Kyle Crossley, 1987, "Manzhou Yu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6-4, pp. 779~780; 홍성구, 2018, 「滿洲源流考와 건륭제」, 『선사와 고대』 58, 6~7쪽.

12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필자는 『만주원류고』의 편찬 배경에 조선과의 관계 역시 일정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백두산정계비 건립 및 인삼 채취, 사냥 등을 위한 양국인의 越境 문제와 조선 사신이 연행길에서 고구려, 발해 등 역사 현장을 직접 밟은 경험은 조선에서 역대 북방 강역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여겨진다. 발해사를 아직 우리 역사 체계에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만주원류고』 편찬 시기와 같은 1778년에 편찬된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발해는 우리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부당하지만,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우리 국경과 인접하여 의리가 脣齒의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동국통감』이 갖추어 썼으니, 이제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였다. 『동사강목』은 1756년부터 저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발해사를 독립된 항목으로 저술하며 우리의 역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종휘의 『동사』가 1803년에 출판되었다. 이종휘는 1731년생으로 1797년 사망하였다. 그가 『동사』를 저술한 시기도 『만주원류고』가 조선에 알려질 무렵에 해당한다. 또한 유득공의 『발해고』는 1784년이다. 이들의 저술은 『만주원류고』가 알려지기 전, 또는 알려졌더라도 영향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 작성되었다.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조선의 변화가 일정 『만주원류고』 편찬에 역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시 청나라 지식인을 제외하고, 『만주원류고』를 독해할 수 있는 외국이나 청의 역사 서적에 가장 관심을 가질 대상은 조선이었다는 점도 그러하다. 더욱이 청이 외국인의 도서 구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던 것과 비교해서, 『만주원류고』는 조선에 상당히 빠르게 전해졌다. 『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1785) 4월 19일 무술조를 보면, 사고전서는 이미 조선에 입수되어 그 전해에 사본을 만들었는데, 이때 『만주원류고』의 인쇄가 완료되어 그 존재가 알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검색. "《四庫全書》의 4부를 베끼는 일은 지난해 겨울에 끝마쳐서, 文淵閣·文源閣·文津閣·文溯閣 등의 전각에 갈라서 보관하였는데, 매 부마다 모두 3만 6천 권이나 되며, 그중에서 뛰어난 글을 초출하여 인쇄에 넘겼습니다. 《盛京統志》는 盛京館·崇謨館의 각관에 보관하였으며, 편찬하는 役事에서 《滿洲源流考》·《日下舊聞考》·《契丹國志》·《明唐桂二王本末》·《河源紀略》·《蘭州紀略》 등의 책들은 지금 이미 완성되었고, 《三續通》·《淸朝通典》·《通志》·《通考》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職官表》·《蒙古王公表》·《傳三流道里表》는 이제 방금 역사를 시작하였고, 《大淸一統志》·《通鑑輯覽》은 다시 교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의 생각은 비전공자로서 부족한 식견의 의심이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관련하여 자세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서 『만주원류고』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화(華)와 이(夷)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과거 지배와 복속의 관계를 단순히 민족 또는 문화적인 우열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A-⑧-a의 "대체로 우리 왕조가 대금 시기에 완안씨(完顔氏)에게 복속되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오히려 오늘날에는 완안씨가 모두 우리 왕조에게 신복(臣僕)하였다. 온 하늘과 땅을 한 분의 지존이 거느리는 이치가 이와 같다"라고 한 건륭제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건륭제는 한, 당, 송, 명나라 때에도 승리한 나라의 신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청이 백산, 흑수는 만주의 고유 영토로 이 땅의 주인이면서 나아가 중원을 포함한 천하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건륭제는 또 만주의 선조가 명나라로부터 '용호장군(龍虎將軍)'의 칭호를 받은 것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부연 설명으로 A-⑧-b "우리 왕조가 처음 일어 날 때 명나라가 아직 약해지지 않았지만, 우리와 수호(修好)하고자 하였다. 이 결호(結好)로서 두 나라가 기쁘게 되는 것이니, 우리 왕조는 굳이 방해하지 않고 하늘의 계책을 즐겼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용호장군'에 대한 건륭제의 이해는 한국 학계가 일명 중국의 '동북공정'식 역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할 때 보이는 인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 건륭제는 앞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한 이치라고 보았으면서도, 명나라로부터 '용호장군'을 받았던 양자의 관계를 승국(勝國)과 신복의 관계가 아닌 수호, 결호의 관계라고 하였다. 이런 건륭제의 태도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 학계가 전근대 중국의 경계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민족 또는 국가가 당시 통용되는 외교 형식에 따라 외견상 중국의 '기미(羈縻)'나 '책봉(冊封)'을 받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피지배, 종속 또는 지방정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것과 통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2절의 B-④-f에서 당나라 때 말갈이 '도독'과 '자사'를 제수받은 것이 "허울뿐인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며, "호시의 왕래에 편

검토하도록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13]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수호', '결호'의 관계를 명이 어기고 자신들을 해치려 하여 보복하였고, 명이 반란으로 사직이 망한 뒤에야 오삼계에 의해 만주의 군대가 관으로 들어갔으며, 연경을 도읍으로 삼아 천하를 통일한 것이니 누구보다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A-⑧-c에서 청 시조의 탄생을 상나라와 주나라 시조의 탄생과 같이 상서로우며, 천명(天命)을 받은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앞서 본 A-⑨와 A-⑩ 기사와 이어지며, 자신들이 대금(大金) 부족과 연관이 있고, 시조모인 천녀의 목욕지는 장백산에 있으며 백산과 흑수 지경 안에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발해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은 금의 선조이며 발해의 문자와 청의 문자 창제를 같이 거론한다. 여기서 숙신에서 말갈, 여진, 만주로 이어지는 계통 인식과는 별개로 대금과 발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나라는 만주 원류로 처음 입관(入關)하여 북중국을 지배하였고, 발해와 함께 만주의 공간을 아우르며 국가 제도와 문화를 성숙시켰다. 또한 발해는 만주 원류로 일찍이 자신의 글자를 가져 청의 문자 창제가 처음이 아님을, 즉 문명의 시원이 오래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소환되고 있다.[14]

이상과 같이 만주의 원류가 오래되었고 청 시조가 한족(漢族)의 조상과 비견되는 상서로운 존재이자 천명을 받은 존재이며, 발해 때부터 일찍이 문자를 가진 문명화된 존재이면서, 금대에는 이미 천하의 지존이 되었고 다시 청 만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A-⑪과 같이 "건주의 연혁과 만

13 전자는 만주가 명의 신복이 처음부터 아니어서 천하를 지배하게 된 것이 천명을 어긴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말갈이 발해 이전 통일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맥락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중국의 관호, 책봉호의 수수를 지배-종속 관계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14 Pamela Kyle Crossley는 『만주원류고』의 만주 원류 연구의 핵심은 만주의 국가와 사회가 동북 지역에서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정치 및 문화의 정점이며, 초기 숙신에서 부여, 발해, 금, 여진의 관료 체제 및 전통 유산까지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Pamela Kyle Crossley, 1987, 앞의 글, pp. 766~7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의 시기(始基)를 무릇 고금의 지명이 같음과 다른 점을 아울러 마땅히 자세히 고찰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천하 만세에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고, 자신이 직접 검토하여 "전한 글(傳信)을 밝혀 사용하고 사람들의 의혹을 물리치리라. 아울러 이를 널리 깨우쳐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만주원류고』는 편찬 의도가 분명한 만큼, 저술 지침과 내용도 미리 정해져 있었다. 건륭제가 직접 편찬을 명령했고 감수도 맡았기 때문에 건륭제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책의 편수자들이 건륭제의 인식에서 벗어난 내용을 처음부터 담기 어려웠고, 권수의 7가지 범례 역시 건륭제의 유지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를 포함한 만주 원류와 지리에 대한 고증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책에 드러난 발해 인식이 청대 지식인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 청은 『명사』를 편찬하였는데, 조선의 요청으로 「조선열전」을 이르게 반포하였고, 1739년 5월 주청사 김재로 일행이 돌아올 때 이를 조선에 가지고 왔다.[15] 그런데 『명사』「조선열전」에는 "한(漢)말에 부여 사람 고씨가 그 땅을 차지하여 국호를 고려로 고쳤다. 고구려라고도 하는데, 평양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 곧 낙랑의 땅이었다. 그 뒤 당나라에 격파되어 동쪽으로 옮겨갔다. 후당 때 왕건이 고씨를 대신하여 신라, 백제 땅을 겸병하고 …"[16]라고 하였다. 이 책은 조선의 연원을 기술하며 고조선-고구려-고려-조선의 계승 인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청대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당나라에 격파되어 동쪽으로 옮겨"간 대상이다. 여기에 발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해가 그 대상임은 분명하며, 편찬자가 발해의 건국을

15 노대환, 2018, 「18~19세기 조선의 대청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512~513쪽.

16 "… 漢末, 有扶餘人高氏據其地, 改國號曰高麗, 又曰高句麗, 居平壤, 卽樂浪也. 已爲唐所破, 東徙. 後唐時, 王建代高氏, 兼併新羅·百濟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jo_023r_0010_0010_00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와 연결 지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밖에 필자가 확인한 청대 자료에서 『만주원류고』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료로는 『성경통지』와 『대청일통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건륭제 때 같은 의도로 개정되거나 편찬되었기 때문이다.[17]

Ⅲ. 발해의 계통 인식

1. 만주 원류와 군자국

『만주원류고』는 만주의 역사가 숙신-말갈(발해)-여진(금)-만주(청)로 이어진다는 역사 계승 체계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체계화되어 제시된 책으로 여겨진다.[18] 여기에 부여, 삼한, 신라, 백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방경일은 청 고종(건륭제)의 '동이의식(東夷意識)'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19] 그는 건륭제가 '동이의식'을 통해 만주의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만주 역사의 결핍을 한반도 역사를 통해 보완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20] 그 근거의 하나는 건륭제의 유지 가운데 A-⑥ "동이(東夷)라는 것은 땅으로 인해 얻은 이름이다. 예로 맹자(孟子)는 순(舜)임금은 동이 사람이고, 문왕(文王)은 서이(西夷) 사람이라 하

17 필자가 분석한 청대 사료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 편』 권1(2023,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동북 지역 역사 자료를 모은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중국변강사연구집성 동북사지(東北史志)』 제1부~제5부(2004, 全國圖書館文獻 縮微復制中心)에 수록된 사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18 홍성구, 2018, 앞의 글, 7쪽.

19 方京一, 2005, 「滿洲源流考에 나타난 淸高宗 東夷意識」, 『만주연구』 3, 106쪽.

20 건륭제 또는 『만주원류고』의 만주 원류에 대한 인식을 '동이의식'이라고 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역사의 일부를 빌려 고구려가 중심인 시기에 숙신, 말갈 계통이 백산, 흑수에서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한 공백을 일정 메울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방경일, 2005, 앞의 글, 111쪽; 정호섭, 2018, 앞의 글, 72쪽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 이것은 숨길 수 없고, 또 숨길 필요도 없다"라는 구절이다. 여기서 건륭제가 『맹자』의 동이, 서이 언급을 들어 청조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인데, 이는 홍성구의 지적처럼 동이든 서든 지역에 따른 구분을 부정하는 것이지, '동이의식'을 가지고 통치의 정당성을 찾았다고 보기 힘들다.[21] 더 중요한 것은 건륭제가 자신들이 '동이', 즉 동쪽의 오랑캐로 불리는 그 자체를 긍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만주원류고』에는 부족, 강역, 산천, 국속편 어디에도 만주의 원류 또는 관련 지명에 대해 '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22] 종족(민족) 명칭이 아닌 동쪽에 위치한 자신 또는 지역을 표현할 때, '동토(東土)',[23] '동방(東方)',[24] '대동(大東)'[25]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조선 후기와 근대 우리 역사가들이 '대동(大東)', '동국(東國)', '아동(我東)' 등을 표방한 것과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문명의 중심인 중원과 주변 사방의 비문명 지역을 구분하여, 그 공간과 사람을 나타내던 사이(四夷)라는 일방적 비칭(卑稱)을 부정하고, 방위상의 상대적 표현만 인정하여 독자적인 공간과 민족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 역시 문명화된 존재라는 선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

21 홍성구, 2018, 앞의 글, 10쪽.

22 『만주원류고』는 여러 곳에서 원전 자료의 인용 글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변개하였다. 예로 『通考』의 "北方三十六蕃"에서 "蕃"을 "國"으로, "狗盧國", "狗素國", "狗奚國" 등에서 "狗"를 "勾"로, "東北諸夷"를 "東北諸國"으로 고친 것이다(孫文良, 1987, 앞의 글, 55쪽). 특히 상대를 오랑캐로 표현하거나 낮추어 표현한 글자를 고친 것이 주목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건륭제 또는 『만주원류고』의 편찬자들이 '夷'를 긍정하며 자신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3 예를 들면, "本朝肇興東土"(諭旨), "我國家 朱果發祥 肇基東土"(提要) 등.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5, 19쪽.

24 예를 들면, "至於尊崇本朝者, 謂雖與大金俱在東方"(諭旨), "我國家建邦啓土, 肇迹東方"(凡例) 등.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5, 13쪽.

25 예를 들면, "我國家, 誕膺景命, 肇啓大東"(권1, 부족1), "我國家, 肇造大東"(권8, 강역1) 등.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43, 1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주원류고』의 민족 인식은 '동이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만주원류고』의 만주 원류에 대한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백산, 흑수의 지경 안에 살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숙신 계통을 제외하고도 부여, 삼한과 계림(신라), 백제 등 한민족의 선조로 여겨지는 대상이 함께 포함되고 있어 논란이 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을 백산, 흑수 경내에 있었던 존재로 인식하였고, 만주와 만주의 원류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소환한 결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필자는 숙신 때부터 한족의 생활 문화와는 구분되는 고시(楛矢)로 상징되는 비정주적이며, 상무적인 만주 원류의 풍습을 인정하면서도 동방 문명국의 대표적 표어인 '군자국(君子國)'의 계보가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네 번째 범례를 보면, "역사책에서 동방은 인을 중하게 여기고, 도의가 있으며, 인품이 후하고 소박한 곳이라고 하였다. 옛날의 융성한 때로 거슬러 가서 보면, 우리 왕조가 처음 기초를 닦은 동쪽의 땅은 조상의 덕이 도탑고 큰 것이 이전 왕조보다 뛰어났다. 즉, 제사하는 예법은 빈인(豳人, 주대 농경인)이 돼지를 잡고 바가지로 술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 3대(하상주)의 유풍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한 뒤에 숙신과 삼한 등의 풍습을 이어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 범례를 보면, "신라와 발해에서부터 이미 문자가 시작되어 흥성하였고 금나라 초에 거란 글자를 사용하였으나 태조와 희종이 여진 대소자를 만들었다. … 우리 태조 고황제에 이르러 나라 글자를 만들었으니, 그 뜻이 심오하고 정밀한 것이 으뜸이요, 제작의 극치이다. 삼가 헤아려 그 대략을 들어서 국속 부분의 뒤에 덧붙여, 후세에 믿을 만한 것으로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26]

권1 부족1 모두에는 "태종 문황제께서는 원대한 계획으로 강역을 개척하니, 멀고 가까운 나라가 모두 경복하여 따랐으며, 동북의 여러 부족이 신하가 되었다. 이제 옛적 일을 고찰하여 숙신, 부여, 삼한, 말갈, 백제, 신라, 발해, 여진

26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4~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 여러 나라의 연혁을 밝혀본다. 『회남자』에는 '동방에는 군자국이 많다(東方多君子之國)'라고 하였는데 믿을 만하다"라고 하였다.[27] 그런데 숙신, 말갈, 여진, 만주가 '군자국'이라 불린 적은 없다. 당, 송, 명 등이 신라, 고려, 조선 등을 '군자국'이라 별칭하였는데, 그 기준은 중국과 같이 '거서본일가(車書本一家)'와 '예의지국(禮儀之國)'을 이루었기 때문이다.[28] 『만주원류고』는 만주 원류의 계통적, 공간적 일치성이라는 기준 외에도 만주로 이어져오는 역사에서의 문명적 존재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여, 삼한, 백제, 신라를 만주 원류로 부회하고 발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원래 『회남자』의 "동방에는 군자국이 있다(東方有君子之國)"라는 구절의 '有'자를 『만주원류고』에서는 의도적으로 '多'로 고친 것이다.

나아가 그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 명칭이나 성씨의 음운적 유사성, 비슷한 풍습과 문자 생활의 문명적 우수성 등을 내세운다. 예로 권1 부족1 숙신편에는 건륭제 유지에서 숙신, 여진, 만주의 음운 관계를 논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송(宋) 유충서(劉忠恕)는 금나라의 성씨가 주리진(朱里眞)이라고 하였다. … 아마도 곧 숙신의 음이 조금 변하여 달라진 전음(轉音)일 터인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성씨로 여겼을 것이다. 국초에 구칭 만주(滿珠)에 속한 것을 주신(珠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숙신의 전음인 것을 중국인들이 그 경위를 몰라 결국 하나가 갈려져 둘이 된 것인 양, 혹은 직신(稷愼), 혹은 식신(息愼)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이다"[29]와 권16 국속1에 "삼가 살펴보건대, 숙신씨의 고시와 석노는 주나라 초에 알려졌다는 것이 공자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 뒤의 부여, 읍루, 말갈, 여진의 모든 부는 나라 이름이 비록 다르

27 티엔룽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43쪽.

28 권덕영,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사절」, 『新羅文化』 12; 권덕영, 2011, 「신라 '君子國' 이미지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구도영, 2015, 「조선 전기 朝明외교관계의 함수, '禮儀之國'」, 『대동문화연구』 89; 권은주, 2022, 「8세기 전반 신라의 대외 관계 변화와 '君子國' 전략」, 『신라사학보』 54 등 참조.

29 티엔룽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만, 고시의 이점으로 천하에 위세를 떨치니 아무도 이를 앞설 수 없었다. 타고난 품성이 소박하고 두터우며 습속은 인정이 많고 말 타고 활 쏘는 것 이외에는 탐하는 것이 없었다. … 굳세고 순수한 기운이 이곳에 모여든 까닭에 왕사(王師, 청의 군대)가 무적이라는 명성을 떨친 것이니, 나라가 억만 년 이어질 것이다"[30] 등과 같은 설명이다.

2. 발해의 계통 설계

이 절에서는 『만주원류고』에서 발해의 계통 설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부족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발해에 대한 계통 인식은 만주와 곧바로 연결 짓기보다는 금(여진)과 동조(同祖)인 말갈의 다른 갈래, 즉 속말말갈로 연결하며 만주 원류로 분류하고 있다. 부족편에서 발해 항목 외에 발해를 언급한 부분은 많지 않지만, 다음 사례를 통해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B. 『만주원류고』 권1~2, 부족1~2

① 권1, 부족1, 〈부여〉 "(당) 『통전』 고려는 부여의 땅을 얻어 부여성을 세웠다. 뒤에 발해에 속하게 되었다.【상세한 내용은 후조(後條)】 『통고』 발해는 a 부여의 옛 땅을 부여부로 하였다"[31]

② 권2, 부족2, 〈읍루〉 "(당) 『신당서』 b 발해【상세한 내용은 후조(後條)】는 원래 속말말갈로 성은 대씨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a 읍루의 동모산을 지켰다. 땅은 영주(營州)로부터 곧바로 동쪽으로 이천 리에 있다. 『요사』 「지리지」 대씨는 처음 a 읍루의 동모산을 지켰는데 걸걸중상(乞乞仲象)이라는 자가 있어 요수를 건너가 스스로 굳건히 하였다. 무후(武后)가 진국공(震國公)으

30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371쪽.
31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봉했고, 나중에 스스로 진왕이라 일컬었다. 『오대사』 무후 때 걸걸중상의 아들 조영이 왕위에 올라서 걸사비우의 무리를 합치니 40만 명이었다. a 읍루에 웅거하였다. … (금) 『금사』 「지리지」에 심주(瀋州)는 본래 요나라 정리부로 a 읍루의 옛 땅이다라고 되어 있다. 『요사』 「지리지」를 고찰할 때 심주의 밖에 별도로 정리부가 있었는데, 또한 a 읍루의 땅에 속하였다. 요나라의 정리부는 당나라 때에 발해가 건립하였는데, 금나라에 와서는 이미 폐지되었다"[32]

③ 권2, 부족2 〈물길〉 "(당) 『신당서』 b 발해는 본래 속말부이다. 성은 대씨이다. … (金) 『금사』 세기에 물길은 옛 숙신의 땅이다. 원위 때에 물길 7부가 있었다. 태조가 요나라의 군사를 경계에서 격파하고, 양복(梁福)과 오달라(烏達喇)【예전에 斡答剌로 씀】로 하여금 c 발해인들을 불러서 말하길, 여진과 발해는 본래 같은 집안이다(本同一家)로 모두 물길의 7부이다라고 하였다. … 살펴보건대(按) 물길은 … 당 무덕 이전에는 물길과 말갈이 같이 사용되었으나, 무덕 이후에는 d 흑수부만 홀로 강성하여 16부로 나뉘었으며, 이때부터 말갈로만 불렀다. 속말부는 만세통천 이후 진국으로 개칭하였고, 발해라 칭하기도 하였다. … 지금 e 말갈과 발해는 각기 열전 조항을 갖추었다."[33]

④ 권5, 부족 5 〈말갈〉 "(당) 『태평환우기』 … 불열 등의 부가 당나라 초부터 천보 연간 말에 이르기까지 또한 일찍이 조공하였다. 때로는 발해국을 따라왔다. 군리와 막예 두 부는 이르지 못하였다. … 『통고』 … 불열, 우루, 월희, 철리 등의 부가 있다. 그 땅의 남쪽으로 발해가 있고 동북쪽으로는 바다가 있으며 서쪽에는 실위가 있다. 남북으로 2천 리, 동서로는 천 리이다. 뒤에 발해가 강성하여 모두 정복하여 복속시켰다. … (금) 『금사』 세기에 말갈은 본래 물길로 불렀고, 수나라 때 말갈로 불렀으며, 7부도 같다. 당나라 초에 흑수말갈과 속말말갈이 있었고 나머지 5부는 들리는 바가 없었다. d 속말말갈은 뒤에 발해로 불렸고, 흑수말갈은 숙신의 땅에 살았다. … 그 뒤에 발해가 강성해져 흑수부가 역속

32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56~57쪽.
33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64~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役屬)되니 조공이 마침내 끊겼다. 5대 시기에 거란이 발해 땅을 모두 빼앗자 흑수부는 거란에 부용하였다. … (원) 삼가 살펴보건대(謹按), 말갈은 후위 때에 물길로 불렀으며, 그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남북조이다. … 그(말갈) 7부는 곧 물길의 7부이다. 뒤에 부가 나누어지고 지역이 더욱 넓어져서 수십이 되었다. 가장 강한 것이 d 속말과 흑수이니, 속말부의 대씨가 일어나면서 발해로 개칭하였다【상세한 내용은 후조(後條)】. f 말갈은 후위 이래 읍락에 각기 군장이 있어 통일되지 아니하였다. 말갈이 수나라와 당나라 등 여러 나라와 사신을 보내 서로 소통한 것은 특히 하나의 부와 읍에 불과하였다. 즉, f 당나라 때에 도독과 자사를 제수받은 것은 허울뿐인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한 것이다. 호시의 왕래에 편리를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하나로 통일할 수 없었다."[34]

부족편에서 만주의 원류는 각각 왕조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소개하고 있다. 각 대상이 활동하던 시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기록하고 있어, 이것을 『만주원류고』의 계통 인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계통상의 계승 관계를 보여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부여, 읍루, 물길 편에 발해를 언급한 것은 a에서 알 수 있듯 발해가 차지한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계통의 계승보다는 땅의 영유권이 누구에게 이어졌는가가 중점이 되고 있다. 권3 부족3의 백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옛 영토는 신라와 발해말갈에 의해 나누어졌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b는 발해를 속말말갈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사』를 인용한 ③-c는 금대 여진인이 발해를 숙신-물길-말갈에서 함께 이어지는 동족으로 인식했다는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이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만주원류고』 역시 동일한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c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여진이 발해인을 포섭하기 위해 같은 집안이라고 한 것임이 잘 알

34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05~10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져 있다.[35] 그리고 ③-e에서 알 수 있듯 금대 여진인도 『만주원류고』가 당대부터 발해와 흑수가 구분되어 열전이 따로 편재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의 계통을 같은 만주 원류로 설계하기 위해 발해는 속말말갈로, 여진은 흑수말갈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갈이라는 범칭을 사용하면서, ④-f의 말미에 발해의 정치적 위상과는 맞지 않는 일반적인 말갈 제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발해를 만주 원류로 보기는 했으나 흑수말갈과 같은 선상에서 발해를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해는 건국 전부터 대조영 등 건국집단이 다른 숙신, 말갈 계통과는 달리 고구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건국 자체가 고구려 멸망과 인과 관계를 가진다고 여겨졌다.[36] 정치, 문화적 수준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말갈(또는 흑수말갈)과 발해 열전이 따로 구비되었다.[37] 이 책에서도 발해의 계통 설계를 말갈로 연결 지으려고 했으나, 결국 말갈과 발해 항목을 따로 갖출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발해를 숙신에서 말갈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 금과 연결되는 일원 계통으로 설계하기 위해, 『만주원류고』가 의도적으로 이름 하나를 지웠다는 것이다. 아래 발해 항목의 내용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C. 『만주원류고』 권6, 부족6 〈발해〉

(당) ① 『구당서(舊唐書)』 a 발해말갈(渤海靺鞨) 대조영(大祚榮)은 처음 영주(營州)에 살았다. 만세통천(萬歲通天) 연간에 거란(契丹) 이진충(李盡忠)이 반란하

35 주2) 참조.

36 이 때문에 『구당서』, 『신당서』, 『신오대사』, 『송사』, 『금사』 등 많은 중국 전통 사서에서 발해를 속말말갈 계통으로 보았지만, 고구려 별종이나 고려에 붙은 자로 묘사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권1, 동북아역사재단, 8~9쪽 참조).

37 『구당서』 말갈, 발해말갈, 『신당서』 흑수말갈, 발해, 『구오대사』 발해말갈, 흑수말갈, 『신오대사』 발해, 흑수말갈, 『당회요』 말갈, 발해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 조영과 말갈 걸사비우(乞四比羽)가 각기 동쪽으로 달아나 험지로서 스스로 굳건히 지켰다. 진충이 죽자 측천(則天)이 우옥검위대장군(右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그 여당(餘黨)을 치도록 하였다. 먼저 걸사비우를 격파하여 베고, 다시 천문령(天門嶺)을 넘어 조영을 바짝 뒤쫓았다. 조영이 고려와 말갈 무리를 합쳐 해고를 막았다. 왕사(王師)가 크게 패하고, 해고가 몸만 빼내어 돌아왔다. 거란과 해(奚)가 모두 돌궐(突厥)에 항복하므로 도로가 막혀서 측천이 토벌할 수 없게 되었다. 조영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루(桂婁)【신당서(新唐書)에는 읍루(挹婁)라고 썼다.】의 고지(故地)를 차지하고 동모산(東牟山)에 웅거하며 성을 쌓고 그곳에 살았다. 조영이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용병(用兵)을 잘하니, 말갈의 무리와 고려의 남은 무리(高麗餘燼)가 점차 모여들었다.[38]

② 『신당서(新唐書)』 a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로 성은 대씨(大氏)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읍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땅은 영주(營州)에서 곧바로 동쪽으로 2천 리(里)이며, 남쪽은 신라와 맞닿아 니하(泥河)로 경계를 삼았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며 성곽을 쌓고 살았다.[39]

③ 『오대사(五代史)』 a 발해의 본래 호칭은 말갈이다. 당 고종(高宗)이 고려를 멸하고 그 사람들을 옮겨 중국(中國)에 흩어져 살게 하고,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평양(平壤)에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였다. 무후 때에 거란이 북변(北邊)을 공격하니, b 고려 별종인 대걸걸중상(高麗別種大乞乞仲象)과 말갈장(靺鞨長) 걸사비우가 요동(遼東)으로 달아나 고려의 고지를 나누어 왕이 되었다. 무후가 장군을 보내 걸사비우를 공격하여 죽였는데, 걸걸중상 역시 병들어 죽었다. 중상의 아들 조영이 즉위하여 비우의 무리를 아우르니 그 무리가 40만 명이었다. 읍루에 웅거하였고, 당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중종 때에 이르러 홀한주도독(忽汗州都督)으로 삼고, 발해군왕(渤海郡王)에 책봉하니 그 후세에 마침내 발해라고

38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109쪽.
39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불렀다.[40]

(금)④ 『금사(金史)』 속말말갈은 처음 고려에 붙었는데, 성은 대씨이다. 이적이 고려를 격파하자 속말말갈이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뒤에 발해가 되었다.[41]

『만주원류고』에 인용된 사료의 내용은 대개 몇 자를 삭제하거나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일부 문장에서는 의도적 삭제로 인해, 편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유도한다. 발해 항목에서도 의도적 삭제가 확인되는데, 발해의 계통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절에서 고구려와 관계된 구절을 삭제한 것이다. C-①, ②, ③의 a 밑줄 부분은 원전에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영이 가속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가 살았다(本高麗別種也. 高麗旣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 "본래 속말말갈로 고려에 붙은 자이며, 성은 대씨이다(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 "본래 말갈이라 부르며 고려의 별종이다(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로 나온다. 『만주원류고』는 발해의 계통을 소개하는 첫 문장에서 '高麗別種', '附高麗者' 등을 삭제하여, 독자가 발해의 계통을 고구려와 상관없는 말갈 또는 속말말갈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만주원류고』에서는 고구려를 만주 원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구려를 만주 원류와 공간에서 배제한 원인에는 청대 지식인에게 고조선-고구려-고려-조선으로 계승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42] 현존하는 조선을 청의 신복으로 규정하려고 한 청

40 티엔룽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14쪽.

41 티엔룽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20쪽.

42 앞서 살펴본 『명사』「조선열전」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청은 외교 문서에서 고구려를 조선의 별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로 1645년(청 순치 2년, 인조 23년) 2월 18일에 조선에서 받은 청 황제의 조서에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 청 태종)의 공덕을 "중원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대를 이어 흠문의 책략을 빛내셨다. 그래서 동쪽으로 고구려에 이르렀고, 서쪽으로 구자에까지 은택을 베푸셨다"라고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sillok.history.go.kr/id/kpa_12302018_0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입장에서, 조선의 원류인 고구려를 만주 원류를 주체로 한 『만주원류고』에서 그 관계를 사실대로 서술하는 것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건륭제의 유지에서 알 수 있듯 만주를 비롯해 그 원류들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였음을 강조하려는 편찬 의도에는 고구려의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 고구려가 만주 지역에 오랜 기간 강자로 숙신, 읍루, 물길, 말갈과의 관계를 주도해갔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43] 같은 맥락에서 '고려별종'과 같은 발해와 고구려의 관계를 그대로 적시할 경우 발해의 성격은 숙신에서 만주로 단일하게 이어지는 계통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상기의 구절들을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 역사서술에서 고구려가 만주의 원류와 공간에서 배제되자 빈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서서 살펴본 대로 '군자국'으로 내세울 대상에 대한 고민이 결합되어 삼한, 신라, 백제 등을 그 역사에 부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구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해서 C-③-b의 "고려 별종인 대걸걸중상(高麗別種大乞乞仲象)"과, C-④의 "처음 고려에 붙은(始附高麗)" 등과 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C-①~④ 모두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의 멸망과 인과관계로 서술하거나, 그 구성을 고구려와 말갈로, 활동 공간은 고구려의 옛 땅으로 서술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C-④의 원전이 『금사』 고려전이라는 것이다. 원전에는 "당나라 초엽에는 말갈에 속말 흑수 두 부가 있었는데, 대개 고려에 신속하였다. 당이 고려를 멸하자 속말이 동모산을 차지하고 점차 강역이 커져 발해라고 불

43 홍이섭은 부여, 삼한, 백제, 신라, 발해 등을 『만주원류고』가 포함시킨 것에 대해, 청이 만주 지역의 역사적 사실들을 청의 前史로 배치하여 역사적 시간이 장구함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국사의 始原-古代部門에서 발해까지를 여진-「금사」의 머리에 接頭하였으며, 유독 고구려를 배제하고 그 위치에 말갈을 내세워 말갈을 지배한 고구려를, 즉 만주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精的이었던 그 민족국가를 역사상에서 말살함은 그 지역의 주인을 후대적인 청이 자의로 처리하고 있는 의도에 앞서 이미 역사적 인식의 체계를 청 중심으로 왜곡하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洪以燮, 1966, 앞의 글, 2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렀다. 성은 대씨이며 문물예악이 있었다. 당말에 이르러 점차 쇠약해져서 그 이후 다시 들리는 바가 없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벌하자 발해가 와서 귀부하였는데, 대개 그 후예이다(唐初, 靺鞨有粟末·黑水兩部, 皆臣屬于高麗. 唐滅高麗, 粟末保東牟山漸彊大, 號渤海. 姓大氏, 有文物禮樂. 至唐末稍衰, 自後不復有聞. 金伐遼, 渤海來歸, 蓋其遺裔也.)."라고 나온다.[44] 금대와 송대에는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후예를 표방한 고려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금사』 고려전과 『선화봉사고려도경』 건국편 등에서 고려에 대해 기술하는 초두에 고구려와 관련한 내용과 발해 건국을 함께 기술하며 '고구려-발해-고려'를 연결하는 인식을 보였다.[45] 따라서 『만주원류고』가 '고구려'를 의도적으로 발해와의 관계에서 삭제하려 하였지만, 인용 원전 자체가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어 발해와 고구려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C-④에서 '흑수'를 삭제하여, 여진-만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흑수가 고구려에 '신속'되었던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만주원류고』가 발해와 고구려의 관계를 숨기며 말갈 계통을 강조하였다면, 발해 이후의 계통 즉 여진 완안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권7 부족7 〈완안(完顔)〉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해와의 계승 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대) 시기에 『금사』 세기를 인용하며, 금의 선조는 말갈씨에서 나왔고 옛 숙신의 땅이라고만 하였다. 그리고 금나라 시조 함보의 고려 출자설과 신라 출자설 중 신라에서 온 것으로 정리하였지만, 금과 발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46] 계통 인식과 관

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jo_020_0010_0010_0010

45 이 사료의 기록자가 고려와 고구려를 혼동한 결과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 혼동 역시 양자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역사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3, 앞의 책, 10쪽).

46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1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련하여 딱 한 곳에서 확인되는 데, 『대금국지』를 인용하여 "금나라의 본명은 주리진(珠里眞)이고 그 뒤에 잘못 전해져 여진(女眞) 또는 려진(慮眞)으로 불렸다. 숙신씨의 후예로 발해의 별족(別族)이다. 여진은 말갈의 후예이다"[47]라고 하였다. '발해의 별족'이라고만 하여 발해와 여진 또는 금과의 관계를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건륭제의 유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발해와 만주는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여진이 교량 역할을 한다. 금의 선조이기 때문에 발해는 만주의 선조로 만주 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기획은 부족편에 수록된 발해와 금 완안씨편을 보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Ⅳ. 발해의 강역 인식

『만주원류고』에서 부여, 삼한, 신라, 백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구려가 빠진 공백에 '군자국', 즉 문명적 존재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발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만주원류고』는 발해 문자와 뛰어난 문화 풍습에 관심을 가진다.[48] 그런데 여기서 기본 전제는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그 지경이 백산, 흑수라는 지리적 공간 범주 안에 포함된 존재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로 권2, 부족2 〈삼한〉에서 "그 방향과 위치에 따르면, 대략 지금의 봉천(奉天) 동북쪽 길림(吉林) 일대, 조선과 접한 땅으로 우리 국조(國朝)가 처음 터를 잡았던 지역과 서로 가깝다"[49]라고 한 것이나, 건륭제 유지 A-⑤에 "당나라 때 계림으로 불린 것은 응당 즉 지금의 길림의 잘못이다. 그리고 신라, 백제, 제국(諸國)도 역시 대개 그 부근의 땅이다"라고 한 것에서 땅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

47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26쪽.

48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 문자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은 별고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49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주원류고』의 계통에 대한 관심은 백산, 흑수의 공간이 끊이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숙신으로부터 이어져오는 만주의 원류들에 의해 계속 소유되고, 통합되어 한족으로 대변되는 중원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데에 있다. 만주 원류에 의해 백산, 흑수에서 이어져온 역사가 최종 만주로 수렴하게 되었고, 천명을 받아 중원[50]까지 아우르는 천하의 제왕이 된 과정을 설득하는 장편 서사이다. 이런 맥락에서 발해는 백산, 흑수의 지리적 공간 범주 안에 있었고, 그 공간 대부분을 아울렀던 첫 번째 독립 왕조이기 때문에, 『만주원류고』는 발해의 강역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독립된 발해 항목에서 그 강역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첫째는 부족편에 수록된 〈발해〉 항목이고, 둘째는 강역편에 수록된 〈발해〉이다. 전자는 『신당서』 발해 열전에 수록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제하였는데, 상세한 사항은 강역편에서 살펴본다고 부언하였다. 단, 장령부에만 '안(案)'설을 달았다. 강역편의 장령부 '안'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①과 ②를 비교하면 ②가 장령부에 대해 백산인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흑수인 혼동강으로 수렴되는 그 사이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즉, 강역편에서 백산, 흑수의 지경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51]

E. 『만주원류고』 권6, 부족6 〈발해〉 / 권10, 강역3 〈발해〉

① 장령부【살펴보니, 『요사』에서 장령(長嶺)으로 썼으며, 옛 글자가 서로 통한다. 고찰해보니 지금의 길림오라성 서남쪽 5백 리에 있는 산 이름이 장령자(長嶺子)로, 만주어는 과륵민주돈(果勒敏珠敦)이라 한다. 남쪽으로 납로와집(納嚕窩集)과 접하고, 북쪽은 고열눌와집(庫呼訥窩集)과 접한다. 장백산 남쪽에서

50 『만주원류고』에서는 '동토', '대동'에 대비하여 '中土' 등을 사용하였다. 사례: 사료 G-②, ⑥.

51 권15, 산천 2, 〈혼동강〉에서 혼동강을 송말수(송화강, 송와강), 압자하, 흑룡강 등으로 언급한 사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흑수가 장백산에서 발원하는데, 송화강, 혼동강, 압자하가 모두 하나의 강이라고 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나의 산맥이 빙 둘러싸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져서 끊이지 않고 뭇 강이 갈라지는 곳이 되었다. 발해의 부(府) 이름은 당연히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는 하(瑕)와 하(河) 2주를 거느렸다.[52]

② (장령부) 【살펴보니, 장령(長嶺)은 장령(長領)으로도 쓰며 예전에는 글자가 서로 통하였다. 지금의 길림 서남 5백 리에 장령자가 있으며 만주어로 과륵민주돈이라고 한다. 남쪽으로 납로와집에 닿고 북쪽으로 고열눌와집에 닿는다. 장백산 남쪽에서 하나의 령이 빙둘러 감싸고 여기에 이르러 여러 강물이 갈라져서 흘러가는 곳이 되었다. 동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요, 길, 선, 휘발 등이 강이 되어 혼동강으로 들어간다. 서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영아, 점니, 합달, 엽혁, 혁이소 등의 강이 되었다. 장령부의 이름은 당연히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금주와 복주에도 또한 장령이 있으나 모두 이곳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53]

강역편에서는 숙신, 부여, 읍루, 삼한, 옥저, 예, 물길, 백제, 신라, 말갈, 흑수, 철리, 월희 등의 강역 정보를 강역 1, 2에 묶어 편성하였다. 반면 발해는 강역 3에 단독으로 편성하였고, 분량도 상당하다. 이것은 건륭제와 『만주원류고』 편찬자들의 발해 강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54] 그런데 강역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치의 비정보다는 강역 인식 내지 서술 의도이다. 하나는 부족편 〈발해〉 마지막 안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발해가 말갈의 하나인 속말부이며, 신라, 백제, 말갈 제부와 땅을 접했다든지, 그들의 땅을 아울러 강역을 편제한 사실이 강역편의 〈발해〉 항목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관련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땅은 숙신의 옛 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만주 원류가 숙신부터 끊임없이 백산, 흑수의 지경을 소유하고 있

52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111쪽.

53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93쪽.

54 발해 강역 비정에 대해서는 조영광, 2018, 앞의 글; 김진광, 2018, 「滿洲源流考의 전거자료와 발해 강역에 대한 서술태도」, 『선사와 고대』 58 등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발해가 요나라에 의해 멸망했지만, 요가 발해를 완전히 병합하지 못하여 흑수말갈에서 이어지는 생여진과 같은 독자적인 세력이 남아서 이들을 주축으로 금이 백산, 흑수의 지경을 다시 아우르는 서사를 그려내고 있다. 더불어 요나라 때에도 흥경, 길림 등지에 설치한 주부(州府) 등의 이름이 발해에서 유래하였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강역 편은 부족편보다 발해를 포함하여 만주 원류의 일원적 계통에 대한 주장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는 다음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F. 『만주원류고』 권8, 강역1

① "숙신 이후의 옛 성과 치소, 발해, 금, 원나라가 세운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연혁을 살펴볼 수 있다. … 흥경과 길림 등 흑룡강장군 관할 지역에 있던 것을 앞에 두었다."[55]

② (흥경) "삼가 살펴보건대(謹按), 흥경은 주 이전에는 숙신씨였고, 한과 진 때에 읍루가 되었으며, 남북조와 수 때에 말갈이 되었고, 당나라 때에 발해의 정리부였다. 요금원 때에 심양 지역이다. … 실로 우리 왕조가 처음 일어난 빈기(邠岐)의 옛 땅이다."[56]

③ (길림) "삼가 살펴보건대, 길림은 주 이전에는 숙신의 땅이었고, 한 이후에는 읍루와 말갈에 속했다. 당 초에는 신라의 계림주가 되고 곧 발해에 속하였다. … . 영고탑은 곧 발해의 홀한주로 뒤에 상경 용천부로 불렀다."[57]

④ (흑룡강) "삼가 살펴보니, 흑룡강은 길림의 동북쪽에 있으며 동서 3천리, 남북 4천리이다. 후위 때에는 흑수부로 부르고 물길에 속하였다. 당나라 때에는 흑수말갈로 불렸고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부로 나뉘었다. … " (숙신 사지(四至)) "『구당서』 발해는 옛 숙신 땅을 상경으로 삼고 용천부라고 하였다."[58]

---

55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앞의 책, 141쪽.
56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42쪽.
57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⑤ (숙신성 숙신현) "『요사』 동경로 요양부 숙신현은 발해의 호민으로써 설치하였다. 황룡부 황룡현은 본래 발해의 장평현이다. … 『당서』를 고찰해보건대, 발해는 처음 홀한주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홀한하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금의 호이합하가 그것이다. … 상경은 옛 숙신의 땅, 곧 숙신 고성으로 실제로 상경에 있었고 지금의 영고탑 지역이다. 요나라 때 황룡부는 옛 숙신의 현들이 황룡부에 편입되었기에 현들은 당연히 발해 현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요양부의 숙신현은 곧 요나라가 설치한 것으로 비록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데 그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 옛 숙신의 땅이라는 것이다."[59]

⑥ (부여성 부여부) "『통전』 부여는 … 고려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여성을 설치하였다. 당 건봉 2년에 설인귀가 금산에서 고려를 무찌르고 나아가 부여성을 무너트렸다. 뒤에 발해에 속하였다. … 『통고』 부여의 옛 땅은 발해에서 부여부가 되었으며, 항상 강한 군사를 주둔시켜 거란에 대비하였다. … 『통고』 요 태조가 발해의 부여성을 쳐서 깨뜨리고 동단부로 삼았다. 『요사지리지』 통주 안원군은 본래 부여국 왕성이다. 발해 때에는 부여성이라 불렀다. 통원현은 원래 발해의 부여현이다. … 『요사지리지』 용주 황룡부는 본래 발해의 부여부이다. … 『금사지리지』 … 삼가 살펴보건대, 부여는 … 고구려에 의해 나누어 점거되었고, 당이 고려를 멸망시키자 발해로 편입되었다. 요나라가 발해를 아우르고 동경으로 삼았으니, 용주, 동주, 기주, 숙주 등이 모두 그 옛 지역이다."[60]

⑦ (읍루고지 읍루현) "『통고』 옛 읍루의 땅이 발해에서 정리부가 되어 정주와 심주 2주를 거느렸다. 『요사지리지』 심주 소덕군은 본래 옛 읍루의 땅이다. 발해 때 심주를 두었다. 쌍주 보안군은 본래 옛 읍루의 땅이다. 발해에서 안정군을 두었다. 정리부에 자사를 두었으며, 옛 읍루국의 땅이다. … 삼가 살펴보건대, 읍루의 강역은 숙신과 똑같다. … 『요사』에서 말하길, 황룡부는 본래 발해의 부

58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54~155쪽.
59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55~156쪽.
60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56~1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다. 부여부에 속한 것으로 숙신현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처음에 숙신에 속하였다가 이어 부여에 속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 사서에 기록되어 전하는 그 옛 지역으로 발해의 정리부 안정군과 요와 금대의 심주, 쌍주, 흥주가 모두 그 일부분이다. … 태조 고황제께서 신유년(1621) 명을 칠 때에 의로성(懿路城)의 항복을 받았으니, 바로 이곳으로 대체로 글자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신당서』와 『요사』에서는 발해 대씨가 처음에 읍루의 동모산에 근거하였다고 하였다. 『명일통지』에 이르길, 산이 심양위성 동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삼가 고찰해보니, 지금 승덕현성 동쪽 20리 거리에 잇는 천주산이 곧 동모산이다. 『구당서』에 계루의 동모산으로 기록하였다. 계루는 고려의 부 이름이다. 고려는 5부가 있어 서한 이후 계루부에서 왕을 내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전의 사서에는 그 나누어진 지역을 말하지 않았고, 계루라 칭한 것도 없으니, 의당 『신당서』가 옳다."[61]

G. 『만주원류고』 권9, 강역2

① (물길 7부 고지) "『북사』 속말부는 고려와 닿았다. … 『신당서』 발해는 본래 속말부로서 고려에 부속하였다. … 『통고』 불열의 고지는 발해에서 동평부가 되었으니, 이주, 몽주, 타주, 흑주, 비주 5주를 거느렸다."[62]

② (물길 방국(傍國)) "속말부는 장백산과 가깝고 속말수에서 이름을 얻었으며 지금의 송화강 좌우 땅이다. 백돌은 송화강 북쪽에 있고, 불열은 백돌의 동쪽에 있다. 사서에 이르길 불열의 옛 땅을 발해가 동평부로 삼고, 이주, 몽주, 타주, 흑주, 비주 5부를 거느렸다. 『요사』에는 자몽현으로 불렀다. 불열국에서 동평부를 설치하였으며 주를 나누고 읍을 세운 것이 발해 이전의 일이다. 옛 자몽성은 지금의 요양 동쪽 지경이다. 동평부는 거란의 요주가 되고, 금의 요빈현이 되어 심주에 속했으며, 옛 성이 명의 심양위성 서북쪽 180리 거리에 있다. …

61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58~159쪽.
62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65~1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체로 속말부가 강성해지자 여러 부가 모두 복속하였으며, 이때에 중토(中土)에서는 단지 발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부는 고찰할 수 없게 되었다. 동평부와 요주는 뒤에 발해와 거란 강역조에서 자세히 다룬다."[63]

③ (백제 여러 성) "『당서』에는 또 뒤에 신라와 발해말갈에 의해 나누어져서 백제가 드디어 멸망하였다고 하였다."[64]

④ (신라 9주) "『신당서』에 신라가 백제의 땅을 많이 빼앗아 고려 남쪽 지경에 닿았다. 상, 양, 강, 웅, 전, 무, 한, 삭, 명 등 9주를 두었다. … 【살펴보건대, 당시 고려의 북쪽 지경은 이미 발해에 속하였고, 신라도 이미 백제의 땅을 차지하고 또 고려의 남쪽 지경을 차지하였다. 백제 땅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고려의 남쪽에 닿게 된 것이 아니다. 상주와 전주는 요나라, 금나라에도 있었고, 또 조선에도 있다. 『요사 지리지』에 상주는 동경로에 속하며 본래 한나라 양평현의 땅이다. 발해에서는 동평채가 되었다고 하였다.】"[65]

⑤ (말갈) "『신당서』에 … 또 불열【앞에 물길조에 보임】, 오루, 월희, 철리부 등이 있다. 그곳은 남쪽으로 발해와 떨어져 있고, … 『당회요』에는 말갈에 수십 부가 있으며, … 흑수의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의 덕리부와 닿았다."[66]

⑥ (철리, 월희 고지) "『통고』 발해는 옛 철리의 땅에 철리부를 두고, 광, 분, 포, 해, 의, 귀주 등 6주를 관할하게 하였다. 옛 월희의 땅에는 회원부를 두었다. … 『요사 지리지』 은주 신흥현은 본래 옛 월희국성이다.【살펴보건대, 요나라의 은주는 본래 발해 회원부 소속의 부주이다. 신흥현 지역에서 발해가 일찍이 은주를 설치하였으며, 요나라가 그 이름을 옮긴 것이다. 신흥현은 금나라의 함평부에 속하였다. …】 … 삼가 살펴보건대, 말갈은 곧 물길로서 예전에는 7부에 속하였고, 불열과 백산부 등과 함께 앞의 물길조에 이미 실었다. 속말은 뒤에 발

63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67쪽.
64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71쪽.
65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73쪽.
66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74~1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로 불렀다.【상세한 내용은 후조에】 흑수부는 다시 16개로 나누어졌다. 사서에 전하는 것을 고찰해볼 때, 사모, 군리, 굴설, 막예개, 오루는 모두 흑수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중토(中土)와는 서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 『당회요』에는 또 북쪽은 소해에 닿고 동쪽은 대해에 닿는다고 하였다. 발해가 강성할 때에 흑수 또한 그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발해 군현을 고찰해보면 실제 일찍이 혼동강 이북을 지나지 못하였다. 철리와 월희 두 부의 옛 지역에 발해가 일찍이 군현을 두었다. … 금나라가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금나라에 복속하였다."[67]

『만주원류고』는 백산, 흑수의 땅을 지경으로 한,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공간을 범주로 한다. 그런데 위 사료의 F-①을 보면 모든 지역이 같은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 부족편이 〈만주〉를 벼리로 두고 첫 항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강역편의 벼리는 〈흥경〉과 〈길림〉이었다. 발해 강역에 대한 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요사』 지리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여 발해 중심지가 대부분 요심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그려진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F-②~⑦, G-①~⑥을 보면 반복적으로 숙신으로부터 이어져왔던 땅에 발해의 부주현이 설치된 연혁을 설명하고 있고, 말갈 제부와 백제, 신라 등과의 접경 위치나 발해로의 편입을 설명한다. 특히 F-②는 청 왕조가 '처음 일어난 땅'임을, F-⑤는 중요한 것은 '모두 옛 숙신의 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G-②에서는 다른 말갈 부들이 발해에 복속됨으로 중토(中土)에서 발해만 알게 되어 다른 부들을 고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G-⑥에서는 이들 지역이 결국 발해를 거쳐 금에 복속된 사실을 드러내며, 부족편에서 미완성되었던 숙신-말갈-발해-금으로 이어지는 계통론이 보완되었다. 따라서 『만주원류고』가 발해의 강역을 자세히 다룬 것은 발해 전후 막연했던 말갈 제부의 경계를 발해라는 매개를 통해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백산, 흑수의 땅이 만주 원류에게 계승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숙신 이래 자신들에게

67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76~1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강역의 연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 독자는 숙신에서 발해로 그리고 금을 지나 만주로 수렴하는 계통론을 부족편보다 강역편에서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부족편 〈발해〉 항목에서 고구려를 지웠듯, 강역편에서도 그런 작업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강역3 〈발해 국경〉 모두에 "『신당서』에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로서 읍루의 동모산을 지켰다.【살펴보건대, 동모산은 사서의 지리지에서 모두 심양성의 동쪽 20리에 있는 지금의 천주산이라고 말한다. 『구당서』에는 계루라고 하여 이와 다르다.】"[68]라고 하였다. 발해의 건국지를 '읍루'의 동모산이라 한 『신당서』만 제시하고, 안설에서 『구당서』에 '계루'라고 한 것을 간단하게 기술했을 뿐이다. 그런데 강역1의 F-⑦에서는 『신당서』와 『요사』에서 발해 대씨가 처음에 '읍루'의 동모산에 근거하였다고 하고, 안설로 동모산이 천주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발해 건국지에 대해 "『구당서』에 계루의 동모산으로 기록하였다. 계루는 고구려의 부 이름이다. 고구려는 5부가 있어 서한 이후 계루부에서 왕을 내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전의 사서에는 그 나누어진 지역을 말하지 않았고, 계루라 칭한 것도 없으니, 의당 『신당서』가 옳다"고 하여, 계루설을 부정하였다.

위와 같이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의 강역 인식은 백산, 흑수의 지경을 숙신 이후 최종 만주까지 이어지는 연속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계통 인식이 구체화되었다.[69] 또한 이러한 설명을 위해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최소화하여 단일 계통론을 정립해나갔다. 이런 점

68 티엔롱장청문화예술공사(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편, 2004, 위의 책, 181쪽.

69 김진광은 『만주원류고』 강역편의 특징에 대해 부족편의 연속선상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각 종족의 활동 무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었고, 종족의 역사적 실체 변화에 따른 강역 범위의 변화, 행정 구역의 치폐에 대한 계기적 이해는 곧 만주족 계통론적 인식의 기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강역'은 곧 '부족의 근거라고 하였다(김진광, 2018, 앞의 글, 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홍성구는 『만주원류고』에 대해 "『만주원류고』는 건륭제의 거대한 '만주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만주)을 역사적으로 만주인이 살아온 공간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활동한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역사를 모두 만주인의 역사로 만들어,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인하는 건륭제판 '동북공정'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70]

사실 『만주원류고』가 기획한 숙신-말갈(발해)-여진(금)-만주(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인식은 부족편에서 살펴보았듯 그 자체에서는 철저하지 못하였다. 『만주원류고』에서 보이는 발해를 포함한 계통인식이 청대 보편적 사고도 아니었고, 이 책이 나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청말의 대외 위기 특히 동북의 위기는 청 중앙이나 만주인이 아니더라도 『만주원류고』와 같은 역사 인식을 소환하게 된다. 복주(福州) 출신인 임수도(林壽圖)의 『계동록(啓東錄)』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 책은 『만주원류고』와 같이 만주만 빼고,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완안, 건주의 건치 연혁, 풍속 등을 소개하고 있다.[71] 또한 민국시기 대표적인 발해 3서라고 할 수 있는 『발해국지』, 『발해국기』, 『발해국지장편』에서 숙신-발해-청의 역사 계보를 설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72]

V. 맺음말

이상 『만주원류고』의 만주 원류의 기준과 편찬 의도, 발해 계통 및 강역 인식에

70 홍성구, 2018, 앞의 글, 25~26쪽.

71 楊潤生, 2023, 「林壽圖《啓東錄》研究與校注」,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58~65쪽 참조.

72 청말~민국 시기 중국의 발해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김종복, 2018, 「중국 근대의 발해사 인식 -민국시대의 渤海三書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해 살펴보았다. 『만주원류고』는 건륭제가 청을 건국한 선조들의 역사를 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청조의 통치권에 정통성과 합법성의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 드러난 만주 원류 인식, 특히 발해 인식은 청대 만주 지식인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만주원류고』 이전 청대의 만주 원류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막연하였다. 청과 금이 같은 계통인가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해를 적극적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륭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청나라를 존숭하는 자들도 대금(大金)과 같은 부(部)는 아니라고 하는 데, 이것이 매우 좁은 소견이라고 비판하였고(A-⑦), 이런 만주 원류에 대한 의혹을 물리쳐 깨우치기 위해(A-⑪) 이 책을 기획한 것이다.

『만주원류고』는 동토인 백산, 흑수의 공간이 숙신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선조인 만주의 원류들에 의해 점유되고 발전되어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만주와 만주 원류들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금과 발해를 주목하였다. 금나라는 만주 원류로 처음 입관하여 북중국을 지배하였고, 발해와 함께 만주의 공간을 아우르며 국가 제도와 문화를 성숙시켰다. 특히 발해는 청의 문자 창제, 즉 문명의 시원이 오래된 근거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발해 전후 불분명한 '동토'의 강역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였다. 이러한 발해-금-청으로의 계통 설계는 청이 단순히 힘으로 중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발해 때부터 일찍이 문자를 가진 문명화된 존재이자, 금대에 이미 천하의 지존이 되었고 두 시기에 체계적으로 강역을 편제하여 지배하였으며, 다시 청 만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발해를 만주 원류의 일원적 계통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선과 계승 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고구려의 존재를 지워야 하였다. 또한 『만주원류고』는 만주 원류들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숙신 때부터 만주에 이르기까지 백산, 흑수의 주인이었다는 서사를 그려내기 위해 고구려의 존재를 부족편과 강역편 등에서 삭제하거나 서술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고구려가 빠지며 생긴 역사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동방의 '군자국'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삼한, 신라, 백제 등을 만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류로 부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원류고』의 숙신-말갈(발해)-여진(금)-만주(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설계 기획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말과 근대 민국시기 대외 위기의 고조 속에서 『만주원류고』의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계통과 지리 인식은 재소환되어, 현재 중국의 발해사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남주성 역주, 2010, 『흠정 만주원류고』 상·하, 글모아출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권1·권2,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권1,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2018,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장진근 역주, 2008, 『만주원류고』, 파워북.

程妮娜 등, 2019, 『金史』,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編, 2004, 中國邊疆史研究集成 『東北史志』 제5부 권1 『欽定滿洲源流考』, 全國圖書館文獻 縮微復制中心.

논문

구도영, 2015, 「조선 전기 朝明외교관계의 함수, '禮儀之國'」, 『대동문화연구』 89.

권덕영, 2005, 「8,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사절」, 『新羅文化』 12.

_____, 2011, 「신라 '君子國' 이미지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권은주, 2008, 「말갈 연구와 유적 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발해의 문자와 문자생활」, 『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공저),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 「8세기 전반 신라의 대외 관계 변화와 '君子國' 전략」, 『신라사학보』 54.

김종복, 2018, 「중국 근대의 발해사 인식 -민국시대의 渤海三書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_____, 2021,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실학연구』 42.
김준영, 2021, 「清代 八旗의 東北 이주와 東北 滿洲人의 多元的 정체성」, 『만주연구』 32.
김진광, 2018, 「滿洲源流考의 전거자료와 발해 강역에 대한 서술태도」, 『선사와 고대』 58.
_____, 2022, 「조선시대 사서에 담긴 발해 지리 인식의 추이 검토」, 『백산학보』 124.
박인호, 1998, 「明 淸代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對朝鮮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지리 연구의 추이와 관련하여-」, 『경북사학』 21.
_____, 2002, 「『발해고』에 나타난 유득공의 역사지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6.
박정민, 2015,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박찬흥, 2018, 「滿洲源流考 山川편에 대한 고찰」, 『선사와 고대』 58.
方京一, 2005, 「滿洲源流考에 나타난 淸高宗 東夷意識」, 『만주연구』 3.
서정흠, 2005,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만주연구』 3.
우경섭, 1997, 「17세기 전반 滿洲로 歸附한 조선인들 -『八旗滿洲氏族通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유지원, 1999, 「청대전기 동북의 邊城 寧古塔 -建置過程 및 주민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10-1.
_____, 2012, 「淸代 吉林烏拉의 형성과 漢人 移住에 따른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37.
_____, 2015, 「淸朝의 東北정책에 따른 吉林烏拉의 위상변화」,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6-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윤영인, 2006,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 연구」, 『만주연구』 5.
李東馥, 1984, 「遼末女眞社會의 構成(Ⅰ): 黑水와 黑水靺鞨」, 『淸州大學校 論文集』 17.
이승수, 2011, 「연행로 중 '遼陽-鞍山-廣寧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韓國漢文學硏究』 47.
_____, 2017, 「吳兆騫과 寧古塔, 그리고 조선」, 『한국언어문화』 62.
李志英, 2005, 「淸 前期 東北지역의 流入인구와 城鎭발달」,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상선, 2014,「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 -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50.
_____, 2023,「17~18세기 조선의 발해사 저술에 인용된 중국 사료」,『역사와교육』37.
정호섭, 2018,「滿洲源流考 部族편의 내용과 성격」,『선사와 고대』58.
조영광, 2018,「滿洲源流考 疆域편에 보이는 한국 고대국가의 영역 고찰」,『선사와 고대』58.
허혜윤, 2017,「이주와 개간- 청대 '京旗屯墾' 정책을 중심으로」,『중앙사론』46.
홍성구, 2018,「滿洲源流考와 건륭제」,『선사와 고대』58.
洪以燮, 1966,「「滿洲源流考」論」,『백산학보』1.

孫文良, 1987,「滿洲源流考辨析」,『社會科學輯刊』1987-3.
孫倩, 2011,「論渤海族的形成-中華民族多元一體理論的個案解析」,『長春師範學院學報』30-5.
_____, 2012,「近年來國內學者關於渤海族問題研究綜述」,『蘭台世界』33.
楊潤生, 2023,「林壽圖〈〈啓東錄〉〉研究與校注」,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吳松林, 2009,「滿洲源流考綜述」,『民營科技』2009-12, 雲南省科學技術宣傳中心.
王禹浪·王俊錚·王天姿, 2021,「滿族及其先民的發展曆程與"中華民族共同體意識"」,『滿族研究』142.

Crossley, Pamela Kyle, 1987, "Manzhou Yu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6-4.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청대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의 계통과 강역 인식

권은주

『만주원류고』는 건륭제가 청을 건국한 선조들의 역사를 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청조의 통치권에 정통성과 합법성의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만주원류고』는 동토인 백산, 흑수의 공간이 숙신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선조인 만주의 원류들에 의해 점유되고 발전되어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만주와 만주 원류들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금과 발해를 주목하였다.

특히 발해는 청의 문자 창제, 즉 문명의 시원이 오래된 근거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발해 전후 불분명한 동토의 강역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였다. 이러한 발해-금-청으로의 계통 설계는 청이 단순히 힘으로 중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발해 때부터 일찍이 문자를 가진 문명화된 존재이자, 금대에 이미 천하의 지존이 되었고 두 시기에 체계적으로 강역을 편제하여 지배했으며, 다시 청 만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발해를 만주 원류의 일원적 계통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선과 계승 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고구려의 존재를 지워야 하였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고구려가 빠지며 생긴 역사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동방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군자국’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삼한, 신라, 백제 등을 만주 원류로 부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주원류고』의 숙신-말갈(발해)-여진(금)-만주(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설계 기획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말과 근대 민국시기 대외 위기의 고조 속에서 『만주원류고』의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계통과 지리 인식은 재소환되어, 현재 중국의 발해사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제어: 발해,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 발해의 계통, 발해의 지리, 청대의 발해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Lineages and the Territory Recognition of the Balhae(渤海) as Seen in *Researches on Manchu Origins*(『滿洲源流考』) in the Qing Dynasty

Gwon Eunjoo

The *Researches on Manchu Origins* was compiled by the Qianlong Emperor to organize and systematize the history of the ancestors who founded the Qing Dynasty, thereby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Manchu and providing a basis for legitimacy and legitimacy for the Qing Dynasty's ruling authority over the world.

The *Researches on Manchu Origins* tried to explain the process by which the frozen Baeksan and Heuksu areas were continuously occupied and developed by the origins of Manchu, their ancestors, after the Suksin period. It focused on Jin and Balhae as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Manchu and the origins of Manchu.

In particular, Balhae is noted a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Qing letters, that is, the origin of civilization. It was also essential to explain the unclear territorial relationship of the eastern part befo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after Balhae. This lineage design of Balhae-Jin-Qing was intended to emphasize that Qing did not simply rule China by force, but was a civilized being with letters from the time of Balhae, had already become the supreme ruler of the world during the Jin Dynasty, and had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ruled the territory during both periods, and then continued with Qing(Manchu).

However, in order to bring Balhae into the unified lineage of the Manchurian origins, the existence of Goguryeo, whose succession relationship with Joseon was recognized, had to be intentionally erased. In order to fill the historical gap created by the artificial exclusion of Goguryeo and to assert that they belonged to the 'gentry nation(君子國)' of the East, the Three Hans, Silla, and Baekje were linked to the origins of Manchu.

However, as examined above, the Origins design plan of the *Researches on Manchu Origins* was not thorough. However, in the midst of the heightening of external crises in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modern Republic of China period, the Origins and geographical awareness of the *Researches on Manchu Origins* regarding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was recalled, and i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current Chinese perception of Balhae history.

Keywords: the Balhae, *Researches on Manchu Origins*(『滿洲源流考』), Lineages of the Balhae, the geographical of the Balhae, the recognition of the Balhae in the Qing Dynas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5

한·중 발해 사료의 유통과 계보

임상선 | 대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중국 측 자료의 발해 건국자·주민과 영역
III. 한국 측 자료의 발해 건국자·주민과 영역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발해사 자료에 대한 정리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사료 정리는 18세기 말 유득공(柳得恭)의 『발해고(渤海考)』, 19세기 초 한치윤(韓致奫)의 『해동역사(海東繹史)』가 있고, 중국에서는 20세기 초 김육불(金毓黻)이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에서 유득공과 한치윤 등의 성과도 참고하며 그때까지의 자료를 집대성하고, 20세기 후반 손옥량(孫玉良)이 고고 자료를 추가하였다.

최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한국과 중국 간에 쟁점이 되면서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발해 사료를 모아 발해사 『연구논저 목록』(2005)과 『발해사 자료집』(상, 하)(2004)를 간행하였다. 다수 인력이 참여한 발해 사료에 대한 검토 작업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역대 중국 정사(正史)에 수록된 발해전(渤海傳)을 원문과 함께 역주를 하였고, 고구려 연구재단의 『발해사 자료집』 상·하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를 전체 번역하고 최근의 연구성과를 주석에 반영하여 『한국사료편』과 『중국사료편』으로 발간하였다.[1]

발해사 자료가 정리되며 개별 사료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국 및 한국 역사 속의 발해 사료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역대 왕조에서의 발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각 왕조의 정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은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장건장의 『발해국기(渤海國記)』의 활용 여부에 의한 차이이다. 『송사(宋史)』·『요

* 투고: 2025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5월 13일, 게재 확정: 2025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15)

1 권은주·강성봉·김진광·임상선,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 동북아역사재단; 권은주·강성봉·김진광·우성민·윤재운,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遼史)』·『금사(金史)』는 원대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중 『송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하여 고려 관련 자료도 참조하였다. 『원사(元史)』에서 고구려의 자손들이라 한 표현은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과 참여 집단이 고구려계 주민이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명사(明史)』의 조선에 대한 연혁도 『원사』와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2]

한국의 발해사 자료 중 『삼국사기』는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 이외에 출전을 밝히지 않은 기록은 대체로 『신당서(新唐書)』와 『구당서(舊唐書)』 발해전과 『책부원구(冊府元龜)』의 기록을 참조하였고,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기이편(紀異篇)에 말갈발해(靺鞨渤海) 조를 설정함으로써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적극 반영하였다.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발해에 대한 기본 인식은 『신당서』 발해전과 『요사』의 내용과 통한다.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는 발해 멸망에 대하여 『요사』가 아닌 새로이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에서 인용하였고, 『동사강목(東史綱目)』은 발해가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순망치한으로 밀접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득공의 『발해고(渤海考)』는 1793년경에 완성된 수정본에서 『요사』의 잘못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지리 비정을 하였다.[3]

이렇게 전근대 시기 중국과 한국의 발해 관련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도 변하는데, 현재 학계에서 관심을 두는 주제는 발해 건국자와 주민, 발해의 영역, 그리고 발해사의 귀속일 것이다.[4] 이 3가지는 오늘날 국가를 이루는 3요

---

2 임상선, 2023c, 「중국 정사(正史)의 발해 기록 검토」, 『역사교육논집』 제84집, 역사교육학회.

3 임상선, 2023b, 「17~18세기 조선의 발해사 저술에 인용된 중국 사료」, 『역사와교육』 37, 역사와교육학회; 임상선, 2023a,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자료에 인용된 중국 사서」, 『동북아역사논총』 81, 동북아역사재단.

4 김은국·윤재운·임상선,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2005, 「중국학계의 발해·고구려 역사연구 비교」,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동북아역사재단. 이효형 외, 2009,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윤재운, 2013, 「중국의 발해사 왜곡논리와 대응방안」, 『한국사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인 국민·영토·주권과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 건국자와 주민은 국민, 영역은 영토, 그리고 발해사의 귀속은 주권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5]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발해사가 양국의 전통시기 사료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 그리고 발해의 영역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 측 자료의 발해 건국자·주민과 영역에 대한 서술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6] 이어서 신라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는 한국 측 자료의

보』 51, 고려사학회; 김은국, 2016, 「최근 10년간 발해사 연구성과와 방향」, 『東北亞歷史論叢』 53, 동북아역사재단; 김진광, 2022b, 「최근(2010~2022) 중국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향 및 쟁점」, 『고구려발해연구』 74, 고구려발해학회.

5 우리나라에서 "國家"는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또한 현재도 중국의 발해사 인식은 '현재의 중국 영토'에 기반한 '영토 계승'에 입각하는 데 비해, 한국은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이를 계승한 왕조로서 발해라는 '역사 계승'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구난희, 2012, 「北方故土意識의 推移에 관한 고찰 Ⅰ -발해멸망~조선후기-」,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6 고미야 히데타카(小宮秀陵), 2018, 「발해의 강역·대외관계 연구동향과 과제」, 『韓國古代史硏究』 89, 한국고대사학회; 구난희, 2012, 위의 글; 권은주, 2009, 「靺鞨 7部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硏究』 35; 권은주·강성봉·김진광·임상선, 2021, 앞의 책;김은국, 2016, 앞의 글; 김종복, 2021,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김종복, 2011a,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韓國古代史硏究』 62, 한국고대사학회; 김종복, 2011b, 「조선후기의 新羅正統論과 渤海史의 인식」, 『사림』 39, 수선사학회; 김종복, 2017,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南北國論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79, 한국사연구회; 김진광, 2019, 「발해사 연구성과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방향 모색」, 『韓國古代史硏究』 95, 한국고대사학회; 김진광, 2020, 「조선시대 발해 지리 인식과 전환 -지리지의 발해 지리 정보 누락 원인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7, 효원사학회; 김진광, 2022a, 「조선시대 사서에 담긴 발해 지리 인식의 추이 검토」, 『白山學報』 124, 백산학회; 박인호, 2002, 「『발해고』에 나타난 유득공의 역사지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제6호, 한국사학사학회; 송기호, 1991,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渤海觀」, 『韓國史硏究』 제72집, 한국사연구회; 李東輝, 2003, 「崔致遠의 北方認識: 渤海觀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65, 백산학회; 이효형, 2018, 「동아시아 境界人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 건국자·주민과 영역에 대한 인식을 검토할 것이다.[7]

Ⅱ. 중국 측 자료의 발해 건국자·주민과 영역

발해 역사에 대한 기본 사료인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전과 말갈전을 비롯한 중국 측 기록에는 발해 건국자와 주민, 그리고 건국지와 영역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자료의 편찬 시기에 따라 검토해보기로 한다.

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임상선, 2023b, 「17~18세기 조선의 발해사 저술에 인용된 중국 사료」, 『역사와교육』 37, 역사와교육학회; 임상선, 2023a,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자료에 인용된 중국 사서」, 『동북아역사논총』 81, 동북아역사재단; 임상선, 2024, 「발해 역사 속의 變革의 순간들」, 『한국고대사탐구』 4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張日圭, 2007, 「최치원의 渤海觀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조범환, 2023, 「崔致遠의 외교문서와 渤海」, 『북악사론』 17, 북악사학회; 조이옥, 2002, 「茶山 丁若鏞의 渤海史認識」, 『東洋古典硏究』 17, 동양고전학회; 한규철, 2007,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大東漢文學』 26, 대동한문학회; 한영우, 1985, 「海東繹史의 硏究」, 『韓國學報』 11-1, 일지사.

7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朝鮮傳을 中心으로-」,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사편찬위원회, 1987~1989,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1-3; 권은주, 2022,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인과 최근 연구 경향-웨이궈중의 『발해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70, 한국고대학회; 권은주·강성봉·김진광·우성민·윤재운, 2023, 앞의 책; 김은국·윤재운·임상선, 2004, 앞의 책; 김정희·송정수·정면·김유철·박지훈·송미령, 2016,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역사공간; 김진광, 2022b, 앞의 글; 박인호, 1998, 「명·청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대조선 역사지리인식」, 『경북사학』 제21권, 경북사학회; 박지훈, 2016, 「『송사』·『요사』·『금사』·『원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역사공간; 송미령, 2016, 「『명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역사공간; 윤재운, 2013, 앞의 글; 이효형 외, 2009, 앞의 책; 임상선, 2023c,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구당서』 발해전[8]에서 발해 건국에 참여한 집단은 고려(고구려)와 말갈이고, 각 집단의 지휘자는 대조영(大祚榮)과 걸사비우(乞四比羽)이다. 고구려와 말갈 집단은 '祚榮與靺鞨乞四比羽', '高麗·靺鞨之眾'이며, 계루고지(桂婁故地)에 있는 동모산(東牟山)에 축성한 뒤에 합류한 무리는 '靺鞨之眾及高麗餘燼'이다. 고구려 무리를 이끈 대조영을 '本高麗別種'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고려별종이 아닌 고구려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발해 건국에 참여한 대조영 무리는 '高麗既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라고 하여 고구려 멸망 후 영주로 이거하였고, 만세통천(萬歲通天) 기간 거란(契丹) 이진충(李盡忠)의 반란을 틈타 영주(營州)를 벗어나 동쪽으로 달아나 자리를 잡았다. 그 후 당의 추격을 물리치고 계루의 고지에 있는 동모산에 축성, 성력 중에 진국(振國)을 건국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구당서』 말갈전[9]에는 '발해말갈(渤海靺鞨)'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고, 고구려 멸망 전에는 고려에 부속하거나 혹은 돌궐에 신속한 무리가 있었다. 전자에 해당되는 말갈이 백산부(白山部)를 비롯하여 골돌(汨咄)·안거골(安居骨)·호실(號室) 등의 부(部)이다. 백산부는 평양이 인수된 이후 부중(部眾)이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골돌·안거골·호실 등의 부도 또한 고구려가 멸망한 후 분산(奔散)되며 미약해졌다. 더러는 남겨진 사람(遺人)과 함께 발해의 편호(編戶)가 되었다는 것이다.

『구당서』의 발해전과 말갈전을 함께 고려한다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의 사례와 같이 중국으로 옮겨진 무리가 백산부일 것이다. 백산부가 옮겨간 곳이 영주(營州)인지는 불명이다. 그리고 발해의 편호가 된 '남겨진 사람'이 고구려 멸망 후 중국으로 천사되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발해전

8 『舊唐書』 권199下, 列傳제149下, 北狄, 渤海.

9 『舊唐書』 권199下, 列傳 제149下, 北狄, 靺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발해 건국에 참여한 '고려지중(高麗之衆)'과 '고려여신(高麗餘燼)'에 해당될 것이다. 발해 건국에 참여한 '말갈지중(靺鞨之衆)'이 말갈전에서의 '골돌·안거골·호실등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당서』 발해전과 말갈전을 이해한다면, 발해 건국에 참여한 말갈은 고구려 시기에 '고려에 붙어 있던' 집단으로 판단된다.

『신당서』 발해전[10]에서 발해 건국에 참여한 집단과 시기에 대한 설명에서 일부 혼란이 있지만, 발해 참여 집단은 크게 고구려 관련 명칭이 있는 부류와 말갈 명칭이 있는 집단으로 나뉜다. 고구려 관련 집단은 '본속말갈, 부고려자, 성대씨(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 사리(舍利) 걸걸중상(乞乞仲象), 고려여종(高麗餘種)은 요수 서쪽에서 동주한 집단이고, 요수 동쪽에서는 고려병(高麗兵), 고려포잔(高麗逋殘)이 참여하였다. 말갈 관련 집단은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려(고구려)에 붙어 있던 자이며 성이 대씨', 사리 걸걸중상, 말갈추(靺鞨酋) 걸사비우가 요수 서쪽에서, 그리고 요수 동쪽에서 말갈병(靺鞨兵), 비우지중(比羽之衆)이 건국에 합류한 부류이다. 대씨 부자는 앞의 고려 혹은 말갈 집단과 달리 '本粟末靺鞨, 附高麗者'이다. 이것은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어 있던 자가 여러 집단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성씨가 대씨라는 의미이다. 또한 속말말갈 중에는 고려에 붙어 있지 않은 자도 있다는 의미도 있다.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려(고구려)에 붙어 있던 자이며 성이 대씨'와 그 사리 걸걸중상은 고구려와 말갈 두 집단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신당서』 발해전은 대씨(大氏)가 무리와 차지하고 축성한 곳인 읍루의 동모산이 영주 동쪽 2천 리라 하였다. 남쪽은 신라, 구체적으로 니하(泥河)가 경계이고, 동쪽은 바다, 서쪽은 거란과 접한다고 하였다. 발해가 건국된 곳을 부연하기를 요수를 건너 태백산(太白山)의 동북이라고 설명한다. 건국 이후 발해 영역은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해북제국을 다 차지하고 지방이 5천 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경 15부 62주를 설명하고 있다.

---

10 『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渤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고 『신당서』의 흑수말갈전(黑水靺鞨傳)[11]은 흑수말갈임에도 서술 내용은 흑수말갈 이외에 말갈 전체를 다루고 있다. 말갈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속말부(粟末部)라 하고, 속말의 동쪽에 백산부(白山部)가 있다고 하였다. 이 백산은 본래 고려(高麗)에 신속(臣屬)하고 있었는데, 당군에 의해 평양(平壤)이 함락되자 그 무리가 대부분 당으로 들어갔고, 골돌·안거골 등도 모두 분산하여 점점 미약해졌다. 유인(遺人)과 함께 발해(渤海)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서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어 있었다고 한 대씨 집단은 말갈전의 속말말갈과는 다른 부류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고려에 붙어 있던 말갈은 백산부와 골돌·안거골 등이었다. 이들이 발해 건국 과정에 참여한 '말갈병(靺鞨兵)'이고, 고구려 유인은 발해전에서 '고려여종', '고려병', '고려포잔'으로 표현된 집단이다. 그리고 불열(拂涅), 철리(鐵利), 월희(越喜), 우루(虞婁) 등의 말갈은 발해 건국 후에 흡수된 말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 기본 사료인 『구당서』 발해전과 『신당서』 발해전은 편찬 시기와 특성에 차이가 있는데, 발해전의 내용도 상이한 점이 있다.[12] 건국자에 대하여 『구당서』가 대조영을 단지 본래 고려별종(高麗別種)이라 한 반면, 『신당서』는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려(고구려)에 붙어 있던 자이며 성이 대씨'인 걸걸중상과 그 아들 조영이라 하고 있다. 동일한 발해 건국자를 『구당서』와 『신당서』가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어 있던 대씨 집단이 고려별종이고, 그중의 대걸걸중상 혹은 그 아들 대조영이 발해 건국자라고 할 수 있다. 『구당서』는 "渤海, 靺鞨", 즉 발해는 말갈인데, 대

11 『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黑水靺鞨.

12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상 차이는 『구당서』가 건국 초기 상황, 『신당서』가 발해 영역이 확대된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쪽), 발해 역대 왕에 대한 서술의 측면에서 『구당서』는 당 측의 자료를 위주로 참조한 것에 비해, 『신당서』는 발해 측의 자료를 참조하였다는 언급(임상선, 2023c, 앞의 글, 263쪽), 혹은 최근 건국지 논란 중에 『구당서』 발해전은 舊國 시기의 발해가 중심이고, 『신당서』 발해전은 上京 시기의 발해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임상선, 2024, 앞의 글, 1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영은 본래 고려별종에 속하니, 대조영은 고려별종인 말갈이다. 『신당서』는 『구당서』에 비해 그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라며, 고려에 붙어 있던 속말말갈 중에서 성이 대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의 건국 핵심 집단 이외에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고구려 계통은 『구당서』 발해전에는 고려지중, 고려여신이 있고, 『신당서』 발해전에는 고려여종, 고려병, 고려포잔이 있다고 하였다. 말갈 계통은 『구당서』 발해전에는 걸사비우의 말갈 집단과 동모산 축성(築城) 전후의 말갈지중이 있고, 『신당서』에는 말갈추 걸사비우, 요수 동쪽에서 말갈병, 비우지중이 있다고 하였다.

발해가 건국된 곳을 『구당서』는 계루고지의 동모산이라 한 반면, 『신당서』는 읍루의 동모산,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다. 발해 영역도 『구당서』는 남쪽은 신라와 접하고 (북쪽은) 월희말갈, 동북은 흑수말갈에 이르며 지방 2천 리라 하였으나, 『신당서』는 남쪽은 신라, 구체적으로 니하가 경계이고, 동쪽은 바다, 서쪽은 거란과 접하고,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해북 제국을 다 차지하고 지방이 5천 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2. 『신오대사(新五代史)』, 『오대회요(五代會要)』

『신오대사』는 『신당서』 편찬에 참여한 구양수(歐陽修)의 저술인데, 발해전[13]에서 "渤海, 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라 하였다. 발해는 본래 말갈이라 불렸으며 고려별종이라 하고, 건국자는 "高麗別種大乞乞仲象"이라 하였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서술을 모두 수용한 형태이다. 결국은 건국자인 걸걸중상이나 그 소속 집단은 발해를 건국할 때는 말갈이라 불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은 말갈이라 하지 않고 고려별종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발해 건

13 『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 제3, 渤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 집단의 이동에 대한 설명은 『오대회요』 발해조[14]와 유사하다. 고려별종대걸걸중상(大乞乞仲象)과 말갈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요동(遼東)으로 달아나 고려고지(高麗故地)에서 분왕(分王)하고, 측천무후가 보낸 장수의 공격을 벗어나 '읍루(挹婁)'를 점거하고 그후 발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발해가 건국된 곳은 요동을 지나 읍루 지역이라 설명하고 있다.

발해 멸망 이후인 오대의 역사를 서술한 『오대회요』[15] 발해조가 발해 건국에 참여한 집단을 "渤海, 靺鞨, 本高麗種"이라 하고, 걸걸중상을 '고려별종'이라 한 것은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의 의미를 모두 취하면서, 한편으로 '속말말갈'이 아닌 '말갈'이라고 하였다. 발해 건국 과정에서의 이동과 장소에 대한 기술도 일부 차이가 있다. 걸걸중상 무리가 영주에서 요동으로 달아나기 전의 상황을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散居中國, 置州縣于遼外, 就平壤城置安東都護府以統之. 至萬歲通天中, 契丹李萬榮反, 攻陷營府.'이라며, 대조영 집단이 고구려 멸망 후 가족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갔다고 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발해 건국 집단의 이동을 고려별종 대사리(大舍利) 걸걸중상과 말갈반인(靺鞨反人) 걸사비우가 달아나 요동의 고려고지(高麗故地)를 차지하고 각각 왕(王)을 자처하다가 당 이해고의 추격을 받아 이동하여 차지한 곳이 '읍루고지(挹婁故地)'이고 이곳에서 건국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 『고려도경(高麗圖經)』

서긍(徐兢)이 저술한 『고려도경』은 당시 송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시봉(始封) 조에는 당 고종의 고구려 멸망 후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기사에

14 『五代會要』 권30, 渤海.

15 北宋의 王溥(922~982)가 宋 太祖 建隆 2년(961) 혹은 乾德 원년(963)에 五代(後梁, 後唐, 後晋, 後汉, 後周)의 典章制度를 30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어 발해의 건국을 왕건의 고려 앞에 기술하고 있다.[16] 즉, 무후(武后)가 장수를 보내어 그 왕 걸곤우(乞昆羽, 걸사비우)를 죽이고 걸중상(乞仲象)을 왕으로 세웠으나 또한 병으로 죽으매, 중상의 아들 조영(祚榮)이 즉위하였고 따라서 그 민중 40만을 차지하여 읍루(挹婁)에 웅거하여 당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중종(中宗) 때에 와서 홀한주(忽汗州)를 설치하고 조영으로 발해군왕(渤海郡王)을 삼으니, 그 뒤부터 드디어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며, 발해 건국자를 걸곤우(걸사비우)-걸중상-대조영으로 기술하고 있다. 출신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고구려 멸망 이후 등재한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긍의 송이 안동도호부 영역은 발해에 속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당시 북송이 거란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해 영역이 거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려도경』의 발해 내용은 두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북쪽의 고구려 지역에서의 발해에 대한 설명이다. 『오대회요』와 『신오대사』의 서술과 일맥 통하니, 당시 북송(北宋)의 일반적인 인식인 듯하다. 둘째는 평양성(平壤城)을 비롯한 옛 고구려 성이 있던 곳이 신라로 편입되자 유민이 돌궐, 말갈로도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고려는 이 가운데 남쪽 고구려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된다.

4. 『요사(遼史)』, 『금사(金史)』, 『송사(宋史)』

『요사』 지리지 동경요양부조의 발해 부분[17]에서는 "唐高宗平 高麗, 於此置安東都護府, 後為渤海大氏所有."라며, 고구려 멸망 후의 그 땅은 발해가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후 자신들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땅을 차지하였으니, 서희(徐熙)와 담판할 때 소손녕(蕭遜寧)이 자신들이 고구려 땅의 소유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이 고구려 땅에 대한 소유를 주

16 『高麗圖經』 제1권, 建國, 始封.

17 『遼史』 권38, 志 제8, 地理志 2, 東京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하여 서희의 고려라는 국명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로 고구려의 후신이라 주장한 것이다.[18]

『금사』 세기(世紀)[19]는 "金之先, 出靺鞨氏. 靺鞨本號勿吉."이라며 금의 선조가 말갈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중 "粟末靺鞨始附高麗, 姓大氏. 李勣破高麗, 粟末靺鞨保東牟山. 後為渤海."라 하며, 처음 고려(고구려)에 부속되어 있던 속말말갈 중 대씨가 발해를 건국하였다는 것이다. 금이 발해와 연결된다는 기술이다.

발해 멸망 이후 송대의 역사를 서술한 『송사』 발해국전[20]에 따르면, 발해 건국자는 고려별종 대조영이고 집단은 고려별종이다. 『구당서』나 『신당서』와 달리 『송사』는 발해를 고려별종이라며 고구려와 관련된 존재로만 인식하고 말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대조영이 근거한 곳이 요동이고, 부여(扶餘)·숙신(肅愼) 등 10여 국(國)을 지배했다고 하였다. 발해가 차지한 지역이 숙신 등 10여 국이라 한 것은 신·구당서 발해전에 없는 내용이다.

『송사』의 정안국(定安國) 전[21]에서는 정안국은 발해 멸망 이후 후예들이 세운 나라인데, 본래 마한지종(馬韓之種)이라 하니, 즉 발해가 마한지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정안국왕 오현명(烏玄明)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곳과 출신을 "臣本以高麗舊壤, 渤海遺黎"라며, 영역은 고구려 땅, 주민은 발해 유민이라 칭하였다. 송(宋)도 정안국왕 오현명에게 '奄有馬韓之地'라 하니, 땅을 마한지지라 하였다. 결국, 『송사』에 따르면 발해 유예는 마한지종이고, 위치는 고려구양(高麗舊壤), 마한지지니, 발해가 있던 곳이 고려, 마한의 땅이 된다.[22]

---

18 『高麗史』 권94, 列傳 권제7, 諸臣, 徐熙.

19 『金史』 권1, 本紀 제1, 世紀.

20 『宋史』 권491, 列傳제250, 外國7, 渤海國.

21 『宋史』 권491, 列傳제250, 外國7, 定安國.

22 『遼史』에서도 "三韓縣. 辰韓為扶餘, 弁韓為新羅, 馬韓為高麗. 開泰中, 聖宗伐高麗, 俘三國之遺人置縣. 戶五千."(『遼史』 권39, 志 제9, 地理志 3, 中京道)라며, 마한이 고려라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송사』는 '고구려-발해-정안국'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긍의 『고려도경』에서 평양 북쪽 지역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5.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대청일통지』는 건륭 8년(1743), 건륭 49년(1784), 그리고 도광 22년(1842)에 편찬되었으나, 이 중 건륭 49년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23] 성경통부(盛京統部)의 건치연혁(建置沿革)[24]에서 발해의 5경 15부 62주를 고려의 옛 경역에 설치하였다 하고, 그 세주에서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전재하고, 안설(按說)을 붙였다. 여기에서 발해가 설치한 5경 15부 62주는 대부분 길림(吉林), 오랍(烏拉), 영고탑(寧古塔) 및 조선(朝鮮)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요나라 시기 동경(東京)의 주현(州縣)은 대부분 그 명호(名號)를 따르고 있으나 고지(故地)를 수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사』가 발해(渤海)라 이르는 것은 사실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며, 『요사』의 지리비정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대청일통지』의 언급은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에서 『요사』 지리 비정의 잘못을 인식하고 발해 지리를 새롭게 비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25]

Ⅲ. 한국 측 자료의 발해 건국자·주민과 영역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전반까지 남쪽에는 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가 존속하였다. 고려, 조선에 이르는 시기의 발해에 대한 기록

23 朴仁鎬, 1998, 「明·淸代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對朝鮮 역사지리인식 -조선전기 역사지리 연구의 추이와 관련하여-」, 『慶北史學』 21, 경북사학회, 16쪽.

24 『大淸一統志』 권37, 盛京統部, 建置沿革.

25 김종복, 202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발해 건국자와 주민, 그리고 건국한 곳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해 본다.

1. 『고운집(孤雲集)』

최치원(崔致遠)의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26]에서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을 '고구려잔얼(高句麗殘孼)'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고구려 멸망 후 하남(河南)·농우(隴右)로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당 고종, 이적(李勣)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독부를 설치, 그리고 고구려인을 하남, 농우로 옮겼다는 것은 『오대회요』와 『신오대사』와 유사한 설명이다. 발해가 건국한 곳을 태백산 아래라고 하였다.

최치원은 발해를 비난할 때 '고구려'와 관련을 시키고 있다. 「신라왕여당강서고대부장(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狀)」에서 발해 오소도(烏昭度)가 빈공과(賓貢科)에서 수석으로 뽑히고, 상태사가 박인범(朴仁範)과 김악(金渥) 두 사람을 높인 것을 언급할 때도 발해가 이전의 고구려라고 한다. 이는 당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며, 태종이 토벌한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최치원은 "惟彼句麗今爲渤海", '저 구려가 지금의 발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의 구려는 잘못을 저질러, 당 태종(太宗)이 토벌하려고 한 대상이다. 당에게 발해가 고구려 잔얼들이 세운 대상이므로 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발해는 그 전신(前身)을 언급할 때 고구려와 말갈이라는 양면적 존재로 묘사되지만,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고구려는 이웃 나라를 괴롭히고 상국인 수당(隋唐)에 거역한 존재이고, 말갈은 예의규범을 모르는 집단이다.[27]

---

26 『孤雲集』 제1권, 狀, 上太師侍中狀.

27 최치원의 발해관은 당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토대로 신라가 발해보다 우위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견해(張日圭, 2007,앞의 글), 혹은 발해에 대한 글은 외교문서로서 작성 시점의 상황에 따라 바뀌고,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신라 인재가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함이고, 아울러 신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는 발해 존속 당시인 9세기 후반, 발해의 원류에 대하여 언급한 중요한 자료이다. 이때 발해는 속말말갈 지역인 상경(上京)을 수도로 삼고 있던 시기이다. 최치원은 발해의 원류가 고구려 멸망 이전에는 '말갈 중 속말(栗末)'이라 불리는 '소번(小蕃)'이었다는 것이다. 속말이 고구려의 소번이라는 존재였다. 건국에 참여한 집단은 영주에서 달아날 때 수령 걸사비우와 대조영 등이며, 이들이 속말 소번일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전에서 걸사비우를 말갈이라고만 한 것에 비해 최치원은 걸사비우도 대조영과 같은 속말이라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국 전후에 참여한 무리는 백산(白山) 지역의 구려유신(句驪遺燼), 흑수(黑水) 지역의 물길잡류(勿吉雜流)라고 하였다. 이들이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와 함께 당에 '내사(內徙)'된 것도 바로 이들 속말이 고구려 세력의 일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사한 집단의 수령이 걸사우와 대조영 등이었다. 걸사우와 대조영이 측천무후 때 '영주'에서 달아나 '황구(荒丘)'를 차지하고 처음에 '진국(振國)'이라 하였다. 진국을 세우자, 백산의 '구려유신', 흑수 지역의 '물길잡류'가 모여들었다. 이들이 '始與契丹濟惡'라 하니,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에 따르면, 영주에서의 이진충의 반란에 참여한 것이 된다. 그리고 진국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累拒渡遼之轍'라는 것에서 발해가 요하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해가 건국할 즈음에 신라(新羅)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바로 "우리에게 와서 이웃으로 의지하며(初建邑居, 來憑隣援)"라고 하니 발해가 이때 신라와 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상태사시중장」[28]과 「사불허북국거상표」를 함께 검토하면, 최치원이 생각하는 발해의 원류, 즉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속말이고, 이들은 고구려잔얼이니,

---

라는 의견도 참고가 된다(조범환, 2023, 앞의 글).

28 『삼국사기』에서 발해 참여 집단에 대한 언급은 「上大(太)師侍中狀」의 발해 기사일 뿐이다(其後, 致遠亦嘗奉使如唐, 但不知其歲月耳. 故其文集, 有上大(太)師侍中狀云 …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 『삼국사기』 권제46, 열전 제6, 최치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인이다.

2. 『삼국유사(三國遺事)』,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 시기 발해 인식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삼국유사』 말갈발해조[29]에서는 발해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현존하지 않는 『통전(通典)』에서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고, 그 추장 조영이 나라를 세웠다며,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을 속말말말이라 한 내용, 삼국사(三國史)가 발해의 건국 집단을 '고구려잔얼'이라며, 『삼국사기(三國史記)』 최치원 열전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신라고기(新羅古記)가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이 '고려구장'이라고 한 내용과 발해가 건국한 장소를 "태백산" 남(南)(혹은 下)이라고 한 것은 『구당서』나 『신당서』에 없는 기록이다.

내용을 소개한 뒤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길, "按上諸文, 渤海乃靺鞨之別種, 但開合不同而已."이라며 발해는 바로 말갈의 별종이고 단지 개합이 같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삼국사, 신라고기는 발해를 고구려와 관련된 서술임에도 '발해는 바로 말갈의 별종'이라고 정리한 것은 『통전』의 '渤海本栗末靺鞨'이라는 기록을 중시한 것이다. 다만, 개합부동('開合不同)'이라는 언급에서 발해가 말갈뿐 아니라 고구려인도 포함된 양면적 국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당서』의 고려별종이라는 측면보다는 『신당서』의 속말말갈이라는 요소에 무게를 두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해의 위치를 지장도(指掌圖)에 장성(長城) 동북각외(東北角外)라 하였고, 『삼국사기』와 같이 가탐(賈耽) 『군국지(郡國志)』를 인용하고 있다. 발해를 본래 속말말갈이라고 한 점,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고 진단(震旦)이라고 한 점, 연호 사용, 해동성국(海東盛國), 5경 15부 62주, 거란에 의한 멸망 등의 『삼국유사』 기록은 조선 시대의 발해사 서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29 『三國遺事』 권1, 紀異 1, 靺鞨渤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왕운기』는 "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이라며 대조영을 고구려 옛 장수라 하였다.[30] 이승휴(李承休)가 활동한 13세기 후반, 고려는 발해 건국자 대조영이 고구려의 옛 장수이고, 나라가 멸망한 후 고려에 내부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발해 유민의 고려 내투가 이전의 고구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주에서 '五代史曰, 渤海本粟靺鞨'라는 기록을 인용한 것은 대조영이 고구려 구장(舊將)이지만, 본래 속말갈이라는 의미 혹은 속말갈이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3. 『고려사(高麗史)』,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조선은 건국 후 전대 역사를 정리하였다. 『고려사』는 고려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편찬 당시인 15세기 전반 조선 위정자들의 고려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고려사』 태조(太祖) 8년(925)조[32]는 발해 유민의 고려 내투를 기록하고, 이어서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라며 그 주민을 말하고,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고구려인(高勾麗人)이라고 하였다.[33] '고구려인'이라는 표현은 『구당서』의 고려별종뿐 아니라, 『삼국유사』의 고려구장, 혹은 『제왕운기』의 전려구장(前麗舊將)이라는 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34] 속말말갈과 고구려인이 같은지 다른 존재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부여, 숙신 등 10여국을 차지한 발해가

30 『帝王韻紀』 권 下, 前麗舊將大祚榮.

31 현재 『신오대사』 발해전은 '渤海, 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2 『高麗史』 권제1, 世家 1, 太祖 8년.

33 『고려사』보다 1년 뒤에 편찬된 『고려사절요』도 같다(十二月, 契丹滅渤海.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勾麗人大祚榮, 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高麗史節要』권제1, 太祖 8년).

34 김진광, 2020, 앞의 글, 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 국경과 인접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국경이 압록강이라면, 그 북쪽을 발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절요』[35] 성덕왕(聖德王) 18년(719)조[36]에서는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 즉 고구려별종'이라고 하였다. 발해사의 기본 자료로서 각기 특성이 있는 『신당서』의 '속말갈갈로서 고구려에 붙은 자'라는 의미와 『구당서』의 '고려별종' 의미를 모두 취한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이 상호 배치된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서술이라고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 측 자료 중에서는 『신오대사』와 『오대회요』의 기록과 내용상으로 통한다. 『삼국사절요』의 이 표현에서 속말말갈이 모두 고구려별종인지, 속말말갈 중에 고구려별종이 아닌 부류도 있는지는 모호한 점이 있다.

『동국통감』은 『삼국사절요』보다 몇 년 뒤에 편찬되었지만, 후세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동국통감』 성덕왕 12년(713)조[37]에서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이라며, 『삼국사절요』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38] 같은 시기 편찬된 『고려사』의 기술을 참조한다면,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 즉 고구려별종이나 고구려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동국통감』과 『삼국사절요』가 발해가 고구려계 집단이 중심이 되어 건국되었다고 인식했음을 건국 직전에 참여한 집단을 '고구려여신(高句麗餘燼)'이라고 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국 직전에 참여한 집단에 대하여 『구당서』 발해전이 "靺鞨之衆及高麗餘燼"이라고 하였

35 『삼국사절요』는 1476년(성종 7) 盧思愼·徐居正 등이 편찬한 단군조선으로부터 삼국의 멸망까지를 다룬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36 『三國史節要』 권제11, 성덕왕 18년.

37 『東國通鑑』 권제10, 新羅紀, 성덕왕 12년.

38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 이후, 발해를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이라 한 자료에는 『東史纂要』 권제1 중, 성덕왕 18년조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史補遺』 권제2, 성덕왕 18년조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也"; 허목의 『東事』 권제3, 말갈 "靺鞨本粟末靺鞨, 高勾麗別種"; 『東國通鑑提綱』 권제11, 성덕왕 11년조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國歷代總目』 성덕왕 12년조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史會綱』 권제3 하, 성덕왕 12년조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也"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나,[39] 『동국통감』은 이 중 '고려여신'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조선이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사와 관계가 없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의 논거로 『동국통감』을 예로 들었지만, 속말말갈을 고구려별종, 즉 고구려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40] 또한 『동국통감』이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한 사서라는 지적도 무리가 아니다.[41]

4.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경암집(敬菴集)』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조선은 여러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청과의 관계를 통하여 조선의 현실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만주 지역을 차지했던 발해에 대한 저술도 늘어났다.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은 『동국지리지』 발해국조[42]에서 동사(東史)를 인용한 '渤海國本粟末靺鞨, 即高勾麗別種', '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 '自號震旦'의 부분은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동사찬요(東史纂要)』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중 발해국의 주민을 "渤海國本粟末靺鞨, 即高勾麗別種"이라 하고, 건국 직전에 참여한 집단을 '高勾麗之亡, 餘燼'이라 한 것은 『삼국사절요』, 『동국통감』과 같은 표현이다. 다만, 수(隋) 양제(煬帝) 때 무리를 이끌고 내항하여 유성(柳城)에 살던 도지계(度地稽)의 후예가 걸걸중상이라 설명하고 있다. 발해 건국집단을 속말말갈 중에서도 고구려와 적대적이며,

---

39 祚榮遂率其眾東保桂婁之故地, 據東牟山, 築城以居之. 祚榮驍勇善用兵, 靺鞨之眾及高麗餘燼, 稍稍歸之. 聖曆中, 自立為振國王(『구당서』 발해전).

40 임상선, 2023a, 앞의 글, 34쪽.

41 정구복, 1976, 「조선전기의 역사서술」,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248쪽.

42 『東國地理志』, 附渤海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양제 때 유성에 옮겨 온 도지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43]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었던 노경임(盧景任, 1569~1620)의 문집인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44] 노적록(奴賊錄)의 발문[45]에서 노적(奴賊)이 본래 숙신씨(肅愼氏)의 후예이고, 발해의 별종(別種)이라고 하였다. 강홍립(姜弘立)의 참전과 투항이 1619년 전후이니, 위 글은 노경임의 말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조선에서는 후금(後金)의 전신이 고려시기 금(金)이고, 그 이전 흑수말갈이며, 이들은 발해와 다른 별종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성호사설(星湖僿說)』, 『동사강목(東史綱目)』

18세기 중반에 완성된 『성호사설』 발해조[46]에는 '渤海之始末'에 대해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 고구려별종(高句麗別種)이다. … 대씨는 걸걸중상이 그 무리와 요수(遼水)를 건너, 태백산 동쪽을 차지하였고, 대씨족(大氏族)은 본래 요수의 서쪽에 있는 요서(遼西) 출신이므로 처음 속말(粟末)의 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대씨 일족은 본래 요수의 서쪽이 본래 거주지로서, 혼동강(混東江) 지역에 있는 속말말갈과는 다른 부류라 하였다. 『신당서』와 『구당서』의 발해전을 참조하면, 대조영 일족이 요서 지역에 이동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혼동강 지역의 원 속말말갈과는 다른 부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의 『동국지리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당나라 말기 두광정(杜光庭)이 쓴 전기소

---

43 煬帝初與高麗戰, 頻敗其眾, 渠帥度地稽率其部來降. 拜為右光祿大夫, 居之柳城, 與邊人來往. 悅中國風俗, 請被冠帶, 帝嘉之, 賜以錦綺而褒寵之. 及遼東之役, 度地稽率其徒以從, 每有戰功, 賞賜優厚. 十三年, 從帝幸江都, 尋放歸柳城. 在塗遇李密之亂, 密遣兵邀之, 前後十餘戰, 僅而得免. 至高陽, 復沒於王須拔. 未幾, 遁歸羅藝(『隋書』 권81, 列傳 제46, 東夷, 靺鞨).

44 한국문집총간의 『경암집(敬菴集)』 해제 참조(https://db.itkc.or.kr).

45 『敬菴先生文集』 권지6, 續集, 雜著, 題奴賊錄後.

46 『星湖僿說』 권제21, 經史門, 渤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설(傳奇小說)로, 『태평광기(太平廣記)』 권193에 수록되어 있는 「규염객전(虯髯客傳)」에 있는 부여국을 점령한 해적 집단이 걸걸중상일 것이라며, 전혀 의외의 주장도 소개하였다. 또한 발해와 금(金)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길, "금은 발해여종(渤海餘種)"이라고 하였다. 발해가 죄가 없는데 요나라가 멸망시키자 금나라가 발해여종이기 때문에 원한이 깊어 끝까지 추격하여 얻었다고 보았다.[47] 속말말갈이 숙여진(熟女眞)이라며, 발해 후예를 여진과 연결시키도 하였다.

『동사강목』 효소왕 9년(700)조의 기사[48]는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구당서』의 내용과 『동사강목』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효소왕 9년(700), 성덕왕 12년(713)에는 "靺鞨大祚榮"이라며 대조영의 출신을 '말갈'로 단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효소왕 9년에는 조영의 아버지인 걸걸중상과 고구려별종 말갈 속말말갈 걸사비우 및 고구려여종이 동주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걸사비우의 출신이 '고구려별종 말갈 속말말갈'이라는 의미인 듯하지만, 이는 다른 기록과 비교하면 걸사비우는 말갈이고, 고구려별종은 바로 대조영인데 이를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서술한 것이다.[49]

『동사강목』 〈발해국군현고(渤海國郡縣考)〉[50]에서는 "按通鑑, 高麗旣亡, 其別種大祚榮, 居營州, 李楷固討破之, 祚榮遂東據東牟山"이라며, 대조영이 고려별종이라는 『통감』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의아한 느낌이 든다. 『동사강목』은 범례(凡例)에서 발해는 우리 역사(我史)로 기록할 수 없으나, 『동국통감』의 예(연도별 필요한 곳에 기록)에 따른다고 하였다. 이렇게 포함하는 이

47 渤海無罪而遼滅之 金是渤海餘種 讐怨已深 必窮追而得之也 麗太祖 亦以渤海之故 擯絶遼使 謂無道之國 其事雖不可攷 必有極慘 可惡者也 不然 何必戮屍而後 爲快耶(『星湖先生僿說』 권지23, 經史門, 遼金元).

48 『東史綱目』 권제4 하, 孝昭王 9년.

49 대조영과 그의 부인 걸걸중상이 말갈인일 뿐, 고구려별종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송기호, 1991, 앞의 글, 59쪽).

50 『東史綱目』 附錄 하권, 地理考, 渤海國郡縣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는 "本爲高勾麗故地. 與我壤界相接", 즉 발해의 땅이 본래 고구려 땅이고, 발해의 땅이 우리 영역의 경계와 서로 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1] 이 기술에서 '아(我)'는 고려 혹은 조선을 가리킬 수 있는데, 고려의 경우에는 고려의 북계(北界) 밖이 발해의 땅으로 고구려 땅이라는 의미이고, 만약 조선이라면 압록강~두만강 밖이 발해의 땅이며, 고구려 땅이라는 의미가 된다.

『동사강목』에서 발해를 서술에 포함한 다른 이유는 한사군(漢四郡)의 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동사강목』은 한사군에 대하여 "사군(四郡)과 이부(二府)는 조선의 옛 땅이므로 이제 마한(馬韓)을 정통으로 삼았으니, 그 연혁과 분합(分合)은 비록 대국이 한 일이기는 하나 모두 마한의 기년 아래에 썼다."고 하고, 그 세주에서는 "요동의 땅은 본래 동이(東夷)에 속했으나,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는 항상 우리 땅이 되었으므로 득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비고로 삼는다."고 하였다.[52] 한사군은 조선의 옛 땅이며, 요동의 땅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단군과 기자 이후로 항상 '우리 땅(我地)'이므로 정통인 마한 기년에 썼다고 하였다. 발해가 있던 곳이 고구려 땅이고, 이곳이 요동의 땅이므로, 발해도 응당 신라나 고려의 기년에 포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목록」에서 신라기(新羅紀) 안에 '부발해(附渤海)'라 하고, 발해 영역도 '신라통일도(新羅統一圖)' 안에 들어 있듯이, 발해를 신라와 고구려에 연관된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동국통감』이나 『성호사설』에서 발해를 고구려 땅을 차지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킨 것이다.[53]

---

51 渤海. 不當錄于我史. 而本爲高勾麗故地. 與我壤界相接. 義關脣齒. 故通鑑備書之. 今從之(『東史綱目』凡例, 統系).

52 四郡二府三韓. 通鑑皆入外紀. 四郡二府. 係朝鮮舊地. 而今以馬韓. 爲正統則其沿革分合. 雖是大國所爲. 皆書於馬韓紀年之下. 〈遼東之地. 本屬東夷. 而檀箕以後. 常爲我地. 故詳記得失. 以備考焉. 〉(『東史綱目』凡例, 統系).

53 김종복, 2011a, 앞의 글, 187쪽; 임상선, 2023b, 앞의 글, 2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발해고(渤海考)』, 『수산집(修山集)』

『발해고』는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1784년 완성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내용이 보완, 수정되었다. 1784년의 『발해고』는 9개 고찰을 1권에 담았으나, 1793년경에 완성된 수정본[54]은 5개 고찰을 4권에 나누어 담았다.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55]에서 "及扶餘氏亡 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 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非矣 夫大氏者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라며, 삼국 이후 신라와 발해는 '남북국'이며, 발해의 대씨는 바로 '고구려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발해고』 본문에서는 "震國公姓大氏 名乞乞仲像 粟末靺鞨人也. 粟末靺鞨者 依粟末水以居 臣於高句麗者也."[56]라며, 걸걸중상을 속말말갈인으로서 고구려에 신속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걸걸중상이 속말말갈 중에서도 고구려에 신속해 있던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발해고』 서문과 연관시킨다면, '고구려에 신속해 있던 속말말갈'은 '고구려인'이라는 뜻이다.

대씨라는 성의 연원에 대해서 군고(君考) 뒷부분의 안설에서 "凌迪知萬姓通譜云 東夷之有大氏 自大連始也. 渤海得姓 或出於大連而奔高麗 以後變大爲太."라며, 명나라 능적지[57]의 『만성통보』를 인용하여, 동이의 대씨는 대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 부분을 9고본에서는 "震國公姓大氏, 名乞乞仲象, 粟末靺鞨人也. 粟末靺鞨者, 臣於高句麗者也. 或言大氏, 出自大庭氏, 東夷之有大氏, 自大連始也."라며, 혹 대씨의 출자가 대정씨이고, 동이의 대씨는 대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으로 소개한 바 있다. 걸걸중상의 아

54 김종복, 2018, 「해제 – 유득공과 수정본 『발해고』」, 유득공 지음, 김종복 옮김, 『정본 『발해고』, 책과함께, 44쪽.

55 『渤海考』 序.

56 『渤海考』 권지1, 君考, 震國公.

57 凌迪知(1529~1600)의 자는 稚哲이고 浙江 湖州 織里鎭 晟舍人이며, 명나라 시기 文學과 雕版印書로 저명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인 대조영은 "嘗爲高句麗將"[58]이라며 일찍이 고구려의 장수였다고 하였다.

이종휘(李種徽, 1731~ ?)는 『수산집』 발해세가[59]에서 발해는 진국(震國)이라 하고, 이어서 '高王姓大氏, 名祚榮. 其先高麗粟末人'이라 하였다. 찬(贊)에서는 대조영은 "고구려의 한 굶주린 종(高麗一餓隷)"이라 하였다. 대조영의 선조가 고구려의 속말인이고, 대조영은 고구려인 중에서도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발해 건국 집단인 속말말갈이 고구려에 부속 혹은 신속하고 있다는 설명일 것이다. 발해는 상투에 화살 쏘는 백성이 의관예악(衣冠禮樂)으로 나머지 수백 년에 소중화(小中華)의 나라가 된 것은 대개 태사(太師) 이래 한 사람뿐이니, 성대하다 할 수 있다며 발해가 소중화의 나라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다.

7. 『해동역사(海東繹史)』,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남북국시대를 주장한 것에 이어 한치윤(韓致奫, 1765~1814)은 발해를 세기(世紀)에 포함하였다. 『해동역사』 발해세기[60]에서 여러 사서에서 발해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해에 대하여 "渤海, 本黑水靺鞨之粟末部. 臣屬於高麗者, 居古肅愼氏地."라며 발해는 본래 흑수말갈의 속말부이고 고구려에 신속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黑水靺鞨之粟末部'는 『신당서』 흑수말갈전이 속말말갈을 흑수말갈의 일부인 듯이 기록한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61] 그러나 '臣屬於高麗者'는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속말말갈이 아니라 백산말갈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다.[62] 속말말갈은 『신당서』에서는 "其著者曰粟末部, 居最南,

58 5고본, 9고본, "高王名祚榮 震國公子也. 嘗爲高句麗將."

59 『修山集』 권11, 東史世家, 渤海世家.

60 『海東繹史』 권제11, 世紀 11, 渤海.

61 『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黑水靺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抵太白山, 亦曰徒太山, 與高麗接, 依粟末水以居"[63]라며 말갈 중에서 가장 남쪽에 거주하며 고려와 접하고 있다고 할 뿐이다. 이어서 동사(東史)를 인용하며 대조영이 본래 고려구장(高麗舊將)이라 하였고,[64]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은 걸걸중상의 아들이라고 보았다.[65]

대씨의 출자에 대해서는 『발해고』 9고본의 대정씨와 대련씨 주장과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大氏, 唐渤海附高麗者, 大祚榮爲渤海郡王.【急就篇姓氏注】【胡三省曰: 風俗通, 大姓, 大庭氏之後, 大款爲顓頊師. 案, 禮記曰: 大連善居喪, 東夷之子也. 蓋東夷之有大姓, 尙矣.】【資治通鑑注】"[66]라며, 대씨는 고려에 부속되어 있던 자이고, 또한 대씨의 출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按, 凌迪知曰: 渤海大氏, 卽大連之後. 胡三省曰: 禮記, 大連善居喪, 東夷之有大氏, 尙矣. 然則大連之後, 未嘗絶於東國, 而至渤海, 其後克昌歟."[67]라며, 능적지의 주장과 호삼성의 말을 인용하고, 대련의 후예가 발해에 이르러서 번창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치윤은 발해를 세가에 편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 체계에 포함시켰다. 그런 점에서 발해의 주민인 말갈이 우리 역사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해 세기에서 발해 지리와 관련된 언급은 건국지, 수도, 그리고 부여성에 대한 기록이다. 발해의 홀한주를 읍루고지의 동모산에 있던 도읍한 곳이라 하고, 천보 말에 옮겨 간 상경용천부를 옛 숙신고지였던 당시의 영고탑에 비정하고, 덕종 정원 때의 동경용원부는 당시의 경성부에 있었다

62 其白山部, 素附於高麗(『舊唐書』 권199下, 列傳 제149下, 北狄, 靺鞨) ; 白山本臣高麗(『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黑水靺鞨).

63 『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黑水靺鞨.

64 한영우, 1985, 앞의 글, 154쪽.

65 按大祚榮. 卽仲象之子. 而舊書不著焉. 此則舊書之踈畧故. 今並錄新書. 以備參考(『海東繹史』 권제11, 世紀 11, 渤海).

66 『해동역사』 권제32, 官氏志 3, 氏族.

67 『해동역사』 권제60, 人物考, 발해, 少連·大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발해 멸망 당시의 부여성을 자치통감주(資治通鑑注)가 압록수(鴨綠水) 부근으로 비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68]

한편, 한진서(韓鎭書)는 『해동역사속(海東繹史續)』 강역총론(疆域總論)[69]에서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 후 말갈종(靺鞨種) 대씨가 가속(家屬)을 이끌고 영주(營州)에 옮겨가 있다가 걸걸중상이란 자가 동쪽으로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을 지키며 읍루고지(挹婁故地)를 점거하고 그 아들 조영(祚榮)이 나라를 세운 것이라 한다. 즉, 발해의 건국자는 대조영, 주민은 말갈종 대씨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발해가 건국된 곳인 읍루의 동모산(東牟山)은 영주로부터 동쪽 2천리 거리의 영고탑성(寧古塔城)이라고 하였다. 개원(開元) 이후, 발해가 점점 강대해지고 또 구려고지(勾麗故地)를 소유하며, 그 사방 경계는 서는 개원현(開原縣)으로부터 동으로 바다에 이르고, 북은 흑룡강(黑龍江)에 이르고, 그 남은 지금의 덕원군(德源郡)으로부터 서로는 대동강(大同江)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 인식한다. 발해속고(渤海續考)[70]에서는 '발해', '진국공(震國公)'은 모두 당나라가 내린 것이며, 자칭이 '말갈(靺鞨)'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사(東史)에서 '大祚榮本句麗舊將, 唐滅句麗, 祚榮東保太白山, 後又附新羅, 受五品大阿飡之秩.'이라는 내용이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동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71] 또한 정약용은 발해속고의 『宋史』云 : "太宗淳化二年冬, 以渤海不通朝貢, 詔女眞攻之."에 대하여 여진은 발해의 '변명(變名)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진이 이미 번성하였다면

68 『海東繹史』 권제11, 世紀 11, 渤海.

69 『海東繹史續』 권제9, 地理考 9, 渤海, 疆域總論.

70 『我邦疆域考』 其四, 渤海續考.

71 정약용은 '대조영이 멀리 신라에 벼슬할 이치가 없으니, 대아찬이라는 설은 동인이 연결시킨 과장인 듯하다'(案大祚榮無遠仕新羅之理. 大阿飡之說似係東人夸誕也.)고 한 바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가 쇠락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발해 멸망 이후, 발해 구강(舊疆)에 등장하는 여진을 발해가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진의 전칭이 말갈이 되니, 결국 발해를 말갈족의 나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로연혁속(北路沿革續)[72]에서는 발해와 여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귀양에서 돌아와 『송사(宋史)』·『요사(遼史)』·『금사(金史)』·『원사(元史)』·『고려사(高麗史)』의 전문을 확인한 뒤 1833년에 작성한 『아방강역고(考)』 북로연혁속에서 '발해가 망하고, 그 백성은 비로소 말갈의 이름을 버리고, 여진의 칭호를 드러내고, 남·북 옥저(沃沮)의 땅이 드디어 여진이라 칭하였는데, 여진이 변외(邊外)로부터 와서 점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여진이 대대로 혼동강(混同江)의 동·장백산(長白山) 압록수(鴨綠水)의 발원지에 거주하였으며, 남쪽은 고려(高麗)에 인접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하였다. 이곳은 모두 발해구강(渤海舊疆)이라 하고, 발해의 백성이 변하여 여진(女眞)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진은 본래 우리 땅(吾土)에서 일어난 것이지, 반드시 하북(河北, 두만강 북쪽)의 이추(夷酋)가 와서 우리 땅(吾土)을 점거한 것이 아니며, 두만강 남쪽과 북쪽이 본래 모두 발해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발해의 민이 말갈이고, 발해 멸망 후 이들이 여진이라 칭했으며, 남북 옥저의 땅에 있는 여진은 변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던 여진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동여진(東女眞)은 발해 때 본래 우리 영토에 거주하며 남쪽으로 함흥(咸興)에 이르렀고, 서여진(西女眞)도 발해 때 본래 우리 영토인 이른바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 살수(薩水)의 북쪽]에 거주했는데, 이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듯이 말하는 것은 또한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진이 거주하던 함경북도는 본래 북옥저(北沃沮)의 땅이고, 고구려가 망하고 두만강 연변의 육진(六鎭)의 땅에 발해의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가 있어 다스리던 곳이었다. 발해 멸망하고는 여진이 점거하고, 고려 예종(睿宗) 때 윤관(尹瓘)이 정벌하였으나 그 강역을 수복한 것이 아니고, 조선 세종(世宗) 때에 비

72 『我邦疆域考』 其四, 北路沿革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소 판적(版籍)에 돌아왔다고 정리하였다.

Ⅳ. 맺음말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에 대하여 『신당서』와 『구당서』의 기록을 별개로 인식한 경우와 정합적으로 이해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자를 대표하는 사례가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의 서술이다.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인데, 곧 '고구려별종(高句麗別種)'이라는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발해를 건국한 속말말갈은 고구려별종이라는 의미이고, 넓은 의미의 고구려인(高句麗人)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서 종래 우리 역사에서 별종적 위치에 있었던 말갈(靺鞨)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서 말갈은 변경민 혹은 타자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고구려의 주민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발해 멸망 이후 등장하는 여진(女眞)에 대하여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 들어서 점차 수용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유득공과 정약용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득공은 고구려인이 발해인이라고 하였으니, 고구려별종인 속말말갈이 고구려인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정약용은 여진은 바로 두만강과 압록강 이내에 거주하던 발해인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의 지리는 『신당서』 발해전에 5경 15부 62주가 언급된 이후 고려 시대까지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지리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후 발해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요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요사』가 소개되면서 발해의 지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인식은 18세기 전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이 지역의 지리를 정리하며 『요사』의 인식에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서 『요사』 지리지의 발해의 주현(州縣)은 멸망 전의 발해 지명을 대부분 따른 것이지, 발해의 옛 땅이 아니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발해 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눈을 뜨게 되고, 이 과정에서 조선 경내에 발해의 서경, 동경, 남경이 위치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이렇게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이 고구려인의 후예이고, 그 영역도 고구려의 영역임을 이해하고, 더구나 조선 경내에 발해의 5경(京) 중 3경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조선의 식자들은 이제 발해는 이국(異國)이 아니라 아국(我國)으로 간주하고, 그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高麗史』, 『舊唐書』, 『明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新唐書』, 『五代會要』, 『五代會要』, 『資治通鑑』, 『册府元龜』.

단행본

권은주·강성봉·김진광·우성민·윤재운, 2023, 『발해사 자료총서: 중국사료편』 1, 동북아역사재단.

권은주·강성봉·김진광·임상선, 2021,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편』 1·2, 동북아역사재단.

김은국·윤재운·임상선,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김정희·송정수·정면·김유철·박지훈·송미령, 2016,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역사공간.

이효형 외, 2009,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논문

고미야 히데타카(小宮秀陵), 2018, 「발해의 강역·대외관계 연구동향과 과제」, 『韓國古代史硏究』 89, 한국고대사학회.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朝鮮傳을 中心으로-」,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구난희, 2012, 「北方故土意識의 推移에 관한 고찰 I -발해멸망~조선후기-」,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국사편찬위원회, 1987~1989,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1-3.

권은주, 2009, 「靺鞨 7部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硏究』 35.

_____, 2022,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인과 최근 연구 경향-웨이궈중의 『발해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70, 한국고대학회.

김은국, 2016, 「최근 10년간 발해사 연구성과와 방향」, 『東北亞歷史論叢』 53, 동북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재단.
김종복, 2011a,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韓國古代史硏究』 62, 한국고대사학회.
_____, 2011b, 「조선후기의 新羅正統論과 渤海史의 인식」, 『사림』 39, 수선사학회.
_____, 2017,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南北國論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9, 한국사연구회.
_____, 2018, 「해제-유득공과 수정본 『발해고』」, 유득공 지음, 김종복 옮김, 『정본 『발해고』』, 책과함께.
_____, 2021,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김진광, 2019, 「발해사 연구성과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방향 모색」, 『韓國古代史硏究』 95, 한국고대사학회.
_____, 2020, 「조선시대 발해 지리 인식과 전환 -지리지의 발해 지리 정보 누락 원인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7, 효원사학회.
_____, 2022a, 「조선시대 사서에 담긴 발해 지리 인식의 추이 검토」, 『白山學報』 124, 백산학회.
_____, 2022b, 「최근(2010~2022) 중국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향 및 쟁점」, 『고구려발해연구』 74, 고구려발해학회.
박인호, 1998, 「명·청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대조선 역사지리인식」, 『경북사학』 제21권, 경북사학회.
_____, 2002, 「『발해고』에 나타난 유득공의 역사지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제6호, 한국사학사학회.
박지훈, 2016, 「『송사』·『요사』·『금사』·『원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역사공간.
송기호, 1991,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渤海觀」, 『韓國史硏究』 제72집, 한국사연구회.
송미령, 2016, 「『명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역사공간.
윤재운, 2013, 「중국의 발해사 왜곡논리와 대응방안」, 『한국사학보』 51, 고려사학회.
李東輝, 2003, 「崔致遠의 北方認識: 渤海觀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65, 백산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효형, 2018, 「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임상선, 2005, 「중국학계의 발해·고구려 역사연구 비교」,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3a,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자료에 인용된 중국 사서」, 『동북아역사논총』 81,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3b, 「17~18세기 조선의 발해사 저술에 인용된 중국 사료」, 『역사와교육』 37, 역사와교육학회.
_____, 2023c, 「중국 정사(正史)의 발해 기록 검토」, 『역사교육논집』 제84집, 역사교육학회.
_____, 2024, 「발해 역사 속의 變革의 순간들」, 『한국고대사탐구』 4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張日圭, 2007, 「최치원의 渤海觀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구복, 1976, 「조선전기의 역사서술」,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248쪽.
조범환, 2023, 「崔致遠의 외교문서와 渤海」, 『북악사론』 17, 북악사학회.
조이옥, 2002, 「茶山 丁若鏞의 渤海史認識」, 『東洋古典硏究』 17, 동양고전학회.
한규철, 2007,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大東漢文學』 26, 대동한문학회.
한영우, 1985, 「海東繹史의 硏究」, 『韓國學報』 11-1, 일지사.

기타 자료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한·중 발해 사료의 유통과 계보

임상선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에 대하여 『신당서』와 『구당서』의 기록을 별개로 인식한 경우와 정합적으로 이해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자를 대표하는 사례가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의 서술이다.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인데, 곧 '고구려별종(高句麗別種)'이라는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발해를 건국한 속말말갈은 고구려별종이라는 의미이고, 넓은 의미의 고구려인(高句麗人)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서 종래 우리 역사에서 별종적 위치에 있었던 말갈(靺鞨)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서 말갈은 변경민 혹은 타자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고구려의 주민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발해 멸망 이후 등장하는 여진(女眞)에 대하여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 들어서 점차 수용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유득공과 정약용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득공은 고구려인이 발해인이라고 하였으니, 고구려별종인 속말말갈이 고구려인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정약용은 여진은 바로 두만강과 압록강 이내에 거주하던 발해인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의 지리는 『신당서』 발해전에 5경 15부 62주가 언급된 이후 고려 시대까지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지리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 후 발해를 멸망시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등장한 요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요사』가 소개되면서 발해의 지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인식은 18세기 전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이 지역의 지리를 정리하며 『요사』의 인식에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대청일통지』에서 『요사』 지리지의 발해의 주현(州縣)은 멸망 전의 발해 지명을 대부분 따른 것이지, 발해의 옛 땅이 아니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발해 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눈을 뜨게 되고, 이 과정에서 조선 경내에 발해의 서경, 동경, 남경이 위치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이 고구려인의 후예이고, 그 영역도 고구려의 영역임을 이해하고, 더구나 조선 경내에 발해의 5경(京) 중 3경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조선의 식자들은 이제 발해는 이국(異國)이 아니라 아국(我國)으로 간주하고, 그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발해 역사, 중국 사료, 한국 사료, 건국자, 주민, 영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Distribution and Genealogy of Balhae Historical Materials in Korea and China

Lim Sangseon

Regarding the founders and residents of Balhae, the records of the New Book of Tang and the Old Book of Tang can be divided into cases where they are recognized separately and cases where they are understood in a consistent manner. The latter is represented by the descriptions in the Samguk Sajeolyo and the Dongguk Tonggam. Balhae was originally Sokmal Malgal(粟末靺鞨), which is interpreted as a 'separate species of Goguryeo(高句麗別種). ' In other words, Sokmal Malgal, who founded Balhae, is a separate species of Goguryeo, and is interpreted as a Goguryeo person in a broad sense. Here, the recognition of the Malgal(靺鞨), which had previously been a separate species in our history, began anew. In the history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the Malgal were considered as a border people or an outsider. However, they came to be recognized as part of the residents of Goguryeo. The posi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n the Jurchen(女眞), which appeared after the fall of Balhae, gradually changed from the Goryeo period to the Joseon period. Yu Deuk-gong and Jeong Yak-yong are representative examples. Yu Deuk-gong said that Goguryeo people were Balhae people, which means that he recognized the Sokmal Malgal, a separate tribe of Goguryeo, as Goguryeo people. Jeong Yak-yong went so far as to claim that the Jurchen were Balhae people who lived within the Tuman River and the Amnok River.

The geography of Balhae was not recognized as more specific until the Goryeo Dynasty after the 5 capitals, 15 bu, and 62 ju were mentioned in the Balhae Chronicles of the New Book of Tang. After that, the geography of Balhae was accepted more specifically as the Liao Dynasty, which emerged after the fall of Balhae, was introduced, and this recognition did not change much until the early 18th century. The Ming and Qing Dynasties began to question the recognition of the Liao Dynasty as they organized the geography of this region, and eventually, in the Daecheong Il-tong-ji, they came to understand that the provinces and counties of Balhae in the Liao Dynasty's geography mostly followed the names of Balhae before its fall, and were not the old lands of Balhae. This led to a new approach to Balhae geography, and in the process, the claim that the West, East, and South capitals of Balhae were located within Joseon territory gained strength.

In this way, it is understood that the founders and residents of Balhae were descendants of Goguryeo people, and that its territory was also Goguryeo territory, and furthermore, that three of the five capitals of Balhae were located within Joseon territory. As a result, i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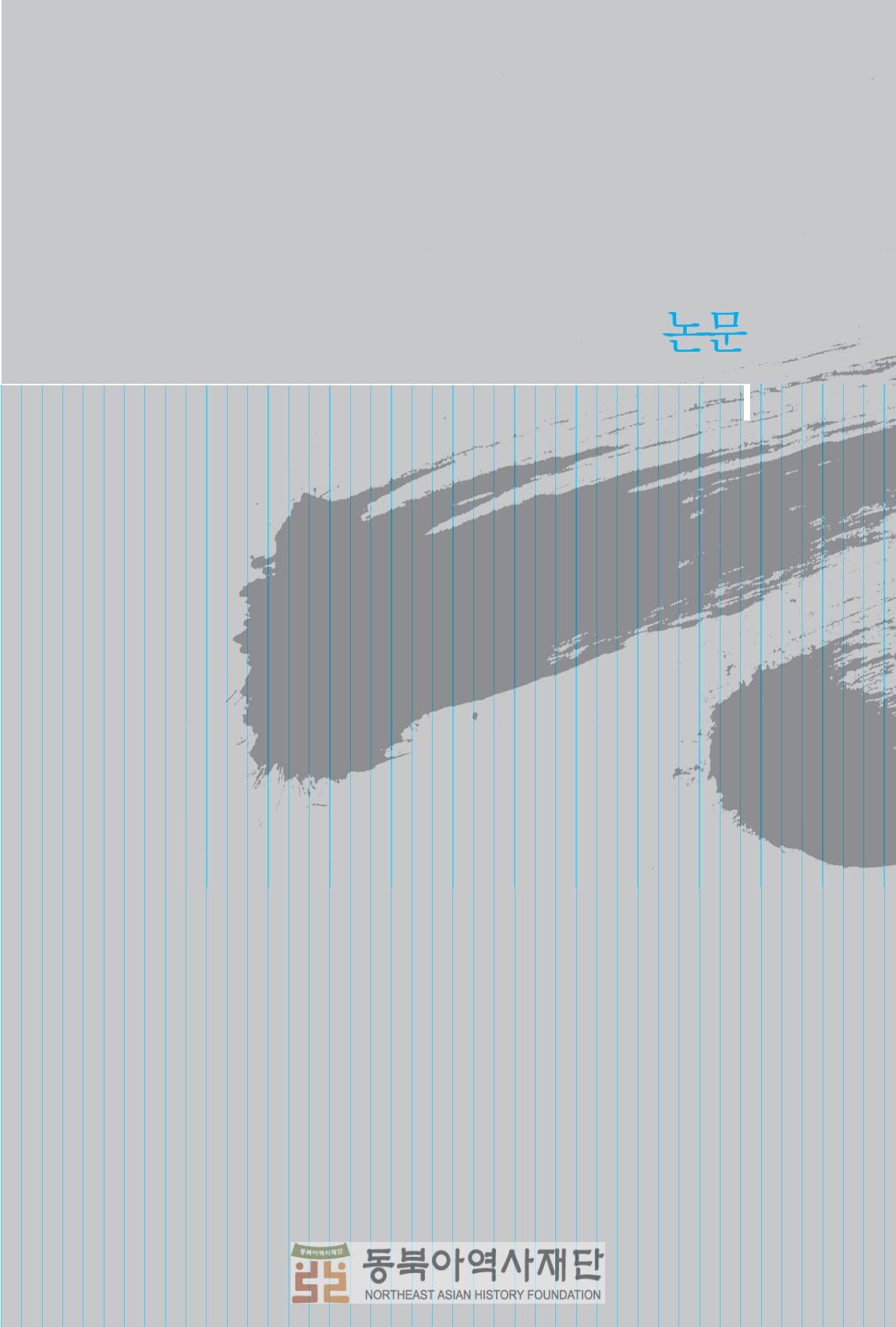
is judged that Joseon intellectuals now regarded Balhae not as a foreign country but as their own country, and accepted its history as part of our own history.

Keywords: Balhae history, Chinese historical materials, Korean historical materials, founder, residents, terri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6

낙랑군 점제비(粘蟬碑)의 건립 배경

안정준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II. 점제비의 건립 연대와 행사 주도 집단
III. 비의 건립 목적과 시대적 배경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일제강점기인 1913년, 평안남도 용강군(龍岡郡) 해운면(海雲面) 운평동(雲坪洞)에서 석비가 한 점 발견되었다(이하 점제비). 이 해 9월 26일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어을동토성(於乙洞土城) 터를 조사하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은 면장으로부터 토성 부근에 오래된 석비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당시 이 비는 어을동토성의 동북쪽 약 1,600척(485m) 지점에 있었는데, 비신(碑身)이 뒤로 살짝 누운 채, 좌측으로 일부 기울어진 상태로 서 있었다고 한다.

보고자들은 비문의 서체가 한대 예서체라는 점, 그리고 비면에 두 군데 '점제(秥蟬)'라는 글자가 있음을 알게 됐고, 이를 근거로 인근의 어을동토성이 낙랑군 점제현의 치소성(治所城)일 것이며, 『한서』 지리지에서 점제현 부근에 흐른다고 전해진 '열수(列水)'가 대동강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1] 이처럼 점제비는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석비이자, 점제현과 '열수'의 위치 추정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점제비의 명칭과 건립 시기 및 목적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비문에 의하면 점제현에서 '▨평산군(▨平山君)'이라 지칭된 산신(山神)에 대한 제사 관련 시설을 증수(增修)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입비(立碑)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점제현장과 관원들이 주축이 되어 봉호(封號)가 있는 산신을 대상으로 한 제사 시설을 증수한 것, 그 과정에 대한 서술과 산신에 대한 송사(頌辭)를 기재한 내용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

* 투고: 2025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4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비의 발견 경위와 關野貞의 의견에 대해서는 關野貞 外, 1927, 『古蹟調査特別報告(4) 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朝鮮總督府, 235~238쪽의 내용을 참고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점 등이 주목된다. 이처럼 변경 지역의 산신이 봉호를 받는 한편, 관원 주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한 석비가 건립되는 과정은 단순히 점제현 내에서만 논의되어 결정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후한대에 지방 군(郡)·국(國)에서 관할 구역 내의 산신 제사와 관련한 석비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 그 내용 가운데 산신 제사를 조정에 요청하여 이를 공인(公認)받는 한편, 그 과정을 공문서 형태로 석비에 기재 및 공표하기도 했던 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한 조정이 낙랑군 내에서도 작은 규모의 현에 불과한 점제현 일대의 작은 산(해발 565m)에 주목하여 이에 '▨평산군'이라는 공식 봉호를 내린 것은 낙랑군(점제현) 차원의 적극적인 보고와 요청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낙랑군의 '▨평산군' 관련 행사에 대한 조정의 공식 승인과 관련된 절차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제비를 건립한 과정에 대해서 후한대의 다른 산신제사비들의 사례와 비교·검토해보는 작업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점제비의 호칭을 비롯해, 건립 시기와 주체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후한말에 산신제사비들이 건립된 정치·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제비의 제작 배경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점제비의 건립 연대와 행사 주도 집단

1. 비의 호칭과 건립 시기

※ 판독과 역주

▣ 판독문[2]

▨▨▨年四月戊午秥蟬長▨[3]▨[4]
[尉]建丞屬國會▨[爲][衆]▨▨
▨神祠刻石辭曰
▨平山君德配代嵩承[天][幽]▨
▨佑秥蟬與甘風雨惠[閏]土田
▨▨壽考五穀豊成盜賊不起
▨▨[蟄]藏出入吉利咸受神光

▣ 교감문

▨▨▨年 四月戊午 秥蟬長▨▨ ▨建 丞屬國 會▨[爲][衆] ▨▨▨神祠刻石辭曰:
▨平山君 德配代嵩 承[天][幽]▨ ▨佑秥蟬 與甘風雨 惠[閏]土田 ▨▨壽考 五穀豊成 盜賊不起 ▨▨[蟄]藏 出入吉利 咸受神光.

▣ 역주

▨▨▨년 4월 무오, 점제장인 ▨▨▨와 위(尉)인 건(建), 승속(丞屬)인 국(國)이 모여서 [爲][衆]▨▨▨ 신사를 ▨하고 각석하였으니, 사(辭)하여 이르길, ▨평산군은[5] 덕으로 대산[6]·숭산에 견줄 만하니,[7] 천도(天道)를 받들어 ▨에 드리우고, 점제현을 ▨우하여 좋은 바람과 비를 일으키고,[8] 논과 밭을 은혜롭게 적시며, ▨▨▨가 장수하게 하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게 하며, 도적이 일어나지 않고, ▨▨▨가 숨어 있게 하며,[9] 길하고 이로운 것을 출입시켜 (백성들이) 모두 신이한 빛을 받게 하나이다.

---

2 이 글에서 제시한 판독문은 한국역사연구회의 '낙랑연구반'에서 반원들과 세미나를 통해 공동으로 판독한 결과물이다.

3 잔획을 감안할 때 涔 혹은 海자로 추정되나 분명하지 않으므로 미상자로 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점제비는 용강군 해운면 어을동토성의 동북쪽 약 485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오석산(烏石山: 평안남도 온천군 소재, 해발 565m)을 동북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점제비의 전체 크기는 상하(최대) 약 152cm, 좌우 약 110cm 정도로, 원형이 거의 보존되었지만, 비신 윗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글자체는 예서체이며[10] 행간(行間)에 상하 계선(界線)이 있다. 문구는 전체 7행인데, 문제는 2~4행 1열 위쪽의 떨어져 나간 부분에 또 다른 글자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3행의 "▨神祠刻石辭曰"이후 4행에서 "▨平山君"이라는 봉호로 시작하는 송사의 도입부가 어색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4~5행의 "承

---

4 글자의 왼쪽 부분이 일부 보이는데, 興 혹은 與자로 추정되나 일단 미상자로 둔다.

5 중국에서는 이미 漢代 이전부터 名山의 神이 天神과 같은 덕을 지니며, 그 신은 '封龍君'·'靈山君' 등으로 일컬어지는데, 이 비의 '▨平山君' 역시 산에 붙여진 공식 封號일 것이다(權淨, 2004, 「樂浪の文字-黏蟬縣神祠碑·瓦銘」, 『古代日本·朝鮮における文字世界の形成』,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42쪽).

6 代山: 代는 岱와 통한다. 岱山은 五嶽 가운데 東嶽인 泰山을 가리킨다.

7 德配代嵩: 平山이 嵩山·泰山과 덕을 견줄 만하다는 의미이다. 후한 光和 4년(181)에 세워진 「三公山碑」에도 '德配五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三公山이 五嶽, 즉 東嶽인 泰山, 西嶽인 華山, 南嶽인 衡山, 北嶽인 常山, 中嶽인 嵩山과 덕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쓰였다(權淨, 2004, 앞의 글, 42쪽).

8 ▨佑秸蟬 興甘風雨: 점제현을 ▨佑하여 좋은 비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9 종래 "▨▨蟄藏"과 관련해서는 "妖邪가 蟄伏하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하기도 했다(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85쪽). 『淮南子』 墜形訓에는 "夫熊羆蟄藏 飛鳥時移"(대저 곰과 큰곰은 칩거하고, 하늘을 나는 새는 때에 따라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며(안정준, 2023, 「후한말 「▨平山君碑」('秸蟬縣碑')의 건립 배경」, 『한국목간학회 제 42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한국목간학회, 19쪽, 각주 11번), 이 때 蟄藏은 '칩거하다', '은거하다' 정도로 풀이된다. 최근 이에 대해 『漢書』 권27 五行志中之上에 보이는 "保藏蟄蟲"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蟄藏"은 곧 ▨平山君에게 병충해의 해결을 기원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했다(高泰鎭, 2025, 「新羅下代奢侈禁令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4쪽의 註115번). 일단 '蟄藏'은 '칩거하다', '은거하다'의 의미로서, ▨▨는 그 앞의 "盜賊不起"의 盜賊과 더불어 부정적인 대상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10 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 점제비 탁본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 444), 음영 일부 조정함]

[天][幽]▨ / ▨佑秠蟬", 5~6행의 "惠[聞]土田 / ▨▨壽考", 6~7행의 "盜賊不起 / ▨▨蟄藏"으로 연결되는 문구들을 해석해보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간에 다른 자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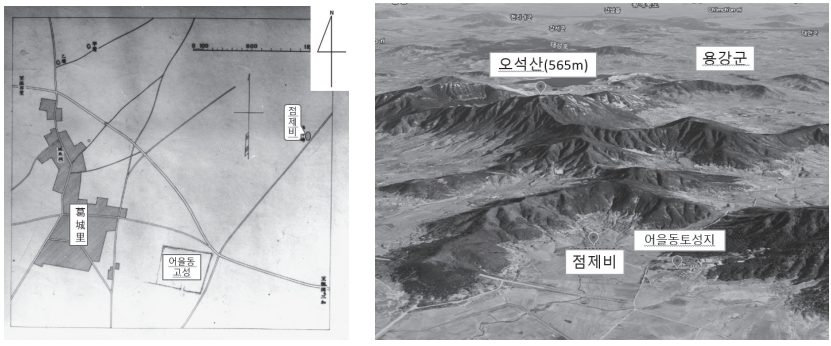


그림 2 어을동토성과 점제비, 오석산의 위치(朝鮮總督府, 1919, 『古蹟調査特別報告(1)—平壤附近に於ける樂浪時代の墳墓—』, 京城: 朝鮮總督府)

된다.[11] 전반적으로 4글자씩의 형식에 맞춰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확인되는 2, 3, 4행의 1열 위로는 글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먼저 비의 호칭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 비는 '점제장(秥蟬長)'이라는 2차례의 표현과 '신사(神祠)'라는 표현을 통해 '점제현신사비'로[12] 지칭하기도 했으며, 제사 대상에 대한 봉호로 보이는 4행의 '평산군'에 주목하여 '한평산군사비(漢平山君祠碑)',[13] '평산군비',[14] '평산신사비',[15] 혹은 '점제평산군비'로[16] 지칭하기도 했다.

---

11 水谷悌二郎, 1959, 「秥蟬碑文考」, 『書品』 104, 49쪽.

12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46~147쪽; 林起煥, 1992, 「秥蟬縣 神祠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201쪽.

13 嚴耕望 編, 1980, 『石刻史料叢書(甲編)(76)-海東金石苑補遺-』, 藝文印書館에 수록된 劉承幹 撰, 『海東金石苑補遺-附錄-(1)』, 1쪽의 내용 참조.

14 金鍾太, 1975, 「樂浪時代의 銘文」, 『史學志』 9, 2쪽.

15 永田英正 編, 1994, 『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篇)』, 京都: 同朋舍出版, 268쪽.

16 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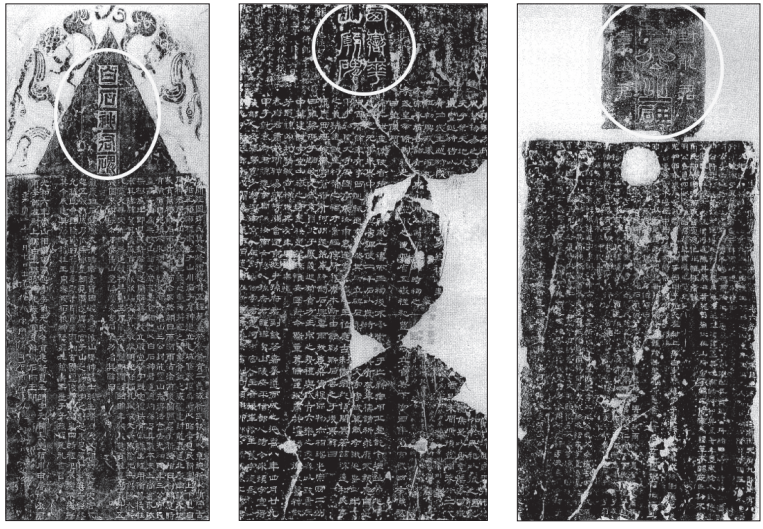


그림 3 (왼쪽부터) 후한대의 백석신군비·서악화산묘비·삼공지비의 탁본(永田英正 編, 1994, 『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篇)』, 京都: 同朋舍出版).
※ 이 비들은 상부 제액에 기재된 봉호로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후한대에 지방의 산신에 대한 제사를 기록한 비들은 제액에 나온 산신의 봉호가 비의 명칭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점제비의 경우 상부가 파손된 상태라 제액이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같은 성격의 후한대 지방 산신제사비들과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면 제사 대상의 봉호를 비의 호칭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점제비의 4행에 보이는 제사 대상의 명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입부가 "▨平山君"으로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미판독의 첫 번째 글자(4행 1열)는 아랫부분이 '比'과 비슷하다고 하여 곤(昆)자로 추정하기도 했다.[17] 특히 『동국여지승람』 권52 용강현조에 '군악(軍岳)'이라는 산명이 등장하며,

17 關野貞 外, 1927, 위의 책, 24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종실록』에는 용강현이 본래 고려의 황룡성(黃龍城)으로 일명 군악(軍岳)인데 지금의 명칭(용강현)으로 고쳐졌다는 기록이 있다.[18] 이를 미루어 볼 때 4행의 1열의 글자를 군(軍)과 음이 비슷한 곤(昆)으로 추정한다면 산의 봉호를 '곤평산군(昆平山君)'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9] 일단 4행 1열의 글자는 아래쪽의 잔획을 감안할 때 유(唯)나 부(夫)와 같은 발어사로 보기 어려우며, 봉호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平山君'). 다만 앞 글자가 곤(昆)자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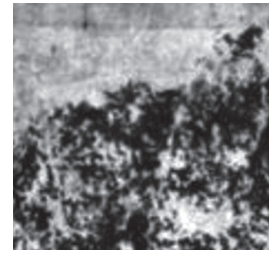


그림 4 점제비 4행 1열 부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 444)]

후술하겠지만, 이 비의 건립 목적은 '▨평산군'으로 지칭된 산신의 공덕을 찬양하고 그에 대한 제사를 기록하는 용도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한대의 다른 산신제사비들이 그 봉호를 기준으로 명명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점제비 역시 제사 대상에 내려진 봉호명을 중시하여 '▨평산군비'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독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하 본문에서는 계속 점제비라고 칭하겠다).

그림 5 점제비 1행 2~3열 부분(우측)[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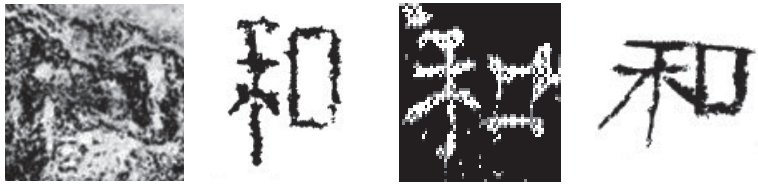
18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平安道 平壤府 龍岡縣. "龍岡 縣令一人 兼平壤道右翼兵馬 本高麗 黃龍城 一名軍岳 後改今名 本朝因之".

19 李丙燾, 1976, 앞의 책, 1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기존에 입비 시기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제1행의 "▨▨▨年四月戊午" 부분 판독이 주목되었다. 1행 1열의 글자는 해당 부분의 비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 판독할 수 없으며, 2열의 글자는 일부 자획만 보인다. 또한 3열의 글자는 뒷글자가 년(年)자인 것으로 보아 문맥상 숫자 혹은 원(元)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제2행의 글자들과 비교할 때 상하 폭이 비교적 좁은 글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자획이 분명하지 않아서 판독이 어렵다.

세키노 다다시는 1914년(대정 2) 12월 6일에 육안으로 비면을 확인한 끝에 1행 2열의 글자에 대해 좌측은 '禾', 우측은 '口'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아서, 화(和)자로 판독하기도 했다.[20] 실제로 글자의 좌측 부분에는 세로로 내려온 획이 일부 보이는데, 다소 불완전하나 이를 '禾'의 일부 획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글자의 우측 부분은 현재로서는 '口'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림 6〉의 예서의 화(和)자 사례들을 감안할 때 세로로 길게 내려온 획을 '口'의 일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도 1행 2열의 글자를 화(和)자로 추정한 견해에 따르고자 한다.



① 1행 2열(和) ② 후한 배잠기공비(裴岑紀功碑) ③ 후한 서악화산묘비(西嶽華山廟碑) ④ 한 전문(塼文)

그림 6 한대 금석문의 화(和)자 사례[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444) / ②, ④ 二玄社 편, 2007, 『大書源』, 東京: 二玄社 / ③ 書法字典, https://www.shufazidian.com/]

20 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40~2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1행 3열의 글자는 문맥상 숫자 내지 원(元)자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 글자를 상하 간격이 비교적 좁다는 이유만으로 이(二)자로 추정하기도 했다.[21] 또한 1~2열에 들어갈 연호에 대해서는 석비를 세우는 문화가 주로 후한대 이래 유행했다는 점에서 후한·조위·서진대의 연호 가운데 두 번째 글자가 화(和)자인 경우로 좁혀서 추정했으며, 특히 원화(元和) 2년(85) 후한 장제(章帝)의 조서에서 지방 "산천(山川)의 여러 신들 가운데 마땅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직 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러 제사를 확충·정비하고, 마땅히 제사를 받아야 할 자들을 논의하라"는 언급이[22] 있음에 주목하여, 위 1행의 1~4열을 "元和二年"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즉, 점제비의 입비 연도는 최종적으로 85년으로 비정된다는 것이다.[23]

그러나 연호 부분의 탁본을 다시 확인해보면, 일단 1행 3열의 글자획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24] 글자의 상하 간격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이(二)자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같은 이유로 원(元)자도 〈그림 7〉과 같이 상하 간격이 좁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점제비의 내용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점제현장을 비롯한 관원들이 주축이 되어 '▨평산군'이라고 불린 산신을 위한 신사를 축조(혹은 증축)했고, 뒤이어 각석을 했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내용만을 근거로 원화 2년(85)에 있었던 장제대의 조서 내용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스

21 關野貞 外, 1927, 위의 책, 242쪽.

22 『後漢書』 卷30 志第8 祭祀中 增祀. "章帝卽位 元和二年正月 詔曰 山川百神應祀者未盡 其議增修群祀 宜享祀者". 『後漢書』 卷3 肅宗孝章帝 劉炟 紀第3 元和2年條에도 "二月甲寅 始用四分歷 詔曰 山川鬼神應典禮者 尙未咸秩 其議增修羣祀 以祈豐年"이라는 기록이 있다.

23 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42~243쪽; 水谷悌二郎, 1959, 앞의 글, 46쪽; 李丙燾, 1976, 앞의 책, 147쪽; 葛城末治, 1978, 『朝鮮金石攷』, 亞細亞文化社, 91~93쪽.

24 林起煥, 1992, 앞의 글, 20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후한 원손잔비(元孫殘碑) ② 한 거연한간(居延漢簡) ③ 후한 조전비(曹全碑)

그림 7 한대 금석문의 원(元)자 사례[①, ② 二玄社 편, 2007, 『大書源』, 東京: 二玄社 / ③ 書法字典, https://www.shufazidian.com/]

럽다.[25] 예컨대 후한대에는 지방의 산신에 대한 제사를 장려하거나, 관련 조치를 언급한 기록들을 『후한서』나 석각 자료 등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 ⓐ-1 "영평(永平) 18년(75) 여름 4월 기미에 [황제가] 조(詔)하여 이르길, 「봄부터 이래로, 비가 올 때가 되어도 내리지 않았고, 보리도 상하여 피해를 입었다. 가을의 파종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정치도 그 중심을 잃어서 걱정과 두려움만 남았다. … 2천석 관리들은 오악(五嶽)과 사독(四瀆)에 나누어 기도하고, 군 경계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 중에 능히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자는 장리(長吏)가 각기 정결하게 재계한 뒤 기도를 올리고, 좋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라」고 하였다."[26]

ⓐ-1은 영평 18년(75)에 있었던 후한 명제(明帝)대의 조서 내용으로 각 군 경계의 명산에 대해 장리가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봄 이래의 가뭄에 의한 것으로 당시에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지역의

25 金鍾太, 1975, 앞의 글, 7쪽.

26 『後漢書』 卷2 顯宗孝明帝 劉莊 紀 第2, "夏四月己未 詔曰「自春已來 時雨不降 宿麥傷旱 秋種未下 政失厥中 憂懼而已(중략) 二千石分禱五嶽四瀆 郡界有名山大川 能興雲致雨者 長吏各絜齋禱請 冀蒙嘉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산에 대한 제사를 각 지방관들이 올리게 한 조처였다. 이러한 내용의 조서는 나라 안에 가뭄이 들 때마다 내려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산신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 관련 시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방의 산신 제사와 관련한 조정의 전언들은 정사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2 "연희(延熹) 7년(164)에 … 상산국(常山國)의 상(相)인 여남(汝南) 부파현(富波縣)의 채▨(蔡▨)와 장사(長史)인 감릉(甘陵) 광천현(廣川縣)의 목승(沐乘)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공경하고, 명사(明祀)를 공경하고 받들었다. 글을 올려 진언하니, 덕은 무젖어 백성에게 더해지고, 마땅히 규벽(珪璧)을 입을 만하며, 7종의 희생과 법식(法食)을 받을 만하며 ▨▨▨▨. 성조(聖朝)는 매우 밝으셔서 신(神)의 제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무인조서(戊寅詔書)에서 때에 응하여 허락하셨고, 대리(大吏)·낭성(郎選) 등에게 윤칙(允勅)하여 의민(義民)과 더불어 고사(故祠)를 수리하고, 마침내 가석(嘉石)을 채집하여 묘우(廟宇)를 조성하여 세우게 하였다."[27]

ⓐ-3 "광화(光和) 4년(181), 삼공(三公)이 백성을 지킴에 개고(蓋高) 등이 처음 무극산(無極山)을 위해 태상(太常)에 나아가 법식을 구하니, 상현(相縣)에 백석신군(白石神君)의 도덕이 밝게 드러났다. 이에 본말을 다 기록하고, 상서(尙書)에 글을 올려 무극(산의 사례)에 의거하여 비교를 삼으니 [상서에 의해] 곧 허락을 받았다. 이에 마침내 옛 예법에 따라 복을 기원하며 전당(殿堂)을 고쳐 세우니, 건

27 「封龍山之頌」. "延熹七年 … 常山相汝南富波蔡▨ 長史甘陵廣川沐乘 敬天之休 虔恭明祀 上陳 德潤加於百姓 宜蒙珪璧 七牲法食 ▨▨▨▨ 聖朝克明 靡神不擧 戊寅詔書 應時聽許 允勅大吏郎選等 與義民 脩繕故祠 遂采嘉石 造立觀闕." 이하 인용하게 될 「封龍山之頌」·「白石神君碑」·「西嶽華山廟碑」·「祀三公山碑」·「三公之碑」·「封龍山之頌」의 판독문은 永田英正 編, 1994, 앞의 책을, 「無極山碑」는 葉奕苞, 1984, 『金石録補續跋(4)』, 叢書集成新編本(49册), 臺北: 新文豐出版股份有限公司를 참고했다. 본문에서 이 비문들의 판독문을 제시할 때 별도 인용 표시는 생략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물이 이미 세워졌고, 예법과 질서가 일정하게 확립되었다."[28]

ⓐ-2는 연희 7년(164)에 세워진 「봉룡산지송(封龍山之頌)」(하북 원씨현)의 일부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무인조서'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내려진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그 내용은 조정에서 상산국의 상(相) 등이 올린 글을 받아들여서, 이를 근거로 상산국 내의 명산인 봉룡산의 고사(故祠)를 중수(重修)하고 묘우(廟宇)를 조성하여 세우는 등의 조치를 진행시킨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29] 그리고 ⓐ-3은 광화 4년(181)에 세워진 「백석신군비(白石神君碑)」의 내용인데, 이 경우에도 원씨현에서 상서(尙書)에 올린 제안을 근거로 하여, 옛 예법에 따라 백석신군에 대한 전당(殿堂)을 고쳐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허가(혹은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황제가 전국의 군현에 있는 지방 산천에 대한 제사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특정 군국에서 자기 지역의 명산에 대한 제사를 확충하거나 관련 시설을 중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에서 이를 최종 허가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업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지시가 이루어진 사례들은 석각 자료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현재까지 후한대의 산신제사와 관련된 석비는 장제대의 것은 보이지 않으며, 주로 후한말인 환제(146~167)와 영제(168~189)대에 집중적으로 조영되고 있다.[30] 그리고 이 비들 역시 문헌 기록에서는 그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유의된다. 그렇다면 낙랑군 점제비의 건립 연대를 반드시 『후한서』의 원화 2년(85)에 있었던 장제대의 지방 산천의 여러 신에 대한

28 「白石神君碑」. "光和四年 三公守民 蓋高等始爲無極山詣太常求法食 相縣以白石神君道德灼然 乃具載本末 上尙書求 依無極爲比 即見聽許 於是遂開祐舊兆 改立殿堂 營宇既定 禮秩有常."

29 田天, 2011, 「東漢山川祭祀研究 -以石刻史料爲中心-」, 『中華文史論叢』 2011-1, 123쪽.

30 金鍾太, 1975, 앞의 글, 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사 관련 조치(조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따르기 어렵다.

또한 점제비의 건립 연대와 관련해 비문 속의 표현도 주목된다. 점제비의 제4행에는 "▨平山君 德配代嵩"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대(代)'는 『서경(書經)』 순전(舜傳)의 "대종(岱宗)"이자 오악 중의 동악(東嶽)인 태산(泰山)을 가리키며, '숭(嵩)'은 중악(中嶽)인 숭고산(嵩高山)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한서』 영제(靈帝) 희평(熹平) 5년(176) 4월기에는 "다시 숭고산(崇高山)의 명칭을 숭고산(嵩高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협주(夾注)에는 전한 무제(武帝) 때에 중악(中嶽)을 제사 지내며 '숭고(嵩高)'를 '숭고(崇高)'로 고쳤음을 전한다.[31] 즉, 전한 무제 때에 '숭고(嵩高)'라는 명칭을 '숭고(崇高)'로 고쳤으며, 이후 후한 영제대인 희평 5년(176)에 이르러 중랑장(中郎將) 당계(堂谿)가 제언함에 따라 다시 숭고산(嵩高山)이라는 명칭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숭고산을 '숭(嵩)'으로 표기한 점제비의 연대를 논의할 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32]

또한 후한 광무제 이래 기원 190년까지 사용된 연호 가운데 연호 두 번째 글자의 우측 부분이 口 혹은 刀와 유사한 경우, 그중에서도 원년 혹은 7년 (음력)4월에 무오일이 있는 경우는 장제 건초(建初) 7년(82) 4월 21일 / 질제(質帝) 본초(本初) 원년(146) 4월 3일 / 영제 광화 원년(178) 4월 9일[33]이며, 이 가운데 연호의 두 번째 글자가 화(和)자인 경우는 영제 광화 원년(178) 4월 9일뿐이다. 전·후한대를 통틀어 산신에 대한 제사비들은 주로 후한말인 환제(146~167)와 영제(168~189)대에 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전한 무제대 이래로 '숭고(崇

31 『後漢書』 卷8 孝靈帝 劉宏 紀第8 熹平五年, "復崇高山名為嵩高山[前書武帝祠中嶽 改嵩高爲崇高 東觀記曰 使中郎將堂谿典請雨 因上言改之 名爲嵩高山]."

32 內藤虎次郎, 1914, 「朝鮮平安南道龍岡郡新出土漢碑釋文」, 『芸文』 5年3号, 1쪽; 水谷悌二郎, 1959, 앞의 글, 51쪽.

33 光和元年은 178년 3월부터 7년(184) 11월까지이며, 184년 12월 己巳日에 中平으로 改元했다(『後漢書』 卷8 孝靈帝 劉宏 紀第8 中平元年 十二月己巳條). 이 光和元年(178) 4월 중에 戊午日이 있다(內藤虎次郎, 1914, 앞의 글, 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라는 명칭이 쓰이다가 '숭고(嵩高)'라는 명칭이 다시 쓰이기 시작한 시점이 희평 5년(176) 이후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점제비의 건립 시기가 영제 광화 원년(178) 4월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점제비 1행의 연호에 해당하는 자획들과 4행의 '대숭(代嵩)'이라는 표현만으로 건립 연대를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한대 이래, 특히 지방 산천 제신에 대한 석비들이 다수 세워졌던 시기, 또 그 가운데 점제비의 건립 과정과 비교되는 내용이 포함된 석비의 사례들을 통해 그 건립 시기를 재차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2. 비문의 기재 방식과 행사 주도 집단

비문 제1~2행의 "秥蟬長▨▨▨建丞屬國 會▨[爲][衆] ▨▨▨神祠刻石辭曰" 부분은 입비 주체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앞의 '점제장'은 점제현의 현장을 의미하며, '회(會)'라는 동사는 공무(公務)와 관련해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앞에 나열된 관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찬집(參集)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34] 아마도 '▨평산군'과 관련된 모종의 행사에 점제현장을 비롯한 여러 관원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래 후한 광무제 이후에는 예제를 축소하면서 질이천석(秩二千石)의 관, 즉 군국의 장관이 오악·사독에 대한 제사를 책임지게 했다는 기록이 「서악화산묘비」에 전한다.[35] 기존에 제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쳤던 현의 관원들이 이제 유교적 이념과 지식에 입각하여 지방의 자연신에 대한 국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36]

---

34 이성규,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연구총서 20), 동북아역사재단, 98~99쪽.

35 「西嶽華山廟碑」, "建武之元 事擧其中 禮從其省 但使二千石以歲時往[祠] 其有風旱, 禱請祈求, 靡不報應." 이와 관련한 설명은 田天, 2011, 앞의 글, 112쪽의 내용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히 후한대에는 오악 이외에 여러 지방의 산신에 대한 제사 역시 해당 군국의 여러 관원들이 담당한 사례를 다수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후한 중후기의 지방 산신제사와 관련된 비로 알려진 「사삼공산비(祀三公山碑)」·「삼공지비」·「백석신군비」·「무극산비」 등에도 산신제사에 참여했던 군현의 관원 명단이 나열되고 있다.

ⓑ-1 원초(元初) 4년(117) 상산상(常山相)인 농서(隴西)의 풍군(馮君)이 관에 이르니, … 장사(長史)인 노국(魯國)의 안▨(顔▨), 오관연(五官掾)인 염우(閻祐), 호조사(戶曹史)인 기수(紀受), 장작연(將作掾)인 왕▨(王▨), 원씨령(元氏令)인 모애(茅厓), 승(丞)인 오음(吳音), 정연(廷掾)인 곽홍(郭洪), 호조사인 적복(翟福), 공(工)인 송고(宋高) 등이 돌에 새겨 기록했다.[37]

ⓑ-2 광화(光和) 4년(180) 신유년 4월 계해가 초하루인 달의 2일 갑자에 원씨현의 좌위(左尉)인 상군(上郡) 백토현(白土縣) 출신의 번위(樊瑋)는 자가 자의(子義)이다. 위(瑋)는 거칠고 궁벽한 곳에서 낮고 비루한 지위를 무릅쓰고 나와 종사하니 … 이때 장사는 감릉(甘陵) 감릉현의 하방(夏方)으로 자는 백양(伯陽)이며, 현(령)은 경조(京兆) 신풍(新豐)의 왕익(王翊)으로 자는 원보(元輔)이다. 승은 하남(河南) 양무(陽武)의 이소(李邵)로 자는 공흥(公興)이다.[38]

ⓑ-3 광화 6년(183) 상산상인 남양(南陽) 풍순(馮巡)은 자가 계조(季祖)요, 원씨령인 경조 신풍의 왕익은 자가 원보이다. 장사는 영천(潁川) 신도(申屠)의 웅(熊)

---

36 金龍瀡, 2014, 「古代 中國의 山川 祭祀와 국가 권력」, 『中國古中世史硏究』 34, 31쪽; 金龍瀡, 2020, 「秦·漢 帝國 國家祭祀의 世俗化」, 『中國古中世史硏究』 55, 115쪽.

37 「祀三公山碑」, "[元]初四年 常山相隴西馮君到官 承饑衰之後 [深][惟]三公御語山 三條別神 迴在領西 吏民禱祀 興雲膚寸 遍雨四維 … 民無疾苦 永保其年 長史魯國顔〈氵+巴〉 五官掾閻祐·戶曹史紀受·將作掾王〈竹+冊〉 元氏令茅厓·丞吳音·廷掾郭洪·戶曹史翟福·工宋高等刊石紀焉."

38 「三公之碑」, "光和四年 歲在辛酉 四[月][癸][亥]朔二日甲子 元氏左尉上郡白土樊瑋字子[義] 瑋[以]▨荒戎陵側陋 出從 … 時長史甘陵甘陵夏方字伯陽 令京兆新豐王翊字元輔 丞河[南]陽武李邵字公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며, 승은 하남(河南)의 이소, 좌위(左尉)는 상군 백토(白土)의 번위(樊瑋), 사사연(祠祀掾)은 오의(吳宜), 사(史)는 해미(解微), 석사(石師)는 왕명(王明)이다.[39]

ⓑ-4 상산상인 남양 풍순은 자가 계조요, 장사는 영천 ▨신도의 웅이며, 자는 ▨▨다. 원씨령은 경조 신풍의 왕익이며 자는 원보다. 좌위는 상군 백토의 번위이며 자는 자의다. 사사연은 ▨현이며, 염향▨연(廉香▨掾)은 和▨ ▨▨▨▨祠 인덕연(仁德掾)은 번숙(樊淑)이며, 사는 오의, 소리(小吏)는 오흑(吳黑)이다.[40]

ⓑ-1~4에서는 상산국 원씨현 일대의 산신에 대한 제사 과정에 참여한 군(국)의 관원인 국상(國相)·현령·장사(長史)·승(丞)·좌위(左尉)·연(掾)·사(史)·소리(小吏) 등의 관명·출신·이름·자 등이 나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상산국에서 산신제사를 주재했던 관원 가운데 최고위직은 국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상 외에 소속 관리로 장사가 보이며, 현령·승·좌위, 그리고 제사를 전문으로 책임지는 각종 연관(掾官), 사·소리·석사 등이 등장한다. 즉, 상산국의 산신제사는 관련 실무자들 이외에도 주요 장관과 관원 다수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때로는 ⓑ-2의 사례처럼 국상이 참여하지 않고 원씨현의 좌위인 번위가 제사를 주도한 가운데 장(사)·현령·승 등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41]

기재 방식을 보면, ⓑ-1, ⓑ-3, ⓑ-4의 경우 상급자에서 하급자 순으로 표기되는 가운데, 각각의 관명·출신지·인명·자 등이 함께 기재되고 있다는 점이

39 「白石神君碑」, "光和六年 常山相南陽馮巡 字季祖 元氏令京兆新豐王翊 字元輔 長史潁川申屠熊 丞河南李邵 左尉上郡白土樊瑋 祠祀掾吳宜 史解微 石師王明."

40 「無極山碑」, "常山相南陽冠軍馮巡 字季祖 長史潁川▨申屠熊 字▨▨ 元氏令京兆新豐王翊 字元輔 丞河內▨▨▨▨▨ 左尉上郡白土樊瑋字子儀 祠祀掾▨賢 廉香▨掾和▨ ▨▨▨▨ 祠仁德掾樊淑 史吳宜 小吏吳黑."

41 田天, 2011, 앞의 글, 130~1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징이다. ⓑ-2에서도 앞에 제사의 실무자였던 좌위 번위가 단독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이후 참석자를 재차 나열하는 문구에서는 장사 → 현령 → 승으로 상급자 우선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제비의 경우 모두(冒頭)에 연호와 월을 적은 이후 가장 먼저 '점제장'이 기재되었는데, 그가 이 행사의 최고 상급자이자 대표자임이 분명하다. 후한대의 지방 산신에 대한 제사를 군태수가 아닌 현장이 주도한 하나의 사례로서 주목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1~4의 기재 양식을 감안할 때, 점제장 뒤에는 그의 출신지나 이름,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휘하 관원의 직위와 인명 등이 나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점제비 2행 1~2열 부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 444)]

이와 관련해 "秥蟬長▨▨▨建丞屬國會▨[爲][衆]"에서 '승'과 '속국'의 존재를 상정하는 견해가 있었다.[42]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점제장과 '승', '속국'이 모여서

42 2행의 丞屬國을 '丞'과 '屬國'으로 분리해보는 가운데, 屬國이 遼東屬國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며(水谷悌二郎, 1959, 앞의 글, 49~50쪽), 낙랑군에서 현의 외부의 이민족에 대해 그 고유한 法俗을 허용하는 自治的 지방의 의미로 보기도 했고(勞幹, 1979, 「秥蟬縣神祠碑之研究」, 『東方學志』 23·24合, 320쪽), '점제현에 소속된 國'이라는 의미로 보아 邊郡인 낙랑군에 각 현마다 이민족 지배를 위해 설치한 행정단위로서 지역 자체의 俗律이 잔존한 상태에서 토착 渠帥를 매개로 간접지배한 곳으로 파악하기도 했다(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55~58쪽). 한편, 2행의 '建丞屬國'을 '遼丞屬國'으로 판독한 가운데, 이를 '遼東屬國'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으나(陈世庆, 2013, 「《平山神祠碑》旧释建丞属国应为遼丞属国考」, 『学术界』 2013-3, 199~202쪽), 일단 '遼'자의 판독에 따르기 어려우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遼丞屬國'이 '요동속국'을 의미한다는 주장 역시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會) 신사를 ▨하고 각석(刻石)했다는 내용이 된다. 그러나 현장·승과 더불어 지역단위 내지는 행정단위로 상정되는 속국이 나란히 기재된 것은 서로 격이 맞지 않는다. 또한 승과 속국이 모두 관명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이들의 인명이 기재될 공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43] "秥蟬長▨▨▨建" 부분에서 건(建)자는 문맥상 인명으로 판단되므로, 이 문장은 점제장+인명, 관명+인명(建)의 형태로 기재됐다고 판단되는데, 이어서 나열된 '승'과 '속국'이 관명이라고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인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므로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그 밖에 "丞屬國會"를 丞이 관장하는 국회(國會: 회의)라는 의미로 본 해석도 있었다.[44] 그러나 앞뒤 문장의 맥락 속에서 승이 관장하는 '국회'(회의)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즉, 앞에 기재된 최상급자인 점제현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승이 관장하는 '국회'가 뒤이은 ▨신사 및 각석 등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秥蟬長▨▨▨建丞屬國會▨[爲][衆]"을 "점제장인 ▨, [좌(우)위인] 건, 승속인 국이 모

① 2행 1열 ② 후한 선어황비(鮮於璜碑) ③ 후한 선어황비(鮮於璜碑) ④ 후한 조의비(趙儀碑)

그림 9 한대 금석문의 위(尉)자 사례[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444) / ②~④ 書法字典, https://www.shufazidian.com/]

43 이성규, 2006, 앞의 글, 93~94쪽.

44 金鍾太, 1975, 앞의 글, 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서(會)"로 해석하여, 3인의 관명+인명이 차례로 나열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45] 이에 따르면 승속은 군승(郡丞)에 직속한 속관을 가리키며, 국은 그의 이름이 된다. 승속의 직위가 좌(우)위보다 하위였기에 다음 순서로 기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4에 보이는 산신제사 관련 비문들의 관원 나열 방식, 그리고 당시 공문서의 형식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2행 1열의 글자 아래쪽에 있는 잔획도 위(尉)자의 하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그림 9 참조). 또 점제비는 후한대 산신제사비들과 비교할 때 글자 수가 매우 적으므로, 기재한 관원의 수가 3인으로 제한되었고, 그들의 출신이나 자(字)를 기재하지 않고, 오직 관명과 이름만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판독을 감안할 때 몇 가지 수정을 요하는 점들이 있다. 우선 이성규는 점제장 뒤의 인명 부분이 1글자이며,[46] 그 뒤에 좌(혹은 우)위라는 관명, 그리고 건이라는 1글자 인명이 나온다고 보았다. 그런데 1행 13열의 글자는 남은 자획을 감안할 때 결코 좌(左) 혹은 우(右)자가 되기 어렵다. 기존에도 형태상 이를 흥(輿)자의 좌측 부분이 유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47] 그렇지만 이어지는 2행 1자는 하부의 남은 자획을 감안할 때 위(尉)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10 점제비 1행 12~13열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본관 444)]

45 이성규, 2006, 앞의 글, 95~100쪽.

46 이는 涉자로 추정하기도 하는데(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41쪽), 필자 역시 涉 혹은 海자에 가깝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姓氏가 아닌 諱로 생각된다.

47 關野貞 外, 1927, 앞의 책, 241쪽; 李丙燾, 1976, 앞의 책, 147쪽; 金鍾太, 1975, 앞의 글, 4쪽; 權五重, 1992, 앞의 책, 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서 이 문장은 "점제장인 ▨▨(2글자 인명), 위(尉)인 건(1글자 인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장의 이름이 두 글자인 점이 어색할 수 있으나,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2호분에서 발견된 '부조현장(夫租縣長) 고상현(高常賢)'의 경우에도 성씨+두 글자 인명이 확인된다. 또한 본래 점제현은 '현장'이라는 직위명에서 보이듯, 1만 호 이하의 작은 현에 해당하며, 이런 곳에는 규정상 1인의 현위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48] 이에 점제현에서 활동했던 현위의 직위명을 '위'로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점제비의 1~3행에 기재된 내용은 [광]화[원]년 4월 무오에 점제현장인 ▨▨, (현)위인 건, 승속인 국이 모여서 '▨신사'와 '각석'을 진행했다는 것이 된다.

한편, 4행부터는 ▨평산군의 공덕을 찬양한 송사가 이어지는데, 이 역시 후한 후기에 만들어진 산신제사비들, 특히 「봉룡산지송」·「백석신군비」·「무극산비」의 '기사왈(其辭曰)', 「삼공지비」의 '송왈(頌曰)'로 송사가 시작되는 것과 형식이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송사의 내용 면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보이는데,[49]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와 같다.[50]

▶「점제비」: "▨평산군의 덕은 대산과 숭산에 나란히 하니"("平山君德 配代嵩承").

ⓒ-1 「봉룡산지송」: "삼공·영산과 더불어 덕을 좇고 공훈을 나란히 하였다."[51]

ⓒ-2 「삼공지비」: "덕은 오악에 나란히 하였다."[52]

▶「점제비」: "좋은 바람과 비를 일으키고, 땅을 은혜롭게 적시며, ▨▨가 장수하

48 『後漢書』 志第28 百官5 縣鄕, "縣萬戶以上爲令 不滿爲長 (…) 尉大縣二人 小縣一人."

49 權靜, 2004, 앞의 글, 42~43쪽.

50 ⓒ-2, ⓒ-3, ⓒ-5는 權靜, 2004, 앞의 글, 42~43쪽에 제시되었던 사례들이다.

51 「封龍山之頌」, "與三公靈山 協德齊勳."

52 「三公之碑」, "德配五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하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게 하며, 도적이 일어나지 않고, ▨▨가 숨어 있게 하며, 길함과 이로움을 출입시켜 (백성들이) 모두 신이한 영광을 받게 하나이다."("興甘風雨 惠[閐]土田 五穀豊成 盜賊不起 ▨▨[蟄]藏 出入吉利 咸受神光").

ⓒ-3「사삼공산비」: "단비가 때마침 내리니 보답함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듯하였고, 국경에 대풍이 들어 곡식이 1두에 3전에 불과했으며, 백성들은 질고(疾苦)가 없었다."[53]

ⓒ-4「봉룡산지송」: "하늘과 더불어 함께 빛나니, 능히 구름을 데워 올리고 비를 일으키며…"[54]

ⓒ-5「삼공지비」: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고, 백성의 근심을 제거하였도다."[55]

ⓒ-6「무극산비」: "험준한 산봉우리에 (雲氣가) 조금씩 모여드니, 구름을 일으켜 성대하도다. 비가 우리의 공전(公田)에 내리고, 마침내 우리의 사전(私田)에 미쳤구나. 백곡(百穀)이 잘 여물어, 집집마다 쌓이니…"[56]

ⓒ-7「백석신군비」: "능히 빛이 널리 비추고, 일출이 밝게 비추니, 그해의 곡식이 잘 여물고, 백성들은 풍성하고 그득하였다."[57]

ⓒ에서 점제비와의 비교를 위해 제시된 석비들은 주로 후한말인 160년대 혹은 180년대에 상산국 원씨현에 세워진 산신제사비들이다. 위의 송사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점은 첫째, 명산은 백성들의 생산과 생활을 보호하는 신성(神性)을 지녔다는 점, 둘째, 명산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신성을 지

53 「祀三公山碑」, "甘雨属降 報如景響 国界大豊 穀斗三銭 民無疾苦."
54 「封龍山之頌」, "與天同燿 能烝雲興雨."
55 「三公之碑」, "興雲致雨 除民患兮."
56 「無極山碑」, "觸石膚寸 興雲祁祁 雨我公田 遂及我私 百穀用成 家有其資."
57 「白石神君碑」, "用能光遠宣朗 顯融昭明 年穀歲熟 百姓豐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녔다는 점이다.[58] 즉, ⓒ의 산신제사비들에서는 명산에 신성을 부여한 가운데, 제사를 통해 비(雨)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점제비 역시 1~2행에서 현장 이하의 관원들이 나열된 방식이 공문서 기재 형태로 보이는 점, 그리고 ▨평산군이라는 정식 봉호가 있다는 점 이외에 송사의 내용 면에서도 후한말에 관 주도로 세워진 산신제사비들과 비교되는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III장에서는 후한말의 산신제사비들이 건립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점제비의 사례와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보겠다.

Ⅲ. 비의 건립 목적과 시대적 배경

1. 후한말 지방 산신(山神) 제사의 공인(公認) 과정

후한대에 이르러 '오악'에[59] 대한 제사와 기타 지방의 명산에 대한 제사가 구분되었는데, 후한의 각 지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산신제사와 관련된 석각 자료들도 오악 제사와 관련된 비 혹은 오악에 속하지 않는 각 지방의 산신 제사와 관련된 비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원초(元初) 4년(117)의 「사삼공산비」, 본초 원년(146)의 「삼공산신비」, 광화 4년(181)의 「삼공지비」, 연희 7년(164)의 「봉룡산송」, 광화 4년(181)의 「무극산비」, 광화 6년(183)의 「백석신군비」 등이 있다.[60] 점제비의 '▨평산'은 전한대에 지정

58 张鹤泉, 2011, 「汉碑中所见东汉时期的山岳祭祀」, 『河北学刊』 2011-1, 63~64쪽.

59 五嶽은 중국의 中嶽인 崇山, 東嶽인 泰山, 西嶽인 華山, 南嶽인 衡山 그리고 北嶽인 恒山을 가리킨다. 四瀆는 중국의 獨流入海하는 4대 강을 가리키며, 長江·濟水·黃河·淮水를 말한다. 前漢 宣帝代인 기원전 61년부터 五嶽·四瀆을 함께 제사 지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 '오악'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지방 산신제사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후한대에 이러한 지방 산신제사비를 세운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산국 원씨현에 세워진 여러 산신제사비의 내용이 참고된다. 상산국 원씨현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삼공산비」[원초 4년(117)]를 비롯해 총 6기의 산신제사 관련 비들이 남아 있다.[61] 이 가운데는 원씨현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지역 내의 특정 산의 산신에 대한 제사를 승인해줄 것을 조정에 요청한 내용들이 보인다. 먼저 광화 6년(183)에 제작된 「백석신군비」의 내용을 살펴보자.

> ⓓ 백석신군은 구산(九山)의 범주에 있고 삼조(三條)의 하나로서, 장군(將軍)의 호를 겸하며, 부월(斧鉞)의 위의를 갖추었다. 봉룡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운은 북악과 통하고, 은연중에 천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만물을 기른다. 그는 돌을 치면 출현하고, 한 치 크기에서 수렴한다. 하루를 끝내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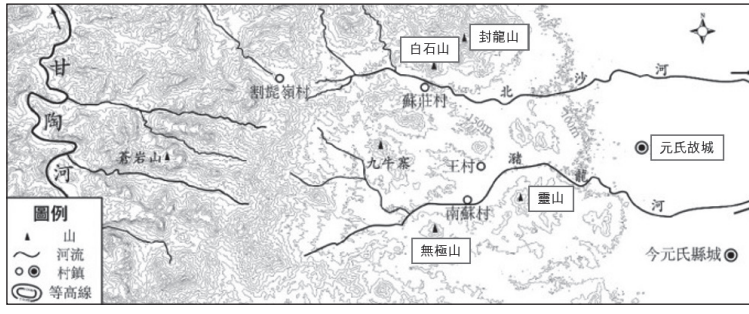


그림 11 원씨현 서부의 주요 산 분포도(葛少旗, 2020, 「『晉地道記』所見諸塞與魏晉時期的太行山防線」,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41)

60 田天, 2011, 앞의 글, 106~107쪽.

61 藤田高夫, 1998, 「漢代元氏県の山岳祭祀」, 『關西大學文學論集』 48-2, 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축축해지며, 전후로 군현에서 누차 기청(祈請)하면 날짜에 정확히 응답하여 징험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오히려 스스로 겸손하고 품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원씨]현의 경계에 6개의 명산(名山)이 있는데 삼공·봉룡·영산이 앞서 법식(法食)을 얻었다. 지난 광화 4년에 삼공의 수민(守民)인 개고 등이 비로소 무극산을 위해 태상(太常)에 아뢰어 법식을 구하였다. 상현(相縣)에서 백석신군의 도덕이 빛남으로써 이에 본말을 자세히 실어서 상서(尙書)에 올렸고, (법식을) 요구함에 무극(산)의 사례에 의거해 비교로 삼았으니 곧 허락되었다. 이에 마침내 옛 제단을 확장하고 전당(殿堂)을 고쳐 세우니, 건물이 이미 완성됨에 예절과 위계가 일정해지게 되었다. 현은 경비를 내놓았고, 그 희생을 갖추었으며, 그 규벽을 바쳤고 제향에 사용할 곡식도 정결하게 마련했다.[62]

ⓓ에는 백석신군이라 불리는 산신에 대해 '법식'을 얻는(得) 과정이 나와 있다. '법식'을 얻는다는 것은 지방의 산신에 대한 제사를 중앙의 사전(祀典)에 등록하고, 산신의 봉호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군현에서 이를 요청한 행위는 '구법식(求法食)'이라고 표현되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백석산은 '구법식'하기 이전에 이미 '장군'의 봉호가 있었다. 이후 원씨현에서 삼공산·봉룡산·영산, 그리고 무극산이 법식을 얻은 전례를 언급하면서 백석산을 위한 '법식'을 구하고자 했다고 한다.[63] 이에 현에서 상서에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조정의 승인을 받았

62 「白石神君碑」, "白石神君 居九山之數 參三條之壹 兼將軍之號 秉斧鉞之威 體連封龍 氣通北嶽 幽贊天地 長育萬物 觸石而出 膚寸而合 不終朝日 而澍雨沾洽 前後國縣 屢有祈請 指日刻期 應時有驗 猶自挹損 不求禮秩 縣界有六名山 三公·封龍·靈山 先得法食去 光和四年 三公守民 蓋高等 始爲無極山詣太常求法食 相縣以白石神君道德灼然 乃具載本末上尙書 求依無極爲比 即見聽許 於是 遂開祏舊兆 改立殿堂 營宇既定 禮秩有常 縣出經用 備其犧牲 奉其珪璧 絜其粢盛."

63 보통 후한 중기에 원씨현에서 三公山神의 제사 法食을 구한 것을 계기로, 이웃한 다른 산들도 이를 따라서 6기에 가까운 많은 산신제사비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으로 본다(魏斌, 2021, 「東漢地方神祠的信仰形態」, 『中華文史論叢』 14-1, 70~7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이 과정에서 비문에 기재된 '백석신군'이라는 봉호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정의 명을 받들어 옛 예법에 따라 복을 기원하며 백석산의 기존 전당을 고쳐 세웠다고 하는데, 이때 참여한 관리들은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상산상·원씨령·장사·승·좌위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64]

위 기록을 통해 군국에서 본지의 산천 제사를 국가로부터 정식 승인받기 위해 진행했던 행정적인 절차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령이나 태수 혹은 국상 등 지방관이 중앙의 태상에게 백석산의 '법식'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일정한 수속을 거쳐 태상이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재가(청허) 이후 이 명산은 일정한 지위(봉호)를 얻었기에 현 차원에서 제사를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65]

이때 조정에서 자연물인 산에게 '군(君)'이라는 인격화된 봉호를 내린 것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상산국 원씨현에 있는 명산으로 '법식'을 얻은 봉룡산과 영산·백석산 역시 각각 '봉룡군'과 '영산군', '백석신군'이라는 인격화된 봉호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산천신의 인격화된 봉호는 전한대에 이미 유행하기 시작하였고,[66] 그 후대에도 산천신을 인작(人爵)에 가봉(加封)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난다.[67] 후한대에도 조정으로부터 지방의 산신으로 인정받은 존재에 대해 인격화된 봉호가 내려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조정의 재가에 의해 산신에 대한 제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옛 예법에 따라 복을 기원하며 전당을 고쳐 세우니 건물이 이미 세워졌고, 예법과 질서가 일정하게 확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산신에 대한 제사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전당을 고쳐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식을 얻는 과

64 「白石神君碑」, "光和六年 常山相南陽馮巡 字季祖 元氏令京兆新豐王翊 字元輔 長史潁川申屠熊 丞河南李邵 左尉上郡白土樊瑋 祠祀掾吳宜 史解微 石師王明."

65 田天, 2011, 앞의 글, 128~129쪽.

66 好並隆司, 1978, 『秦漢帝國史の研究』, 東京: 未來社, 344쪽.

67 雷聞, 2009, 『郊廟之外(隋唐国家祭祀与宗教)』, 北京: 三聯書店, 38~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과 산신의 덕을 찬양하는 송사를 기록한 석비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씨현에서 「백석신군비」를 건립한 것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산신의 봉호를 받고, 관련 지시에 따라 제사 시설을 증축하는 등의 일을 기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봉룡산지송」[후한 연희 7년(164)]에도 상산국 원씨현에서 봉룡산신에 대한 '법식'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국가 공인의 제사 자격을 비준받는 과정이 기록되었다.

> ⓔ 대저 봉룡산이라는 것은 북악의 영원(英援)으로 삼조(三條)의 별신(別神)이다. … 능히 구름을 데워 올리고 비를 일으키며, 삼공·영산과 더불어 덕을 좇고 공훈을 나란히 하였다. 나라는 예부터 순차를 매겨 이를 제사 지냈고, 이를 삼망(三望)으로 삼았다. 그런데 망신(亡新)의 때를 만나 그 전사(典祀)를 잃었다. 연희(延熹) 7년 … 상산상인 여남(汝南) 부파현(富波縣)의 채▨과 장사인 감릉 광천현의 목승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공경하고, 명사(明祀)를 공경하고 받들었다. 글을 올려 진언하니, 덕은 무젖어 백성에게 더해졌고, 마땅히 규벽을 입을 만하며, 7종의 희생과 법식을 받을 만하며 ▨▨▨▨. 성조(聖朝)는 매우 밝으셔서 신(神)의 제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무인(戊寅)의 조서에서 때에 응하여 청허(聽許)하셨고, 대리(大吏)·낭선(郎選) 등에게 조칙을 내리시니, 의로운 백성과 더불어 옛 사당(故祠)을 수리하고, 마침내 가석(嘉石)을 채집하여 묘우(廟宇)를 조성하여 세웠다. 기장밥과 피밥은 향기롭고, 희생은 살이 찌고 크다. 신의 흠향함이 감응하니, 삼령(천지인)은 융합하고, 만물은 저마다의 형체를 이루며, 농사는 좋은 곡식을 잘 익게 하고, 곡식값은 3전에 이르며, 하늘은 기운은 조화롭다. 이에 공을 기록하고 새겨서 이로써 명성을 현창한다.[68]

68 「封龍山之頌」, "常山相汝南富波蔡▨ 長史甘陵廣川沐乘 敬天之休 虔恭明祀 上陳 德潤加於百姓 宜蒙珪璧 七牲法食 ▨▨▨▨ 聖朝克明 靡神不擧 戊寅詔書 應時聽許 允勅大吏郎選等 與義民脩繕故祠 遂采嘉石 造立觀闕 黍稷既馨 犧牲博碩 神歆感射 三靈合化 品物流形 農寔嘉穀 粟至三錢 天應玉燭 於是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따르면 원래 봉룡산은 삼공·영산과 더불어 덕을 좇고 공훈을 나란히 할 정도의 신이기에 제사를 지내며 이를 삼망(三望)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왕망 신대(新代)에 그 제사의 상례(常禮)를 잃었다고 한다. 이에 상산상인 채▨과 장사인 목승이 봉룡산의 '법식'을 구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현에서는 사당을 수리하고 묘우(廟宇)를 조성하여 제사를 지냈고, 이후 산신의 명성을 현창하는 내용을 적어 석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산국에서 봉룡산에 대한 '법식'을 요청한 이후, 조정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봉호를 내렸고, 이후 원씨현 차원에서 사당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석비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산신제사비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점제비의 건립 배경 및 과정과 관련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점제비의 1~3행에는 [광화원]년 4월 무오에 점제현장인 ▨▨, (현)위인 건, 승속인 국이 모여서 '▨신사'와 '각석'을 진행했다고 하였다. 비록 위의 다른 비들과 같이 구체적인 입비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기 지역의 산신제사를 조정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과 이후 제사 시설의 확충(▨신사), 그리고 입비로 이어지는 과정(각석)이 진행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점제비의 건립 이전에 낙랑군 차원에서 조정에 점제현의 ▨평산에 대한 제사의 공식화와 관련 시설의 신설(혹은 증설)을 요청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는 낙랑태수를 거쳐 중앙의 상서령에게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조정으로부터 '▨평산군'이라는 봉호가 내려지면서 그 지위에 맞게 제사 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조정에서 봉호를 받은 직후에 낙랑군의 현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평산 근처에 제사 시설을 신설(혹은 중수)했을 수도 있다.[69] 이에 점제현에서

功刊勒 以炤令問 其辭曰."

69 후한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지방 명산을 제사 지내기 위해 근처에 祠廟를 건설했으며, 이는 전한시대 이래의 제사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白石神君碑」에 의하면 당시 국가에 의해 산신에 대한 제사를 허락받은 직후, 현지 관료들이 먼저 명산 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점제장과 현위, 승속이 주축이 되어 ▨평산군을 위한 신사를 축조(혹은 증설)하였고, 최종적으로 관련 절차와 송사가 포함된 내용을 새긴 점제비를 세웠던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군현 차원의 지역 산신제사에 대한 승인 요청이 후한말인 환제·영제대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유의된다. 「백석신군비」의 경우 광화 4년(181)에 '법식'을 구한 뒤 최종 승인을 얻어 사당의 증축과 입비가 이루어진 시점은 광화 6년(183)으로 보인다.[70] 또 ⓔ에 따르면 「봉룡산비」는 후한 연희 7년(164)경에 '법식'을 구하여 조정의 허가를 얻은 뒤에 세워졌다. 또다른 산신제사비인 「무극산비」도 광화 4년(181)에 '구법식'이 진행된 후 건립되었다고 한다.[71] 이처럼 환제·영제대에 다수의 산신제사비가 건립된 현상은 같은 성격의 점제비가 건립된 연대를 후한말 영제대인 광화 원년(178)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제·영제대에 다수의 산신제사비들이 세워진 시대적 배경을 점제비의 건립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2. 비의 건립 배경과 점제현

점제비는 후한대에 만들어진 다른 산신제사비들에 비해 전체 크기가 작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글자 수가 적어서 내용도 축약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점제현의 재정 규모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조정의 비준하에 상산국 원씨현에서 이루어진 산신제사들의 경우, 제사에 필요한 제사 용구나 기타 비용을 상산국 혹은 원씨현이 부담한 사례들이 보인다.

처에 제사 전각을 설치한 사례를 볼 수 있다(张鹤泉, 2011, 앞의 글, 64~65쪽).

70 永田英正 編, 1994, 앞의 책, 238쪽.

71 藤田高夫, 1998, 앞의 글, 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후한대 점제비와 주요 산신제사비들의 크기 및 글자 수 비교

비명	제작연도	크기(높이×폭)	행수, 글자 수
삼공산신비	146	164cm×102cm	앞면 19행, 뒷면 14행 (비면 박락으로 총 글자 수 불명)
봉룡산지송	164	175cm×89cm	15행(1행 26자)
삼공지비	181	178cm×83cm	24행(1행 40자)
백석신군비	183	190cm×76cm	앞면 16행(1행 35자) 뒷면 상부 4행(1행 7~8자) 중·하부 12행(1행 6자)
점제비	178	140cm×96cm	앞면 7행(1행 12~13자) 뒷면 글자 없음

ⓕ-1 "본초(本初) 원년 2월 계유와 광화 2년 2월 무자에 조서를 내리셔서 그 현의 자금을 내어 사시(四時)의 제사 용구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무극산비」)[72]

ⓕ-2 "바라옵건대, 무극산을 삼공·봉룡·영산에 견주어서 제사 지낼 때 칠생(七牲)으로 하고, (상산국)왕가의 전(錢)을 내어 쓰면, 작은 비용으로 큰 복을 입을 것입니다."(「무극산비」)[73]

ⓕ-3 "청컨대 소부(少府)가 규벽을 지급하고 본 현에서 제사 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계유·무자의 조서에 있는 옛 일과 같이 하십시오."(「무극산비」)[74]

ⓕ-4 "이에 마침내 옛 예법에 따라 복을 기원하며 전당(殿堂)을 고쳐 세우니, 건물이 이미 세워졌고, 예법과 질서가 일정하게 확립되었다. 예질(禮秩)이 정해지자 현은 비용을 내었고, 그 희생을 갖추었으며, 규벽을 받들어 올렸다."(「백석신군비」)[75]

---

72 「無極山碑」, "本初元年二月癸酉·光和二年二月戊子 詔書出其縣錢 給四時祠具."

73 「無極山碑」, "乞合無極山比三公·封龍·靈山 祠▨七牲 出用王家錢 小費蒙大福."

74 「無極山碑」, "請少府給珪璧 本市祠具 如癸酉·戊子詔書故事報."

75 「白石神君碑」, "於是 遂開祏舊兆 改立殿堂 營宇既定 禮秩有常 縣出經用 備其犧牲 奉其珪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에 따르면 삼공산의 경우 본초 원년(146)과 광화 2년(179)에 조정의 명으로 원씨현이 삼공산신의 사시(四時) 제사에 필요한 제사 용구를 지급하게 했다. 또 ⓕ-2에서는 무극산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칠생(七牲)과 관련해 상산국의 왕가가 비용을 부담했던 정황이 보인다. ⓕ-3에 의하면 역시 무극산의 제사에 쓰이는 제사 용구를 본현인 원씨현에서 내도록 한 기록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4에서는 아예 백석산신에 대한 제사 비용을 원씨현에서 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76]

이처럼 ⓕ의 사례들을 통해 조정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직후, 지방의 산신에 대한 제사 확대와 사당 조영 및 석비 건립 과정 등에서 해당 지역의 군현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했음을 알 수 있다. 점제비에서 신사의 신축(혹은 증축)과 입비 과정을 주도한 것은 점제현장으로 나타난다. 또한 군급 관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점제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에서 지출이 가능한 비용의 다소는 해당 현의 재정 규모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점제현은 「삼공산신비」·「삼공지비」·「봉룡산송」·「백석신군비」 등의 여러 산신제사비가 세워진 상산국의 원씨현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현이었다. 후한대의 상산국은 전한대의 18현에서 규모가 일부 줄어든 13성(현)으로 구성되었지만, 호수 9만 7,500, 구수 63만 1,184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77] 그 가운데 원씨현은 상산국의 치소가 있는 수현(首縣)이었고, 「사삼공산비」(117)와 「백석신군비」(183) 등에서 원씨현의 장관은 모두 '원씨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현세가 1만 호 이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78]

반면 점제현은 전한대인 기원전 45년 당시에도 1,049호(6,332口)의 규모에

---

76 张鹤泉, 2011, 앞의 글, 66~67쪽.

77 『後漢書』 卷30 志 第23 郡國2 冀州. 상산국은 前漢代에는 18현으로 구성되었고, 호구 수는 14만 1,741호, 67만 7,956구였다(『漢書』 卷28上 地理志 第8上).

78 『後漢書』 志28 百官志. "每縣邑道 大者置令一人 千石 其次置長 四百石 小者置長 三百石 … 縣萬戶以上爲令 不滿爲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불과했으며, 이에 그 장관도 '점제장'으로 지칭되었다.[79] 또 낙랑군의 군세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던 후한말 당시에는 그 현세가 1,000호에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원씨현의 재정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점제비가 상산국 원씨현의 산신제사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글자 수가 적은 것은 점제현의 이러한 영세한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상산국 원씨현이 자기 지역 내의 산신제사들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행위는 원래부터 진행되어오던 제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구법식'을 통해 조정에 정식 제사로 등록 및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까닭은 무엇이며, 특히 그 시기가 후한말인 환제·영제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를 통해 상산국 원씨현이 봉룡산과 무극산·백석산 등의 산신에 대한 제사 공인을 조정에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산신제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한 조정의 공인이 해당 지역의 통치와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80] 이는 「봉룡산지송」·「무극산비」 등에 황제의 조서와 관련 공문서 내용 등을 제시해 공표한 행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전한 중반 이래로 지방의 산천에 대한 인격신 신앙은 민간 차원에서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었다.[81] 이는 후한말의 사회 계급 갈등, 도가(道家) 사상의 확산이 한 원인이었으며, 이에 산천신에 대한 신앙은 농민반란 세력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기존 체제를 파괴하는 성격을 띤 후한의 민간신앙이나 황건의 난과 같은 농민반란도 지역 산천을 거점으로 삼아 유대를 강

79 田中俊明, 2023, 「観峰館所蔵朝鮮古碑拓本解説(一)」, 『観峰館紀要』 17, 6~9쪽.

80 藤田高夫, 1998, 앞의 글, 47쪽.

81 好並隆司, 1978, 앞의 책, 345~3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해갔던 것이다.[82]

후한말에 농민반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혼란상이 점차 심화되자, 후한 조정은 이에 적극 대응하는 일환으로 각 지역의 산천 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흥시키는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정에서 이를 공인하고 장려한 것은 지방의 반란 세력과 해당 지역의 '상징적 공간'을 두고 벌인 경쟁의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83] 이에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조서를 내려 산천 제사를 독려하고, 지방 군국에서도 이에 호응하여[84] 누차 상서(上書)하여 본국의 산천이 영험함이 있음('求則能報'·'屢屢有驗')을 밝히고, '법식'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85]

상산국(원씨현)에서 삼공산·봉룡산·백석신군·봉룡산 등의 명산들에 대한 '법식'을 신청하고, 조정에서 이를 모두 승인한 시기는 바로 후한말의 환제·영제대에 해당한다. 이미 이전부터 군현 차원에서 위 산신들에 대한 제사를 계속 지내왔지만, 후한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정에 '법식(法食)'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 사례는 160년대와 180년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후한 말기의 혼란상에 위기의식을 느낀 각 지역의 군현 지배층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산신제사를 공식화하고자 했고, 중앙 조정에서도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 뒤 신속하게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86] 요컨대 상산국(원씨현)에서 여러 명산에 대한 '법식'을 구하였던 160년대~180년대는 각 지역의 산신제사가 부활하고, 이에 대한 조정의 유연한 승인이 이루어지던

82 好並隆司, 1978, 위의 책, 357~360쪽.

83 好並隆司, 1978, 위의 책, 356~360쪽; 田天, 2011, 앞의 글, 128~129쪽.

84 후한대에 각 군현의 지방 관리들이 관할 구역 내의 통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神靈에 대한 제사를 활용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沈刚, 2012, 「东汉碑刻所见地方官员的祠祀活动」, 『社会科学战线』 2012-7, 102~103쪽).

85 田天, 2011, 앞의 글, 128~129쪽.

86 田天, 2011, 위의 글, 128~1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위기(정책)가 팽배했던 시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제대인 178년 4월에 제작된 점제비의 건립 배경, 즉 낙랑군(점제현)이 ▨평산군에 대한 '법식'을 조정에 신청했던 것과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어 제사를 확대한 배경 역시 후한말의 시대상과 군현 내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토성 일대로 비정되고 있는 낙랑군 점제현은[87] 초원 4년 호구부에 의하면 기원전 45년 당시 1,049호(6,332구)의 규모로 1구역(조선·남함·증지·사망·둔유) 내에서 548호(3,353구)의 증지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규모의 현이었으며(1구역의 현당 호수는 평균 3,270호), 위치상 1구역 내에서 다소 남서쪽에 치우친 지역에 있다.

게다가 후한대인 영화(永和) 5년(140)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후한서』 군국지에 의하면 낙랑군은 총18현을 유지하고 있었다. 후한말의 혼란기로 접어들면서 동이 제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낙랑군의 권역은 점차 축소되고,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속현들이 하나둘씩 폐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환제·영제대(147~188)의 말기에 이르면 제2구역에 해당하는 둔유현(황주) 이남의 황해도 지역은 사실상 군현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공손씨의 개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88] 즉 낙랑군의 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태강(太康) 원년(280)경의 상황을 기록한 『진서』 지리지에는 낙랑군 6현 가운데 점제현이 보이지 않는데,[89] 아마도 공손씨의 요동 장악(190) 이후부터 280년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기에 점제현이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90] 이는 후한말부터 남쪽 황해도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한·예 세력의 확대, 그리고

87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99쪽.

88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89 『晉書』 지리지에는 朝鮮·屯有·渾彌·遂城·鏤方·駟望縣만 남아 있다.

90 『晉書』 卷14 志第4 地理上 平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낙랑군 중심부에서 서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했던 점제현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후한말인 170년대는 국가의 통치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변경의 낙랑군도 점차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가던 시점이었다. 특히 서남쪽의 점제현은 주민 이탈과 남쪽 한·예 세력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여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이다. 이에 기존에 낙랑군의 통치에 협력했던 점제현의 관원과 지배층들은 자체적으로 행해지던 ▨평산에 대한 제사를 중앙으로부터 공인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한말에 이르러 상산국(원씨현) 등 각 지역에서 산신제사를 공인받으려는 움직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조정의 유연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후한의 최변경이었던 낙랑군(점제현)도 이러한 흐름을 간취(看取)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평산군에 대한 제사의 공인을 조정에 정식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점제현의 ▨평산은 후한 조정의 최종 승인을 통해 '▨평산군'이라는 정식 봉호를 받았을 것이다. 이어서 점제현장 등이 주축이 되어 제사 관련 사당을 신설(혹은 증수)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과 산신에 대한 송사 등을 기록한 석비를 세웠을 것이다. 결국 점제비의 건립은 낙랑군의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점제현의 관원과 지배층들이 기존 현민(縣民)들 간의 유대와 통치 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기층 주민의 이탈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점제비의 판독과 내용 분석을 통해 비의 호칭 문제, 건립 주체, 건립 연대, 건립 목적 등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후한말 지방 군국에서 제작된 산신 제사비들의 제작 배경 등을 비교·검토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점제비가 제작된 정치·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유추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았다.

점제비는 후한 영제대인 178년 4월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비문에는 이때 점제현장인 ▨[흥], (현)위인 건, 승속인 국이 모여서 사당(신사)을 증수하고 석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송사의 첫머리에는 '▨평산군'이라는 정식 봉호가 기재되어 있다. 비문에 관원들을 기재한 방식, 그리고 봉호의 존재와 송사의 내용 등을 살핀 결과, 이 비는 후한말에 관 주도로 세워진 산신제사비들의 내용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한대 상산국 원씨현에 세워진 여러 산신제사비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군현 차원에서 조정에 산신제사의 공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재가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현 차원의 제사 확충과 사당의 증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석비가 건립되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산신제사비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같은 성격의 점제비 역시 낙랑군 차원에서 조정에 산신 제사의 공인을 요청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재가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점제비 역시 환제·영제대에 세워진 다른 산신제사비들과 마찬가지로 군현의 통치가 이완되었던 상황에서 군현 지배층이 주민들과의 유대 및 결속을 다져서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나름의 정치적 의도 속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2세기 후반 당시 최변경의 낙랑군이 후한 왕조의 큰 정치적 흐름을 파악한 가운데 중앙 정부의 정책에 조응하여 자군(自郡)에 닥친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점제비는 바로 그러한 군현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權五重, 1992, 『樂浪郡硏究』, 一潮閣.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雷聞, 2009, 『郊廟之外(隋唐国家祭祀与宗教)』, 北京: 三聯書店.

葛城末治, 1978, 『朝鮮金石攷』, 亞細亞文化社.

關野貞 外, 1927, 『古蹟調査特別報告(4)-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朝鮮總督府.

永田英正 編, 1994, 『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篇)』, 京都: 同朋舍出版.

朝鮮總督府, 1919, 『古蹟調査特別報告(1)-平壤附近に於ける樂浪時代の墳墓-』, 京城: 朝鮮總督府

好並隆司, 1978, 『秦漢帝國史硏究』, 東京: 未來社.

논문

高泰鎭, 2025, 「新羅下代奢侈禁令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龍滌, 2014, 「古代 中國의 山川 祭祀와 국가 권력」, 『中國古中世史硏究』 34.

_____, 2019, 「秦·漢 帝國의 기층 國家祭祀 운영 구조」, 『歷史敎育』 151.

_____, 2020, 「秦·漢 帝國 國家祭祀의 世俗化」, 『中國古中世史硏究』 55.

金鍾太, 1975, 「樂浪時代의 銘文」, 『史學志』 9.

李丙燾, 1976, 「樂浪郡考」,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이성규,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연구총서20), 동북아역사재단.

林起煥, 1992, 「秥蟬縣 神祠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勞幹, 1980, 「秥蟬縣神祠碑之硏究」, 『東方學志』 23·24合.

魏斌, 2021, 「東漢地方神祠的信仰形態」, 『中華文史論叢』 1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张鹤泉, 2011,「汉碑中所见东汉时期的山岳祭祀」,『河北学刊』2011-1.
田天, 2011,「東漢山川祭祀研究 -以石刻史料爲中心-」,『中華文史論叢』2011-1.
陈世庆, 2013,「《平山神祠碑》旧释建丞属国应为遼丞属国考」,『学术界』2013-3.
沈刚, 2012,「东汉碑刻所见地方官员的祠祀活动」,『社会科学战线』2012-7.

葛少旗, 2020,「『晉地道記』所見諸塞與魏晉時期的太行山防線」,『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41.
關野貞, 1914,「朝鮮平安道龍岡郡秥蟬碑」,『書苑』4-1.
權淨, 2004,「樂浪の文字-黏蟬縣神祠碑·瓦銘」,『古代日本·朝鮮における文字世界の形成』,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吉川忠夫, 1991,「五嶽と祭祀」,『ゼロ·ビットの世界』(現代哲学の冒険15)所收, 東京: 岩波書店.
內藤虎次郎, 1914,「朝鮮平安南道龍岡郡新出土漢碑釋文」,『藝文』5-3.
藤田高夫, 1998,「漢代元氏県の山岳祭祀」,『關西大學文學論集』48-2.
梅原末治·藤田亮策, 1913,「樂浪郡秥蟬縣治遺址及び同縣斷碑の發見」,『考古學雜誌』4-3.
小田幹治郎, 1919,「龍岡古碑の年代考證」,『朝鮮彙報』大正 8年 1月.
水谷悌二郎, 1959,「秥蟬碑文考」,『書品』104.
田中俊明, 2023,「觀峰館所蔵朝鮮古碑拓本解説(一)」,『觀峰館紀要』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낙랑군 점제비(秥蟬碑)의 건립 배경

안정준

이 글에서는 점제비의 판독과 내용 분석을 통해 비의 호칭 문제, 건립 주체, 건립 연대, 건립 목적 등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후한말 지방 군국에서 제작된 산신(山神)제사비들의 제작 배경 등을 비교·검토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점제비가 제작된 정치·사회적 배경을 함께 유추해보았다.

점제비는 후한 영제(靈帝)대인 178년 4월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문에 점제현장 이하 관원들을 나열한 방식이 공문서 기재 형태로 보이는 점, '▨평산군'이라는 봉호와 송사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비는 후한말에 관(官) 주도로 세워진 산신제사비들의 내용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

또한 후한말에 상산국(常山國) 원씨현(元氏縣)에서 여러 산신제사비가 세워진 배경과 마찬가지로, 낙랑군 점제비 역시 군 차원에서의 조정에 산신제사의 공인을 공식 요청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재가받는 과정이 있었고, 이후에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석비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후한 환제·영제대에 세워진 다른 산신제사비들과 마찬가지로 점제비 역시 낙랑군의 통치가 이완되었던 상황에서 군현 지배층이 주민들과의 유대 및 결속을 다져서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나름의 정치적 의도 속에 건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평산군비(▨平山君碑), 낙랑군(樂浪郡), 점제현(秥蟬縣), 상산국(常山國), 점제비(秥蟬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JeomJe Stele(秥蟬碑) of Nakrang Commandery(樂浪郡)

An Jeongjun

This paper discusses issues such as the title of the stele, the entity responsible for its erection, the date of construction, and its purpos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and content of the 'JeomJe' stele. In particular,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mountain deity ritual steles in local commanderies and states during the late Eastern Han period, the paper aims to infer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JeomJe' stele was erected.

The 'JeomJe' stele was likely created in April of the year 178 during the reign of Emperor Ling of the Eastern Han. Furthermore, considering the way in which the stele lists the officials below the local officials of JeomJe County in a manner resembling the format of an official document, as well as the title 'JeomJe County' and the content of the eulogistic text, this stele shares many similarities wit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mountain deity ritual steles erected under official auspices during the late Eastern Han.

Furthermore, just as several mountain deity ritual steles were erected in the county of Yuan in the Changshan commandery during the late Eastern Han, it is presumed that the 'JeomJe' stele was also established after the local government formally requested imperial recognition of the mountain deity ritual and went through the subsequent approval process. Like other mountain deity ritual steles erected during the reigns of Emperor Huan and Emperor Ling of the Eastern Han, the 'JeomJe' stele was likely established with a political intent. In the context of a weakened governance in the Nakrang commandery, the local ruling class sought to strengthen their control by reinforcing bonds and solidarity with the residents, ultimately aiming to consolidate their political power.

Keywords: Inscription of Lord ▨Pyeongsan(▨平山君碑), Nakrang commandery(樂浪郡), JeomJe County(秥蟬縣), Changshan Commandery(常山國), JeomJe stele(秥蟬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 //doi.org/10.23037/dyn.2025..88.007

전환기 변경의 관점으로 본 7세기 후반의 요동

최정범 | 계명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관련 자료의 검토
III. 문화의 접변과 변용의 공간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요동지역[1]은 5세기 이래로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 서북변경 지역으로 당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최전방이었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당의 안동도호부가 출범하면서 이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당의 기미부주 지배가 관철[2]되는 공간으로 변모하려 하였다. 이후 고구려 유민의 지속적인 부흥운동과 당의 기미정책이 충돌하는 공간이었고, 698년 발해의 건국 이후 당의 영향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요동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기미지배[3]가 이루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7일
** 이 글은 2024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2024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세미나-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에서 발표한 '물질 자료로 본 7세기의 요동: 전환기 순응과 저항의 이중주'를 논문 체제에 맞게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 이 글의 원고 작성과 자료 분석에 장주탁(吉林大學 博士課程), 정승복(南京大學 博士課程), 배노찬(西北大學 進修生) 선생님들로부터 다방면의 도움과 조언을 얻은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에 지면을 빌려 깊은 사의(謝意)를 드린다.

1 흔히 지칭하는 '요동'은 일정한 공간적 위치나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요컨대 역사상 '요동' 개념은 요동군·요동군성·요동도사와 같은 중국 국가의 지방 행정 조직이나 군정기관 혹은 그 관할 범위를 가리킨다. 혹은 산해관 이동-한반도 북부 이서의 한국과 중국 중간에 위치한 광범한 지역을 총칭하기도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 지칭하는 '요동'은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던 '요하의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해당함을 덧붙인다.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49~60쪽.

2 조영광, 2018, 「고구려 멸망 후 요동 지역의 동향 -안동도호부 및 치청 번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第133輯, 대구사학회, 12쪽.

3 특히 신성에 치소를 둔 당시의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고토의 일부인 요동에서 그곳의 기미주에 흩어져 거주하는 고구려 유민을 관할하는 데 그친다. 池內宏, 1960,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研究』 上世 第二册, 吉川弘文館, 39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7세기 후반의 요동 일대는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던 유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당의 기미지배에 협력하거나, 거세게 저항하며 반당투쟁을 전개한 공간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고학적 관점에서 7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거나 고구려 존속 당시 운용되었던 유적들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유된다. 고구려의 주요 성들이 안동도호부의 기미부주로 재편되고, 그 주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지속되었던 역사적 정황을 유념한다면, 고구려의 유적들이 무조건 멸망 이후 점유가 중단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는 '고구려 말기-발해 초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물질 자료를 고구려 혹은 발해로 귀속시켜보려는 무언의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길림성 요원시 용수산성의 보고문에서는 고구려 말기에 조성되어 발해 초기까지 연용된 것으로 추정[4]하며, 요령성 무순시 시가고분군은 고구려 말기에 조성되었으나 발해 고분과 유사성이 있음이 지적[5]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검토 대상이 되는 유적들에서 고구려 말기와 발해 초기의 요소들이 모두 관찰되어 명확한 국적 판별이 어려움을 방증한다. 이를 환치하면 국적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전환기에 해당함을 반증한다. 예컨대 시가고분군의 조성 주체를 고구려[6]나 발해[7]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는 시각은 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7세기 후반이라는 시간은 고구려 멸망과 발해의 건국이라는 관점에서

---

4 遼源市文物管理所, 1994, 「吉林遼源市龍首山城內考古調查簡報」, 『考古』 3期, 238쪽.

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7,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 10期, 40쪽.

6 권오영, 2009, 「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의 매장 프로세스」,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2), 동북아역사재단.

7 강현숙, 2009, 「高句麗 故地의 渤海 古墳-中國 遼寧地方 石室墳을 中心으로」,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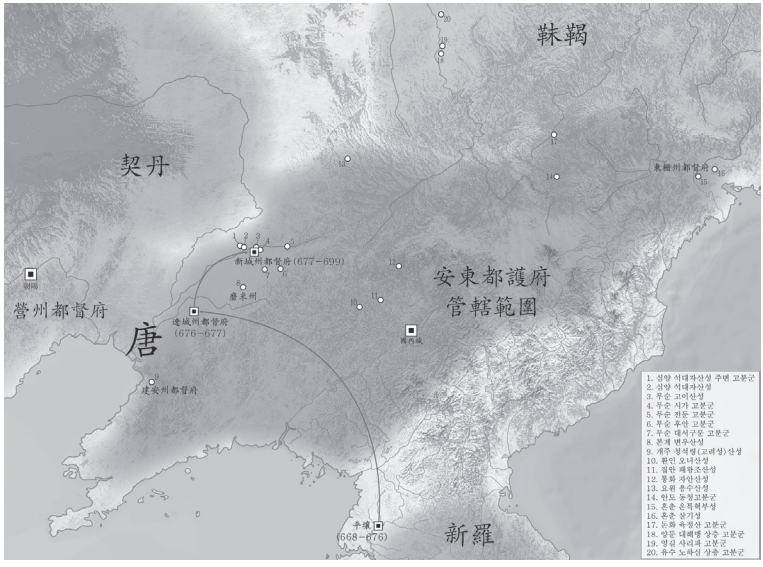


그림 1 안동도호부의 관할 범위와 주요 유적의 분포

볼 때 전환기 또는 공백기에 해당한다. 다만 고구려 말기~발해 초기라는 7세기 후반의 문화양상에 연속성[8]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간의 단절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접근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유적의 조성 및 점유 주체의 국적 귀속과 직결되는데, 물질 자료를 반드시 고구려나 발해로 구분지어 보려는 무언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인류학에서 논의되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해석 틀이 크게 참고된다. 문화접변은 정복이나 식민지 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8 안도 동청고분군의 조성 주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커다란 변동 없이 자연스럽게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7세기 후반의 문화 양상에 연속성을 인정하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강현숙, 2021, 「중국 길림성 안도 동청 고분군 검토」,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6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한 사회집단이 어떤 강력한 지배적인 사회와 거의 전면적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종속적 위치에 있는 집단은 광범위한 문화변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피지배 사회의 성원들은 이미 변화된 상황이나 생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배사회의 문화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반면 자율성을 박탈당하거나 위협받았을 때 그 사회는 전통문화를 재확인하고 정치적·문화적 독립성을 되찾기 위해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9]

이러한 문화접변의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7세기 후반의 요동지역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당의 문물이 이입되는 와중에 광범위한 문화변동을 경험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단순 외부 교류의 결과로 당의 문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고구려 유민의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부흥운동이 전개되면서 고구려의 전통문화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의 공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의 조성 및 점유 주체를 전환기 문화접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더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7세기 후반 요동지역 고고자료의 점유 혹은 조성 주체를 굳이 고구려나 발해로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함을 의미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7세기 후반경 요동지역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문헌 및 고고자료를 살펴본 다음, 문화의 접변과 변용의 관점에서 전환기 요동지역의 역사상과 그 의미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관련 자료의 검토

1. 문헌자료

668년 당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한 다음 안동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고구

9 한상복 외, 2022,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76~4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 고지에 대한 본격적인 기미지배를 단행한다. 안동도호부는 당의 도호부 중에서도 비교적 등급이 높은 상도호부이며, 고구려 전역을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나누고, 추거(고구려의 고위직)를 도독·자사·현령으로 등용[10]하는데 중국인(華人)과 함께 통치[11]하도록 하였다. 이를 따른다면 고구려 멸망 직후 출범한 안동도호부는 당의 중앙에서 파견된 관인과 함께 당의 기미지배에 편승한 고구려 지배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일부 고구려 고지의 유민은 도독부 예하 관인으로서 당의 도독부 관위 체계에 흡수되었고, 그에 맞는 당의 관위[12]를 수여받았을 것이다.

한편,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고구려 고지에 관철된 9도독부 42주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요동 일대의 일부 지역[13]만 확인된다. 이는 안동도호

10 『新唐書』 卷39 志第29 地理3, "安東, 上都護府. 總章元年 李勣平高麗國 得城百七十六, 分其地爲都督府九 州四十二 縣一百 置安東都護府於平壤城以統之, 用其酋渠爲都督, 刺史, 縣令. 上元三年徙遼東郡故城 儀鳳二年又徙新城. 聖曆元年更名安東都督府, 神龍元年復故名. 開元二年徙于平州, 天寶二年又徙于遼西故郡城. 至德後廢."

11 『三國史記』 卷 第22 高句麗本紀 第10 寶藏王 下, "置安東都護府於平壤以統之, 擢我將帥有功者爲都督, 刺史, 縣令 與華人參理."; 『舊唐書』 卷199 列傳第149上 東夷 高麗, "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 刺史及縣令, 與華人參理百姓."

12 『新唐書』 卷49下 志第39下 百官4下 外官, "上都護府 都護一人 正三品, 副都護二人 從四品上, 長史一人 正五品上, 司馬一人 正五品下, 錄事參軍事一人 正七品下, 功曹參軍事,倉曹參軍事,戶曹參軍事,兵曹參軍事各一人 從七品上, 參軍事三人 從八品上. 都護掌統諸蕃 撫慰 征討 敍功 罰過, 總判府事. 上州 刺史一人 從三品 職同牧尹, 別駕一人 從四品下, 長史一人 從五品上, 司馬一人 從五品下, 錄事參軍事一人 從七品上, 錄事二人 從九品下, 司功參軍事一人,司倉參軍事一人,司戶參軍事二人,司田參軍事一人,司兵參軍事一人,司法參軍事二人,司士參軍事一人 皆從七品下, 參軍事四人 從八品下, 市令一人 從九品上, 丞一人 從九品下, 文學一人 從八品下, 醫學博士一人 從九品下."

13 『舊唐書』 卷39 志第19 地理2 河北道, "新城州都督府, 遼城州都督府, 哥勿州都督府, 建安州都督府, 南蘇州, 木底州, 蓋牟州, 代那州, 倉巖州, 磨米州, 積利州, 黎山州, 延津州, 安市州. 凡此十四州 并無城池."; 『新唐書』 卷43下 志第33下 地理7下, "南蘇州, 蓋牟州, 代那州, 倉巖州, 磨米州, 積利州, 黎山州, 延津州, 木底州, 安市州, 諸北州, 識利州, 拂涅州, 拜漢州, 新城州都督府, 遼城州都督府, 哥勿州都督府, 衞樂州都督府, 舍利州都督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의 기미지배가 요동 일대에 국한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이타인과 양현기 묘지명의 내용을 통해 두만강 하류 일대에도 안동도호부의 기미부인 동책주도독부가 설치[14]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멸망 후 당의 기미주 체제는 고구려 고지의 전역을 대상으로 삼은 것[15]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 묘지명

대부분 중국 경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 자료는 고구려 말기의 사회상과 당시 지배층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고[16] 사료의 공백을 메꿔주는 자료라는 데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덧붙여 기록물로서의 묘지명은 사망한 자의 가계나 행적 등이 기록된 다음 고분 내에 부장됨을 유념한다면 그 자체로 물질자료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구려 유민으로서 묘지명을 남겼다면 그 피장자는 (토동)전실묘의 묘제를 채택하고 당의 물질들을 부장했을 것이다. 천남생의 묘지명과 그것이 출토된 고분의 형태가 전형적인 당의 토동묘[17]였음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묘지명 자료들이 단독으로 발견,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

居素州都督府, 越喜州都督府, 去旦州都督府, 建安州都督府 右隸安東都護府."

14 여호규·拜根興, 2017, 「遺民墓誌銘을 통해 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第69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8쪽.

15 그러나 고구려의 옛 형태를 보존하려 했던 도호부의 통치는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池內宏, 1960,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硏究』 上世 第二册, 吉川弘文館, 387쪽.

16 장병진, 2020,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고구려 관련 전승과 그 계통」, 『역사와 현실』 117, 한국역사연구회, 3쪽.

17 洛陽市文物考古硏究院, 2018, 『邙山陵墓群考古調查與勘測第一階段考古報告』(上册), 文物出版社,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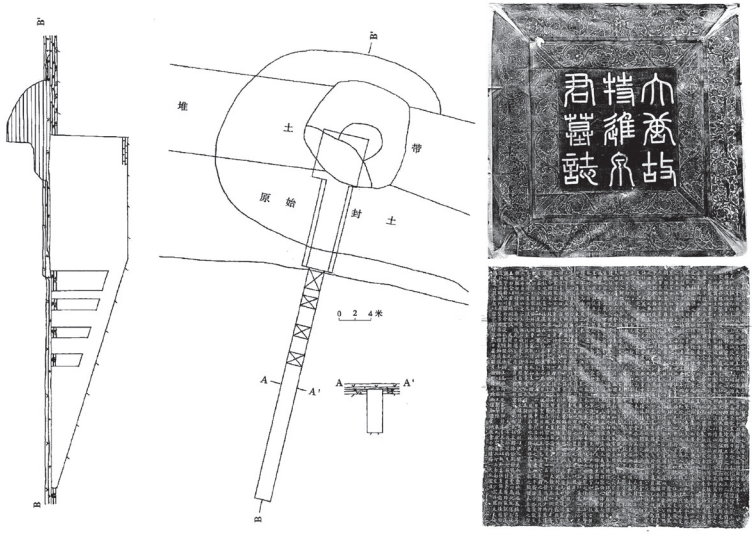


그림 2 낙양 망산 천남생묘(M2-929)와 묘지명

민의 묘제와 부장유물의 양상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문헌사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묘지명 자료[18]에는 고구려 유민으로서 당의 기미지배에 편승하였거나, 당의 관료로서 안동도호부에 파견된 관인의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유형화하면 〈표 1〉과 같이 크게 네 유형으로 정리된다.

먼저 안동도호부에 파견된 중국 관인의 존재이다. 녹사참군사를 역임한 남곽생 · 검교동책주도독부장사를 역임하였으며 고정문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한 양현기 · 돌궐인으로서 안동도호를 역임한 굴돌전 등의 사례는 안동도호부에 파견된 화인의 존재를 일러준다.

18 곽승훈 외,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유형 분류(곽승훈 외, 2015에서 재정리)

안동도호부에 파견된 중국 관인	
「南郭生墓誌」	… 解褐擢安東都護府錄事參軍事, 俄丁父憂 …
「屈突詮墓誌」	… 東隅未康 復佇八條之績 冊拜銀靑光祿大夫守安東都護 臨五部之邊邑 輯九種之遺黎. …
「陽玄基墓誌」	… 總章元年 授鹿陵府長上折沖 仍檢校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 …
「李氏夫人墓誌」A	… 大父元悊 官至安東大都護長史, … 府君更郎將中郎長各一 將軍大將軍凡四. 前後領左右羽林二軍禁營 靑海鴨綠二道總管 …
「李氏夫人墓誌」B	… 祖光嗣 皇安東都護府功曹參軍 …
직계선대가 안동도호부 관인을 역임한 고구려 유민의 후손	
「王景曜墓誌」	… 泊乎唐初 龍飛在天 公之父焉 投化歸本, … 父排須 皇朝贈安東府大都護 …
「南單德墓誌」	… 分隷潦東子弟 郡縣散居. 公之家 子弟首也 配住安東. 祖狄 皇磨米州都督. …
안동도호부 관인을 겸한 고구려 유민	
「泉南生墓誌」	… 儀鳳二年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求瘼△隱 襁負如歸 劃野踈疆 奠川知正. …
「高遠望墓誌」	… 曾祖懷 唐雲麾將軍 建安州都督, 祖千 唐左玉鈐衛中郎 襲爵建安州都督, 父欽德 襲建州都督 皇右武衛將軍 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 承世簪組.… 制授平州盧龍幽州淸化二府折衝都尉 兼安東鎭副使 賜紫金魚袋.… 自左驍尉郎將 帝嘉其功 拜安東大都護府副都護 兼松漠使 賜紫金魚袋 上柱國. …
부흥운동 진압에 참여한 고구려 유민	
「李他仁墓誌」	… 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 管一十二州高麗 統三十七部靺鞨 … 從英公入朝 特蒙勞勉 蒙授右戎衛將軍. 卽而姜維構禍 復擾成都 穗穴挺妖 俄翻穢境. 公又奉詔進討扶餘 重翦渠魁. 更承冠帶 凱還飮至 帝有嘉焉 遷授同正員右領軍將軍 …
「高質墓誌」	… 但兇狂日熾 救援不至 衆寡力殊 安危勢倍. 城孤地絶 兵盡矢窮. 日夜攻圍 卒從陷沒 爲虜所執 詞色懍然 不屈兇威 遂被屠害. 以萬歲通天二年五月卄三日 薨於磨米城 春秋七十有二. …
「高慈墓誌」	… 尋以寇賊憑陵 晝夜攻逼 塞孤榱闘 糧盡矢殫 視死猶生 志氣弥勵. 父子俱陷 不屈賊庭. 以萬歲通天二年五月廿三日 終於磨米城南 春秋卅有三.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고구려 유민으로서 안동도호부의 관인을 역임한 인물들의 존재인데,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피장자의 선대가 관인을 역임한 사례로 왕경요는 부친이 대도호를 추증받았고, 남단덕의 조부는 마미주도독을 역임하였다.

다음으로 관인을 역임하며 세습하는 사례이다. 부도호를 역임한 고원망은 증조 회(懷)·조부 천(千)·부친 흠덕(欽德)의 건안주도독을 세습하였다. 이는 당의 기미정책에서 기미부주의 수령은 중앙 이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당의 정식 직관이 아니었다[19]는 견해와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유민 출신임에도 고구려 부흥운동 진압에 참여한 유민의 존재이다. 이타인은 당으로부터 책주도독을 제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여 일대에서 일어난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을 진압하였다. 고질과 고자 부자는 697년 고구려 유민의 반당투쟁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마미성에서 전사한다. 이상의 묘지명 자료들로 보아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은 당의 기미지배에 적극 협조하거나 당에 저항하여 부흥운동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도(토)기 및 와전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 산성들은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이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자연스레 고구려의 유물로 인식되었다. 연대 비정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기왕에 고구려 유물로 보고되었던 자료 중 일부는 당의 유물과 비교해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측면이 확인되고 있어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재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림 3〉의 도(토)기를 살펴보자. 무순 고이산성 FG83Ⅲ區T7②[20]와 통화 자안산성 건물지 1호(08TZF1)[21]에서 출토된 장동호는 동최대경이 동 상위에

19 劉統, 1998,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42쪽.
20 徐家國·孫力, 1987, 「遼寧撫順高你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期.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所, 2024, 『自安山城』,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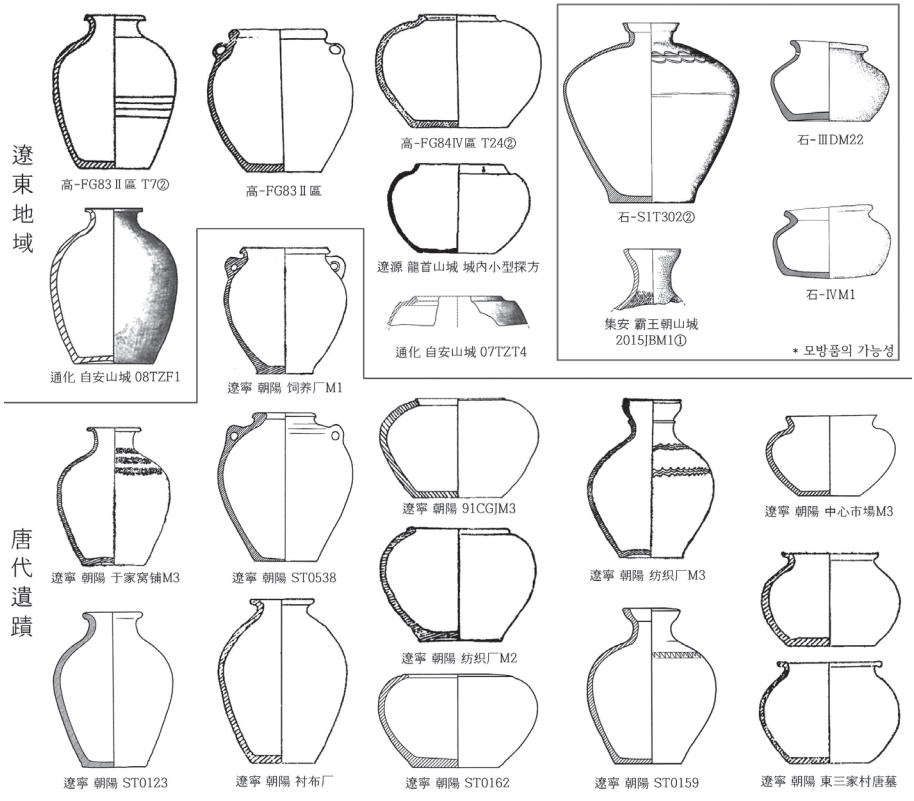


그림 3 요동지역 출토 도(토)기류와 비교자료(축척부동)

위치하며 구순이 외반되었다. 이와 유사한 기형은 요령성 조양 우가와포M3[22]·친포창89-7 M1(ST0123)[23]호 출토품 등과 비교된다. 고이산성과 우가와포 출

22 遼寧省博物館文物隊, 1982,「遼寧朝陽隋唐墓發掘簡報」,『文物資料叢刊』6期.

2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雙塔區文物管理所, 2012,「朝陽市襯布廠歷年清理的9座唐墓出土文物」,『朝陽隋唐墓葬發掘與研究』,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품은 돌대나 문양이 시문된 데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니질 태토로 제작된 흑회색의 색조와 기형, 외반하는 구연의 형태 등에서 유사한 속성을 띤다.

고이산성 FG83Ⅱ區에서 출토된 양이부호는 동최대경이 동 상위에 위치하며, 동 상위에 곧바로 구연을 제작하였으며 구순단이 둥글게 처리되었다. 이는 요령성 조양 사양창M1·구봉각 M3(ST0538)[24]호 출토품 등과 비교된다. 세부 속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니질 태토의 회도라는 데서 공통된다.

고이산성 FG84Ⅳ區T24②·용수산성 성내소형그리드(探方)·자안산성 07TZT4 등에서 출토된 평저호는 동최대경이 동 상위에 위치하고 견부에서 내만한다. 구연은 견부에서 마무리되거나 상부로 들어 올려 제작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고구려 토기에서 유사한 기형을 찾아보기 어렵고, 요령성 조양 91CGJM3[25]·방직창M2·쌍탑소구주택루M8(ST0162)호 출토품에 가깝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유적으로 알려진 유적들에서 출토된 토(도)기의 일부는 고구려 토기보다는 오히려 요령성 조양 일대에서 출토된 당의 도(토)기와 태토·기형 등에서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 유물들의 연대는 대체로 고종-무측천대인 650~712년으로 추정[26]된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당,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주도독부의 치소였던 조양 일대에서 요동으로 이입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석대자산성 S1T302②[27]과 패왕조산성 2015JBM1①에서 출토된 병의 구연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부가 짧은 이중 구연의 형태인데, 요령성 조양 방직창M3·쌍탑소구주택루M9(ST0159)호 출토 병의 구연과 유사한 측

24 朝陽市雙塔區文物管理所, 2012,「朝陽市雙塔區零散唐墓出土文物」,『朝陽隋唐墓葬發掘與研究』, 科學出版社.

2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1998,「遼寧朝陽北朝及唐代墓葬」,『文物』3期.

26 吳炎亮, 2005,「朝陽隋唐墓葬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2쪽.

2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石台子山城』,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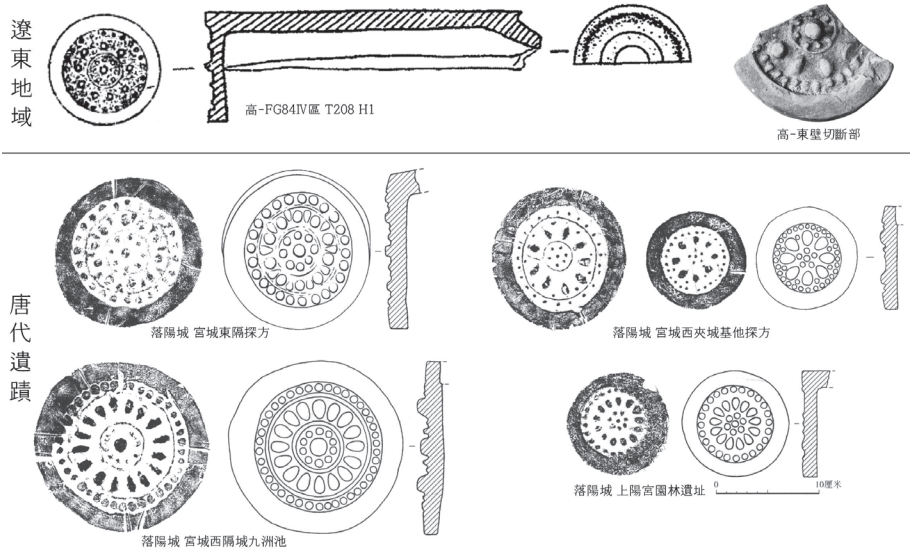


그림 4 요령성 무순 고이산성 출토 와당과 비교자료(축척부동)

면이 있다. 또한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ⅢDM22 · ⅣM1호에서 출토된 평저소호는 요령성 조양 중심시장 M3[28] · 동삼가촌 당묘[29] 출토품과 비교된다. 출토 사례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단언하기에는 주저되나, 이 유물들은 당의 도기를 모방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패왕조산성 출토품은 구연부만 잔존하므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석대자산성에서 출토된 병의 동체와 유사한 기형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에서 출토된 평저소호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기형이 다소 일그러져 있는 점

28 朝陽市博物館, 2012,「朝陽市區中心市場唐墓發掘簡報」,『朝陽隋唐墓葬發掘與研究』, 科學出版社.

29 張洪波 · 賈宗梁, 1994,「遼寧朝陽五座唐墓」,『北方文物』3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모방 제작의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추후 유관 자료의 증대를 통해 유관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는 선에서 그친다.

다음으로 와전류인데,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그림 4〉에서 보듯 고이산성 FG84Ⅳ구(區) T208 H1·동벽 절단부 수습품[30]이 주목된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중방과 내구는 연주문, 주연부는 무문이다. 이는 낙양성[31] 등에서 출토된 당의 와당들과 비교된다. 고이산성 출토 연주문 와당은 일찍이 당의 와당으로 지적[32]된 바 있고, 현재까지 보고된 고구려나 발해의 와당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와당은 당에서 요동지역으로 이입되었거나, 당의 공인에 의해 고이산성 인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고이산성 외에는 뚜렷한 출토 사례가 전무하기에 더 이상의 추론은 삼간다.

4. 금속 유물

소유자의 위계를 표현하는 허리띠에 부착된 당식 대장식구는 관방유적에서 유실물의 형태로 단발적으로 수습되었다. 고분에서는 한 벌을 갖춘 구성품이 출토되기는 하나 장식구의 일부만 출토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된 유적은 심양 석대자산성과 주변고분군, 무순 고이산성과 시가[33]·전둔[34]고분군으로, 심양-무순 일대에 국한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동 재질에 주조로 제작되었다.

---

30 三上次男·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 中央公論出版社.

3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4, 『隋唐洛陽城』 第三冊, 文物出版社.

32 佟達·張波, 2001, 「撫順高你山城2區遺迹的再認識」, 『高句麗研究』 12輯, 高句麗研究會, 663쪽.

3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沈陽市博物館, 2007, 「遼寧撫順市家墓地發掘簡報」, 『考古』 10期.

34 王增新, 1964, 「遼寧撫順市前屯, 洼渾木高句麗墓發掘簡報」, 『考古』 10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5 요동지역 출토 당식 대장식구와 비교자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산성에서 수습된 대장식구는 교구·방형과 반원형의 과판·대단장식이 모두 확인되나, 한 벌로 볼 수 있는 일괄로 출토되지는 않았다. 다만 석대자산성 SⅠ구 1층 수습품은 방형과판과 반원형과판의 주조상태 등으로 미루어 교구의 외륜과 함께 한 벌의 대장식구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에서는 무순 시가고분군 M18·29호에서 한 벌로 복원 가능한 대장식구가 출토되었다. 시가 M18호에서는 2벌의 대장식구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이를 소유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피장자가 매장된 것으로 짐작된다.

대장식구의 연대 추정과 관련하여 과판의 계측적 속성이 유효한데, '과판 폭/수공 폭'의 비율이 커질수록 늦은 연대로 추정된다.[35] 요동지역의 산성과 고분군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 과판의 '과판 폭/수공 폭'의 비율은 4.8 이내의 값을 보이며, 각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들과 대차가 없어 동일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석대자산성 SⅠ구 2층에서 출토된 세장방형의 과판과 수공이 부가되지 않은 과판, SⅢXF1에서 출토된 교판평면 장방형의 과판은 시기가 소급될 가능성이 있으나, 큰 연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절대연대와 관련하여 당의 기년고분 자료와 비교하면 635년에 사망한 장수묘,[36] 703년에 매장이 이루어진 산서성 서조촌 M45호[37] 출토품에 가깝다. 이를 참고할 때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7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늦어도 8세기 초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식 대장식구가 관인의 위계를 상징하는 유물임을 아울러 유념한다면 이를 소유하던 인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안동도호부와 연관지어 볼 여지가 확보된 셈이다.

다음으로 마구를 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출토된 자료는 석대자산성

35 崔正凡, 2018,「渤海古墳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基礎的 檢討와 意味」,『한국상고사학보』102, 한국상고사학회, 122~127쪽.

36 遼寧省博物館文物隊, 1982,「遼寧朝陽隋唐墓發掘簡報」,『文物資料叢刊』6期.

37 山西省考古研究所·臨汾市文物考古工作站, 2015,「山西臨汾市西趙村唐墓發掘簡報」,『考古』6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XMT1②: 1의 재갈 1점, 석대자고분군 ⅣM3 · 고이산성 수습 · 패왕조산성[38]에서 출토된 등자 3점이다. 재갈은 단면 장방형의 철판을 꼬아서 재갈쇠를 만들고, 별도로 제작된 판형의 연결부를 S자형의 재갈멈치 중앙에 접합시켜 제작되었다. 이는 6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아차산 제4보루 S8W2,[39] 오녀산성 JC[40]에서 출토된 재갈과 비교하면 재갈쇠를 철봉을 구부려 제작한 점, 환판비가 부가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재갈멈치의 평면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평면 S자형의 재갈멈치는 현재까지 고구려 후기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요령성 조양 일대의 채집품,[41] 697년 합장으로 매장이 종료된 고연안묘,[42] 706년 사망한 섬서성 서안 영태공주묘[43] 등 당의 고분에서 출토된 재갈의 형태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건대 석대자산성 SXMT1②: 1의 재갈은 당의 이입품으로 볼 만하다.

등자는 모두 철제 단조로 제작된 단병형이며 답수부를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는 데서 공통된다. 아차산 제4보루 S8W2 출토품이 이와 유사하나 윤부와 병부가 직교되었고, 국내성 노도덕회유적[44] 등자는 장병형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당대 유적 출토 자료를 살피면 요령성 조양 채집품, 666년 합장으로 매장이 종료된 이통묘,[45] 하남성 낙양시 낙양성 일대[46]에서 출토된 등자들

---

38 趙俊傑, 2024,「桓仁与集安地区高句丽山城防御体系的形成」,『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 2024 한중 역사 · 고고학 분야 학술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72쪽.

39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아차산 제4보루』.

4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五女山城』, 文物出版社.

4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日本奈良文化財研究所, 2012,『朝陽隋唐墓葬發掘與研究』, 科學出版社.

42 朝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9,「遼寧朝陽唐代庫延安墓發掘簡報」,『文物』5期.

43 張鑫, 2014,「唐乾陵石仗馬的馬具與馬飾」,『文博』3期.

44 董峰, 1993,「國內城中新發現的遺迹和遺物」,『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45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 · 朝陽市龍城區博物館, 2024,「遼寧朝陽八里堡唐墓發掘簡報」,『文物』8期.

4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4,『隋唐洛陽城』第三冊,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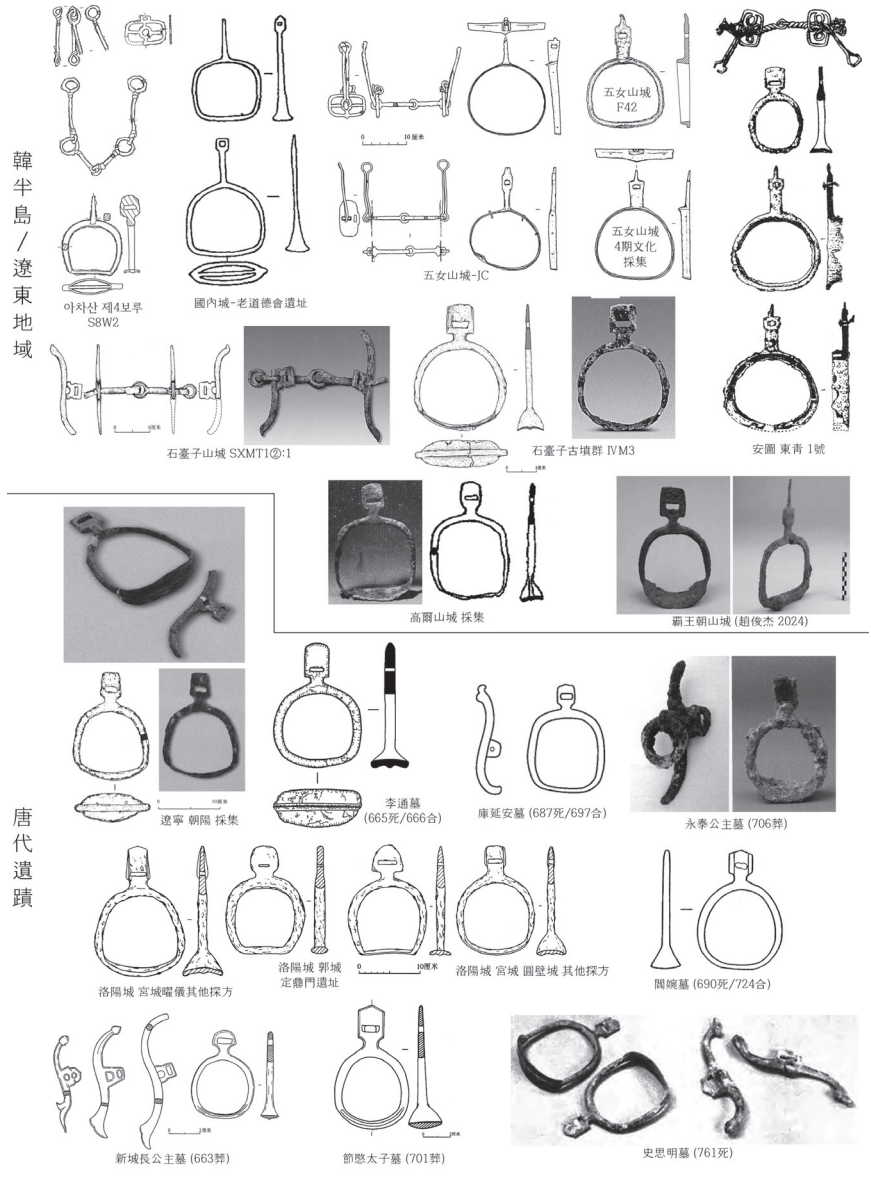


그림 6 요동지역 출토 마구와 비교자료(축척부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외형적으로 가깝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석대자고분군 Ⅳ M3·고이산성 수습·패왕조산성에서 출토된 등자 또한 당의 이입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패왕조산성과 안도 동청 1호분에서는 당의 이입품으로 추정되는 등자와 함께 윤부와 답수부가 차이가 없고, 병부 상단에 돌기가 부가된 단병등자가 공반되어 주목된다. 이 등자는 오녀산성 4기문화층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고구려 후기의 등자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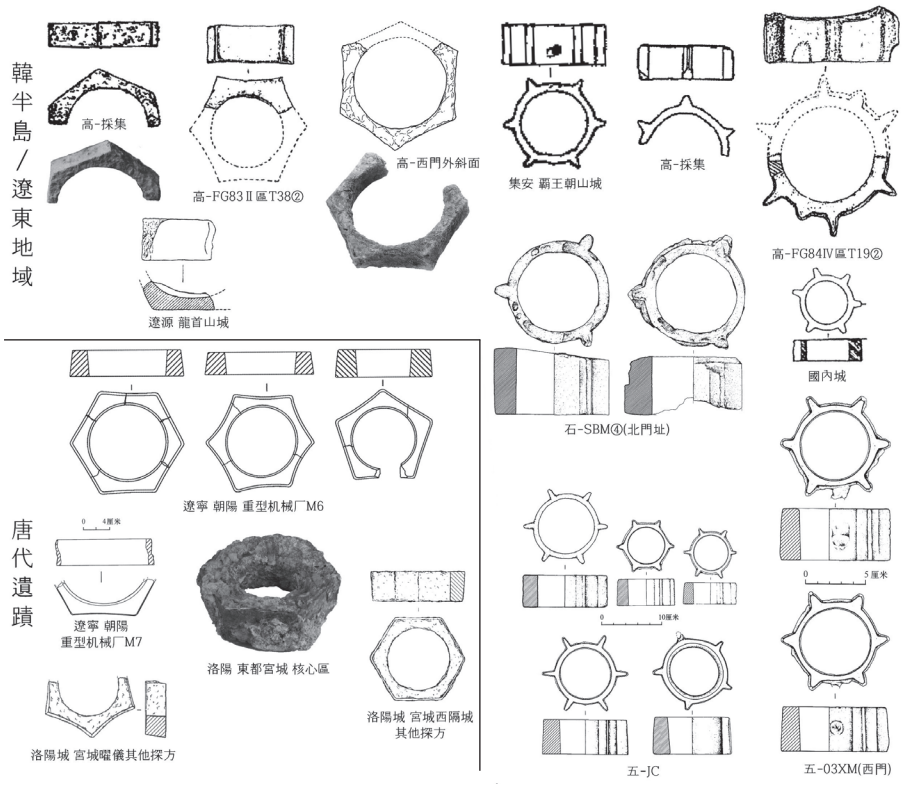


그림 7 요동지역 출토 굴대투겁과 비교자료(축척부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다면 패왕조산성과 안도 동청 1호분에는 고구려와 당의 등자가 공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굴대투겁의 사례이다. 〈그림 7〉의 좌상단에서 보듯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굴대투겁은 내외면 평면 원형이며 바깥으로 돌기가 부가되는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당의 고분이나 생활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굴대투겁의 평면은 내면 원형 외면 육각형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고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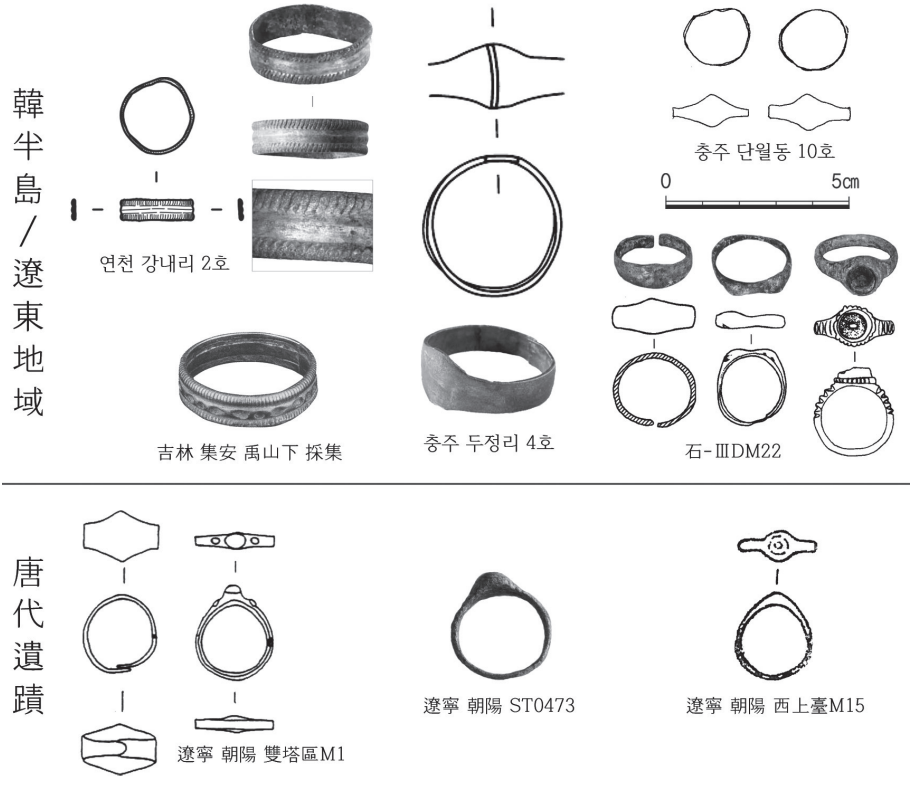


그림 8 요동지역 출토 지환과 비교자료(축척부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용수산성[47] 등에서 출토 및 수습된 굴대투겁은 평면 내면 원형, 외면 육각형으로 당의 굴대투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단발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고이산성과 용수산성 등에서 출토된 굴대투겁 역시 당에서 이입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지환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Ⅲ DM22호 출토품은 기왕에 출토된 고구려의 지환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띤다. 〈그림 8〉에서 보듯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지환은 연천 강내리·집안 우산하 채집품과 같이 문양이 타출되거나 충주 단월동·두정리 출토품과 같이 평면 능형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ⅢDM22호에서 출토된 지환은 고구려 유적에서 확인되는 평면 능형과 함께 원형 장식이 돌출된 것이 공반되었는데, 후자는 요령성 조양에서 출토된 지환들과 상통하는 점이 주목된다. 출토 사례가 적어 지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고구려의 지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에서 이입된 지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묘제와 추가장

요동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7세기 후반대의 고분은 지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보고된 고분군의 발굴조사 내용의 전모를 다루지 않는 자료의 한계가 상존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살핀다면 나름의 역사성을 도출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그림 8〉의 심양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무순 시가·전둔·후안[48]·대서구문[49] 고분군 등이 있다. 특히 이 고분군들은 677~699년간 안동도호부의 치소였던 신성 인근에 분포하는 점이 주목

47 唐洪源, 2000,「遼源龍首山再次考古調查與淸理」,『博物館硏究』2期.

48 姜杰, 1998,「撫順縣五龍公社後安墓淸理簡報」,『博物館硏究』2期.

49 熊增瓏, 2010,「大西溝問遺址發掘簡報」,『遼寧考古文集』(二),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고분군의 조성 주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안동도호부와 관련된 집단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고분들은 할석을 사용하여 조성된 (봉토)석실묘가 대부분이다. 천장부가 확인되는 고분 중에서는 궁륭상의 천장 구조가 확인되며 벽석에 백회의 흔적도 잔존한다. 이는 고구려의 석축 묘제 전통이 변경 일대에서 잔존·변용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한편 다수의 고분에서 인골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단위 고분 내에 복수의 피장자가 해부학적 연속성을 유지한 상태로 매장되거나, 선대 피장자 혹은 외부에서 육탈된 피장자가 2차장되어 집골이 함께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는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계 묘제에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른바 '다인장'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발해 고분으로 환치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고분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8세기 후반경으로 보는 견해[50]도 있으나, 토기류의 재검토와 이식·대장식구 등의 검토로 미루어 7세기 중~후반경에 해당[51]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심양·무순 일대의 석실에서 드러나는 고고학적 정황에 비추어 고구려 멸망과 발해 석실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적 단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52]는 견해에는 고구려 멸망 후 기존 유민 모두 강제 이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헌 및 묘지명 자료를 염두에 둔다면 당의 기미지배에 협조하거나 강제 이주되지 않은 일반 유민은 재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심양·무순 일대에 조성된 석축 고분의 피장자 집단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요동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던 유민[53]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50 강현숙, 2009, 앞의 글, 178~182쪽.

51 崔正凡, 2024, 「人骨 出土 事例로 본 7世紀 後半 遼寧省 瀋陽·撫順地域 古墳 造成 主體의 再認識」, 『高句麗渤海研究』 79, 高句麗渤海學會, 139~142쪽.

52 강현숙, 2009, 앞의 글, 185쪽.

53 이와 관련하여 남단덕 묘지명의 " … 分隷潦東子弟 郡縣散居. 公之家 子弟首也 配住安東 …"라는 내용이 크게 참고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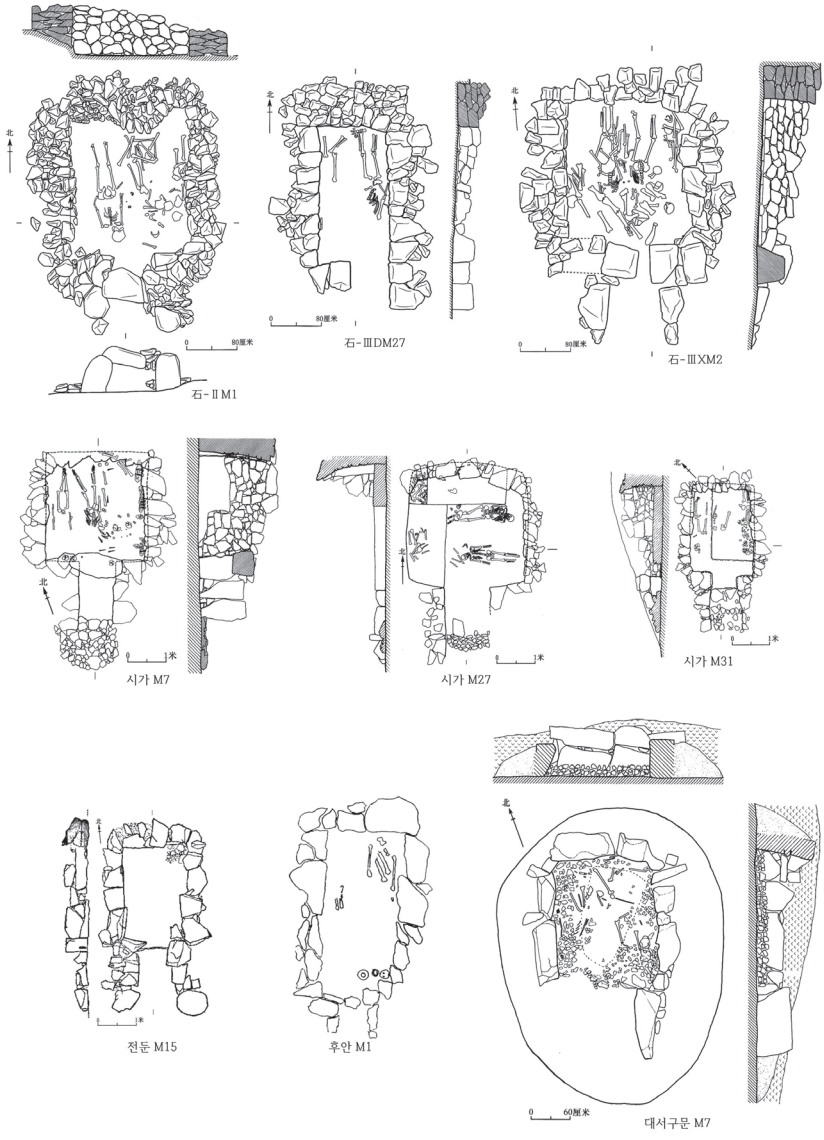


그림 9 요동지역의 주요 고분과 추가장(축척부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고분군의 조성 주체가 당의 기미지배에 참여한 안동도호부의 관원과 그 일족이더라도 묘제에는 고구려 유민의 정체성을 표출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이를 가설로써 무덤과 매장 행위에 대한 해석의 원칙[54]에 적용해보면 할석을 사용한 횡혈식 석실 조성은 관습과 전통에 따른 무덤 조성과 대응된다. 또한 개인의 죽음, 죽음의 물질화를 둘러싼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과 사회적 행위는 지속적인 추가장에 따른 인골의 집골이라는 장제와도 부합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심양·무순 일대 고분군 조성 주체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분군의 국적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Ⅲ. 문화의 접변과 변용의 공간

Ⅱ장에서는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정세를 알려주는 각종 문헌 자료와 함께 당에서 요동으로 이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문헌 자료에서 드러나는 당의 기미지배에 대한 사실들은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반면 출토 유물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 당에서 이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동지역에서 조사된 고분군에서는 당에서 이입된 유물이 부장되었더라도 재지의 석축묘제와 장제가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전환기 변경지역의 관점에서 7세기 후반의 요동지역의 역사·고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54 김종일, 2024,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분묘군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10~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안동도호부와 문화 접변

〈그림 1〉에서 보듯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출범한 안동도호부는 최초 평양에 설치되었으나, 나당전쟁의 여파로 676년에 요동성으로 치소를 옮겼다가 677년에 다시 신성으로 치소가 이동한다. 이에 7세기 후반은 어떠한 형태로든 요동 일대에 당의 기미지배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특히 676년에 즈음하여 당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인들을 철수[55]시켰고, 677년 신성으로 치소를 옮긴 후에는 보장왕을 요동주도독 조선군왕으로 임명한 다음 당에 강제 이주된 유민과 함께 요동으로 귀환[56]시킨다. 이후 680년 보장왕의 소환과 더불어 다시 안동도호부에 당의 관인이 파견[57]되기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당의 기미지배는 상대적으로 고구려 유민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성 주변의 석대자산성 주변·시가·전둔·후안·대서구문 고분군 등 재지 유민이 조성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석축 고분과 석대자산성·고이산성 등에서 수습된 당식 대장식구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당대 관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대장식구는 소유자의 위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다르다.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청동 재질에 주조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를 소유하고 고분에 부장할 수 있었던 인물들의 성격이 문제로 남는데, 같은 시기 영주도독부의 치소였던 요령성 조양 일대에서 묘지명과 공반된 자료들이 크게 참고된다. 이를 살피면 영주도독부 경내에서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하던 계층은 영주도독 예하의 관인이자 도위·교위 등의 중하급 무산관이 대부분이다.[58]

---

55 『資治通鑑』 卷202 儀鳳元年 2月, "甲戌 從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安東官者 悉罷之."

56 『新唐書』 卷220 列傳第145 東夷 高麗, "儀鳳二年 授藏遼東都督 封朝鮮郡王還遼東以安餘民, 先編僑內州者皆原遺, 徙安東都護府於新城."

57 여호규·拜根興, 2017, 앞의 글, 15쪽.

58 崔正凡, 2020, 「遼寧省 朝陽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政治的 含意」, 『한국고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렇다면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할 수 있었던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무순 시가·전둔고분군의 피장자는 고구려의 유민이자 당의 기미지배에 편승하여 안동도호부의 중하급 관원으로 당식 대장식구를 사여받아 소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안동도호부에 속한 중하위 관인이면서도 재지의 석실묘를 조성할 수 있었던 자율성이 보장된 유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분 출토 유물에 국한해 볼 때 당의 도기를 모방 제작한 토기류나 당에서 이입된 등자·지환 등이 부장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아울러 7세기 후반 무렵 고분군이 조성되고, 단위 고분 내에 추가장이 지속되는 점으로 미루어 고분군의 조성 집단이었던 중하급 관원들도 그 직을 승습했을 가능성[59]이 고려된다. 건안주도독을 승습한 고원망 직계 가족의 사례는 이를 일러준다.

한편, 신성을 중심으로 요동지역에 당의 기미지배가 관철되면서 680년 이후에는 당의 관인들이 다시 안동도호부의 관원으로 파견되는데, 이를 전후하여 당의 문물이 요동지역으로 이입되었던 것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을 듯하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 고구려 토기로 보기 어려운 도(토)기들이 고이산성·용수산성·자안산성 등에서 출토되고, 당의 와당이 고이산성에서 출토되는 사례는 이를 일러준다. 주목되는 점은 요동지역에 이입된 당의 토(도)기와 비교되는 자료들이 주로 영주도독부의 치소가 위치했던 요령성 조양 일대에서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7세기 후반경 당의 동북지역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요령성 조양 일대는 고조 무덕 원년(618) 유주에 예속된 영주총관부가 무덕 7년(624) 영주도독부로 격상되어 독립된 이후 무주 측천무후 신룡 원년(705)에 유

사탐구』 3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384쪽.

5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가 크게 참고된다.
『新唐書』 卷43下 志第33下 地理7下, "唐興 初未暇於四夷 自太宗平突厥 西北諸蕃及蠻夷稍稍內屬 卽其部落列置州縣. 其大者爲都督府 以其首領爲都督,刺史 皆得世襲 雖貢賦版籍 多不上戶部 然聲敎所暨 皆邊州都督, 都護所領 著于令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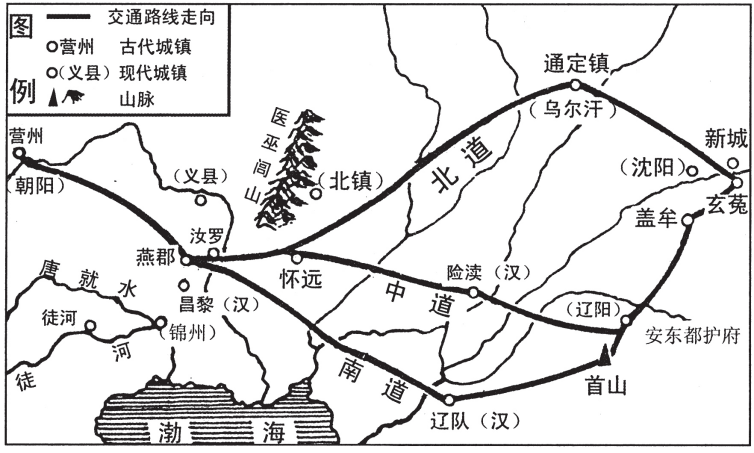


그림 10 영주–신성 간 주요 교통로(王錦厚·朴文英, 2016, 230쪽)

주(현 북경)로 이전하기까지 영주도독부의 치소가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60] 그렇다면 당에서 요동지역으로의 인적·물적 이동은 자연스레 요령성 조양의 영주도독부를 경유하여 요동의 안동도호부로 다다랐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두 지역은 요택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한대 이래로 개척된 이후 〈그림 10〉과 같이 세 경로가 제시[61]된 바 있다. 고구려 중기 이후로는 요동성에서 북행하거나 극성으로부터 북행하여 중로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조영 집단이 영주를 탈출하여 동쪽으로 이동한 경로는 북도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62]된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안동도호부와 영주도독부는 영주로의 중로와 북도를 통해 왕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도 좋다.

60 崔正凡, 2020, 앞의 글, 380~384쪽.

61 王錦厚·朴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古代交通史』, 遼寧人民出版社, 229~241쪽.

62 구난희, 2018, 「渤海 營州道의 行路와 運用」, 『高句麗渤海研究』 60, 高句麗渤海學會, 23~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렇다면 당의 관인이 안동도호부에 파견되거나 유민의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병력의 파병이 지속되는 와중에 영주도독부와 안동도호부 사이에 인적·물적 이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당의 물질문화는 자연스럽게 요동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 예컨대 무순 고이산성 2구역의 건물지가 당의 점령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견해[63]는 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피지배 사회의 성원들은 이미 변화된 상황이나 생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배사회의 문화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64]는 문화인류학적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에 편승하여 주도독을 승습한 집단들에게 당의 물질문화가 광범위하게 이입되었을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신성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어 요동 일대가 당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기록을 취신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현상일 뿐 요령지방 석실분에서 당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읽혀지지 않는다[65]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고구려 유민 1~2세대는 '요동인'으로 고구려 출신임을 밝혔으나, 8세기 중엽 이후 선대가 원래 중국 출신으로 일시 고구려에 거주했다가 본향을 찾아 돌아왔다는 형태로 정체성을 상실[66]했다는 견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멸망에 공이 있는 추거들이 대거 기미지배에 기용되었으나 중앙 이부의 관리를 받는 정식 직관이 아니며, 묘지명을 작성하더라도 고구려 출신 의식이 남아 있던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요동 지역의 물질문화에서 당 주민의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고구려 유민과 당의 기미지배라는 관계 속에서 문화접변이 이루어지며 당에서 유형의 문물과 무형의 사상 등이 대거 이입되었을

63 佟達·張波, 2001, 앞의 글, 高句麗研究會.

64 한상복 외, 2022, 앞의 글, 477쪽.

65 강현숙, 2009, 앞의 글, 185쪽.

66 李文基, 2010,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 『大邱史學』 100, 大邱史學會, 31~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보고된 고고 자료는 지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당의 문물과 고구려 후기 문물을 구분하는 명료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향후 요동지역에서 7세기 후반 경의 유적 조사가 이루어질 때 당에서 이입된 물질문화가 출토될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면밀히 추적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친다.

2. 발해의 건국과 문화 변용

696년 송막도독 이진충은 자사 손만영과 함께 영주를 함락하고 도독 조문홰를 살해하며 거란의 부흥운동이 전개된다.[67] 거란군은 안동도호부까지 공격하였으나 안동도독 배현규가 이를 방어하고, 이후 지속된 거란의 공격을 요동도독 고구수가 방어하며 본토의 주력군과 연락을 취한 점으로 미루어 안동도호부는 요동지역의 기미주를 총괄하는 기능을 상실[68]한다. 697년 고질과 고자 부자가 마미성에서 사망한 사실을 유념한다면 영주도독부에서 발생한 이진충의 난 이후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의 부흥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은 698년 보장왕의 손자 고보원을 충성국왕으로 봉한 후 안동의 호구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69] 안동도호부를 도독부로 격하[70]시킨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요동 기미주의 대부분은 안동도

67 權恩姝, 2012, 『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慶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文學博士學位論文, 33쪽; 여호규·拜根興, 2017, 앞의 글, 19쪽.

68 김종복, 2010,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96쪽.

69 『舊唐書』 卷199 列傳第149上 東夷 高麗, "聖曆元年 進授左鷹揚衛大將軍 封爲忠誠國王, 委其統攝安東舊戶, 事竟不行."

70 『新唐書』 卷39 志第29 地理3, "聖曆元年更名安東都督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호부가 폐지와 함께 거의 당의 기미정책에서 벗어나게 된다.[71] 이와 연동되듯 요동지역에서 7세기 후반의 물질 자료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건대 마미성에서 전사한 고자와 고질 부자의 사례로 보듯 요동 전역에서 반당투쟁이 전개되고, 699년 고덕무가 안동도독에 부임한 이후 호구가 감소하는 상황[72]은 물질문화의 급감 현상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석대자산성·고이산성·자안산성·용수산성 등의 관방유적에서 7세기 후반 이후의 물질 자료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심양·무순 일대에서도 고분군의 조성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7세기 후반의 정치적 혼란과 연동되듯 유적의 조성 및 점유가 단절된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성의 안동도호부가 철폐된 이후 요동 일대가 발해와 당 사이의 완충지대였고, 732~733년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던 주 교통로는 해로였으며, 이후 마도산을 공격할 당시에도 해로가 이용된 점을 보더라도 발해와 당 사이의 영토가 맞닿지 않음을 강조[73]한 견해는 7세기 후반 이후의 물질자료가 불분명한 상대적 공백화 양상과 부합한다.

한편, 7세기 후반 요동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화 접변은 발해 초기의 문물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요서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구려 유민(대조영 집단)과 말갈족이 영주도독부를 벗어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요동지역에서 반당투쟁을 전개하던 고구려 유민도 다수 합류한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안동도호부에 편승하였다가 요동지역의 정세에 따라 부흥운동의 대열에 합류한 집단들의 존재도 배제할 수는 없다.

---

71 津田左右吉 著, 정병준 譯, 2012,「安東都護府考」,『高句麗渤海研究』42, 高句麗渤海學會, 293쪽.

72 『舊唐書』卷199 列傳第149上 東夷 高麗, "(聖曆)二年 又授高藏男德武爲安東都督 以領本蕃. 自是高麗舊戶 在安東者漸寡少 分投突厥及靺鞨等 高氏君長遂絶矣."

73 김종복, 2009,『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80~2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발해 초기 왕실고분군으로 인정되는 육정산 고분군의 문물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M104·Ⅱ-M48호에서 출토된 평저호의 기형은 동최대경이 동 상위에 위치하고, 견부에서 내만하여 구연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띤다. 이는 고이산성·용수산성·자안산성 등에서 출토된 평저호와 유사하다. 아울러 사리파 M6·대해맹 80-M17호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저호가 출토된 점은 발해의 건국 과정에서 요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민의 물질자료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키워준다. 8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는 사리파 M7호에서 출토된 단병등자의 등장 배경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육정산 Ⅱ-M4·39호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 역시 당의 영향을 받은 문물에 해당한다. 다만 육정산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무순 시가·전둔 고분군의 피장자들처럼 당의 기미지배 편입에 수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발해 건국 직후 내부 정비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당의 관인을 상징하던 대장식구 시스템을 채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당에서 직접 이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7세기 후반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 아래에서 문화접변을 경험했던 유민의 영향이 발해 초기 문물의 형성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은 묘제를 함께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 〈그림 11〉의 아래에서 보듯 육정산 Ⅰ-M105호는 〈그림 9〉의 석대자 ⅢDM27호, 육정산 Ⅱ-M15호는 석대자 ⅡM1호와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 이는 발해 건국에 참여한 집단 중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 하에서 문화 접변을 경험한 집단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발해 건국에 요동 지역 유민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집단들도 기미부주체제의 붕괴에 수반되어 흡수되는 사례도 상존한다. 〈그림 11〉의 좌상단에서 보듯 이타인이 관장한 두만강 일대의 책성주도독부의 추정 관할 범위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위치한 안도 동청고분군의 1호는 석실의 기단봉토분으로 조성되었는데, 최하층에서 고구려 후기 양식의 등자와 당의 등자가 공반되었다. 발해 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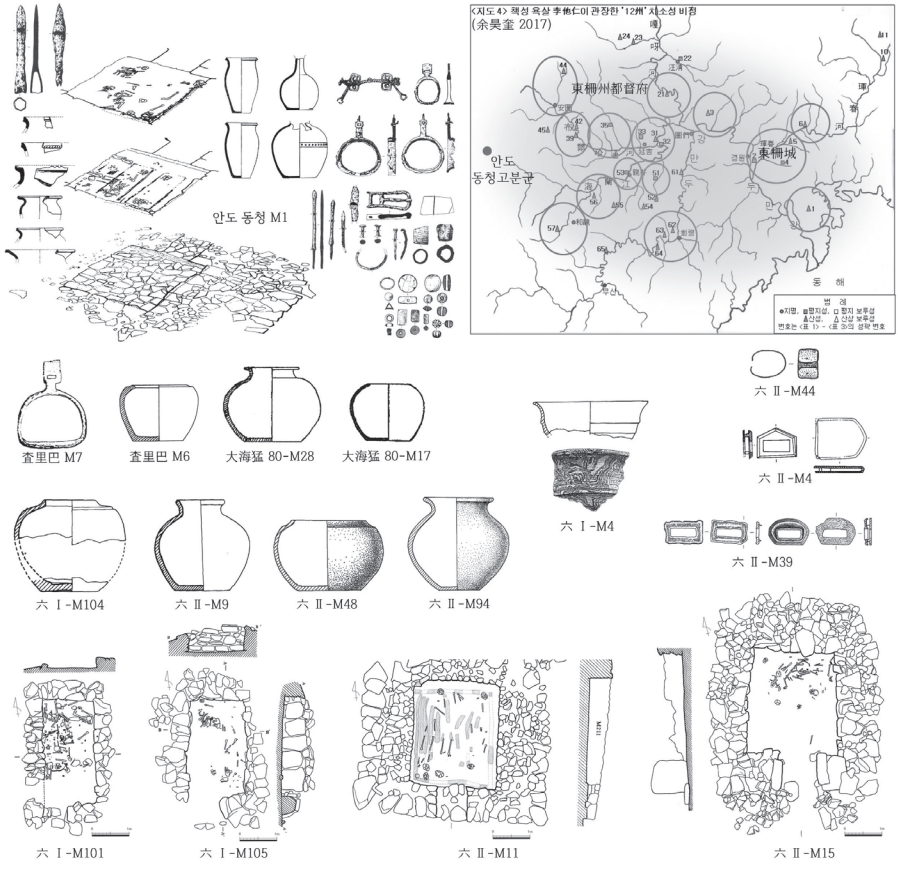


그림 11 책성주도독부의 관할범위(余昊奎, 2017에서 가필)와 안도 동청1호분, 돈화 육정산고분군 출토 유물과 주요 고분

국 이후에도 상층 매장 면에는 추가장이 지속되면서 토기 등 유물의 추가 부장이 이어진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책성주도독부 주변에 거주하던 집단들은 나름의 자치권을 유지하며 고분군을 조성하던 와중에 자연스레 발해 건국에 참여하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가능성을 키워준다. 이는 안도 동청고분군의 조성 주체가 지역 주민이 커다란 변동 없이 자연스레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74]와도 부합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안도 동청고분군의 조성 주체들이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에 편승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그림 11〉에서 보듯 육정산 Ⅱ-M9·94호 출토품과 같은 고구려 양식의 문물과 함께 당의 문물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건국 초기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른바 '다인장'으로 일컫는 단위 고분 내에 복수의 피장자가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매장프로세스는 7세기 후반 심양·무순 등의 요동지역과 안도 동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제가 선택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도 좋다.

육정산고분군을 조성했던 발해 건국 집단에 말갈적 전통과 고구려적 전통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75]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덧붙여 앞서 살펴본 문헌 자료와 물질 자료들에 비추어 보건대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하에서 문화 접변을 경험한 요동 및 두만강 일대의 재지 유민도 다수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지 문화든 유입된 문화든 물질문화는 특정 지역 내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의미 있게 구성된다는 명제를 염두에 둔다면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문화 접변은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해 초기를 논할 때 특정 민족과의 관계·족속의 구분·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연구 사조에서 벗어나, 당대(唐代)의 큰 역사적 틀 속에서 지역 문화가 융합하여 발전하는 추세와 방식에 주목하고, 대조영 집단의 이동 당시 동북지역 사회화 문화의 총체적인 면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고고 문화가 융합된 구체적인 모습과 복합적인 사회상을 연구함으

74 강현숙, 2021, 앞의 글, 663쪽.

75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0~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써 발해의 건국을 해석하는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76]는 견해가 주목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발해가 건국되기까지 전개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건국 집단의 융합과 이탈이 빈번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문화 접변과 변용이 빈번히 일어났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해 건국 집단이 단순히 영주도독부에서 탈출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이나 두만강 유역에서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를 경험한 유민, 지속적인 반당투쟁을 전개해왔던 유민 등 다양한 집단이 이합을 반복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집단의 경험은 당 문물의 접변, 고구려 문화의 계승을 융합시켜 발해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키게 된다.

Ⅳ. 맺음말

7세기 후반의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의 안동도호부가 출범하여 기미지배가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발해가 건국되는 698년 당의 영향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요동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당의 기미지배가 관철된 공간이었으며, 재지의 유민은 당의 기미지배에 협력하거나 거세게 저항하며 반당투쟁을 전개한다. 이는 다수의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꾸준히 발견되는 유민의 묘지명을 통해 사료의 간극이 메꿔지면서 7세기 후반 요동지역 역사상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고고학적 관점에서 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물질문화는 '고구려 말기-발해 초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물질 자료의 국적을 명료하게 구분지어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유적들 혹은 출토 유물들의 존속이 연속적으로 점유되었는지, 단절성이 있는지가 문제로 지적

76 孫昊, 2024,「對東北考古新發現歷史詮釋問題的初步思考」,『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遼寧大學, 1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다. 물질문화가 그 안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며 의미 있게 구성된다는 명제를 유념한다면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는 전환기의 변경지역, 즉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가 관철되던 공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막연하게 고구려 토기로 인식되었던 자료들이 요령성 조양을 비롯한 당의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들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하남 낙양 장안성에서 빈번히 출토되는 연주문 와당이 고이산성에서도 출토되기도 하였다. 금속 유물로는 관인의 계서를 드러내는 당식 대장식구, 당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등자와 유사한 단병등자, 외면 육각형의 굴대투겁, 장식이 돌출된 지환 등 당에서 요동으로 이입된 물질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반면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시가·전둔·후안·대서구문 고분군 등에서는 석실묘에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재지의 묘제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7세기 후반의 요동은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하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 접변이 일어났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고구려 멸망에 공이 있는 추거들이 안동도호부의 도독·자사·현령으로 기용되거나, 투항한 유민이 주 도독을 승습하는 등 당의 기미지배에 협조하던 집단들에게는 당의 물질문화가 광범위하게 이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지배 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지배사회의 문화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문화인류학적 담론을 유념해보아도 그러하다.

한편, 재지 문화든 유입된 문화든 물질문화는 특정 지역 내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의미있게 구성된다는 명제를 염두에 둔다면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문화 접변은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 초기의 문화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영주도독부에서 탈출한 고구려 유민(대조영 집단)과 말갈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요동지역과 두만강 유역에서 반당투쟁을 전개하던 고구려 유민도 다수 합류한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안동도호부에 편승하였다가 요동지역의 정세에 따라 부흥운동의 대열에 합류한 집단들의 존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집단의 경험은 당 문물의 접변, 고구려 문화의 계승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융합하는 배경이 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를 고구려나 발해로 명료하게 국적을 구분지어 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오히려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 아래에서 유민의 재지 문화와 당의 이입 문화가 공존하는 전환기 변경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한층 복합적인 역사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문헌사적 접근과 고고학적 접근을 굳이 분리시켜 볼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축적된 문헌사적 연구 성과와 발굴조사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을 융합시켜본다면 좀 더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상도가 높아지는 문헌 연구성과와 달리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1차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상의 논지도 나름의 한계와 논리적 비약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적극 해석해 보고, 7세기 후반의 물질 자료에서 당의 이입품을 구별한 다음 전환기 변경의 관점에서 물질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는 데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요동지역 발굴조사 자료의 증대를 통한 연구의 심화와 논리의 정교화를 지속적인 과제로 삼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舊唐書』, 『三國史記』, 『新唐書』, 『資治通鑑』.

단행본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 제4보루』.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한상복 외, 2022,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通化市文物管理所, 2024, 『自安山城』, 科學出版社.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2018, 『邙山陵墓群考古調查與勘測第一階段考古報告』(上册), 文物出版社.

王錦厚 · 朴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古代交通史』, 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台子山城』, 文物出版社.

劉統, 1998,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4, 『隋唐洛陽城』 第三册, 文物出版社.

三上次男 · 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 中央公論出版社.

논문

강현숙, 2009, 「高句麗 故地의 渤海 古墳-中國 遼寧地方 石室墳을 中心으로」,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_____, 2021, 「중국 길림성 안도 동청 고분군 검토」,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곽승훈 외, 2015,『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권오영, 2009,「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의 매장 프로세스」,『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2), 동북아역사재단.
權恩姝, 2012,「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慶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文學博士學位論文
구난희, 2018,「渤海 營州道의 行路와 運用」,『高句麗渤海研究』60, 高句麗渤海學會.
김종복, 2010,「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역사와 현실』78, 한국역사연구회.
김종일, 2024,「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분묘군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余昊奎, 2017,「두만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현황과 지방통치의 양상」,『역사문화연구』제6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여호규·拜根興, 2017,「遺民墓誌銘을 통해 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東洋學』第69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李文基, 2010,「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大邱史學』100, 大邱史學會.
장병진, 2020,「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고구려 관련 전승과 그 계통」,『역사와 현실』117, 한국역사연구회.
조영광, 2018,「고구려 멸망 후 요동 지역의 동향 -안동도호부 및 치청 번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大丘史學』第133輯, 대구사학회,
津田左右吉 著, 정병준 譯, 2012,「安東都護府考」,『高句麗渤海研究』42, 高句麗渤海學會.
崔正凡, 2018,「渤海古墳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基礎的 檢討와 意味」,『한국상고사학보』102,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20,「遼寧省 朝陽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政治的 含意」,『한국고대사탐구』3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_____, 2024,「人骨 出土 事例로 본 7世紀 後半 遼寧省 瀋陽、撫順地域 古墳 造成 主體의 再認識」,『高句麗渤海研究』79, 高句麗渤海學會.

姜杰, 1998,「撫順縣五龍公社後安墓淸理簡報」,『博物館研究』2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唐洪源, 2000,「遼源龍首山再次考古調查與淸理」,『博物館硏究』2期.
佟達·張波, 2001,「撫順高你山城2區遺迹的再認識」,『高句麗硏究』12輯, 高句麗硏究會.
董峰, 1993,「國內城中新發現的遺迹和遺物」,『高句麗硏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山西省考古硏究所·臨汾市文物考古工作站, 2015,「山西臨汾市西趙村唐墓發掘簡報」,『考古』6期.
徐家國·孫力, 1987,「遼寧撫順高你山城發掘簡報」,『遼海文物學刊』2期.
孫昊, 2024,「對東北考古新發現歷史詮釋問題的初步思考」,『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遼寧大學
吳炎亮, 2005,「朝陽隋唐墓葬硏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王增新, 1964,「遼寧撫順市前屯, 洼渾木高句麗墓發掘簡報」,『考古』10期.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撫順市博物館, 2007,「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考古』10期.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沈陽市博物館, 2007,「遼寧撫順市家墓地發掘簡報」,『考古』10期.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日本奈良文化財硏究所, 2012,『朝陽隋唐墓葬發掘與硏究』, 科學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朝陽市博物館, 1998,「遼寧朝陽北朝及唐代墓葬」,『文物』3期.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朝陽市雙塔區文物管理所, 2012,「朝陽市襯布廠歷年淸理的9座唐墓出土文物」,『朝陽隋唐墓葬發掘與硏究』, 科學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硏究院·朝陽市龍城區博物館, 2024,「遼寧朝陽八里堡唐墓發掘簡報」,『文物』8期.
遼寧省博物館文物隊, 1982,「遼寧朝陽隋唐墓發掘簡報」,『文物資料叢刊』6期.
遼源市文物管理所, 1994,「吉林遼源市龍首山城內考古調查簡報」,『考古』3期.
熊增瓏, 2010,「大西溝問遺址發掘簡報」,『遼寧考古文集』(二),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朝陽市文物考古硏究所, 2019,「遼寧朝陽唐代庫延安墓發掘簡報」,『文物』5期.
朝陽市博物館, 2012,「朝陽市區中心市場唐墓發掘簡報」,『朝陽隋唐墓葬發掘與硏究』,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朝陽市雙塔區文物管理所, 2012,「朝陽市雙塔區零散唐墓出土文物」,『朝陽隋唐墓葬發掘與研究』, 科學出版社.
張洪波·賈宗梁, 1994,「遼寧朝陽五座唐墓」,『北方文物』3期.
張鑫, 2014,「唐乾陵石仗馬的馬具與馬飾」,『文博』3期.
趙俊傑, 2024,「桓仁与集安地区高句丽山城防御体系的形成」,『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 2024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池內宏, 1960,「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滿鮮史研究』上世 第二册, 吉川弘文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전환기 변경의 관점으로 본 7세기 후반의 요동

최정범

고구려 멸망 이후 영역 전역은 당의 안동도호부가 출범하면서 기미부주 체제로 재편된다. 그 과정에서 당의 관인이 파견되는 한편 재지 유민이 당의 기미지배에 협조하거나 부흥운동 등을 전개하며 저항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현재까지 요동 일대에서 조사된 7세기 후반대의 고고 자료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고구려 말기-발해 초기에 걸쳐 운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적이 연속적으로 점유되었는지, 단절성이 있는지에 대한 접근에는 이르지 않았다.

전환기 변경의 관점에서 볼 때 7세기 후반 요동지역은 고구려에서 당의 안동도호부로 공간 점유 주체가 바뀌며 정치적 갈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한편, 물질문화는 그 안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며 의미 있게 구성된다는 명제를 염두에 두고, 고고 자료를 재차 살펴보면서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에 수반되어 당의 물질문화가 이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헌 자료에서 확인된 투항 유민의 기미주도독 승습, 고구려 멸망 후 공이 있는 추거를 도독·자사·현령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고구려 말기의 유적들이 안동도호부 출범 이후에도 점유되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굳이 7세기 후반 요동지역 물질문화의 국적을 규정하고 구분하려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가 관철되는 전환기 변경 지역이었음을 유념하고, 고구려 유민이 남아 있는 와중에 당과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재지·이입 문물이 공존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동지역의 역사·고고 자료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심화한다면 한층 구체적인 역사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고구려, 당, 안동도호부, 전환기,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Liaodong of the Late 7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 Period

Choi Jungbum

After the fall of Goguryeo, its entire territory was reorganized under the Tang dynasty's Protectorate General to Pacify the East and transformed into the *Jimifuzhou* system. During this process, Tang officials were dispatched, while local populations either cooperated with the Tang's *Jimi* governance or resisted through revivalist movements. Meanwhile, archaeological data from the late 7th century uncovered in the Liaodong region is generally interpreted as being utilized during the late Goguryeo and early Balhae period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sites were continuously occupied or witnessed interruptions has yet to be thoroughly addr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changes, the Liaodong region in the late 7th century emerged as a space of political contention, as territorial control shifted from Goguryeo to the Tang'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rotectorate General to Pacify the East. Considering that material culture plays an active role and holds significant meaning in such transitions, a re-examination of the archaeological evidence reveals the influx of Tang material culture accompanying the *Jimi* governance of the Protectorate General to Pacify the East. Historical records mentioning the appointment of surrendered local elites as governors of *Jimiand* the designation of former Goguryeo officials such as *chugeo*(chiefs of local communities) as dodok (military governors), zasa(prefects), and *hyollyeong*(county magistrates) further indicate that late Goguryeo sites continued to be occupi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orate General to Pacify the East.

Therefore, attempts to rigidly define or classify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material culture in the Liaodong region during the late 7th century are ultimately unproductive. Instead, it is more important to recognize this area as a transitional borderland where the *Jimi*governance of the Protectorate General to Pacify the East was enforced. During this period, remnants of the Goguryeo population remained, while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with the Tang dynasty took place, resulting in the coexistence of indigenous and imported cultural elements. From this perspective, a more comprehensive re-evaluation of th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the Liaodong region is expected to enable a more detailed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is transitional period.

Keywords: Goguryeo, Tang, Andong Protectorate, transition period, Bal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 //doi.org/10.23037/dyn.2025..88.008

1910년대 평북 의주·용천 출신들의 중국 안동현 이주와 벼농사

오병한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조사관

I. 머리말
II. 안동현 및 주변의 한인 이주 상황
III.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 배경
IV. 이주 한인들의 정착과 생활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일제강점기 서간도[1]를 포함한 압록강 연안은 간도와 함께 만주의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한인 이주는 1860년대 평안도와 함경도의 대기근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1910년대 후반부터 한인 이주는 집단화·대규모화하는 경향을 보이며[3] 1920년대가 되면 이주 지역도 우장(牛莊)·요양(遼陽)·봉천(奉天)·철령(鐵嶺)·장춘(長春)·안동(安東) 등으로 확대되었다.[4]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2024년 6월 28일 학술대회 만주학회·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전남대학교 사학과 공동학술대회 '인문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변화 만주'에서 발표한 논문 「남만주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 1910년대 압록강 하류지역 한인 이주와 개간」을 보완수정한 것이다.

1 서간도는 백두산 서남쪽, 압록강 너머의 渾江 유역을 중심으로 松花江 중상류 지역인 寬甸縣·通化縣·懷仁縣·臨江縣·輯安縣·柳河縣·撫松縣·安圖縣·興京縣·海龍縣 등을 의미하였다(박환, 1991, 『滿洲韓人民族運動史硏究』, 일조각, 4쪽). 1920년대 서간도는 奉天省 柳河·通化·輯安·臨江·寬甸·興京·桓仁·海龍 등 9개 縣이었다(「西間島 移住 同胞의 最近 情況」, 『東亞日報』 1925.1.13). 1907년경 간도는 동·서로 구분되었으며, 서간도는 압록강 북쪽 일대를 의미하였다. 1920년대 후반 서간도 범위는 압록강 상류 대안까지 확대되었다(문상명, 2020, 「20세기 초 지도로 본 간도의 역사적·지역적 범위와 한인 이주지」, 『만주연구』 29, 172쪽).

2 「朝鮮人概況(1922.5.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32』, 5쪽. 압록강 상류지역에서 한인 이주는 1861년 渾江 유역에서 청인의 伐木과 流筏 사업이 성행하던 때에 伐師 목적으로 월경한 한인 중에서 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가 비옥 개간에 눈을 돌리고 경작을 시작하면서 점차 한인 촌락을 형성하였다(현규환, 1967, 『韓國流移民史』 상, 어문각, 139a쪽). 『不逞團關係雜件』 가운데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문서는 자료 검색과 열람의 편의를 위해 쪽수를 기재하였다.

3 「朝鮮人概況(1922.5.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32』, 6쪽.

4 「朝鮮人概況(1922.5.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32』, 5쪽; 「在滿同胞와 水田事業(四)」, 『朝鮮日報』, 1924.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인 이주와 만주에서 벼농사의 확산을 동일시하는 시각도 이 무렵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5] 이는 한인 이주와 만주에서 벼농사의 확산이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압록강 연안에서도 압록강 하류지역[6]인 안동·수암(岫巖)·장하현(庄河縣)과 봉성현(鳳城縣) 등에서는 상류지역의 통화(通化)·집안(輯安)·임강(臨江)·관전(寬甸)·환인현(桓仁縣) 등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한인들의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안동현 삼도랑두(三道浪頭)에서는 1861년부터 한인들의 벼농사가 시작되었고[7] 1910년대부터 안동현 탕지자(湯池子)·소전자(小甸子)·용왕묘(龍王廟)를 비롯한 봉황성 석성(石城)·대보(大堡)·동탕(東湯)·애양(愛陽) 등은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역이 되었다.[8]

압록강 연안에서 한인 이주 연구는 주로 독립운동 혹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이주에 집중되어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서간도를 포함한 압록강 상류지역에 집중되는 경향-특히 이주의 규모나 독립운동사 비중 측면에서 상류지역

---

5 국가보훈처 편저, 2022,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점차 북쪽으로 향하는 수전의 발달(1921.4.)」, 『동북지역 당안관 소장 한국인 관계 자료』(이하 『당안관 소장 자료』), 국가보훈처, 123~124쪽. 또한 "滿洲의 水田發達이 歷史上 朝鮮人에 負한 바가 大하다 云할지오"(「在滿同胞와 水田事業(二)」, 『朝鮮日報』, 1923.1.3.)라고 하였다. 만주에서 벼농사는 발해시대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만주에서 벼농사 기원은 김영, 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31~41쪽 참조. 한편, 1940년대까지 만주에서 벼농사 기원은 그 기록이 불분명하다고 하였다(橫山敏男, 1945, 『滿洲水稻作ノ硏究』, 河出書房, 1쪽).

6 일본 자료에서는 1920년대 압록강 연안을 '안동지방'(「最近에 있어서 移住鮮人狀況(1921.8.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9』)으로, 중국 자료에서는 '안동'으로도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盛京時報』에는 '안동' 한인 숫자가 남 4만 2,777명, 여 2만 8,452명이라고 하였다(「韓人旅居東省之確數」, 『盛京時報』, 1917.2.16.)(中國全國報刊索引). 여기의 '안동'은 한인 인구로 보아 압록강 연안 이주 한인 전체를 의미할 것이다.

7 金雲龍, 1998, 「東邊道水田開發略考」, 『東邊道經濟開發史略』, 通化市政協文史學習委員會, 266~267쪽.

8 丹東市民族宗教事務委員會民族志編纂委員會 編, 2000, 『丹東朝鮮族志』, 遼寧民族出版社, 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및 그와 인접한 유하(柳河)·회인현(懷仁縣) 등의 지역이 주된 관심의 대상[9]-을 보였다.[10]

반면 1960년대 현규환의 『한국유이민사』 이후 최근까지 하류지역에 주목한 연구가 거의 없는[11] 가운데 서동일과 이은영의 연구가 주목된다. 서동일은 노상익(盧相益)의 '중국 남만주 안동현 접리수도(接梨樹圖)'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910년대 안동현 접리수 한인촌의 형성 과정과 운영 형태, 그리고 이들의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분석하였다.[12] 이은영은 국권 상실 이후 접리수로 이주한 노상직(盧相稷)·안효제(安孝濟) 등 '망명 유림들'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이들의 독립운동 활동과 이주 한인들의 벼농사 양상을 조명하였다.[13] 황민호[14]와 김주용[15]의 연구도 한인 이주와 관련이 있다. 오병한은 1920년대 안동현을 비롯

9 서동일, 2015,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171, 278~279쪽. 1910년대 독립운동을 위한 한인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장세윤, 2017, 「1910년대 남만주 독립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안동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91쪽; 이계형, 2022,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유림의 역할」, 『만주연구』 33. 이외 국내와 중국의 만주 이주에 대한 연구 경향은 金穎, 2003,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7쪽 참조.

10 김주용, 2018, 「境界와 脫境界의 이방인: 만주지역 한인이주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92~100쪽.

11 『韓國流移民史』에서도 서간도 지방의 '犯越과 만주 이주'에서 압록강 하류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현규환, 1967, 『韓國流移民史』 상, 어문각, 139a~142a쪽). 최근 중국의 연구도 상·하류 지역을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張古悅, 2007, 「遼寧地區朝鮮人沿革及中日各方政策研究(1910-1948)」, 延邊大學 歷史學博士學位論文, 28~75쪽).

12 서동일, 2015, 앞의 글, 『한국사연구』 171.

13 이은영, 2016, 『요동의 학이 되어-일제강점기 서간도 망명 우국지사 이건승 안효제 노상익 노상직 예대희 조정규와 안창제를 중심으로』, 학자원.

14 황민호, 2010, 「1910년대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한인의 만주 이주」, 『숭실사학』 25, 132~145쪽.

15 김주용, 2021, 「한인의 서간도, 북간도 이주와 정착: 1910년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54, 85~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하류지역에서 한인 이주와 벼농사 양상을 분석하기도 하였다.[16]

한편,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형성과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일찍부터 한인들의 만주 이주와 벼농사 확산에 주목하였다. 박문호(朴文鎬)는 1846년 압록강 상류 혼강(混江) 하류지역에서 시작된 벼농사가 1861년 안동현 삼도랑두에서 시험 재배 성공을 계기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17] 특히 안동현 삼도랑두에서 시작된 벼농사를 '동변도 벼농사의 서곡'으로 간주하였다.[18] 이후 간행된 『동변도경제개발사략(東邊道經濟開發史略)』, 『단동조선족지(丹東朝鮮族志)』 등과 최근 김영(金穎)과 강유풍(姜裕豊)의 연구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 있다.

김영은 1840~1860년대 혼강 하류지역인 관전현(寬甸縣) 하루하(下漏河), 태평초(太平肖) 일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으며, 1875년 통화(通化) 일대에서 성공한 벼농사 시험 재배 이후 남만주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19] 강유풍은 1930년대 일본의 만주 침략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인들의 만주 이주와 벼농사 확산을 설명하였다.[20] 장고열(張古悅)은 1910년대 한인들의 압록강 연안 정착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정책과 대응을 분석하기도 하였다.[21]

하지만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던 다양한 문제들-예를 들어

16 오병한, 2021, 「압록강 하류지역 안동조선인회의 活動과 性格」, 『한국근현대사연구』 98, 68~70쪽.

17 朴文鎬, 1987, 「朝鮮族在丹東」, 『中國朝鮮族歷史研究論叢』 Ⅰ, 延邊大學出版社, 242쪽. 1987년 당시 단동시 벼농사 면적은 75만 8,054畝로 東溝縣은 "어미지향(魚米之鄕)"으로 불렸다고 한다(朴文鎬, 1987, 앞의 글, 243쪽).

18 일초, 1999, 「근대 남만지구의 수전개발에 공헌한 조선족 농민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1, 민족출판사, 323쪽. 중국에서 한인 이주와 벼농사 확산에 대한 연구는 김영, 2004, 앞의 책, 21~22쪽.

19 金穎, 2003, 앞의 글, 17~18쪽. 특히 이주 한인에 의한 건답직파법 전파가 건조지대인 만주에서 벼 재배면적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金穎, 2003, 위의 글, 37쪽).

20 姜裕豊, 2012, 「民國時期日本對東北水田投資研究-以朝鮮移民水田開發爲中心」, 延邊大學 歷史學博士學位論文, 17~18쪽

21 張古悅, 2007, 앞의 글, 28~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정부의 이주 한인에 대한 입적(入籍) 강요와 세금 착취,[22] 정부 차원에서 한인 이주에 대한 견제,[23] 중국인들의 횡포,[24] 그리고 1915년 5월 25일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 관한 조약(이하 '만몽조약')' 체결 이후 '상조문제(商租問題)'[25]

---

22 중국 정부가 이주 한인에게 징수한 민족차별적 잡세는 30여 종에 달하였다(연변조선족략사편찬조, 1989, 『조선족략사』, 논장, 21쪽).

23 상류지역에는 1911년 1월부터 1912년 2월 말까지 총 1만 5,312명의 한인이 이주하였다. 이는 한 달 평균 약 1,930명으로 당시까지 가장 많은 숫자였다. 이에 중국 관원들은 단속을 강화하였으며(「鴨綠江下流一帶地方鮮人租借地狀況視察報告書(1912.12.)」(이하 「視察報告書」), 『滿洲及間島在住鮮人ノ土地租借狀況調査一件』(B04011168100), 486쪽(국사편찬위원회 編, 2004, 「鴨綠江下流의 朝鮮人租借地에 대한 視察報告」, 『間島沿海州』 1(『韓國近代資料集成』 9), 국사편찬위원회, 401~448쪽 수록) 다수의 이주 한인이 거주하던 상류지역을 "心腹大患"으로 인식하였다(국가보훈처 편저, 2022, 「한인 姜禮道의 조사와 관련된 건(1911.6.3.)」, 『당안관 소장 자료』, 33쪽).

24 1912년 5월 중순 의주부 光城面 柳草洞 출신의 崔人健은 안동현 大黑山(대동구 북쪽 30리)의 중국인 許靑雲이 소유한 토지 40천(16정보)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허청운의 이웃이 이를 밀고하여 허청운은 대동구순경국으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다. 1911년 한인 金信祐의 토지 계약을 중개인 單書田이 봉황청에 구류를 당했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다. 한인과의 토지거래를 중개한 銅鑛嶺의 중국인 李恒泰도 약 1개월간 안동현심판청에 구류되었다. 중국 관원들은 한인과 토지계약을 체결한 중국인 지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12년 7월 중순 안동현에서 취조를 당한 이도외자 제일의 자산가 夏開九는 교육비 기부금 명목으로 은 2,500원과 '國民捐' 은 1,000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視察報告書」, 502, 504쪽).

25 만몽조약 체결 이후 등장한 '商租'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해석은 서로 달랐다. 일본은 상조 대신 '土地使用權' 혹은 '土地永租'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하였다. 일본은 당초 만몽조약에 삽입하려 했던 '일본국 신민은 토지의 賃借權 혹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거부되자 '暫租' 혹은 '永租'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다가 결국 상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土地商租須知'에서 商은 상의·의논(商量)을, 租는 임대(租)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상조자 사이에 자유계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강조하기 때문이었다(滿洲國 民政部 土地局, 1935, 『商租權に就て』, 土地局, 3쪽). 상조문제는 주로 1930년대 이주 한인들의 귀화와 국적문제와 관련되어 언급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상조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손춘일, 1997, 「在滿韓人의 國籍問題와 土地所有權關係 -土地商租權을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1997, 「滿洲國 성립후 土地商租權 문제와 在滿韓人에 대한 토지정책(1932~1937)」, 『아시아문화』 13; 2000, 「滿洲事變後 土地商租權登記와 在滿無籍韓人에 대한 就籍措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국 언론의 태도[26]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금까지 한인들의 만주 이주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집단 이주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정착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북 안동(安東) 등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집단 이주 혹은 지원하던 문중 관련 연구[27]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 이주의 원인으로 "생활난"도 언급되므로[28] 경제적 원인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1920년대가 되면서 남만주에서는 한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상조문제'가 등장하면서 한인-중국인 분쟁이 증가하였다. 이를 기회로 삼은 일본은 '한인 보호'를 구실로 안동조선인회를 비롯한 각종 친일단체를 통하여 분쟁에

置」, 『백산학보』 55.

26 실제 일본의 상조권 행사에 따른 중국 소작인들의 피해는 한인이 아니라 현지 중국인(奸民)의 개입[「奉天奸民勾串日人索地地惡劇」, 『日知報』, 1917.9.25; 「日人在南滿商租土地之進行」, 『時事新報』, 1918.2.6.(全國報刊索引)]에 의한 것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상조권을 빙자한 일본인들의 횡포"[「日人商租華地之糾葛, 亂寫租地畝數」, 『國民日報』, 1917.1.6.(全國報刊索引)], 혹은 "일본인과 결탁한 한인들이 중국 소작인들의 토지를 강점"[「奉省之韓人强佔土地案」, 『時事新報』, 1917.5.16.(全國報刊索引)] 등으로 달아 마치 한인들에 의한 피해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다.

27 조동걸, 1978, 「安東儒林의 到滿經緯와 獨立運動의 性格」, 『대구사학』 15·16; 김희곤, 2007,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강명숙, 2010,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우당 이회영과 초대 교장 석오 이동녕」, 『사학』 127; 한시준, 2013, 「신흥무관학교와 尹琦燮」, 『한국근현대사연구』 67; 조덕천, 2015, 「1910년대 평해 지역 平海 海月公派 문중의 서간도 이주경위」, 『한국근현대사연구』 73; 강윤정, 2018,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한국학논총』 49; 이계형, 2022,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 유림의 역할」, 『만주연구』 33 등 참조.

28 안동영사관이 작성한 「安義通過移住鮮人通過表」에는 1913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의선과 안봉선을 통해 이주한 한인 128명 가운데 이주 동기가 확인된 60명이 "생활난"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在外內外國人ノ戶口調査雜件/在滿洲之部』 第二卷, 「滿洲在留本邦人及外國人人口統計表進達ノ件」(B13080473200), 154~1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입하였다.[29] 상조문제는 생계와 직결된 만큼 이주 목적이나 공동체 성격에 따라 한인들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1920년대 이후 상조문제나 1930년대 표면화되는 한인-중국인 분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한인 이주의 양상과 그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압록강하류일대지방선인조차지상황시찰보고서(鴨綠江下流一帶地方鮮人租借地狀況視察報告書)」[30](이하 「시찰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910년대를 중심으로 1920년대 초반까지 평안북도 의주(義州)·용천(龍川) 출신들의 벼농사와 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현과 그 주변으로 이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우선 1910년대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한인 이주 상황을 분석하고, 이주의 배경을 압록강 하구라는 지형에 따른 의주·용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수리사업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이앙법의 보급에서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 한인들의 현지에서 토지 소유 형태와 벼농사를 중심으로 생활을 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1910년대 이후 국내에서 만주 이주와 압록강 연안에서 한인 이주와 교류의 다양한 양상 파악에 일조하였으면 한다.

Ⅱ. 안동현 및 주변의 한인 이주 상황

압록강 연안에서 한인 이주는 1860년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자

29 이에 대해서는 오병한, 2021, 「압록강 하류지역 안동조선인회의 活動과 性格」, 81~88쪽 참조.

30 「視察報告書」, 479쪽. 안동영사관 外務書記生 小林陽之介 등이 1912년 7월 24일부터 13일간 압록강 하류 지역을, 2차로 8월 7일부터 5일간 五龍背, 湯山城 주변을 조사하고 「視察報告書」를 작성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만주의 한인 숫자(1913년 6월 조사)[31]

지역 (현별)	호수(戶)	인구(名)		합계(名)
		남	여	
安東縣	296	994(755)	663(592)	1,657(1,347)
寬典縣	786	1,717	1,146	2,863
輯安縣	5,600	17,118	11,415	28,533
懷仁縣	2,650	8,088	9,352	13,480
通化縣	2,055	6,165	4,110	20,275
臨江縣	2,320	7,012	4,667	11,679
莊河縣	93	287	185	472
鳳城縣	87	279(272)	186(186)	465(458)
興京縣	480	1,038	464	1,502
안동영사관 관내	**10,367**	**42,698 (42,452)**	**28,228 (28,157)**	**70,926 (70,609)**
奉 天	45	196	91	289
本溪縣	38	124	69	193
海龍縣	473	921	586	1,507
柳河縣	1,062	3,218	3,183	5,356
撫松縣	880	2,520	3,000	4,520
安圖縣	795	2,276	1,742	4,018
長白縣	3,850	7,948	6,132	14,080
和龍縣	7,328	20,711	19,694	40,405
汪淸縣	1,845	5,508	4,097	9,605
延吉縣	20,144	52,348	46,429	98,777
琿春縣	830	2,786	2,808	5,194
계	**37,290**	**98,556**	**85,386**	**183,942**
합계	**47,657**	**141,254**	**113,614**	**254,868**

* 괄호 안의 숫자는 鏡城·義州·咸興憲兵隊의 조사 내용.
※ 출처: 『在外內外人ノ戶口調査雜件/在滿洲之部』 第二卷(B13080473000), 151쪽, 「對岸支那領移住朝鮮人調査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역 주민들이 장백·집안·임강현 등으로 이주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32] 그렇지만 안동현과 그 주변에서 한인 이주의 정확한 시기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33] 다만 한인들의 이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벼농사가 1861년 안동현 삼도랑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34] 또한 1905년까지 안동현 일대에서 소수의 한인들이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으로 있다가[35] 러일전쟁 이후부터 평북 출신들이 안동현 대고산(大孤山)으로 이주하여 벼농사를 지었다고도 한다.[36] 1920년대에는 안동현 탕지자에서 시작된 벼농사가 백채지(白菜地)·맥기산(脈起山)·소단산(小團山) 등을 거쳐 혼수포(渾水泡)·접리수·삼도랑두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37]

한편, 일본이 조사한 「시찰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이주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02년경 한인들이 처음으로 안동 서남쪽 30리 되는 탕지자로 이주하였는데, 곧 귀국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지역에서 한인은 찾을 수 없다가 1907년에 다시 용천군 북상면(北上面) 출신 장(張)모가 안동현 백채지로 이주하여 중국인 곽

31 중국 측 조사에 따르면 1917년경 압록강 연안의 이주 한인은 7만 1,229명이다(남 4만 2,777명, 여 2만 8,452명)(「韓人旅居東省之確數」, 『盛京時報』, 1917. 2.16.)(中國全國報刊索引). 이는 당시 일본 측 조사와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32 「朝鮮人概況(1922.5.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32』, 5쪽. 이보다 앞서 1845년경부터 평안북도 楚山郡에서 조선인 약 80戶가 寬甸縣 下露河, 太平哨 등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文鍾哲, 1993, 「丹東地區朝鮮族歷史及現狀調查」, 『滿族硏究』 2, 88쪽). 하류지역은 1860년대부터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논농사에 종사하였다(金雲龍, 1998, 앞의 글, 266~267쪽).

33 「朝鮮人概況(1922.5.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32』.

34 金雲龍, 1998, 앞의 글, 266~267쪽. 한인들은 압록강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방을 쌓고 압록강 물을 끌어들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청의 만주 봉금이 유효하던 시기로 모두 추방되었다고 한다(류병호, 1999, 「남만지구 조선족들의 생활상」,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1, 민족출판사, 323쪽.

35 「視察報告書」, 486쪽.

36 秋原昌彦, 1933.7, 「滿洲之水稻に就いて(一)」,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報』 第5號, 64쪽.

37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1, 『滿洲ノ水田』, 南滿洲鐵道株式會社, 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郭)모의 소작인으로 벼농사에 종사하였다. 그렇지만 장모는 이듬해 중국인 지주로부터 100여 원을 빌린 후 도주하였다. 1909년에는 의주 성내 거주하던 홍자평(洪子平)이 안동현 맥기산으로 이주하여 중국인 지주 추항수(鄒恒秀)의 소작인이 되었다. 홍자평은 수확량의 4%를 소작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벼농사를 지었다. 같은 해 소단산으로 이주한 의주부 광성면(光城面) 유초동(柳草洞) 출신의 김두만(金斗萬)도 홍자평과 같은 조건으로 중국인 송(宋)모의 소작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논 23천(天)[9정(町) 2반보(反步)]을 천당 30원(元)에 10년 동안 임대하였다.[38]

1910년에는 용천군 양서면(楊西面) 곽송정(舊松亭) 출신 김여량(金汝良)이 소단산으로 이주하였다. 김여량은 중국인 지주 송모로부터 토지 40천(16정 8반보)을 7년 동안 천당 12원에 임대하여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외에 삼도구의 박두류(朴斗流)는 8천을, 삼도랑두의 최홍빈(崔弘彬)·손달원(孫達元)은 7천을, 장간복(張干福)은 2천을 각각 임대하였다. 1911년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한인들이 중국인 지주로부터 임대한 토지는 662여 천, 1912년에는 1,695천에 달하였다.[39] 1911년 말에 이르면 안동현과 그 주변 한인들의 토지 임대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1912년 봄부터 한인들은 개간이나 벼농사를 위하여 연고지로부터

---

38 「視察報告書」, 483쪽. 당시 토지를 측량할 때에는 일본의 曲尺과 동일한 營造尺을 사용하였다. 영조척 5尺 2寸이 1弓에 해당하므로 1畝를 240弓, 6무를 1天地라고도 하였다. 1무는 일본의 180평, 1天은 약 1,080평으로 약 3半 6畝에 해당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탈세를 목적으로 매매 혹은 신고의 면적을 축소하여 환산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1천지는 실제 면적을 4反步 내외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視察報告書」, 517쪽). 만주사변 이전 만주 각 지역의 면적 단위는 다음과 같다(김영, 2003, 앞의 글, 281쪽).

면적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
1弓	일본 약 7合 4勺 1寸	일본 약 7합 4작	일본 약 7합 4작
1畝	240궁, 일본 약 5무 27步	360궁, 일본 약 8무 26坪	288궁, 일본 약 7무 3평
1天地(晌)	10무, 일본 약 5反 9무 9평	10무, 일본 약 8반 8무 20평	2,880궁, 일본 약 7반 1무 4평
1方			45상, 일본 약 32정 1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작인을 불러들였기 때문일 것이다.[40]

1912년경 일본이 조사한 안동현과 그 주변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괘강구(掛江溝) 연안, ② 조씨구(趙氏溝)와 항구(恒溝), ③ 신구(新溝) 용개하(龍開河)와 조아구(棗兒溝) 연안, ④ 안봉철도 연선에 오룡배(五龍背)·탕산성(湯山城) 등으로 구분되었다. 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안동현 제4구의 동광령(銅鑛嶺), 탕지자, 접리수의 노단수(老擅樹), 백가보(白家堡), 양가보(楊家堡), 그리고 제5구의 삼고류(三股流) 등이며, ②에는 안동현 제5구의 백채지, 제4구에 속하는 혼수포 맥기산, 제6구에 속하는 혼수포 대흑산과 그 동쪽, 문감석(門坎石), 석교자강(石橋子崗) 등, ③에는 주로 봉황청 혹은 봉황청·안동현과 인접한 안동현 제6구의 남·북 대천안(大泉眼), 강가대보(姜家大堡), 안동현 관할 장산(長山)의 동남쪽, 봉황청(鳳凰廳) 관할의 장산 서쪽, 봉황청 소단산, 흑어포(黑魚浦), 대루방(大樓房), 대방신(大房身), 동·서 소첨자(小尖子), 동고령자(東古嶺子), 태평산(太平山), 동과림자(東瓜林子), 소남산(小南山) 등이 있었다. 그리고 ④에는 안동현 제1구의 구련성(九連城)과 소루방(小樓房), 노룡두(老龍頭), 안동현 제2구의 합마당(蛤螞塘), 금산만(金山灣), 안동현 제3구의 영대자(營臺子), 왕가둔(王家屯), 용천구(龍泉溝)·왕가점(王家店)·소구자(沙溝子),[41] 봉황청 유가보(劉家保) 등이 있었다.[42]

일본이 작성한 하류지역의 한인 통계는 1909년부터 확인된다.[43] 1909년

39 「視察報告書」, 484쪽.

40 「視察報告書」, 479~480쪽.

41 「視察報告書」, 479쪽.

42 「視察報告書」, 533~549쪽.

43 1909년 하반기부터 안봉철로 개축공사(압록강철교)가 시작되면서 안동에는 일본인 이외에도 중국과 조선의 상인과 노동자 등의 왕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무뢰한이 증가"하여 단속의 필요성도 커졌다(「諸般行政施行ノ成績[明治四十二年七月ヨリ九月]/14(安東警務署)」(B03041537100), 『關東都督府政況報告並雜件』 第四卷, 115쪽). 일본의 안동 인구 조사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월 안동의 한인은 호구와 남녀 구분 없이 314명,[44] 1910년 12월에는 안동 34호(戶)(남 178명, 여 22명), 압록강 연안 2호(남 11명, 여 2명), 대동구 2호(남 9명, 여 1명), 오룡배 1호(남 5명), 탕산성 3호(남 27명, 여 5명) 등이었다. 여기에 일본의 전관거류지와 만철부속지 등을 포함하면 안동현의 한인들은 67호 553명(남 504명, 여 45명)이었다.[45] 〈표 1〉에서 보듯이 1913년 6월 안동·장하현과 봉황현(鳳凰縣)(봉황청의 오기-필자)에서 파악된 한인은 2,591명이었다. 이는 안동영사관 관할구역 한인 7만 926명의 약 3.6%, 만주의 한인 25만 4,868명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통계가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 측이 이주 한인 조사를 혐의(嫌疑)한다는 사실을 의식한 일본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46]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 부속지와 전관거류지의 통계는 비교적 정확하였다. 반면 그 이외 지역에서는 조사 범위가 안봉철로 역 주변 몇 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본은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던 상류지역의 오지를 "완전히 조사의 편의가 결여된" 지역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조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원을 특파해야만 하였다.[47]

1913년 일본이 안동영사관 관할지역 이주 한인을 조사된 10만 887명보다

---

44 조사 대상은 關東州·牛莊·遼陽·奉天·鐵嶺·長春·吉林·하얼빈(哈爾賓)·치치하얼(齊齊哈爾) 등이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1,256명이었다. 여기에 안동은 포함되지 않았다(「關東州並滿洲在留本邦人及外國人人口統計表(明治43年前半期調査)」(B13080472500), 『在外內外國人ノ戶口調査雜件/在滿洲之部』 第一卷, 179, 193쪽).

45 「明治四十三年十二月末管內在留本邦人及外國人戶口表」(B13080472600), 『在外內外國人ノ戶口調査雜件/在滿洲之部』 第一卷, 225~226쪽.

46 「視察報告書」, 479~480쪽.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집안현에서도 확인된다. 집안현 大陽岔에서 일본이 파견한 비밀 조사요원 姜禮道와 그의 조수 潘一淸이 사전 조회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안동부영사 吉岡彦一이 발행한 증명서만 소지하고 한인 호구를 조사하고 다니다 중국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국가보훈처 편저, 2022, 「한인 姜禮道의 조사와 관련된 건(1911.6.3.)」, 『당안관 소장 자료』, 32~33쪽).

47 「滿洲在留朝鮮人人口調査ニ關スル件(1913.8.27.)」(B13080473200), 『在外內外國人ノ戶口調査雜件/在滿洲之部』 第二卷, 1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많은 13만에서 14만 명으로 추산한 것도[48]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Ⅲ.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 배경

1. 압록강과 의주·용천의 자연환경

18세기 중엽 『택리지』의 「복거총론」 생리조에 묘사된 평안도의 농업과 주민들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의 영동 아홉 고을과 함경도는 땅이 더욱 메마르고, 황해도는 기름진 곳과 메마른 곳이 반반이다. ① 평안도의 산중 고을들은 땅이 메마르나, 바닷가 여러 고을은 제법 기름져서 충청도보다 못하지 않다.[49](밑줄은 필자 강조, 이하 동일)

> 대개 청천강 이남은 청남(淸南)이라 하는데 지형이 동서로 좁고, 이북은 청북(淸北)이라 하는데 지형이 동서로 뻗쳐 매우 넓다. 온 도(道)가 동쪽으로는 령(嶺) 등성이와 가까워서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② 또한 관개할 만한 냇물과 못물이 모자란다. 그래서 논이 아주 적고 들은 모두 밭곡식이다. … 지금은 들은 넓으나 사람이 드물어 산에 농사짓는 곳이 적다. ③ 서쪽으로는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에서 조수를 막아 논을 만든 곳이 많다. 그러나 밭보다는 여전히 적어 온 도의 쌀값이 삼남보다 항상 비싸다. 민간 풍속에서는 뽕과 삼을 심어 베짜기를 일삼고 생선과 소금은 아주 귀하다. 그러므로 비록 바닷가 고을이라도 소금 굽는 곳이 많지 않다. 이 지방에서는 대나무·감·닥·모시는 생산되지 않는다. ④ 청북은 지역이

48 「滿洲在留朝鮮人人口調査ニ關スル件(1913.8.27.)」, 『在外內外國人ノ戶口調査雜件/在滿洲之部』 第二卷, 149쪽.

49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2002, 「복거총론」 생리조, 『택리지』, 을유문화사, 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높고 추우며 북쪽 국경과 가까워 곡과 과실이 없고 물산도 매우 적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몹시 구차하게 산다.[50]

①~④의 내용으로 보아 18세기 중엽 평안북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관개용수가 부족한 탓에 밭농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토지가 비옥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간과 간척사업에 의한 벼농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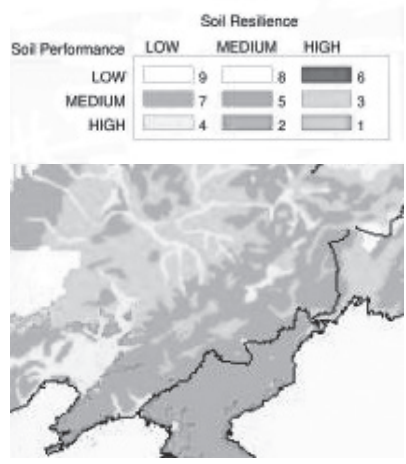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농무부의 고유지질평가 지도(한반도와 만주)(최진열, 2024, 129쪽)

『택리지』에서 언급한 평안도의 토지 비옥도는 최근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림 1〉은 미국 농무부가 조사한 전 세계 토질 지도 가운데 한반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비옥도를 9등급으로 구분하고, 토지 비옥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의주·용천을 포함한 압록강 하류지역과 평안도 서해안은 대부분 2등급에 해당하는 청색을 지역으로 수정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다. 1970년대 자료에도 평안북도는 해안과 하천 유역에 약간의 평지가 있으나, 그 비율은 14.5% 정도에 불과하였다.[51] 반면 압록강 지류인 삼교천(三橋川)[52]이 통

50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2002, 「사민총론」 평안도, 『택리지』, 41~42쪽.

51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編, 1973, 『平安北道誌』,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179쪽.

52 삼교천은 지역에 따라 고진강, 백마강, 삼포강이라고도 하며, 현재 신의주시 남쪽을 흐르는 하천이다(유로: 128.0㎞, 유역면적: 1,147.5㎢). 천마군 관동리 북쪽에 있는 천마산 산록에서 발원하여 피현군을 지나 시의 남쪽에서 압록강으로 유입한다. 압록강의 제1지류로서 피현군에 이르기까지는 계곡을 따라 흐르다가 중하류로 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2 삼교천과 그 주변(19세기 말)[『海東地圖』(규장각 소장 古大 4709-41-v.1-8)]

과하는 의주·용천은 비교적 넓은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1970년대에도 용천군은 전체 면적에서 경지면적 비율이 58.2%이며, 이 가운데 논이 73.9%였다.[53]

의주·용천은 압록강 연안이라는 특성상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특히 용천은 물이 많은 고장이라고 하여 그 지명을 '용천'이라 할 정도였다.[54] 하지만 이 지역은 만성적인 관개용수가 부족에 시달렸다. 압록강 연안에서는 해마다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해가 빈발하였다. 1870년부터 1985년까지 110여 년간 발생한 압록강 홍수는 67회 발생하

려오면서 넓은 평지 위를 흐르며 유역에 평야를 형성한다. 하천의 상류에 만풍호와 대하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용천평야에 관개용수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61~262쪽).

53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編, 1973, 앞의 책, 41~44쪽. 현재 용천군의 경지는 전체 면적의 58.2%이며, 그중 논이 73.9%이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위의 책, 297쪽).

54 용은 원래 물과 관련된 상상의 동물을 이르는 말로, 우리말로 '미루' 또는 '미리'라고 하였다. 용, 즉 미루나 미리는 물을 나타내는 옛말로 물이 많다는 뜻이며, '천'은 고을을 나타내던 '州'자를 지역에 따라 '川'자로 바꾸어 쓴 데서 온 말이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위의 책, 2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55] 국내 신문에서 확인되는 홍수도 1909년 7월,[56] 1914년 7월[57]과 1917년 7월[58] 등이었다. 특히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확률상 해마다 홍수가 발생하였다.[59]

홍수 이외에 가뭄, 그리고 조수에 의한 해일과 그에 따른 경작지 침식도 빈번하였다. 토지가 비옥한 편에 속하는 평안도도 수량이 부족한 탓에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16세기 이후 평안도 전체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면서도 서쪽 해안가에서는 저습지 개간에 의한 논농사가 진행되었다.[60] 이는 비옥한 토지 덕분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는 1930년대까지 거의 해마다 계속되었다.

> 양서·양하 양면은 평원 광야에 고옥(膏沃)한 토지오, 年年 소농(小農)은 수도(水稻), 육도(陸稻)며 육도로 논하면 십풍오우(十風五雨)의 기후가 유하면 풍작을 가점(可占)하야 약불연즉겸연(若不然則歉年)의 한을 不□하였는지라 고로 본년

55 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丹東市志』 1, 遼寧科學技術出版社, 50쪽.

56 「鴨綠江洪水續報」, 『皇城新聞』, 1909.7.31.

57 「洪水滔天」, 『每日申報』, 1914.7.7.

58 「鴨綠江의 增水, 12척에 달함」, 『每日申報』, 1917.7.18. 1919년 5월 10일에도 안동현에는 폭우가 내렸다. 안동 시내에는 281.9㎜의 비가 내려 大沙河 강물도 넘치고 시내 鎭安橋가 파괴되었다. 아울러 주택 다수가 침수되고, 논 8,768무가 물에 잠기는 등 경작지 5,099무의 파종이 불가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5일에도 하룻밤 사이에 119.4㎜의 비가 내려 안동 시내가 침수되었다. 벼락도 떨어져 압록강의 舢板船이 전복되어 20여 명이 사망하였다(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앞의 책, 50쪽).

59 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위의 책, 610~611쪽.

60 16세기에는 低濕地 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干拓地 개간은 경상도, 전라도의 남쪽 해안에서부터 평안도의 북쪽 연안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습지의 개간은 수전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실제 당시 336개 郡 가운데 전체 墾田에 의한 수전 비율이 27%였으나, 경기·경상·전라·충청도의 沿海 군현 68개의 수전 비율은 평균 50%에 달하였다(이태진, 1989, 「15·6세기 韓國 사회경제의 새로운 동향: 低地 개간과 인구 동향」, 『동방학지』 64, 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한재가 비타(比他) 우심(尤甚)하므로 해 기백 정보의 일대지가 괘겸(掛鎌)의 처(處)가 무하므로 …[61]

평북 용천군 양서면과 기타 양하, 북중 양면 각 일부가 연래 압록강 조수의 관계로 비옥한 전토인 수천 정보가 벽해화(碧海化)되어 …[62]

평북 용천군 양하면 입암(立巖), 신창(新倉), 시서(市西) 3개 동은 고진강(古津江) 연안에 개재(介在)한 바 지미(地味)가 비옥하고 면적이 수백 정보에 달하야 차에 산출되는 농작물이 풍부하지만 아즉 하등의 제방 설비가 업슨 고진강수가 범람케 되면 전기 3개 동의 농작물은 일조에 오유(烏有)에 귀케되고 마는 고로 …[63]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토지가 비옥한 압록강 하구와 삼교천 주변에 집중되었다. 이는 비옥한 토지에 홍수와 가뭄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리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삼교천 주변은 경작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64]

조선 후기부터 삼교천 일대와 압록강 하구의 양서면과 양하면을 중심으로

61 「有望혼 水利事業」, 『每日申報』, 1913.11.11.

62 「年年脅威를 주는 鴨江水災防禦策, 大規模의 鴨江水利成立」, 『中外日報』, 1926.12.27. 1913년 7월 12일에는 안동현 小寺, 八果樹, 新溝涯 등의 지역에 해일 피해가 발생하여 경작지 1,277畝가 鹹水에 침수되었다(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앞의 책, 46쪽).

63 「防水堤坊을 期成, 龍川郡 楊河面에서」, 『東亞日報』, 1927.2.27.

64 용천은 "到處에 平野가 많고 地質이 肥沃하고 따라 水源이 良好하므로 수리사업이 發展될 것은 自然의 理勢이다"(「巡廻探訪(250) 生産이 豐富하여 關西의 寶庫(2) 三面江海인 龍川」, 『東亞日報』, 1927.3.8.). 의주는 서남쪽 지역에 비교적 평야가 많고 토지도 비옥한 편에 속하는 의주도 "穀物은 實로 天然의 富貢"하였다. 하지만 "15만 1,520 인구가 가히 생활하기에 아모 부족이 없겠지만, 周圍의 事情은 너무도 實際에 相反되는 형편"이었다(「巡廻探訪(315) 波瀾重疊한 國境의 要衝(2) 發展途中의 義州」, 『東亞日報』, 1927.5.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한 보(洑)[정언(井堰)]나 수류지(水溜地)(제언)의 축조가 집중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종래 갈대 채취 장소[위전(葦田)·노전(蘆田)]로 이용하던 압록강 연안 갈대밭을 논으로 개발한다면 갈대밭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았다.[65]

1910년대 삼교천수리조합 설립 이후 용천군에서는 수리조합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었다.[66] 1920년대부터 지역에서 개간과 간척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

65 예를 들어 1926년 당시 압록강 하구의 황초평은 약 1,000정보의 면적 가운데 부분적으로 개간이 진행된 한편으로 갈대 채취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1932년 당시 황초평의 갈대 불하에 의한 수익은 2~3만 엔이었다. 황초평의 개간을 주장하던 이들은 황초평이 "지하 3~4尺까지 부식토가 비옥한 것은 다른 것에 비할 수 없는 良地이다. 현재 민간 수전이 약 100정보 있으나, 조금도 施肥를 하지 않고 1反步에 1석 이상의 産米를 계속하고" 있는데 황초평을 논으로 개간하면 하루에 "약 15~16만 엔의 수확은 확실하여 노초의 재배에 비할 것이 아니라"라며 황초평의 개간을 주장하였다[「鴨綠江の蘆草を防波堤維持費に」, 『朝鮮新聞』, 1935.9.7.(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문스크랩자료].

66 광복 이전 용천군 수리조합은 三橋川水利組合(1913), 大正水利組合(1914) 楊市水利組合(1924), 忠流土地改良組合(1926), 楊光水利組合(1927), 龍明水利組合, 압록강토지개량주식회사(1940)·압록강수리조합(1941) 등이 존재하였다(鄭桂順 編輯, 1968, 『龍川誌』,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15쪽). 광복 이전 평안북도 수리조합 36개 가운데 14개가 의주와 용천 지역에 소재하였다(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編, 1973, 앞의 책, 352~353쪽). 『의주군지』에서 확인되는 의주군과 용천군 소재 수리조합은 다음과 같다(義州郡誌編纂委員會, 1975, 『義州郡誌』, 義州郡民會, 97쪽).

명칭	설립연월일	관개면적(ha)	몽리면적(ha)	수리조합 사무소 소재지
大正	1914.10.31.	11,039	11,039	용천군 용천면 용암동
三橋川	1917.5.18.	1,567	1,567	용천군 양하면 시남동
楊市	1926.8.12.	123	123	용천군 양하면 시남동
光津	1927.9.29.	177	177	의주군 광성면 와우동
楊光	1919.3.31.	389	389	용천군 양광면 충렬동
光城	1929.8.24.	931	931	의주군 광성면 연상동
忠流	1929.10.6.	379	379	용천군 양광면 산두동
古邑	1930.8.9.	181	181	의주군 고진면 남제동
枇峴	1944.6.16.	80	80	의주군 비현면 체마동
松長	1934.9.30.	1,011	1,011	의주군 의주읍 동부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이앙법의 보급과 이주 주도 세력

「시찰보고서」에서 안동현과 그 주변으로 이주한 한인들 대부분은 의주·용천 출신으로 확인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의주부에서는 고읍면(古邑面)·광성면(光城面)·진리면(鎭里面), 의주군에서는 주내면·고군면·수진면·북하면, 용천군에서는 양서면에 이어 북상면(北上面)·양시(楊市) 등이었다. 1895년 5월 이전까지 의주에 속하던 용천은 관제 개혁으로 일부 지역이 의주부에 속하게 되었다. 1906년에는 의주의 양상면(楊上面)·양하면(楊下面)·양서면(楊西面)·광화면(光化面)·미라면(彌羅面) 등이 용천군으로 편입되었다.[67] 이러한 점에서 두 지역은 사실상 거의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주는 누가 어떠한 이들이 주도하였을까. 『매일신보』는 1910년대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압록강 하류지방 安東縣에서 鳳凰城으로 劃ᄒᆞᆫ 一線 以南 大孤山, 莊下 방면에 到ᄒᆞᄂᆞᆫ 연안 지방에 其 數가 二千八百餘人(內에 安東縣 市內 居住者 三百五十九人)이 有ᄒᆞ니 此等은 대안 義州, 龍川 等地의 이주자라 왕래가 最新ᄒᆞ니 舊ᄒᆞᆫ 者도 七, 八年을 不出ᄒᆞ고 多ᄒᆞᆷ은 明治四十三, 四年(1910~1911—필자 주) 以後의 이주자더라. 來住의 원인은 좌와 如ᄒᆞ니
>
> 一, 병합 후 동양척식회사가 용천군, 의주부에 경작지를 買受ᄒᆞᆯ 際에 조선인은 當 地方(압록강 하류지역—필자 주)의 田畓이 米作에 不適ᄒᆞ고 其 가격이 低廉ᄒᆞᆷ에 着目ᄒᆞ고 右의 賣土金으로써 차의 買收를 爲ᄒᆞᆫ 事 …[68]

67 義州郡誌編纂委員會, 1975, 위의 책, 524쪽. 1906년 관제개혁으로 의주군에 속하던 楊上面·楊下面·楊西面·光化面·彌羅面 등의 지역은 용천군으로 편입되었다(義州郡誌編纂委員會, 1975, 위의 책, 524쪽). 이 지역은 사실상 넓은 의미의 '의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68 「南滿의 朝鮮人(二) 移住의 沿革」, 『每日申報』, 1915.11.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의 기사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토지를 매각한 이들이 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안동현과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여 이주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매각할 정도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 혹은 부농이었다는 것이다. 1910년대 초반 안동현과 그 주변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로 정이원[鄭利源(元)]·한정규(韓正奎) 등이 확인된다.

정이원(1844.8.14.생)은 의주부 주내면(州內面) 출신, 혹은 용천군 양하면 장송동(長松洞)[69]이라고도 한다. 한정규는 의주부 고읍면 출신이었다. 이들은 1911년부터 안동현 이도외자, 동광령[356천(天), 10년 계약], 탕지자(218천, 10년 계약), 삼고류(三股流)(20천, 10년 계약) 등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70] 정이원은 삼교천수리조합 초대 조합장과[71] 1923년 양서면협의회 의원 등을 역임하였다.[72] 반면 한정규는 19세에 소작인에서 출발하여 1920년대 평안북도 일대 부호로 성장한 인물이었다.[73]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벼농사와 이앙법 보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910년대 만주에서 벼농사가 대부분 관수전직파법(灌水田直播法)이었음에도 안동현과 그 주변에서는 이앙법이 시행되었다

69 「三橋川水利組合長認可申請書(1917.6.27.)」, 『三橋川水利組合關係書類(1918)』(CJA0006548), 879쪽. 이는 정이원이 삼교천수리조합장 취임한 1917년 제출한 이력서에 근거하였다.

70 「視察報告書」, 532~533쪽.

71 정이원은 1844년 8월 15일생으로 1854년에 의주군 광성면 미륵동 사숙에 입학 1871년 4월까지 한문을 수학하고, 1872년 7월에 서주군 향교 首掌儀, 1877년 3월에 의주군향교 齋長, 1880년 5월에 箕子陵參奉 등을 역임하고 1884년 2월부터 1917년까지 농업에 종사 중이었다(「組合總會開會ノ狀況」, 『三橋川水利組合關係書類(1918)』(CJA0006548), 886쪽). 정이원은 조합장 취임 이후 450정보인 삼교천수리조합의 관개면적을 확충하여 양하면 新西·立巖·新倉, 양서면 東坪·東望 등 5개 동 894정보에 삼교천 강물을 공급하였다(鄭桂順 編輯, 1968, 앞의 책, 116쪽).

72 「용천 각면 선거, 12면 122명」, 『東亞日報』, 1923.11.28.

73 「社會의 大恩人 韓正奎翁」, 『朝鮮中央日報』, 1933.7.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사실이다.[74] 무엇보다 이 지역 한인들 대부분이 의주·용천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앙법도 의주·용천 출신들이 전파하였을 것이다. 1910년대 평안북도에서 이앙법의 보급률을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후기 이앙법의 보급과 확산은 수리시설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의주·용천은 다수의 수리시설이 축조된 지역이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은 국가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개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의주·용천에서도 개간사업이 진행되었다.[75] 효종대부터 제방 축조나 개간사업 논의가 진행되다가 숙·영조대부터 관민 합작의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축조된 수리시설은 용천의 인고랑제(仁古浪堤), 유(柳)□정제(井堤), 승지제(升池堤), 보민동(補民垌), 상평동(常平垌), 고마동(雇馬垌), 항교동(鄕校垌), 덕대도동(德大島垌)[76] 등, 의주의 광성면 진병곶(鎭兵串)·상호둔(象篪屯), 광화면 주음동(注音垌), 고읍면 임덕둔(臨德屯), 양하면 견일동(見一垌) 등이었다.[77] 임덕둔은 1720년(숙종 46) 논으로 개간되었다. 100년간 유지되던 견일동은 모래로 덮였다.[78] 1811년(순조 11) 민간의 위화도(威化島)[79]

---

74 김영, 2003, 앞의 글, 43쪽.

75 조선 후기에는 국가, 왕실, 관청, 권세가 등이 진황지의 開墾과 干潟地의 간척을 주도하였다. 개간은 주로 산림, 황무지, 하천 연안 등지를 농경지로 확보하는 작업으로 여기에 관개시설, 제방, 도로 등의 건설 작업이 병행되었다. 간척은 간석지 즉 갯벌을 대상으로 간척 주체 및 간척기술 등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농경 개발이었다(「巡廻探訪(315) 波瀾重疊한 國境의 要衝(2) 發展途中의 義州」, 『東亞日報』, 1927.5.13.).

76 龍城府 編, 간행연도 미상, 「堤堰」, 『龍城誌』(奎 17499). 이들의 축조 시기는 향교동이 '孝宗 乙卯年'에 축조가 논의되었다가 1706년(숙종 32)에 완공되었다. 보민동은 1772년(영조 37)에, 압록강 하류의 덕대도동은 1754년(영조 19)에 완공되었다. 덕대도동은 광복 이전까지 존재가 확인된다(鄭桂順 編輯, 1968, 앞의 책, 6쪽).

77 龍城府 編, 간행연도 미상, 위의 자료.

78 金應洙 編, 1849, 「堤堰」, 『龍灣誌』 (奎 798).

79 원래 갈대 채취나 청으로 가는 조선 사절을 위해 사냥을 베풀던 장소였던 위화도는 1810년 대홍수를 겪은 뒤 논란 끝에 개간이 인정되었다. 위화도 개간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간을 허락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토돈(土墩)을 쌓기도 하였다.[80]

〈그림 3〉은 개간이 진행된 신도(薪島)의 모습이다. 갯벌 가운데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이 논이다. 조선 후기 평안도에서는 간척사업으로 경작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19세기가 되면 강계(江界)를 제외한 평안도 강변 7읍의 토지 결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의주는 1,406결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수전이었다.[81] 조선 말기 수리사업 쇠퇴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전인 영·정조대까지만 하더라도 제반 수리시설이 권농의 제요(提要)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 무렵 수리사업의 핵심은 관개용 저수지를 늘려가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국가에 의한 수리정책의 강조와 관개시설의 증가는 이앙법의 보급 조건을 점점 증대시켜가는 것이었다.[82]

그림 3 19세기 후반 薪島의 개간 상황[「黃草坪問題ニ關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ニ關スル件」(B03041223900), 『鴨綠江葦洲ノ 所屬ニ關スル係爭一件』 第一卷, 476쪽.]

조선 후기 이앙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한 계층은 부농과 빈농이었다. 부농은 노동력을 절약하는 가운데 경영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가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 차원에서 이앙법을 보급하였다. 이앙법을

권내현, 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201쪽 참조.

80 金應洙 編, 1849, 앞의 자료, 「巡廻探訪(315) 波瀾重疊한 國境의 要衝(2) 發展途中의 義州」, 『東亞日報』, 1927.5.13.

81 권내현, 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5쪽.

82 김용섭, 2006, 『(신정 증보판)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지식산업사, 5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더욱 필요로 하였던 부농들은 병작지주(幷作地主)가 아닌 경영 지주 및 경영형 부농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빈농들도 다른 파종법과 비교하여 이앙법이 노동력과 자본이 크게 절약되었으므로 이앙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논을 전작(佃作) 혹은 시작(時作)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83]

여기에 용천군의 양서면과 광성면, 그리고 토지가 비옥했던 의주와 신의주 등은 이전부터 하천과 도로를 이용한 물자 운반도 용이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던 지주들은 이러한 지역들을 투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소작인들에게 유리한 도지제(賭地制)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멸하였다.[84] 1932년대까지 평안북도에는 소작료는 타조(打租)가 일반적으로 소작인이 비료대를 부담하였다.[85] 이처럼 의주·용천은 평안북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주 혹은 부농들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 후기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논농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평안북도에도 이앙법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안도의 벼농사는 이앙법이 아닌 대부분 건파법(乾播法)이 시행되었다.[86] 용천군도 평야가 넓어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었다고는 하나[87] 19세기까지 대부분의 경작지는 생산성이 낮은 천수답이었다.[88] 이 때문에 "산이 적고 들이 많은"[89] 용천의 관개하천은 수원(水源)이 짧고 흐름이 좁았으며 날씨가 가물면 곧

83 김용섭, 2006, 위의 책, 59~62쪽 참조.

84 平安北道 編, 2014, 『平安北道小作慣行調査書(復刻板)』, 763쪽.

85 「全朝鮮水利組合實況踏査記-平安北道 組合費第一低廉 純朝鮮人의 事業, 一心으로 團結된 地主會의 活動, 三橋川水利組合」, 『東亞日報』, 1927.8.13.

86 권내현, 2004, 앞의 책, 205쪽.

87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98, 『龍川郡誌』, 평안북도용천군민회, 125쪽.

88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98, 위의 책, 109쪽. 1865년경 용천의 경작지는 旱田 약 983결, 水田 772결[龍城府 編, 1865, 「土田」, 『龍城志』(經古 915.184-Y58y)], 1898년경에는 각각 953결, 563결이었다(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98, 위의 책, 481쪽).

89 李志昇 等 編, 간행연도 미상, 「風俗」, 『龍城府邑誌』(奎 1749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말라서 용수의 관개가 어려웠고, 비만 오면 넘쳐 논이 유실되었다고 한다.[90]

19세기 말까지 의주·용천은 전체적으로 건파법이 우세한 가운데 수리시설과 이앙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수리시설이 집중된 삼교천 주변의 양하면·광하면·광성면 등에서는 이앙법이 제한적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며,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앙법 관련 기술을 터득하였을 것이다. 소작인 한정규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부를 축적하여 지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의주·용천은 평안북도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많았다. 1907년 5월 20일 조사에 따르면 평안북도 인구는 전국의 978만 1,671명 가운데 60만 11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용천군과 의주군은 각각 5만 284명(8.3%)과 4만 9,494명(8.24%)이었다. 이는 영변군 5만 9,413명(9.9%)에 이어 평안북도의 2위와 3위였다.[91] 이는 노동집약적인 벼농사의 특성에 따른 인구구조라 할 것이다.

소작인들의 생활이 불안하였는데 1930년대 초반 의주군과 용천군에서 소작인으로 집과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주의 택지 일부를 빌려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안도 전체에서 의주군은 21.4%(5,995/2만 7,986호), 용천군은 11.5%(3,223/2만 7,986호)였다. 이는 당시 평안북도 19개 군 가운데 1,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92] 이는 소작인들의 생활이 불안정하며 지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생활이 불안정한 소작인들은 지주의 요구가 아니어도 자진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원하였을 수도 있다.

1920년대 이후부터 정이원과 한정규 등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은 수리조합과 토지개량주식회사도 설립하였다.[93] 용천군에서 이전까지 황무지 혹은 밭은

90 鄭桂順 編輯, 1968, 앞의 책, 36b~37a쪽.

91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編, 1973, 앞의 책, 202~205쪽.

92 朝鮮總督府 編, 1977, 『朝鮮ノ小作慣行』 下(復刻板), 龍溪書舍, 110쪽.

93 각주 66)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부분이 논으로 개간되었다.[94] 의주군에서도 압록강 하구의 의주평야가 논으로 개발되었다.[95]

요컨대 1910년대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는 지역의 수리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이앙법 보급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 혹은 부농들이 주도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Ⅳ. 이주 한인들의 정착과 생활

1. 한인들의 분포와 토지 소유 형태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는 토지를 매각할 정도로 소유한 지주나 토지 매각으로 상당한 현금을 소유한 자산가들이 주도하였을 것이다.[96] 이주 한인들은 중국인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였다. 한인과 중국인 사이의 토지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한인들은 중국인 지주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하였다. 보증금을 받고 토지를 저당 잡히는 셈이었다.[97] 이러한 형태

---

94 용천군은 이후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광복 이전까지도 가뭄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鄭桂順 編輯, 1968, 앞의 책, 106a쪽). 현재 용천군 북서쪽의 압록강 하구에는 용천벌이라는 평야가 있다. 이 일대는 압록강과 삼교천에 의해 형성된 복합삼각주 지대로, 용천군·신의주시·의주군에 걸쳐 있는 평탄하고 비옥한 평야이다. 압록강은 토사의 퇴적이 많고, 수로의 변경이 심하여 강안에 넓은 범람원이 발달하였으며, 강 하구에는 신우평, 황초평, 유초도, 동유초도, 계도, 위화도 등 많은 하중도가 사주를 이루고 있다. 삼교천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고진강을 막는 등 수리사업을 통해 논으로 조성하였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 앞의 책, 300쪽).

95 義州郡誌編纂委員會, 1975, 앞의 책, 96쪽.

96 1920년대 안동영사관도 의주군과 용천군 출신으로 안동과 안동현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사실상의 자본가"로 간주하였다(「視察報告書」, 479쪽).

97 典은 일본 민법의 부동산 質權과 유사하다 하였다(「在滿同胞와 水田事業(二)」, 『朝鮮日報』, 1923.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토지계약은 192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한인들이 중국인 지주들에게 주는 보증금은 토질에 따라 달랐다. 대개 토지 1천당 상급지는 양은(洋銀) 120원, 중급지는 양은 100원, 하급지는 양은 80원 정도였다. 임대 기간은 대개 3년 내지 5년에 무이자였다. 소작료는 중국인 지주에게 지급된 보증금 이자가 대신하였다. 한인은 임대 기간에 토지에서 발생한 수확을 소유하였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인 지주는 한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안동현 현지에서는 이를 '전(典)' 혹은 '압(押)'이라고 하였다.[98]

'대압(大押)'이라고도 하는 전은 토지 임차인이 지주에게 전가(典價)를 지불하고 토지문서를 받았다.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 등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매매나 다름없었다. '중압(中押)'이라고도 하는 압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에 한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유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를 반환해야 하였다. 이렇게 토지를 임대한 한인들은 '압호(押戶)'라고 하였다.[99] 이는 명목상 임대였으나, 임대 기간 만료되어도 중국인 지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구 임대가 되었다. 이때 보증금은 사실상 지가가 되는 셈이었다.[100] 한인들의 임대 기간은 대부분 10년 혹은 그 이상이었다.[101]

중국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토지거래는 한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이익이었으므로 사라지지 않았다. 한인들은 현지에서 1천당 45엔에 거래되던 토지를 평균 120엔에 구입하였다. 중국인 지주들은 경쟁적으로 토지를 한인에게 매각하려 하였다. 한인들도 같은 비용으로 국내에서 매입 가능한 토지의 두 배 면적을 구입할 수 있었다. 안동현을 왕래하면서 중국어에 능숙한

98 토지계약에서 단기를 押, 장기를 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토지계약은 유하현 三源浦·南山城子, 輝南縣, 海龍縣 등에도 있었다(일초, 1999, 앞의 글, 319쪽). 일본 자료에서는 이를 '代金法'으로, 1920년대에는 '商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朝鮮人概況(1922.5.11.)」, 19~21쪽 참조.

99 일초, 1999, 앞의 글, 319쪽.

100 「視察報告書」, 483쪽.

101 「視察報告書」, 532~5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인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였다.[102] 안동현을 왕래하는 한인들을 통하여 안동현 일대의 토지가 비옥하고 관개도 편리하며, 지가까지 저렴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때마침 동양척식회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한 이들이 토지를 임대하고 이주하였다. 이주 한인들 가운데 용천 출신이 많았다.[103]

1910년부터 안동현과 그 주변으로 이주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한인들이 증가하였다. 한인들도 처음에는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이었다. 하지만 의주·용천 출신들이 이주하여 토지를 임대하면서 이를 모방한 토지 거래가 빈번해졌다. 한인들의 토지계약은 1911년부터 1912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1912년 5, 6월경까지 한인들이 임대한 토지는 총 2,439천이었다.[104]

이 무렵 한인들이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는 동서로 안동현 오도구(五道溝)부터 봉황청 용왕묘 일대까지 분포하였다. 압록강 연안 안동현 오도구, 삼도구, 삼도랑두, 이도외자(二道隈子), 문자구(蚊子溝) 등에서 내륙 약 40여 ㎢ 지역까지 한인 경작지가 산재하였다. 이 지역에는 한인 약 981명(남성 약 647명, 여성 약 334명)이 거주하였다. 오도구, 삼도구, 문자구, 괘강구(掛江溝), 조씨구(趙氏溝), 항구, 신구, 용개하 및 조아구 등의 지역은 관개시설이 편리하였다. 한인들의 경작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괘강구(266정보), 신구(259정보), 용개하(186정보), 항구(152정보) 등의 순서였다. 오도구, 삼도구, 문자구, 조씨구, 조아구 등에서는 10~20정보 정도였다. 이러한 지역의 한인들은 모두 강 연안이나 소택

102 중개인들은 토지 거래 가격의 1~3%의 수수료를 받았다. 당시 파악된 중개인으로는 洪子平(안동 현주), 金伯萬(봉황청 小團山), 金斗萬(봉황청 小團山), 崔世寶(의주부 위화면 北下洞), 張益善(안동현 長山 동쪽), 韓世昊(봉황청 東尖山), 李時興(의주부 광성면 泊船島), 李尙俊(용천군 양서면 北坪洞), 金元赫·尹宅連(안동현 접리수), 金在福(용천군 양서면) 등이 이었다. 이들 이외에 중국인도 있었다(「視察報告書」, 499쪽).

103 「視察報告書」, 484쪽. 국내에서 1日耕에 평균 500엔이었다. 반면 안동현 주변에서는 1천당 평균이 白銀 120엔, 1일경이 약 2천에 해당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으로 국내보다 약 2배 규모의 토지 구입이 가능하였다.

104 「視察報告書」, 4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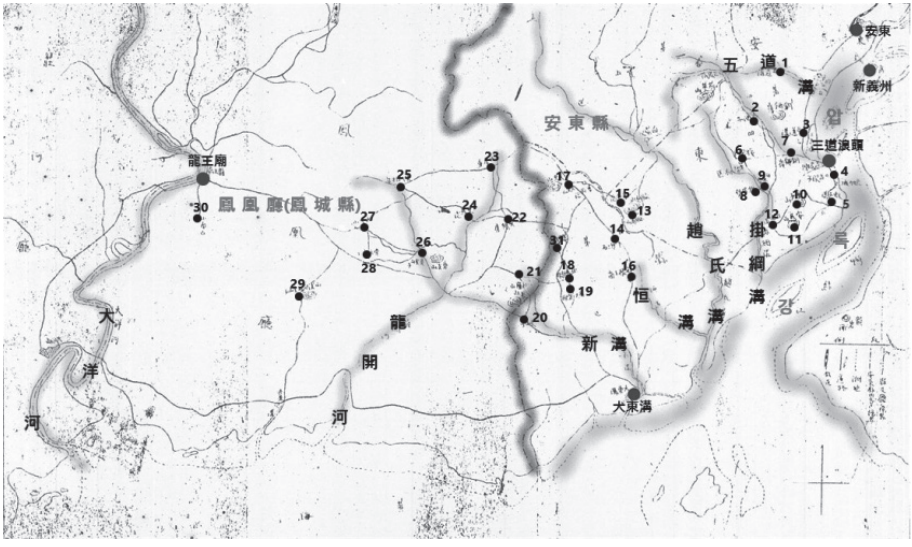
〈표 2〉 1912년경 하류지역 한인들 임대 경작지의 면적과 비용

	지역	임대 면적(天)	비용(元)	인구(남/녀)(명)	비고
1	**압록강 연안**	**176.5**	**3만 3,097**	**201(135/66)**	
	五道溝	16.5	3,147.5	2(2/0)	
	三道溝	6	500	4(2/2)	
	三道浪頭·二道隈子	126	2만 4,610	158(14/)	
	蚊子溝	26	4,840	10(9/1)	
2	**掛江溝 유역**	**666**	**6만 2,961**	**321(203/118)**	
	銅鑛嶺	70	6,960	47(29/18)	밭 13천(비용 910원)
	湯池子	118	1만 4,925	36(22/14)	
	接梨樹 老檀樹	360	2만 8,386	156(91/65)	
	白家堡	48	3,530	26(23/3)	밭 3천(비용 240원)
	楊家堡	30	3,000	29(18/11)	
	安民山 서쪽 괘강구	12	1,200	4(불명)	
3	**趙氏溝 · 恒流 유역**	**407**	**3만 8,126**	**216(136/80)**	
	白菜地	27	2,700	23(12/11)	
	渾水泡 脈起山	59	7,355	40(24/16)	밭 4천(비용 400원)
	渾水泡 大黑山 동쪽	75	6,439	56(35/21)	
	대흑산	127	1만 1,660	54(32/22)	밭 3천(비용 240원)
	石坎門	75	6,040	25(17/8)	
	石橋子崗	44	3,932	18(16/2)	밭 2천(비용 400원)
4	**新溝 · 龍開行 · 稟兒溝 유역**	**1,188**	**11만 2,469**	**243(173/70)**	
	南·北大泉眼	66	4,625	33(22/11)	
	姜家大堡	387	3만 8,790	34(25/9)	밭 216천, 산지 10천 (비용 2만 5,600원)
	長山 동남·서쪽	31	3,035	16(13/3)	
	小團山	165	6,014	45(34/11)	
	黑魚泡	200	3만 4,000	미상	
	大樓房	40	3,200	19(11/8)	
	大房身	15	1,500	5	
	東尖山子	105	4,575	11(10/1)	
	東古岑子	38	3,620	12(10/2)	
	太平山	24	1,920	5(3/2)	
	西尖山子	41	3,280	20(10/10)	
	東瓜林子	45	4,500	30(17/13)	밭 15천(비용 1,500원)
	小南山	31	3,10	13(13/0)	
	총계	**2,439**	**24만 6654**	**981(647/334)**	**山地 256천(비용 2만 9290원)**

출처: 「視察報告書」, 515~516쪽, '各地方別鮮人租借廣袤投資額人口表 附土地丈量法'에 근거하여 작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에 거주하면서 모두 벼농사를 지었으며[105] 하류지역의 한인 경작지는 약 40여 방리(方里)로 산과 강의 사이에 산재하였다.[106]



1. 五道溝	2. 湯之子	3. 三道溝	4. 二道隈子	5. 蚊子溝	6. 接梨樹	7. 銅鑛嶺
8. 楊家堡	9. 白家堡	10. 安子山	11. 安民山	12. 掛江溝	13. 脈起山	14. 石坎門
15. 渾水泡	16. 石橋子崗	17. 大黑山	18. 北大泉眼	19. 南大泉眼	20. 小團山	21. 長山子
22. 大數房	23. 大房身	24. 黑漁泡	25. 東瓜林子	26. 東尖山子	27. 太平山	28. 東古岑子
29. 西尖山子	30. 小南山	31. 姜家大堡				

그림 4 압록강 하류지역 주요 한인 거주지 분포도(1910년대)[「視察報告書」, 518쪽의 '鴨綠江下流一帶地方鮮人租借地畧圖'를 참조하여 작성]
* 안봉철로 연선지역은 미포함

105 「視察報告書」, 482쪽.
106 「視察報告書」, 4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벼농사와 한인들의 생활

안동현으로 이주한 의주·용천 출신들은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익과 관리 권한을 소유하였다.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연고지에서 소작인을 불러들였다. 이들에 의하여 하류지역 곳곳에는 한인촌이 형성되었다.[107]

접리수 노천수에서는 경기도 개성(開城) 출신 최치훈(崔致勳)이 경기도 여주(驪州) 출신 이민응(李敏應)과 함께 227천의 토지를 임대하였다. 이들의 소작인 31명 가운데 경남 밀양(密陽)·창녕군(昌寧郡), 충청도, 경기도 죽산(竹山)·용인군(龍仁郡) 출신 20명을 제외한 11명이 의주군 위화면·광성면과 용천 출신들이었다.[108] 안동현 동광령에 13천의 토지를 임대한 이민응은 함북 무산(茂山) 출신 최창희(崔昌熙)와 경남 창녕 출신 성종호(成鐘護)를 소작인으로 고용하였다.[109] 오도구에서는 의주부 고읍면 출신 소작농 최재빈(崔在彬)이 자작과 소작을 겸하였다.[110] 반면 안동현 삼도랑두 이도외자와 탕지자에 토지를 임대한 정이원과 한정규, 대흑산의 최인건(崔仁健)은 중국인을 소작인으로 고용하였다.[111] 이는 드문 사례이며, 소작인 대부분은 의주·용천 출신이었다.

한인 이주는 친척 또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112] 이처럼 가족 혹은 친척 단위로 이주한 한인들은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중국인과 구별되는 '한인촌'을 형성하였다.[113]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안동현 접리수의 노상직은 "나는 접리

---

107 「視察報告書」, 479쪽. 접리수의 李建昇은 농사에 익숙지 않은 유생이기 때문에 소작인과 수확을 반으로 나누는 반작을 하였다(이은영, 2016, 앞의 책, 162쪽).

108 안동 구시가에 거주하는 興隆街의 金尙沃(의주부 광성면)과 16천을 공동 임대한 최치훈은 제외하였다(「視察報告書」, 532~533쪽).

109 「視察報告書」, 532쪽.

110 「視察報告書」, 521쪽. 최재빈은 오도구 거의 모든 토지를 혼자 소작하였다.

111 「視察報告書」, 522, 532, 538쪽.

112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2010,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74쪽.

113 상류지역 臨江縣의 한인 마을도 "이곳 縣이라면 임강에 새로 설치된 것으로 한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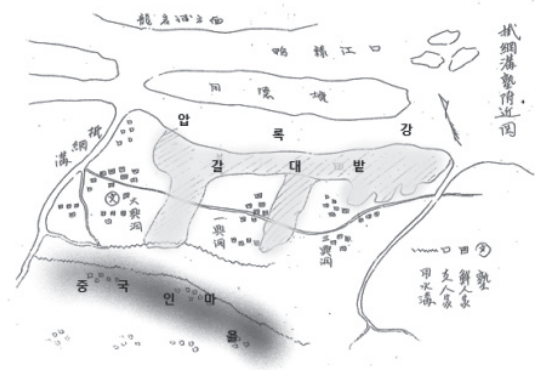


그림 5 괘강구 한인 거주지(1923년 4월)[「大正十四年度初對岸補助書堂概況」(B03041623800), 『教育施設』, 317쪽의 '掛綱溝塾附近圖'를 참조하여 작성]

* 압록강변의 갈대밭 사이에 大興洞, 一興洞, 三興洞 등의 한인촌이 있고, 그 아래가 중국인 마을이다.

수 들판을 지나다 많은 조선 사람을 보았네"[114]라고 하였다. 이처럼 안동현 곳곳에 한인들의 촌락이 형성되었다.

이들의 거주 형태는 ① 중국인 주택의 한 동을 임대하거나 ② 중국인 주택에서 방을 달리하여 동거하거나 ③ 작은 한옥 초가집을 짓거나 ④ 비교적 큰 중국식 주택을 신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이었다. 토지를 임대한 한인은 자작농으로 경작지에 거주하거나 안동에 거주하면서 소작인을 고용하는 경우 두 가지였다. 비교적 부유한 자작농은 ①의 거주에 속하는 자가 많았고, ④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는 자도 있었다. 소작농은 수확의 반을 납부하였다. 이들은 그다지 빈궁하지 않거나 비교적 가족의 수가 적으면 ②의 형태에 거주하였다. ③의 형태는 가족 수가 많고 빈궁한 경우였다.[115]

한인들은 습지나 소택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대부분 압록강변에

수 천호가 경내에 바둑알 늘어놓은 듯 있는데, 완고한 옛 풍습을 바꾸지 않고 덕으로 서로 아껴준다"(安孝濟, 『守坡集』 卷之二, 「答成貫謙(一濬)」)(이은영, 2016, 앞의 책, 157쪽 재인용)고 하였다.

114 盧相稷, 『小訥先生文集』 卷之三, 「接ㅁ途中贐李參事(敏應)」(이은영, 2016, 위의 책, 155쪽 재인용).

115 「視察報告書」, 487~488쪽. 이도외자에 거주하는 金承浩는 임대한 토지에 60여 호의 주택을 건축하고 한인들이 이곳에 거주하여 "마치 하나의 작은 조선인 촌락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치한 한인들의 거주지나 경작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였다. 벼농사는 이앙 시기를 놓치면 자칫 한 해 수확이 전무할 수 있었다. 이앙기의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한인들은 생계가 위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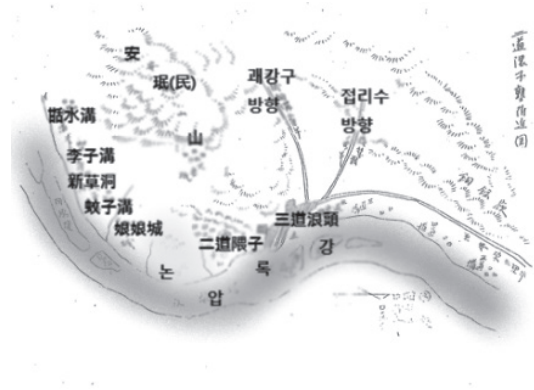


그림 6 이도외자의 한인 거주지들(1923년 4월)[「大正十四年度初對岸補助書堂概況」(B03041623800), 『教育施設』, 308쪽의 '二道隈子宿附近圖'를 참조하여 작성]

모내기 시기인 5월이 되면 만주에는 강한 남풍이 불어와 지표면의 물이 증발하여 수원(水源)이 빈약한 논은 곤란을 겪었다. 7, 8월경에는 계속된 호우로 지표면의 물은 배수가 불가능하였다.[116] 만주의 빈약한 수리시설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홍수로 수로가 변경되거나 제언·갑문 등 시설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가뭄은 한인들의 물을 둘러싼 분쟁을 격화시켰다. 여름에 가뭄이 들면 "농부들이 물로 다투는 바람에 날마다 시끄러웠고" 밤이 되면 모두 누군가 물꼬를 트지 못하게 언덕에 횃불을 밝히고 지켜야만 하였다.[117]

1917년에는 봄부터 가뭄이 들어 한인들의 논농사를 망쳤다.[118] 1919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다가 8월 27일에 폭우가 쏟아졌다.[119] 1920년 여

116 개간된 논에 논둑을 쌓기 위해 국내에서 숙련된 인력을 불러오는 일은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에는 경지정리가 일반화되지 않아 논둑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秋原昌彦, 1933.7, 앞의 글, 39a쪽).

117 李建昇, 『耕齋集』 上, 「田夫闢說」(이은영, 2016, 앞의 책, 162쪽 재인용).

118 「奉天, 雨量의 洽足」, 『每日申報』, 1917.7.20.

119 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앞의 책, 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름에도 국내와 봉천성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120] 여기에 중국인 지주들마저 한인들에게 금전과 곡식 대출마저 중단하였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한인들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121]

홍수도 빈발하였다. 1870년대부터 1985년까지, 1910~1920년대까지의 20년은 압록강에서 홍수가 가장 빈발한 시기였다.[122] 압록강 연안에 자리 잡은 한인 거주지와 경작지는 홍수에 취약하였다. 해마다 가뭄이 들던 혼수포에는 1923년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찾아와 수확이 전무하였다.[123] 이도외자는 토지도 비옥하고 경지정리도 비교적 잘되어 한인들의 "생활이 안정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제방 시설이 부족하여 1925년 발생한 홍수로 주택 대부분이 유실되고 벼농사도 황폐화되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은 "일대 타격"을 입었다.[124] 괘강구에서는 염수(鹽水) 피해가 빈발하고[125] 우박 피해도 발생하였다.[126] 이러한 가운데 접리수에서는 중국인 지주 왕재기(王財基)가 한인을 압박하고 약 3리의 수로

120 「滿洲는 大旱魃, 농민은 매일 긔우」, 『東亞日報』, 1920.7.11.

121 「最近滿洲狀況, 高陽郡守吳台煥氏視察談」, 『東亞日報』, 1920.7.17.

122 1870년대부터 1985년까지 116년 동안 丹東市 주변에서는 67회의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심각한 타격을 준 홍수는 17회였다. 압록강에서는 116년 동안 62회나 발생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870년부터 1909년까지 40년 동안 해마다 홍수 발생 확률이 30~40%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29년까지 20년 동안 가장 많은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매년 홍수의 발생 확률은 80~90%로 사실상 해마다 발생하는 셈이었다. 반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도 압록강의 홍수 발생 확률은 60% 이상이었다(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앞의 책, 610~611쪽).

123 「大正十四年度 學校要覽」(이하 「學校要覽」)(B03041623800), 『朝鮮人ニ對スル施政関係雜件/教育施設』, 315쪽.

124 「學校要覽」, 309쪽.

125 「學校要覽」, 318쪽.

126 1916년 7월 5일 안동현에는 밤에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달걀 크기 정도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 우박으로 채소 재배 농가 400여 호가 피해를 입었다. 20일에는 복숭아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농토 100여 무가 피해를 입었다(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앞의 책, 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독점하였다.[127]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시 한인들이 벼농사를 계속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에는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만주 미가(米價)와 귀향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한 소작인 생활 때문이었을 수 있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만주의 미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128] 특히 '안동미(安東米)'는 1918년, 1919년에 만주 전역과 북만(北滿)까지 판매되었다.[129] 이러한 만주의 미가는 주로 벼농사를 하는 이주 한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주 한인들도 소작인으로 집과 택지를 지주에게 의존하는 고향의 불안한 생활보다 높은 미가 덕분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현지에 정착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주한 상황에서 귀향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1915년 '만몽조약'이 체결 이후 한인들의 상황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의 이권회수(利權回收)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였다. 1920년대부터 자연재해가 거듭되었다. 현지에서는 벼농사에 익숙해진 중국인들과 상조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들은 간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중국인들의

127 「平安北道-(21日着)安東縣」, 『每日申報』, 1914.5.23.

128 1910년대 만주의 미가는 白米 1石당 1912년 18.33엔에서 1916년 16.93엔으로 하락하다가 1917년 25.77엔, 1918년 34.50엔, 1919년에는 57.75엔까지 거의 해마다 상승하였다. 1920년에는 다시 23.83엔까지 급락하였다가 1922년 25엔으로 회복되었다. 중간 낙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912년 이후 10년 동안 33.6%나 상승한 셈이었다. 1913년 만주의 미가를 기준으로 삼아 100으로 본다면 1916년 124.5, 1918년 221, 1919년 263.6, 그리고 1920년에는 267.5가 되었다. 175.1로 하락한 1921년 이후에도 지수는 190대를 유지하였다(南滿洲株式會社, 1929, 『滿洲物價調査』, 南滿洲株式會社, 24~25, 43쪽).

129 김영, 2003, 앞의 글, 45쪽. 여기에는 일본인의 주식이 중국인과 달리 쌀이라는 사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초기 만주 무역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만주의 일본인이 증가함에 따라 만주로 수입되는 쌀은 계속 증가하였다. 1909년부터 1913년 사이에 쌀 수입량은 66%, 가격은 2배까지 증가하였다(김영, 2003, 앞의 글, 51~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작인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130]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10~1920년대 초반까지 벼농사를 목적으로 압록강 건너편의 안동현과 그 주변으로 이주한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 배경과 벼농사 양상, 그리고 이들의 생활을 분석하였다

의주·용천은 조선 후기부터 보급된 수리시설을 배경으로 이앙법이 보급된 지역이었다. 그리고 압록강 연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잦은 탓에 조선 후기부터 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다. 19세기까지 평안도에서 벼농사가 대부분 건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수리시설을 배경으로 압록강 하류지역과 삼교천 주변-양하면·양서면·광성면 등-에서는 이앙법이 보급되었다. 이주 한인들도 대부분 이 지역 출신이었다.

이주를 주도한 이들은 지역의 부농 혹은 지주-한정규·정이원 등-들이었다. 한정규·정이원 등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이후 자신들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안동현과 그 주변에 경작지를 마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1910년대 초반 한인들의 거주지와 경작지는 안동현 오도구부터 봉황청의 용왕묘 주변까지 분포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이앙법 등 벼농사와 관련된 기술이 안동현을 비롯한 만주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한인들은 현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거래하였으므로 중국인들도 한인들과 토지거래를 선호하였다. 한인들은 '전압'이라 불리는 토지거래로 경작지를 마련하였다. '전(대압)'에서는 중국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것이라면, '압(중압)'은 일정한 기간에 보증금만 지불하고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익만 소유하였다. 계약기간은 대개 10년 안팎

130 오병한, 2021, 앞의 글, 70~7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1911년부터 1912년 사이에 계약 체결이 집중되었다.

한인들은 압록강 연안이나 소택지 등에 중국인과 분리되어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는 물이 필요한 벼농사의 특성상 경작에는 유리하였다. 반면 홍수와 가뭄 등의 피해에 취약하였다. 특히 1910년대는 확률상 거의 해마다 압록강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시기였다.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이앙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우려도 컸다. 중국인들의 횡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인들이 계속하여 벼농사에 종사한 것은 1910년대 상대적으로 높았던 만주의 미가와 고향의 불안정한 소작인 생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주 한인들은 집과 택지를 지주에게 의존하는 고향의 불안한 소작인의 생활 대신 높은 미가 덕분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현지에 정착하려 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주한 상황에서 귀향도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안동현과 그 주변으로 이주한 의주·용천 출신 한인들은 1910년대 10여 년 동안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앙법을 비롯한 농업기술을 전파하여 이후 만주에서 벼농사 확산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1915년 5월 '만몽조약' 체결 이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의 한인들에 대한 토지와 주택 임대 금지를 강화하였다. 1920년대가 되면서 잦은 가뭄과 홍수로 한인들은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상조문제를 둘러싼 현지 중국인들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인들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었다. 한인들은 간도 등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중국인의 소작인이 되어야만 하였다.

이들과 달리 현지에 토지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이주를 주도한 지주나 부농들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고 귀향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이후 지역의 개간과 간척사업에 종사하거나, 다시 안동, 신의주 등으로 이주하여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유지로 활동하였다. 1920년대 중국 안동에서 안동조선인회, 안동금융회 등 친일단체의 주요 인물들-이태현, 장기식 등-이 다름 아닌 이들이었다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朝鮮新報』(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문스크랩자료).

『朝鮮中央日報』.

『皇城新聞』.

中國 全國報刊索引(CNBKSY).

金應洙 編, 『龍灣誌』(奎 798).

『海東地圖』(古大 4709-41-v.1-8).

龍城府 編, 『龍城志』(經古 915.184-Y58y).

龍城府 編, 『龍城誌』(奎 17499).

李志昇 等 編, 『龍城府邑誌』(奎 17499).

(이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9·32』(국사편찬위원회 소장).

『三橋川水利組合關係書類(1917)』(국가기록원 소장).

『關東都督府政況報告並雜件』 第四卷.

『滿洲及間島在住鮮人ノ土地租借狀況調查一件』.

『鴨綠江葦洲ノ所屬ニ關スル係爭一件』 第一卷.

『在外內外國人ノ戶口調查雜件/在滿洲之部』 第一·二卷.

『朝鮮人ニ対スル施政関係雜件/教育施設』.

(이상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가보훈처, 2022,『동북지역 당안관 소장 한국인 관계 자료』, 국가보훈처.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2002,『택리지』, 을유문화사.
허은 구술, 변창애 기록, 2010,『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1,『滿洲ノ水田』,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南滿洲株式会社, 1929,『滿洲物價調査』, 南滿洲株式会社.
滿洲國 民政部 土地局, 1935,『商租權に就て』, 滿洲國 民政部 土地局.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3,『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第5·8號,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朝鮮總督府 編, 1977,『朝鮮ノ小作慣行』下(復刻板), 龍溪書舍.
平安北道 編, 2014,『平安北道小作慣行調査書(復刻板)』, 龍溪書舍.
横山敏男, 1945,『滿洲水稻作ノ研究』, 河出書房.

단행본
권내현, 2004,『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김영, 2004,『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김용섭, 2006,『(신정 증보판)朝鮮後期農業史研究』Ⅱ, 지식산업사.
박환, 1991,『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연변조선족략사편찬조, 1989,『조선족략사』, 논장.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98,『龍川郡誌』, 평안북도용천군민회.
의주군지편찬위원회, 1975,『義州郡誌』, 의주군민회.
이은영, 2016,『요동의 학이 되어-일제강점기 서간도 망명 우국지사 이건승 안효제 노상익 노상직 예대희 조정규와 안창제를 중심으로』, 학자원.
鄭桂順 編輯, 1968,『龍川誌』, 龍川郡志編纂委員會.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編, 1973,『平安北道誌』,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현규환, 1967,『韓國流移民史』상, 어문각.

丹東市民族宗教事務委員會民族志編纂委員會 編, 2000,『丹東朝鮮族志』, 遼寧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族出版社.
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丹東市志』1, 遼寧科學技術出版社.
朴昌昱 主編, 1999,『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1, 민족출판사.
通化市政協文史學習委員會 編, 1998,『東邊道經濟開發史略』, 通化市政協文史學習委員會.

논문

김영, 2003,「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상명, 2020,「20세기 초 지도로 본 간도의 역사적·지역적 범위와 한인 이주지」,『만주연구』29
오병한, 2021,「압록강 하류지역 安東朝鮮人會의 活動과 性格」,『한국근현대사연구』98.
이태진, 1989,「15·6세기 韓國 사회경제의 새로운 동향: 低地 개간과 인구 동향」,『동방학지』64.
최진열, 2024,「고구려의 농업-토지 비옥도와 인구·곡물 생산량의 관계를 중심으로」,『영토해양연구』26.

姜裕豐, 2012,「民國時期日本對東北水田投資研究-以朝鮮移民水田開發爲中心」, 延邊大學 歷史學博士學位論文.
文鍾哲, 1993,「丹東地區朝鮮族歷史及現狀調查」,『滿族研究』2.
朴文鎬, 1987,「朝鮮族在丹東」,『中國朝鮮族歷史研究論叢』Ⅰ, 延邊大學出版社.
張古悅, 2007,「遼寧地區朝鮮人沿革及中日各方政策研究(1910-1948)」, 延邊大學歷史學博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1910년대 평북 의주·용천 출신들의 중국 안동현 이주와 벼농사

오병한

이 글에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평안북도 의주·용천 출신들이 압록강 하류의 안동현과 그 주변으로 이주한 배경과 벼농사 중심의 생활을 분석하였다.

의주·용천은 압록강 연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홍수·가뭄이 잦은 환경 탓에 조선 후기부터 수리시설이 집중되었다. 19세기 평안도의 벼농사는 건파법이 우세한 가운데 의주·용천에서는 수리시설을 이용한 이앙법이 시행되었다.

의주·용천 출신들의 이주는 1910년대부터 지역의 부농이나 지주들의 주도로 본격화되었다. 부농이나 지주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안동현과 그 주변에 경작지를 마련하였다. 토지 임대 기간은 대개 10년 안팎이었다.

벼농사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거주지와 경작지는 압록강 연안과 그 주변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입지는 벼농사에는 유리하나 홍수나 가뭄에 취약하였다. 이앙법의 특성상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이앙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중국인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벼농사는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1910년대 만주의 미가가 높게 유지되는 한편, 의주·용천이 평북의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소작률이 높은 지역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압록강 하류지역인 안동현과 그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에 종사한 의주·용천의 한인들이야말로 만주에 이앙법을 비롯한 벼농사 기술을 전파하고 확산시킨 주역의 하나였던 것이다.

주제어: 한인 이주, 압록강 하류지역, 평안북도, 의주·용천, 안동현, 벼농사, 이앙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Migration and Rice Farming in Andong Prefecture, China from Ui-ju, Yong-cheon, Pyeongbuk in the 1910s

Oh Byounghan

This study analyses the migration of people from Ui-ju(義州) and Yong-cheon(龍川) in North Pyong-an Province(平安北道) to lower Aprok(鴨綠) River areas like Andong(安東) County in the 1910s to early 1920s, focusing on rice farming.

The region along the Aprok River is prone to frequent floods and droughts, which is why, from the late Joseon period, irrigation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there. In the 19th century, rice farming in Pyong-an Province(平安道) was dominated by dry field cultivation, while Ui-ju and Yong-cheon implemented the transplanting method using irrigation facilities.

The migration of people from Ui-ju and Yong-cheon began in earnest in the 1910s, led by local rich farmers and landowners. The rich farmers and landowners used the money from selling their l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a project in the 1910s to buy farmland in Andong County and nearby areas. These leases were typically around 10 years.

The homes and farmlands of Koreans who cultivated rice were established along the Amnok River and its surrounding areas. The area's suitability for rice farming was offset by its susceptibility to floods and droughts. The timing of the transplanting method is crucial as missing it due to drought or floods could ruin an entire year's harvest.

The practice of rice farming by Koreans continued until the 1920s,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as well as the oppressive rule of the Chinese.

This can be attributed to rice prices remaining high in Manchuria during the 1910s and the fact that Ui-ju and Yong-cheon had larger populations and higher rates of tenant farming than other regions in North Pyong-an Province.

Thus, from the 1910s to the early 1920s, Koreans from Ui-ju and Yong-cheon were important in spreading rice farming techniques, including transplanting, in Manchuria.

Keywords: Korean Migration, the Lower Aprok River, North Pyongan-an Province, Ui-ju, Yong-cheon, Andong County, Rice Farming, Transplanti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09

섭정 히로히토와 궁중

김봉식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I. 머리말
II. 동궁의 보필
III. 원로와 동궁
IV. 섭정 히로히토와 궁중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무쓰히토(明治天皇), 요시히토(大正天皇)에 이어 침략전쟁으로 점철된 격동의 쇼와(昭和)시기에 재임한 것은 히로히토(昭和天皇)였다. 1901년 출생한 히로히토(裕仁)가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 60여 년간 재위한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천황 즉위 이전 다이쇼 천황을 대신하여 1921년 11월 25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 약 5년간 섭정(攝政)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천황 즉위 이전 섭정 시기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나 천황 즉위 이후의 히로히토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섭정시기의 정치적 사고체계와 행동 양태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메이지 헌법에 규정된 천황은 국무 대권을 비롯하여 통수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격동의 전전(戰前) 시기 히로히토의 정치 판단이 정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각 정치세력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한 해명이,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1]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책과 관련된 정치 행위를 쇼와 천황은 궁중세력[2]을 매개로 하여 행사하였다. 히로히토를 보필한 이들 궁중세력의 구조와 동태, 정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 투고: 2025년 1월 24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재심사 완료: 2025년 2월 26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27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6592).

1 이와 관련해서는 이형식, 2024,「쇼와천황과 식민지통치:일시동인, 황민화, 식민지책임」, 일본사학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참조할 것.

2 궁중세력이란 원로, 내대신, 궁내대신, 시종장, 시종무관장, 동궁대부, 동궁시종장, 동궁무관장 등 궁중관료와 그들과 접촉하며 인식을 공유하면서 행동한 인물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국무에 대한 권한은 없었지만, 궁중의 천황 측근 그룹을 구성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전 일본의 정치과정 해명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인 전전 시기 궁중세력에 관한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일본 학계에서는 1990년대까지 태평양전쟁 시기 궁중세력의 동향을 파악한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의 연구[3] 및 내대신 기도 고이치(木戸幸一)를 중심으로 분석한 David A Titus의 연구[4] 외에는 전반적으로 궁중세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저조하였다. 당시의 주된 관심은 메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치의 중심에 있던 천황과 침략 전쟁을 주도적으로 야기한 군부, 그리고 정당정치세력이었다.

이러한 학계의 관심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쇼와 천황의 사망이다. 천황의 사후 공개되고 간행되기 시작한 궁중세력의 일기와 회고록, 관련 문서들로 인해 궁중세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진전에 의해 표출된 연구동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시기가 단편적인 점이다. 주로 쇼와(昭和)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顕)를 중심으로 한 정치 관여와 그 이후의 정국의 영향에 관한 분석이 전개되었다.[5] 한편에서는 태평양전쟁의 패전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6] 둘째, 궁중세력 중 천황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내대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7] 또한 기존의 연구

3 藤原彰, 1979,「宮中グループと政治的役割」,『天皇の軍隊』, 青木書店.

4 デイビットタイタス 著, 大谷堅志郎 譯, 1979,『日本の天皇政治』, サイマル出版會.

5 伊香俊哉, 1991,「昭和天皇·宮中グループの田中内閣倒閣運動」,『歴史評論』, 496; 中園裕, 1994,「政党内閣期に於ける昭和天皇及び側近の政治的行動と役割」,『日本史研究』382; 茶谷誠一, 2009,『昭和戦前期の宮中勢力と政治』, 吉川弘文館.

6 吉田裕, 1992,『昭和天皇の終戦史』, 岩波新書; 茶谷誠一, 2010,『昭和天皇側近たちの戦争』, 吉川弘文館.

7 松田好史, 2014,『内大臣の研究: 明治憲法體制と常侍輔弼』, 吉川弘文館; 角田竹男, 2016,「木戸幸一研究-その政治的人格の形成と構造」,『北大法政ジャーナル』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쇼와 천황의 정치적 언동과 태도를 해명하는 것이 목적으로, 궁중세력은 이를 입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된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궁중세력에 관한 연구 시기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며, 그 대상 또한 특정 궁중세력에 편향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기 및 분석 대상을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시기적으로는 섭정에서 천황 즉위 이후 패전에 이르는 시기별로 표출되는 특성과 경향, 그리고 내대신뿐만 아니라 원로, 궁내대신, 궁내차관, 시종장, 시종차장, 내대신 비서관장, 시종무관장 등의 각 직위와 인물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궁중세력의 구조와 동향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히로히토의 천황 즉위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궁중세력의 보필 양상과 정치 기능을 분석한다.

히로히토의 황태자 시절을 취급한 연구[8]로는, 황실과 국민의 관계에 착목하여 궁내대신 마키노를 중심으로 새로운 황실상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섭정 설치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동궁의 제도, 섭정 히로히토를 보필한 궁중세력의 각 층위별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글에서는 섭정 시기의 궁중세력의 보필 구조 및 정치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궁을 중심으로한 제도적 정비와 구성 및 역할 분석을 통해 황태자 및 섭정에 대한 궁중 보필 시스템을 파악한다. 이어서 히로히토의 황태자 시기 궁중세력의 정치 이념 및 보필 양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섭정에 취임한 히로히토에 대한 궁중세력의 대응과 그 특질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동궁 무관장에 의한 보필 실태에

8 坂本一登, 1998,「新しい皇室像を求めて-大正後期の親王と宮中」,『年報近代日本研究20宮中·皇室と政治』, 山川出版社; 波多野勝, 1998,『裕仁皇太子ヨーロッパ外遊記』, 草思社; 永井和, 2003,『青年君主昭和天皇と元老西園寺』, 京都大学出版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쇼와 천황 즉위 이전 시기, 히로히토가 당면한 정치 현상을 목도하며 군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동궁과 천황의 궁중세력 간의 역학 관계 및 역할, 이들이 히로히토에 미친 영향과 정치적 기능을 고찰한다.[9]

Ⅱ. 동궁의 보필

1. 동궁의 구성

히로히토는 출생 이후 천황 즉위 전까지 기본적으로 동궁(東宮)의 보필을 받았다. 「동궁직 관제(東宮職官制)」[10]에 따르면 동궁 관직은 '궁내대신의 관리하에 속하며 동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동궁직에는 '대부(大夫) 시종장 시종 시강(侍講) 주사 속'을 두었다. 대부는 '1명 칙임으로 궁사를 관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시종장은 '1명 칙임으로 하고 상시 봉사하며 대부 사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시종은 5명으로 시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시강은 3명으로 '진강(進講)'을 담당하였다. 주사는 3명으로 서무를 담당하고, 속은 30명으로 서무를 담당하였다.

동궁직은 기본적으로 궁내대신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동궁의 기본적 업무는 동궁 대부와 동궁 시종장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황태자의 교육을 위해 시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황실령 제6호로 제정되어 1908년부터 시행된 「동궁직관제」는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을 앞두고 1921년 10월 7일 황실령 제9호로 개정되었다.[11] 주요 개정

9 이 글에서는 섭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이후 간행된 『昭和天皇実録』, 『侍従武官長奈良武次日記·回顧録』을 중심으로, 관련 궁중세력의 일기, 전기 등을 사용한다.

10 『官報』, 1907年 11月 1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동궁 관료

동궁 대부	동궁 시종장	동궁 무관장
하마오 아라타(浜尾新) 1914. 4. 20.~1921. 11. 25.	이리에 다메모리(入江為守) 1914. 4. 20.~1926. 12. 25.	오가와 겐노스케(小川賢之助) 少将 1917. 9. 25.~1920. 6. 19.
진다 스테미(珍田捨巳) 1921. 11. 25.~1926. 12. 25.		나라 다케지(奈良武次) 中將 1920. 7. 16.~1922. 11. 24.
		나라 다케지(奈良武次) 中將 1922. 11. 24.~1926. 12. 25. (侍従武官長 겸직)

출처: 秦郁彦(2001), 70쪽 및 秦郁彦(2005), 297쪽에서 작성.

내용은 "궁내성에 동궁직을 둔다"라고 하여 기존 내용인 '궁내대신의 관리하'라는 명문이 삭제되었으며, 시강이 폐지되고 새로이 서무를 담당하는 속 외에 사무관이 추가되었다. 동궁의 역할이 황태자의 교육에서 섭정 업무의 보필로 이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궁을 감독하는 대부인 하마오 아라타(浜尾新)는 추밀고문관으로 도쿄제국대학 총장, 문부대신을 역임한 문부관료였으며, 진다 스테미(珍田捨巳)는 주영대사, 제1차 세계대전 파리강화회의 전권대사의 일원으로 참가한 외교관으로 황태자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동궁 대부에 취임하였다. 동궁에 대한 보필 방침이 기본적 소양교육에서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군주 교육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궁내성 통제하에 있었던 동궁 관료와 별도로 동궁에는 군부가 파견한 동궁 무관이 존재하였다. 1889년 2월 제국헌법이 공표되고 황실전범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칙령 제138호로 동궁무관관제(東宮武官官制)가 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다.

11 『官報』, 1921年 10月 7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정된 「동궁무관관제」[12]에 따르면, '동궁 무관장 무관은 황태자의 위의(威儀) 정식(整飾)을 돕고 행군, 관병, 훈련, 기타 군무 및 제의, 예전, 연회, 알현'에 수행하며 '상시 봉사'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행계, 제의, 예전, 연회, 알현 등의 사항은 궁내성의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육해군의 통제에 따르지만, 궁내성 주관의 행사인 경우에는 이에 준거하도록 한 것이다. 동궁 무관은 황태자가 통수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의 훈련이나 열병식, 궁중의 의례나 제례를 수행하여 황태자의 권위와 품격을 고취시키는 역할이 부여된 직위로서 육해군이 황태자를 보필하기 위해 파견한 군인이었다.

이후 동궁 무관의 역할이 강화된 1910년 4월 29일 칙령 213호로 개정된 「동궁무관제중 개정 건」[13]에 따르면, 동궁 무관은 무관장 1명, 육군 무관 5명, 해군 무관 3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섭정 시기를 전후하여 동궁 무관장은 '군사연구'로 독일 주재,[14] 군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제1차 세계대전 강화회의에 육군위원으로 파견된 나라 다케지(奈良武次) 중장이 부임하였다. 나라 동궁무관장은 이후 시종무관장으로서 다이쇼 천황과 쇼와 천황을 보필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동궁은 궁내대신의 통제하에 동궁 대부가 업무를 총괄하고, 동궁 시종장이 황태자를 상시 봉사하는 구조였다. 또한 동궁 무관에게는 군 및 궁중의 행사에 황태자를 수행하며 장차 통수권자가 될 황태자의 위엄과 권위를 담보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2. 동궁 관료의 보필

히로히토는 1901년 4월 29일 저녁 10시 10분 황태자 요시히토(嘉仁)의 장남으

12 『官報』, 1897年 10月 21日.

13 『官報』, 1910年 4月 29日.

14 奈良武次, 2012c, 『侍従武官長奈良武次日記·回顧録4』, 柏書房, 2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출생하였다.[15] 두 달 후 히로히토는 7월 7일부터 3년간 사쓰마(薩摩) 출신으로 해군 출신인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에 맡겨져 제왕교육을 받았다. 가와무라는 사쓰마번벌의 원로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와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황태자비가 첫 출신인 점도 고려하여 메이지 천황이 최종적으로 재가하였다.[16] 『국민신문』 5월 5일자에 보도된 가와무라의 양육 방침은 '사람을 존경하는 성정', '어려움을 참아내는 습관'을 양성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도록 외국어 교육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7] 황통을 이어갈 적자로서 히로히토는 출생부터 궁중의 기대와 책무가 동시에 안겨진 것이다.

1905년 5월 히로히토는 거처(東宮御所)에 특설된 유치원에 입학하였다. 1907년 1월 10일 유치원 교육을 담당한 직원(供奉員)이 4가지의 심득을 히로히토에게 전하였다. 즉, '신하'가 이야기할 때는 제대로 들을 것, 뭔가를 연습할 때는 집중할 것, 놀이 상대와는 사이좋게 지낼 것, 울지 않도록 할 것이었다.[18]

1908년 4월 동궁직과 학습원장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검토하여 6년간 학습원에서 초등교육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학습원장이 초등학과 주임교원에게 지시하여 작성하도록 한 황족교육방침 각서에 따르면, 먼저 건강을 제일로 할 것, 성적에 관해서는 참작하지 말 것, 가능한 한 검소하게 할 것, 장래 군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그 점에 유의하여 교육할 것을 지도 시 주의점으로 제시하였다.[19] 동궁은 히로히토의 학습원 초등과에서의 단체 교육을 통해 황족으로서의 소양 배양을 추진하였다.

학습원에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1911년 12월 6일에는 측근들이 히

15 宮内庁, 2015a, 『昭和天皇実録1』, 東京書籍, 1쪽.
16 宮内庁, 2015a, 위의 책, 17쪽.
17 宮内庁, 2015a, 위의 책, 19쪽.
18 宮内庁, 2015a, 위의 책, 195~196쪽.
19 宮内庁, 2015a, 위의 책, 2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히토의 훈육방침에 대해 협의하여, 특히 교육방침에 대해 학교 이외에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습자를 장려할 것이 논의되었다.[20] 이 시기의 궁중세력의 히로히토에 대한 보필의 중점은 교육이었다.

1912년 7월 30일 조부 메이지 천황의 사망과 다이쇼 천황의 즉위로 히로히토는 황태자가 되었다.[21] 1914년 3월 학습원 초등과를 졸업한 히로히토는 5월 특별히 개설된 동궁어학문소(東宮御学問所)에서 1921년 2월 18일까지 기존의 집단교육에서 탈피하여 개별 특별 교육을 받는다.[22] 동궁어학문소의 총재는 해군 대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부총재는 동궁 대부가 담당하였다. 동궁어학문소에서는 황태자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를 선발하였다. 초기 구성원을 보면 1914년 4월 9일에 동궁어학문소 직원으로 도쿄제국대학 교수 시라토리 구라기치(白鳥庫吉), 내대신 비서관 히타카 지치부(日高秩父), 학습원 교수 이시이 구니지(石井国次), 이이지마 다다오(飯島忠夫), 동궁 시종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正直)를 임명하였다.[23] 1914년 5월 4일 동궁어학문소가 개소되어 히로히토의 교육이 개시되었다. 첫 학기(6월 30일)의 임시 시간표는 〈표 2〉와 같다.

지리 및 산술은 이시이, 국어 및 한문은 이이지마, 습자는 히타카가 담당했

〈표 2〉 동궁어학문소 1학기 임시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윤리	산술	지리	윤리	산술	산술
2교시	한문	한문	국어	국어	국어	습자
3교시	국어	무과	박물	지리	지리	

출처: 宮内庁(2015b), 35쪽.

20 宮内庁, 2015a, 위의 책, 540~541쪽.
21 宮内庁, 2015a, 위의 책, 588쪽
22 宮内庁, 2015c, 『昭和天皇実録3』, 東京書籍, 18쪽.
23 宮内庁, 2015c, 『昭和天皇実録2』, 東京書籍, 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며, 시라토리가 담당한 역사는 다른 집필 용무로 인해 이번 학기에는 제외되고, 외국어 교원 또한 임용하지 못해 제외되었다.[24] 또한 윤리는 스기우라 주고(杉浦重剛), 박물은 핫토리 히로타로(服部広太郎)가 담당하였다.[25] 교과과정이 기본 소양 함양에 치우쳐 있고 세계를 조망하는 시야, 국제적 감각을 고취할 수 있는 영역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습원 초등과를 졸업한 이후 히로히토는 약 7년에 걸쳐 특별히 마련된 교육환경에서 폐쇄적이며 고립된 교육을 받았다. 이는 원로를 위시한 궁중세력의 우려사안이었다. 내정에 전념하며 일국을 다스리는 군주가 아니라, 히로히토에 요구되는 군주의 덕목은 서구 열강과 긴밀히 교류하며 일본의 국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동궁 대부의 교육 방침은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동궁에 대한 원로의 불만은 상존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할 돌파구로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이 원로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Ⅲ. 원로와 동궁

1. 황태자비 문제

1919년 6월 10일 히로히토의 황태자비로 구니노미야 나가코(久邇宮良子)가 내정되었다.[26] 그러나 원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구니노미야 나가코가 색맹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혼을 주장하며 구니노미야 집안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였다. 또한 야마가타는 색맹 문제의 책임을 물어 궁내대신 하타노 요시나오(波多野敬直)를 경질하고[27] 후임에 자신의 파벌인 나카무라 유

24 宮内庁, 2015b, 『昭和天皇実録 2』, 위의 책, 36쪽.
25 小田部雄次, 2023, 『天皇家の帝王学』, 星海社, 162쪽.
26 宮内庁, 2015b, 앞의 책, 4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원로 및 궁내대신

원로	궁내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91.5.6.~1922.2.1.	하타노 요시나오(波多野敬直) 1914.4.9.~1920.6.18.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1898.1.12.~1924.7.21.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次郎) 1920.6.18.~1921.2.19.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1912.12.21.~1940.11.24.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1921.2.19.~1925.3.30.

출처: 秦郁彦(2001), 22, 70쪽에서 작성.

지로(中村雄次郎)를 그 자리에 앉혔다.[28]

동궁어학문소에서 윤리를 담당하고 있던 스기우라는 야마가타의 파혼 압력에 반발하며 1920년 12월 사표를 제출하고, 그동안 궁내 문제로 통제하고 있던 야마가타의 파혼 강요 문제를 외부로 유출시킨다. 이로 인해 정계와 우익을 중심으로 야마가타와 궁내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29] 야마가타에 비판적인 세력은 구니노미야를 정보원으로 하는 괴문서를 유포하고, 황태자비의 파혼을 반대하는 우익단체는 기원절에 메이지신궁에서 황태자의 결혼 결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궁중내의 현안 문제가 신문에까지 보도되어 일반 국민마저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사태로까지 파장이 확산되었다. 이에 1921년 2월 10일 궁내성은 황태자 결혼에 변경이 없음을 공표하고 궁내대신 나카무라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다.[30]

사임 전날 마쓰모토 고기치(松本剛吉)를 만난 나카무라는 "사안은 중대한

27 하카노와 우연히 조우한 하라수상은 그의 사퇴 배경을 듣고 일기에 "나의 추측대로 야마카가의 권고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적고 있다. 原奎一郎 編, 1981, 『原敬日記5』, 福村出版株式會社, 250쪽.

28 宮內庁, 2015b, 앞의 책, 598~599쪽.

29 宮內庁, 2015c, 앞의 책, 12~13쪽.

30 宮內庁, 2015c, 위의 책, 12~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제이므로, 바로 성단을 받아야 하지만, 천황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것도 불가능"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31]

2. 동궁 무관장의 보필

1920년 7월 육군 중장 나라 다케지(奈良武次)가 동궁 무관장으로 부임하였다. 나라의 일기에 따르면 16일 동궁 무관장 임명 발령이 내리고 17일 인사차 들른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육군대신에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진언하도록" 주의를 당부받았다. 18일 정식으로 동궁으로 출근하여 히로히토 황태자를 알현하고 궁중관료들과 인사를 나눈 후 업무를 개시하였다. 첫 업무는 황태자의 군사 훈련 행계에 관한 상담이었다.[32]

나라는 특정 파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독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황태자의 유럽 순방을 앞둔 시점에서 적임자로 지목되었다고 할 수 있다.[33]

8월 14일 나라는 인사차 원로 야마가타를 방문하였다. 야마가타는 나라에게 황태자가 보다 많은 사람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교육, 승마 연습, 어학 연습 등을 당부하였다.[34]

이어서 나라는 8월 30일에는 원로 사이온지, 9월 1일에는 원로 마쓰가타에게 인사하였으나, 일기에는 특별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35]

나라가 동궁 무관장으로 부임한 시기에 동궁의 현안 문제는 히로히토의 교육문제와 외유문제였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동궁 대부 하마오 아라타(浜尾新)의 폐쇄적 교육방침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19년 황태자의 성년

---

31 松本剛吉, 2012,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政治: 松本剛吉政治日誌』, 岩波書店, 53쪽.

32 奈良武次, 2012a, 『侍従武官長奈良武次日記·回顧録1』, 柏書房, 29~30쪽.

33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261쪽.

34 奈良武次, 2012a, 앞의 책, 36쪽.

35 奈良武次, 2012a, 위의 책, 40~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에서 히로히토는 축하를 위해 참석한 내빈에게 제대로 된 대화나 언급 없이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이러한 히로히토의 태도는 측근의 우려사안이 되었다. 나라의 회고록에 따르면 부임 인사차 들른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伏見宮博恭)는 "하마오는 완고한 사람으로 황태자 전하의 외유도 3명의 친왕과 원로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에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있다며 하마오로 인한 히로히토의 교육에 우려를 표명하였다.[36]

나라는 하마오의 교육방침을 우려한 야마가타가 "교육을 개방적으로 함과 동시에 전하의 해외 순방을 도모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 필두 야마가타 원수는 궁내대신을 교체하여 하타노 요시나오에서 나카무라 유지로"로 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37]

앞서 서술하였듯이 원로 야마가타는 자신의 의중을 따르는 나카무라를 궁내대신으로 삼아 황태자비 문제와 히로히토의 외유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궁중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나라는 부임 후 본인의 황태자 보필 방침을 정하였다. 첫째, '전하의 지식은 좁고 깊은 것보다 오히려 넓고 얕게 한다', 둘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잡담하도록 한다, 배알을 자주 하도록 한다', 셋째, 통수와 관련해서 '근위보병대를 불러 가령 중대 이하의 소부대라도 약간의 실전 지휘를 시도해보도록 한다', 넷째, '사격 실천을 시도해본다', 다섯째, '승마에 숙달하도록 한다', 여섯째, '외국인과의 응대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일곱째, '지금이라도 해외여행을 해보도록 한다'.[38] 이러한 나라의 보필 방침은 앞서 원로 야마가타의 당부에 따른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시점의 황태자 히로히토의 면면은 초면인 동궁무관장의 눈에도 소심하고 미숙하며 나약한 존재로 투영된 것이다.

---

36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116쪽.
37 奈良武次, 2012c, 위의 책, 115쪽.
38 奈良武次, 2012c, 위의 책, 1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유럽 순방

1920년 여름 원로 야마가타, 마쓰가타, 사이온지는 황후에게 황태자의 유럽 순방을 진언하였다. 동궁의 폐쇄적 교육에 불만을 가진 원로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 병약한 다이쇼 천황을 대신하여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다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정사를 배우고 사람과 접할 수 있도록', 차가 군주로서 주요 국가의 정치가들과의 인적 교류 및 세계문물을 직접 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39]

1920년 10월 원로의 진언에 따라, 주저하던 황후는 "정치상 필요하다면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며 유럽 순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40] 황태자비 문제가 있었으나 원로는 차기 군주인 황태자의 교육을 명목으로 유럽 순방을 관철시킨다.

한편, 황태자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원로 야마가타, 마쓰가타, 사이온지는 후임 궁내대신 인선을 논의하였다. 궁내대신 사임 문제의 책임을 통감한 야마가타는 후임 추천을 마쓰가타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인선을 진행한 마쓰가타에 의해 1921년 2월 마키노 노부아키가 궁내대신으로 부임하였다.[41] 마키노는 사쓰마(薩摩)번벌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차남으로 마키노 가문으로 양자로 들어가, 사이온지 내각에서 문부대신, 농상무대신을 역임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한 파리강화회의에도 사이온지와 함께 일본 전권으로 참석하였다.[42] 이러한 인연으로 사이온지와 교분이 있었다. 취임 후 사이온지에게 인사차 들른 마키노는 사이온지로부터 자신을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의 차기

39 原奎一郎 編, 1981a, 『原敬日記4』, 福村出版株式會社, 166쪽.
40 原奎一郎 編, 1981b, 『原敬日記5』, 福村出版株式會社, 305쪽.
41 原奎一郎 編, 1981b, 위의 책, 351~352쪽.
42 秦郁彦, 1981, 『戦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2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반으로 온존해두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43] 원로 마쓰가타에 의해 궁내대신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이온지 입장에서는 마키노를 차기 수상으로 지목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1년 11월에 기록한 마키노의 「비망록」[44]에 따르면, 당시의 궁중이 처한 상황을 국민의 황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황실에 대한 기대도 생겨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궁내대신에 부임한 마키노는 궁중의 인원 정리, 재정 정비 등의 조치와 의료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하사금의 수여와 같은 사회사업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가고자 하였다.

3월 3일 황태자 일행은 요코하마(横浜)를 출발하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을 순방하고 9월 3일 요코하마로 귀국하였다.

『쇼와천황실록』에는 1921년 1월 17일 다이쇼 천황의 허락이 내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번 외유는 황태자의 세계 정세 인식과 세계 군주와의 교제를 위해 원로 야마가타, 마쓰가타, 사이온지 및 수상 하라가 강하게 추진했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45]

각기 입장이 상이한 3명의 원로였지만, 향후 군주가 될 황태자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현실을 직시하며 사고체계를 확장하여 풍부하게 하고 세계의 군주들과 친교를 돈독히 하여 일본의 군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황태자에 대한 중요한 보필 사항은 원로와 수상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1년 3월 3일 요코하마에서 출항한 히로히토 일행의 봉공장은 진다 스테미(珍田捨巳), 황족으로는 간인노미야 고도히토(閑院宮載仁), 고마쓰 데루히사(小松輝久), 그리고 동궁 무관장 나라 다케지 등이 동행하였다.

---

43 牧野伸顕, 1991, 『牧野伸顕日記』, 中央公論社, 11쪽.

44 茶谷誠一, 2010, 『昭和天皇側近たちの戦争』, 吉川弘文館, 16쪽.

45 宮内庁, 2015c, 앞의 책, 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항 후 직면한 문제는 홍콩에서의 경호문제였다. 3월 10일 홍콩 입항 시 조선인을 경계하기 위해 히로히토 대신 고마쓰를 연회에 참석시키는데, 그 이유는 '조선인 활동가'의 홍콩 잡입에 의한 신변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46] 동궁 무관장 나라의 기록에는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위해 전하의 표면적 상륙은 단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영국 총독 당국에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였다"라고 적고 있다.[47] 최초의 해외 외유에서 히로히토는 식민지 조선 지배와 직면한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 영국은 일본의 차기 군주 히로히토에게 동맹국으로서 환대를 하였다. 몰타섬 기항 시에는 공군기가 환영하는 등 영국의 환대에 나라는 새삼 놀라기도 하였다. "4월 24일 몰타착 이틀 체재, 총독사령관과 의례를 마치고 만찬 관극(觀劇) 등 성대한 환영을 받음, 동지에 일본 해군 전사자의 묘지를 위문"[48]하였다. 이곳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상선을 호위하던 일본 해군의 전몰자 묘지가 있어 영국이 이에 경의를 표하고, 동맹국 일본과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 5월 7일 영국에 도착한 히로히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세계의 평화 및 정의의 유력한 옹호자'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반전 평화기운이 고취되는 국제 환경에서 히로히토 또한 이에 편승하여 대영미협조노선을 표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럽 순방 후 귀국한 동궁 무관장 나라는 "전하 자신도 크게 얻은 것이 있고 또한 국교상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감상을 들었으며, 명랑쾌활한 기분을 갖고, 내외인에 대한 공사의 사교도 능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적인 전하는 황실의 선조가 진실로 신이며, 현재의 천황이 현인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 같으며, 국체는 국체로서 현상을 유지하지만, 천황이 신으로서 국민과의 거리가 너무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황실은 영국의 황실 정도로, 국가와 국민

46 宮内庁, 2015c, 위의 책, 41쪽.
47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121쪽.
48 奈良武次, 2012c, 위의 책, 1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계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감상을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49] 약 6개월간의 해외 순방으로 히로히토의 사고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주제가 폐지되는 국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군주관 논리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Ⅳ. 섭정 히로히토와 궁중

1. 섭정 보필체제의 구축

다이쇼 천황의 건강과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원로와 하라 수상,[50] 황족들은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을 추진하였다.[51]

섭정 설치는 메이지 헌법, 황실전범, 섭정령의 규정에 근거하였다. 황실전범 제19조에 따르면 천황이 미성년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정무를 볼 수 없는 경우, "황실회의 및 추밀고문의 의결을 거쳐"섭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52] 또한 1909년 황실령 제2호「섭정령(攝政令)」으로 섭정 설치 의례 절차와 조서(詔書)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다.[53] 그리고 이러한 섭정의 권한은 메이지 헌법 규정에 따르면 제17조에 "천황의 명으로 대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75조에서 섭정에 의한 헌법 및 황실전범의 개정은 금하고 있다.[54]

---

49 奈良武次, 2012c, 위의 책, 127쪽.

50 하라 수상은 천황제 존속을 기대하였다. 다만 "황실은 정치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자선은상(慈善恩賞) 등의 관청(府)이 된다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한다"(原奎一郎 編, 1981b, 앞의 책, 276쪽)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정당정치가로서 병약한 다이쇼 천황 아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51 原奎一郎 編, 1981b,『原敬日記5』, 위의 책, 147쪽.

52 伊藤博文, 1937,『帝国憲法皇室典範義解』, 国会蔵版, 152쪽.

53『官報』, 1909年 2月 11日, 號外.

54 安井秀堅 編, 1889,『大日本帝国憲法』, 觀成社, 3~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처럼 섭정은 기본적으로 천황의 대권을 행사하면서 현상유지적인 권한 대행으로, 헌법과 황실전범과 같은 체제 변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섭정 취임 준비를 위해 마키노는 궁내차관 세키야 데이자부로(関屋貞三郎)와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에게 조사를 명하고 신중하게 준비를 추진하였다.[55] 11월 25일에는 황족회의, 추밀원회의에서 섭정 설치가 결정되고 당일, 다이쇼 천황의 병세와 히로히토 섭정 설치가 공표되었다.[56]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에 따라 보필체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동궁 무관장 나라는 "전하는 앞으로 정무 군무에서 폐하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측근기관으로 시종장, 시종무관장이 필요하고, 또한 황태자로서는 지금까지의 동궁 시종장, 동궁 무관장을 활용하는 이중 기관을 사용하게 된다 … 복잡 미묘한 관계가 생긴다. 이에 궁내성은 육해군 양성과 협의하여 동궁 시종장 및 동궁 무관을 전원 시종 및 시종무관으로 겸무하도록 하였다."[57] 황태자가 섭정이 됨에 따라 시종과 무관의 경우 천황과 동궁에 의한 이중적 보필이 됨에 따라 이를 겸무하도록 한 것이다.

다이쇼 천황을 보필하는 최측근으로 원로이자 내대신인 마쓰가타는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천황을 이을 히로히토의 군주로서의 성장과 섭정 설치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히로히토가 섭정에 취임하자 1922년 9월 내대신을 사임하였다.

〈표 4〉 내대신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1917.5.2.~1922.9.18.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	1922.9.18.~1925.3.30.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顕)	1925.3.30.~1935.12.26.

출전: 秦郁彦(2001), 70쪽에서 작성.

55 永井和, 2003, 앞의 책, 56~66쪽.
56 宮内庁, 2015c, 앞의 책, 524~527쪽.
57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1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쓰가타는 "이번 일이 결정되면 꼭 사임하고 싶다"라며 섭정 취임을 자신의 마지막 봉공으로 생각한 것이다.[58]

원로 사이온지는 마쓰가타의 후임 내대신으로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를 선정하였다. 마쓰가타처럼 원로급 내대신에 비해 히라타는 급이 아래였으나 야마가타파 관료의 중진으로 기존 내대신이 해온 방식을 답습하며 본인의 정치 인맥을 활용하여 조정역으로 내대신 역할을 수행하였다.[59] 섭정 히로히토의 보필은 기존의 동궁관료뿐만 아니라 천황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대신과 궁내대신, 시종장이 직접 보필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히라타는 평소에는 즈시(逗子)에 거주하며 섭정의 호출이 있으면 상경하는 형태로 섭정을 보필하였다. 따라서 궁중의 용무는 대부분 궁내대신인 마키노에게 일임되어 결과적으로 마키노의 발언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과 동시에 동궁 대부는 유럽 순방 시 봉공장으로 수행했던 진다 스테미(珍田捨巳)가 맡게 되었다.[60] 또한 동궁 무관장 나라는 시종무관장을 겸무하게 되었다. 나라는 마키노에게 업무의 과중함을 토로하였으나, 다이쇼 천황이 투병 중이라 그다지 업무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겸무가 견지되었다. 나라는 천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매일 먼저 시종무관부로 출근하여 다이쇼 천황을 알현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였다.[61]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을 수행한 인물을 중심으로 동궁의 궁중세력이 재편일신되고, 섭정 설치에 따라 다이쇼 천황의 군주로서의 권한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반면 궁중의 중심은 섭정 히로히토로 집중되었다.

궁내대신 마키노가 일기에 "섭정은 이제 취임하였기에, 군측의 진용이 중요

58 牧野伸顕, 『牧野伸顕日記』, 앞의 책, 17쪽.
59 松田好史, 2014, 앞의 책, 54~57쪽.
60 奈良武次, 2012a, 앞의 책, 192쪽.
61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134~1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며 그 역할은 유신 창업 당시 군측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적고 있듯이,[62] 메이지 천황을 보필하였던 원훈(원로)과 같은 존재가 섭정 히로히토에게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이온지의 후임으로 새로운 원로를 충원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반면 사이온지는 원로 충원에는 소극적으로 기존의 수상 추천방식인 다수에 의한 원로회의에서 원로와 내대신의 협의에 의한 현실적 대안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하였다.

결혼을 앞두고 섭정 히로히토는 기존의 여관제도(女官制度)의 개혁을 제안하고 "근무자가 숙식하는 것은 폐지하고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의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황후와의 갈등을 우려한 마키노는 만류하였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키노는 일기에 "전하는 외유의 영향이 적지 않아" 서구적·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적고 있다.[63] 여기에서 섭정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예견되는 문제점을 제언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섭정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궁내대신 마키노의 기본적인 보필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922년 11월에서 12월 초에 걸쳐 군의 훈련과 순행(巡幸)을 수행한 궁내대신 마키노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가는 섭정을 접하며 보필자로서 안도한다. 그는 일기에 "수주간 동행, 적시하고 싶도록 지방민의 환영은 열렬하여 감개무량하다"며 그 원인을 섭정의 "인덕"으로 기록하고 있다.[64] "인덕"의 유무를 떠나 무엇보다 섭정 취임에 앞서 실시된 유럽 순방을 전환점으로 히로히토 자신의 군주로서의 자각이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히로히토에 대한 경외심도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주로서의 권위를 각인시킨 것이 관동대지진 발생 시 섭정의 대응이었다.

1923년 9월 1일 관동지역을 중심으로 대지진(関東大震災)이 발생하였다.

---

62 牧野伸顕, 1991, 앞의 책, 45쪽.
63 牧野伸顕, 1991, 위의 책, 44~45쪽.
64 牧野伸顕, 1991, 위의 책, 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섭정은 피해 상황을 직접 시찰하고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말을 타고 행계에 나섰다. 9월 15일에는 도쿄의 이치가야, 간다, 니혼바시, 우에노 등지를 시찰하였다. 18일 시찰에서는 우에노, 간다, 아사쿠사 등지를 시찰하였다. 10월 10일에는 도쿄를 벗어나 요코하마, 요코스가를 시찰하였다.[65] 이러한 섭정의 행보는 종래의 천황에게서는 볼 수 없던 이례적인 행위였다.

한편, 도쿄, 가나가와(神奈川)현에 계엄령이 내려지자, 4일부터 관동계엄사령관은 섭정에게 대원수로서의 상황 보고를 9월 24일까지 매일 하였다.[66]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11월 28일에는 제도부흥계획과 관련해 "측근을 상대로 담화 중 제도부흥계획에 관해 그 규모가 너무 작다고 감상"을 표출하기도 하였다.[67] 이와 같이 섭정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히로히토는 마키노에게 결혼 연기를 언급하였다. 마키노는 "전하 이번 대지진의 범위가 넓고 시찰함에 그 상처가 깊어, 자신의 결혼도 거행이 결정되었지만 이를 연기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이를 천황과 황후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68] 이러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마키노와 히로히토의 신뢰가 구축되어간다.

1923년 12월 27일 귀족원 개원식 참석차 제국의회로 향하던 섭정 일행이 도라노몬 근처에서 난파 다이스케(難波大助)에게 총격을 당하였다. 이번 저격으로 동궁 시종장 이리에 다메모리(入江為守)가 부상을 당했으나 자동차 유리가 부서지는 정도여서 히로히토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나라는 이를 히로히토의 "침착함에 일동 탄복함"[69]이라고 적었으나 마키노는 일기에 이날의 충격을 "앞

65 宮内庁, 2015c, 앞의 책, 933, 936, 948쪽.

66 宮内庁, 2015c, 위의 책, 923~941쪽.

67 宮内庁, 2015c, 위의 책, 971쪽.

68 牧野伸顕, 1991, 앞의 책, 89~90쪽. 연기된 섭정의 결혼식은 1924년 1월 26일 거행되었다.

69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1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의 일이 실로 우려스럽다"라고 적었다.[70] 단순한 정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분열과 혼란은 섭정의 신변보호와 천황제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면에서 궁중세력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 직후 경호를 위해 근위 기마병을 통한 호위를 보강하지만, 자동차와 말의 부조화로 인해 결국 자동차로 경호 인력을 늘리도록 조치하였다.[71]

2. 섭정 정무교육

내대신 히라타는 1923년 수차례에 걸쳐 섭정에 대한 정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료로서 내각법제국, 추밀원을 경험하고 농상무대신, 내무대신을 역임한 히라타는 섭정에게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현실 정치에 대해 직접 진강하였다.

6월 29일 "내대신 히라타 도스케 알현, 약 1시간에 걸쳐 제국의회 개설 유래, 조약개정의 전말, 조선병합의 전말 등의 이야기를 들으셨다"[72]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메이지 시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 사안이 주제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 1일에는 "약 1시간 동안 내신 히라타 도스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73]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1시간 정도에 걸쳐 조약개정의 전말, 청일전쟁의 유래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셨다"[74]라고 적고, 12월 26일에는 "약 1시간에 걸쳐 1898년 와이한(隈板) 내각 성립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시고 끝나고 다과를 나누었다"라고 적었다.[75]

1924년 5월 30일, 내대신 히라다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후 처음으로 섭정에게 정치 진강을 하였다. "1898년 헌정당 성립에서 오오쿠마 시게노부(大

70 牧野伸顕, 1991, 앞의 책, 108쪽.
71 奈良武次, 2012c, 앞의 책, 141쪽.
72 宮内庁, 2015c, 앞의 책, 885쪽.
73 宮内庁, 2015c, 위의 책, 899쪽.
74 宮内庁, 2015c, 위의 책, 973쪽.
75 宮内庁, 2015c, 위의 책, 9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隈重信),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에 조각명령이 내려진 정부 상황"[76]이 당일의 진강 주제였다.

히라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섭정 정무 교육에 임하였다. 여러 정치상황에서 메이지 천황과 측근들의 조언과 이를 통한 천황의 대응 등을 섭정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히라타는 고령에 교통사고와 질병 등으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1924년 2월부터 사의를 표명하고 11월에는 사이온지에게 후임을 의뢰하였다.[77] 이에 사이온지는 대외관으로 영미협조주의를 공유하며 궁중 문제를 무난하게 처리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온 궁내대신 마키노를 내대신 후임으로 선정하였다.

내대신에 취임한 마키노는 섭정의 정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당시의 수상에게 섭정 히로히토에게 정치 정세를 상주하도록 요청하였다. 마키노의 요청을 받은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수상은[78] 이를 수락하였다. 마키노는 일기에 "전하의 정치정보와 관련해 하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가토 … 충분히 승낙함"[79]이라고 적었다.

히라타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메이지기의 정치 진강을 하였다면, 마키노는 현실 정치에서의 실무를 통한 정무교육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마키노는 수상뿐 아니라 섭정에게도 수상을 직접 불러 하문하도록 건의하였다. 섭정 히로히토는 "마키노로부터 섭정으로서 수상 등을 불러 정국에 관해 하문하도록 요청받고"[80] 이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이에 1925년 5월 6일에는 가토 수상이 알현하여 섭정이 "약 1시간에 걸쳐 주상을 들으셨다", 5월

76 宮内庁, 2015d, 『昭和天皇実録4』, 東京書籍, 81쪽.
77 松本剛吉, 2012, 앞의 책, 348~349쪽.
78 가토 내각은 1924년 6월 ~ 1926년 1월.
79 牧野伸顕, 1991, 앞의 책, 205, 240쪽.
80 宮内庁, 2015d, 앞의 책, 2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0일에는 "사법 대신 오카와 헤기치(小川平吉)의 강화 「사법부 소관 사무에 관해」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81]

마키노는 정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제 수상과 대신에 의한 보고를 하도록 하여 섭정의 정치 감각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마키노 자신도 섭정에게 정치 진강을 하였다. 1925년 5월 9일에는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 배알, 정당의 이합집산의 현황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했으며, 1926년 3월 17일에는 "오후,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 배알, 제국의회의 경과에 관한 소감을 들으셨다"[82]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키노는 정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섭정에게 제공하여 섭정의 정치적 상황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며, 군주로서의 정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무교육이 거듭되면서, 1926년 3월 12일에 "내각 상주 문서를 보시던 중 「왕공족 권의에 관한 법률안 제국의회 제출 건」에 대해 하문하시어, 즉시 시종장이 내각에 설명을 요구하였다.[83] 이에 시종장은 바로 내각서기관장, 법제국 참사관을 불러 시종차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섭정에게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당일 재가가 내렸다. 상주는 섭정의 재가를 득하기 위해 내각의 합의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섭정이 불허한다는 것은 내각불신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궁무와 관련된 사안이나, 섭정은 정무교육을 통해 습득한 하문을 통해 상주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내대신 히라타와 마키노의 교육을 통해 섭정 히로히토의 군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미약하나마 정무 능력 향상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81 宮内庁, 2015d, 위의 책, 244, 268쪽.

82 宮内庁, 2015d, 위의 책, 246, 431쪽.

83 宮内庁, 2015d, 위의 책, 246, 4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이상으로 히로히토가 천황으로 즉위하기 이전인 섭정 시기를 전후하여 궁중세력의 보필 실태와 정치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세 시기로 구분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1901년 이후, 생후 유년기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위시한 원로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궁내대신의 보필하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1912년 이후, 다이쇼 천황 즉위로 본인이 황태자 신분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신분적으로 동궁의 주인이 된 히로히토는 동궁 대부와 동궁 시종장 등의 보필을 받았다. 특히 동궁 대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1914년 이후는 동궁어학문소에서 폐쇄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 시기 궁중 전반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원로 야마가타는 궁중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가 궁중에 관철되도록 정치 행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 수하의 인물을 궁중관료로 배출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궁중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마가타의 궁중에 대한 장악력은 황태자비 문제로 인해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야마가타, 마쓰가타, 사이온지 등 3명의 원로와 하라 수상은 다이쇼 천황의 병세 악화라는 상황에 대응하여 히로히토의 군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며 궁중 현안문제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전환기가 되는 것이 1921년, 유럽 순방을 다녀온 히로히토가 다이쇼 천황을 대신하여 섭정이 되어 국무를 담당하게 되는 시기이다. 원로가 합심하여 추진한 황태자의 유럽 순방은 기대한 바대로 황태자의 의식과 사고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새로 부임한 동궁 무관장 나라 다케지는 야마가타의 당부에 의거하여 보필방침을 정하고 유럽 순방뿐 아니라 군 및 궁중행사를 수행하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히로히토의 권위를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 이후는 원로 마쓰가타 마사요시와 사이온지 긴모치의 관리하에서 마키노 노부아키가 궁내대신과 히라타 도스케 후임으로 내대신의 자격으로 히로히토를 보필하였다. 특히 내대신은 섭정의 정무교육에 주력하였다. 히라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진강과 마키노의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섭정 히로히토는 군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원로 마쓰가타에 의해 궁내대신에 취임한 마키노는 원로 사이온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마키노는 원로 사이온지 지시에 순응하며 황태자의 섭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사이온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미 병세가 악화된 다이쇼 천황의 대를 이을 히로히토의 교육과 보필을 원로 사이온지와 궁내대신 마키노가 보조를 맞추며 추진하였다.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에 따라 다이쇼 천황의 직무를 섭정이 관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주로서의 권위는 히로히토에게, 그리고 궁중세력 또한 섭정 보필에 집중하게 되었다. 섭정의 상시보필 역할을 수행해야 할 내대신 히라타는 여러 사정으로 궁중에서의 섭정 보필이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궁내대신인 마키노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원로와 궁내대신의 관계로 신뢰를 구축해온 마키노는 궁내대신에서 내대신으로 취임하고 마지막 원로 사이온지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토대로 섭정, 차기 군주의 보필체제 구축에 진력하였다.

이처럼 섭정 히로히토를 보필한 궁중세력이 정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미하였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을 강요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촉구하기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인 영미협조주의를 기축으로 입헌군주로서의 보편적 자질과 덕목을 함양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宮内庁, 2015a,『昭和天皇実録1』, 東京書籍.

_____, 2015b,『昭和天皇実録2』, 東京書籍.

_____, 2015c,『昭和天皇実録3』, 東京書籍.

_____, 2015d,『昭和天皇実録4』, 東京書籍.

奈良武次, 2012a,『侍従武官長奈良武次日記·回顧録1』, 柏書房.

_____, 2012b,『侍従武官長奈良武次日記·回顧録2』, 柏書房.

_____, 2012c,『侍従武官長奈良武次日記·回顧録4』, 柏書房.

デイビットタオタス, 大谷堅志郎譯, 1979,『日本の天皇政治』, サイマル出版會.

牧野伸顕, 1991,『牧野伸顕日記』, 中央公論社.

木戸幸一, 1974,『木戸幸一日記』下巻, 東京大学出版会.

小田部雄次, 2023,『天皇家の帝王学』, 星海社.

松本剛吉, 2012,『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政治: 松本剛吉政治日誌』, 岩波書店.

松田好史, 2014,『内大臣の研究: 明治憲法體制と常侍輔弼』, 吉川弘文館.

安井秀堅編, 1889,『大日本帝国憲法』,觀成社.

永井和, 2003,『青年君主昭和天皇と元老西園寺』, 京都大学出版会.

原奎一郎 編, 1981a,『原敬日記4』, 福村出版株式會社.

_____, 1981b,『原敬日記5』, 福村出版株式會社.

伊藤博文, 1937,『帝国憲法皇室典範義解』,国会蔵版.

秦郁彦, 1981,『戦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秦郁彦, 2001,『日本官僚制総合事典1868-2000』, 東京大學出版會.

_____, 2005,『日本陸海軍総合事典』, 東京大學出版會.

茶谷誠一, 2009,『昭和戦前期の宮中勢力と政治』, 吉川弘文館.

_____, 2010,『昭和天皇側近たちの戦争』, 吉川弘文館.

倉富勇三郎日記研究會編, 2010,『倉富勇三郎日記3』, 國書刊行會.

波多野勝, 1998,『裕仁皇太子ヨーロッパ外遊記』, 草思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角田竹男, 2016,「木戸幸一研究-その政治的人格の形成と構造」,『北大法政ジャーナル』23.

藤原彰, 1979,「宮中グループと政治的役割」,『天皇の軍隊』, 青木書店.

伊香俊哉, 1991,「昭和天皇·宮中グループの田中内閣倒閣運動」,『歴史評論』496.

中園裕, 1994,「政党内閣期に於ける昭和天皇及び側近の政治的行動と役割」,『日本史研究』382.

坂本一登, 1998,「新しい皇室像を求めて-大正後期の親王と宮中」,『年報近代日本研究20宮中·皇室と政治』, 山川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섭정 히로히토와 궁중

김봉식

이 글에서는 쇼와 천황 즉위 이전 시기, 히로히토가 당면한 정치 현상을 목도하며 군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동궁과 천황의 궁중세력 간의 역학관계 및 역할, 이들이 히로히토에게 미친 영향과 정치적 기능을 고찰하였다.

히로히토는 1901년 출생 이후, 야마가타를 위시한 원로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궁내대신 중심의 보필하에서 성장하였다.

1912년 이후, 다이쇼 천황으로 즉위로 본인이 황태자 신분으로 변경된 이 시기는 동궁 대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동궁어학문소에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 시기 궁중 전반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원로 야마가타는 궁중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가 궁중에 적용되도록 정치 행위를 하였다. 3명의 원로와 하라 수상은 다이쇼 천황의 병세 악화라는 상황에 대응하여 히로히토의 군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며 궁중 현안문제에 대처하였다.

1921년 히로히토의 섭정 취임 이후는 원로 마쓰가타와 사이온지의 관리하에서 마키노가 궁내대신과 히라타 후임으로 내대신의 자격으로 히로히토를 보필하였다. 특히 내대신은 섭정의 정치 실무교육에 주력하였다. 히라타의 경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토대로 한 강의와 마키노의 실무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섭정 히로히토는 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갔다.

섭정 히로히토를 보필한 궁중세력이 정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미하였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을 강요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촉구하기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인 영미협조주의를 기축으로 입헌군주로서의 보편적 자질과 덕목을 함양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주제어: 섭정, 히로히토, 궁중, 쇼와 천황, 마키노 노부아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gent Hirohito and the Court

Kim Bongsik

This study is aimed the dynamics and roles of the Crown Prince and the Emperor's court power, as well as the influence and political function they had on Hirohito as he grew up as a monarch, while observing the political phenomena faced by Hirohito before the ascension of Emperor Showa.

Hirohito was born in 1901 and grew up under the guidance of the court officials, including Yamagata, and under their instructions.

After 1912, when he ascended to the throne as Emperor Taisho and changed his status to crown prince, he grew up in a closed environ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Crown Prince and received education at the Crown Prince Language Institute. Yamagata, who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entire court during this period, engaged in political activities so that his own opinions would be applied to the court rather than reflecting the court's opinions in politics. The three elders and Prime Minister Hara cooperated wit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ach other to strengthen Hirohito's capacity as a monarch in response to the worsening health of Emperor Taisho, and dealt with current issues in the court. After Hirohito assumed the regency in 1921, Makino assisted Hirohito under the management of Matsukata and Saionji. He focused particularly on the regency's practical political education. The influence of the court power that assisted Hirohito as regent on the political situation was limited and minimal. Rather than imposing their own political ideologies or urging political judgment, they focused on fostering universal qualities and virtues as a constitutional monarch based on the Anglo-American cooperative system,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I.

Keywords: Regent, Hirohito, the Court, Emperor Showa, Makino Nobuaki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10

문화대혁명과 중국의 고고학

– 고고(考古)의 군중화와 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영미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I. 머리말
II. 맨발의 고고학자(赤腳考古): 발굴조사의 군중화
III. 정치제일(政治掛帥): 발굴자료 해석의 정치화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20세기 초 중국 고고학은 서양 고고학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학술적 독립성을 확립하였다. 서양의 고고학은 발굴을 통한 층위학적(stratigraphic) 연구와 형식학적(typological) 분석을 통해 유물과 유적을 연대기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의 구조와 변천 과정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송대(宋代) 이래 이어져온 전통적 금석학(金石學)이 문자학적 고증을 통해 비문(碑文)과 명문(銘文)의 사료적 가치를 입증하는 방식이나 단순한 골동품 수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지표조사와 발굴을 통한 과학적 고고학 연구방법을 정립해나갔다.[1]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래 고고 발굴·조사 작업과 발굴자료 해석에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었다.[2]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진행된 10년은 정치뿐 아니라, 학문과 지식 생산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 전방위적 사회 변혁기로 평가된다. 특히 고고학은 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중국 역사의 발전 과정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연속성과 독자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선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기에 정치적 역할이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재심사 완료: 2025년 5월 12일, 게재 확정: 2025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25).

1 중국에 과학적 고고학이 도입된 과정에 관해서는 김정열, 2024,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 『동북아역사논총』 83을 참고.

2 문화대혁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것인지의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이견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1966년 5월 16일의 확대회의를 문화대혁명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하는 1976년에 끝났다는 견해를 따른다. 시기 구분에 관해서는 백승욱, 2016, 「문화대혁명 50주년, 지속되는 쟁점들」, 『지식의 지평』 20을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문화대혁명 시기 고고학의 변화상은 정치적·사회적·학문적 맥락에서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화대혁명 시기 고고 발굴·조사 작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단일하지 않다. 단절로서의 문화대혁명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지식인에 대한 정치적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 고고학을 포함하는 학술 일체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는 문화대혁명이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대안적 학문을 모색한 시도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관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대혁명 시기는 일종의 '암흑기'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문화대혁명 시기를 이른바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해한다면 1970~1980년대의 재건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에, 문화대혁명 시기의 군중적 실천이 고고학을 포함하는 학문체계의 재구성에 일부 계승되었다는 복합적 태도로 문화대혁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3] 이 연장선에서 문화대혁명 시기 국가 권력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통제했다기보다 오히려 기층사회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협력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느슨한 행정력이 기층사회에 자율적 공간을 제공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4]

주지하다시피,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는 문화대혁명의 폭력성이 가시적으로 표출된 홍위병(紅衛兵)과 그들에 의해 파괴된 문물에 초점을 맞춰왔다.[5]

---

3 박상수, 2015,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다섯 가지 논쟁적 태제 述論」, 『사총』 85; 이종식, 2021, 「20세기 중국 과학사·기술사·의학사 독법(讀法): 자기 부정과 자기 재생산을 양극으로 하는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 『아세아연구』 64(2); 박경석, 2024, 「'10년이나' 또는 '10년밖에': 1950년대 中國科學社의 존속과 폐지」, 『중국근현대사연구』 102 등을 참고. 이들은 문화대혁명 이전과 이후를,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대립적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4 김준기, 2021,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 기층 의료현장의 국가-사회관계: 베이징(北京)교구 농촌의 '맨발의 의사[赤腳醫生]'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6 참고.

5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공산당이 반포한 문물 관련 법령 「고적, 진귀한 문물이나 도서 및 희귀 생물 보호법에 관한 규정(關於規定古跡,珍貴文物圖書及稀有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들 연구는 냉전적 사유의 영향에서 혹은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발생한 문물 파괴의 폭력성과 학계에 가해진 강압적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6]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문물 사업의 주요 결정에 참여한 고고학자 셰천성(謝晨生)이 한 인터뷰에서 "1990년대의 문물 파괴가 '문화대혁명'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관점을 제기하고 2016년과 2018년에 그의 회고록이 잇달아 출간되면서 적어도 중국 학계의 연구 경향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7] 이들 연구는 셰천성의 회고록 등에 근거하여 홍위병의 문물 파괴가 비교적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나아가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문물 파괴를 막기 위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천보다(陳伯達) 등의 노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8]

物保護辦法)」, 「고문화 유적 및 고분군 조사발굴 임시 방법(古文化遺跡及古墓葬之調查發掘暫行辦法)」, 「진귀한 문물·도서 반출금지 임시 방법(禁止珍貴文物圖書出口暫行辦法)」 등에는 문물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명승고적(名勝古跡) 및 도서 등과 병렬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 문물은 유물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1982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에 따라 "인류가 역사 발전 과정 중에 남긴 유적과 유물"을 문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6 홍위병과 그들의 문물 파괴에 관한 연구로는 金春明, 1997, 「"破四舊,立四新"的曆史反思」, 『中共中央黨校學報』 1; Roderick MacFarquhar, Michael Schoenhals, 2006, *Mao's Last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何立波, 2006, 「破"四舊"風潮的前前後後」, 『黨史文苑』 3; 프랑크 디쾨터 저, 고기탁 역, 2017, 『문화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1976』, 열린책들 등이 있고, 한국에는 윤휘탁, 2013,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反전통과 전통」, 『역사학보』 218; 구소영, 2018, 「문화대혁명 시기 광서(廣西) 대학살의 실태-전주현(全州縣)을 사례로」, 『인문연구』 3; 김한결, 2020, 「문혁 초기 홍위병 운동과 중앙-지방 정치역학: '산동대학 모택동주의 홍위병'의 사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의 연구가 있다.

7 謝晨生 口述, 李曉東·彭蕾 整理, 2016, 『新中國文物保護史記憶』, 文物出版社; 謝晨生 口述, 姚遠 選寫, 2018, 『謝辰生口述: 新中國文物事業重大決策紀事』, 生活·讀書·知識三聯書店.

8 중국학계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파괴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찍은 연구들이 많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파괴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물 보호에 관한 연구로는 范佳領, 2016, 「新中國文物古跡保護史(194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회고록에 공개된 각 시기 문물 사업 관련 주요 회의기록, 서신, 관련 지도자의 발언 등은 현대 중국의 고고학 발전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 고고학 연구의 변화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문화대혁명 시기가 언급된 경우에도 시대적 배경과 결합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이다. 역사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주목한 류젠메이(劉建美)는 「1949~1966년 중국 문물 보호 정책의 역사적 고찰(1949~1966年中國文物保護政策的曆史考察)」과 「20세기 70년대 전후 중국 문물 보호 작업 개요(20世紀70年代前後中國文物保護工作述略)」에서 1950년대에 생산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건설과 개발이 문물 보호와 충돌하였음을 밝히고, 특히 대약진(大躍進) 시기에 효율을 우선하는 조급한 고고 발굴조사가 1960년 초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으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 다시 '군중노선(群眾路線)'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에나 회복될 수 있었음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9] 최근 우치야오(吳琪瑤)는 「중국 공산당의 문물 보호 인식과 정책연구(中國共產黨對文物保護的認識與政策研究)」에서 유적이나 고고 발굴 현장과 같은 이동 불가 문물이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개발 등 다양한 국가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문물 보호 작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니는 특수성 및 이러한 특수성과 정치적 결정과의 상호작용을 시대별로 검토하였다.[10]

2005)」,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姚遠, 2018, 「中國文化大革命期における文化財保護をめぐる一考察」, 『アジア太平洋討究』 30 등이 있고, 해외 연구성과로는 Dahpon David Ho, 2006, "To Protect and Preserve: Resisting the Destroy the Four Olds Campaign, 1966-1976", J. Esherick, P. Pickowicz, and A. Walder(ed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설재희, 2020,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물(文物) 보호: 1970년대 전시, 담론, 대중 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이 1970년대 문물 보호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다루었다.

9 劉建美, 2008, 「1949-1966年中國文物保護政策的曆史考察」, 『當代中國史研究』 3; 2013, 「20世紀70年代前後中國文物保護工作述略」, 『當代中國史研究』 20(4).

10 吳琪瑤, 2024, 「中國共產黨對文物保護的認識與政策研究」, 北京大學考古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글은 이상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고고학의 군중화(群眾化)와 정치화를 중심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의 변화상을 추적하고자 한다.[11] 기존의 연구들이 정치 지도부의 권력 투쟁이나 이 시기 문물의 물리적 파괴 또는 보존에 집중해왔기에 고고학 연구 체계의 붕괴나 학문적 후퇴와 같은 비물질적 파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 고고학이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전문성은 어떻게 약화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이 중국 고고학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Ⅱ. 맨발의 고고학자(赤腳考古): 발굴조사의 군중화

문화대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은 196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상하이(上海)에서 캉셩(康生) 및 장칭(江青) 등과 담화하던 중에 '문화대혁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자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가 4월부터 문화대혁명의 강령으로 여겨지는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마오쩌둥이 친히 심의하고 수정한 이 내부문서는 동년 5월 1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앙정치국확대회의(中央政治局擴大會議)를 통과하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통지(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通知, 약칭 五·一六通知)」라는 이름으로 각 현(縣)과 단(團)의 1급 당위원회(黨委)에 하달되었다.[12]

博學院博士學位論文.

11 군중과 대중의 사전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고 한국에서는 대중이나 대중화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주체성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산계급과 농민을 가리킬 때 사용해온 역사적 함의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도 군중이나 군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군중 개념의 정치적 속성에 관해서는 陳金華, 2015, 『(馬克思主義理論學科建設系列)民主別論』, 復旦大學出版社의 '제2장. 인민과 군중' 참고.

12 譚宗級, 2000, 「評《五·一六通知》」, 『回首'文革'(下)』, 中共黨史出版社, 62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문서에는 1957년의 '정풍운동(整風運動)'과 1959년의 '반우경운동(反右傾運動)'을 거치며 좌경화된 정치 지도부의 학술·문화 영역에 대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모든 우파 지식분자(牛鬼蛇神)가 우리(籠) 밖으로 나가도록 방치한 결과, 이들이 오랜 기간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서적, 교과서, 강연, 문예작품, 영화, 연극, 곡예, 미술, 음악, 무용 등을 장악했다. 이들은 무산계급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제창한 적이 결코 없고, 또한 이를 승인하려 하지도 않았다.[13]

지도부의 화살이 학계·교육계·신문계·문예계·출판계로 향하자 반사회주의자, 자산계급, 수정주의자로 낙인찍힌 지식분자들의 모든 성취는 이내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고고학계 역시 "자산계급이 무산계급 정권을 독점한(資產階級專了無產階級的政)" 영역으로서 혁명의 대상이 되었다.[14]

지식분자의 전문성과 연구 태도가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으로 비판받기 시작한 것도 1957년 말부터 논쟁거리가 된 '홍전(紅專)'의 관계 정의와 관련이 깊다. 1957년 9월에 열린 제8기 3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우리 각 분야 간부들은 기술과 업무를 정통하게 익혀 스스로 전문가가 되고, 정치신념(紅)과 전문성(專)을 겸비해야 한다. … 이른바 '선전후홍'(先專後紅, 먼저 전문성을 갖춘 후 나중에 정치신념을 갖는 것)은, 곧 '선백후홍'(先白後紅, 먼저 반동하고 나중에 정치신념을 갖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5] 마오쩌둥이 '선전후홍' 논리를 부정한 후 궈모뤄(郭沫若), 량쓰청

---

13 譚宗級, 2000, 위의 글, 621쪽.

14 譚宗級, 2000, 위의 글, 622쪽.

1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9, 『毛澤東文集』 第7卷, 人民出版社, 309쪽. 정치적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무산계급과 무산계급 독재란 무엇인지, 어째서 무산계급만이 전도유망한지, 중국은 왜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왜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었다(毛澤東, 「堅定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梁思成), 젠보잔(翦伯讚) 등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선전후흥' 논리가 잘못된 이유를 분석하며 비판 대열에 가담하였다.[16]

고고학과 관련된 각종 정책 역시 공산당 지도부의 학술·문화 영역에 대한 인식의 궤적에 수렴한다. 1958년 2월, "정풍운동을 통해 전체 국가사업을 개선하고 전 국민의 의욕을 북돋고자" 기획된 대약진운동은 농업·산업·공업 생산의 대약진뿐 아니라 문교·(의료)위생사업의 대약진도 주문하였다.[17] 문물 부문은 농업과 중·경공업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증가할 건설 공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고고 발굴·조사 인력의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에 걸쳐 완료하기로 예정된 해당 지역의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의 재조사를 1년 안에 완성하고, 지난 7년간 누적된 문물자료 전체를 정리하여 등록하는 작업을 2년 안에 완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력 공급 대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18] 공산당이 제시한 해결책은 '군중노선'이었다. 1958년 8월, 중국과학원 학부(學部) 위원 지원푸(稽文甫)는 '11개 성·시·자치구(省·市·自治區) 문물·박물관 현장회의'에서 '군중노선'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일부 고고학자는 고고지상(考古至上)이자 고고제일(考古第一)이라 착각하며 지금의 현실 생활과 고고학의 관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 과거, 지주나 자산계급과 같이 한가로운 계급이 하던 것인데 착취계급을 없애고 모두가 노동 인민인 지금의 우리에게 고고학이 왜 필요한가?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지 고고를 위한 고고를 해서는 안 되며, 그것에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여 '옛것을 오늘의 쓰임에 맞게 받아들여(古為今用)'야지 그 자체를 목

相信群眾的大多數」, 『人民日報』, 1957.10.13.).

16 瞿葆奎, 1992, 『社會科學爭鳴大系(1949-1989)』 教育學卷, 上海人民出版社, 126~127쪽.

17 「我們的行動口號-反對浪費, 勤儉建國」, 『人民日報』, 1958.2.2, 第1版.

18 「使文物展覽面向工農」, 『人民日報』, 1958.3.10, 第7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지금은 전 인민이 문화 사업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대약진 시대로 군중도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미 학문이 군중의 것이 되었는데 문물과 박물관 사업은 어째서 군중화될 수 없는가?[19]

군중노선이야말로 "고고 발굴 작업을 많이, 빨리, 잘, 절약해가며(多快好省)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며, "건설 공사에 유리할 뿐 아니라, 문물 보호 작업에도 유리한" 일거양득의 방침이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사실 고고학과 지식 분자에 대한 좌경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지원푸는 군중노선의 성공적 사례로 건국 초기 대규모 농업 및 수리(水利) 기반시설 건설과 고고 발굴·조사 인력 부족이 맞물려 탄생한 3개월 과정의 단기 고고 훈련반을 언급했지만, 1952년 1기(期)부터 1955년 4기까지 모집된 이 훈련반의 지원자격은 원칙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혹은 동등한 정도의 지식을 갖춘 문물·고고 방면에 종사하는 문교(文教) 간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21] 따라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나타나는 과학적 고고학의 붕괴는 대약진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는 고고학의 연구방법은 대약진운동 시기에 부정되었다. 1958년 군중노선을 실천한 후난성(湖南省)은 기존 고고 발굴·조사의 원칙과 실천이 "이른바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19 稽文甫, 1958, 「關於"厚今薄古""群眾路線"問題(1958.8.16.)」, 『考古』 9, 16~18쪽.

20 「十六個省, 市, 自治區文物, 博物館躍進現場會議建議書-文化大普及, 文物, 博物館事業走上新階段！(1958.10.6.)」, 『考古』 11, 34쪽; 稽文甫, 1958, 위의 글, 18쪽. 상술한 16개 지역은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안후이(安徽), 광둥(廣東),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族自治區),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를 가리킨다.

21 孫秀麗, 2005, 「考古的"黃埔四期"-記1950年代考古工作人員訓練班」, 『中國文化遺產』 3, 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이기를 요구할 뿐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왜 그러한지는 상관하지 않는", 일종의 "적게, 느리게, 나쁘게, 낭비하는(少慢差費)" 허례허식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전형적 표본을 제외한 문물의 상세한 묘사, 측량, 카드 작성과 같은 작업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동일 문화로 묶이는 지역에서는 다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정리하거나, 또는 발굴·조사와 유물 정리, 그리고 유적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세 가지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등의 '효율적' 방법으로 전례 없는 양적 발전을 달성하였음을 다양한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22]

군중노선에 따르면, 고고 발굴·조사 작업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군중의 '집단지성'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작업이기에 교육계나 문화계에 종사하는 간부 외에 각 인민공사(人民公社)나 향촌의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장년도 단기 '문물 훈련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23] 한편, 그동안 고고학 연구에 종사한 전문가들은 농촌 등지로 하방(下放)되었고 문물 관리 권한도 하급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군중의 문물 접근성 향상이 문물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구조와 연구방법의 탈전문화로 인한 문물 훼손을 동시에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24]

그런데 대약진운동의 광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홍전'은 대체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대립적 통일체(對立的統一體)"로 이해되었다.[25] 저우양(周揚), 양슈펑(楊秀峰), 저우언라이, 녜룽전(聶榮臻) 등의 지도부 인사들도 전문성을 가진 지식분자가 곧 반당(反黨), 반인민, 반사회주의자로 인식되는 '백전(白專)' 개념의

22 高至喜, 1959, 「我們的資料整理工作在躍進」, 『文物』 1, 40~41쪽.

23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59, 「河南省文物知識和發掘技術的大普及」, 『文物』 1, 39쪽.

24 謝晨生 口述, 姚遠 選寫, 2018, 앞의 책, 81, 86쪽.

25 「"紅與專"的大辯論是兩條道路的斗爭」, 『中國青年報』, 1958.1.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26] 대약진운동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무원은 중국공산당 제8기 9중전회(九中全會)를 통과한 "조정(調整), 공고(鞏固), 충실(充實), 제고(提高)" 방침에 따라 1961년에 「문물 보호·관리 임시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를 반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제정된 「문물 보호기관 보호·관리 임시 방법(文物保護單位保護管理暫行辦法)」에는 대약진운동의 맹목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고고 발굴·조사작업의 규범과 과학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문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감정(鑒定), 기록 등의 작업은 군중이 아니라 '문화 행정 부문'의 전문영역이 되었고, 과학적인 연구·보호·수리(修理)·발굴을 위하여 과학성이 담보되는 문헌, 문자기록, 탁본, 사진, 실측도 등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지식분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27]

1964년 4월 1일, 양셴전(楊獻珍)이 당교(黨校)에서 강의한 '대립적 통일 규율(對立統一規律)', 즉 '합이이일론(合二而一論)'을 계기로 '홍전'논쟁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고고학계에는 또다시 군중노선 바람이 불었다.[28] 당시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던 캉셩의 주도하에 양셴전 및 그의 이론을 인용한 상하이공업대학교 야오보마오(姚伯茂) 교수나 베이징대학교 펑딩(馮定) 교수 등에 대한 비판이 학계와 정계에서 격화되었고, '홍전' 관계는 노동자·농민·사병(工農兵)으로 대표되는 무산계급의 세계관과 지식분자로

---

26 周揚, 1980, 「關於高等學校文科教材編選的意見 1961年4月12日在高等學校文科教材編選計劃會議上的講話」, 『教育研究』 3; 楊秀峰, 1987, 『楊秀峰教育文集』, 北京師范大學出版社, 176~177쪽; 周恩來, 1984, 『周恩來選集』, 人民出版社, 342~343쪽; 聶榮臻, 1961, 「關於當前自然科學工作中若干政策問題的請示報告(1961年6月20日)」, 何东昌 主編, 1998, 『中華人民共和國重要教育文獻(1949~1975)』, 海南出版社, 1041쪽.

27 湖南省博物館 編, 1977, 『文物工作手冊』, 湖南省博物館, 11~22, 61~69쪽.

28 楊獻珍, 2002, 「要學會掌握對立統一規律去做工作, 在實際工作中尊重辯證法(1964年4月1日)」, 『中共中央黨校名師 第一卷』, 中共中央黨校出版社, 65~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표되는 자산계급의 세계관 대립, 즉 계급 투쟁의 한 형태로 해석되면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더욱 좌경화되었다.

문화대혁명의 공식적 출발로 여겨지는 1966년 8월 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關於無產階級文化大革命的決定)」에서 "교육과 생산 노동을 서로 결합한다는 방침"을 관철하여 "사회주의적 각오와 교양을 겸비한 노동자로 양성"한다는 교육개혁의 의지를 밝혔다.[29] 이후 1958년에 등장한 '반공반독(半工半讀)'에 기초하여 생산 노동과 기술교육, 그리고 정치 운동을 결합한 형태의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30] '개문판학(開門辦學)'도 학교가 문을 열어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에 참여시키거나, 학교 안에만 있던 지식분자들이 교문을 열고 나와 생산 노동에 참여하며 재교육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와 괴리된 이론 중심의 교육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도시 자산계급으로부터 농촌 무산계급으로의 권력 재편을 달성하려는 시도였다.[31] 반공반독이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교육격차를 문제 삼고 있다면, 문화대혁명 이후 전개된 개문판학이나 각종 '역공역농(亦工亦農) 단기 훈련반'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려던 것이다.[32]

자산계급 지식분자들이 장악한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문화대혁명 지도부의 의지가 그동안 과학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어온 고고학을 대상으로 강하게 표출되면서 고고학계 지식분자들은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자산계급 군사노선'으로 규정된 린뱌오(林彪)와 '반동적' 유가 사상

29 「關於無產階級文化大革命的決定」, 『紅旗』 10, 1966, 9쪽.

30 「工作方法六十條 草案(1958年1月31日)」, 『中共黨史參考資料』 第22冊,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 1998, 398~399쪽.

31 「國務院科教組, 財政部關於開門辦學的通知(1974年9月29日)」, 『中華人民共和國重要教育文獻(1949~ 1975)』, 海南出版社, 1998, 1528쪽; 彭澤平, 2005, 「知識厄運與制度悲劇文革時期我國基礎教育課程革命的歷史省察」, 『西北師大學報』 4, 78쪽.

32 宋學勤 · 何成雲, 2020, 「身份與職: 城鄉關係視域中的"亦工亦農"(1957-1977)」, 『中共黨史研究』 2, 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기원인 공자(孔子)를 비판하는 비림비공(批林批孔) 정치 운동의 필요에 따라 1974년에 개문판학이나 역공역농 단기 훈련반이 제도화되어 "무산계급 교육혁명의 신사물(新事物)"로서 적극적으로 보급되면서부터 군중이 다시 발굴·조사 작업에 개입하여 일부 현장을 훼손하거나 작업이 사상정치 교육으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33]

당시 베이징대학 역사학과에서 발행한 고고학전문학술지 『고고(考古)』를 통해 문화대혁명 시기 정부 지도층의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고고학의 "세 가지[정치, 군중, 생산·노동-역자주]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고고 전공이 학제 5년 중 첫 3년 동안 학생들에게 책만 읽히기 때문에 학생들이 3년이나 배우고도 무엇이 고고인지 대체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2년간 실습하면서도 농촌의 3대 혁명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세상에 귀를 닫은 채로 그저 고대만 연구한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개문판학을 통해 고고 전공 교사와 학생이 모두 공장과 농촌으로 하방되어 계급 투쟁과 생산 투쟁 현장에서 빈농 및 중하농(中下農)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사상이 개조되었고, 과거 고고 조사·발굴 현장에서 '고용 관계'로 여겨지던 교사·학생과 빈농·중하농 사이의 관계도 이를 통해 더불어 노동하고 학습하며 비림비공 운동을 전개하는 대등한 관계로 바뀌었다고 긍정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이 글이 개문판학 이후 학생들이 1학년부터 바로 고고 실습 현장에 투입되므로 교학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하면서도 교학의 질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3학번 학생들은 1974년 봄부터 후베이성(湖北省) 이두현(宜都縣)의 홍화타오(紅花套) 신석기 유적지 발굴에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 유물주의뿐 아니라 상(商)·주(周)대 고고학에 관한 전공지식을 학습했고, 나아가 도면 제작, 촬영, 측량, 검수, 보고서 작성 등 발굴·조사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고 적고 있다.[34]

---

33 「國務院科教組、財政部關於開門辦學的通知(1974年9月29日)」, 『中華人民共和國重要教育文獻(1949~1975)』, 海南出版社, 1998, 15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실상 교학 시간의 단축은 전공지식 학습이 발굴 현장에서 실습과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74년의 개문판학 고고 과정(課程)에 참여한 공·농·병(工農兵) 수강생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발굴 현장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박물관 진열실 및 유적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은 것이 상·주 고고학 학습의 전부였다. 1974년의 개문판학 고고 과정은 총 6개월간 신석기와 상·주대 고고학 전공지식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그리고 발굴·조사에 필요한 실무를 배우면서 발굴 작업을 완수해야 했는데, 이 외에도 빈농과 중하농으로부터 가정사, 향촌사, 민병 병영의 성장과 투쟁의 역사에 대하여 청해 듣고, 또 수문(水文)·지질·지진·문물 부문 기층간부를 초청하여 그들의 실전경험도 배워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학은 불가능한 것이었다.[35]

역공역농 단기 훈련반은 개문판학 과정보다 더 짧게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역공역농 단기 훈련반이 지향하는 "많이, 빨리, 잘, 절약하는(多快好省)" 고고 발굴·조사는 정확히 대약진운동 시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베이징대학 역사학과가 1975년 상반기에 후베이성(湖北省) 장링현(江陵縣)에서 운영한 고고 단기 훈련반은 7개 지역에서 모인 문물 부문 기층간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공작자(工作者)반과 현지에서 선발된 빈농·중하농 자제를 대상으로 한 역공역농반으로 나뉘었다.[36] 각 반은 3개월간 운영되며 50명에 가까운 수료생을 배출한 점 외에도 오직 한 명의 교사만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같았다. 고고학 전공지식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나 동원에 관한 업무, 강의안 집필, 수업, 발굴 현장에서의 지도 등의 작업을 모두 공농병 수강생

34 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76, 「文化大革命使考古專業獲得了新生」, 『考古』 2期, 73쪽; 「考古專業開門辦學取得可喜成績」,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3期, 1976, 95~96쪽 참고.

35 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七三級工農兵學員, 1976, 「開門辦學就是好」, 『考古』 2期, 76~77쪽.

36 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76, 앞의 글, 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이 책임졌으므로 사실상 교사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교사의 지도를 받긴 했지만, 공농병 수강생들은 대학이 운영하는 훈련반 수업을 듣고(上大學), 교학을 관리하고(管大學), 비림비공과 같은 정치비판을 통해 수강생의 사상을 개조하는(改大學) 공작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37]

개조되는 것은 사상만이 아니었다. 단기 훈련반 수강생들에 의해 개조된 고고 발굴·조사 대오(隊伍)가 장링현 지난성(紀南城) 안팎에 있는 수백여 기(基)의 유구(遺構)와 고분(古墳)의 발굴 작업에 동원되자 당국은 문물 고고 공작이 소수 지식분자의 손에서 "해방"되어 군중의 손에 맡겨졌다고 선전하였다.[38] 이 점에서 역공역농 고고 단기 훈련반은 문화대혁명 이전의 여타 고고 훈련반과 차별화된다. 후자가 교실에서 고고 전공지식을 배우는 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면, 전자는 발굴 현장에서 이론 지식의 학습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발굴 임무까지도 완성해야 하였다.[39] 특히 지난성 발굴에 투입된 수강생들은 단기 훈련반 과정을 수료한 이후 다시 생산대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한 첫 '맨발의 고고학자'들이었기에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맨발의 고고학자들은 평상시에 농촌 정치사상 공작의 골간인 동시에 아마추어 문물 보호·관리 선전 공작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대한 발굴 임무가 발생한 비상시에는 다시 모여서 고고 발굴·조사에 종사하는, 즉 마오쩌둥의 교육방침대로 교육·생산·노동을 긴밀히 결합한 가히 혁명적인 존재였다.[40]

1976년 9월에 마오쩌둥이 타계하자 문화대혁명을 주도해온 장칭(江青), 왕

37 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76, 위의 글, 75쪽.

38 紀南城第一屆亦工亦農考古短訓班學員劉清文, 張萬高, 1976, 「堅持亦工亦農方向, 培養一支新型的文物考古隊伍」, 『文物』 2期, 3~4쪽.

39 紀南城考古發掘領導小組·北京大學曆史系考古專業, 1976, 「舉辦亦工亦農考古短訓班, 用革命成果回擊右傾翻案風」, 『文物』 2期, 1~2쪽.

40 洪宣, 1976, 「文化大革命以來工農兵給文物考古戰線帶來了新氣象」, 『文物』 6期, 66쪽; 紀南城考古發掘領導小組·北京大學曆史系考古專業, 1976, 위의 글, 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원(王洪文), 장춘차오(張春橋), 야오원위안(姚文元) 등 4인방(四人幇)이 정계에서 축출되면서 공산당 지도부는 그동안 지체되어왔던 전국 각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대적인 경제 건설과 함께 개발로 인하여 파괴될 수 있는 유적과 정보를 구제하기 위한 발굴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고 발굴·조사 현장에서 군중노선은 그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며 견지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1977년 이후에도 일군의 맨발의 고고학자들이 양성되어 발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대약진운동 이후 군중노선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지만 1974년부터 개문판학 고고 과정과 역공역농 고고 단기 훈련반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던 배경에도 사실상 발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존한다. 1972년 5월,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長沙市)의 기초건설 현장에서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 1호가 발견되면서 2만여 매(枚)의 목간(簡)이 출토되었고, 1973년에 마왕퇴에서 2호 묘와 3호 묘가 잇달아 발굴되면서 대량의 비단 책이 출토되었다. 1974년에는 산시성(陝西省) 린퉁현(臨潼縣) 시양촌(西楊村)에서 병마용이 발견되면서 1976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발굴 작업을 통해 무수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1975년 후베이성 장링현에서 춘추전국 시기 촉(蜀)의 도읍이 발견되면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 작업에는 베이징대학, 샤먼(廈門)대학, 쓰촨(四川)대학, 난징(南京)대학, 지린(吉林)대학 등의 고고 전공 교사와 학생들이 투입되었다.[41] 이러한 발굴·조사 작업에 고고학 교육을 받은 군중의 참여는 절실한 것이었기에, 고고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체계적인 학습이 결여된 개문판학 고고 과정의 수강생과 역공역농 단기 훈련반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마치기도 전에 발굴 작업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고고학은 인문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분석, 그리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종합학문이다. 무엇보다 고고 발굴·조사 작업은 단순히 유물이나 유구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자료가 놓여 있던 정황을 온

41 文物編輯委員會 編, 1979,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410~4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히 파악하고 알고 싶은 사실에 따라 발굴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과 보관된 유물을 다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굴 당시 유물과 유구가 놓인 층위와 동반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발굴해서는 안 되거나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굴 작업을 역량이 부족한 군중이 예정된 개발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끝내려는 시도가 문화대혁명 기간에 계속되었다. 요컨대, 이 기간의 발굴은 정확한 유물과 유구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출토 상황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고, 더 엄밀히 말하자면 보호보다는 파괴에 가까웠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맨발의 고고학자로 불린 이들은 개발로 인하여 파괴될 처지에 놓인 유적과 정보를 당장 '구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지 몰라도, 전문가로 성장하여 후학을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5년에 덩샤오핑(鄧少平)이 우려한 대로 고고학계의 세대 공백이라는 교육적 단절은 이후 현실이 되었다.[42]

Ⅲ. 정치제일(政治掛帥): 발굴자료 해석의 정치화

1958년 1월, 난닝(南寧)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기술혁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정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와 기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상정치가 통수(統帥)이며, 정치는 업무수행을 위한 보증수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43] 여기서 "사상정치가 통수"라는 말은 정치가 기술이나 경제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이자 본질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다.

---

42 程中原, 2000,「1975年整頓中的三個著名文件」,『回首"文革"』下, 中共黨史出版社, 1201쪽.

4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9,『毛澤東文集』, 人民出版社, 352쪽. 사상정치는 정치이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사회 주체의 정치적 실천을 가리킨다. 사상과 정치, 또는 정치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劉傳春, 2003,「政治思想與思想政治辨析」,『學校黨建與思想教育』4, 湖北長江報刊傳媒有限公司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8년 3월 27일, 『인민일보』는 마오쩌둥의 발언에 기초하여 정치제일이라는 구호를 처음 사용하였다.[44] 이후 대약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도 이 구호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정치제일은 계급 투쟁과 표리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정치적 좌경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른바 '좌의 착오'라고 불리는 이러한 인식은 점차 심해졌다.[45]

정치제일에 대한 강조는 공산당의 정치적 합법성 재구축 및 정치 노선 관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졌다. 1960년 9월 12일, 린뱌오는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擴大會議)에서 '네 가지 제일주의(四個第一)'를 제기하며 정치제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네 가지 제일주의란, 사람과 무기 사이에서 인적 요소 제일(人的因素第一), 정치공작과 기타 공작 사이에서 정치공작제일(政治工作第一), 사상공작과 사무적 업무 사이에서 사상공작제일(思想工作第一), 책 속의 사상과 살아 있는 사상 사이에서 산 사상 제일(活的思想第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46] 정치적·사상적 각성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린뱌오의 주장은 마오쩌둥의 찬사를 받았다. 1963년, 마오쩌둥은 "해방군의 정치·사상공작과 군사공작이 린뱌오 동지가 제기한 '네 가지 제일주의'와 '삼팔작풍(三八作風)'을 통해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어 훨씬 구체적이고 이론적으로 변하였다"고 평가하였다.[47] 1965년 11월 27일, 린뱌오는 『인민일보』에 '정치를 부각하라(突出政治)'라는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5개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오 주석의 저작을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배우고 적용한다. 특히 '적용'에 중점을 두고 마오 주석의 저서를 전군 모든 공작의 '최고지침'으로 삼는다.

2. 네 가지 제일주의를 고수하고, '산 사상'에 매진한다.

---

44 「政治掛帥是勤儉辦企業的保保證」, 『人民日報』, 1958.3.27, 1쪽.

45 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11, 『中國共產黨曆史』 第二卷, 中共黨史出版社, 743쪽.

46 林彪, 1968, 「關於加強軍隊政治思想工作的決議」, 『林彪文選』 上(內部資料), 人民出版社, 298쪽.

47 邱會作, 2011, 『邱會作回憶錄』, 香港新世紀出版社, 2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지도 간부는 반드시 기층(基層) 속으로 들어간다.

4. '진정으로 우수한' 지휘관과 전투원을 과감히 중용하여 핵심적 직위에 배치한다.

5. 탄탄한 기술 및 근접전·야간전 전술을 꾸준히 연습한다.[48]

이상의 원칙은 군사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대혁명 이후 전국의 모든 부문에 적용되었다. 정치제일 원칙 아래에서 역사는 철저히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하여 재해석되었고, 역사학을 "무산계급 정치, 심지어 공산당의 총노선(總路線) 등 현실 투쟁의 필요에 부응"하거나 "현실 정치를 위해 복무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49] 고고 발굴·조사 결과의 재해석이나 고고학의 사회적 역할 재설정에도 정치제일 기조에 따라 형성된 담론이 문화대혁명 기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 3월, 문화부(文化部)는 전국의 박물관과 문물 관리위원회 및 문물공작대 책임자 등 124명을 소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문물·박물관 사업이 거둔 성적을 총결산하고, 1958년 이후 누적된 대약진운동의 경험에 기초하여 박물관의 전시내용과 서사를 구성할 대원칙, 즉 "정치제일이어야지, 실물제일(實物掛帥)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50] 이로써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전시장이 아니라, 계급 투쟁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는 메시지를 시각화하고, 무산계급 중심의 서사를 구축하며, 사회주의 이념을 대중에게 교화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전시의 대원칙은 비단 박물관뿐 아니라 고고 발굴 현장에도 적용되었다. 대약진운동 이후 고고 발굴·조사가 군중노선을 걸으면

48 「林彪同志提出繼續突出政治的五項原則(『人民日報』, 1965.11.27.)」, 『論突出政治』, 上海人民出版社, 1966, 1~2쪽.

49 劉大年, 「中國曆史科學現狀」, 『光明日報』, 1953.7.22; 張玉樓, 1963, 「馬克思主義階級分析方法和曆史研究」, 『曆史研究』 3期; 戚本禹, 1965, 「為革命而研究曆史」, 『曆史研究』 6期 참고.

50 「文化部召開全國文物, 博物館工作會議」, 『考古』 4期, 1960, 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현장전시'나 '발굴하면서 전시하기(邊發掘, 邊展覽)'와 같은 선전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51] 당시 문화부 문물국(文物局) 국장 왕예치우(王冶秋)가 중앙의 문물 행정책임자부터 전달받은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중국역사박물관은 중국 역사를 전시하는 곳이지 잡화점이 아니며 골동품 진열장도 아니다. 전시의 문제는 정치적인가, 학술적인가, 기술적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먼저 정치 문제에 매진해야 한다. 계급관점·민족 문제·국제 문제 등은 모두 정치적 문제이다.
>
> 중국 역사의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 구리·쇠·돌만 늘어놓아서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물'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
> 계급관점과 역사관점을 결합해야 한다. 예컨대 노예제는 좋지 않지만, 원시사회보다는 한 단계 진보한 것이다. … 관람객이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과학·문화가 계속 발전함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52]

지침에 따르면, 유물이나 출토품 전시는 현실주의에 충실하되 단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계급적 본질을 드러내야 하며, '홍선(紅線)'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하였다. 오류 노선에 대한 전시 역시 그 자체에 관한 전면적 소개보다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에 관한 정치적 효과 중심의 재현이 요구되었다. 무엇보다 박물관이나 고고 발굴 현장이나 노동자·농민·사병과 같은 광범위한 대중이 전시 대상이므로 전시물을 "적고 정밀하게" 엄선하여 쉽고 명료하게 전시할 것이 요

51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58, 「政治掛帥, 厚今薄古, 文物工作大躍進」, 『考古』 8期, 10~14쪽; 孫守道, 1958, 「我們考古工作中的厚今薄古措施」, 『考古』 11期, 63~67쪽; 華縣隊通訊組, 1958, 「政治掛帥, 依靠群眾, 多快好省地完成考古工作」, 『考古』 12期, 41~43쪽.

52 王冶秋, 1997, 『王冶秋文博文集』, 文物出版社, 88~9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되었다.[53]

고고학은 '이념적 실천성'이 특별히 강한 학문이다. 역사학이 이념적 서사를 구성하는 학문이라면, 고고학은 '실물의 이념화'를 통해 이념을 눈앞에 구현해 내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정치제일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고고학은 고대 중국이 노예제 사회였음을 밝힐 수 있는 실증적 토대, 예컨대 청동기 유물이나 순장묘 유적 등과 같은 물질 자료를 제공해야 했으며, 이는 곧 정치제일의 명확한 실천이었다.[54] 은허에서 출토된 제사용 청동기는 계급 착취의 잔혹한 증거로 해석되었고, 고고학자들은 이를 '계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였다.[55] 정치제일과 실물제일의 논쟁은 고고학적 해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정치 권력인가, 과학적 고고학인가를 두고 벌어진 담론적 권력 투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고고학은 단순히 유물과 유적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넘어서서 이념을 현장에서 '생산'하는 행위로도 이해될 수 있다. 고고학은 현실의 정치를 위해 복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사학보다 더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문화부는 1962년에 「건설 공사와 연관되지 않은 고고학 발굴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建設工程以外的考古發掘工作暫停問題的通知)」를 통해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발굴을 일시 중단하고 기존 발굴자료 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56] 1964년에는 「고대 유적, 고분 조사 및 발굴 임시 관리방법(古代遺址, 古墓調查與發掘暫行管理辦法)」을 통해 발굴의 승인 체계와 기술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고고학계가 발굴보고서 출판 등의 성과 정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잠시 전환한 것은 사실이나, 주목할 점은 이

53 王冶秋, 1997, 위의 책, 88~98쪽.

54 山西省考古研究所, 1976, 「山西夏縣東下冯商代墓地的發掘」, 『考古』 5, 289쪽.

55 高去尋, 1963, 「從安陽青銅器看商代的奴隸制性質」, 『歷史研究』 6, 18쪽.

56 文化部, 1962, 「關於建設工程以外的考古發掘工作暫停問題的通知」, 『考古』 7, 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기 고고학의 실천이 단지 성과 정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문명의 기원은 어디인가?"라든지 "한족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와 같은 질문은 고고학이 정치적 과제 수행의 핵심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은 '기억할 것'과 '망각할 것'을 구분하는 권력의 도구였으며, 문명 경계와 민족 정체성의 실물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57]

한편, 1971년의 린뱌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문화대혁명 후반기에 접어들어 실용주의가 부분적으로 복귀했고, 일부 고고 발굴 현장에서는 실물제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였다.[58] 발굴 성과를 통해 문물 보호가 강조되거나 고고학자의 현장 전문성이 다시 중시되면서 과학적 고고학이 재개되는 흐름이 일부 나타난 것이다. 당시 국가문물사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된 왕예치우도 1974년에 「문물 보호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文物保護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정치제일과 과학적 고고학 사이의 긴장을 일정 부분 조정하고자 하였다. 그는 서두에 "비림비공 운동 중 문물 작업자들이 공·농·병들과 함께 문물 보호 단위, 고고 발굴 현장, 그리고 역사 문물을 활용하여 공자와 맹자의 사상 및 린뱌오의 반혁명 수정주의 노선을 폭로하고 비판하였다"고 밝히며 정치제일의 입장을 드러내는 듯했으나, 결국 1961년에 국무원이 발표한 「문물 보호 관리 임시 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의 과학적 원칙, 즉 문물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유적의 철거나 개조는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59]

---

57 文物局, 1964, 「古代遺址, 古墓調查與發掘暫行管理辦法」, 『文物參考資料』 12, 2~9쪽.

58 王冶秋, 1997, 「要把文物考古工作和生產建設緊密結合起來(1973年5月8日)」, 『王冶秋文博文集』, 文物出版社, 83~85쪽.

59 王冶秋, 1997, 「關於加強文物保護工作的通知(1974年8月8日)」, 『王冶秋文博文集』, 文物出版社, 211~213쪽. 湖南省博物館編, 1977, 『文物工作手冊』, 湖南省博物館, 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실물제일의 과학적 고고학은 어디까지나 생산과 실용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되었으며, 이념적 해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1969년에 발견된 한(漢)의 뇌대(雷台)묘나 1970년에 발견된 노(魯)의 황왕묘 등과 같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의 주체는 모두 발굴을 주도한 군중으로 기록되고 선전에 이용되었다.[60] 또 1974년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고고전공자들이 후베이성 황피현(黃陂縣) 판룽성(盤龍城)의 발굴에 참여하여 실습하던 중 장강 유역의 상(商)대 노예 순장묘를 발견한 성과는 비림비공 운동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당시 발굴 현장은 해방군, 노동자, 빈농 및 하층 중농 등 1,000명에 가까운 군중이 참관하는 정치 동원의 무대로 변질되었으며, 개문판학과 역공역농 고고 단기 훈련반은 다시금 계급 투쟁과 이념교육의 시연장이 되었다.[61] 유물이 "노예 착취의 증거"인지, "생산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성과"인지에 대한 해석은 곧 권력의 시선을 반영하는 행위였다. 이를 통해 "정치제일 기조 아래" 강하게 정치화될 수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고고학은 정치제일과 실물제일 사이에서 동요하며 이념적 통제와 실용적 회복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이는 고고발굴·조사 현장이 단순한 학문적 실증의 장이 아니라, 정치와 과학의 긴장이 충돌하는 복합적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제일과 실물제일 논쟁은 고고학이 정치와 과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해야 했다.

Ⅳ. 맺음말

문화대혁명 시기의 고고학은 단순한 학문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권력이 과거를

60 國家文物局 編, 1999, 『新中國文物工作五十年』, 文物出版社, 162~165쪽.

61 北京大學曆史系考古專業, 1976, 앞의 글, 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직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 고고학은 두 가지 중대한 변형을 겪었다. 하나는 지식 생산 주체의 전환이다. 고고학의 전문성이 군중노선으로 대체되면서, 교육과 훈련의 단절은 일시적인 기능 저하를 넘어 세대 공백이라는 구조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고학자들이 하방되고, 단기 훈련반을 거친 맨발의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발굴 현장은 기술보다 이념의 전파와 정치적 동원이 우선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정규 교육과 실증·분석의 연속성은 붕괴되었고, 대중의 동원이 문물 보호와 훼손을 동시에 초래하는 이중성을 띠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해석 권위의 이동이다. 물질 자료는 고고학자의 학문적 해석이 아닌, 국가 이념에 따라 정치적으로 재해석되었고, 이는 고고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축시켰다. 예컨대, 은허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계급 착취의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박물관 전시는 계급 투쟁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전파하는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고고학은 물질을 통해 국가 서사를 실증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그 해석의 기준은 과학이 아닌 정치이념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고학의 사회적 성격, 즉 "누가 과거를 말할 권리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 학문, 대중 사이의 역학을 드러낸다. 문화대혁명은 고고학을 과학적 실증과 기술의 장에서, 이념 투쟁과 권력 정당화의 무대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고고학은 '과거의 사실'이 아닌 '현재의 정치'에 봉사하는 기억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 결과, 고고학은 정치와 실용, 학문과 선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재편되었으며, 정치우선과 실물우선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상실해갔다.

오늘날 중국 고고학은 과학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의 경험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억이다. 당대의 발굴기록 복원, 유물 재해석, 이데올로기 흔적의 분석은 단지 복구 작업을 넘어, 기억과 권력의 구조를 재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20세기 중반 고고학이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여전히 현대 연구 방법론과 전시 기획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컨대 "고고학적 진실은 누구의 해석에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은, 국가의 기억과 대중의 권리 사이에서 과거를 소유할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환원된다. 문화대혁명 시기 고고학은 이 물음을 실험한 역사적 현장이었으며, 고고학은 그 본질상 정치적이면서도 가장 실증적인, 아이러니한 학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례로 남는다. 이는 고고학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재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적인 실천임을 입증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考古』.
『光明日報』.
『文物』.
『文物參考資料』.
『人民日報』.
『歷史研究』.
『中國青年報』.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紅旗』.

國務院科教組·財政部, 1998, 『中華人民共和國重要教育文獻(1949－1975)』, 河南出版社.
文物編輯委員會 編, 1979,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謝晨生 口述, 姚遠 選寫, 2018, 『謝辰生口述: 新中國文物事業重大決策紀事』, 生活·讀書·知識三聯書店.
王冶秋, 1997, 『王冶秋文博文集』, 文物出版社.
林彪, 1966, 『論突出政治』, 上海人民出版社.
周恩來, 1984, 『周恩來選集』, 人民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 編, 2011, 『中國共產黨曆史』 第二卷, 中共黨史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5,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十一冊』, 中央文獻出版社.
_____, 1999, 『毛澤東文集』 第7卷, 人民出版社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 黨史教研室 編, 1998, 『中共黨史參考資料』 第22冊.
陳金華, 2015, 『民主別論』, 復旦大學出版社.
何东昌 主编, 1998, 『中華人民共和國重要教育文獻(1949~1975)』, 海南出版社.
湖南省博物館 編, 1997, 『文物工作手冊』, 湖南省博物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행본

디쾨터, 프랑크 저, 고기탁 역, 2017, 『문화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1976』, 열린책들.

瞿葆奎, 1992, 『社會科學爭鳴大系(1949-1989) 教育學卷』, 上海人民出版社.

邱會作, 2011, 『邱會作回憶錄』, 香港新世紀出版社.

國家文物局 編, 1999, 『新中國文物工作五十年』, 文物出版社.

譚宗級, 2000, 『回首'文革'(下)』, 中共黨史出版社.

謝晨生 口述, 李曉東 · 彭蕾 整理, 2016, 『新中國文物保護史記憶』, 文物出版社.

孫秀麗, 2005, 「考古的"黃埔四期"—記1950年代考古工作人員訓練班」, 『中國文化遺產』 3.

楊秀峰, 1987, 『楊秀峰教育文集』, 北京師範大學出版社.

楊獻珍, 2002, 『中共中央黨校名師 第一卷』, 中共中央黨校出版社.

劉傳春, 2003, 「政治思想與思想政治辨析」, 『學校黨建與思想教育』 4.

Ho, Denise Y., 2018, *Curating Revolution: Politics on Display in Mao's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Farquhar, Roderick & Schoenhals, Michael, 2006, *Mao's Last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

구소영, 2018, 「문화대혁명 시기 광서 대학살의 실태」, 『인문연구』 3.

김준기, 2021, 「문화대혁명 시기 기층 의료현장의 국가-사회관계」, 『동양사학연구』 156.

김정열, 2024,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 『동북아역사논총』 83.

김한결, 2020, 「문혁 초기 홍위병 운동과 중앙-지방 정치역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석, 2024, 「'10년이나' 또는 '10년밖에'」, 『중국근현대사연구』 102.

박상수, 2015,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다섯 가지 논쟁적 태제 述論」, 『사총』 85.

백승욱, 2016, 「문화대혁명 50주년, 지속되는 쟁점들」, 『지식의 지평』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설재희, 2020,「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물 보호: 1970년대 전시, 담론, 대중 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윤휘탁, 2013,「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反전통과 전통」,『역사학보』218.
이유표, 2025,「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고고학의 재건과 굴절(1949~1978)」,『동북아역사논총』87.
이종식, 2021,「20세기 중국 과학사·기술사·의학사 독법」,『아세아연구』64(2).

高去尋, 1963,「從安陽青銅器看商代的奴隸制性質」,『歷史研究』1.
金春明, 1997,「"破四舊,立四新"的歷史反思」,『中共中央黨校學報』1.
范佳領, 2016,「新中國文物古跡保護史(1949－2005)」,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宋學勤·何成雲, 2020,「身份與職業: 城鄉關係視域中的"亦工亦農"(1957－1977)」,『中共黨史研究』.
吳琪瑤, 2024,「中國共產黨對文物保護的認識與政策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劉建美, 2008,「1949－1966年中國文物保護政策的曆史考察」,『當代中國史研究』.
_____, 2013,「20世紀70年代前後中國文物保護工作述略」,『當代中國史研究』20(4).
周揚, 1980,「關於高等學校文科教材編選的意見」,『教育研究』3.
彭澤平, 2005,「知識厄運與制度悲劇: 文革時期我國基礎教育課程革命的歷史省察」,『西北師大學報』4.
何立波, 2006,「破"四舊"風潮的前前後後」,『黨史文苑』3.

姚遠, 2018,「中國文化大革命期における文化財保護をめぐる一考察」,『アジア太平洋討究』.

Ho, Dahpon David, 2006, "To Protect and Preserve: Resisting the Destroy the Four Olds Campaign", in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Shelach, Gideon, 2014, "Archaeology and the Study of Chinese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Asian Studies 7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문화대혁명과 중국의 고고학

– 고고(考古)의 군중화와 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홍영미

이 글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고고학을 국가 권력의 지배 아래 과거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도구로서 고찰한다. 이 시기 고고학은 두 가지 중대한 변형을 겪었다. 첫째, 전문성의 붕괴와 지식 생산 주체의 전환이다. '군중노선'이 강조되면서 전문가는 소외되고, 단기 훈련을 거친 '맨발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의 주체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발굴 현장은 기술보다 이념 전파와 정치적 동원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문물 보호와 훼손이 병존하는 이중적 양상을 보였다. 둘째, 해석 권위의 이동이다. 출토 유물은 학문적 분석이 아닌 국가 이념의 틀에서 재해석되었고, 전시는 계급투쟁 서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정치 기획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과거를 말할 권리를 갖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학문·대중 사이의 긴장과 역학을 드러낸다. 문화대혁명은 고고학을 과학적 실증과 기술의 장에서, 이념 투쟁과 권력 정당화의 무대로 전환시켰고, 고고학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력 구조를 반영·재구성하는 고도로 정치적인 실천임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문화대혁명, 고고학, 군중노선, 정치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Cultural Revolution and Chinese Archaeology: A Critical Study of the Mass Mobil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Archaeology

Hong Youngmi

This paper examines archaeolog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s an instrument for organizing and controlling the past under the domination of state power. In this period, archaeology underwent two significant transformations. First, there was a collapse of expertise and a shift in the subjects of knowledge production. As the “mass line” was emphasized, experts were marginalized, and “barefoot archaeologists” who had undergone short-term training emerged as the main agents of excavation. Consequently, excavation sites were transformed from domains of technical work into venues for ideological dissemination and political mobilization, exhibiting a dual character in which the preservation and destruction of cultural relics coexisted. Second, there was a shift in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Excavated artifacts were reinterpreted not throug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cholarly analysis but within the framework of state ideology, and exhibitions were converted into political projects that visually enacted the narrative of class struggle. These changes reveal the dynamics and tensions among political power, scholarship, and the masses, centered on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o has the right to speak for the past." The Cultural Revolution shifted archaeology from a domain of scientific empiricism and technology to a stage for ideological struggle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demonstrating that archaeology, by nature, is a highly political practice that preserves the legacy of the past while simultaneously reflecting and restructuring the power structures of the present. Efforts within the Chinese archaeological community to rectify the research gaps and distorted interpretatio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continue to this day.

Keywords: Cultural Revolution, Archaeology, Mass line, Politiciz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11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동향

–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손장훈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항미원조운동’과 정권 공고화
III. ‘항미원조’를 향한 중국 사회의 자발성 연구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신중국에게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위기이자 기회였다. 한국전쟁 참전은 항일전쟁과 내전 직후의 국가에게는 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위기와 기회의 공존은 정치, 군사, 외교, 사회 다방면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이하 중공(中共)으로 약칭]은 한국전쟁이라는 첫 대외적 위기를 완전하지 않은-정전-형태로나마 극복했고 이는 신중국의 안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지금까지 중국 학계의 '항미원조' 연구는 크게 ① 1950년의 참전 결정, ② 중국-북한 관계, ② 정전회담, ③ 인민지원군의 군사활동, ④ 인물(마오쩌둥, 저우언라이, 펑더화이), ⑤ 항미원조운동, ⑥ 세균전 ⑦ 전쟁포로로 범주화해볼 수 있다. 필자는 이를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항미원조'를 구성하는 '전쟁(抗美援朝戰爭)'과 '운동(抗美援朝運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보았다. '항미원조전쟁'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후 그 영토 외부에서 전개된 외교와 군사 방면의 일을 지칭하는데 상술한 연구 분야 중 ⑤ 항미원조운동을 제외한 ①~④가

---

* 투고: 2024년 12월 6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18).

1 특히 근 10년간 '항미원조' 주제와 관련한 학술연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항미원조'를 다룬 논문은 1,204편으로 이전 10년(1999~2009)의 670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石善濤, 2020, 「近十年來抗美援朝史研究述評」, 『當代中國史研究』 2020-5, 37쪽. 이러한 근래의 증가 추세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구도가 '항미원조'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미원조전쟁' 연구사 정리는 사실상 중국의 '항미원조' 연구 경향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항미원조운동' 연구임에도 머리말에 국한하여 '항미원조전쟁' 연구 동향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관한 연구는 건국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의 국제전에 참전한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2]은 한국전쟁 참전의 주요 원인을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으로 정의함으로써 당시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의 결정을 옹호한다. 동시에 그들의 태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3]

전시 상황의 중국-북한 동맹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전시 프로파간다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중국과 북한 양국의 우의를 규명한다.[4] 이와 함께 남하작전, 철도 관리권, 정전담판 등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동맹인 중국-북한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을 적시하는 션즈화(沈志華)의 연구,[5] 그리고 시간적 외연을 한국전쟁 이후까지 넓혀 북한에 진주했던 중국군의 철군 문제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에 주목한 티엔우쑝(田武雄)의 저작[6]도 존재한다.

---

2 汪暉, 2013,「二十世紀中國歷史視野下的抗美援朝戰爭」,『文化縱橫』2013-6; 齊德學, 2007,「抗美援朝戰爭研究述評」,『當代中國史研究』2007-6; 張北根, 2013,「抗美援朝的決策問題研究」,『北京科技大學學報』2013-6; 吳宏亮, 2013,「'抗美援朝保家衛國'－毛澤東出兵北韓艱難決策的背後」,『史學月刊』2013-10.

3 沈志華, 2019,「面臨危機的抉擇: 關於韓戰之中國決策述評(上篇)」,『歷史教學問題』2019-4; 李捷, 2010,「對抗美援朝決策過程階段特性的幾點分析」,『中共黨史研究』2010-12.

4 馬釗, 2016,「政治, 宣傳與文藝: 冷戰時期中朝同盟關係的建構」,『文化研究』2016-1.

5 沈志華, 2012,「試論朝鮮戰爭期間的中朝同盟關係」,『歷史教學問題』2012-1.

6 田武雄, 2015,「中國人民志願軍撤軍回國的若幹史實考辨」,『軍事歷史研究』, 2015-2; 2014,「同聲異氣: 中國1958年從北韓全部撤軍方案的形成」,『聊城大學學報』2014-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전회담은 중국 측 '항미원조전쟁' 연구에서 주요 분야이다. 크게 구상, 목표 과정, 현안 등 정전회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정전회담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정전회담의 전개 과정을 다루거나[7]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그리고 리커농(李克農) 같은 주요 지도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했다.[8] 후자의 경우 정전회담을 추동한 요소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신중국의 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거나[9] 소련과 미국의 정전회담에 미친 영향력을 조망했다.[10]

'항미원조전쟁' 중 인민지원군 활동을 규명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사(軍事史)인데 중국 측 전략의 구체상을 밝히는 데 집중하며[11] 특히 미국 측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전투 결과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려 시도한다.[12] '항미원조전쟁'을 발동시킨 주요 인물인 마오쩌둥, 펑더화이, 저우언라이에 대한 연구[13]는 그들이 '항미원조전쟁' 과정에서 구사했던 전략에 초점을

---

7 陳昊, 2010a,「抗美援朝戰爭中的停戰談判(上)」,『黨史文苑』2010-7; 2010b,「抗美援朝戰爭中的停戰談判(下)」,『黨史文苑』2010-8.

8 柴成文, 2000,「毛澤東､周恩來領導朝鮮停戰談判的決策軌跡」,『當代中國史研究』2000-6; 趙森·夏明亮, 1999,「李克農與朝鮮停戰談判」,『黨史博採』1999-2.

9 程珂, 2010,「1951年中國抗美援朝走向停戰談判的國內財經因素考察」,『攀枝花學院學報』2010-1.

10 鄧峰, 2010,「試論朝鮮戰爭停戰談判的緣起-兼談結盟政治對中國外交的影響」,『社會科學戰線』2010-10.

11 王德義, 2010,「抗美援朝戰爭時期志願軍士氣激勵問題研究」,『軍事史』2010-5; 齊德學, 2017,「抗美援朝戰爭戰役指引的基本經驗」,『軍事史』2017-1; 週皆, 2013,「抗美援朝戰爭中志願軍防空作戰的經驗與啟示」,『黨史文苑』2013-24.

12 李維賽, 2011,「抗美援朝戰爭第二次戰役中美軍第2師遭受殲滅打擊狀況分析」,『軍事歷史』, 2011-3.

13 齊德學, 2013,「毛澤東在抗美援朝戰爭中的軍事指導藝術」,『當代中國史研究』2013-6; 仲華, 2011,「論周恩來在抗美援朝出兵決策中的歷史作用」,『軍事史研究』2011-2; 唐蕊, 2013,「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的後勤支援」,『毛澤東思想研究』201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맞추고 있다. 이 점에서 인민지원군 활동에 대한 연구와 일정하게 중첩되지만 같은 내용을 국가 시책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항미원조전쟁'의 연구 주제로는 '세균전'과 '전쟁포로'도 있다. '세균전' 연구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세균전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무기와 이를 전장에 투입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14]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연구이기에 학술적 가치가 높지 않지만 최근 중국 국가 안전부가 "1951년 적(미국)은 조선 전장과 우리 중국 동북 경내(국경 안)에서 세균전을 진행했다"는 설명문을 공식 계정에 기재하는 등[15] 그 연구 결과는 중국 당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쟁포로'에 관한 연구로는 중국과 미국 양측의 전시 포로 정책을 다룬 연구들[16]과 정전회담 중 포로 문제를 둘러싼 중국-미국 간 협상을 다룬 연구들[17]이 있다. 전자의 경우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이 보여준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데 비해 후자는 자발적 송환(自愿遣反)을 중심으로 회담 중 포로 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소 및 양측의 전략까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술상의 중립성이나 완성

---

14 張華, 2013,「美國在朝鮮戰爭中實施細菌戰的證據」,『武陵學刊』2013-1; 孟濤, 2013,「關於朝鮮戰爭中美軍實施細菌戰的再考察」,『當代中國史研究』2013-5; 朱傑, 2017「依據與證據: 朝鮮戰爭中細菌戰之法學分析」,『西安政治學院學報』2017-3.

15 「北緯38°線上的隱密較量」,『中國國家安全部』,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422882

16 鮑明榮, 2001,「中國人民志願軍在抗美援朝戰爭中的戰俘政策」,『軍事史』2001-6; 吳靜媛, 2016,「抗美援朝戰爭中志願軍對待戰俘情況研究」,『蘭台世界』2016-12; 張旺, 2014,『我軍俘虜工作研究』, 國防科學技術大學 博士學位論文; 付可塵, 2012,「論毛澤東處理俘虜的思想」,『甘肅社會科學』2012-5; 曾莉·張翼, 2010,「從'美軍虐待戰俘'看服從心理」,『學理論』2010-4.

17 任方, 2011,「論韓戰停戰談判中的戰俘'自願遣返'原則」,『遼寧大學學報』2011-2; 鄧峰, 2014,「美國在朝鮮停戰談判中的戰俘遣返政策探究」,『上海交通大學學報』2014-1; 徐友珍, 2010,「英國與北韓停戰談判中的戰俘遣返問題」,『世界史』201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는 후자 쪽이 높다.

중국의 '항미원조' 연구에서 그 중점은 상술한 항미원조 '전쟁'이다. 이는 1994년 구소련 외교 문건의 해금과 함께 '항미원조' 연구가 고조되면서 그 초점이 자연스럽게 외교 그리고 군사로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도 영향을 미쳤다.

'항미원조전쟁' 연구가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정치,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일어난 중국의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을 주제로 삼았다면 '항미원조운동'은 당시 중국 '내부'의 동향을 규명해왔다. 이 연구 분야는 '항미원조전쟁'에 비해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료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운동의 중요성[18] 때문에 그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애국주의를 기조로 중국 관방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항미원조전쟁' 분야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항미

18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대중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Gordon Benett, 2009, "China's Mass Campaigns and Social Control", Andrew Kipnis et al eds.,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James Gao, 2001, "War Culture, Nationalism, and Political Campaigns, 1950-1953" in C. X. George Wei & Xiaoyuan Liu eds., *Chinese Nationalism in Perspective Historical and Recent Cases*, Santa Barbara: Greenwood Press; Richard Madsen, 1981, "Mass Mobilization in Mao's China" in *Problems of Communism* vol. 30; Maurice Meisner, 1999,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Los Angeles: The Free Press; Frederick C. Teiwes, 1987,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New Regime 1949-1957" in John K. Fairbank & Roderick MacFarquhar e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4, The People's Republic, Part 1: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黃兢, 2004, 「建國初期中國共產黨政治動員評析」,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2004-4; 李征, 2004, 「簡論"政治動員"」, 『河海大學學報』 2004-2; 王海光, 1995, 『旋轉的歷史: 社會運動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泉穀陽子, 2007, 『中國建國初期の政治と經濟: 大衆運動と社會主義體制』, 東京: 禦茶の水書房; 小島朋之, 1985, 『中國政治と大衆路線—大衆運動と毛澤東, 中央および地方の政治動態』, 東京: 慶應通信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조운동' 연구는 후자가 조망해줄 수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 당시 중국 사회다.

2020년까지의 중국 내 '항미원조' 연구를 망라한 스산타오(石善濤)[19]은 '항미원조운동' 연구 성과를 '연구 시야의 확장'으로 정리했지만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구들의 주제의식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사회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민이 국가 주도 아래 항미원조에 참여했다면 이를 당시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것처럼 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영도(領導)와 자발성(自發性)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항미원조운동'을 다룬 저작들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망해보고자 한다. 한국학계에서도 '항미원조운동'을 다룬 연구들[20]이 중국 측 '항미원조운동' 연구를 선행연구로서 검토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연구 성과를 종합적인 범주에서 고찰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의 시도를 통해 중국 학계의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시야의 확장 및 현대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 石善濤, 2020, 앞의 글.

20 임우경, 2009,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애국공약운동과 여성의 국민 되기」, 『中國現代文學』 48; 김창규, 2014, 「抗美援朝運動 시기 인민동원과 국가통합 이념으로써 '愛國'」, 『東洋史學研究』 129; 김태윤, 2017,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 『軍史』 10; 손동훈, 2022, 「上海市 裏弄의 '抗美援朝運動'과 선전 체계의 형성-婦女聯合會의 活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담, 2023, 「중국 항미원조 집단기억의 형성기, 마오쩌둥 시기 재고찰-백지운의 『항미원조』에 대한 보완적 논의-」, 『中國近現代史研究』 1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항미원조운동'과 정권 공고화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전역에서 정권 공고화(regime consolidation)가 추진되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중공은 반체제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을 포함한 사회 통제 및 개조 사업을 수행하였다.[21] 이후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 중공은 과도시기 총노선과 함께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하게 된다. 이 정치적 자신감은 시기적으로 볼 때 대중운동 '항미원조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용이하게 추측해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는 중공에게 대중운동을 통해 사회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해주었다. 이 침투는 허우쑹타오(侯松濤)[22]에 따르면 철저한 하향식(自上而下)이자 전체주의(全能政治) 형태로 전개되었다. 중공은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선전과 교육, 조직을 통해 인민 대중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했다.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 등의 지적[23]에 따르면 '항미원조운동'은 전체주의

---

21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기 (1949-1953)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가 권력의 강화를 통한 사회의 완전한 장악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공의 통치가 대약진 운동 이전까지 경제의 성장, 위생의 개선, 치안의 확립을 일정하게 견인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Jeremy Brown & Paul G. Pickowicz, 2007, "The Early Year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 Introduction" in Jeremy Brown & Paul G. Pickowicz eds., *Dilemmas of Victory: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2 侯松濤, 2006,「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中共中央黨校 博士學位論文; 2012,『全能政治: 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3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編, 1985,『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 北京: 解放軍出版社, 2쪽; 軍事科學院軍事曆史研究部, 2000,『抗美援朝戰爭史』1,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90~91쪽; 齊德學, 1999,『巨人的較量—抗美援朝高層決策和指導』,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59쪽;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輯委員會 編, 1985,『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 北京: 解放軍出版社, 22쪽; 徐焰, 2003,『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 北京: 解放軍出版社, 98쪽, 1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중국 사회는 전쟁이라는 현상이 가져온 전례 없는 사회적 압력-징병, 징세 등-앞에서 심리적으로 마비되었고 공포와 혼돈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또한 항일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미국에 대한 친밀감과 두려움, 숭배(崇美)의 경향성이 사회 전반에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동지애와 지원 의식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항미원조'에 대한 소극성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소극성을 중공중앙 선전부 혹은 지방 정부의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뿐 이를 정량화하여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논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주장이 '항미원조운동'의 핵심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국 초기 중국인들이 '항미원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대중동원을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납득시켜야 했다. 그래서 인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선전과 교육'을 실시했다. 티엔쥐쥐엔(田居儉)[24]에 의하면 이 선전과 교육은 이른바 삼시 교육(三視教育)[25]을 지침으로 시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침략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계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작업은 중공중앙이 지시한 선전과 교육의 내용을 중국 기층 사회까지 전달하는 통로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허우쑹타오의 연구[2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중공중앙의 '항미원조' 지시를 받아 역할을 분담하고 진척 상황을 살

101쪽; 宋連生, 2002, 『抗美援朝再回首』,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2쪽.

24 田居儉, 2000, 「抗美援朝運動與"三視"教育」, 『高校理論戰線』 2000-12, 19~24쪽.

25 미국에 친밀함 감정을 가지거나(親美), 숭배하거나(崇美), 두려워하는(恐美) 시야를 적대하고(仇視), 경멸하고(鄙視), 업신여기는(蔑視) 시야로 바꾸는 교육이다.

26 侯松濤, 2008, 「抗美援朝運動與一種運動動員模式的形成」, 『政治發展研究』 2008-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피는 일은 상부 기구에서 담당했다. 항미원조총회는 물론 성 위원회, 시위원회, 지구(地區) 위원회, 현 위원회, 구 위원회, 공장 당 위원회, 학교 및 기관 당 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했으며 공문서에서는 영도 중심(領導中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 관계에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이다. '항미원조운동'의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여론을 관측하여 보고하는 일은 하부 기구의 몫이었는데 항미원조 분회와 공회, 농민협회, 부녀연합, 종교단체, 중소우호협회를 포함한 각 인민단체 및 기업, 학교, 도서관, 방송국, 서점 등과 같은 기관 및 거민위원회 등 주민자치조직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는 앞서 말한 '국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다. 관련 연구[27]를 종합해보면 하부 기구, 이른바 국가와 사회의 교집합 영역은 흑판보(黑板報),[28] 영화, 연극, 전시회, 라디오와 같은 전형적인 수단 외에도 홍색여행, 공소대회(控訴大會)를 통해 '항미원조'를 선전하고 그 내용을 교육시켰다.[29]

'항미원조운동'을 통한 정권공고화는 다른 주요 대중운동과도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장윈(張雲)[30]이 논증한 바에 의하면 토지개혁운동, 진반운동은 '항미원조운동'과 함께 건국 후 3대 대중운동으로 불리며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를

27 劉一皋, 1999,「社會動員形式的歷史反視」,『策略與管理』1999-4; 劉肖委, 2022,「抗美援朝運動中的愛國主義教育-以北京市爲例」,『黨的文獻』2022-3; 王獻玲, 2013,「論抗美援朝運動中民眾的愛國情感教育-以河南省抗美援朝運動爲考察對象」,『鄭州大學學報』2013-4; 魏晉之, 2020,「抗美援朝戰爭時期的國內宣傳工作」,『西部學刊』, 2020-6; 褚鳳英, 2001,「抗美援朝運動中的思想政治工作初探」,『中共濟南市委黨校濟南市行政學院濟南市社會主義學院學報』2001-3; 謝玉進·辛未, 2022,「抗美援朝運動中思想政治教育的基本經驗及啟示」,『思想政治教育研究』2022-2; 王慧聰, 2022,「抗美援朝中黨的思想政治工作及其曆史貢獻」,『黨史博采(下)』2022-6.

28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로[街道]와 동네[社區, 胡同, 裏弄]에서는 당원과 주민자치조직 간부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책 및 시사 선전 수단으로 공공장소의 칠판[黑板報]을 이용했다.

29 畢曉敏, 2013,「上海抗美援朝運動時期的時事宣傳」,『上海青年管理幹部學院學報』2013-4.

30 張雲, 2000,「共和國前三十年'運動'的回顧與思考」,『黨史研究與教學』200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완했다. 토지개혁은 '항미원조운동'의 동원을 위해 공작대 파견, 기층 조직 수립 등 필수적인 기반 조건을 마련해주었으며 반대로 '항미원조운동'은 토지 개혁의 당위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진행을 촉진해주는 대의명분이 되었다. 사실 토지개혁보다 '항미원조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은 진반운동이다. '항미원조운동'의 진행을 위해 전시에 상응하는 사회 질서를 구축해주었으며 '항미원조운동' 쪽에서는 토지개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스파이'라는 주요한 반혁명혐의를 진반운동에게 제공해주었다. 주요 운동들은 이처럼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이 주요 대중 운동들 아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소규모 대중운동들 중에 애국공약처럼 서로 공유하는 하위 운동이 존재하여 입체적인 대중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네트워크는 대중동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항미원조운동' 연구자들은 당시의 공문서(檔案)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항미원조운동'의 대중동원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규명했다.[31]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공중앙은 1950년 12월에 "청년 학생과 청년 노동자를 군사 간부 학교에 모집하는 통지"를 발표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군인을 모집했다. 그리고 파견된 지원군의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중공중앙의 지도 아래 명절 위문, 경제적 구호, 정치 계급의 향상, 농사 지원, 취업 지원의 다섯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중공은 전선으로의 위문 활동을 위해 인민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파견했다. '항미원조운동'이 벌어지는 3년 동안 세 차례 북한에 위문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동시에 위로금, 위문편지, 위문품 등도 전선에 전달되었다. 또한 증산 기부와 증산 절약 운동도 '항미원조운동'을 통한 대중동원의 성과 중 하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항미원조운동'은 선전과 교육, 그리고 성공적인 대중 동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항미원조'를 전능정치(全能政治), 즉 전체주의로 표

31 範煥清, 2000,『支援抗美援朝紀實』,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37~2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한 후쑹타오(侯松濤)를 포함해 중국 측 연구자들[32]은 이 과정에서 '전체주의'처럼 보일 정도의 지도적 역할을 중공이 발휘해야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공은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국제주의, 애국주의 등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고, 신문, 방송, 영화 등 매체를 통해 중국인들의 국가 정체성과 소속감,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그들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단 대중을 조직한 후 '항미원조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인 생산 계획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기부, 생산 지원, 물자 지원, 위문 등 각 부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항미원조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시키는 일 또한 중공의 역할이었다. 이를 위해서 신생 정권은 전례없을 수준으로 공고화되어야 했다.

당시 집정 역량의 명백한 한계[33]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중공이 정권 공고화를 완수했다는 중국 연구자들의 견해는 옳다. 이 점은 해외 연구자들[34]의 평가와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그 정권 공고화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자원이었던 대중의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와 자발성(voluntarism)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엇갈린다. 해외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사회적 동원을 중국인들의 의지와 헌신보다는 정권의 철저한 대중운동 계획과 집행의 결과물

32 劉威, 2020, 「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及啟示」, 『政工學刊』 2020-11; 魏代強, 2008, 「抗美援朝戰爭政治動員探要」, 『南京政治學院學報』 2008-1; 侯松濤, 2006, 「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中共中央黨校 博士學位論文.

33 예를 들면, 당이 그 지부를 도시 행정 말단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말이었다. 한국전쟁 전후로는 불가능했다.

34 특히 1949년 이후 중공의 최대 관심사였던 도시 접수 및 관리(接管)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950년 한국전쟁을 도시 사회가 당정의 의도대로 재편되는 시점이었다고 지적한다. Ezra Vogel, 1969, *Canton under Communism: Programs and Politics in a Provincial Capital, 1949-196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60~69; Kenneth G. Liberthal, 1971, *Revolution and Tradition in Tientsin, 1949-1952*, Redwoo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05~108; James Gao, 2004, *The Communist Takeover of Hangzhou: The Transformation of City and Cadre, 1949-195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37~1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본다. 반면 중국 학계는 양자의 상호 보완으로 해석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35] 당 중앙으로부터 각급 정부, 그리고 항미원조총회 및 각급 분회의 조직 체계 아래 선전과 교육 작업이 전개된 후에는 중국 인들은 계몽되고 조직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선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생산을 늘리고 절약을 실천하여 전선에 필요한 전략 물자를 제공했고 무기 장비의 구매를 위해 기꺼이 기부했으며 중국 인민 지원군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可愛的人)"로 칭하며, 여러 차례 위문단을 조직하여 전선에 보냈다. 중국 학계의 여러 연구 저작에서는 인민들의 자발적 '항미원조'를 주장하면서 한국전쟁의 결과에 대한 마오쩌둥의 어록, 즉 "항미원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우리의 전쟁이 인민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36]를 언급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항미원조'에는 전체주의식 영도가 수반되어 있었다. 전체주의와 인민대중의 자발성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Ⅲ. '항미원조'를 향한 중국 사회의 자발성 연구

동원(mobilization)을 논의하면서 피동원 대상의 진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피동원 대상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주장하더라도 전체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압력'이 유무형으로 적극성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연구자들이 '항미원조'에서 인민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중공의 핵심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

35 齊德學, 1995, 「抗美援朝戰爭勝利的主要經驗及意義」, 『當代中國史研究』 1995-5; 靳道亮, 2009, 「抗美援朝運動與鄉村社會國家意識的塑造」, 『史學月刊』 2009-10.

3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2010,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 中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73~1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공의 대중동원은 당 조직과 행정기구에 의한 계획과 집행을 토대로 하되 반드시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 '대중노선'이라고 하는데 1943년 6월 마오쩌둥은 「영도방법에 관한 약간의 문제(關於領導方法的若干問題)」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중공은 반드시 대중노선을 관철해야 한다. 그저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중의 창의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간부들은 정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 이를 그들의 상급 기구에 보고해야 했다. 인민대중들은 대중운동의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지시는 완벽에 가까워진다고 믿는, 이른바 '대중으로부터 나와 대중에게로 들어가는'(從郡衆中來, 到群衆中去) 법칙이 대중노선이다. 그리고 대중노선의 전제는 대중들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다. 연안[37] 시기부터 정풍(整風)을 포함한 중공의 주요 대중운동은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수반했고 건국 이후[38]에도 대중노선은 중공 정치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 대중 노선은 인민대중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므로 '항미원조운동'이 아무리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중국 사회가 차지할 공간과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1. '항미원조운동'과 중국 사회의 자발적 참여

상술하였듯이 대중동원에서 피동원 대상의 자발성 여부는 논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명제다. 따라서 중국 학계는 정권 공고화와 함께

37 Mark Selden, 1969, "The Yenan Legacy: The Mass Line" in Doak. A.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and London: Un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150~151.

38 John Gardner, 1969, "The Wu-fan Campaign in Shanghai: A Study in the Consolidation of Urban Control", in Doak. A.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and London: Un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477~47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항미원조'를 향한 중국 사회의 자발적 헌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다만 중공 치하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 농민과 노동자의 경우 '항미원조운동'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다. 농민의 경우는 토지개혁, 노동자의 경우는 민주개혁이라는 동시기 다른 대규모 대중운동이 그들의 삶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두 집단의 경우 토지개혁과 민주개혁 관련 연구가 '항미원조운동'을 그 과정의 일부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운동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부녀자, 청년, 민주당파, 종교계, 문화예술계, 의료계, 상업계는 물론 서점까지 여타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항미원조'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행동을 촉발시켰는지를 주제로 삼은 연구 결과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어 있다. 또한 분석의 수준 역시 애국주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지만 중국학계가 당시 중국 사회의 '항미원조'를 향한 자발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각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청년

리강(李剛)[39]과 비샤오민(畢曉敏)[40]에 의하면 청년들의 '항미원조운동'은 정치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49년부터 공산주의 청년단(共産主義 青年團)[이하 공청단(共青團)으로 약칭]이 대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존재하던 선교학교와 외국인 교사들로 인하여 청년층은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공청단의 정치 수업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 교육이 진행되면서 선교학교의 학생들마저 외국 교사들의 악행을 고발했다. 여기서 촉발된 반미정서

39 李剛, 2005, 「1950年代初期南京'反侮辱, 反徘謗'的曆史考察一大學與'巧罔想象'的塑造」, 『多元視野中的中外關系史研究一中巧中外關系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火會論文策』,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43쪽.

40 畢曉敏, 2020, 「抗美援朝運動中的上海青年」, 『上海黨史與黨建』 2020-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중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청년층의 '항미원조'를 향한 자발성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이징, 상하이, 난징 등의 고등학교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학교도 있었다. 청년들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미국의 문화적 침략'이자 '노예화 교육'으로 인식하면서 당국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 교육, 구호 기관에 대한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리우진웨이(劉進偉)[41]의 평가에 의하면 청년층의 '항미원조'에 대한 동참은 민족의식의 발현이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당시 청년층에게 형성된 적대감은 21세기 중국의 대미 정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서점

장린쩌(江林澤)[42]의 연구는 중국 출판 및 교육업계의 '항미원조'를 향한 자발성을 '신화서점'을 사례로 논증하고 있다. 신화서점의 '항미원조운동'은 중국 인민지원군을 위한 무기 기부 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와 서점 모두 동참했다. 근로자는 ① 초과 근무 등 추가 노동으로 얻은 임금 기부, ② 성과급 등 추가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 ③ 자발적으로 개인 급여를 기부 등 세 가지 형태로 무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헌납했다. 서점은 '항미원조운동'에 참여하는 매장 직원에게 매일 1.5배의 임금을 지급했고, 본점은 분점에게 일률적으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추가 수입을 무기 기부 운동에 기부하며 '항미원조운동'을 전개했다.

신화서점의 '항미원조운동'은 일반적으로 무기 기부만 거론되지만 이 외에도 자발적인 전선 파견으로 인민지원군을 보조했다. 출판총국의 배치에 따라 신화서점 동북 지방 분점에서 선발한 직원들을 전선으로 파견하여 군수 서점, 전

41 劉進偉, 2015,「二十世紀五十年代初參軍參幹運動研究-以北京市青年學生和工人爲例」,『中共黨史研究』2015-9.

42 江林澤, 2017,「抗美援朝運動中的新華書店」,『當代中國史研究』2017-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 독서실,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여 인민지원군의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켰다. 동북 지방 분점 뿐 아니라 각지의 신화서점들도 도서 및 간행물 모집 운동을 통해 인민 지원군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항미원조운동'에 동참했다. 전선으로 파견된 신화서점 직원들은 도서 제공뿐만 아니라 포스터 제작, 장기 등 오락용품 제작 및 제공, 구연동화 등을 통하여 '항미원조전쟁'에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했다.

장린쩌는 신화서점의 '항미원조'를 향한 자발적 동참의 원동력을 중국 당국의 애국주의 교육에서 찾는다. 하지만 신화서점은 책자모집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전선의 병사들을 위해 책자를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 본인들의 동참을 넘어 중국 사회 전체가 '항미원조'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명확한 자발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 혹은 서점 측의 간섭이나 통제가 가해지며 이 자발성을 훼손, 왜곡시킬 여지가 분명히 존재했다.[43] 장린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각계 국민 사이에서 애국주의의 홍보를 확대했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3) 상공업계

경영자(老板)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계 종사자들의 '항미원조운동' 역시 중공중앙(中共中央)의 영도로 시작되었다. 중국 학계의 연구[44]에 의하면 상공업계의 '항미원조'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부분이 두 군데 존재한다. 첫째, 한국전쟁 자체보다는 민족 자본가와 단결하자는 중공중앙의 '신민주주의'에 대한 호소가

43 책자 모집의 형태가 1951년 8월 이후 현물 기부에서 현금 기부로 변화하면서 서점이 책자를 대신 구매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직접 책을 기부할 경우 심사를 거쳐야 했다.

44 趙前進, 2001,「解放初期上海私營工商業情況」,『檔案與史學』2001-4; 李潘良, 2000,「浦江工商界同仇敵愾 保家衛國盡心竭力支援前線」,『上海黨史研究』200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공업자들의 '항미원조'를 향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둘째, '항미원조운동'을 향한 상공업계의 참여는 '증산절약(增産節約)'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생산력 향상은 일반 노동자들의 역할이었으며 '항미원조'보다 민주개혁(民主改革)[45]이 더 큰 역할을 했다. 경영자(老板)들의 '항미원조운동' 참여는 여타 중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민지원군에 자원하고, 전선에 위문품을 보내며, 비행기와 포를 기부하고, 애국 공약을 체결하고, 반미 시위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4) 과학계

리홍허(李洪河)와 왕수자오(王淑姣)는 중국 과학계의 '항미원조운동'에 주목했는데[46] 이에 의하면 이는 주로 선전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연구소들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주제로 정부 부처와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고 성명서와 선언문을 발표하여 인민들에게 '항미원조'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런 선전은 농업 과학자들이나 중국 전국 자연과학 전문 학회, 중국 전국 과학기술 보급 협회의 사례처럼 생산 기술 개선을 통해 '항미원조'를 지원하자고 호소하는 '증산절약'의 촉구로도 이루어졌다.

과학계의 '항미원조운동'은 선전을 중심으로 위문편지, 위로금, 위문품의 전달이나 지원병 자원처럼 다른 사회성원들과 대동소이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계만의 특수한 활동도 있었는데, 바로 반세균전(反細菌戰) 운동이다.

1952년 미국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세균전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과학계 인사들은 『과학통보(科學通報)』에 미국의 세균전에 반대한다는 글

45 민주주의 개혁은 건국 초기 기업과 공장, 상점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치 개혁이다. 그 목적은 ① 기업 및 공장의 운영진 및 小組의 지도자들을 교체, ② 공장 관리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회의 제도 설립에 있었다.

46 李洪河, 王淑姣, 2012, 「抗美援朝時期中國科學界的宣傳和動員-以科學界同胞爲中心的考察」, 『河南師範大學學報』 201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게재했고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의 세균전을 폭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1952년 3월에는 중국 정부가 국제 조사단을 초청하여 북한과 중국 동북에서 대규모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952년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소련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례 분석, 증인 심문, 실물 조사,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중국 과학자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과학통보』에 반세균전 특집호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리홍허와 왕수자오는 반세균전 운동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반세균전 과정에서 중국 과학계의 국제적인 연대는 '항미원조운동' 중 이채로운 부분이다.

5) 민주당파(民主黨派)

'항미원조운동' 당시 타이완민주자치동맹, 중국농공민주당,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구삼학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파는 반미 성명 발표, 하부 조직을 이용한 각급 좌담회와 강연회 개최, '항미원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소책자와 홍보자료 출판, 전선 위문, 비행기 기부, 위문품 발송,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방문, 당파 구성원 및 그 친인척의 자발적인 군입대로 '항미원조운동'을 전개했다. 통칭핑(童慶平)[47]는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민주당파가 신중국을 위한 정치적 적극성을 보여주었다고 결론내린다. 하지만 이를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항미원조운동'과 비교해보면 특별한 적극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대단히 전형적인 참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항미원조운동'에서 민주당파가 중국 사회의 다른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중국민주건국회는 도시 상공업계의 시위 행진을 조직, 추진하고, 심지어 타이완민주자치동맹은 타이완 사람들의 '항미원조' 기부를 독려했다. 이는 확실히 다른 중국 사회와 차

47 童慶平, 2010, 「抗美援朝運動中的民主黨派政治參與和貢獻」,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 201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화되는 민주당파만의 '항미원조운동'이다.

6) 문예계

천리(陳利)[48]는 동북지역의 단둥시[옛 지명 안동(安東)]를 사례로 문예계의 항미원조운동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가 단둥시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전선에 인접한 지역이라 문예 연합회, 경극단, 영화 배급소, 영화관, 신화 서점, 도서관, 미술 연구회 등 다양한 문예 단체와 공장, 기업, 기관, 학교 등의 문예 조직들이 이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천리에 의하면 단둥시 문예계의 '항미원조운동'에서 특기해볼 만한 점은 인민지원군이 한반도로 진입하기 전인 1950년 7월 1일부터 이미 대규모의 '항미원조'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각 영화관과 극장에서 '항미원조'를 주제로 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차량까지 동원하여 '항미원조'를 홍보하는 가도 공연을 진행했다.

중국이 참전한 이후로는 1951년 6월 단둥시 '항미원조' 분회의 비행기 기부 호소에 맞춰 단둥의 문예 단체가 애국 기부의 사례를 홍보했으며, 문예 부처 및 단체들은 공연으로 얻은 수익을 기부했다. 또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단둥의 문화 예술 부서와 단체는 지원군 위문, 부상자 위문, 군인 유가족 위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2. '항미원조'의 이유: 중국 사회를 움직인 원동력

중국사회의 '항미원조운동'을 주제로 한 중국 학계의 연구들은 그 논리 전개와 결론이 대동소이하다. 중공의 집중적인 선전과 계몽으로 '항미원조'가 국가의 명령이 아닌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야는 기본적으로 애국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 중국 사회의

48 陳利, 2015,「抗美援朝運動中安東文化界的貢獻」,『蘭台世界』2015-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항미원조운동' 참여를 중국 학계가 묘사하는 그대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중국 사회에 분명히 '항미원조'를 향한 일정한 자발성이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측 연구들의 문제는 '자발성'의 동인을 오직 당의 교육과 선전, 계몽으로 한정 짓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의 선전 및 홍보, 교육 노력이 중국 사회의 '항미원조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시 중국 사회가 보여준 정치적 자발성을 온전히 설명해줄 수 없다. 국가의 강권 이외에 '항미원조'에 자발성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대중운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 중 일부는 '자발성'을 전제하면서도 '항미원조운동'의 협애(狹隘)한 유인(誘引) 요소를 규명해주고 있다.

1) 여성 운동

항미원조운동 당시 부녀자들의 정치 참여를 다룬 연구들[49] 역시 부녀자들의 '항미원조운동'은 중공이 선전, 이념 및 정치 교육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당이 사상 및 정치 교육을 통해 해방 이전까지 정치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던 부녀자들의 애국심을 계몽시켜 주체적으로 '항미원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들이 '항미원조운동'에 참여한 이유가 여성 인권의 신장과 여성 해방까지 확장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공의 주도 아래 평화 서명, 애국공약, 애국위생, 증산절약 등 각종 대중운동에 참가하면서 여성들이 정치적 행동

49 중국 연구자들은 여성운동 전체보다는 각 지방[성(省)이나 시(市)]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연구들이다. 範新樂 · 王衛紅, 2021, 「抗美援朝運動中山西鄉村婦女主體意識型塑探析」, 『江蘇科技大學學報』 2021-2; 仲豔妮, 2020, 「抗美援朝運動中的山西婦女」, 『文史月刊』 2020-11; 張潔, 2020, 「蔡暢動員全國婦女投身抗美援朝運動」, 『百年潮』 2020-10; 陳利, 2012, 「抗美援朝戰爭中安東婦女擁軍紀實」, 『蘭台世界』 2012-10; 範登生, 2009, 「抗美援朝運動中的北京婦女」, 『北京黨史』 200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다는 담론을 형성한다. 즉, 여성들이 '항미원조운동'이라는 정치행동으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면서 능동적 존재로 변화하고 가정과 봉건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근대적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의료와 위생

'항미원조운동' 은 중국의 의료 체계를 발전시켰다. 쉬궈푸(徐國普), 하오루이(郝如一) 그리고 주지광(朱繼光)의 연구[50]를 종합해보면 야전을 통한 의사의 병동 순회, 진료 및 임상 토론 제도, 병력(病歷) 기술, 간호사의 수술실 근무 규칙, 의사-간호사 협력 제도의 확립은 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제고시켰다. 의료 교육에서는 수면 마취를 포함하여 소련의 각종 의료 기술이 '항미원조전쟁' 기간 수입되었다. 이 외에도 의료 인력들은 전선에서의 혈액 보관을 위해 건물 지하실이나 물탱크를 이용한 혈액 저장실을 제조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며 혈액은행의 발전을 선도했다. 이 혈액은행의 기술은 북한으로도 이전되었다.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 및 위생의 발전은 단지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1950년대 애국위생운동을 다룬 연구[51]에 의하면 '항미원조운동'을 계기로 도시 위생의 대대적인 제고(提高)가 이루어졌다. 중공은 미국이 군용기를 통해 만주와 산둥성에 해충을 살포하여 세균전을 전개했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전국에 방역위원회(防疫委員會)와 애국위생운동위원회(愛國衛生運動委員會)를 수립하면서 애국

50 朱繼光, 2011,「抗美援朝運動中的江蘇南京志願醫療團」,『當代中國史研究』2011-3; 徐國普 · 郝如一, 2009,「朝鮮戰爭期間中國紅十字會的國際救援-以江蘇紅會爲個案」,『河北大學學報』2009-4.

51 肖愛樹, 2003,「1949-1959年愛國衛生運動述論」,『當代中國史研究』2003-1; 胡曉雲, 1997,「健康教育在愛國衛生運動中的作用」,『湖北豫防醫學雜誌』1997-3; 陳戊甲, 張韶華, 歐揚, 溫立強, 2008,「疾病豫防控制中心在新時期愛國衛生運動中的作用」,『醫學動物防制』2008-11; 張國瑞, 1992,「對愛國衛生運動中國特色的認識」,『中國衛生事業管理』199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생운동(愛國衛生運動)을 본격화했다. 이 대중운동으로 도시 기층에서 ① 실내 청소, ② 가구 청소, ③ 쓰레기의 올바른 처리, ④ 노상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 단속, ⑤ 청소 등에 쓰고 난 물의 무단 투기 금지, ⑥ 주방, 계단, 도로, 수도꼭지의 일상적인 청소, ⑦ 정기적인 세탁, ⑧ 불량식품과 용수 섭취 금지, ⑨ 식기의 세정, ⑩ 쥐, 모기, 파리의 박멸, ⑪ 예방 접종, ⑫ 위생소조의 지도에 따른 가정의 청소 상황 점검, ⑬ 대청소, ⑭ 주민자치조직의 청소 검사 정기화가 이루어졌다. '항미원조운동'으로 인해 의료와 위생 수준이 향상되었다면, 그 수혜자인 중국 사회가 이 대중운동에 적극성을 보일 이유는 충분하다.

3. 종교계의 '항미원조'

종교계의 애국운동을 연구한 저우루장(周汝江)[52]은 '항미원조운동'이 종교인들에게 신중국 설립 전후의 곤궁을 타파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주었음을 지적한다. 건국 초기 종교계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와 중공의 사회, 경제 개조 및 정치 선전으로 인하여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고,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동결되어 있었다. 이때 종교계 인사들 중 일부가 종교계와 당정의 상호 메커니즘 구축, 즉 신정권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 종교 단체의 자산을 압수하며 선교사들과 정치 경력 및 계급에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고발, 추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독교와 천주교는 교리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서방 국가들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다.

중국 사회가 '항미원조운동'을 향한 자발성을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당-국가의 호소 및 선전에 감화되었다는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항미원조운동'

52 周汝江, 2013,「建國初期宗教界愛國運動研究-以建國初南京,徐州兩市宗教界愛國運動為例」,『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201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보가위국(保家爲國)이라는 거국적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국 사회 전체 혹은 특정 계층을 유인할 수 있었던 협애한 이익은 자발적 정치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상술한 연구들은 바로 그 부분을 조망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이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 중국 사회만의 고유한 영역에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어떠한 가감이 가해졌는지 논증하지 못했다.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에서 사회가 얻는 이익이란 생산력 향상이나 '항미원조' 전쟁의 수행 등 당-국가가 추구하던 노선 속에서 설명될 뿐이다. 이를테면 '항미원조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만이 강조될 뿐 기존의 가부장제 관념과 빚은 갈등, 그리고 그에 대한 부녀자들의 대응은 서술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연구자들이 조망한 중국 사회의 이득이 당시 중국 사회의 인식과 합치하는지도 의문이다. 중국 측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구술 사료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해당 대중운동에 대한 체회를 묘사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Ⅳ. 맺음말

'항미원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항미원조전쟁' 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중국 학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료에 대한 접근성과 정치 기제로써 대중운동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항미원조운동'에 관한 중국 측 연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당시 중국 사회의 '자발성'을 해석하면서 국가-사회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대면하기 때문이다. 당과 정부가 시작하고 영도한 '항미원조'에 대한 정치 참여(항미원조운동)를 과연 당시 중국인들의 진정한 의지이자 자발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항미원조'가 당의 의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항미원조운동'을 다룬 연구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일반적으로 이 대중운동을 정권 공고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항미원조운동'은 철저한 하향식(自上而下)으로 중공은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선전과 교육, 조직 작업을 수행하였다. 중국 학계의 지적에 따르면 이는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적 소극성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다. 정치적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국인들은 '항미원조'의 당위성을 자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공은 선전과 교육을 통해 중국인들을 계몽할 필요가 있었다.

정권공고화를 전제함과 동시에 중국 연구자들은 '항미원조운동'에서 발현된 중국 사회의 자발성도 조망했다. 중공의 이데올로기는 당의 지도적 역할이 대중의 창의적 참여와 조화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렇기에 중공은 대중의 수동적인 침묵과 복종을 원하지 않았고 이는 '항미원조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공의 영도에 호응한 청년, 상공업, 과학, 민주당, 문예계와 서점 등의 '항미원조'를 향한 동참 의지를 선행 연구들이 해명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그 대부분은 중국 사회가 보여준 '자발성'의 원동력을 당의 교육과 계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선전 및 홍보, 교육만으로는 '항미원조운동'을 향한 중국 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설명할 수 없다. 중국 사회가 '항미원조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이 대중운동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 종교계 및 의료와 위생 방면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이 점을 조망해주고 있다.

'항미원조운동'은 국가 건설의 일환이었다. 모든 관련 사업은 중공이 계획하고 집행했으며 정권공고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중국 사회는 사실상 여기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중국 측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이를 자발적인 참여로 해석한다. 이 자발성이 중공의 호소와 영도, 계몽뿐 아니라 '항미원조'를 통한 사회적 이익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점까지는 논증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제반 연구들은 중국 사회의 '항미원조운동'을 철저하게 국가의 목표와 노선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뿐 이를 변용하고 왜곡시키는 지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중국 외부의 연구자들은 신중국 초기 중국 사회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창조적으로 적응(creative accommodation)하여 봉건적인 미신마저 유지해나가는 모습마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굴해낸 바 있다.[53] 이런 성과와 대조해 볼 때, 이 점은 명백히 중국 학계의 '항미원조운동' 연구가 지닌 한계다.

53 Steve A. Smith, 2006, "Local Cadres Confront the Supernatural: The Politics of Holy Water (Shenshui) in the PRC, 1949-1966", *The China Quarterly 188: The History of the PRC (1949-197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中共中央文獻研究室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2010,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 中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단행본

軍事科學院軍事曆史研究部, 2000, 『抗美援朝戰爭史』 1,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範煥清, 2000, 『支援抗美援朝紀實』,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徐焰, 2003, 『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 北京: 解放軍出版社.

宋連生, 2002, 『抗美援朝再回首』,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王海光, 1995, 『旋轉的歷史: 社會運動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齊德學, 1999, 『巨人的較量-抗美援朝高層決策和指導』,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編, 1985,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 北京: 解放軍出版社.

侯松濤, 2012, 『全能政治: 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小島朋之, 1985, 『中國政治と大衆路線-大衆運動と毛澤東, 中央および地方の政治動態』, 東京: 慶應通信.

泉穀陽子, 2007, 『中國建國初期の政治と經濟: 大衆運動と社會主義體制』, 東京: 禦茶の水書房.

Gao, James, 2004, *The Communist Takeover of Hangzhou: The Transformation of City and Cadre*, 1949-195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iberthal, Kenneth G., 1971, *Revolution and Tradition in Tientsin, 1949-1952*, Redwood: Stanford University Press.

Meisner, Maurice, 1999,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Los Angeles: The Free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ogel, Ezra, 1969, *Canton under Communism: Programs and Politics in a Provincial Capital, 1949-196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

김창규, 2014,「抗美援朝運動 시기 인민동원과 국가통합 이념으로써 '愛國'」,『東洋史學研究』129.

김태윤, 2017,「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軍史』10.

손동훈, 2022,「上海市 裏弄의 '抗美援朝運動'과 선전 체계의 형성 -婦女聯合會의 活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우경, 2009,「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애국공약운동과 여성의 국민 되기」,『中國現代文學』48.

한담, 2023,「중국 항미원조 집단기억의 형성기, 마오쩌둥 시기 재고찰-백지운의『항미원조』에 대한 보완적 논의-」,『中國近現代史研究』100.

江林澤, 2017,「抗美援朝運動中的新華書店」,『當代中國史研究』2017-6.

靳道亮, 2009,「抗美援朝運動與鄉村社會國家意識的塑造」,『史學月刊』2009-10.

唐蕊, 2013,「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的後勤支援」,『毛澤東思想研究』2013-1.

童慶平, 2010,「抗美援朝運動中的民主黨派政治參與和貢獻」,『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2010-4.

鄧峰, 2010,「試論朝鮮戰爭停戰談判的緣起—兼談結盟政治對中國外交的影響」,『社會科學戰線』2010-10.

____, 2014,「美國在朝鮮停戰談判中的戰俘遣返政策探究」,『上海交通大學學報』2014-1.

馬釗, 2016,「政治, 宣傳與文藝: 冷戰時期中朝同盟關係的建構」,『文化研究』2016-1.

孟濤, 2013,「關於朝鮮戰爭中美軍實施細菌戰的再考察」,『當代中國史研究』2013-5.

範登生, 2009,「抗美援朝運動中的北京婦女」,『北京黨史』2009-2.

範新樂·王衛紅, 2021,「抗美援朝運動中山西鄉村婦女主體意識型塑探析」,『江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科技大學學報』2021-2.
付可塵, 2012,「論毛澤東處理俘虜的思想」,『甘肅社會科學』2012-5.
謝玉進·辛未, 2022,「抗美援朝運動中思想政治教育的基本經驗及啟示」,『思想政治教育研究』2022-2.
徐國普·郝如一, 2009,「朝鮮戰爭期間中國紅十字會的國際救援-以江蘇紅會爲個案」,『河北大學學報』2009-4.
徐友珍, 2010,「英國與北韓停戰談判中的戰俘遣返問題」,『世界史』2010-4.
石善濤, 2020,「近十年來抗美援朝史研究述評」,『當代中國史研究』2020-5.
柴成文, 2000,「毛澤東､周恩來領導朝鮮停戰談判的決策軌跡」,『當代中國史研究』2000-6.
沈志華, 2012,「試論朝鮮戰爭期間的中朝同盟關係」,『歷史教學問題』2012-1.
_____, 2019,「面臨危機的抉擇: 關於韓戰之中國決策述評(上篇)」,『歷史教學問題』2019-4.
吳宏亮, 2013,「'抗美援朝保家衛國'－毛澤東出兵北韓艱難決策的背後」,『史學月刊』2013-10.
吳靜媛, 2016,「抗美援朝戰爭中志願軍對待戰俘情況研究」,『蘭台世界』2016-12.
王德義, 2010,「抗美援朝戰爭時期志願軍士氣激勵問題研究」,『軍事史』2010-5.
王獻玲, 2013,「論抗美援朝運動中民眾的愛國情感教育-以河南省抗美援朝運動爲考察對象」,『鄭州大學學報』2013-4.
王慧聰, 2022,「抗美援朝中黨的思想政治工作及其曆史貢獻」,『黨史博采(下)』2022-6.
汪暉, 2013,「二十世紀中國歷史視野下的抗美援朝戰爭」,『文化縱橫』2013-6.
魏代強, 2008,「抗美援朝戰爭政治動員探要」,『南京政治學院學報』2008-1.
魏晉之, 2020,「抗美援朝戰爭時期的國內宣傳工作」,『西部學刊』, 2020-6.
劉威, 2020,「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及啓示」,『政工學刊』2020-11.
劉一皋, 1999,「社會動員形式的歷史反視」,『策略與管理』1999-4.
劉進偉, 2015,「二十世紀五十年代初參軍參幹運動研究-以北京市青年學生和工人爲例」,『中共黨史研究』2015-9.
李剛, 2005,「1950年代初期南京'反侮辱､反徘謗'的曆史考察一大學與'巧罔想象'的塑造」,『多元視野中的中外關系史研究一中巧中外關系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火會論文策』,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李潘良, 2000,「浦江工商界同仇敵愾 保家衛國盡心竭力支援前線」,『上海黨史研究』2000-5.
李維賽, 2011,「抗美援朝戰爭第二次戰役中美軍第2師遭受殲滅打擊狀況分析」,『軍事歷史』, 2011-3.
李征, 2004,「簡論"政治動員"」,『河海大學學報』2004-2.
李捷, 2010,「對抗美援朝決策過程階段特性的幾點分析」,『中共黨史研究』2010-12.
李洪河 · 王淑姣, 2012,「抗美援朝時期中國科學界的宣傳和動員-以科學界同胞爲中心的考察」,『河南師範大學學報』2012-1.
任方, 2011,「論韓戰停戰談判中的戰俘'自願遣返'原則」,『遼寧大學學報』2011-2.
張國瑞, 1992,「對愛國衛生運動中國特色的認識」,『中國衛生事業管理』1992-9.
張潔, 2020,「蔡暢動員全國婦女投身抗美援朝運動」,『百年潮』2020-10.
張北根, 2013,「抗美援朝的決策問題研究」,『北京科技大學學報』2013-6.
張旺, 2014,『我軍俘虜工作研究』, 國防科學技術大學 博士學位論文.
張雲, 2000,「共和國前三十年'運動'的回顧與思考」,『黨史研究與教學』2000-4.
張華, 2013,「美國在朝鮮戰爭中實施細菌戰的證據」,『武陵學刊』2013-1.
褚鳳英, 2001,「抗美援朝運動中的思想政治工作初探」,『中共濟南市委黨校濟南市行政學院濟南市社會主義學院學報』2001-3.
田居儉. 2000,「抗美援朝運動與"三視"教育」,『高校理論戰線』, 2000-12.
田武雄, 2014,「同聲異氣: 中國1958年從北韓全部撤軍方案的形成」,『聊城大學學報』2014-5.
_____, 2015,「中國人民志願軍撤軍回國的若幹史實考辨」,『軍事歷史研究』, 2015-2.
程珂, 2010,「1951年中國抗美援朝走向停戰談判的國內財經因素考察」,『攀枝花學院學報』2010-1.
齊德學, 1995,「抗美援朝戰爭勝利的主要經驗及意義」,『當代中國史研究』1995-5.
_____, 2007,「抗美援朝戰爭研究述評」,『當代中國史研究』2007-6.
_____, 2013,「毛澤東在抗美援朝戰爭中的軍事指導藝術」,『當代中國史研究』2013-6.
_____, 2017,「抗美援朝戰爭戰役指引的基本經驗」,『軍事史』201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趙森·夏明亮, 1999,「李克農與朝鮮停戰談判」,『黨史博採』1999-2.
趙前進, 2001,「解放初期上海私營工商業情況」,『檔案與史學』2001-4.
週皆, 2013,「抗美援朝戰爭中志願軍防空作戰的經驗與啟示」,『黨史文苑』2013-24.
周汝江, 2013,「建國初期宗教界愛國運動研究-以建國初南京、徐州兩市宗教界愛國運動為例」,『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2013-4.
朱繼光, 2011,「抗美援朝運動中的江蘇南京志願醫療團」,『當代中國史研究』2011-3.
朱傑, 2017,「依據與證據: 朝鮮戰爭中細菌戰之法學分析」,『西安政治學院學報』2017-3.
仲豔妮, 2020,「抗美援朝運動中的山西婦女」,『文史月刊』2020-11.
仲華, 2011,「論周恩來在抗美援朝出兵決策中的歷史作用」,『軍事史研究』2011-2.
曾莉·張翼, 2010,「從'美軍虐待戰俘'看服從心理」,『學理論』2010-4.
陳戊甲, 張韶華, 歐揚, 溫立強, 2008,「疾病豫防控制中心在新時期愛國衛生運動中的作用」,『醫學動物防制』2008-11.
陳利, 2012,「抗美援朝戰爭中安東婦女擁軍紀實」,『蘭台世界』2012-10.
____, 2015,「抗美援朝運動中安東文化界的貢獻」,『蘭台世界』2015-7.
陳昊, 2010a,「抗美援朝戰爭中的停戰談判(上)」,『黨史文苑』2010-7.
____, 2010b,「抗美援朝戰爭中的停戰談判(下)」,『黨史文苑』2010-8.
肖愛樹, 2003,「1949-1959年愛國衛生運動述論」,『當代中國史研究』2003-1.
鮑明榮, 2001,「中國人民志願軍在抗美援朝戰爭中的戰俘政策」,『軍事史』2001-6.
畢曉敏, 2013,「上海抗美援朝運動時期的時事宣傳」,『上海青年管理幹部學院學報』2013-4.
_____, 2020,「抗美援朝運動中的上海青年」,『上海黨史與黨建』2020-10.
黃兢, 2004,「建國初期中國共產黨政治動員評析」,『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2004-4.
胡曉雲, 1997,「健康教育在愛國衛生運動中的作用」,『湖北豫防醫學雜誌』1997-3.
侯松濤, 2006,「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 中共中央黨校 博士學位論文.
_____, 2008,「抗美援朝運動與一種運動動員模式的形成」,『政治發展研究』2008-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nett, Gordon, 2009, "China's Mass Campaigns and Social Control" in Andrew Kipnis et al. eds.,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Brown, Jeremy & Pickowicz, Paul G., 2007, "The Early Year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 Introduction" in Jeremy Brown & Paul G. Pickowicz eds., *Dilemmas of Victory: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ao, James, 2001, "War Culture, Nationalism, and Political Campaigns, 1950-1953" in C. X. George Wei & Xiaoyuan Liu eds., *Chinese Nationalism in Perspective Historical and Recent Cases*, Santa Barbara: Greenwood Press.

Gardner, John, 1969, "The Wu-fan Campaign in Shanghai: A Study in the Consolidation of Urban Control", in Doak. A.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Madsen, Richard, 1981, "Mass Mobilization in Mao's China" in *Problems of Communism* vol. 30.

Selden, Mark, 1969, "The Yenan Legacy: The Mass Line" in Doak. A.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mith, Steve A., 2006, "Local Cadres Confront the Supernatural: The Politics of Holy Water (Shenshui) in the PRC, 1949-1966", *The China Quarterly 188: The History of the PRC (1949-1976).*

Teiwes, Frederick C., 1987,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New Regime 1949-1957" in John K. Fairbank & Roderick MacFarquhar e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4, The People's Republic, Part 1: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타 자료

「北緯38°線上的隱密較量」, 『中國國家安全部』,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42288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동향

–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

손장훈

'항미원조운동'에 관한 연구는 정치, 군사, 외교를 중심으로 한 '항미원조전쟁' 분야에 비해 주목도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중국 사회와 그 '자발성'을 해석함으로써 국가-사회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와 대면하는 주제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으로 약칭)이 영도(領導)한 '항미원조'에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항미원조'는 중공이 결정하였기 때문에 '항미원조운동'을 다룬 연구들은 이를 일반적으로 정권공고화노력으로서 해석한다. 이는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적 소극성 때문으로 당-국가는 '항미원조'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장악해야 했던 것이다.

동시에 인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중공의 주요 정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중국 학계는 '항미원조운동'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영도 못지 않게 사회의 자발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자들은 중국 사회 각계각층의 '항미원조'를 향한 동참 의지를 규명했다. 하지만 애국주의를 전제로 한 중국 측 연구들은 중국 사회의 '자발성'을 당의 교육과 계몽에 기초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석한다.

국가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중국 사회의 '항미원조운동' 참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중국 사회가 '항미원조운동'에 동참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대중운동이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가져다준 실질적이고 협애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종교계 및 의료와 위생 방면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중국 사회가 이 대중운동에 참여한 원인으로 중공의 영도 외에 그들이 얻는 이익도 있었다는 점을 조명해주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의 목표와 노선을 '수용'했다는 전제로 설명할 뿐 이를 '변용'하고 '왜곡'시키는 지점까지는 규명해주지 못했다. 중국 외부에서는 이미 연구자들이 신중국 초기 중국 사회가 중공의 정치 노선과 이데올로기에 적응하면서도 나름의 수단을 통해 봉건적인 미신마저 유지해나가는 모습을 규명해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중국 학계의 '항미원조운동'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항미원조', 대중운동, 중국공산당, 중국사회, 자발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inese Study of 'Resisting United States and Aiding Korea' Campaign: Focusing on State-Society Relationship

Sohn Janghun

Chinese research about 'Resisting United States and Aiding Korea(hereafter RUAK)' campaign deserves academic attention as it confront with 'voluntarism' dilemma of early PRC. During 'RUAK' campaign, could 'leadership' of Chinese Communist Party(hereafter CCP) coexist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of Chinese people?

"Regime consolidation" is the common explanation of RUAK campaign for Chinese scholar, as it is for the western counterparts; it generally concluded that CCP's consolidated control and govern ment was indispensable for Early PRC most of which people had the fear of 'Resisting United States' and passive attitude about 'Aiding Korea'. But Chinese scholars has also shed a light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Chinese people for RUAK campaign.

But most of them regard the voluntarism of Chinese for RUAK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ampaign as result of party leadership and it prevent us from understanding the 'voluntarism'. Chinese 'voluntarism' for RUAK campaign was partly based on not national and not patriotic but definitely selfish interest of Chinese society, as a few Chinese studies about RUAK campaign on women, religion, medical-health area have revealed. But even those studies, which dare to examine 'selfish' reason of RUAK, have never explored disloyalty of Chinese to CCP's intention. Chinese scholars need to search 'creative accommodation' of Chinese people during the RUAK campaign, behavior of transforming ideology or rhetoric of regime on their own which have been already revealed by their western counterparts, to explain real RUAK.

Keywords: 'Resisting United States and Aiding Korea', campaign,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Society, voluntar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12

중국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성립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고고지층학과 유형학을 중심으로

김봉근 | 충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토대
III. 고고지층학과 유형학의 발전 양상
IV. 절대연대측정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20세기 전반, 중국의 고대사 연구는 주로 금석학(金石學) 기반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물질문화 자체의 연구보다는 문자 기록에 대한 해석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등장한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과 민족주의(民族主義) 정치이념의 확산은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물에 기반한 실증적인 고고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양 연구자와 중국 유학파들에 의한 서양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인 '과학고고학(科學考古學)'[1]이 요구되었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자 자료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유적의 층위 상황에 입각한 '지층학(층서학)'과 유물과 유구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류·분석하는 '유형학(형식학)' 등 서양의 이론과 방법론이 중국고고학에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중국고고학은 역사유물주의(歷史唯物主義)에 입각한 실증적 탐구를 중심으로 학문적 체계를 구축해나갔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는 고고학이 이데올로기와 과학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론과 방법론의 내실화를 모색하던 전환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 고고학은 역사 발전 5단계라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해석틀 아래에서 과학적 방법을 적극 수용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고고학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연구의 기초와 근거를 마련한 과학적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과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

* 투고: 2025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2월 9일, 재심사 완료: 2025년 2월 26일, 게재 확정: 2025년 2월 2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4-기획연구-25).
1 張光直 著, 陳星燦 譯, 1995, 「考古學和中國歷史學」, 『考古與文物』 1995-3, 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학적 고고 이론과 방법론은 중국고고학이 성장하는 데 편년 체계(상대·절대연대)의 설정 및 틀을 형성하고, 시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는 등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고고학 문화의 계보를 파악하거나 문화의 발전단계를 연구하는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배경 아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중국 고고학의 주요 조사 및 연구 사례들을 통해, 이 시기 고고지층학과 고고유형학을 중심으로 중국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전개와 발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도입되어 고고학에서 절대연대 분석의 기초 이론을 확립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이라는 자연과학적 분석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토대

20세기를 전후하여 중국고고학은 야외고고학의 도입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이는 일본 및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5년 일본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2)는 요동반도(遼東半島)에서 선사시대와 한대(漢代) 유적을 조사하였다. 서양의 연구자로는 영하(寧夏)와 내몽골(內蒙古), 산시성(山西省) 북부 등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을 조사한 에밀 리상(Emile Licent, 1876~1952)과 테아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 북경의 주구점(周口店)유적을 조사한 오토 츠단스키(Otto Zdansky, 1894~1988), 월터 윌리스 그레인저(Walter Willis Granger, 1872~1941), 프란츠 바이덴라이히(Franz Weidenreich, 1873~1948)와 1921년 하남성 앙소촌의 신석기시대 유적을 발굴한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 1874~1960) 등이 있다.

특히, 1920년대 서양의 연구자들은 중국 내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와 채집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유형학(類型學, typology)적 방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에밀 리상과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 등은 영하 수동구(水洞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에밀 리상·테아르 드 샤르댕의 분류법

유물	분류 기준	
석기	타제(打製)	
	마제(磨製)	
	석환(石環)	
	석구(石釦)	대타원(大橢圓) 세장(細長) 소횡(小橫)
	석주(石珠)	
토기	태토	조질(粗質) 니질(泥質)
	기형(형태)	3분류
	채색 및 문양	4분류
	토기 그룹 간 상관 관계	

와 샤라오소골강 유역의 구석기시대 유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표 1). 현대의 유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석기를 타제와 마제, 토기를 조질(粗質)과 니질(泥質)로 구분한 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석기를 크게 타제석기·마제석기·석환·석구 등으로 분류한 것은 형식(形式, form)의 설정이며, 형태나 크기, 문양 등은 각 유물의 세분 및 형식(型式, type) 설정을 위한 주요 기준 속성(屬性, attribution)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920년대에 기초적인 유형학적 방법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2]

안데르손은 요녕성 금서현 사과둔(奉天 錦西縣 沙鍋屯)에서 신석기시대 동혈층(洞穴層)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석기와 토기를 분류한 바 있고,[3] 하남성 낙양시 민지현(河南省 三門峽市 澠池縣)에 위치한 앙소촌(仰韶村)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석기[석도(石刀)와 석분(石錛), 석부(石斧), 석촉(石鏃), 석환(石環) 등]와 토기[첨저기(尖底器)와 정(鼎), 력(鬲), 완(碗), 배(杯)] 등 이전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안데르손의 유형학에 입각한 분류는 현재 중국고고학계에서 사용하는 석분과 석부, 정, 력 등 유형학적 분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4] 또한 안데르손은 *An Early Chinese Culture*에서 분(錛)

2 이현우, 2024,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와 그 영향」, 『동북아역사논총』 84, 동북아역사재단, 365~366쪽.

3 安特生 著, 袁復禮 譯, 1923, 『奉天錦西縣沙鍋屯洞穴層』, 農商部地質調查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과(戈)에 대한 분류를 통해 그 변천 과정을 검토한 바 있다.[5] 안데르손의 유형학은 19세기 유럽의 크리스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의 삼시기법(三時期法)과 오스카르 몬텔리우스(Oscar Montelius, 1843~1921)의 유형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선사시대의 시기 구분 및 편년의 틀을 구축하는 데 근간을 마련하였다. 다만, 현대의 유형학과는 차이가 있으나 고고유형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형식 조열을 통한 유물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 등 중국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형학 역시 이 시기 안데르손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초기 중국고고학의 형성은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이론과 방법론 또한 서양고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야외고고학과 지층학, 유형학 등은 20세기 초 중국에 도입된 조사·연구의 새로운 틀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금석학 중심 전통 연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1920년대에는 중국과 외국의 연구자들이 연합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30년을 전후하여 중국 연구자들에 의한 고고학 조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양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서이다(표 2).[6]

중국고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은 해외을 다녀온 연구자들이 주도하였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한 리지(李濟, 1896~1976)와 량쓰융(梁思永, 1904~1954)과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유학한 샤나이(夏鼐, 1910~1985), 우진딩(吳金鼎, 1901~1948), 펑한지(馮漢驥, 1899~1977) 등이 당시 서양의 고고학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고고학의 학술 체계 정립과 제도화에 주력하였다. 그중 리지와 량쓰융, 샤나이 등이 중국고고학을

4 陳星燦, 1997,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72쪽.

5 J. G. Andersson, 1923, "An Early Chinese 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The Geological Survey of China.

6 徐苓, 2009, 『留學生與中國考古學』, 南開大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중국의 해외유학파 고고학자

성명	유학지	대학	전공	유학 후 중국 내 소속
딩원지앙(丁文江)	영국	글래그소대학교	지질학	지질조사소
장홍자오(章鴻釗)	일본	동경(東京)제국대학교	지질학	지질조사소
쉬쉬셩(徐旭生)	프랑스	파리대학교	문학	북평(北平)연구원
궈모뤄(郭沫若)	일본	구주(九州)제국대학	의학	–
위안푸리(袁複禮)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지질학	지질조사소
리지(李濟)	미국	하버드대학교	인류학	역사언어연구소
푸스녠(傅斯年)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런던대학교 베를린홈볼트대학교	심리학	역사언어연구소
장펑(張風)	프랑스	파리대학교	문학	기남(暨南)대학
양중젠(楊鍾健)	독일	뮌헨대학교	동물학	지질조사소
량쓰융(梁思永)	미국	하버드대학교	고고학	역사언어연구소
린후이샹(林惠祥)	필리핀	필리핀대학교	인류학	하문(廈門)대학교
좡상옌(莊尙嚴)	일본	경도(京都)제국대학교	고고학	북경(北京)대학
덩구(滕固)	독일	베를린대학교	예술고고학	국립예전
저우페이즈(周培智)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고고학	중앙대학
펑한지(馮漢驥)	미국	하버드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인류학 고고학	사천(四川)대학
양청쯔(楊成志)	프랑스	파리대학교	민족학	중산(中山)대학
우진딩(吳金鼎)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	역사언어연구소
링자우(岑家梧)	일본	동경입교대학교 동경제국대학	인류학 고고학	국립예전
러선쉰(樂森璕)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지질학	중경(重慶)대학
페이원중(裵文中)	프랑스	파리대학교	고고학	지질조사소
샤나이(夏鼐)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	역사언어연구소
정자오위(曾昭燏)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	중앙박물원
정더쿤(鄭德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고고학	화서협화(華西協和)대학
후자오춘(胡肇椿)	일본	경도제국대학교	고고학	상해(上海)박물관
딩스쉔(丁士選)	일본	경도제국대학교	고고학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성하는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로 평가된다.

먼저 리지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체질인류학을 전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언어학과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았다. 특히 선사고고학과 이집트고고학, 그리스고고학 등의 강의을 수강하면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7]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리지는 19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1926년 산서성 하현(山西省 夏縣)에 위치한 서음촌유적(西陰村遺址)의 발굴을 지휘하고, 1928~1937년까지 은허유적 2~15차까지의 발굴조사를 주도하였다. 그는 은허유적 7차 발굴 이후 현장에서 직접 발굴조사를 지휘하지는 않았으나, 중국고고학이 도약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였는데, 이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유형학을 기초로 한 고고학 연구이다.

리지는 은허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를 기초로 유형학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표 3〉 리지·량쓰융·샤나이의 주요 발굴조사(1924~1948)

성명	연도	발굴조사 유적	비고
리지(李濟)	1924	하남성 신정 동기출토 지점(銅器出土地點)	춘추 문화
	1926	산서성 서음촌유적(西陰村遺蹟)	신석기 앙소문화
	1928~1937	하남성 은허유적(殷墟遺蹟, 2~15차)	상 문화
	1930	산동성 성자애유적(城子崖遺蹟)	신석기 용산문화
량쓰융(梁思永)	1930	흑룡강성 앙앙계유적(昻昻溪遺蹟)	신석기문화
	1931~1936	하남성 은허유적(4·5·10·11·12·14차)	상 문화
	1931	하남성 후강유적(後岡遺蹟)	신석기－상문화
	1931	산동성 성자애유적(2차)	신석기 용산문화
	1936	산동성 와옥촌유적(瓦屋村遺蹟)·대고퇴유적(大孤堆遺蹟)	
	1937	절강성 양주유적(良渚遺蹟)	신석기 양저문화
샤나이(夏鼐)	1942	사천성 두아방(豆芽房), 채자산(砦子山) 애묘(崖墓)	한 문화
	1945	감숙성 정양와만제가문화묘장(寧定陽窪灣齊家文化墓葬)	신석기 제가문화
	1948	옥문관(玉門關)·봉수유적	한 문화

7 徐苓, 2009, 위의 책, 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성과로 은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1933년 발표된 「은허동기오종급기상관지문제(殷墟銅器五種及其相關之問題)」[8]는 중국 연구자에 의한 고고유형학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은허유적에 대한 5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동기(주로 예기와 장식기, 용기, 무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기의 화학분석을 통해 그 성질과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동기를 모두 5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형태와 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리지는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 1892~1957)의 관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중일전쟁 시기(1937~1945)에 집필한 『은허기물갑편(殷墟器物甲片)』에서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은허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1,500여 점의 토기를 저부(底部)와 족(足), 개(蓋)의 형태를 대속성으로 두고 다시 그 안에서 토기의 세부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9] 중일전쟁이 끝난 후, 1948년과 1952년 각각 발표된 「소둔출토지청동기(상편)[記小屯出土之青銅器(上篇)]」[10]와 「기소둔출토지청동기(중편)[記小屯出土之青銅器(中篇)]」[11]에서는 은허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대상으로 분류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유형학적 분류 및 그 변화 양상을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 리지가 유형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서양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구자들의 논저를 위주로 참고하였다. 특히, 윌리엄 매튜 플린더즈 페트리(Wiliam Matthew Flinders Petrie, 1853~1942)의 이집트 화살촉 연구 및 영국 동모(銅矛)의 변화 양상과 스웨덴 동

8 李濟, 1933, 「殷墟銅器五種及其相關之問題」,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73~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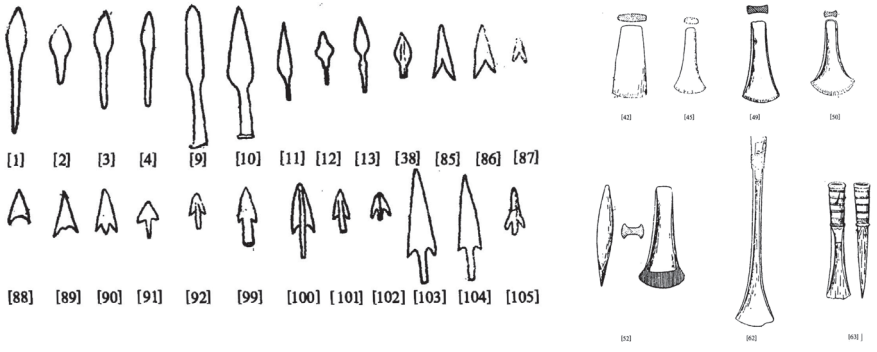
9 李濟, 2006, 「殷墟器物甲編: 陶器(上輯)」, 『李濟文集』 3, 上海人民出版社, 97~149쪽.

10 李濟, 1948, 「記小屯出土之青銅器」, 『中國考古學報』 1948-3, 1~100쪽

11 李濟, 1952, 「記小屯出土之青銅器(中篇 鋒刃器)」, 『臺灣大學文史哲學學報』 1952-4, 1~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銅斧)의 형태와 구조의 변화 등을 인용하였다(그림 1).[12] 이는 리지가 이미 서양의 고고유형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1903년에 발표된 몬텔리우스의 저서 *Die a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1권의 유형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내용[13]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1936년, 1937년 각각 『고고학연구법(考古學研究法)』, 『선사고고학방법론(先史考古學方法論)』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14] 이처럼 당시 대다수의



1. 서양 초기 동촉(銅鏃) 형태　　2. 스웨덴 동부의 형태와 구조의 변화

그림 1 리지가 인용한 서양 고고유형학 분류 도면(李濟, 2006. 원도: 1. W. M. Flinders Petrie, 1917 2.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1)

12 진홍파 지음, 이영남 옮김, 2015, 『중국 과학 고고학의 흥기-1928년~1949년 역사언어연구소 고고학사』, 국학자료원, 259~261쪽.

13 Oscar Montelius, 1903, *Die a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14 孟德魯斯 著, 鄭師許·胡肇椿 譯, 1936, 『考古學研究法』, 世界書局; 蒙德留斯 著, 滕固 譯, 1937, 『先史考古學方法論』, 商務印書館.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서양 연구자들의 저서가 번역되어 출판되거나 소개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유학한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가 1922년에 저술한 『通論考古學』에 몬텔리우스의 유형학 및 페트리의 순서배열법(Seriation)이 소개되었다. 이후 20세기 일본고고학은 유형학의 기반 아래에서 발전되었다(강인욱,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중국 동북지방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고고학보』 56, 한국고고학회, 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고학자는 오스카르 몬텔리우스와 플린더즈 페트리 등 서양 연구자들의 저서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고유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방법론적 구조에서 리지의 고고유형학 연구를 현대 유형학과 비교하면, 속성의 조합이나 형식의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중국 연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15]

1930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량쓰융은 역사언어연구소에 합류하여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가장 먼저 1930년 가을에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앙앙계 세석기유적(昻昻溪 細石器遺址)의 조사[16]와 이듬해 1931년 봄 은허유적의 발굴조사(4차)[17]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하남성 안양현(河南省 安陽縣)에 위치한 후강유적(後岡遺蹟)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같은 해에 산동성(山東省)의 성자애유적(城子崖遺蹟), 1936년 산동성 와옥촌유적(瓦屋村遺蹟)·대고퇴유적(大孤堆遺蹟), 1937년에는 절강성(浙江省)의 양주유적(良渚遺蹟)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중 후강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는 중국고고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동력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량쓰융은 후강유적의 발굴을 통해 자연층(생토) 상부의 퇴적 양상을 토질과 토양의 색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물의 특징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여러 토층을 3개의 대문화층으로 병합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발굴조사 방법을 통해 후강유적의 층위를 하층의 앙소문화(仰韶文化), 중층의 용산문화(龍山文化), 상층의 소둔문화(小屯文化) 등 3개의 문화층이 중첩된 이른바 '후강삼첩층(後岡三疊

15 陳星燦, 1997, 앞의 책, 317~320쪽.

16 梁思永, 1959, 「昻昻溪史前遺址」, 『梁思永考古論文集』,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58~90쪽.

17 리지와 샤나이는 량쓰융이 은허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굴단의 조직, 조사방법이 모두 정상화되는 등 수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李濟, 2006, 『李濟文集』 2, 上海人民出版社. 280~292쪽; 夏鼐, 1954, 「追悼考古學家梁思永先生」, 『新建設』 1954-66, 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層)'이라는 지층 구조를 설정하였다(그림 2).[18]

량쓰융이 설정한 이 후강삼첩층은 기존의 고고지층학에 대한 이론적 인식 체계를 전환하였다. 기존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모두 '수평층 발굴법'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평층 발굴법이란 지층이 처음 퇴적될 때 수평으로 형성된다는 수평 퇴적의 법칙(水平堆積法則, Principle of original horizontality)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수평층에 따라 층위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리지는 인위적으로 33개의 작은 층을 1m 단위로 4개의 큰 층으로 구분하는 수평층 발굴법을 사용하였다.[19] 반면, 량쓰융이 후강유적에 도입한 발굴조사 방식은 이른바 '자연층 발굴법'[20]으로 층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토질과 토양의 색상, 토양 내 유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층위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량쓰융이 1936년 발표한 「소둔, 용산여앙소(小屯, 龍山與仰韶)」라는 논문에서 리지가 지층을 간단하게 구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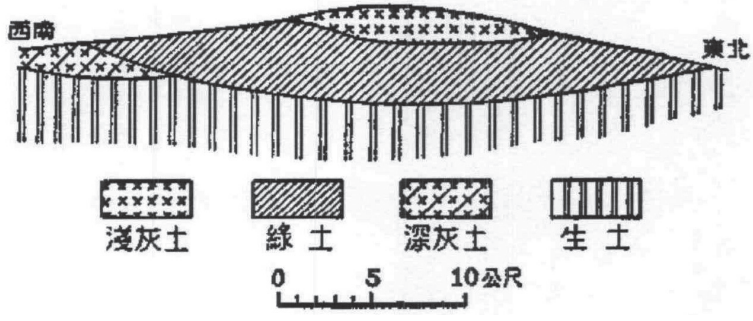


그림 2 후강유적 토층의 단면모식도(梁思永, 1959)

18 梁思永, 1936, 「小屯, 龍山與仰韶」,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下冊,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558~568쪽.

19 진홍파 지음, 이영남 옮김, 2015, 앞의 책, 242쪽.

20 당시에는 자연층으로 불렀으나, 현재는 문화층과 자연퇴적층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퇴적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 발굴법(자연층 발굴법)은 이미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평한 바 있다.[21]

이러한 량쓰융의 고고지층학에 대한 지식과 관점은 미국 유학 당시 미국 서남부의 인디언 유적지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22] 당시 발굴조사를 지휘한 사람은 마야(Maya) 지층학의 틀을 세운 알프레드 빈센트 키더(Alfred Vincent Kidder, 1885~1963)라는 인물이다. 그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층을 어떠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지층의 자연변화에 근거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수평층 발굴법을 비판한 바 있다.[23] 이와 같은 키더의 고고지층학적 관점과 원칙은 량쓰융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량쓰융의 후강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확인된 중원지역의 신석기-청동기시대 제(諸) 문화의 상대적 연대가 수립되었으며, 고고지층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론적 틀이 차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발굴조사를 전환점으로 중국고고학이 과학적 학문의 범주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된다.[24]

한편, 1941년 샤나이가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였다. 그는 리지가 주임으로 있었던 중앙박물원에 근무하면서 우진딩이 주도하는 천강고적고찰단(川康古蹟考察團)에 참여하여 사천성 펑산현(四川省 彭山縣)에 위치한 두아방(豆芽房), 채자산(砦子山) 등지에서 한대 애묘(崖墓)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1943년 역사언어연구소로 옮겨 부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듬해인 1944년 서북과학고찰단 고고조(西北科學考察團考古組)를 이끌고 감숙성(甘肅省)과 신강(新疆) 일대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고고 이론과 방법론 면에서는 감숙성 영정현(寧定縣) 양

21 梁思永, 1936, 앞의 글, 558~568쪽.

22 唐際根·曹音, 1997, 「張光直談中國考古學的問題與前景」, 『考古』 1997-9, 90쪽.

23 陳星燦, 1997, 앞의 책, 238쪽.

24 陳星燦, 1997, 위의 책, 234~2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만(陽窪灣)과 임조현(臨洮縣) 사와산(寺窪山) 등지의 제가문화(齊家文化)의 여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주목된다. 샤나이는 이 발굴을 통해 앙소문화가 제가문화보다 이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데르손이 주장한 앙소문화 채도 서래설(西來說)을 부정하였다.[25] 이는 고고지층학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샤나이가 영국과 이집트 유학으로 쌓은 풍부한 발굴조사 경험과 기술이 이뤄낸 성과[26]와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 리지와 량쓰융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고고학 성립기에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은 중국 스스로 이론체계를 구축하여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서양 학문 체계의 수용과 적응의 과정이었다. 1920년대부터 서양 연구자들이 당시 유럽의 생물학이나 형질인류학, 지층학 등의 여러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고 방법론을 중국의 발굴조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당시 전통적인 금석학 위주의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중국고고학의 실증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해외유학파들이 중국고고학을 이끌면서 서양의 고고 이론과 방법론을 기초로 하되, 중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서양의 학문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국고고학의 독자적 고고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한 것은 아니다. 결국 중국고고학의 형성기는 서양 고고학의 이론 및 실증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이를 중국 현실에 적용 및 조정하는 가운데 기초를 다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고고학은 단순히 서양 학문을 모방하면서도,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배경 속에서 학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25 夏鼐, 1948, 「齊家期墓葬的新發現及其年代的改訂」, 『考古學報』1948-3, 101~117쪽.

26 陳星燦, 1997, 앞의 책, 310~3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고고지층학과 유형학의 발전 양상

위웨이차오(俞偉超, 1933~2003)와 장아이빙(張愛冰)이 1992년 공동으로 발표한 『고고학신이해론강(考古學新理解論綱)』에 의하면, 중국고고학은 지층론(地層論)·유형론(類型論)·문화론(文化論)·환경론(環境論)·취락론(聚落論)·계량론(計量論)·기술론(技術論)·전식론(全息論)·예술론(藝術論)·가치론(價值論) 등 10가지 이론 및 방법론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7] 그중 지층론·유형론·문화론은 전통적인 중국고고학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고고학 조사 및 연구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론·취락론·계량론·기술론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신고고학(New Archaeology)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으로, 자연과학적 분석 기법 및 정량적 자료 활용의 확대에 따라 점차 수정·보완되며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식론·예술론·가치론은 위웨이차오와 장아이빙이 중국고고학의 인문학적 확장을 위해 새롭게 제안한 이론으로, 고고학을 단순한 물질문화의 복원에서 벗어나 전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상의 10대 고고 이론 및 방법론 가운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고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지층론(층위론)과 유형론(형태론)이다.

1. 고고지층학(考古地層學)에 대한 제(諸) 논의와 전개

『중국대백과사전·고고학(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에 의하면, "고고학은 고대 인류가 각종 활동을 통해 남긴 실물에 근거하여 인류의 고대 사회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8] 그중 고고지층학은 문화층의 축적과 다

27 俞偉超·張愛冰, 1992, 「考古學新理解論綱」, 『中國社會科學』 1992-6.

28 考古學編輯委員會, 1986, 『中國大百科全書: 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Ⅰ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한 유적의 층위 및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선후 또는 동시 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장 고고학 작업을 안내하는 이론적 근거이자 방법론이다.[2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고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고지층학은 1931년 량쓰융이 후강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앙소와 용산, 소둔의 세 시기의 퇴적물들이 서로 적층(積層)되어 있는 층위 관계인 '후강삼첩층'을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되었던 자연층 발굴법은 이전의 수평층 발굴법을 대체하게 된다. 이처럼 량쓰융의 고고지층학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인식은 리우야오(劉耀, 1906~1983), 스장루(石璋如, 1902~2004), 우진딩 등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후 여러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조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30]

1960년대 이후, 중국은 중소(中蘇) 분쟁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등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고고학 역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된다.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과 정치 상황의 악화,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극좌운동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중국고고학계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시기[31]를 제외한 1949~1959년까지 중국은 고고학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가 양성에 주력한다. 또한 고고학 현장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스싱방(石興邦, 1923~2022)과 샤나이 등 연구자들은 고고지층학의 원리와 활용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고고지층학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32]

---

29 楊立強, 2013, 「對考古地層學的認識」, 『文物世界』 2013-1, 22쪽.

30 진홍파 지음, 이영남 옮김, 2015, 앞의 책, 267쪽.

31 중국의 고고학 관련 기관과 학교의 고고학 전공이 사실상 마비되어 전문 서적 출간이 중단되었다. 1972년 이후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고고학보(考古學報)』와 『고고(考古)』, 『문물(文物)』 등 주요 고고학 3대 간행물이 복간되고 고고학자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며 현장 작업이 점차 재개되었다(嚴文明, 1998, 「中國新石器時代研究簡史」, 『史前考古論集』, 科學出版社, 70쪽).

32 石興邦, 1956, 「略談新石器時代晚期居住遺址的發掘」, 『考古』 1956-5; 夏鼐, 1959, 「月野考古方法」, 『考古學基礎』,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첫째, 퇴적층의 두께와 연대는 일정 관계가 있으므로, 퇴적층의 두께로 연대의 폭을 측정

둘째, 1930년대, 량쓰융이 제기한 토질과 토양의 색상, 그리고 토양 내 포함된 물질에 따라 퇴적층을 구분하는 고고지층학의 원칙은 고수. 그러나 퇴적층의 퇴적 양상이 정연하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수평층 발굴법이 다수의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조사 방식으로 사용

셋째, 퇴적층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문화층과 자연퇴적층을 구분하지 않음. 또한 교란층에 대한 인식 부재

이상과 같이 당시의 고고지층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사실상 1930년대 이후 전혀 변화 혹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관점과 인식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당시 직면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적층의 두께와 연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 간 절대적인 관계는 상정할 수 없으며, 문화층의 두께만으로 연대를 단정할 수 없음이 지적됨

둘째, 수평층 발굴법에 대해서는 동일 시기의 퇴적층이 반드시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굴조사 시 인위적으로 같은 깊이로 굴착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원 퇴적층(1930년대 고고지층학의 원칙)에 따라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함

셋째, 문화층과 퇴적층의 구분과 관련하여, 퇴적층은 인위적, 자연적인 것 2가지 원인밖에 없으므로 관찰을 통해 자연퇴적층과 문화층, 교란층 등에 유의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함(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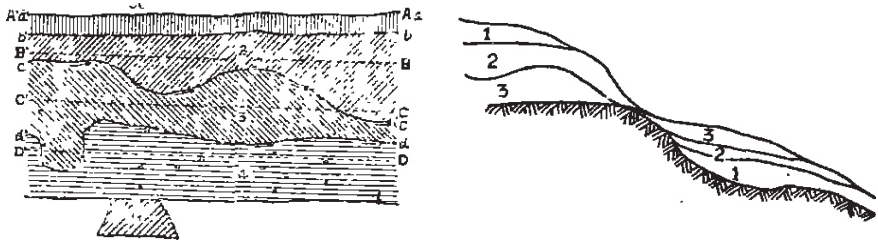
이러한 논의는 중국 고고지층학이 1930년대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동적이고 종합적인 층위 이해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스싱방은 〈그림 3-2〉와 같이 "고지에 퇴적된 3 → 2 → 1 순서의 원 퇴적층은 홍수나 붕괴 등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유실되어 1 → 2 → 3의 퇴적층으로 전도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할 정도로 지층 형성의 복잡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33] 이는 문화층과 자연층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자연적·인위적 작용에 따른 층위의 복잡성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후 고고학의 과학화와 지층학과 지구과학 등 다학제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당시 중국고고학은 고고 자료의 상대연대(相對年代)를 결정하는 데 고고지층학의 역할을 핵심 이론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지층과 유물·유구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연구자들은 고고지층학을 통한 층위 판독과 편년 체계의 정립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소련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소련 고고학자들의 저서들이 번역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바로 고고지층학과 관련된 것이다.[34] 그러나 중국 연구자들이 소련고



1. 원 퇴적층과 후 교란층　　2. 문화층 전도(顚倒) 양상

그림 3 퇴적층 관계 모식도(石興邦, 1956)

33 石興邦, 1956, 위의 글. 스싱방은 홍수에 의한 침수, 화산 폭발로 인한 퇴적, 잡초와 모래바람에 의한 퇴적 등으로 형성된 지층을 여전히 '문화층'으로 명명하였으나, 이미 문화층과 자연퇴적층을 구분하고자 하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劉斌·張婷, 2003, 「建國後考古地層學的發展」, 『文博』 2003-3, 30쪽).

34 劉斌·張婷, 2003, 위의 글, 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학의 고고지층학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소련의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르보비치 몽가이트(Aleksandr Lvovich Mongait, 1915~1974)는 "고고학자는 기반층(생토)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다"[35]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연구자들은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층은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36] 또한 스싱방은 "유물이나 유적의 현상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한 유물의 출토 지점과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유적의 유물들과 관계가 있다"[37]라고 지적하면서 주요 퇴적층의 보호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스싱방의 관점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고고지층학의 횡적 기능과 유적과 유적 간의 관계, 즉 퇴적층의 문화적 연속성을 주목한 사례로 생각된다. 또한 후대에 퇴적층을 다시 굴착하여 조성한 유구나 교란된 구덩이의 경우, 그 아래의 퇴적층과 하나의 단위(동일 시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해석은 유적의 연대(실제 퇴적 순서)를 은폐하고 문화적 성격을 해석하는 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38]

이처럼 고고지층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중국 연구자들은 그동안의 오류를 깨닫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 1958~1960)이 일어난 시기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고고학의 학문적 전통이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고, 지층학과 유형학 심지어 일반적인 고고학 조사 기술조차도 부르주아 계급의 사이비 과학으로 여겨지거나 번거로운 철학으로 규정되어 비판받았다.[39]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경대학(北京大學)의 고고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황하수고공작

35 蒙蓋特 著·華平 譯, 1956a, 「蘇聯考古學緖言(第一章)」, 『考古』 1956-5; 1956b, 「蘇聯考古學緖言(第一章)」, 『考古』 1956-6; 1957, 「蘇聯考古學緖言(第一章)」, 『考古』 1957-1.

36 張雲鵬, 1957, 「由湖北石家河遺址發掘方法的 主要錯誤談學習蘇聯先進經驗」, 『考古』 1957-2.

37 石興邦, 1956, 앞의 글, 79쪽.

38 孫祖初, 1998, 「考古地層學的中國化曆程」, 『青果集』, 知識出版社, 468쪽.

39 張忠培, 1999, 「二十世紀後半期中國新時期時代考古學的曆程」, 『中國考古學走進曆史真實之道』, 科學出版社, 8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黃河水庫工作隊)의 섬서분대화현대(陝西分隊華縣隊)는 발굴조사에서 하나의 퇴적층과 그 아래 단위(유구), 혹은 하나의 퇴적층과 굴광을 같은 층위나 시기로 구분하던 기존의 고고지층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동일 퇴적층상에 공존하는 여러 단위(유구)를 같은 층위 및 시기로 구분하였다. 또 하나의 퇴적층과 후대의 퇴적층상의 수혈유구와 거주지, 무덤 등을 모두 독립된 층위로 파악하여, 층위 판독의 정밀성을 높이고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40] 이러한 시도는 진보적인 고고지층학의 실제 적용 사례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당시의 정치적 제약과 고고학계 내 교류가 부족하여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한 발굴조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이후 중국의 고고지층학이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고고지층학은 단순한 발굴 기술이 아닌 고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과 방법론으로서, 당시 시대 상황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속적인 재해석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현재 다원화되고 있는 고고 이론과 방법론 가운데서도 고고지층학은 여전히 편년 설정, 문화 연속성 해석, 유구 간 관계 분석 등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고고유형학(類型學)의 발전

1920년대, 에밀 리상과 테아르 드 샤르댕, 안데르손 등 서양 연구자들이 중국 내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와 채집된 유물들을 통해 유형학적 방법으로 분석을 시작한 후, 1930년대 리지와 량쓰융을 시작으로 중국의 연구자에 의한 고고유형학이 태동하게 된다. 위웨이차오에 의하면, 량쓰융이 1930년 산서성 서음촌 유적에서 출토된 앙소문화시기 토기에 대한 유형학적 분석은 토기의 국부적 형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앙소문화 토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실패하

40 張忠培, 1999, 위의 글, 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고 평하였다. 그는 또한 리지의 유형학 이론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형질인류학(形質人類學)'의 영향으로 보았는데, 이는 인류의 형질적 차이 및 변화는 유물의 형태 차이나 변화와는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동일한 유형학적 방법을 통한 분류와 기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41] 즉,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물의 형태를 분석하면 유물 자체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중국고고학에서 전개된 고고유형학은 전체 유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구분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리지 스스로 자신의 연구가 "유형학이 아니라, 그저 유물을 분류했을 뿐이다"[42]라고 회고한 데에서도 알 수 있으며, 고고유형학이 분석의 대상과 방법론을 정교화하지 못한 채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후 중국고고학에서 유형학은 쑤빙치(蘇秉琦, 1909~1997)에 의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그림 4).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국고고학에 대한 쑤빙치의 공헌을 언급할 때 따라붙는 '20세기 중국고고학의 이정표', '중국고고유형학의 창시자' 등의 칭호이다.[43] 쑤빙치가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 고고유형학 연구의 본보기로 일

그림 4 쑤빙치(蘇秉琦, 1984)

41 俞偉超, 1989, 「關於"考古類型學"的問題-爲北京大學七七至七九級青海, 湖北考古實習同學而講」, 『考古類型學的理論與實踐』, 文物出版社, 3~4쪽.

42 진홍파 지음, 이영남 옮김, 2015, 앞의 책, 261쪽.

43 俞偉超, 2001, 「20世紀中國考古學的一座裏程碑」,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컬어지는 「와력적연구(瓦鬲的研究)」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44]

1934~1935년, 쑤빙치는 국립북평연구원(國立北平研究院) 소속으로 섬서성 보계시(陝西省 寶雞市)에 위치한 투계대유적(鬪雞臺遺蹟)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섬서성에서 채집 및 구입한 와력(瓦鬲)[45]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1941년 여름에 『투계대발굴소득와력적연구(鬥雞臺發掘所得瓦鬲的研究)』라는 논문 한 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일어나면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못했다. 이후 1948년, 투계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묘장(墓葬)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인 『투계대구동구묘장(鬪雞臺溝東區墓葬)』이 국립북평연구원 사학연구소(史學研究所)를 통해 발간되었다. 이때 1941년에 집필한 쑤빙치의 논문이 「와력적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부록에 수록되면서 처음 공개되었다.[46] 또한 1984년, 이 논문은 『쑤빙치고고학논술선집(蘇秉琦考古學論述選集)』에 수록되는데,[47] 문물출판사(文物出版社)의 발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쑤빙치의 논문을 40여 년 만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5).

쑤빙치의 「와력적연구」는 '투계대 출토 와력의 형태와 연대(鬪雞台出土瓦鬲的形制與年代)', '와력의 분포와 변화(瓦鬲的分布與演變)', '와력의 발생(瓦鬲的發生)', '와력의 소멸(瓦鬲的消滅)', '와력의 계보(結語)' 등 모두 5부분으로 구성

---

44 楊晶, 2009, 「中國考古類型學研究的典範之作」, 『南方文物』 2009-1, 36쪽.

45 와력이라는 용어는 『공자가어(孔子家語)』("魯有儉嗇者, 瓦鬲煮食")와 『진서(晉書)』("作瓦鬲以食") 등 중국 고대 문헌 기록에서 확인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와는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의 총칭("土器已燒之總名")이고, 력은 정(鼎)에 속하며, 용적이 5곡(觳)이고, 삼족(三足)이("鼎屬. 實五觳. … 三足.") 달린 토기를 말한다. 이상 문헌 기록을 통해 보면, 와력은 중국 고대 토기 가운데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취사기의 명칭으로, 형태가 정과 유사하며 삼족이 달린 토기임을 알 수 있다.

46 蘇秉琦, 1948, 「瓦鬲的研究」, 『鬪雞臺溝東區墓葬』, 國立北平研究院 史學研究所.

47 蘇秉琦, 1984, 「陝西省寶雞縣鬪雞台發掘所得瓦鬲的研究」, 『蘇秉琦考古學論述選集』,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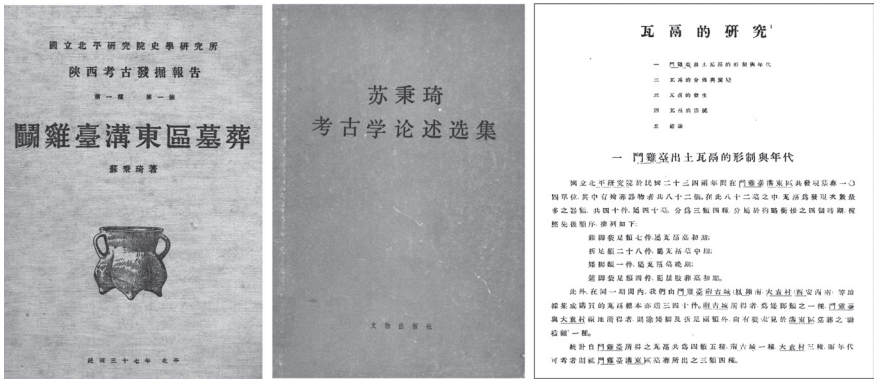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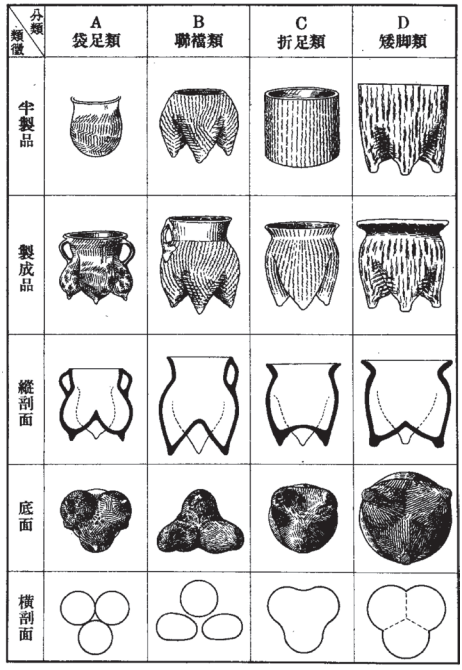
그림 5 『투계대구동구묘장(鬪雞臺溝東區墓葬)』(좌: 蘇秉琦, 1948)·『쑤빙치고고학논술선집(蘇秉琦考古學論述選集)』(중: 蘇秉琦, 1984)·「와력적연구(瓦鬲的研究)」(우: 蘇秉琦, 1984)

되어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쑤빙치는 국립북평연구원이 1934~1935년 발굴조사한 투계대유적 104기 묘장 가운데 40기에서 출토된 40점의 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투계대유적 동구 묘장에서 출토된 와력의 족(足)과 저부(底部), 파수(把手)의 유무와 형태, 그리고 크기와 횡단면의 형태 등에 따라 모두 A~D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6). 유형 분류와 제작기술을 통해 와력의 변화 양상과 발생을, A형(A1→ A2) → (과도기: AB형) → B형 → (과도기: BC형) → C형(C1 → C2 → C3) → (과도기: CD형) → D형(D1 → D2 → D3 → D4)의 순서로 판단하고, 가장 이른 유형인 A형의 연대가 앙소문화의 채도보다 조금 늦은 시기임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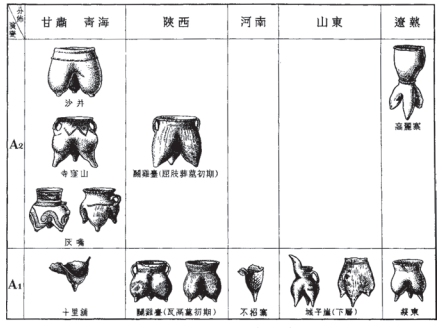
또한 그는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와력과 비교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A형은 위하(渭河)중하류[또는 예서(豫西) 일대 포함]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감청(甘青), 동쪽 산동, 북쪽 열하(熱河), 남쪽 강회(江淮) 지역에 분포한다. B형은 예서 일대에 주로 분포하며, 관중(關中) 지역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C형은 위하 중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예서 일대에서도 확인된다. D형은 대부분 관중과 하남 및 산동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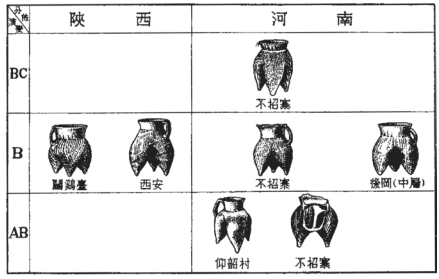
圖一　瓦鬲的分類

1. 와력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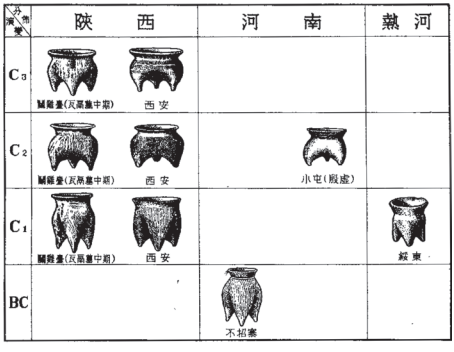
圖二　袋足鬲(A型)

2. 지역별 A형(型) 와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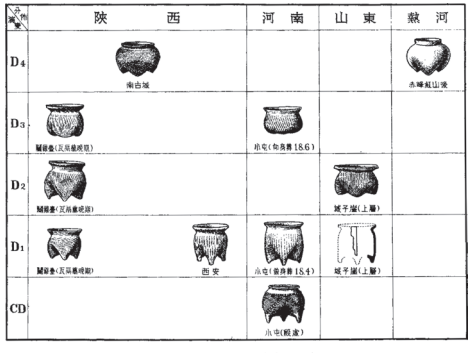
圖三　聯襠鬲(B型)

3. 지역별 B형 와력(AB·BC형: 과도기)



圖四　折足鬲(C型)

4. 지역별 C형 와력(BC형: 과도기)



圖五　矮脚鬲(D型)

5. 지역별 D형 와력(CD형: 과도기)

그림 6 쑤빙치의 와력 유형 분류(蘇秉琦, 194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쑤빙치는 와력의 소멸을 제작과 사용, 즉 와력이 어떻게 도태(淘汰)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와력은 대체로 기원전 5세기경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4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시기가 늦은 D형에서 점차 족이 짧아지다 사라지는 형태로 족이 진화상 퇴화된 것으로 보고, 이후 부(釜)로 대체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와력의 지지방식이 변화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퇴화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기능의 변화 및 기술적 전환이 유물 형식의 퇴화 및 소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와력의 발생 및 진화 순서에 따라 4개의 분기를 설정하였으며, 각 분기의 시공간적 범위와 계보를 분석하였다. 먼저 1기는 와력의 와력의 원시적 형식인 A형의 출현 시점부터 과도기형인 AB형이 나타나기 전까지로, 신석기시대 말기 앙소문화(仰韶文化) 후기에서 용산문화(龍山文化) 전기에 해당된다. A형은 하남·섬서 지역 일대에서 등장하였으며, 하남 지역에서는 용산문화 전기에 소멸되었지만, 섬서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C형의 유행과 함께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일부 지역, 특히 감숙·청해 및 동북지역에서는 전국시대까지 A형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기는 AB형의 등장부터 BC형 출현 이전까지를 포함하며, 전형적인 용산문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B형 와력이 중심적으로 나타나며, 예서(豫西) 지역에서 기원하여 동북, 예북(豫北), 관중(關中)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기는 BC형 출현 이후부터 CD형과 부(釜)의 등장 이전까지로, 시기적으로는 전국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C형 와력의 확산이며, 이는 B형과 마찬가지로 예서 지역에서 기원하였으며, 용산문화 후기에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주시대가 되면 C형의 후기 양식과 D형의 초기 양식이 하남 일대에서 병행된다. 제4기는 D형 와력의 정형화 및 전국적 확산기에 해당하며, 특히 상문화(商文化)의 중심지인 소둔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D형 와력의 후기 양식이 섬서 지역을 비롯하여 산동과 동북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일정한 형식적 변화 양상을 공유하며 동일 계보상에 위치한다(그림 7).

이상 쑤빙치의 와력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와력의 유형분석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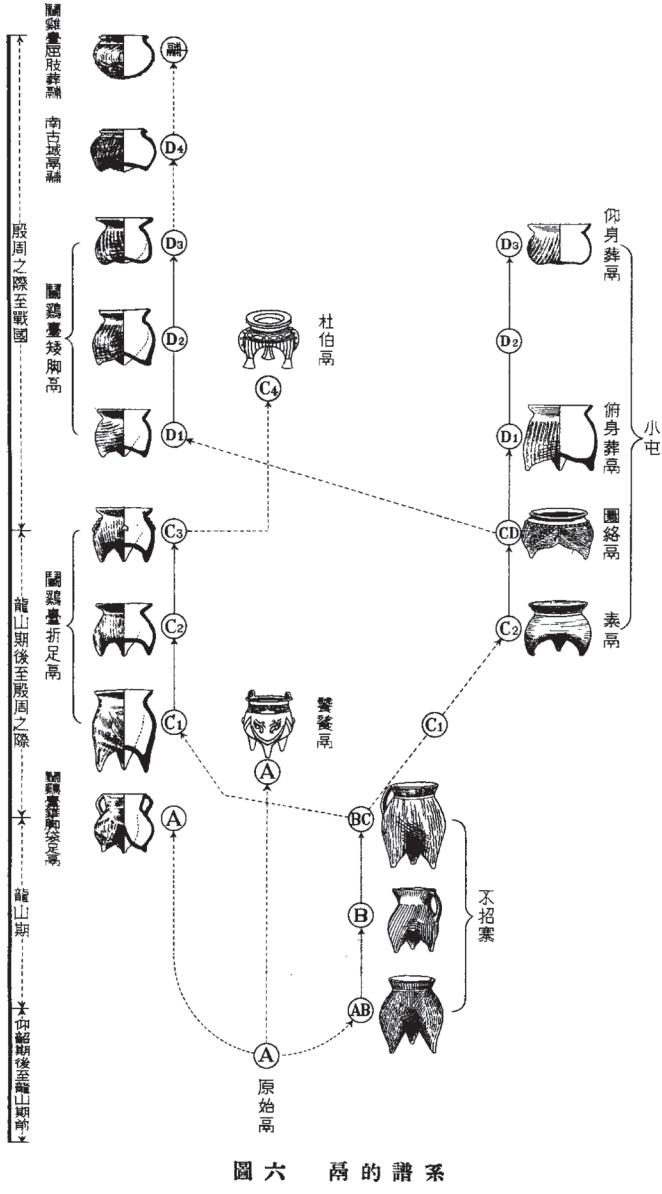


그림 7 와력의 시공간 범위 및 계보(蘇秉琦, 194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각 유형의 분포 범위와 존속 시기를 계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와력이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까지 약 1,000년에 걸쳐 단계적 변화 과정을 거쳤음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쑤빙치가 유형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데 '유형(類型)'과 '류(類)', '형(型)', '식(式)', '조(組)'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A유형', 'A류', 'A형' 등과 같이 유형(類型)과 류(類), 형(型)을 족(足)이나 저부(底部), 파수(把手)의 유무와 형태, 그리고 크기와 횡단면의 형태 등 속성(屬性, attribute)[48]의 조합으로, 즉 형태적인 의미를 갖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출토 유적의 연대와 층위 등을 통해 각 유형 내에서 상대적 순서를 설정하고, 동시기의 같거나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갖는 와력을 하나의 조(組)로 묶어 'A1', 'A2와 같이 식(式), 즉 아형(亞型)으로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와력에 대한 유형학 분석에서 속성들의 조합인 유형(類型)과 식(式), 즉 현대 유형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식(型式, type)을 통해 와력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현대 고고유형학에서 활용되는 주요 개념인 형식(形式, form)과 형식(型式, type), 양식(樣式, Style), 속성(屬性, attribute), 원시력(原始鬲)이라는 '고식(古式, primitive type)'의 개념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8).

이처럼 쑤빙치의 유형학적 분류를 통한 와력의 변천 양상과 시·공간적 범위의 분석은 이전의 서양과 중국 연구자들을 뛰어넘는 정교하고 발전된 접근 방법이다. 즉, 1940년대 이미 중국고고학에서 고고유형학은 쑤빙치에 의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물의 형식 변화를 속성 기반의 분류 체계로 설명하고, 연대와 공간적 확산 양상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유형학의 분석 방법을 고고학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쑤빙치의 「와력적연구」는 중국고고학의 유형학이라는 방법론의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중국 고대사의 구조적 이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48 쑤빙치는 속성을 선정할 때, 육안으로 확인되는 형태, 즉 명목 속성 외에 와력의 높이와 너비의 비례 등 비명목 속성까지 사용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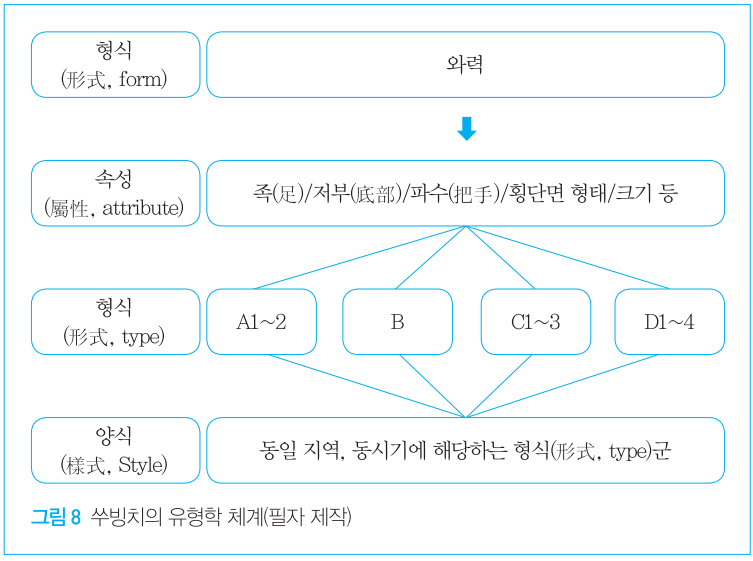


그림 8 쑤빙치의 유형학 체계(필자 제작)

였다. 쑤빙치는 와력과 정(鼎)이 각기 다른 문화적 기원을 지닌 유물임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商)과 주(周) 문명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제기하였다. 이는 단순한 유물 분류를 넘어, 중국 문명의 기원과 분화 양상을 탐색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이론적 시도로 생각된다.

한편, 쑤빙치의 「와력적연구」의 중요성은 단지 고고방법론, 즉 유형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1981년 발표하게 되는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의 첫걸음이 바로 이 「와력적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계유형론은 중국 선사문화의 전개 양상에 대해, 전통적인 중원중심론(中原中心論) 또는 일원론적 발전모델을 비판하며, 중국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나갔다는 문화다원론(文化多元論)의 관점에서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와력적연구』에서 확인되는 형식 분포의 지역적 다양성과 시간적 변화 양상을 통해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쑤빙치는 1965년에 발표한 「관어앙소문화적약간문제(關於仰韶文化的若幹問題)」[49]에서 구계유형론의 기본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앙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화와 굴가령문화(屈家嶺文化), 청련강-대문구문화(靑蓮崗-大汶口文化) 등 신석기시대의 주요 문화를 분석하여, 중원지역의 앙소문화를 신농시대(神農時代)로, 용산문화를 황제(黃帝)와 요순시대(堯舜時代)로 각각 대응시킴으로써, 각 문화 유형을 고대 전설시대와 연관 지어 해석하려 하였다. 특히 앙소문화를 한족(漢族)의 형성 시기로 보면서, 해당 문화가 사회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주변 문화와의 교류 및 상호작용이 더욱 긴밀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신석기시대의 문화 발전이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관계가 점차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쑤빙치의 연구는 중국 문명의 기원과 전개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원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Ⅳ. 절대연대측정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고고학은 이론과 방법론의 기초를 다지면서 성장해나갔다. 특히 고고지층학과 고고유형학은 고고학적 상대연대(相對年代)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이론으로 정착되었으며, 고고학 조사 현장에서 유구와 유물의 시공간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틀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또한 중국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분석법, 즉 절대연대측정법(絶對年代測定法)의 도입과 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에서 절대연대측정법 가운데 하나인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Radiocarbon dating)이 도입된 과정과 실험실 설립, 초기 적용 사례 및 학문적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고고학이 상대연대 중심의 단계에서 과학적 분석을 병행하는 새로운 연구 체계로 나아간 배경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49 蘇秉琦, 1965, 「關於仰韶文化的若幹問題」, 『考古學報』 196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도입은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5년 샤나이는 「방사성동위소재고고상적응용(放射性同位素在考古上的應用)」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처음 중국고고학계에 소개하면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이 산업과 의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고고학에서 활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중요성과 중국고고학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학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고고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건립을 제안하였다.[50] 그로부터 5년 뒤인 1960년, 샤나이의 제안을 토대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에 방사성동위원소(C14)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이 건립되었다. 이 실험실이 바로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중국 최초의 전문 연구 기구로서, 이후 중국고고학계에서 절대연대 측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중국 선사고고학의 연대체계 재편성과 이론 정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도입과 시도에 대해서는 중국 방사성탄소연대측정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치우스화(仇士華)의 저서 및 2008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51] 치우스화는 중국 강소성 여고현(江蘇省 如皋縣) 출신으로, 1955년 복단대학(複旦大學)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같은 해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近代物理研究所, 현 중국원자능과학연구원(中國原子能科學研究院)]에서 원자력 기초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57년 치우스화 등 젊은 연구원들은 반우파투쟁과 함께 전개된 하방운동(下放運動)[52]으로

50 夏鼐, 1955, 「放射性同位素在考古上的應用-放射性炭素或炭14的斷定年代法-」, 『考古通訊』 1955-4, 73~78쪽; 1977, 「碳-14測定年代和中國史前考古學」, 『考古』 1977-4, 217~232쪽.

51 仇士華·蔡蓮珍, 2009, 『14C測年級科技考古論集』, 文物出版社; 仇士華·張雪蓮, 2008, 「中國碳十四年代學的始創者-仇士華先生訪談錄」, 『南方文物』 2008-4, 8~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해 연구원 대부분이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근대물리연구소 제5 방사화학(放射化學)[53] 연구실 주임 양청종(楊承宗, 1911~2011)은 치우스화 등을 샤나이에게 소개하였다. 당시 고고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샤나이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샤나이는 당시 근대물리연구소 소장이었던 치엔산치앙(錢三強, 1913~1992)에게 치우스화 등을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출을 요청하였고, 이후 요청이 받아들여져 치우스화 등의 젊은 연구원들은 1959년 초에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로 옮겨와 샤나이와 함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치우스화가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은 고고연구소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가능한 비례계수관 등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이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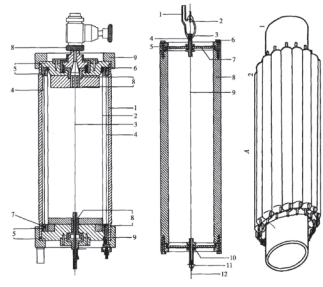
당시 중국에서 사용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가속질량분석기, 즉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방사성연대측정법은 윌라드 프랭크 리비(Willard Frank Libby, 1908~1980)가 이론과 방법론적 기초가 세워졌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측정법이 제기되었다. 1950년대에는 토양 탄소(Soil-Carbon)를 이용한 측정법이 성행하였는데,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 오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스비례계측법(Gas Proportional Counting)'이라는 시료를 가스로 전환하는 연대측정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측정법은 설비 자체의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196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액체섬광계측법(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

52 중국의 당원이나 공무원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농촌, 공장 등에 보내 노동에 종사시킨 운동이다. 1957년 정풍운동(整風運動)에서 시작되어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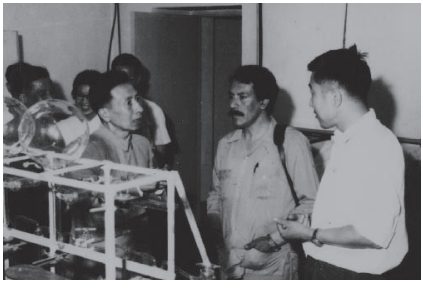
53 방사성 동위 원소를 다루는 화학의 한 분야로서,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의 분포, 인공 방사성 원소의 생성, 방사성 원소의 분리와 정제, 그 화합물의 성질이나 이용을 연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가스비례측정기 제작·설치(1959~1962)



2. 계수관 설계도 및 식도(1959~1962)



3.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연구실 및 외국연구자 참관 모습(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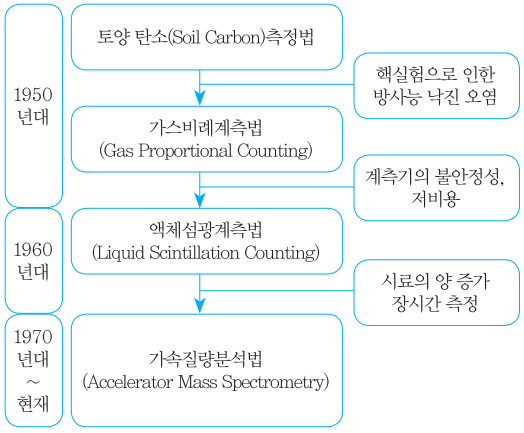
그림 9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방사성탄소연대측정기 설치와 연구실 참관 모습(1·3–좌.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홈페이지 2. 仇士華·蔡蓮珍, 2009 3–우. 柴华·李思默, 2023)

ing)이 사용되었다. 이후 1970년 말,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Simon Fraser)와 맥마스터(McMaster)대학의 공동 연구진과 미국 로체스터(Rochester)대학 연구진이 시료의 양이 적어도(기존 연대측정법에 사용한 시료의 1/1000) C14을 검출할 수 있는 연대측정법인 가속질량분석법(AMS)을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림 10-1).[54]

이상 방사성탄소연대측정기의 변천 과정을 통해 보면, 치우스화 등이 설계

54 Sheridan Bowman 저, 이선복 역, 2014,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사회평론아카데미, 76~9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변화 모식도

放射性碳素测定年代报告（五〇）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科技考古中心碳十四实验室

关键词： 碳十四测年　碳十四半衰期　考古遗址

KEYWORDS: ^{14}C Dating　Half Life of ^{14}C　Archaeological Sites

ABSTRACT: Radiocarbon dating data published in this report are based on pre-treatment and graphite target preparation conducted by the ^{14}C laboratory of the Center for Scientific Archaeology, Institute of Archae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o accelerator testing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Heavy Ion Physics at Peking University from 2023–2024. This batch of data involves 34 dating samples from three archaeological sites: 23 samples from the Zhangjiawa site in Laishui County, Hebei; 5 samples from the Sarxingcun site in Jinan District, Changzhou City, Jiangsu; and 6 samples from the Hannuoyi city site, Kashgar City, Xinjiang.

本报告发表的碳十四年代数据由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科技考古中心碳十四实验室在2023年和2024年初完成前处理和石墨靶预制，并委托北京大学重离子物理研究所进行加速器质谱测试，共涉及3个考古遗址34个样品的碳十四年代数据。为方便应用做如下几点说明：1.碳十四年代半衰期按5568年计算；2.校正年代所用程序为OxCal 4.4.4，所用树轮曲线为IntCal20；3.所给年代误差范围为±1.6和±2.6，相应年代范围的概率分布为68.2%和95.4%；4.由于树轮年代校正曲线各区段形状不同，校正后年代范围可能形成几组，合计概率分别为68.2%和95.4%；5.校正均按单一样品方式处理；6.数据均作碳十三（δ ^{13}C）校正。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提供：
河北省涞水县张家庄遗址（北纬39° 21′ 30″，东经115° 39′ 47″）采集样品。

ZK-11830	涞水县　张家庄		
碳十四年代	校正年代		
2725 ± 20	公元前		
公元前775	1σ：897 – 867BC（36.1%）		
	856 – 831BC（32.1%）		
	2σ：911 – 816BC（95.4%）		

普普，2021年8月19日陈景羽采自嘉祥2021 LSZJWM2面洞，狗，股骨。

ZK-11909	涞水县　张家庄		
碳十四年代	校正年代		
2745 ± 20	公元前		
公元前795	1σ：907 – 894BC（15.7%）		
	876 – 836BC（52.6%）		
	2σ：928 – 826BC（95.4%）		

普普，采自灰坑2022LBH5，绵羊，右侧桡骨。

ZK-11910	涞水县　张家庄		
碳十四年代	校正年代		
2820 ± 20	公元前		
公元前870	1σ：1005 – 967BC（39.2%）		
	959 – 931BC（29.1%）		
	2σ：1043 – 1034BC（2%）		
	1016 – 910BC（93.4%）		

2. 중국 방사성탄소측정연대보고서

그림 10 방사성탄소측정법의 변천과 보고서(1. 필자 제작 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科技考古中心碳十四實驗室, 2024).

하고 제작했다는 비례계수관은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가스비례계측기를 이용한 연대측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2년에는 시범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고, 1965년까지 수많은 유물과 유적에 대한 연대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주로 선사고고학의 연대를 밝히는 데 활용되었다. 1979년까지 277개 이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데이터[55]를 토대로 구석기시대 후기를 포함한 앙소문화와 용산문화 등 선사시대 연대의 틀을 구축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선사시대 다양한 문화의 절대연대를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추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지역의 신석기 문화 간의 시간적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사성탄소

55 佟柱臣, 1979, 「新的發現、新的年代測定對中國石器時代考古學提出的新問題」, 『社會科學戰線』 1979-1, 2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대측정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지층과 유물의 상대적 관계를 절대연대로 보완하여, 유형학적 분석과 지층학 연구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고지층학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샤나이와 치우스화 등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정식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실험실이 건립되었으며,[56]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과기고고중심 C14실험실(科技考古中心 碳十四實驗室)에서는 1972년부터 주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보고서를 『방사성탄소측정연대보고(放射性碳素測定年代報告)』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모두 50편이 발표되었고(그림 10-2), 여전히 중국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하나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V. 맺음말

중국고고학은 1920년 이래로 역사유물주의를 기초로 과거 물질문화의 연구와 역사의 진화 법칙의 해명, 그리고 중국 민족의 역사를 재건하기 위한 근거의 확보 및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입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가 중국고고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고고 이론과 방법론 정립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은 전통적인 금석학 중심의 역사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과 민족주의 등이 맞물려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의 고고학 이론과

56 북경대학은 1973년 고고학과[현 고고문박학원(考古文博學院)]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실험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액체섬광계측법을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실험실을 구축한 사례이다[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https://archaeology.pku.edu.cn/info/1238/1876.htm(검색일: 2024.11.13.)]. 이후 사회과학원은 2004년, 북경대학은 2007년부터 가속질량분석기를 통해 연대를 측정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법, 특히 유적의 층위에 기반한 지층학과 유물의 변화를 분석하는 유형학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고고학이 서구 고고학의 과학적 접근법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서양 연구자들에 의해 야외조사와 고고지층학, 유형학 등 고고 이론과 방법론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 리지와 량쓰융, 샤나이 등 해외 유학을 다녀온 중국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체계를 이루어간다. 이들은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지층학'과 유물이나 유구, 나아가 유적 분석을 위한 '유형학' 등을 중국고고학에 도입 및 접목함으로써 중국고고학의 토대를 다졌다.

1949년 이후 고고지층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기존의 전통적인 고고지층학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고고학 조사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동시에 고고유형학은 쑤빙치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전의 단순히 유물을 구분하기 위한 기초적인 유형학에서 벗어나 형식(形式, form)과 형식(型式, type), 고식(古式, primitive type), 양식(樣式, Style), 속성(屬性, attribute)의 개념들을 모두 정확히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형학적 분석과 분류를 통해 와력(瓦鬲)의 변천 양상 등의 시·공간적 분석은 훗날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이라는 다원론적 문화론의 이론적 틀을 구상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절대연대측정법을 위한 기초를 세운 시기이기도 하다. 샤나이와 치우스화 등 여러 연구자의 주도로 전문적인 연구소 설립과 측정기 제작 등 방사성탄소연대측정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다졌다. 이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적과 유물의 절대연대를 밝히는 등 중국고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1949~1979년은 중국고고학에서 여러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에서부터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중국고고학의 기초를 다졌고, 이론과 방법론이 태동하고 정립되어간 시기였다. 이 시기의 고고지층학과 유형학, 절대연대측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법(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등은 이후 중국고고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국고고학 연구의 핵심 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류리·천싱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중국고고학-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Sheridan Bowman 저, 이선복 역, 2014,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사회평론아카데미.

진홍파 지음, 이영남 옮김, 2015, 『중국 과학 고고학의 흥기-1928년~1949년 역사언어연구소 고고학사』, 국학자료원.

陳星燦 지음, 趙賢庭 외 옮김, 2011,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考古.

考古學編輯委員會, 1986, 『中國大百科全書 : 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仇士華·蔡蓮珍, 2009, 『14C測年級科技考古論集』, 文物出版社.

孟德魯斯 著, 鄭師許·胡肇椿 譯, 1936, 『考古學研究法』, 世界書局.

蒙德留斯 著, 滕固 譯, 1937, 『先史考古學方法論』, 商務印書館.

李濟, 2006, 『李濟文集』 2, 上海人民出版社.

徐苓, 2009, 『留學生與中國考古學』, 南開大學出版社.

陳星燦, 1997,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濱田耕作, 1922, 『通論考古學』, 大鐙閣.

Oscar Montelius, 1903, *Die a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논문

강인욱,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중국 동북지방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고고학보』 56, 한국고고학회.

이유표, 2024, 「중국 초기'고고학자'들의 고고학 인식과 활동」, 『동북아역사논총』 83, 동북아역사재단.

이현우, 2024,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와 그 영향」, 『동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역사논총』 84, 동북아역사재단.

仇士華·張雪蓮, 2008,「中國碳十四年代學的始創者-仇士華先生訪談錄」,『南方文物』2008-4.

唐際根·曹音, 1997,「張光直談中國考古學的問題與前景」,『考古』1997-9.

佟柱臣, 1979,「新的發現,新的年代測定對中國石器時代考古學提出的新問題」,『社會科學戰線』1979-1.

蒙蓋特 著·華平 譯, 1956a,「蘇聯考古學緖言(第一章)」,『考古』1956-5.

_____, 1956b,「蘇聯考古學緖言(第一章)」,『考古』1956-6.

_____, 1957,「蘇聯考古學緖言(第一章)」,『考古』1957-1.

石興邦, 1956,「略談新石器時代晩期居住遺址的發掘」,『考古』1956-5.

蘇秉琦, 1948,「瓦鬲的研究」,『鬪雞臺溝東區墓葬』, 國立北平研究院 史學研究所.

_____, 1965,「關於仰韶文化的若幹問題」,『考古學報』1965-1.

_____, 1984,「陝西省寶雞縣鬪雞台發掘所得瓦鬲的研究」,『蘇秉琦考古學論述選集』, 文物出版社.

孫祖初, 1998,「考古地層學的中國化曆程」,『青果集』, 知識出版社.

安特生 著, 袁復禮 譯, 1923,『奉天錦西縣沙鍋屯洞穴層』, 農商部地質調查所.

梁思永, 1936,「小屯, 龍山與仰韶」,『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下冊,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_____, 1959a,「昂昂溪史前遺址」,『梁思永考古論文集』,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_____, 1959b,「後岡發掘小記」,『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楊立強, 2013,「對考古地層學的認識」,『文物世界』2013-1.

楊晶, 2009,「中國考古類型學研究的典範之作」,『南方文物』2009-1.

嚴文明, 1998,「中國新石器時代研究簡史」,『史前考古論集』, 科學出版社.

劉斌·張婷, 2003,「建國後考古地層學的發展」,『文博』2003-3.

_____, 2016,「中國考古學發展中的蘇聯影響」,『東南文化』2016-5.

俞偉超, 1989,「關於"考古類型學"的問題-爲北京大學七七至七九級青海, 湖北考古實習同學而講」,『考古類型學的理論與實踐』, 文物出版社.

_____, 2001,「20世紀中國考古學的一座裏程碑」,『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俞偉超·張愛冰, 1992,「考古學新理解論綱」,『中國社會科學』1992-6.
李濟, 1933,「殷墟銅器五種及其相關之問題」,『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____, 1948,「記小屯出土之青銅器」,『中國考古學報』1948-3.
____, 1952,「記小屯出土之青銅器(中篇 鋒刃器)」,『臺灣大學文史哲學學報』1952-4.
____, 2006,「殷墟器物甲編: 陶器(上輯)」,『李濟文集』3, 上海人民出版社.
張光直 著, 陳星燦 譯, 1995,「考古學和中國歷史學」,『考古與文物』1995-3.
張雲鵬, 1957,「由湖北石家河遺址發掘方法的 主要錯誤談學習蘇聯先進經驗」,『考古』1957-2.
張忠培, 1999,「二十世紀後半期中國新時期時代考古學的曆程」,『中國考古學走進曆史真實之道』, 科學出版社.
張忠培·李季, 2001,「蘇秉琦與21世紀考古學」,『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科技考古中心碳十四實驗室, 2024,「放射性碳素測定年代報告(五0)」,『考古』2024-7.
夏鼐, 1948,「齊家期墓葬的新發現及其年代的改訂」,『考古學報』1948-3.
____, 1954,「追悼考古學家梁思永先生」,『新建設』1954-66.
____, 1955,「放射性同位素在考古上的應用-放射性炭素或炭14的斷定年代法-」,『考古通訊』1955-4.
____, 1959,「月野考古方法」,『考古學基礎』, 科學出版社.
____, 1977,「碳-14測定年代和中國史前考古學」,『考古』1977-4.

Andersson, J. G., 1923, “An Early Chinese 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The Geological Survey of China.
Charles, Lyll, 1830, “principles of geology”.
Petrie, W. M. Flinders, 1917, “Tools and Weapons: Illustrated by the Egyptian Collection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2,000 Outlines from Other Sources”, Bemard Quaritc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타 자료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https://archaeology.pku.edu.cn/info/1238/1876.htm(검색일: 2024.11.13.)

柴华·李思默, 2023,「先生丨仇士華：雕刻中國考古學時間之軸」,『央廣網』, 2023.9.30, https://news.cnr.cn/2023zt/xs/gdxw/20230930/t20230930_526438117.shtml(검색일: 2025.1.10.)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http://kaogu.cssn.cn/zwb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국 고고 이론과 방법론의 성립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고고지층학과 유형학을 중심으로 –

김봉근

중국은 1920년대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 고고지층학과 유형학 등의 고고 이론과 방법론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리지(李濟), 량쓰융(梁思永), 샤나이(夏鼐) 등 해외 유학을 다녀온 중국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고고학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은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지층학'과 유물이나 유구, 나아가 유적 분석을 위한 '유형학' 등을 중국고고학에 도입 및 접목하여 중국고고학의 토대를 다진다.

1949년 이후, 고고지층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기존의 전통적인 고고지층학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발굴조사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고유형학은 쑤빙치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이전의 단순히 유물을 구분하기 위한 기초적인 유형학에서 벗어나 형식(形式, form)과 형식(型式, type), 고식(古式, primitive type), 양식(樣式, Style), 속성(屬性, attribute)의 개념들을 모두 정확히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형학적 분석과 분류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해 와력(瓦屑)의 변천 양상 등의 시·공간적 분석은 훗날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이라는 다원론적 문화론을 구상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절대연대측정을 위한 기초를 세운 시기이기도 하다. 샤나이와 치우스화(仇士華) 등 여러 연구자의 주도로 전문적인 연구소 설립과 측정기 제작 등 방사성탄소연대측정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다졌다. 이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적과 유물의 절대연대를 밝히는 등 중국고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의 중국고고학은 고고지층학이나 유형학, 절대연대측정법(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등 여러 이론과 방법론은 도입에서부터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중국고고학의 기초를 다졌고, 중국고고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제어: 중국고고학, 고고 이론, 고고 방법론, 고고지층학, 고고유형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Archae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Focusing on Archaeostratigraphy and Typology in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im Bonggeun

In the 1920s, Western archaeologic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such as stratigraphy and typology were introduced to China by foreign researchers. By the 1930s, these approaches were further advanced by young Chinese scholars, including Li Ji(李濟), Liang Siyong(梁思永), and Xia Nai(夏鼐), who had studied abroad. These scholars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Chinese archaeology by integrating and adapting stratigraphy, the basis of archaeological research, and typology, a key method for analyzing artifacts, features, and sites.

After 1949, stratigraphic studies entered a new phase as discussions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rchaeological stratigraph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gan to emerge. These efforts, which laid the groundwork for transforming excavation methodologies, were considered significant within the context of the time. Similarly, archaeological typology saw remarkable advancements under Su Bingqi(蘇秉琦), who moved beyond basic classification to systematically apply concepts such as form(形式), type(型式), primitive type(古式), style(樣式), and attributes(屬性). These typological analyses enabled spatial and temporal studies, such as tracing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pottery vessels like wali(瓦鬲), which later became foundational for constructing the "Regional Typological Theory"(區系類型論), a pluralistic cultural framework.

This period also marke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absolute dating methods. Researchers like Xia Nai(夏鼐) and Chou Shihua(仇士華) spearheaded efforts to set up specialized laboratories and develop radiocarbon dating techniques. These initiatives significantly advanced the ability to determine the absolute chron ology of sites and artifacts, elevating the scientific rigor of Chinese archae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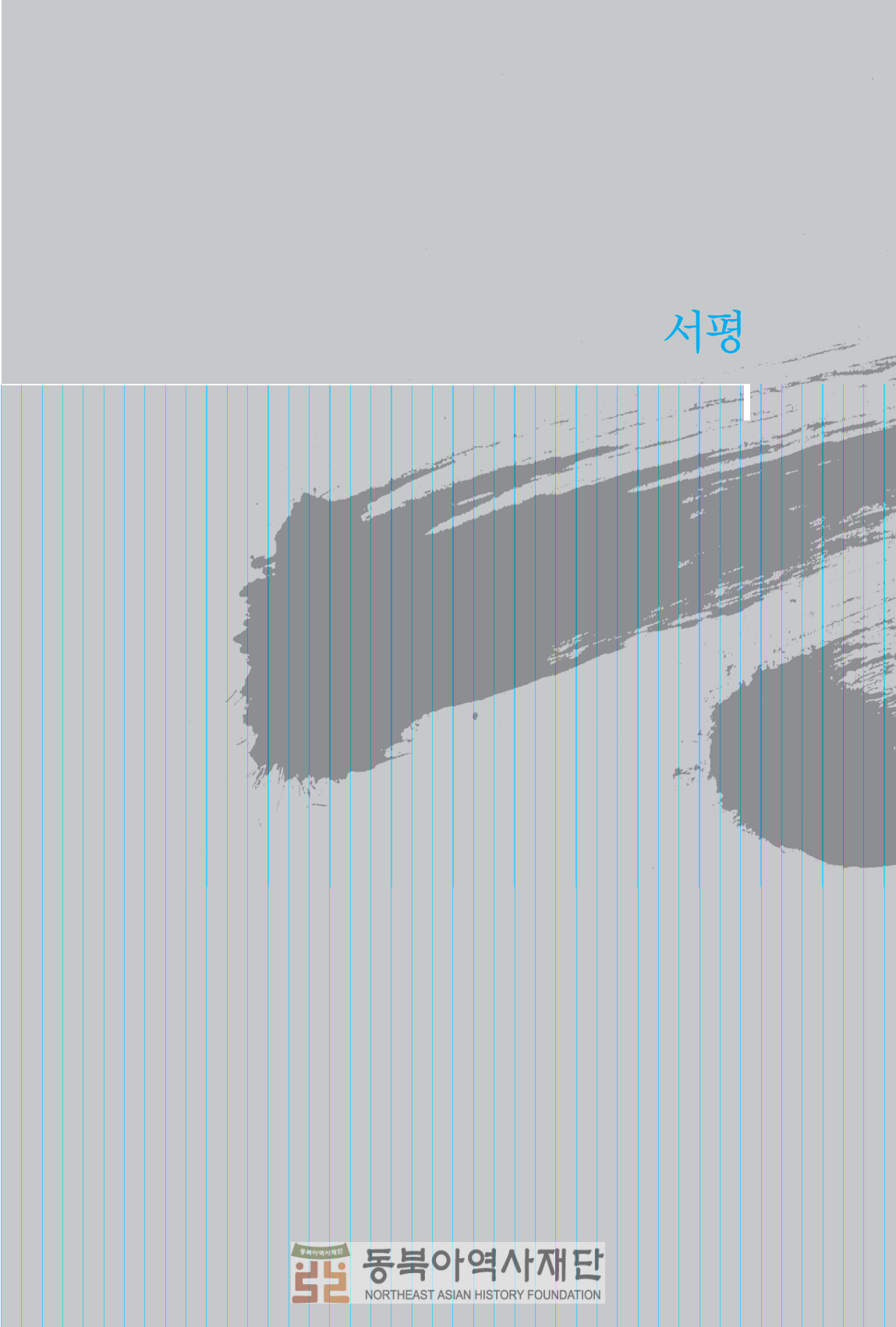
Between 1949 and 1979, Chinese archaeology witnessed continuous discussions and refinements in stratigraphy, typology, and absolute dating methodologies. These efforts not only established a solid groundwork for the discipline but also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Chinese archaeology.

Keywords: Chinese Archaeology, Archaeological Theory, Archaeological Methodology, Archaeological Stratigraphy, Archaeological Typolog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88.013

국가가 서술하는 역사 교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중국 시진핑시대 국가 편찬 대학교재의 역사교육』(권은주 외, 동북아역사재단, 2025)

지관순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들어가며: 현대 중국 어떻게 볼 것인가?
II. 목차와 구성
III. 성과와 의의, 그리고 제언
IV. 충돌과 공존 속에서 균형추 바로잡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들어가며: 현대 중국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특히 중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중국이 부상하여 그 영향력을 확장할수록 그 대답이 어려워진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중국의 부상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더욱 시시각각 주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고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을 제도화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G2'로 불릴 만큼 세계 정치 질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시진핑 정부 3기와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과 함께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중국 위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다시금 불안정한 정세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양국의 갈등 구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은 어떠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연구자 개인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레 던지게 된다.

중국을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행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만들어낼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중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 지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 시대 국가 편찬 대학교재의 역사교육』(권은주 외, 동북아역사재단, 2025)이 출간되었다.

해당 저서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진행된 중등 교육 과정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이제는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교과서는 특정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질서와 역사 인식,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성하고자 하는 국민 혹은 인민의 이상적 형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매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출간은 특정 시기의 역사교육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학문적으로 응답하려는 시도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하에 중국 교육부는 2016~2025년에 "세계 일류 대학, 일류학과 건설" 계획(일명 쌍일류(雙一流) 계획)을 1차와 2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2022년 2월 "〈신시대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교육부 중점 교재 개발 사업 추진방안〉 관련 통지"를 통해 '마크르스주의 이론 연구와 건설공정(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 일명 마공정) 중점 교재' 개발을 '쌍일류' 건설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하고 대학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중국 교육부는 '마공정' 실시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였고, 향후 5년 동안 이데올로기적·문화 전승적 의미가 큰 200여 종의 교재를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2021년 중국 전국 '양회(兩會)' 기간 이후 "학교 교육 외에 사회 생활 영역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의 사상정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취지와 맞물려 있다. 이후 2022년 4월 시진핑 총서기의 대학 강의 시찰 이후 각 대학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개론' 과목 개설과 중앙선전부·교육부 편찬 단일 교재 사용(즉, 국가 편찬 교재), 4사(四史: 중국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와 중화 우수 전통문화 등을 교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1]

이러한 상황 인식에 근거하여, 본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학 역사교육 정책과 국가 편찬 교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역사교육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 정체성과 전략을 조망하고, 나아가 한중 간 역사 서술의 차이가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서의 총론은 본 기획의 취지를 다음과

1 권은주 외, 2025, 『중국 시진핑시대 국가 편찬 대학교재의 역사교육』, 동북아역사재단, 8쪽(이하 본서로 약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같이 밝히고 있다.

> 중국의 사상정치 과목에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대학의 역사교육은 바로 국가 편찬 교재인 '마공정' 교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곧 사상교과서이자 정치교과서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부 당국(즉, 중국공산당)의 의사를 반영하여 수정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 중국을 전망하기 위해, 그리고 갈수록 한중 역사 인식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 편찬 대학 역사교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강조는 평자 표시).[2]

위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가 편찬 대학 역사교재를 분석하는 본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중국의 역사 서술을 통해 오늘날 중국 사회를 이해하고, 그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한중 간 역사 인식의 간극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 목적은 단지 중국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국가 담론, 역사 인식,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한 시각을 포착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본서는 단순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선, 오늘날 중국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본서의 목차와 구성,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그 성과와 연구사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평자로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지점을 덧붙임으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서 제기한 '현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본서가 제시하는 함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의식과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서, 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목차와 구성

먼저 본서는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에서 중국 시진핑 시대 대학 교육 정책과 역사교육 및 국가 편찬 교재를 분석하기 위해 개최된 세 차례 학술대회(2021·2022·2023년 개최)의 연구 성과 중 총 13편을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본서는 시진핑 집권기 이후 강화된 중국의 역사교육 통제 정책과 교과서 국정화 흐름을 분석하며, 특히 대학 교육 단계까지 확대된 중국 당국의 역사서술 통제와 '4사(四史)' 필수 교육의 도입,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중화민족주의를 비롯한 애국주의 의식 강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서는 교과서를 통해 형성되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국가 정체성과 중화민족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밝히며, 중국이 역사교육을 통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교육이 한중 간 역사 인식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향후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정책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총론에서 제시한 기획 의도가 명확하며, 한국사와 중국사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책머리에

총론 중국 대학 역사교육의 현황과 전망 / 우성민

시진핑 시기 중국 교과서의 국정화와 대학의 역사교육

제1부 중화민족공동체와 마르크스주의의 적용

중국 대학교 전근대사 교재의 집필 추세와 중화민족공동체 이론 / 조용준

중국 고등교육 역사교재『중국사강요』의 편찬과 개정: 노예사회, 봉건사회 서술을 중심으로 /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공정『중국근현대사강요』의 중국계 이주민 서술의 특징: 싱가포르 및 대만 역사교육과의 비교 분석 / 김종호
제2부 중외 역사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서술의 함의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 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 권은주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과 인식: '문화 교류 및 전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준성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나타난 '조선의 문화와 명·청과의 외교 관계' 서술 경향과 인식 / 구도영
중국의 '항미원조전쟁'과 대학 역사교재 서술: 역사적 사실과 현재적 함의를 겸론(兼論)하여 / 한상준
제3부 중국사의 재구성, 세계사를 다시 쓰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기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변화: 고등교육출판사 대학교재의 제2차 세계대전 서술을 중심으로 / 김지훈
중국 '마공정(馬工程)' 역사교재에 담긴 세계 경제 발전의 재서술과 중국의 길: '시장체제'에서 '신시대'로의 역사 재구성 / 이승아
발전도상국, 사회주의 대국, 반(反)패권: '마공정'『세계사』(2020)의 현대사 인식과 중국 형상 / 유용태
부록 민족 정책과 언어교육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교육 정책 변천: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사례로 / 구소영
중국의 언어교육 정책과 대학어문(大學語文) / 홍영미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학 역사교육 정책과 국가 편찬 교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는 총론부터 부록까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에서 우성민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대학 역사교육의 정책 변화와 그 배경을 통시적으로 조망한다. 이어 제1부에서는 중국 정치사상과 국가 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체성의 두 축인 '중화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조용준, 이유표, 김종호가 각각 중화민족공동체 이론의 내용과 그 집필 의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 따른 고대사 서술의 특징, 그리고 이 두 사상이 이주민에 대한 역사 서술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에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그 정치적·이념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권은주, 이준성, 구도영, 한상준은 각각 고조선과 한사군, 임나일본부 등을 포함한 한국 고대사, 동아시아 고대사에서의 문화 교류와 전파, 조선시기 한중관계와 문화에 대한 서술과 기본 인식, 그리고 중국 측이 '항미원조 전쟁'이라 명명하는 한국 전쟁 관련 서술을 분석하여 그 현재적 함의를 조명하고 있다.

제3부는 시진핑 시대 중국 정부의 이념과 정체성이 세계사 인식 및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국의 세계사 서술 방식과 중국사 재구성 전략을 분석한다. 김지훈, 이승아, 유용태가 제2차 세계대전과 현대 세계 경제, 국가 발전 담론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역사정책이 단지 국내 정체성 교육을 넘어 세계사 담론에서 중국의 위상을 재정의하고 강화하는 이념적 재구성 작업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민족정책과 언어교육이 대학 역사교육 및 교재 편찬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동되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중화민족'이라는 통합적 국가정체성 구축을 목표로, 소수민족의 역사와 언어를 한족 중심의 국가 담론에 통합하려는 방향성을 분석한다. 구소영과 홍영미는 각각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소수민족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와 중국의 언어정책과 대학어문(大學語文) 제도의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여, 언어와 교육이 단지 문화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권력의 사상 통제와 민족 통합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목차와 기획의도에서 잘 드러나듯, 본서는 시진핑 시대 중국 역사교육의 현 상황과 그 목표를 '사상정치교육-민족통합-세계사 재서술'이라는 세 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론에서부터 부록까지 본서는 시진핑 시대의 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치 이념의 주입, 국가 정체성의 형성,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세계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각 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총 13편의 연구는 시진핑 정권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권력, 역사서술과 정치 이념, 언어와 민족 통치 간의 밀접한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체제하 역사교육의 변화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그 역사적 정당화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본서는 중국 내 교과서 국정화 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한중 간 역사 인식의 간극과 그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가능성까지 조망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장기적 전망과 상호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도 주목할 만하다.

Ⅲ. 성과와 의의, 그리고 제언

본격적으로 본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각각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성민이 집필한 총론은 본서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게 시진핑 시기 국정교과서의 편찬 동향과 대학 역사교육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그 향후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연구의 방향성과 맥락을 제시하는 '항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성민의 연구는 주로 2017년 시진핑 집권 제2기 이래 중국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본격화된 이후의 중국 대학 역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중국 교육부의 정책 방향, 특히 사상정치이론 과목을 통해 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교육부 교재국 산하 국가교재위원회 판공실의 활동을 통해 국정화가 대학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은 '중국 모델'과 '중국 스타일'을 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극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대학 지휘권을 다시 당이 장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화 흐름 속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교육 전반에 걸쳐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는 핵심 이념으로 기능한다. 교과서의 내용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중화민족 스타일을 중심으로 서술되며,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당의 노선에 부합하도록 조정되고 있다. 우성민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교재와 교육 정책이 역사교육의 정치화와 편향화를 심화시키며, 중국 중심의 역사 서사가 팽창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중장기 계획 아래 역사교육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우리가 중국의 대학 역사교육의 특징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우성민의 연구는 시진핑 집권 2기 이래 시기별 정책 변화를 통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조망함으로써, 중국 대학 역사교육의 제도적 변혁과 그 흐름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단순한 정책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국가권력과 교육의 관계라는 분석 틀을 통해 교육부, 고등교육출판사, 각종 교육 개혁 정책 문건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시진핑 정부의 핵심 담론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가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명목 아래 역사 인식이 편향되고, 역사 서술이 팽창주의적 국정 담론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과의 교육적·사상적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고, 한중 간 교육 및 역사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의의가 크다.

이러한 우성민의 분석을 읽으며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일련의 정책 흐름과 정부 및 교육부의 방침이 교육 전반에 미친 영향 속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접한 학생이나 교육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균열과 동조의 목소리는 없었는지 궁금증이 남는다.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되는 만큼, 정책의 일방적 적용뿐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균열과 동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양상까지 함께 분석했다면 보다 입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1부는 '중화민족공동체 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중심으로, 중국 역사교육의 정치이념적 기조와 그 구체적 반영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조용준, 이유표, 김종호의 연구는 교과서라는 제도적 매개를 통해 정치적 담론과 역사서술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특히 '중화민족' 개념이 중국 내부의 통합뿐 아니라 대외적 정당화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담론과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적 작동 방식에 대해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먼저 조용준은 '중화민족공동체' 이론이 중국 대학 전근대사 역사교재의 집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이론의 정치·사상적 배경을 짚으며, 1963년 팡궈위의 「중국 역사 발전의 총체성에 대하여」에서 제기된 '중국 역사 발전의 총체성' 개념이 이후 '통일적 다민족국가' 개념으로 발전했고, 시진핑이 "중화민족은 하나의 총체"라는 이념을 강조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 이론을 확립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이론이 고대사로부터 중화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체계적으로 재서술하는 서사의 기반이 되었으며, 동시에 소수민족 통합과 국가 정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 담론에 부응하여 역사학계 역시 관련 서술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음을 짚었다.

조용준의 연구는 '중화민족공동체' 이론이 정치권력의 필요에서 비롯된 이념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이 대학 역사교육 현장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교육 간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며, 국가 주도의 역사서술 방식이 고등교육에까지 조직적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중화민족의 총체성과 일체성에 대한 서사가 고대사 서술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당대 중국 역사학의 방향성과 그 정당성 문제를 사고하는 데 중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4장 '중국 정부의 의도와 사학계의 동향'에서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견고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나, 이에 부응하는 역사학계의 '동향'은 상대적으로 피상적으로 다루어졌다. 대학 기관이나 교재 편찬 과정에서의 실무적 대응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나, 역사학계 내부에서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정당화되는지, 혹은 비판의 여지가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조명되었더라면, 국가 담론과 지식 생산의 상호작용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유표는 중국 대학에서 많이 통용되는 젠보짠 주편의 『중국사강요』의 편찬 및 개정 과정을 통해 중국 대학 역사교육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수용과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중국사강요』가 어떻게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요구 속에서 재편되어왔는지를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에 대한 서술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중국사강요』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발전단계론-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농민기의나 계급투쟁 서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6년 개정판은 왕조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고, 유물사관 관련 용어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며 이념의 표현 방식에서 유연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유표는 이를 단순한 이념적 후퇴로 보지 않고,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적 조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결론에서 최근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중화민족주의적 용어의 재등장과 함께, 현재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4사(四史)' 교육과 '마공정(馬工程)' 등 국가 주도의 교재 편찬 사업을 '자율성의 회복'이 아닌 '통제의 재강화'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중국사강요』에도 반영되어 고대사 서술 방식에 또 한 차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유표의 연구는 국정 교과서 편찬의 이념성과 고등교육 현장의 실천성 간의 구조적 긴장을 드러내며, 국가 이데올로기가 고등교육 내용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유표의 연구는 『중국사강요』의 편찬과 개정 과정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제도화와 그 내적 변화를 섬세하게 규명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사회발전단계론에서 왕조체계 중심의 서술로의 전환, 유물사관 용어의 축소, 시대 흐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와 국가 통제 간의 긴장 등을 면밀히 짚어낸 분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저자의 정제된 분석과 신중한 전망에 특별히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교과서 개정 과정에 대한 학계 내부의 다양한 견해나 교육 현장의 반응, 유물사관의 '조정'이 이념의 완화인지 재구성인지를 둘러싼 해석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종호의 연구는 『중국근현대사강요』에서 화교·화인 및 대만 관련 서술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싱가포르와 대만의 역사교육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중국이 국가 정체성을 교육을 통해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는 '마공정' 교재가 중화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여, 반제·반봉건의 역사 내러티브 속에 화교·화인과 대만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는 서술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교재 편찬은 단지 대학 교육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된 민족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는 싱가포르와 대만의 역사 교과서가 자국 중심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며, 중국과는 상이한 역사 서사를 통해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종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범중화' 담론이 각 지역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근현대사강요』의 '마공정' 교재에서 나타난 화교·화인 및 대만 관련 서술을 분석하며, 중국이 역사교육을 통해 '중화민족 대가정(大家庭)' 담론을 어떻게 정립하고 외연을 확장해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대만·싱가포르와의 비교사적 관점을 통해, 이들 국가의 역사교육이 중국 중심 반식민·반봉건 서사를 거부하며, 자국 중심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구성해 온 양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교재 분석을 넘어, 국가정체성·정권 정당성·역사인식의 정치적 층위를 보여준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역사 서술의 차이는 각국의 정치권력 구조와 민족주의 전략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 관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의 연구는 기존 중국사 교재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던 싱가포르와 대만의 역사교육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마공정' 교재에서 나타난 화교·화인 및 대만 관련 서술을 중국 중심의 반제·반봉건 민족주의 서사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싱가포르·대만의 자국 중심 정체성 구축 전략과 대조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평자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흥미롭게 읽었으나,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김종호에 따르면 『중국근현대사강요』는 반제국주의·반봉건 서사를 통해 '중화민족'의 통일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반면,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식민지 시기의 근대적 유산을 일정 부분 수용하며 자국 중심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역사서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제국주의 지배의 피해성과 근대화의 유산이라는 이중적 맥락에 놓여 있음에도 역사서술에서 근대성 수용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예컨대 저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계 이주민의 규모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이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를 '조화로운 다종족 중심의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교육적 가치와 연결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나 이견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본서에서 제시된 다른 연구들의 분석을 참조해볼 때, 시진핑 정권하에서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와 '중화민족 대가정' 담론이 범중화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대한 궁금증도 남는다

제2부는 중국 대학 역사교육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서술하는 방식과 그 정치·이념적 함의를 분석한다. 권은주, 이준성, 구도영, 한상준의 연구는 고조선과 한사군, 임나일본부, 동아시아 고대 문화교류, 조선시대 한중관계, 한국전쟁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나타난 서술 내용과 인식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중외 역사'(중국사와 세계사 통합)의 틀 속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면서 실증적으로 드러내며, 중국 역사교육의 공간 안에서 전개되는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치학의 작동 양상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권은주는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서 고조선(한사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근대 역사학의 형성과정에서 왜곡된 한국 고대사 인식의 기원을 통시적으로 일목요연하면서도 면밀하게 고찰한다. 그는 청말 이후 동북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이 근대 일본 식민사학의 영향과 결합하여 '한사군 중심'의 한국 고대사 서술을 정당화하는 구조로 심화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단군조선의 부정, 기자조선 및 위만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해석, 임나일본부설과의 병렬적 수용 등은 중국 사학계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의 도식을 내면화한 뒤 이를 자국의 역사서술 틀 안에서 재구성해 온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역사 인식이 개혁개방 이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중화민족공동체의식론', '중화문명론'과 결합되며,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사를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 정권사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짚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권은주는 이러한 담론이 조공책봉론, 문화 수용론, 문명적 일체성 담론을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전근대 동아시아의 외교·문화적 유사성이 언제든지 '중국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화주의 역사서술의 확장 가능성에 경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권은주의 연구는 중국의 역사교육이 단순한 과거의 서술을 넘어, 국가 이념·정체성·영토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동북아 역사 논쟁의 정치성과 교육 현실을 통찰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결론에서 제기한 "'중화민족공동체의식론'과 '중화문명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용·확대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며,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그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상황 진단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과 중국이 역사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 학술·외교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숙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판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만, 해당 논문에서 분석한 대학 교재는 아직 국정교과서로 공식 채택된 것은 아니며, 현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과거 동북공정 시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이 점은 구도영의 연구 참고). 또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본래 중국 내부의 56개 소수민족을 통합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되었으며, '국내 문제'로서의 통일 논리와 '대외적 확장 담론'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긴장과 경계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더욱 다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성은 2018년 출간된 '공정' 교재인 주환 주편 『세계고대사』를 중심으로,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나타난 동아시아 고대사 관련 서술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동북공정 등 일련의 역사공정을 추진하면서 민족 통합과 자국 중심의 역사 재해석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들이 역사교육과 교재 서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준성에 따르면, 중국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이후 대학 교재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정치·문화 관계를 서술할 때 비대칭성과 위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세계고대사』는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시대와 지역을 구분하면서도, 전통적 중화주의 관점을 유지하며 문명 교류와 전파를 중국 중심의 역사 서사 속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준성은 『세계고대사』가 문명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변 국가와 민족을 피동적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라는 범주 자체도 중국의 질서에 종속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예를 들어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은 중국 – 한반도 – 일본의 순서로 구성되며, 제4절에서는 유학과 불교를 중국 중심 문명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시진핑 정권의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고대의 '천자 중심 동심원 질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결국 동아시아를 구성해온 다양한 민족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배제하는 한편, 중국 중심의 문명 확산 서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교재 서술의 방향이 앞으로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학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이준성의 연구는 중국의 역사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가 이념과 정체성 형성, 대외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세계고대사』와 같은 '공정' 교재를 중심으로, 문명 교류라는 표면적 담론 아래 실제로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가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일대일로'나 '중화민족 대가정'과 같은 시진핑 정권의 핵심 구상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독자적 주체가 아니라 중화문명을 수용하는 피동적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재구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역사교육의 통제와 국정화를 통해 중국이 대학 교육까지 일원화하려는 흐름을 짚어냄으로써, 중국 역사교육의 현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세계고대사』에 대한 분석만으로 중국 대학 전체의 역사교육 경향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명교류라는 서술 전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만 기능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과 전통적인 천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이준성의 문제의식은 권은주의 연구와 유사한 결을 갖는다. 두 연구 모두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역사교육이 단순한 과거 해석을 넘어, 현재의 국가정체성과 정치 전략, 특히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중화문명론, 문명교류론을 결합해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양자의 연구는 현재 중국의 역사교육이 단순한 과거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체성, 외교 전략, 이념 재구성의 일환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동북아 역사 논쟁의 정치성과 교육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통찰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면 구도영의 연구는 앞선 두 사람의 연구와 다소 결이 다르다. 구도영의 연구는 현재 중국 주요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역사교재-『중국사강요』, 『세계중고사』, 『중국고대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조선시대 한중 관계 및 문화 서술의 양상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대학 역사교육의 실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교재 간의 내용 구성과 역사 인식의 차이를 통해 중국 역사서술의 다층성과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세 역사교재는 조선에 대한 서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사강요』는 국내사 중심으로 조선 관련 내용이 임진왜란에 한정되며,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이 강하나 중국 중심주의는 다소 완화된 편이다. 『세계중고사』는 유럽사 중심으로 아시아 서술이 매우 제한적이며, 조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되 '문화원조론' 등 과도한 중국 중심주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고대사』는 외국과의 교류를 더 많이 다루며 다양한 관점을 일부 반영하지만, '종번 관계' 등 제국주의적 개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구도영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 대학 역사교재들이 아직은 비교적 온건한 서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학계에서 조선시대사와 문화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역사교재의 서술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의 연구는 중국 역사교육의 경향을 단지 '중국 중심주의'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교재별·시기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중국 대학의 역사 인식이 아직 일관된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내포하고 있어, 중국 역사교육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도영의 연구는 이준성, 권은주의 연구와 비교할 때 분석의 방향성과 문제의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준성과 권은주는 중국의 역사교육이 현재의 정체성, 영토, 국제 질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중국 중심주의적 서술과 그 함의를 경계한다. 반면 구도영의 글은 현재 중국 대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역사교재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조선시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관계와 문화 서술의 구체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의 분석은 각 교재의 특징과 서술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특정한 이념적 흐름이나 국가 전략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교재들이 담고 있는 역사적 관점과 교육적 구성의 현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구도영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세계사 교재들이 여전히 조선,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제한된 설명만 제공하는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는 상대적 비중이 크고 상세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주로 의식하는 대상이 서구이며, 이러한 인식이 역사 서술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도영은 현재의 교재들에는 최근 중국 학계에서 제기되는 '문화원조론'이나 '문화기원론'과 같은 중국 중심주의적 서술이 아직은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는 해당 교재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편찬되었고, 당시에는 조선시대사와 관련한 첨예한 논쟁이 중국 내에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배경적 설명도 함께 제공된다. 그는 최근 중국 학계에서 조선시대사 및 문화사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서 한국 관련 서술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도영의 연구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역사교육의 현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도영의 실증적 분석과 이준성·권은주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 역사교육의 서술 방식과 그 정치·이념적 함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상준의 연구는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및 대학 역사교재의 관련 서술을 분석하여, 이른바 '항미원조전쟁'이라는 명칭에 담긴 중국 정부의 역사 인식과 그 현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그는 먼저 한국전쟁 개전 직전 중국이 보였던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상기시키며, 이후의 참전 결정 역시 방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에 가까웠음을 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한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을 미국을 상대로 한 자주적 승리이자 정의로운 전쟁으로 선전하는 공식 서사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그는 『중국근현대사강요』, 『중화인민공화국사』, 『중국혁명사』, 『당대중국외교』 등 주요 대학 역사교재에서 '항미원조전쟁'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서술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이면에 자리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추적한다. 이들 교재는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을 미중 간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참전을 방어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그 결과를 '위대한 승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전쟁 초기 중국 내부의 갈등과 주저, 미국과의 충돌 회피 시도 등을 축소하거나 생략하며, 특정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억의 재구성'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권 이후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은 중국의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적 목표 및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정세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민족주의 고양과 체제 정당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한상준은 이와 같은 역사서술은 학습자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인식보다는 국가가 설정한 방향성과 기억을 주입하는 성격을 띠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역사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서술이 국제적 역사 인식의 다양성과 보편성에서 중국의 서사를 고립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이외의 관련국들의 기억과 해석을 함께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서 '항미원조전쟁'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으며, 이 서사가 중국의 대내외 정치전략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 개전에 대한 중국 내부의 초기 갈등과 참전 결정의 복잡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일방적이고 정당화된 전쟁 서사가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상이한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서사가 민족주의 고양, 체제 정당화, 대미 정당성 확보 등과 결합된 정치적 전략임을 지적하며, 역사교육의 정치성과 선전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내 역사서술의 의도성과 정치적 기능을 잘 조명하고 있으며, 향후 실제 대학 교육 현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의 수용 양상과 학습자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확장된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지훈은 『세계사-현대사 편』(2006)과 『세계현대사』(2020)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서술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 서술 전략을 조명한다. 2020년 교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기점을 기존의 1937년 '7.7사변'에서 1931년 '9.18사변'으로 앞당기며, '8년 항전'이 아닌 '14년 항전'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이는 중일전쟁(항일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자 전 세계 반파시즘전쟁의 일부로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그 속에서 중국의 '동방 주전장' 역할을 부각시킨다. 해당 2020년 교재는 카이로 선언을 인용하여 일본이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점령한 지역, 즉 만주, 대만, 펑후제도뿐 아니라 현재 영토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도 중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를 통해 현재의 영토 주권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의 연구는 중국이 자국의 역사적 위상을 부각시키고, 국제 질서 재편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14년 항전'과 '동방의 주전장' 담론, 영토 주권 관련 역사 서술 등을 통해,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교재에서도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김지훈의 연구는 구도영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세계사 서술에서 자국을 중심적 위치에 두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세계사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일련의 전략적 서사 재구성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승아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이승아의 연구는 『세계사 현대사편』(2011), 『세계현대사』(2013), 『세계현대사』 개정판(2020) 간의 서술 변화에 주목하면서, 시진핑 정부하 '신시대' 담론이 역사서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시진핑 체제하에서 『세계현대사』 교재에 나타난 '중국 vs 미국'의 이분 구도와 중국의 글로벌 주체성 강조가 단순한 역사서술의 변화를 넘어, 국제질서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전략적 대응을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세계현대사』가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정책을 반영해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향후 마공정 교재들이 대학과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승아의 연구는 세 시기의 교재를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세계사 서술이 정부 정책과 '신시대' 담론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실하고도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결론에서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반영하며 국가 정책의 당위성을 세계사적으로 설명한다"는 진술은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논증된 내용을 간략히 반복하는 데 그쳐, 분석의 함의를 보다 폭넓고 심화된 방향으로 확장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실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나 비판적 시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더욱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기대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유용태의 연구는 중국 정부가 대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편찬한 『세계현대사』(2020)의 인식 체계와 서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교재가 중국 역사학계가 개혁개방 이래 추구해온 '중국 특색의 세계 통사'의 성과이자, 3종의 국가군(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발전도상국)을 설정하고 그 상호작용을 중심에 둠으로써 유럽 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이자 발전도상국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국사를 세계사 속에 통합하려는 특징을 보이며, 제3세계 발전도상국의 단결, 반패권적 서사,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도상국 현대화의 모델로 제시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유용태는 『세계현대사』가 중국 지도자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개념어들을 역사 서술에 활용하며 '중국판 세계사'의 체계화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교재가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세계사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보였음에도 자국사를 보편사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세계사 서사가 국민 정체성 형성을 중시하는 자국사와 달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자국사 확장'은 21세기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중국 중심주의'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반성을 결여한 세계사 서사는 결국 국내용 서사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우성민의 연구가 본서 전체의 방향성과 맥락을 제시하는 항해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유용태의 글은 제3부에서 교과서 분석이라는 실증적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김지훈과 이승아의 면밀한 분석과 긴밀히 연계되어 그 논의들을 보다 거시적인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더불어 유용태는 중국 교과서에 담긴 세계사 인식을 단지 서술 방식이나 정책 반영성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판 세계사'라는 서사 전략 자체의 이념적, 구조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이 기획한 '새로운 세계사'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나아가 '(중국) 중심주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본서의 방향성과 문제의식을 집약하는 결론과 같은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 밖에 부록「민족 정책과 언어교육」은, 본서가 중국 대학 역사교육의 변화와 그 사상적 기조를 조망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역사교육이 성립하는 제도적·정치적 기반, 특히 민족정책과 언어교육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국가 통치 메커니즘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이 부록은 역사 서술을 뒷받침하는 교육 행정의 현실과 그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역사교육과 국가 통합 전략의 상호작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컨대, 소수민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역사교육이 어떻게 병행되고 있는지, 중화민족 담론과 언어 통합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재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구소영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사례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 정책이 네 단계로 변화해왔음을 밝혔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에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보통화(한어) 중심의 통합 교육과 '중화민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동체의식 함양이 교육의 중심 목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민족 교육의 중앙집권화는 자치권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진정한 통합이 아닌 강제적 동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홍영미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보통화 보급을 중심으로 전개된 언어·문자의 통일 정책이 실상은 소수민족에게 자기 언어 포기를 유도하는 간접 강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대학어문(大學語文)' 과목은 단순한 언어 능력 함양이 아닌, 중화 전통문화 전승과 애국주의 교육, 그리고 사상정치교육의 도구로 기능하며, 국가 통용 언어의 권위를 수호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그는 언어교육이 단순한 기능 교육이 아니라 사상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

두 연구는 중국의 역사교육을 지탱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로서 언어 정책과 민족 정책의 교차점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본서의 문제의식을 교육 제도적·정치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구소영은 소수민족 교육의 변천을 통해 중앙집권화된 민족 동화 정책의 심화와 그 이념적 모순을 드러내고, 홍영미는 언어교육이 사상정치교육 및 국가 통합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두 연구는 '중국판 세계사'라는 역사서술의 이념적 기획이 단지 서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언어, 교육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역사교육을 둘러싼 복합적 권력구조와 국가 전략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중국 시진핑 시대 국가 편찬 대학교재의 역사교육』에 실린 13인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의 연구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본서는 13인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이 시진핑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역사교육의 '국가화'와 '이념화' 과정을 정밀히 분석한 책이다. 대학 교재 분석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가가 승인한 특정한 해석 체계와 기억의 위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이념적 지향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대학 교재는 단지 지식의 축적 공간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서사를 공식화하고 구조화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사상정치의 텍스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점에서 해당 저서가 수행한 중국 대학 역사교재 분석은, 시진핑 시대의 정치적·이념적 구조를 이해하고 중국의 사상적 전략이 어떻게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구현되는지를 심도 있게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적 의의와는 별개로 총론부터 부록에 이르기까지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은 일반 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장은 집필자의 전공 분야와 중국에 대한 시각에 따라 서술 방식에 편차가 있으며, 일부 자료와 논문이 중복 인용되어 내용이 반복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특히 제1부부터 제3부까지 시진핑 정권의 성격과 교과서 국정화의 배경, 이른바 '마공정' 담론이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독서가 진행될수록 피로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서는 대중 교양서보다는 현대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서의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충돌과 공존 속에서 균형추 바로잡기

이제 도입부에서 제시한 대로 본서의 함의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본서를 정독하며 평자는 우리가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13편의 글을 완독하는 과정에서 평자는 시진핑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과정이 오히려 '위기감'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조급한 대응으로 비쳤다. 그리고 이러한 감상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우려로 이어졌다. 그 우려는 다음과 같다. 본서에서 중국의 역사 교육과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이 자칫 '중국 위협론'과 결부되어, 중국을 본질적으로 경계와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서는 초지일관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 교육과 역사 서술이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재구성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역사적·문화적 갈등을 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시키고 미래 세대 간의 상호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이러한 본서의 논지는 중국의 부상을 주변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권은주가 쓴 「책머리에」 '2035년, 중국 대학의 역사교육을 그려보며'를 들 수 있다. 그는 해당 부분에서 중국이 역사를 활용해 '중화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며, 이는 주변국 역사와 중첩되는 부분을 중국 중심으로 서술하고 교육함으로써,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이백(李白)의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月下獨酌)」라는 시를 언급하며 중국이 '중국몽'만을 좇아 주변국의 우려를 외면하고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의 국가 위상에 맞는 선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행사하기를 촉구하였다. 나아가 그는 한국 또한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

권은주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조하지만, 그 비판이 자칫 '중국 위협론'의 틀에 고착되어 중국을 본질적으로 경계와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낳을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혐중(嫌中)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진핑 정부의 권위적이고 강경한 국가 전략이 가진 한계는 분명하다. 이는 본서를 비롯해 많은 연구에서 잘 드러난 바이다. 그러나 현 시진핑 정권이 가진 한계만을 근거로 중국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한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갈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 위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를 비롯해 해외 학계에서는 최근 시진핑 정부의 행보만으로 중국의 부상과 행위를 반드시 위협론으로 귀결시키거나 간주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짚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중국 위협론'이나 '중국 위기

3 본서, 30~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론'을 경계하며, 중국 내부의 복합적인 역동성과 공산당의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히고 다층적인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4]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본서를 토대로 향후 전개될 연구들은 중국의 역사교육 강화와 민족주의 담론의 확산을 날카롭게 분석하되, 이를 단선적인 '중국 위협론'으로 환원될 우려를 피하면서 그 복합적 성격과 정치적 대응 전략을 다소 유연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시진핑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그것이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분명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일면적 관점으로 흐르지 않도록, 충돌과 공존이 병존하는 구도 속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인상 깊었던 권은주의 '이백'의 비유를 빌리자면, 이백이 자신만의 흥에 취해 보이는 행위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찰적으로

---

4 평자가 참고한 논문은 이남주, 2023,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 『황해문화』 118; 이민자, 2023, 「중국 위기론과 중국 위협론 사이에서」, 『성균차이나브리프』 11-4; Rana Mitter, 2025, "The Once and Future China: How Will Change Come to Beijing?," *Foreign Affairs*, vol. 104, no. 3, May-June. 등이다. 이 중 저명한 현대 중국사 및 정치사 연구자인 Rana Mitter의 글은 중국의 미래 변화에 대해 주목할 만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 그 핵심 논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Rana Mitter는 서구인들이 예상해온 것과 달리 중국의 미래 변화가 지금까지 서구식 민주화나 급진적 붕괴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는 중국의 미래가 공산당 내부의 점진적 조정과 정책적 적응을 통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특히 시진핑 이후의 권력 이양과 세대교체에 주목한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지우링허우(90後)' 세대가 향후 중국의 지도층으로 부상할 경우, 이들이 경험한 상대적으로 개방된 언론·사회 환경과 실용주의적 세계관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보다 유연하고 덜 대립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짚었다. 이에 그는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단선적인 예측보다는, 공산당이 정당성 유지를 위해 대중의 요구와 구조적 현실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정책을 조정해온 내부의 복합적인 역동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국의 미래 변화가 체제 내부의 조정, 점진적인 정책 변화, 또는 통제된 개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중국을 하나의 방향으로 단정하기보다 변화의 복수 가능성과 경로 의존성을 고려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곧 중국의 '취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자국 중심적 역사 서술이나 공격적 민족주의의 표출, 그리고 '맑은 정신'에서의 국제적 책임 이행이나 협력 의지 모두를 적절한 거리에서 냉정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우리 자신 역시 이백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쳐 잡는' 자세로 타자를 면밀하게 관찰 및 평가하고 균형 잡힌 시각 위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해나갈 때,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 또한 더욱 명확히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평자는 본서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춧돌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본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 속에서 '균형추'이자 '거울'로 작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 성과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5]

---

5 이는 본서의 집필자 중 한 명인 유용태가 최근 기획 좌담회에서 강조한 '균형추 역할', 그리고 백영서가 『思想』 현대중국 사상 특집에서 제안한 '상호 성찰과 자기 변혁의 거울로서의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착안하였다. 먼저 유용태는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냐 (과거 제국의 위치로의) 회귀냐의 양면을 주의 깊게 보면서 '불가원(不可遠) 불가근(不可近)'의 2개의 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중국의 부상을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이 내부적으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포위공포증'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중국연구자가 위협론과 회귀론 사이에서 여론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백영서 · 배경한 · 유용태 2024, 「[기획좌담] 중국근현대사 연구를 진단하다」, 『중국근현대사연구』 102, 12~14쪽). 또한 백영서는 오늘날의 불확실성 증대 상황은 문명사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차이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할 사유를 얻기 위해 중국사적 사상 자원과의 비판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에 대한 단순한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방법으로서의 중국' 및 '글로벌 차이나' 담론처럼 중국을 역사적으로 구성된 존재이자 지구적 자본주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중국 안팎의 삶이 상호 연동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인식은 상호 성찰과 자기 변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서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넘어 '우리는 중국에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을 '상호성찰과 자기 변혁의 거울'로 볼 것을 제언하였다(白永瑞, 2025. 3, 「相互省察と自己変革の鏡としての中国」, 『思想』, (特集, 現代中国の思想)의 권두언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 · 의결 ·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 · 심의 · 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 · 중관계연구소, 한 · 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편집위원

구도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8호(2025. 6)

초판 1쇄 발행 2025년 6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